第三篇　文　化

第一章　社會・經濟
第二章　教　育
第三章　言　論
第四章　民　謠
第五章　題永詩歌
第六章　言語與方言
第七章　民俗與傳說
第八章　體　育

第1章 社會·經濟

第1節 廣州郡의 農業

廣州郡은 예로부터 수도 서울의 주변에 자리하여 근교농업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다. 광주군과 인접하여 있는 여주와 이천이 유명한 쌀의 주산지라면 廣州郡은 밭농사와 원예 작물, 특히 채소원예가 풍족한 고을이었다.

이러한 밭농사 중심의 경작은 廣州郡 住民들의 주요 所得源이 되었으며, 오히려 논농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廣州郡 비닐하우스 재배의 집산지인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이 1963年에 서울시에 편입되고, 1970年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서울 근교지로서의 유리함이 없어지게 되고, 일부지역의 성남시 편입, 팔당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등이 생기게 되자 廣州郡의 밭농사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처럼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어 온 廣州郡의 農業을 時代別로 구분지어 살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廣州郡의 農業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하나 하나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廣州郡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농업에 대한 史的 資料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더라도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것도 많았다.

1. 先史 및 上古時代의 農業

선사 및 상고시대의 農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農耕文化의 起源과 경작 농작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農耕文化의 기원을 살펴 보고, 초기 농업의 진행과정을 시대별로 구분지어 각각의 특징을 언급하고자 한다. 당시의 農業과 農村生活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우리민족의 生活을 보는 것이므로 한단계 한단계의 발전과정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1) 先史時代의 農業

(1) 農耕文化의 起源

우리나라의 農耕은 華北文化의 영향을 받아 後期新石器時代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華北의 仰韶 및 龍山文化가 한반도에 피, 기장, 조, 수수 등 밭곡식의 재배를 도입케 하는 힘이 되었다는 추측이다.

또한 이무렵에 쓰였다고 믿어지는 農具로 石초, 鹿角製掘棒, 저牙製, 낟 등이 발굴되고 있다. 탈곡제분용인 돌칼도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의 청동기·철기 시대까지 계속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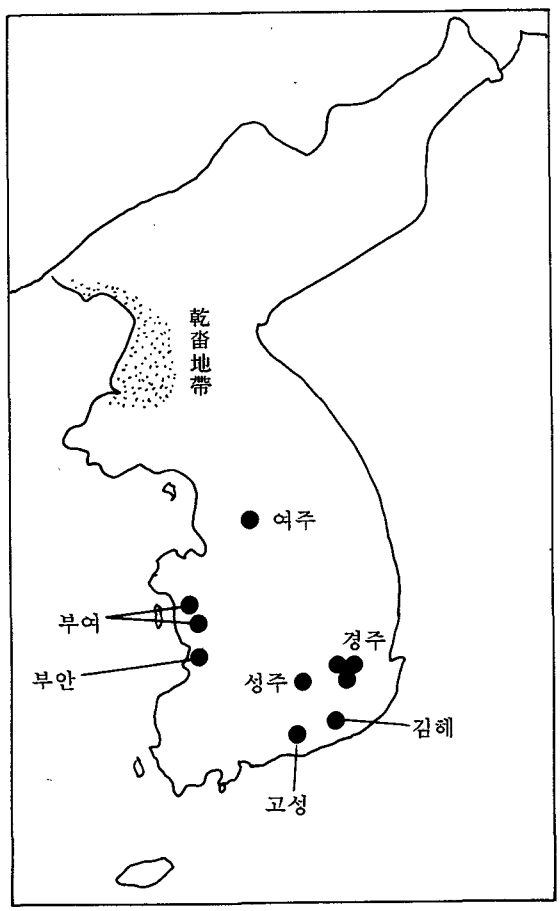
용되었다.

이렇게 農耕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 新石器時代 後期의 증거가 현 경기도 漢江의 流域인 校洞, 岩寺里 渼沙里 등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紀元前 1000年경부터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는 만주를 거쳐 온 소위 無文土器들이 번져 들어 오고 있었다. 이와 함께 靑銅器도 도입되어 종래의 無文土器를 대신하여 櫛文土器, 紅陶, 黑陶 등 다채로운 토기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農耕의 發達과 牧畜이 실시되었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漁撈를 주업으로 하던 종래의 신석기문화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의 후기에 가서 北方文化의 영향으로 農耕이 싹텄으리라 추측이 되지만 제법 農耕다운 農耕文化로 들어온 것은 靑銅文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無文土器의 出土地는 전국에 걸치는데 이들 處所에서 半月形石刀가 아울러 발견되었다. 이 반월형석도는 摘穗用 農具로 中國의 龍山文化에서 받은 영향의 소산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



金海具가 炭化未 1~2世紀 A.D.
固城具가 米粒 先史時代
星州古墳 벼껍질
慶州銀鈴塚 벼껍질 5世紀
慶州皇吾里 16號墳 벼껍질
慶州南山長倉址 炭化米
扶安所山里 土器벼자국 先史時代
扶餘邑扶蘇山 炭化米 百濟?
扶餘郡 論峙里 炭化米 百濟?
驪州郡 欣岩里 炭化米 6~7世紀 B.C

(그림-1) 벼 또는 쌀에 관련된 出土品 發掘址

고 남한강변 흔암리에서 발굴된 石器와 土器 그리고 炭化米, 皮麥, 조, 수수 등 穀粒의 발견은 한반도 農業史硏究에 큰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先史址에서 出土된 炭木의 放射能年代를 測定한 결과 약 3000年前이나 되는 古代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지금까지 국내외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以前에 벼(稻)의 재배가 우리땅에 渡來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傳來經路도, 伴出된 석기, 토기가 북방계이며 또 남한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흔암리 선사취락지의 한반도 지리상의 위치로 보아, 北向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와 아울러 한강유역의 농경문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靑銅期時代의 農業

靑銅期時代에는 農耕技術이 더욱 發達하여 돌보습이나 돌괭이, 나무로 만든 쟁기로 밭갈이를 하고, 조·피·수수·기장·보리·콩 등을 재배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벼농사도 짓고 있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김해의 조개더미 외에 여주군 흔암리와 부여군 송국리에서 炭化米가 발견된 점과 부안군 소산리, 토산리, 반곡리와 부산 아치섬에서 볍씨자국의 있는 토기가 발견된 점 등이 있다.

그리하여 신석기시대보다 농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냥과 고기잡이도 아울러 발달하였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농업은 금속문화가 발전하면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갔다. 새로운 農事道具가 使用되고 農耕技術이 더욱 더 發達함에 따라 생산이 크게 증대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한데 묶어 이른바 雜穀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稻米가 도입되기 전에는 피·기장·조·대맥·소맥 등이 다 주요 곡식이었다. 그중 맥류는 비교적 後期에 들어 왔다고 보는 것이 그 原產地와의 거리로 보아 합리적이다.

그리고 小粒穀類인 피·기장·조는 초기의 主栽培作物로서 田作으로 가꾸어졌으며, 수확·탈곡·제분되었다.

豆類 특히 大豆는 그 原產地 추정에 약간의 異說이 있으나 만주일대를 原產地로 삼을 수 있다는 증거가 상당히 있다. 權臣漢 氏의 報告에 의하면 韓國에 大豆의 野生種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야생종과 재배종간의 중간형이 발견되며 地方種의 數가 많아 만주와 함께 韓國도 大豆의 원산지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小粒雜穀類를 뒤쫓아 들어 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맥류는 조와 함께 오랜동안 粟麥文化를 누려 왔다. 이 점은 華北에서나 한반도에서나 일치한다고 보는데, 「三國史記」를 참조하더라도 5~6세기까지 粟나 麥에 관한 記事가 농사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맥류의 기원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선사시대는 우리나라에 농업이 전래되는 시기이며, 전반적으로 원시적 형태이지만 農具 등을 만들어 農業發達에 기여하였다.

2) 上古時代의 農業

(1) 馬韓·辰韓의 農業

三韓은 부여·고구려·옥저·동예 등과는 달리 南方系列의 部族國家이다. 삼한의 弁韓·馬韓·辰韓 중 後者는 北方 流移民社會로서 처음에는 지금의 廣州方面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

데 후에 차차 비대해져서 현 경기도 전체와 강원도 일부까지 펴져 있었다. 馬韓은 辰韓과 각축을 거듭하면서 진한의 南方, 즉 충청·전라를 지배하고 있었다.

考古學的으로는 철기시대의 후기라고 보는 무렵(A·D, 0~3세기)으로서 靑銅器는 實用具에서 물러 가고 鐵器가 보급되었다. 洛東江 하구에서는 철생산이 활발해져서 낙랑과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하였으며,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나 대동강 기슭의 낙랑군, 대방군에서는 철제 농구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辰韓과 馬韓時代의 農業을 살필 수 있는 中國古典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 社會에는 파종기와 추수기에 성대한 季節祭(제사와 가무·음주 등)가 있었으며 또 마한 백성들은 누에를 길러 綿布를 짰다고 한다. 下種이 끝난 5月에 祭를 올리는 행사로서는 얼마 전까지도 내려오던 習俗인 端午—「수릿날」이라 하여 수리치떡을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다. 연관시킬 수도 있다.

(2) 百濟·新羅·統一新羅의 農業

백제는 건국 이후 南으로는 점차 마한을 잠식하고, 낙랑과 대방을 점령한 북의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백제는 그 構成民이 北方移住民과 土着民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륙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비교적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양 및 水利施設에 알맞은 하천이 많아 農業國家의 면모를 나타내게 되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多婁王(A.D 33年)때 남쪽 州郡에 稻田을 새로 풀었고 己婁王때 큰 비가 10일이나 와서 漢江이 넘쳐 民家와 田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이때 수해를 입은 田을 보수하게 하였으며,碧骨池를 새로 열었다(330年)"고, 하였듯이 벼재배가 중요시되어 감에 따라 관개공사와 治水工事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日本書記」와 「古事記」에 나오는 韓人池, 百濟池의 기록은 백제의 수리기술이 일본에까지 전파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백제 고분 출토품에서 나오는 따비, 기타 철제 농기구, 그리고 곳곳에서 나오는 炭化米 또는 炭化雜穀 등도 당시의 農業을 살피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新羅는 한반도의 東南方에 치우쳐 있어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늦게 받았으므로 그 原始社會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4~5세기까지도 맥류가 주작물이었으며 구 후에야 벼의 재배가 상당히 보급되고 水利·治水에 힘을 기울였던 것 같다.

統一新羅時代의 기록인 「民政文書」에는 村主位畓, 內觀令畓, 烟受畓 등 職田 口分田의 職種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시대에는 수도작이 主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일대의 고분·적석총 등에서 때때로 출토되는 다수의 철제 농구와 벼껍질·탄화미 등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新羅의 農業에 대해서는 耕作技術뿐만 아니라 농가와 민속까지도 오늘날까지 전래되어 오는 것이 많다. 이른바 명절이라 하여 설·정월보름·오월수리·칠석·팔월한가위·시월고사 등은 그 源泉이 신라에 있는 것이다.

2. 高麗 및 朝鮮時代의 廣州郡 農業

고려 및 조선시대는 농업에 관한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변화된 시기였다. 土地制度와 각종

조세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정책과 제도의 부조리한 시행으로 발생한 모순에 대하여 農民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또한 農業技術도 상당히 발달되었다. 각종 농업서적이 출간되어 다량의 농업 기술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科學的인 農法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諸變化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조선시대 후기의 자료를 통하여 당시 廣州郡의 農業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高麗時代의 農業

신라와 후백제를 병합한 太祖는 田制의 改革과 賦稅의 정정에 우선 힘을 기울였다. 民心의 안정을 위하여 세수의 감면을 단행하고 무질서에 빠진 土地制를 재편성하였다. 한편으로는 솔선수범하여 농사장려에 주력하고, 境內의 농민을 위하여 3년간 田租를 방출하고 農桑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 成宗 2년(983)에는 몸소 籍田에 나아가 경작을 시범하고 神農에게 제사를 지내어 농사를 장려한 일도 있었다. 이후 역대 왕들은 이 정신을 계승하여 농민에게 食糧, 農具를 보급하여 주기도 하고 農牛를 대여하는 권농정책에 주력하였다.

고려의 농업장려기관으로는 穆宗 때의 司農鄕, 忠烈王 때의 農務都監, 忠宣王때의 典農司, 恭愍王 때의 司農司 등이 설치되었는데, 農事의 지도와 감독을 맡았다. 물론 권농기관의 임무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農業의 發展向上을 기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 또는 國家財源의 확보·유지를 도모하는 독려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권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빈민구호와 산업조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義倉, 常平倉 및 社倉制度를 마련하였다.

한편 당시의 재배작물로는 벼외에 종래의 大麥·小麥·栗·서·독서·燕麥·稷·大豆·小豆 등이 있었다. 林木으로는 成宗時 각 道·州·縣에 令을 내려 土品이 耕地로서 적당하지 않을 때 뽕나무·밤나무·옻나무·닥나무 등을 植栽하기를 장려하였고 仁宗 때에도 이러한 나무들을 다른 과일 나무들과 함께 권장하였는데 이 林木들은 잠업, 칠기, 제지의 원료로 당시의 絹織·製紙·기타 工藝의 강盛을 이룩한 토대가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국가적 土地所有制는 더욱 정착되고 확립되었다. 고려 5代 景宗 元年(서기 976)에 田柴科를 두어 문무백관에게 그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支給하였는데 이것을 品田制度라 하였다. 이 제도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토지의 收租權만 當代에 한해서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었으나 관리가 관직을 떠났다 해서 모두 國家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은 그에게 계속 주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11세기 후반 中央集權的 封建體制가 약화되자 토지를 私田化하는 경향이 급진전되었다. 이와 동시에 왕족이나 지배층들이 農民에게 토지를 대여하고 小作料를 징수하는 小作生産關係가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制度에 의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비참해지고, 權力 內部의 암투가 일어나자 社會는 더욱 불안해져 마침내 농민투쟁운동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西京留守 趙位寵에 의한 난(1174年), 明宗 6年(1176) 公州에서 일어난 亡伊와 亡所伊의 農民抗爭, 神宗 2年과 3年의 강릉민란과 전주민란 등이 있다. 이러한 農民의 저항은 조직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社會의 동요와 政治의 문란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었다.

2) 朝鮮時代의 農業

朝鮮時代는 어느 時代보다 많은 社會的 변화를 겪었으며 아울러 農業部門에서도 많은 시련을 겪은 시기이다. 이 시기의 농민은 국가발전의 역군으로, 때로는 국가를 지키는 파수군으로서 많은 역활을 수행하였다.

(1) 朝鮮初期의 農業

① 土地制度

고려 말엽의 田制改革은 이성계 일파의 최대의 정치목표인 동시에 조선 왕조 成立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이성계와 그 세력은 실권을 장악하자 마자 건국직전인 공양왕 3年(139)에 재빨리 田制改革을 단행하여 量田計劃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종래의 私田을 몰수하여 국가의 지배하에 두고 이를 新政權의 官僚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구세력의 물질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新政權의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즉 봉건적 土地公有制의 재편성을 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6道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지배권으로부터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국가의 소유로 편성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등급을 사정하는 土地調査事業, 즉 量田事業을 先行시켰고, 이에 근거하여 공양왕 8년(1396)에 科田法에 입각한 토지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科田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기간을 이루고 있었던 文武百官, 즉 양반에게 지급되는 것이었는데 녹봉대신 지급되는 것으로서 현직관료는 물론 퇴직관료에게도 지급되었다. 이 科田은 경기도내의 토지에 지급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私田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다. 또한 科田法에서는 受田者의 官階와 신분에 따라 18科로 나누어 第 1科의 150結로부터 第 18科의 10結에 이르기까지 각각 차등있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科田의 지급내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收租權만을 移讓한 것으로서 受給者는 국가가 정한 田租率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직접 收租하였다.

太祖 元年(1392)에는 功臣田을 창설하여 개국공신에게 각각 등급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고 太祖 2年에는 다시 元從回軍功을 설정하고 토지를 지급하였다.

世宗 8年에는 王子科田法을 설정하여 왕자, 왕의 형제, 왕의 백숙으로서 大君에 봉한 사람에 대해서는 30結의 토지, 封君者에 대해서는 200結의 토지와 駙馬를 지급하고 그밖의 종친에 대해서도 각각 科에 따라 경기도내의 토지를 주었다.

世祖 12年에는 科田法을 폐지하고 職田을 채택하였다. 그 까닭은 私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科田 및 功臣田 등의 私田을 수도 근교인 경기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과전법 제정의 취지였으나 점차로 科田의 일부를 下三道,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까지 지급하기에 이르면서 과전의 공전 잠식이라는 폐단, 즉 중앙집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모순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朝鮮前期의 토지제도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특수한 土地分配制度들이 다양하게 수립·시행되었다.

② 重農政策

건국 이래로 집권의 강화와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제도를 확고히 정비하였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기본적 바탕 아래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勸農, 水利 등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戶曹의 版籍司가 租稅, 戶口, 土田, 農桑,

豊凶考驗, 진貸, 금散을 다루고, 京城 東郊와 開城 東部에 籍田을 설치 新耕垂範한 것을 보면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역대 왕도 이러한 뜻을 계승하여 水利, 勸農, 農書, 頒布, 救荒에 힘을 기울였다.

즉 太宗 때에 碧骨池의 重修와 農書의 譚刊이 있었고, 世宗 때에는 측우기 발명, 曆書의 간행, 「農事直說」의 頒布가 있었다. 文宗 때에는 防川, 貯水의 계획이 있었고, 端宗 때에는 馬牧場의 설치와 누에종자의 배포가 있었으며 成宗 때에는 누에치기를 장려하고 先代에 못지 않게 農器製造 및 農書刊行에 힘을 썼다. 이상과 같이 활발하던 重農政策은 연산군에 와서는 先代의 功이 無放化 될만큼 해이하게 되었고 이 결과 農民들도 곤궁하게 되었다.

朝鮮初期의 耕地의 확대와 農業增産은 경작기술 특히 農具의 발달을 필요로 하였고 아울러 畜力使用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牛馬의 증식이 활발하였다. 또한 戰用, 驛用, 乘用, 貿易用 등의 목적으로 牛馬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고려 때에부터 힘써온 牛馬事業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어 조직화되었는데, 159個所의 목장에 각각 100필 이상의 雌馬와 50필 이상의 雄馬를 책임지게 하였으므로 전국 公牧場에서 약 2만 4천두 이상의 馬목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웅대한 牛馬事業은 엄격한 관리와 상벌 아래 강행되어, 일반인에게 禁法과 아울러 심한 부담을 안겨 주었다.

③ 農耕技術

조선 초기의 農業技術을 알아 보기 위한 자료로는 「農事直說」과 「衿陽雜錄」이 있다. 먼저 「농사직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자선별, 저장, 처리의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땅을 갈 때에는 春夏耕은 얕게 秋耕은 깊이 하라 하였고, 鍾麻에 대해서는 써레·소스랑·끌개 등 農具 사용의 효율성을 말하였다. 鍾稻에 관한 項에서는 水耕, 乾耕, 移秧, 早稻, 晩의 재배법을 설명하였는데 농구로는 앞에서 기술한 것 외에 밀개·곰배·호미 등을 쓴다고 하였다. 땅이 질고 물이 찬 곳에는 객토(客土)를 권하였으며, 토박한 땅에는 인분, 녹비, 누에똥을 施用함이 좋다 하였다.

벼 移秧法으로는 못자리로 全畓의 10분의 1을 갈아 거름과 耕耘을 한 뒤 선종 및 처리한 볍씨를 뿌려 모를 키우고, 모를 낼 때에는 포기마다 3~4묘를 넘지 말라고 하였다.

田作物 재배에서는 黍粟稷類를 混和하여 條播 또는 撒播하고 조파할 경우에는 발로 撒播할 경우는 쇠스랑으로 흙을 덮고 또 재거름을 쓴다고 하였다.

頭類에 대해서는 早鍾晩種에 관하여 기술하였는데 早鍾은 春耕, 晩鍾은 根耕(그루갈이)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펴 본 「農事直說」의 내용은 조선초기의 모습이지만 경작방식만 보아도 2年 3作, 1年 2作, 單作, 混作, 間作, 休閑 등이 골고루 실시 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토지이용방식은 고려초부터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1年 1作은 한냉하고 농토가 농가 호수에 비하여 넓거나 토질이 척박하고 거름의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 잘하며, 田土가 비교적 좋은 곳(기후가 적당하고 비료의 준비가 있는 곳)에서는 1年 2作 및 輪作方式의 이상형에 해당하는 2年 3作을 행하였다.

「農事直說」과 함께 朝鮮 初期의 農法을 살피는 데 쌍벽을 이루는 「衿陽雜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사직설이 官撰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 農書는 姜希孟의 著作

으로 衿陽縣 衿川(지금의 경기도 시흥 및 과천)에 은퇴하여 있는 동안 엮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本書에 담기 農法은 그 당시에 경기도 일대에서 행하여진 것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農作物의 品種名들이 우선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稻27, 大豆8, 小豆7, 綠豆4, 豌豆1, 黍4, 粟15, 稷5, 唐黍3, 麥6 등 모두 80가지가 나오고 있다. 벼의 품명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稻作이 食糧作物로서 위치를 굳힌지 오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소개된 벼품종 중에서는 中國이나 日本에서 도입한 듯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旱基 또는 旱植栽培의 장점이 기술되어 있고 密植, 深耕, 精耘(除草)을 장려하고 있다. 즉 조식재배에 있어서는 자채, 저광, 次旱稻, 山稻 등은 입춘부터 60~70일경에 旱播하는 것이 좋고 地質이 비옥하고 마르지 않은 땅이 적합하다 하였으니 이는 연평균 기온이 비교적 낮은 중부 이북의 벼재배에 있어 생육기를 보아 품종과 파종기 및 토양조건을 고려한 것이다.

이상의 두 저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초의 영농기술은 크게 발달하였으며 모내기법이 남부지방에서 실시되고 보리와 벼의 이모작이 일부지방에서 이루어졌다. 施肥法의 발달로 휴경지가 없어졌으며, 면화재배가 확대되고 각종 원예작물 및 과수의 재배가 널리 퍼졌다. 이러한 농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크게 늘었다.

(2) 朝鮮 中期의 農業

國初에 활발히 전개되던 각종 정책은 반세기도 못넘어 모순과 무질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산군의 폭정과 지배층의 부질없는 알력, 土豪權族의 횡포와 부패가 농민들을 더욱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결국 量田을 거부하려는 민간소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의 허점 노출과 때를 같이 하여 北胡와 南倭의 침입이 잦더니 기어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7年間의 전란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심각한 식량부족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일부 農民들은 義兵으로 봉기하여 敵兵에 대항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戰後의 대책으로 여러가지 賑恤事業, 海岸, 海島耕作의 장려, 勸農 등이 있었으나 국고는 텅텅비고 기아현상은 쉽사리 호전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屯田은 해를 거듭할수록 民田을 점탈, 겸병하는 폐해를 증대하였고, 그나마 허물어져가는 堰堤조차도 勢家의 수중에 들어 가는 판이었다.

숙종 때에는 40년간이나 흉년이 길게 계속되어 기근이 심하였고 饑死者가 수없이 많았으며, 한때 질병이 전국을 휩쓸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農業技術은 변모를 계속하였다.

빈번한 외적의 침입과 잦아진 외국왕래는 지식인의 세계관 변혁을 일으킬 만큼 서양문물의 간접적 접촉을 이룩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實證·考證派 학자들의 배출을 보게 되었다.

金堉은 「水車制」의 권장에 힘쓰는 한편 新曆인 「時憲制」를 채용케 하였으며, 柳馨遠은 政治·田制·民生·法律·文化·軍事 등에 관한 名論著 「磻溪隨錄」을 남겼고, 朴世堂은 「색경」을 洪萬選은 「山林經濟」를 저술하였다.

임진왜란 중 또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의 中國과 日本과의 通交에 따라 몇몇 外來植物의 재배가 시작되었다. 즉 고추, 호박, 담배 등이 도래되었다. 토마토의 거의 같은 시대에 들어온

것 같으나 별로 재배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당시의 대표적인 저술서 「農家集成」을 토대로 일반 농업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이를 「農事直說」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地耕法에 있어서 「농가집성」에는 척박한 땅에 녹두를 키워 무성하였을 때 갈아서 엎으면 잡초와 병충해가 적어지고 땅이 비옥해진다는 綠肥의 사용을 권장한 것이 세종 및 성종때에 쓰여진 「농사직설」에 비하여 추가되었고, 鍾稻法에서는 이앙적일을 干支로 표시하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의 새로운 農法이 벼재배와 관련하여 기술되었다.

그리고 鍾木化法이 「農家集成」에 수록되어 있는데 木花를 참깨와 靑太사이에 間作하는 것은 木花에 손해를 준다는 기록이다. 또한 木花(棉)의 경작토양으로는 砂質乾燥 土質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당시의 목화재배의 성행과 경제적 위치를 고려할 때 農書에서 木花의 재배를 강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3) 朝鮮後期의 農業

조선 중기 이후로는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은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농민의 생활도 지극히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中興의 英主」라 불리우는 英·正祖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英祖때에는 提堰堂上 備置, 水車의 제조, 昌耕作 科罪 등 水利政策에 힘썼으며, 均役法을 베풀어 일반민의 납세(특히 軍布)의 부담을 덜어 주고 그보충은 「漁監稅」와 「隱結」(토지대장에서 빠진 田畓)의 과세로 충당하였다. 한편으로는 勸農의 敎書가 빈발하였고, 「農家集成」「救荒撮要」 등 서적의 重刊이 있었으며, 소를 통한 경작을 위해 소의 도살을 금하기도 하였다.

正祖도 英祖 못지않게 農政에 유의하여, 堤堰의 개축, 권농행사 장려, 농서의 발간 등에 노력을 기울렸다. 또 林政을 강화하여 「松禁節目」을 반포하고 전국에 封禁區域을 설정하여 산림보호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조림사업을 실시하였는데 宮室用 자재의 확보 및 般材用, 軍用에 충당하고 아울러 風致와 防風 및 홍수사태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

林政외에도 인삼재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인삼은 대중식품이 아닌 고귀한 약초이었으나, 외국수출이 이루어지자 대량생산의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純祖 때에는 흉년과 기근, 그리고 괴질유행이 계속되는데다가 정치의 문란이 다시 심해짐에 따라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

憲宗 때에도 「勸農綸音」을 내리고 둑을 건축하였으나 흉작이 계속되고, 어쩌다 맞는 豐年時에도 小民의 고생은 오히려 흉년보다 더하였다고 한다. 때로는 여러 해 채납된 환곡과 身布, 그리고 부역에 대한 독촉이 성화같아 1年 소작의 豊穀이 모조리 상납되는 참경이 빚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세도정치가 더욱 심해지면서 官紀는 부패의 극을 달리고 國民은 도탄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哲宗 때에 가서는 이른바 「三政」의 문란이 절정에 다다랐으며, 農民은 더욱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다음 高宗때에는 內憂外患의 양상이 근대 열강의 각축하에서 격변하고 복잡화 되어가는 소용돌이로 밀려 들어 가면서 국운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日本의 세력이 침투하여 전국을 휩쓸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농업의 변화도 초래하게 되었다. 植民과 식량획득을 위한 日本의 農政計劃으로 인하여 중세기적 농업경제의 기반 위에서 파행적

인 농업경제 조직이 운용되었다. 「東洋拓植會社」의 설립에 의한 營農移民策, 「勸農模範場」의 창립에 의한 日本 農法의 이식, 米穀造製業의 발달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米作, 棉作, 果樹 재배에는 품종의 도입과 증산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日本式 農具의 수입, 金肥의 도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문란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외래의 자극과 실학풍조가 확대되면서 근세적인 기술의 전입 및 국내 농업사정에의 관심과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1700年代 중기 이래에 고구마의 전래와 더불어 이것에 관한 연구저서가 여러가지 나왔고 「산림경제」가 증보되었으며, 北學派의 碩學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였다.

「北學議」를 지은 박제가 「燕巖集」(특히 그 중의 「課農小抄」)을 지은 朴趾源, 이덕무, 유득공 등이 당시 북학파의 대표적 인사들 이었다. 「北學議」와 「課農小抄」는 그 저자들의 빈번한 燕京 방문에서 얻은 경험과 견문에서 얻은 소산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 온 바와 같이 굴곡이 심한 경로로 발전되어 오는 동안에 이 나라의 農業은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요히려 많은 결점을 나타내었다. 즉 지배층의 收取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농업을 천하게 여기는 사상은 遊食者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농경기술의 과학적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

水利施設도 상당한 변천을 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왜란과 호란으로 인하여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어 없어지고, 政治의 해이에 따른 昌耕 등으로 인하여 水利施設의 황폐는 극도로 심했다. 한편 영·정조 시대에 다시 강력한 水利政策에 의하여 世宗代와 같은 振作을 보아 그 때의 堤堰數는 거의 2300여개에 달하였다. 총 저수지의 거의 절반 정도는 경상도에 있었고, 전라, 충청, 경기 순으로 비슷하게 있었다. 洑의 수효도 경상도에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依存度에 있어서는 평안도가 으뜸이었다. 英·正祖에 활발하던 水利事業도 다음 순조 이래로는 다시 파괴와 昌耕이 시작되어 隆熙 2年(1908)에는 거의 1000개 의 堤堰이 폐기되었다.

다른 한편 天災(특히 旱災)에 의한 凶農과 惡政에 시달린 農民에게 대용식량이 될 외래작물의 도입과 재배에 관하여 관심이 일기도 하였다. 즉 영조 39년(1763)에 통신사 조엄에 의해 대마도에서 고구마가 도입되었고 감자는 고구마보다 60年 가량이나 뒤늦게 北關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특히 감자는 고구마에 비해 재배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불과 수십년만에 전국 방방곡곡에 전래되었다.

畜産은 牛·馬·鶴·山羊 등이 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牛畜은 우량역축으로서 한때 농가 5戶 내지 10戶 마다 1頭의 耕牛를 소유하였고, 우匹과 牛皮를 對日·對露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韓牛는 粗飼料에 견디고 유순하면서도 경작, 퇴비생산·운반용·식용에 아주 긴요하게 쓰여졌다. 馬匹은 비록 체구는 왜소하나 옛날에는 운반용·戰用·貢用으로 활발하게 쓰인 만큼 牧養에 힘썼으나 이때에 와서는 牧場이라고 칭할 만한 것이 별로 없게 되었다. 豚·鷄·山羊은 빈약한 재래종으로서 肉用이나 卵用으로 농가 자급정도를 넘지 못하였다.

양잠업은 한국의 토양이 桑園에 적합하고 기후로는 5~6月 건조기가 잠아 사육에 알맞아 옛날부터 성행되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으며, 일제시대에는 日人에 의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부녀자의 전업으로 맡기기 위해 연구·수행되었다.

(4) 朝鮮時代의 廣州農業

朝鮮時代의 廣州農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란 자료의 부족 때문에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그 실상을 단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후기의 몇몇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住民과 農民 戶數를 살펴보면, 1988년 광주의 총호수는 9,598戶였으며 총인구는 39,261名이었다. 이중 남자가 21,899名이고, 여자는 17,362名이었다. 5年 후인 1904년은 총호수가 9,683호로 증가되었고 전체인구도 41,151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全人口 對 農民의 比는 50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全人口는 경기도의 몇 개 지역(개성, 수원, 한성)을 除外하고는 많은 수이다. 경기도 주요지역의 全人口 및 農民의 비율은 〈表-1〉과 같다.

〈表1〉 京畿道 住民과 農民 인구의 추이

郡(府)名	光武三年(1899)				光武人年(1904)				全人口府 農民比
	戶數	人口			戶數	人口			
		男	女	計		男	女	計	
고 양	—	—	—	—	4,699	10,523	8,801	19,324	—
개 성 (부)	—	—	—	—	13,771	24,627	23,505	48,132	34
강 화 (부)	—	—	—	—	7,698	12,623	11,089	23,712	—
시 흥	—	—	—	—	2,193	4,378	3,374	7,752	—
수 원	—	—	—	—	13,213	31,920	21,280	53,200	96
안 성	2,720	—	—	—	2,720	6,709	5,329	12,038	90
양 성	2,161	4,264	3,504	8,128	2,167	4,885	3,820	8,705	—
광 주 (부)	9,598	21,899	17,362	39,261	9,683	22,330	18,821	41,151	50
죽 산	4,080	9,098	7,911	16,892	4,109	1,251	8,658	18,909	100
음 죽	1,870	4,327	3,272	7,599	1,931	4,296	3,450	7,746	—
양 근	4,201	8,810	7,300	16,110	—	8,575	—	—	—
한 성 (부)	—	—	—	—	42,630	100,959	90,797	191,756	—

(資料)日本農商務省編, 韓國土地農產調査 報告. P 248

農民의 種類는 地主, 自作, 小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廣州의 경우 小作이 많았다. 정확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地主, 自作은 적으며 小作이 12많고 상업겸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개 地主는 개성, 경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小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廣州附近의 地種別 면적을 살펴 보면 〈表-3〉과 같다. 이 表에 의하면 논은 4,884.0町이고 밭은 3,770.0町으로 논과 같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 8,661.0町으로 20.09%를 차지하였다. 또한 산간미경지는 989.0町으로 2.36%, 하변미경지는 600.0町으로 1.43%, 산지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31,497.20町이며 백분비로는 75.24%를 차지하고 있다.

〈表-2〉 農民의 種類(京畿道)

(1904年)

郡 名	農民의 種類			備 考
	地 主	自 作	小 作	
광 주	—	—	많음	상업겸임이 많음
여 주	—	—	소작많음	〃
죽 사	1할	적다	9할	—
연 천	경성인 많음	많음	—	—
장 당	〃	1할	9할	—
풍 덕	경성·개성인	1할	9할	지주는 경성, 개성인9
양 천	경성인 많음	—	많다	경성지주중 보통지주
시 흥	경성인	—	〃	보다 많다.
안 산	〃	극히드물다	〃	
수 원	경성인 많다	2할	8할	
안 성	〃	2할	많다·8할	
양 성	〃	—	—	
과 천	〃	극히 적다	많다	

(資料) 전과 동일 P 260

〈表-3〉 廣州附近 地種別 면적비

(1904年)

地 種	面 積 (町)	一方里中 (町)	白 分 中
논	4,884.0	181.47	11.67
밭	3,777.0	140,33	9.02
합 계	8,661.0	321.80	20.09
산간미경지	989.0	36.75	2.36
하변미경지	600.00	22.29	1.43
하 변 사 지	21.00	4.12	0.25
산 지	31,497.20	1,170.28	75.24

(資料) 日本農商務省編,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 P 169

가축사육은 소, 말, 당나귀, 노새, 돼지, 개, 산양, 면양 등이 있었다. 이러한 가축은 주로 役用, 肉用, 毛用으로 쓰여졌으며 애완용은 없었다. 운반용으로는 주로 말, 당나귀, 노새 등이 사용되었고 牛는 農耕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식용으로는 돼지, 개, 소고기 순이었고 산양은 거의 없었다. 毛用인 면양은 民家에 없었고 황실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며 가금은 卵用으로 닭고기가 주이며 거위나 오리는 거의 없었다.

경기도 주요지역 飼牛頭數를 農家百戶에 비해 살펴보면 (表-4)와 같다. 廣州郡은 農家百

戶에 대하 飼牛頭數가 50마리로 여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여주나 안성은 10頭로 광주의 1/5에 해당되는 적은 수이다. 기타 頭類는 大豆, 小豆, 薪 등이 많이 재배되었고, 공예작물의 대표격인 棉은 전국각도에서 조금씩 재배하지 않는 곳은 없지만(강원도 해안은 제외) 전라, 경상은 적은 편이고 충청도는 많이 재배하였다.

〈表－4〉 農家百戶에 대한 飼牛頭數

(1984)

주요 지역	사우 두수	주요 지역	사우 두수
고 양	20	광 주	50
안 성	10	이 천	20
용 인	20	여 주	10
시 흥	14		

(資料) 전과 동일 P. 632

양봉은 廣州 어느 부락에서나 시행하고 있었으나 극히 적어서 주로 使用하는 것은 강원도산을 행상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이었다.

〈表 5〉 廣州郡 作目別 農作物 種類

廣州郡		利川郡		驪州郡	
穀菽類	米·大麥·大豆·小麥·小豆·粟	穀菽類	米·小豆·大豆·稗	穀菽類	粟
纖維料類	棉	油料類	胡麻	油料類	荏·胡麻
油料類	胡麻·荏·苣麻	菜蔬類	白菜·蘿蔔	纖維料類	綿
果樹類	栗·棗·梨·柿	染科類	茜藍	穀菽類	籾 小麥·大麥·大豆·高粱
菜蔬類	白菜·蘿蔔·芥	穀菽類	米·小豆·大豆·稗	染科類	紅藍花
嗜好料類	煙草	花卉類	躑躅	花卉類	躑躅
花卉類	躑躅	嗜好料類	煙草	嗜好料類	番椒
		菜蔬類	白菜·蘿蔔	菜蔬類	葱·蒜
				果樹類	栗
				花卉類	躑躅

(資料) 전과 동일 p. 611

이밖에 廣州에서 주로 재배되었던 農作物은 表－5와 같다. 이 表는 作目別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당시의 作目體系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인접지역인 여주와 이천에 관한 자료도 제시하였다

3. 日帝의 植民農業行政과 廣州農業의 發達

1) 日帝의 植民地 農業政策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배경은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첫째는, 食糧共給基地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農土의 수탈이며, 세째는 그들의 공업발전을 위한 工業原料國으로 利用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수법과 잔인무도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민의 資源과 생명을 무수히 빼앗아 갔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農村과 農業을 부흥시킨다는 미명하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하여 農民의 土地를 교묘하게 수탈하였으며, 피땀 흘려 지은 農産物을 무수히 일본으로 가져 갔다. 한편으로 농산물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역시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거 강행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日本帝國主義의 악랄한 植民地 農業政策의 要體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자행한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2) 土地調査事業

(1) 土地調査事業의 背景

1905년 露·日戰爭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년 11월 17일 강압적으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에는 統監府를 설치하여 植民政策을 전면화하기 시작하였다.

상권을 독점한 일본상업자본은 米穀, 大豆, 原料 등 농산물을 매수하고 일본에 수출하는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생산수단인 토지 자체를 所有支配하는것에 까지 손을 뻗쳤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대규모로 토지를 사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즉,

① 外國人의 土地所有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는 점

② 土地私有權이 관습상 확립되었으나 법률에 의하여 완전히 보장된 一物一主의 排他的 私有權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점

③ 土地의 상품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④ 일본인의 토지매수에 대하여 한국의 농민뿐만 아니라 봉건적 권력자와 양반 귀족까지 완강히 반항하였다는 점.

이러한 제약속에서 일본상업자본의 토지점유는 점차 진전되었으나, 그것은 조선의 국법상 여전히 違法이었으며, 법률적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토지매매와 점유의 合法化가 일본상업자본에 의하여 강력히 요청되었다.

1905年 을사조약에 의하여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政治的으로 朝鮮政府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일본은 조선정부에 강요하여 1906年 1월 土地, 家居의 매매와 소유권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臨時法規로서 「土地家居證明規則」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법령을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1908年에는 「土地家居所有權證明規則」을 法制化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의 토지점유를 시작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에 앞서 일본인의 土地所有面積은 76,935정보에 달하였으며, 토지소유자도

무려 8,436명에 달하여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제국주의가 韓國農地所有를 노골화한 표징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자본은 한국진출을 위하여 과거의 土地制度를 새로운 資本主義에 적응시키는 사업을 土地調査事業에 의하여 단행하였던 것이다.

(2) 土地調査事業의 展開와 耐用

일제가 1910년 우리나를 완전히 식민지로 強占한 후 일본자본의 토지점유의 개방과 식민지 체제의 수립을 위한 종합정책으로서, 일제식민지 經濟政策의 제1차적 작업으로 실시된 植民地 政策事業이 곧 土地調査事業이거니와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인 土地所有權調査는 일제 농업의 역사적 전개에 결정적인 의의를 지닌다.

植民地 經濟政策의 제1차적 작업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서두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일본자본의 土地占有를 저지하여 오던 여러 요소를 자유롭게 하여 일본자본 의 투자와 점유를 개방하고 이를 법률상 보장하려는 점

② 日本의 植民地 統治에 필요한 재정인 朝鮮總督府 特別會計의 끊임없는 팽창을 추구하기 위하여 租稅收入을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地稅制度의 정리가 필요하였던 점

③ 國有地를 조사 정리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함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지주가 되어 地稅와 小作料를 收取하고 國有地 拂下를 통하여 財政收入을 확보하려는 점.

④ 토지조사 당시까지 각양각색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점유자가 되어 있던 일본상업자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시키고 지주로서의 법제적 보장을 하기 위한 점.

⑤ 식량과 원료, 특히 미곡의 일본수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近代的 土地所有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량 및 토지이용의 자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지형, 지모의 조사정리가 요청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리하여 1910년 3월에는 韓國政府內에 土地調査局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조사 사업의 실마리를 마련하였고, 1910년 8월에 韓日合併이 성립되자 토지조사국은 조선총독부 臨時土地調査局으로 개칭되고 그 사업을 계승하였다. 1912년에는 土地調査令을 발표하여 土地私有權의 법적 보장을 도모하였고, 동시에 同年부터는 朝鮮民事令을 시행함으로써 資本主義的 私有制定의 기초를 확립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률적 조치를 토대로 하여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작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土地所有權의 調査로, 토지의 소재지, 地番, 地積 및 所有權者를 조사하여 각 토지의 위치, 형상 및 경계 등을 사정하고 지적을 설정함으로써 토지등기제도의 창설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土地價格調査인데 토지의 時價, 賃貸價格 및 토지의 수익 등을 査定하고 穀價, 金利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전국 토지의 지가를 조사함으로써 地稅의 부과표준을 선정하고 균형있는 지세제도를 확립해서 재정의 기초를 다지자는 데 있다.

세째, 地形, 地貌의 조사로 지형측량에 의하여 지형도를 調製하고 地上에 있어서의 천연 및 인공적인 지물을 묘사하고 그 고저 및 분포관계 등을 표시하여 이를 지도상에 명료하게 나타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에 이르기까지 8년 8개월의 시일과 2,410여 만원의 경비 및 3,400여 명의 상임직원을 동원하여 실시되었다.

(3) 土地調査事業의 結果

토지조사사업은 우리나라의 여러 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요한 法條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6〉 農民의 小作濃化傾向

年 次	自作農		自作兼小作農		小作農		合計	
	戶數 (1,000戶)	%	戶數 (1,000戶)	%	戶數 (1,000戶)	%	戶數 (1,000戶)	%
1913~1917平均	555	21.8	991	38.8	1,008	39.4	2,554	100
1918~1922平均	529	20.4	1,015	39.0	1,098	40.6	2,602	100
1923~1927平均	529	20.2	920	35.1	1,172	44.7	2,621	100
1928~1932平均	497	18.4	853	31.4	1,360	50.2	2,712	100
1933~1937平均	547	19.2	732	25.6	1,577	55.2	2,856	100
1939~	539	19.0	719	25.3	1,583	55.7	2,841	100

(資料) 鈴木武雄,「朝鮮の經濟」,(東京, 日本評論社, 1942), P 246

사유관계로 확립하려는 한편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단순한 경작권마저 박탈당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위의 표에서 보면 農民의 小作濃化 경향은 自作農보다 저항력이 미약한 자작겸 소작농으로 현저하게 전락되었다.

둘째, 일본 회사 및 일본인 지주 등에 의한 토지집중이 급격히 진행되어 1931年 동양 척식회사가 소유하게 된 토지 및 삼림은 12만 3,565정보에 달하였다.

〈表-7〉 東拓所有地의 增加推移

年 度	田	畓	其 他	合 計
1910	2,330.6	8,643.8	91.1	11,035.5
1911	6,502.3	18,763.4	1,554.1	26,819.8
1915	18,753.7	46,642.1	4,748.2	70,144.0
1920	19,405.1	51,149.7	6,743.0	77,297.1
1925	19,078.6	50,992.7	15,718.8	85,790.1
1929	17,459.1	48,226.0	30,594.6	96,279.7
1930	16,944.4	46,682.5	41,709.1	105,336.8
1931	16,887.8	46,584.8	60,092.8	123,565.4

(資料)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統計年表」, 1933年 3月

또한 일본인들은 그들의 우세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대토지 소유자의 수와 소유면적에 있어서 한국인을 압도하게 되었고, 殖產銀行 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자본의 지배하에 들어

간 토지면적까지 합하면 전 경지면적의 태반이 일본인의 지배하에 들어 가고 말았다.

세째, 토지조사 서업은 토지의 近代的 所有權을 확립시키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종래의 收租權者가 농민으로부터 收租하던 수확물의 절반 공납을 折半小作料로서 재생시켰으며 이로써 半封建的 소작관계가 창출되었다. 당시의 소작료는 전생산물의 50%에 달하는 고율소작료였던 것이다. 1930年 조사된 지불방식별 소작료율은 〈表-8〉과 같다.

〈表-8〉 小 作 料 率 比 較

區 分	畓			田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定 租	90%	50%	39%	80%	50%	47%
打 租	79	60	44	65	69	43
報 租	80	55	50	75	55	50

(資料) 金俊輔,「韓國資本主義史研究 Ⅱ」(서울, 一潮閣, 1974) P. 123

2) 産米增殖計劃

(1) 産米增殖計劃施行의 背景

일제는 土地調査事業이 완수되자 조선을 식량공급기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다. 日本資本主義가 이 땅에서 수립한 산미증식계획은 당시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농업은 본래 협소한 農地 위에서 이루어진 零細農業이었을 뿐만 아니라 1850년대 이래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그들의 농업생산만으로는 자체내의 식량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었다. 즉 당시 日本의 미곡 消費量은 연평균 6,500만석이었는데 반하여 그 생산량은 5,800만석에 불과하였다.

비록 外國으로부터 不足한 미곡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식량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으며, 1918년 8월에는 일본의 각 지방에서 쌀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더우기 第1次 世界大戰中 극심한 식량난을 맞이한 독일의 경험은 일본으로 하여금 食糧의 자급자족을 절실한 당면과제로 제기시켰다. 이에 따라 일제는 조급하게 1920年에 소위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래 그 첫 단계로서의 정책중심이 土地調査事業의 실시, 貨幣金融制度 및 財政制度의 확립 교통통신기관의 정비 등 식민지 수탈의 경제적 기초공작을 수행하는 데 있었다면 제2단계로서의 정책중심은 상품판매와 工業原料 및 食糧補給의 시장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産米增殖計劃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는 日本國內의 遊休資本을 산미증식계획에 투입시킴으로써 당시의 日本産業이 당면하고 있었던 不景氣를 해소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2) 産米增殖計劃의 展開

朝鮮總督府는 1920년 일본자체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소위 산미증식계획을 立案하

고 그 실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종래의 米作改良增殖에 관한 시설은 대체로 耕種法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水利施設의 개량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토지개량을 주로 하고 耕種法 改良을 병행하려는 것이었다.

당초 산미증식계획의 내용은 1920년 이후 30개년 동안에 80萬 町步의 土地改良을 시행하는 데 있었으나, 우선 第1期 計劃으로서 15년간에 총공사비 1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42만 7천 5백 정보의 토지개량을 실시하고, 아울러 9백 20만석의 산미증식을 꾀하는 데 있었다. 계획은 이와 같이 거대한 것이었으나 구체적 실적의 진행은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미쳐 1925년까지 6년간에 9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실시한 데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1926年에 계획을 갱신하였는데 1926년 이후 15년간에 旣成畓의 灌槪改善 19만 4천 町步, 田을 畓으로 만드는 地目變更 9만 町步, 개간 및 간척지 6만 5천 정보, 합계 35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실시하고, 施肥의 증가와 경종법 개선으로 약 344만 석의 증수를 예정하고 총 816만 석의 산미증식을 기하려 하였다.

이 계획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을 기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日本政府의 잔여資金으로 이른바 低利資金을 도입하려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이와 같이 2次 産米增殖計劃에서는 日本資本主義의 國家資本이 직접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실적에 있어서도 1차계획에 비하면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韓國米의 對日輸出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1929年의 대공황과 1930年代의 농업공황은 일본의 米價를 하락시켜 일본으 지주계층으로부터 소위 「鮮米排斥運動」이 일어났다. 사태가 이렇게 돌변하지 日本政府는 일본농민들의 난국을 타개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쌀의 수입을 제한하게 되었고, 1933년 3월에 이르러 「미곡통제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해를 마지막으로 제2차 산미증식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후 조선총독부는 소위 「農村振興運動」이란 구호를 내세워 정부의 物質的 보조를 없애고 농민의 自力更生에 호소하는 등 農政의 기본방향을 잃은 채 혼미하다가 1940년에 다시 10개년을 기간으로 제 3차 산미증식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부터 10년간에 680만석의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2차대전으로 들어 가면서 資本과 資材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토지개량에 의한 증산보다도 농사개선에 의한 단위면적당 收穫量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3차 계획에서는 농사개선에 의한 增産目標를 511만석,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증산목표를 169만석으로 예정했던 것이다.

(3) 産米增殖計劃의 結果

산미증식계획은 농사개선에 의한 증산계획과 아울러 토지개량에 의한 증산계획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農事改善計劃은 品種改良, 堆肥奬勵, 適期播種, 除草運動, 害蟲驅除豫防 등을 전개함으로서 단위면적의 수확량을 높이는 것이며, 土地改良計劃은 관개시설의 개선, 지목변경 개간 및 간척 등에 의한 농지확장을 통해서 증산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제 1차 산미증식계획은 처음부터 거대한 자본을 민간자본에 기대하였던 만큼 資本의 회임期間이 길고, 고율의 小作料 때문에 민간자본동원이 어렵게 되어 당초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1912년이래 이 기간까지 韓國米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보면 〈表-9〉와 같다.

〈表-9〉 韓國米의 生産高 및 輸出高

年 度	生産量(千石)	指數(%)	輸出量(千石)	指數(%)	1人當消費(石)
1912~16(평균)	12,302	100	1,056	100	0.7188
1917~21(평균)	14,101	110	2,196	208	0.6860
1922~26(평균)	14,501	118	4,342	411	0.5871

(資料) 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の農業」 1936. PP. 36~39

제 2차 산미증식계획에 있어서도 總督府는 土地改良事業에 대한 보조금을 절실히 요구하는 소규모의 지주나 농가에는 주지않고, 中規模 이상의 지주층을 우대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30 町步 이상의 대규모 灌漑改良事業을 벌이고 있던 일본인 지주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인 지주들의 쇠퇴과정을 촉진하고 반면 日本人地主들은 점차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 2차 산미증식계획도 당초계획대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세계대공황을 고비로 하여 土地改良事業은 정체 상태에 빠졌고, 1932년 7월 제 2차 산미증식계획의 실질적인 추진기관이었던 총독부의 토지개량부 폐지와 함께 1934년 9월에 이르러서는 중지되고 말았으며, 토지개량사업은 1938년까지 중단상태를 계속했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토지수탈의 기초를 굳히고 나서 산미증식계획으로 식민지적 초과이윤의 수탈을 확대 강화하여 갔던 것이다.

4) 日帝下의 農民生活相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農業政策은 시간이 갈수록 토지의 잠식은 물론 農民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식민이익의 증식에 촛점을 맞추어 나갔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10年에 시작한 土地調査事業이 마무리되자 일제는 제 1차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여 1920年부터 시행하였다. 이 계획의 目標는 農地改良과 農事改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적인 목표이고 실제적으로는 일본의 農業事情때문이었다. 그들은 不足한 食糧을 조선에서 共給받기 위하여 산미증식을 꾀하였고 植民 조선에의 日本人 農業移民을 위한 준비작업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 당시 朝鮮總督府 農政課長으로 지냈던 湯村辰二部의 半島農村行政의 回고에서 보면 그들은 농사개선에 별로 치중하지 않고 農地改良에 역점을 두었다. 당시 大部分의 農民들은 小作人들이었으므로 채찍질을 하지 않는 한 생산량을 올리기는 힘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때 그들은 水利事業에는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농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계획으로 공사비를 적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제 1차 산미증식계획은 시작 6年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 農土 9萬 町步가 水利化되었는데 농민에게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었다. 農民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둘째라고 하더라도 水利組合 설치비용을 각출하고 水稅등으로 農民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農地가 水利化로 개량되면서 그 토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日本人의 移民地主가 소유하게 하였고 그 결과 농민 대다수가 小作農

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20年 중반까지 심화되어 日本人中에서도 비판하는 者가 있었다. 「朝鮮事業論」을 쓴 자전장웅은 조선인의 소유지로 황폐한 것을 매수하여 日本人 移民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단은 피하였으면 좋겠다. 朝鮮에서도 日本 農民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조선농민에게 양도하여 일본농민과 서로 이웃하여 한다면…[1] 이라 기록하고 있으니 당시 일제의 한국농민수탈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 日帝收奪下의 農村經濟

1930年代의 세계적 대공황으로 인하여 日本資本主義도 커다란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30年에 이르면서부터 일본의 물가는 生絲, 棉糸布 등의 주요 수출품을 비롯하여 모든 物價가 일제히 급락하였고 무역은 위축되었으며, 또 그에 따른 생산은 급격히 감퇴되었다. 이 공황으로 인한 수출의 격감은 일본의 金流出을 증가시켰고, 金準備의 급격한 감소는 1931年말에 이르러 日本 資本主義로 하여금 金本位制度를 포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공업생산은 대폭적으로 저하되었으며 滯佛勞動者의 대량고용 등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투쟁이 첨예화 되었다. 또한 농업에 있어서도 農產物價格의 폭락으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파란이 속출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농업공황과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農村에서는 春窮農家戶數가 〈表-10〉에서와 같이 全體農家의 약 50%에 달하였다. 특히 소작농에 있어서는 3분의 2이상의 춘궁농가이었다.

〈表-10〉 春窮農家戶數表

단위: 千戶

地域別	自作農		自作兼小作		小作農		合計	
	戶數	%	戶數	%	호수	%	戶數	%
南韓七道	50	22.4	220	40.0	921	72.8	891	55.5
北韓七道	42	14.5	103	32.8	216	61.3	361	36.0
全國	92	18.4	323	37.5	837	68.1	1,252	48.3

(資料) 朝鮮總督府「朝鮮における 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2年

이를 지역별로 보면 농촌의 階層分化가 더욱 진전되어 있는 南韓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小作農의 4분의 3이 춘궁농가로 되어 있었다. 즉 自作農의 일부를 除外한 全農家가 거의 춘궁농가의 상태에 있었다.

農村經濟의 빈궁한 상태는 農民들의 糧穀消費量에서 또한 살펴 볼 수 있다. 주요 食糧農產物 1人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米穀消費가 漸減되는 반면 잡곡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자본주의에 의한 미곡수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田長雄. 1928, 朝鮮事業論, P. 167

(表－11) 主要食糧農產物 1人當消費量

5개년평균	米	粟	大豆	大麥·○麥	小麥
1912－1916	0.7188	0.2711	0.1825	0.4233	0.1119
1917－1921	0.6860	0.3231	0.1831	0.4394	0.1098
1922－1926	0.5871	0.3642	0.1772	0.4088	0.1280
1927－1931	0.4864	0.3564	0.1563	0.3876	0.1145
1932－1936	0.4401	0.2885	0.1486	0.4434	0.1063
1937	0.5679	0.2671	0.1525	0.4036	0.0841

(資料：久間健一「朝鮮農政の課題」1943. P. 426

朝鮮農會의 農家經濟調査結果(서기 1930～32)와 日本農民調査結果(서기 1931년)에 의하여 한일농가의 가계비의 비교를 통하여 일제하의 農業經濟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農家의 총가계비는 日本農家의 2분의 1에 지나

〈表－12〉 韓日農家의 家計費 比較

구분 / 항목		韓國		日本	
		金額	%	金額	%
第一生活費	住居費	10.14	2.3	20.35	3.7
	飮食費	268.50	60.7	232.83	42.4
	被服費	26.37	6.0	42.97	7.8
	光熱費	39.02	8.8	33.20	6.1
	器費	5.07	1.1	14.39	2.6
	小計	349.15	78.9	343.74	62.6
第二生活費	修養費	0.26	0.1	6.54	1.2
	教育費	15.01	3.4	8.76	1.6
	交際費	23.26	5.3	46.86	8.5
	嗜好費	8.53	1.9	27.23	5.0
	娛樂費	0.88	0.2	3.78	0.7
	衛生費	6.24	1.4	31.26	5.7
冠婚葬禮費		23.11	5.2	35.49	6.5
其他		16.22	3.6	45.39	8.2
小計		93.51	21.1	205.31	37.4
總計		442.06	100.0	549.05	100.0
家族一人當		68.20		86.05	

(資料) 久間健一「朝鮮農政の課題」1943. P. 426.

지 않았으며 음식비는 第一生活費中에 日本農家가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韓國農家는 60%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한국의 中農이 日本의 小農보다도 더 低劣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어려운 한국농업의 실정 가운데 일제는 세계적 공황에서 오는 일본경제의 상처를 한국농업의 植民的 수탈의 강화를 통하여 치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농민들은 表에서 보는 것처럼 점차 小作農으로 전락하여 갔다. 이러한 韓國農村의 실정은 1925年 총독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15만 5천명의 農民이 고향을 떠났고, 1930年에는 거지의 수가 5만 8,204名에 이르렀다고 하니 농촌의 참상이 어떠하였는지 가히 알 수가 있다.

〈表-13〉 농민의 계층 영락화 과정

5년 평균 년차	자작농		자작겸 소작농		소작농		자·소작농 합계비율
	천호	(%)	천호	(%)	천호	(%)	
1913~17	555	21.8	991	38.3	1,008	39.4	78.2
1918~22	529	20.4	1,015	39.0	1,098	40.6	79.6
1923~27	529	20.2	920	35.1	1,172	44.7	79.8
1928~32	497	18.4	853	31.4	1,360	50.2	81.6
1933~38	547	19.2	732	25.6	1,577	55.2	80.8
1939~	539	19.0	719	25.3	1,588	55.7	81.0

(資料)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P. 390

또한 농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小作農에 대해서도 가혹한 행위를 일삼았다. 〈表-14〉에 의하면 전국의 소작료 실태를 알 수가 있는데, 小作料는 대개 50%를 전후하고 있지만 小作人들의 부담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小作人들의 抗爭口號에서 租稅公課金을 地主가 부담할 것, 舍音制度를 폐지할 것, 小作人의 사역을 폐지할 것, 짚의 분배제를 폐지할 것 등을 주장한 것을 보면 일제의 農業植民이 얼마나 악착같았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일제는 小作料마저 農民들에게 안전하게 주지 않았다. 지주의 횡포는 小作料의 박탈을 무기로 하고 있었고 農監者나 舍音의 중간착취는 잔학하기 그지 없었다.

심한 경우에는 小作料를 前納制로 하기도 하였으며 미리 保證金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例는 東洋鉱拓植株式會社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봄이 오면 絶糧農家가 부지기수였고 草根木皮로 연명하여 人間以下의 生活을 영위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한국의 토지를 점탈하여 地主階層을 형성하고 한국농민을 小作人으로 한 植民性 農業經營을 감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고 다시금 그 돈으로 토지매수와 약탈을 감행하여 일제지주와 친일한국지주의 경제적 위치를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농업을 더욱 잠식하여 갔다.

이러한 가운데 自作農은 감소하고 小作農이 해마다 증가하여 1920年代末에는 小作農이 81.

〈表－14〉 전국 소작료 실태

논: 1930년

조별(相別) / 도별(道別)	정조			타조			집조		
	최고	보통	최저	최고	보통	최저	최고	보통	최저
경기	90%	50%	25%	75%	50%	40%	80%	50%	30%
충북	73	50	20	50	50	30	75	50	35
충남	60	49	39	52	51	44	65	51	44
전북	80	45	30	70	50	30	80	50	30
전남	70	50	30	70	50	40	75	55	30
경북	80	50	23	65	50	30	80	55	30
경남	65	51	38	57	45	43	69	52	43
황해	60	40	－	70	60	40	70	55	45
평남	75	45	30	－	50	－	68	50	30
평북	70	45	20	50	50	50	70	55	50
강원	70	49	30	60	50	40	70	50	40
함남	60	48	30	60	50	35	60	51	40
함북	58	47	36	59	50	43	50	50	50

(資料) 총독부 농림국, 「조선의 소작에 관한 참고사항 적요」, 1933

〈表－15〉 원인별로 본 소작쟁의(1926～1932)

쟁의원인	실수	구성비		비고
소작취소 또는 소작권 관계	2,315	51.0%		
흉작	652	14.4		
소작료 체납	312	6.9		
소작료 증징	211	4.6		
소작료 고율	582	12.9		
公租·公課 및 비료대의 부담관계	129	2.8		
소작료 결정관계	43	0.9		
斗租·場稅 등 특종 부담관계	10	0.2		
소작료 운반비관계·무상노동	27	0.6		
소작료 불통일·소작지 개간비	29	0.7		
收支不償 및 생활곤란	80	1.7		
소작료 품질관계·부정양정	47	1.4		
기타	87	1.9		
계	4,524	100.0		

(資料)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소 「일제의 경제침탈사」 P. 53.

6%에 이르게 되었으니 일제하 농민운동의 주류가 小作爭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작쟁의의 발생원인을 살펴 보면 〈表-15〉와 같은데, 소작취소 및 小作權 관계가 총 2315건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작료 체납 및 고율인 경우도 많다.

5) 日帝下의 廣州農業

日帝 침략기 하의 廣州農業을 정확하게 알려 줄 통계자료는 빈약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日帝의 植民地 農業政策과 土地調査事業 및 산미증식계획을 통하여 廣州郡의 당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일제시대의 農民經濟上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農民들의 참혹한 經濟生活과 不足한 식량사정은 廣州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조선시대의 廣州農業에서 보았듯이 광주군은 당시 광주부로서 戶數가 9598戶에 달하는 큰 지역이었으며 지역의 성격상 全體人口 중에서 農民은 50% 가량으로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미 小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기타 광주외 다른 지역에서도 小作農이 대부분이었고, 地主는 개성인이나 경성인이 많았다. 自作農이 불과 1할내지 2할에 불과했던 조선후기의 농촌 상황속에서 실시된 日帝의 農業政策은 農民들을 더욱 小作化시켰음은 이미 앞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제의 탄압을 맞이한 農民들이 얼마나 고통을 감수했어야 했는지는 가히 짐작할만 하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廣州의 農業을 지켜 온 선인들의 노고 덕택으로 오늘날 광주는 근교농업의 대표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국농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4. 解放 前後 및 1950年代 廣州郡 農業의 展開

1) 解放前後의 農業

(1) 8·15直前의 食糧需給

일제의 植民地化 이후 계속적인 탄압을 가했던 일본은 1940년부터 전쟁식량 확보 및 물자공급을 위하여 갖은 행패를 자행하였고 더불어 農民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日帝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온갖 發惡을 다하여 약탈을 하였으며 식량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전쟁이 決定的으로 不利한 형세로 기울자 일본은 최소한도의 國民食糧을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1945年 8·15전후의 식량수급현황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共給(8월 1일 현재)

營團所有米穀	1,339千石
國產雜穀	456 "
滿洲產雜穀	345 "
8月中 滿洲產雜穀輸계획	695 "
計	2,835 "

· 需要	
8月中 消費豫相米穀	947 千石
國產雜穀	260 "
滿產雜穀	488 "
計	1,695 "
· 8월말 現在高	1,140千石
· 9월이후 共給	410 "
총독부 소유미곡	630 "
滿產雜穀輸入計劃	
· 9월이후 需要	2,331 "
9월·10월 消費豫相高	151 "
· 差引不足高	
· 不足額共給對策	
早產米買上	605千石
麥類買上	97 "
計	702 "
· 再差引過剩高	
(次年米穀年度超越高)	551千石

이상과 같은 철저한 需給推算을 가지고 운영되어 오던 米穀事情은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계기로 혼란을 빌게 되었다. 당시의 식량 사정은 식량이 보유된 창고 소재지대나 일본군 창고 주변의 住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2) 8·15직전의 食糧作物生產狀況

해방 전후의 식량사정을 철저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1941年 以後 5개년간의 식량생산 추세를 米穀(正, 玄米, 白米), 麥類(大麥, 裸麥, 小麥, 胡麥), 豆類(大豆, 小豆, 綠豆, 菜豆, 豌豆)와 雜穀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면, 1945년의 이례적인 흉작년을 제외한 4개년 평균 생산량은 33,453千石이며 이 중에서 미곡이 56.3%로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맥류는 22.7%, 두류는 9.2%, 잡곡은 11.8%를 차지하고 있다.

맥류만의 생산량을 총생산량에 대비하여 연도별로 1941年에 21.0%, 1942年에 25.3%, 1943年에 19.6%, 1944年에 25.4%로서 해마다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곡의 일본수출과 두류의 공업용 원료 충당 등을 고려하면 國民의 食卓에 제공되는 식량 중에서 맥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1941年度부터 1945年度가지 主要食糧作物 生產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表-16〉과 같다.

平物量은 1945년도를 제외한 1941년부터 1944년까지 4개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1940년도 이후 6개년간 맥류생산 통계를 年度別·品種別로 살펴 보면, 1940年 9,235千石, 1941年에 8,564千石, 1942年에 7,304千石, 1943年에 6,323千石, 1944年에 8,144千石, 1945年에 2,049千石 등 이었다.

1945年의 2,049千石('월동기간의 극심한 한냉재해로 인해 격감)을 除外한 5개년간의 평균 생산고는 7,914千石이다.

〈表－16〉 主要食糧作物 生產量

(단위: 千石)

년도 / 품종별 수량	1941		1942		1943		1944		1945		평균	
	수량	%	수량	%	수량	%	수량	%	수량	%	수량	%
미 곡	24,885	61.0	15,687	54.3	18,719	58.3	16,051	50.1	18,491	67.2	48,835	56.3
맥 류	88,564	21.0	7,305	25.3	6,323	19.7	8,144	25.4	2,049	7.4	7,584	22.7
두 류	3,799	9.3	2,335	8.1	2,813	8.8	3,422	10.7	3,160	11.5	3,092	9.2
잡 곡	3,543	8.7	3,565	12.3	4,257	13.2	4,404	13.8	3,807	13.9	3,942	11.8
계	40,791	100.0	28,892	100.0	32,112	100.0	32,021	100.0	27,507	100.0	33,453	100.0

(資料) 池鎔殷, 1948「南朝鮮의 食糧事情」P. 46

우리나라의 맥류평년작 생산고는 과거 십년 이전을 살펴 보아도 역시 이러한 정도의 生產高를 보이고 있다. 맥류는 원래 미곡생산과 달리 凶豊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1945年의 2백만석이라는 숫자는 사상 최대의 한냉으로 인하여 동계에 태반이 凍死하였기 때문이다.

6개년간 맥류의 생산고를 品種別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表－17〉 麥類年度別·品種別 生產高

(단위: 千石)

년도별 / 품종별	1940年	1941年	1942年	1943年	1944年	1945년	5個年 平均	比率(%)
大 麥	4,130	3,918	3,079	2,591	3,690	799	3,482	44.0
裸 麥	2,925	2,825	2,603	2,083	2,400	590	2,567	32.4
小 麥	2,079	1,670	1,514	1,792	1,792	537	1,713	21.7
라이麥	102	105	108	139	262	123	152	1.9
계	9.,235	8,564	7,304	6,823	8,144	2,049	7,914	100.0

* 5 個年 平均高에서는 1945年度 生產高를 除外 함
(資料) 池鎔殷, 1948, 南朝鮮의 食糧事情. P. 48

麥類中 特히 大麥, 裸麥은 주로 食糧으로 使用되며, 小麥, 라이麥은 소맥분, 과자, 식빵 등 주로 加工料에 充當하는 것이므로 공동판매를 실시하여 製粉會社와 麵子會社에서 주로 인수케 하였다.

食糧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래로 미곡과 맥류는 管理食糧의 主要品目으로 指定되어 그 買上을 一律的으로 통제하여 왔다. 과거 수년간의 매상실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麥類의 買上實績을 1940年에 1,415千石, 1941年에 1,699千石, 1942年에 1,329千石, 1943年

에 1,593千石, 1944年에 376千石에 달하였다.

農家에서 自家消費한 것은 1940年에는 7,821千石이었고, 그 다음해부터는 생산고의 감소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어 1941年에는 8,666千石, 1942年에는 5,976千石, 1943年에는 4,730千石, 1944年에는 5,066千石 이었다.

生産高에 대하여 買上한 양과 農家에서 자가소비한 것의 비율을 1944年의 37.8%가 최고이며, 1940年의 15.3%가 최저였다. 맥류 중에서도 비교적 大麥과 裸麥은 農家의 自家消費量이 높고, 小麥과 라이麥은 매상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맥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을 농가에서 소비하였는데 食糧統制 以來로 총독부 買上麥類에 대한 用途에 있어서는 國家에서 수립한 소비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즉 綜合的 식량수급계획의 견지에서 맥류의 매상량에 대한 용도별 소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의하여 공급되었다.

(3) 解放直後 農業生産의 樣態

일제통치하의 우리나라 農家構成을 보면, 自作農이 감소한 데 반해, 小作農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14年과 1941年 사이에 自作農과 自作兼小作農이 각각 22%, 35%에서 18%, 24%로 감소하였지만, 小作農은 41%에서 54%로 격증하였다. 소작농의 경우, 1942년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약간 감소하였지만 自作農과 自作兼小作農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러한 소작농의 감소현상은 결코 農家經濟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전쟁 말기에 군수공업으로 영세소작 농민을 강제징용하였던 사실은 이러한 감소현상의 한 원인이었다고 하겠다.[2)]

어쨌든 해방직후 農家戶數를 보면, 총 2,065,477戶(단, 地主는 제외)로서 이 가운데 自作農이 284.509戶(13.8%), 自作兼小作農이 716,080戶(34.6%), 小作農이 923,686戶(43.2%), 기타 純火田民 및 被雇傭者가 55,284戶(2.7%)이었다.

게다가 자작겸 소작농 71만 6천호 중에서 37만 8천호의 농가는 自己所有土地가 경작면적의 50%도 안되는 사실상의 小作農家로서 전체농가의 약 18%나 되었다.

또 자기토지만을 경작하는 自作農을 보면, 28만 4천호 가운데 약 9만 5천호는 1町步 이상이었지만, 自作農家의 약 2/3에 해당하는 19만 1천호는 1정보 이하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더우기 자작농 가운데 9만 8천호는(자작농의 약 34%에 해당)는 5단보 이하의 영세농가들 이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첫째, 全農家의 52인% 106萬戶는 전혀 土地를 소유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농가의 18%인 38만호는 自己耕地의 반이상을 小作하고 있었다.

세째, 전농가의 16%인 34만호는 자기 경지의 반이상을 직접 소유하지만, 土地不足으로 일부를 小作하고 있었다.

네째, 전농가의 13%인 28만호는 자기경지를 직접 소유하지만 이 가운데에 대부분이 1町步 이하의 영세농가이었다.

---

2)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p. 28~29

〈表－18〉 解放前後 南韓의 營農別 農家戶數

구분 / 년도	自 作	自小作	小 作	純火田民및被雇傭者	計
1944	276,733戶	691,949	980,752	42,618	1,992,052
	(13.9)	(34.7)	(49.2)	(2.2)	(100.0)
1945	284,509戶	716,080	1,009,604	55.284	2,065,477
	(13.8)	(34.6)	(48.9)	(2.7)	(100.0)
1946	337,271戶	810,181	923,686	66,150	2,137,288
	(15.8)	(37.9)	(43.2)	(3.1)	(100.0)

( )안은 百分比.
(資料)「朝鮮經濟年報」1948年度版 PP.28～29

다섯째, 전농가의 약 70%가 토지를 전혀 가지지 못하거나 이에 近似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그 밖의 農家도 충분한 경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해방직후 南韓의 土地所有別 耕地狀況을 보면, 총경지 약 232만정보 중 地主所有의 小作地가 147정보에 달하고 있었던 데에 반해 100萬戶에 달하는 自作農 및 자작겸 소작농의 自作地는 불과 85만 정보이었다. 그나마 自作地중에 46만 정보가 밭이었으며, 대부분의 논은 地主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28만 정보의 논 가운데 89만 정보가 小作地이었다. 따라서 耕地規模別 農家構成을 보면, 南韓의 전농가중 32.8%가 5段步이하의 영세농가이며 62.5%가 1정보 이하의 小農이었다. 당시 남한의 호당 평균경지 면적이 약 1.1 정보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남한 전체농가의 약 70%정도가 평균경지면적 이하를 경영하는 영세농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직후 우리나라 농업의 실정은 所有의 側面에서 볼 때 매우 不均等한 구조이었으며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영세한 小農構造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해방직후 남한의 경지면적 및 수리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남한의 총경지면적은 1945年末 현재 총 2,225,571.6町步로서 이 가운데 논이 1,257,824.2정보, 밭이 967,747.4정보이었다. 農家戶當 耕地面績은 논 0.609정보, 밭 0.469정보로서 합계 1,078정보에 불과하여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경지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었지만 경지확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集約的 營農方法과 技術的 改良을 들 수 있는 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土地改良事業이었다.

이 사업은 해방 전부터 日帝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는데 해방직후의 상황을 보면 1945년말 현재, 남한에는 395개소의 水利組合이 있었으며, 이 수리조합에 의한 蒙利面績은 179,549町步이었다. [3]

3) 북한에는 수리조합이 172개소, 몽리면적이 169,638町步이었다. (1941年 現在)

이는 해방직후 남한의 總畓面積의 14.3%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이 수준은 해방이후 畓面積이 다수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즉 해방직후의 土地改良事業은 거의 대부분이 정체되어 버렸고, 다만 未完成工事에 대한 공사의 계속과 약간의 補修工事정도에 머물렀으며 극소수의 新規事業만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으로 해방직후의 農作物의 구성에 대해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일제하 우리나라 農作物의 大宗은 米麥類, 豆類, 粟, 棉花, 大麻, 人蔘, 煙草등이었으며, 農家副業品으로서 양잠, 叭등이 있었다. 원래 우리나라의 자연적 조건에 따르면 다종다양한 産物을 풍부히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일제의 植民地政策 등 여러가지 사회적 제약에 의해 米穀單位經營化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일제의 植民地政策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나라 농업은 순조로운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金肥, 農藥, 役畜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生産力이 해방직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우선 米穀에 대해서 보면, 해방이후 米穀作付面積의 증가와 순조로우 天候에도 불구하고 총생산량은 오히려 격감하였으며, 이는 金肥不足과 극심한 地力消耗에 기인한 것이었다.

더우기 일제 때 國家食糧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맥류에 대해서 보면 그 작부면적뿐만 아니라 段收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던 바, 1940~1944년의 평균생산고를 기준으로 할 때 1945년에는 60%의 減收現象을 보이고 있었다.

〈表-19〉 남한의 主要農産物 面積 및 生産高

分類 / 年度 / 品種	작부면적(千町)			町當收穫量			生産高		
	1940~1944	1945	1946	1940~1944	1945	1946	1940~1944	1945	1946
				石	石	石	千石	千石	千石
米	1,035	1,055	1,107	13.26	12.17	10.88	13,718	12,856	12,050
大麥	645	464	408	8.62	4.21	8.85	5,562	1,953	3,606
裸麥	358	255	193	8.59	3.93	8.36	3,074	1,001	1,613
小麥	126	74	83	5.53	4.48	5.43	697	333	451
粟	196	170	137	4.56	3.04	4.98	895	578	684
大豆	253	246	236	4.09	3.76	3.80	1,036	926	894
				貫	貫	貫	千貫	千貫	千貫
馬鈴	34	56	49	1,275.5	1,207. 2	1,310.1	42,825	67,282	57,557
甘	39	57	39	1,612.45	1,805.5	1,789.6	62,733	103,224	70,431
菜蔬	103	90	95	1,984.3	1,671.4	1,809.9	203,690	150,688	172,401
蔘	53	44	36	58.2	43	43.2	3,062	1,891	1,562
				근	근	근	千근	千근	千근
棉花	238	180	127	747.5	622.5	785.3	177,568	112,137	99,909

(資料)「朝鮮經濟年報」1948年度版 PP. 40~44

비록 1946년도에는 段當 收穫量의 증가에 힘입어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이 역시 1940~1944年의 평균생산고의 67.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 대중식량으로서 중요하였던 조와 商品作物로서 중요하였던 콩, 棉花도 해방직후 감수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棉花의 경우 극심하였다. 지금까지 해방직후 우리나라 農業生産의 양태를 대체적으로 살펴보고 변화과정을 보았다.

해방이 일제의 植民地的 規制의 철폐를 의미하는 한,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정책담당자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미군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社會安定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였고, 많은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미군정의 政策은 다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4]

까지의 우리나라 식량수급관계는 두가지로 분류하여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각자의 의사로서 自由市場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거 操作된 것이며, 둘째는 食糧收集令에 의한 收集配給의 수단으로 國家氣管의 의사로서 需給된 것이다.

이 당시는 군정법령하에서 식량의 수립령이 실시되었으나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도 묵인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때의 식량수급상황을 숫자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38以南에서는 美軍政廳의 食糧政策에 관한 最高方針에 의하여 米穀收集이 실시되었다. 미곡의 收集目標量 4백 35만 8천석을 각도에 할당하고 지방행정청을 비롯하여 收集事務를 분담하고 있는 生活品營團, 農會, 金融會社 等 關係機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였다.

당시, 미곡수집목표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으나, 諸般施設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통계적

〈表-21〉 米穀生產豫想高와 收集割當量

道 別	과거 5개년 평균생산고①	1946년 예상 생산고②	수집할당량③	비 율	
				①對②	②對③
경 기	2,212,012	2,003,280	775千石	35.0%	38.6%
충 북	787,046	664,946	180	22.8	27.0
충 남	1,812,364	1,328,084	470	25.9	35.3
전 북	2,371,871	1,700,092	798	33.6	46.9
전 남	2,313,644	2,175,821	750	32.4	34.4
경 북	1,949,936	1,970,811	720	36.9	36.5
경 남	1,836,963	1,742,017	600	32.6	34.4
강 원	970,264	451,155	60	60.1	13.2
제 주	—	14,182	5	—	35.2
계	14,254,100	12,050,388	4,358	30.5	36.1

(資料) 池錡殷, 1948, 南朝鮮의 食糧事情. P. 126
* 과거 5개년은 1940~1944년 사이임.

4) 朱奉圭, 1985, 韓國農業經濟史硏究, pp. 316~321

숫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었다.

그리하여 1946年度의 收集目標量은 肥料不足과 일부지방의 수해를 고려하여 1천 2백만석을 推定生産高로 定하고 그 推定生産高와 道別米穀需給關係를 參考하여 수집목표량을 정하였는데 그 수집량은 추정생산고의 약 35%에 해당한다. 1946年度의 미곡생산예상고와 수집할당량을 道別로 살펴보면 다음 (表-21)과 같다.

미곡수집은 1945年 11월을 기하여 일제히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事務折衝과 막대한 所要資金의 사정에 의하여 本格的인 收集이 開始된 것은 12月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총수집목표량에 對해 대개 11月에 50% 12月에 90%, 1月에 100%를 수집하기로 定하고 출발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장애에 부딪치기도 하여 11월말까지 19% 12월말까지 59%, 1월말까지 73%의 성과를 거두었다.

수집량을 道別로 보면 경기도가 61만석으로 전수집량의 약 20%로 1위에 해당하고 전남이 56만석, 경남이 52만석의 순이었다. 그러나 할당량에 대한 수집량의 비율을 보면 江原道가 165%로 第1位이며, 80% 以上을 돌파한 道가 경남, 충남, 충북의 3개도이며, 70%以上이 경기, 전남의 2개도이다.

미곡수집실적을 月別로 살펴보면 〈表-22〉와 같다. 전북의 46%가 아직 地道의 收集比率에 비추어 적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확기가 他道에 비하여 좀 늦은데다가 行政的 措置에 대한 원인도 있다.

〈表-22〉 米穀收集月別 實績

1946年度

도 별	수집 목표량 ①	수 집 실 적			비 율 (%)		
		11월말 ②	12월말 ③	1월말④	① 對 ②	對 ③	① 對 ④
경 기	775,000	204,926	262,199	145,696	26.3	33.8	18.6
충 북	180,000	49,625	88,522	15,669	27.5	49.1	8.7
충 남	470,000	136,008	234,647	36,286	28.9	49.9	7.7
전 북	798,000	27,615	179,330	164,314	3.4	22.4	20.7
전 남	750,000	81,344	371,901	110,275	10.8	49.5	14.7
경 북	720,000	107,418	272,560	78,821	14.9	37.8	10.9
경 남	600,000	155,383	316,684	49,838	25.8	52.7	8.3
강 원	60,000	74,700	19,391	5,113	34.5	32.3	8.5
제 주	5,000	—	11	—	—	0.02	—
계	4,358,000	816,024	1,745,245	607,012	18.7	40.0	13.9

(資料) 池鎔殷, 1948. 남조선의 식량사정. P. 128

(5) 8·15前後 夏穀의 生産狀況

1947年度의 夏穀收集도 하곡수집령의 發表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대체로 夏穀이라 함은 보리, 쥥보리, 밀, 호밀 등의 4종류인데, 일제시에는 맥류라 하였고 해방이후 夏穀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主要食糧은 크게 분류하여 네種類로 나눌수 있는데 이는, 米穀, 夏穀, 豆類 가을에 수확하는 기타 雜穀의 4종류이다. 네종류로 분류된 主要食糧의 生産現況을 살펴 보면 1941年에서 1945年까지의 5개년간 國內生産의 平均高가 미곡이 1,880만석, 하곡이 7,384千石, 두류가 3,092千石, 기타잡곡이 12942千石이었다.

〈表-23〉 食糧生産現況

(1941~1944)

종 류 별	생 산 고 (千石)	비 율 (%)
미 곡	18,835千石	56.3%
하 곡	7,384	22.7
두 류	3,092	9.2
기타잡곡	3,942	11.8
계	33,453	100.0

(資料) 池錡殷, 1948, 남조선의 식량사정

총식량생산고 중에서 夏穀이 차지하는 비율은 22.7%이지만, 미곡이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점과, 국내에서 일본인들이 주로 소비한 점, 그리고 두류는 직접 주식량으로 공급되기보다는 가공원료로 제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農家의 消費食糧은 夏穀이 훨씬 많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하곡의 생산량은 당시 얼마나 되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1940年에서 1944年까지의 5개년간 實收穫高는 最高 920만석에서 最低 630만석가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表-24〉 夏穀年度別 收穫高

年 代	精 穀 收 穫 高	年 代	精 穀 收 穫 高
1940	9.235(千石)	1944	8,144
1941	8,564	1945	2,049
1942	7,304	평균	7,914
1943	6,323		

* 1945年을 除外한 5개년 평균 자료: 전과동일

解放當年의 前無後無한 麥作의 흉년을 除外하고는 5개년간의 平均實收高는 790만석이다. 夏穀生産에 있어서 이것을 品種別로 본다면 총생산고 790만석 중에서 보리, 350만석, 쌀보리 260만석, 밀 170만석, 호밀 20만석으로 보리가 총생산고의 44%에 해당한다. 쌀보리는 개량

종이라 하여 파종을 장려하였으며 밀은 주로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西北地方의 生産이었다.

하곡의 品種別 生産高는 〈表-25〉과 같다.

〈表-25〉 夏穀의 品種別 生産高

品 種 別	生 産 高	比 率
大 麥	3,482(千石)	44.0(%)
裸 麥	2,567	32.4
小 麥	1,713	21.7
胡 麥	152	1.9
計	7,914	100.0

〈5개년 평균치임〉

地方別로 生産高를 살펴보면 表-26과 같다.

〈表-26〉 夏穀의 道別 生産量

(1944年産 精穀)

道 別	生 産 高	比 率
경 기	695(千石)	5.9 %
충 북	643	5.2
충 남	849	12.1
전 북	896	12.8
전 남	1,334	19.0
경 북	1,483	21.1
경 남	948	13.6
강 원	195	2.3
계	7,011	100.0

(資料) 전과동일

38도선으로 분단되기 이전이 1944年 全朝鮮生産高 810만석 중에서 南朝鮮의 生産高는 700만석으로서 전체생산량의 87%에 해당한다.

남한에서 하곡생산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로서 年平均 生産高가 148만석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全南으로 133만석이며, 80만석 이상을 생산하는 道가 경남, 전북, 충남의 3개도이다.

夏穀生産에 대해서도 미곡보다는 뒤떨어 졌지만 收集을 하여 統制를 실시하였다. 하곡에 대한 통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식량의 국내결여에 대한 계기로 本格的인 統制가 실시되었

던 것이다.

夏穀의 收集은 1940年부터 始作하였으나 매년 그 실시하는 정도를 強化하였으며, 수집할당량은 생산예상고에 따라 多少의 차이가 있었는데, 1944年에는 제일 많은 해로서 생산고에 對해 40%를 할당하였으며 1940年은 제일 적은 해로서 생산고의 약 18%에 해당하였다. 5개년간 평균을 잡아보면 收集割當이 240만석인데 이는 생산고에 대해 31%이며, 실제로 매상한 것은 180만석으로서 약 24%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夏穀의 生產高는 6백만에서 9백만석 사이였는데 일제시대의 生產統計를 과연 어느정도 신임하여야 할 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나 당시의 하곡 수집은 최저 140만석에서 최고 300만석까지 수집되었다는 실적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해방직전의 하곡수집할당과 실적은 表-27과 같다.

〈表-27〉 夏穀收集割當과 實積

(단위: 精穀 千石)

연 대	생산고 ①	수집할당 ②	수집실적 ③	비 율 (%)	
				① 대 ②	① 대 ③
1940	9,236	1,650	1,415	17.9	15.3
1941	8,565	2,674	1,698	32.2	19.8
1942	7,305	2,853	1,329	39.1	18.2
1943	6,323	1,638	1,593	25.9	25.2
1944	8,142	3,221	3,067	39.6	37.8
평균	7,914	2,407	1,822	30.8	24.0

해방후 처음 美軍政의 힘으로 실시하게된 1946年度의 夏穀의 收集配給實情을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하겠다. 1946年產의 夏穀收穫豫相高는 軍政廳에서 400만석으로 보았는데 그 약 30%에 해당하는 128만석을 目標로 하고 모든 努力을 다하여 收集하였다. 그러나 目標의 48%에 해당하는 62만석밖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表-28〉과 같다.

경북에서 21만석을 收集하여 총수집량의 約 30%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나머지 道는 경남의 9만석을 위시하여 강원도의 2만석 사이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非農家人口에 비교하여 당시의 수집량을 보면, 비농가인구의 1개월 소요량에 불과한 식량이다. 특히 1945年度의 미곡생산이 不振하였기 때문에 비농가의 식량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2) 1950年代 廣州農業의 展開

해방직후부터 시작한 식량증산 및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은 1950年 6·25전쟁과 동시에 거의 중단되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처참한 전쟁기간동안의 우리의 농업현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후 農業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表-28〉 1946年 夏穀收集割當과 收集量

도 별	생산고 ①	할당량 ②	① 대 ②	수집고 ③	② 대 ③
경기	328(千石)	96	29(%)	60,663(石)	63(%)
충북	309	98	32	69,280	71
충남	361	97	27	41,347	43
전북	486	122	25	85,050	70
전남	1,055	363	34	40,532	11
경북	755	282	37	210,766	71
경남	765	217	28	90,717	42
강원	67	14	21	20,740	148
계	4,126	1,289	31	619,095	48

(1) 1950年代의 農業現況

① 農家人口와 耕地面績

해방후 우리나라의 人口는 해외로부터의 귀환동포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한편, 南韓에 있어서는 北韓으로부터의 南下人口가 급격히 증가되어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結果로 남한의 人口는 1949年의 2천만 명으로부터 1955年에는 22백만 명으로 증대되었고, 1960年에는 25백만 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 農家人口는 年度別로 다소 증감의 차이를 보였다. 즉 1949年의 14백만 명에서 1955年에는 13백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1960年에는 다시 15백만 명으로 증대되었다.

이로써 總人口에 대한 農家人口의 비율은 1949年의 72%에서 1956年에는 60%로, 다시 1964年의 56%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農家人口의 實數는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총인구에 대비하여 본 農家人口의 비중은 매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29〉 總人口 對 農家人口

(단위 : 천명)

年 度 別	총인구 (A)	농가인구(B)	B/A(%)
1949	20,167	14,416	71.5
1955	21,502	13,300	61.9
1956	22,307	13,445	60.3
1957	22,949	13,592	59.2
1958	23,611	13,750	58.2
1959	24,291	14,126	58.2
1960	24,989	14,559	58.3

(資料) 1. 경제기획원, 1965, 경제통감연감.
2. 농림수, 1965, 농림수산기본통계자료

1950年代의 農地利用面積도 다소의 변동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전국토면적 약 10백만 정보 가운데 경지면적은 약 2백만 정보로 전체국토면적의 약 2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방이후 6·25동란의 발발과 휴전선의 성립 등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全體面積上에는 큰 변동이 없다.

한편 耕地面積은 해방이래 1949年까지는 2백만 정보를 상회하였는데, 1950年에 와서는 약 10만 정보가 감소하였다. 또 1953年까지 계속 줄어들어 1953年은 1949年에 비하여 약 115千步가 감소하였는데, 그 주원인은 6·25동란으로 많은 農民이 영농으로 부터 이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상당수가 軍需用地로 징발된 데에 있다.

그리하여 1953年 휴전이 성립되면서 이농한 農民의 歸農과 군수징발농지의 일부 再農地化로 1954年부터는 農耕地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전쟁기간 중 경지면적은 비록 전쟁 이전의 경지면적에 비해 대폭 감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植付面積은 耕地面積을 훨씬 下廻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表－30〉 耕地面積의 推移

(單位: 町步)

年 度 別	畓	田	計
1949	1,236,559	834,018	2,070,577
1950	1,158,271	812,069	1,970,340
1951	1,159,225	799,011	1,958,236
1952	1,163,039	795,641	1,958,680
1953	1,161,999	793,667	1,955,665
1954	1,170,639	795,989	1,966,628
1955	1,197,277	814,177	2,011,454
1956	1,198,652	809,815	2,008,467
1957	1,202,871	812,593	2,015,464
1958	1,209,662	819,451	2,029,113
1959	1,212,917	820,112	2,033,029
1960	1,216,298	825,370	2,041,668
1961	1,220,991	828,501	2,049,493
1962	1,233,289	846,570	2,079,859
1963	1,238,338	858,637	2,096,975
1964	1,271,650	917,457	2,189,106

註：田畓面積合計가 計와 相異함은 四 五入으로 因함.
資料：農林部

6·25전쟁으로 畓面積이 약 78千 町步, 田面積이 약 40千 町步가 감소한 이래 1954年度

부터는 증가일로에 들어 선 경지면적은 불과 1年餘만인 1955年度에는 약 40千町步가 증가되었으며, 그후로 年平均 0.5%의 擴張率로 1961年까지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1962年부터 농지가 급격히 증대된 이유는 1962年 2月 22日字로 법률 제 1028호로 개간촉진법이 制定 公布됨으로써 개간사업을 정부가 補助附로 促進하였기 때문이다.

農家戶當 平均耕地面積은 해방 이후 1954年까지는 9段步 미만이었는데 1955年부터 1958年까지는 9段步를 초과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9단보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해방이후 약 20년간의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대체로 실질적인 농지확장에 의하여 증감하였다기 보다는 農家戶數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였을 것이다. 즉 경지의 년간증감율보다는 농가호수의 증감율이 더 컸으며,실제로 農家戶數變動에 農家戶當面積의 증감이 더 크게 作用하였던 것이다.

〈表-31〉 農家1戶當 平均耕地面積

單位 : 段步

年度別	畓	田	計	年度別	畓	田	計
1949	5.00	3.37	8.37	1957	5.44	3.68	9.12
1950	5.12	3.59	8.71	1958	5.45	3.70	9.15
1951	5.31	3.66	8.97	1959	5.35	3.61	8.96
1952	5.21	3.56	9.77	1960	5.18	3.51	8.69
1953	5.17	3.53	9.70	1961	5.25	3.56	8.81
1954	5.24	3.56	8.80	1962	5.18	3.43	8.42
1955	5.40	3.67	9.07	1963	5.13	3.55	8.68
1956	5.45	3.68	9.13	1964	5.19	3.74	8.93

(資料) 農林部

〈表-32〉 畓의 利用度

單位 : 町步

年度別	一毛作	二毛作	計	年度別	一毛作	二毛作	計
1951	825,330	333,895	1,159,225	1958	807,307	402,355	1,209,662
1952	825,591	337,447	1,163,038	1959	812,119	400,798	1,212,917
1953	810,724	351,274	1,161,998	1960	813,961	402,337	1,216,298
1954	816,243	354,396	1,170,639	1961	773,774	447,217	1,220,991
1955	751,191	446,086	1,197,277	1962	763,461	469,828	1,233,289
1956	804,170	394,482	1,198,652	1963	750,229	488,109	1,238,338
1957	814,029	388,842	1,202,871	1964	744,519	527,130	1,271,649

(資料) 農林部

50年代의 농가호당 경지면적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1정보 미만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영세한 경지면적도 全體農家를 계층별로 보면 40여%의 농가는 5단보 미만의 경작지 밖에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마저도 보통 4~6개 필지로 분할되어 필지당 면적이 보통 200~400평이며, 게다가 이것도 농가로부터 200~500m나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많아 農地의 利用度를 저하시키고 있다.

영세한 戶當耕地를 高度로 利用하기 위하여 畓面積의 일부는 麥裏作을 비롯하여 二毛作이 실시되었는데, 이 이모작 면적은 총답면적의 4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답리작은 영남과 호남지방에 널리 보급되었을 뿐 경기, 강원, 충청도 지역에서는 2~4% 정도만 답리작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田에 있어서만은 이모작이 거의 全國的으로 실시되었다. 作物別 耕地移用狀況을 보면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식부면적은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2.5백만정보에 미달하였다가 그 이후로 점차 증가하여 1948年에는 2.5백만 정보를 넘었으나 6·25전쟁으로 다시 격감하였다. 휴전성립 이후에는 식량작물의 식부면적이 다시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表-33〉 食糧作物植付面的面積

單位：町步

年度別	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計
1949	1,052,705	798,715	285,979	319,227	94,398	2,551,023
1950	1,097,984	814,071	215,796	289,864	85,104	2,502,818
1951	922,761	688,677	280,079	289,310	80,133	2,260,949
1952	814,406	767,621	428,021	314,003	71,626	2,395,677
1953	1,077,980	882,758	180,365	290,274	92,200	2,523,576
1954	1,077,410	890,055	212,754	298,359	90,988	2,569,566
1955	1,098,165	916,562	220,532	313,964	91,710	2,640,933
1956	1,105,821	957,622	217,381	311,843	95,150	2,687,817
1957	1,114,088	1,004,155	214,328	320,776	104,772	2,758,118
1958	1,117,548	943,681	220,788	315,124	97,680	2,694,822
1959	1,122,463	947,852	217,109	316,404	100,441	2,704,269
1960	1,130,471	960,628	207,109	321,415	107,845	2,727,410
1961	1,137,484	969,769	207,051	341,269	110,197	2,763,756
1962	1,148,491	1,012,021	205,476	339,910	125,380	2,828,278
1963	1,165,022	1,070,065	204,519	338,752	137,674	2,916,031
1964	1,205,168	1,119,245	219,337	337,700	180,948	3,062,399

註：各種穀類合計가 計와 相異함은 四捨五入으로 因함.
資料：農林部

원예작물의 재배면적도 1945年 이래로 완만하나마 증가추세를 보여 해방 이래 20年 동안에 채소류 재배면적은 약 26% 즉 年間平均 약 1%씩 증가하였고, 過失栽培面積도 해방 당시

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 하였다.

〈表-34〉 園藝作物植付面積

單位 : 町步

年度別	菜 蔬	果 實	年度別	菜 蔬	果 實
1945		14,637	1955	107,722	19,557
1946		15,402	1956	111,281	20,305
1947		14,519	1957	117,280	20,454
1948	109,852	18,673	1958	112,644	22,535
1949	117,877	20,225	1959	110,376	23,310
1950	83,828	20,234	1960	117,607	22,467
1951	95,581	19,878	1961	117,550	23,201
1952	100,633	18,522	1962	136,923	23,481
1953	99,293	18,324	1963	120,825	23,466
1954	110,382	18,814	1964	138,332	29,645

資料 : 農林部

면화재배면적은 해방 이래로 줄곧 감소되어 당시의 1,744町步가 1960年에는 514町步로 대폭 줄어들어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면화재배가 이와 같이 해마다 줄어 거의 전멸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미국 잉여농산물중 原棉導入이 면화의 國內生産을 압박한 점과 화학섬유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면직물 시

〈表-35〉 煙草 및 棉花植付面積

單位 : 町步

年度別	煙草	棉花	年度別	煙草	棉花
1945	9,349	174,209	1955	20,660	112,780
1946	8,160	127,504	1956	20,255	116,122
1947	14,940	129,848	1957	21,486	77,569
1948	15,469	115,257	1958	21,060	56,647
1949	20,244	135,299	1959	20,397	60,844
1950	15,227	137,833	1960	20,083	50,826
1951	12,294	146,294	1961	20,165	49,030
1952	17,361	115,943	1962	22,703	32,282
1953	14,237	124,437	1963	21,140	25,034
1954	24,307	120,807	1964	30,138	22,943

資料 : 農林部

장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1957年부터 급격히 감소하게 된 이유는 그당시를 기준으로 몇 년간 도입 원사수량이 漸增傾向을 보인 탓이었다. 연도별 연초 및 면화재배면적은 〈표-35〉와 같다.

② 農作物生産

우리나라의 農業生産은 예로부터 食糧作物이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미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해방직후에는 農業이 全體産業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때는 韓國經濟를 미곡경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950年代의 農作物生産은 연차별 생산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國內農作物生産이 그 수요량을 充足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農産物不足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증산을 標榜하는 농업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농작물 생산계획은 1948年度 각종농작물 생산계획이 최초의 것이었다. 이 생산계획은 당시의 과도정부 농무성 농업경제국에서 수립하여 중앙경제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것으로 同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年次別 生産計劃은 해마다 계속 수립되었다.

1950年 以前의 農作物收穫高는 한마디로 강우량과 비료공급사정에 의하여 決定되었으며 인위적 정책효과의 영향은 거의 殆無하였다. 1949年의 農作物作況이 어느해 보다도 가장 양호하였던 까닭은 식부면적의 擴大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순조로운 日氣와 원활한 金肥導入이 단당 수확량을 현저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年에는 6·25전쟁으로 各種農作物의 식부면적이 대폭 감소한 데다 農場施設 및 農作物의 被害 그리고 農民의 不安 등은 1951年의 수확고를 격감시켰다. 게다가 피난으로 인하여 작물재배를 위해 중요한 퇴비생산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고 所要金肥導入이 지연되어 더욱 감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52年의 농작물수확고는 전년도에 비해 더욱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정국의 계속적인 불안으로 米, 麥作의 식부면적이 가일층 감소한 데다 한해가 겹쳐 단당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류와 잡곡 등 田作物은 식부면적이 약간 늘어났고 수확량도 증가하였다.

요컨데, 1952年까지의 農作物生産은 전쟁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농정당국의 行政能力이 마비됨으로서 감퇴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1953年 휴전성립과 동시에 食糧農作物은 22,696,831石으로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전쟁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54年에는 마침내 전쟁전수준을 6%나 능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산추세는 1953年의 병충해로 인한 減收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었다.

1956年에는 또다시 作況이 不良하여 1949年을 100으로 할 때 1956年은 93으로 하락하였으며 실제 생산고는 21,752千石에 불과하였는데 이와 같은 減收의 주요원인은 天候에 기인한 미곡흉작에 있었다.

이대의 기상은 平年에 비해 多雨, 多濕, 低溫,寒照함으로서 수도작에 아주 유해하였으며 이러한 기상상태에서 각종 재해 즉 풍수해, 한해, 냉해, 병충해 등이 겹쳐서 총피해 면적은 1,234町步, 총피해 감수량은 4,529千石으로 되었다.

〈表-36〉 穀 類 生 産 指 數

年度別	綜 合	米 穀	麥 類	雜 穀	豆 類	類
1949	100	100	100	100	100	100
1950	96	99	103	62	70	87
1951	73	77	60	82	65	77
1952	71	63	86	132	70	55
1953	97	96	102	71	80	130
1954	106	102	129	72	90	107
1955	105	105	108	76	84	127
1956	93	87	115	68	86	106
1957	104	107	102	68	86	114

資料：農林部, 農業銀行刊 農業年鑑 1958年版

1957年은 前年度와 달리 약간의 재해가 있기는 하였으나 主로 田作物에 피해를 주었을 뿐이고 水稻生育期에 있어서는 좋은 일기가 계속됨으로서 미곡의 수확고는 15,738千石으로 증가하여 1949年을 기준으로한 미곡생산지수는 107, 총곡물생산지수는 104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해의 미곡생산은 해방 이래 최고의 생산기록을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맥류는 전례없이 1백만 정보의 식부면적을 돌파하였지만 수확량은 1953年 水準으로 후퇴하였고 잡곡과 두류는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第1次農業增産 5個年計劃의 제2차년도에 해당하는 1953年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穀物生産은 第2次農業增産 5個年計劃의 기점년도인 1958年에 이르러 해방이래 최고생산기록을 세웠다. 前年에 비하여 식부면적은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총생산고는 25백만석에 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록은 그 다음해에 가서 다시 갱신되었다.

이러한 농업생산고의 계속적인 증가는 기상조건이 양호하였다는 自然的要因에 의해서도 영향을 입은 바 컸지만 그 밖에도 증산계획을 비롯한 갖가지 政策的 要所에 힘입은 바 컸다는 점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들 정책적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 土地改良事業에 의한 경작면적 확대와 수리안전답의 증가
㉡ 施肥의 合理化와 增施
㉢ 種子改良 및 營農技術향상
㉣ 病蟲害防除
㉤ 農林行政技術의 向上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편 채소작물은 대체로 해방이래 거의 2년 주기로 증감을 거듭하면서 그 生産이 완만한 상승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商品性農作物로서 시장 상황과 가격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永生植物인 과수는 일반적으로 1950年代에 줄곧 생산증대 경향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이들 원예작물이 대개 다른 국가

〈表-37〉 穀物生産趨勢

單位：千石

年度別	米穀	麥類	雜穀	豆類	類	計
1945	12,836	2,483	571	1,011	1,335	18,235
1946	12,050	4,126	568	1,086	982	18,813
1947	13,850	3,714	441	1,000	1,034	20,039
1948	15,486	3,915	594	1,118	1,133	22,246
1949	14,734	5,055	863	1,469	1,239	23,359
1950	14,607	5,223	532	1,026	1,075	22,464
1951	11,349	3,043	711	958	948	17,010
1952	9,284	4,365	1,141	1,027	686	16,503
1953	14,136	5,152	616	1,179	1,614	22,697
1954	15,003	6,539	621	1,318	1,321	24,802
1955	15,515	5,449	660	1,235	1,570	24,430
1956	12,781	5,805	587	1,267	1,312	21,752
1957	15,738	5,179	591	1,266	1,408	24,181
1958	16,595	6,268	781	1,282	1,464	25,390
1959	16,602	7,231	621	1,158	1,428	27,039
1960	15,949	7,211	582	1,101	1,570	26,414
1961	18,903	7,820	693	1,392	1,820	30,627
1962	15,938	7,452	711	1,329	2,041	27,472
1963	19,207	2,342	775	1,331	2,353	26,008
1964	20,291	8,113	907	1,394	4,236	34,941

註：穀種別數量의 合計가 計와 相異함은 四捨五入에 基因함.
資料：農林部

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成長農作物로서의 性格을 농후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工業原料로서 指目되며 흔히 경제작물이라 지칭되는 特用作物은 정부당국의 생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전매작물인 연초나 인삼 그리고 胡麻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면화나 대마는 감소하고 있다.

③ 農業生産資材

ㄱ. 肥料生産 및 需給

해방직후 우리나라 비료사정은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하여 한 동안 심각한 궁지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最大의 規模를 자랑하던 흥남질소비료공장은 북한에 所在하고 있었으며 남한에 소재하였던 수개의 비료공장은 시설이 빈약한 데다 技術不足, 원료난 그리고 북한의 단전조치로 인하여 태반이 運體狀態에 있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年間肥料生産量은 화학비

료와 유기질비료를 합해서 겨우 88.4M/T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남한소재 비료공장이라야 인천의 조선화학비료주식회사, 三陟의 北三化學公社, 목포의 왕자제지 염화가리공장 3개와 유기질비료공장 8개소가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후에도 계속되어 외국에 많이 의존하였다.

〈表-38〉 果實·菜蔬·特用作物의 生産指數

年度別	菜蔬類	果實類	特用作物	專賣作物	年度別	菜蔬類	果實類	特用作物	專賣作物
1955	99.4	97.7	120.4	98.9	1959	96.2	130.0	76.6	118.8
1956	93.7	97.4	109.1	100.1	1960	96.6	129.6	65.7	112.0
1957	106.9	104.9	70.5	101.0	1961	117.4	125.1	77.2	144.5
1958	108.7	121.1	73.0	106.5	1962	128.7	155.8	64.9	167.5

資料：農林部, 農協中央會

그러다가 6·25전쟁으로 빈약하였던 國內生産施設마저 대부분 없어지게 됨으로서 휴전이후에 잔존한 工場은 조선화학비료와 북삼화학의 2개소 뿐이었다. 이들마저 전쟁으로 인하여 長期運體狀態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료공급을 전적으로 導入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은 막대한 수량의 金肥導入은 전적으로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再檢討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정부당국은 국내의 소규모 유기·석회질비료의 전후복구를 지원하면서 單肥施用에서 유발되는 제반재해를 除去하고 施肥의 合理化를 기하기 위하여 비료의 配合製造를 계획하고 6·25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장항·군산·목포·여수·부산 등 5개 배합공장을 복구하여 배합이 가능한 硫安과 重過石을 배합제조하도록 하였다.

〈表-39〉 金肥導入實績 및 消費量

單位: M/T

肥料年度	導入計劃量	導入量	消費量
1953	614,000	534,954	529,924
1954	725,000	761,821	672,697
1955	897,000	849,982	749,263
1956	980,000	1,084,626	860,907
1957	932,000	971,843	758,245

資料：農林部資材課, 韓銀刊 經濟年鑑 1958~59年版

1955年 5月 13日에는 FOA원조계획에 의한 충주비료공장 건설계약의 체결을 보게 되었고 同年 9月 5日에는 ICA자금으로 공장건설에 착공하였으며, 1961年 4月 29日에는 동 공장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한편 정부당국은 肥料供給不足相을 打開하고 導入肥料依存度를 낮추며 金肥偏重의 副作用으로 야기되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하여 1953年부터 1957年까지 自給肥料增產 5個年計劃을 수립하였다.

1950年代의 금비도입실적 및 소비량과 자급비료생산 소비실적은 〈表－39〉 및 〈表－40〉과 같다.

〈表－40〉 自給肥料生產消費實積

單位：貫

年度別	肥	綠 肥	山野草	糞 類	灰 類	計
1953	5,985,890	196,914	427,636	934,823	248,307	7,793,570
1954	6,071,443	254,690	366,283	934,528	258,204	7,885,148
1955	5,201,355	260,683	165,546	1,143,965	283,892	7,055,441
1956	5,077,119	259,906	189,500	1,092,417	291,000	6,909,942
1957	5,536,719	167,670	166,399	975,190	207,244	7,053,222

資料：農林部, 韓銀刊 經濟年鑑 1959年版

ㄴ. 農機具普及과 農業機械化

조선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기구는 재래식 소형기구로서 人力勞動을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후 日政時代에는 소위 개량농기구라 하여 사용하기 쉽고 튼튼하며 값이 싼 농기구를 보급한다는 취지하에 稻扱·唐箕·萬石·篩·籾摺臼·蓆·備中鍬·삽·松原鎌·灌水車 등 10여종의 농기구에 대하여 國庫 및 道費로 補助金을 支給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農會로 하여금 이들 농기구를 공동구입하여 農民에게 보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국에서는 농사시험장을 통하여 農具試驗을 하는 동시에 농사강습회를 통하여 농기구에 대한 인식과 使用方法 등을 고무시켰다.

1945年 해방과 함께 농기구는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생산되었으나 질적으로는 材料不足과 技術貧困으로 인하여 일제시대보다 向上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1949年 3月부터 1950年 5月까지 당시의 中央農業技術院이 의뢰받은 각종 농기구의 감정결과로서도 알 수 있는데 감정의뢰 농기구 78개중 합격건수는 35건, 불합격 건수는 43건 이었다. 이와 같은 불량한 농기구가 많이 출하함에 따라 농민들의 불평이 많아지자 정부는 농기구 성능시험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제조업자로 하여금 농기구협회를 조직하게 하고 원자재구입·생산농기구의 판매 등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政府支援과 함께 6·25 전쟁 후에는 원료사정이 점차 호전되었고 수요도 증가하여 농기구공업은 크게 발달하였는데, 공장수는 1955年에 100여개소, 1958年에 183개소 1960年에 256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농가의 부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叭織機등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양수기와 발동기를, 그리고 정착농민을 위해서는 中小農機具를 국고재정의

자원 아래 年次計劃에 따라 보급한 바 있었고 이밖에도 1957年에는 國産自動耕耘機 86대를 국고보조로, 23대를 농사자금융자로 각도에 보급한 바 있는데, 이 자동경운기는 부속품만 바꾸어 끼면 경운, 쓰레질, 제초는 물론 탈곡까지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자동경운기에 이어 1959年에는 국산동력용탈곡기를 생산하기 시작함으로써 2~3년간에 우리나라 농기구 제조계에서는 놀라운 진전을 이룩한 셈이다.

농업용기계, 기구의 보급은 1952년부터 시작된 제 1차농업증산 5개년계획에 수반되는 농기구공급 5개년계획에 의하여 더욱 促進되기는 하였지만 보급실적은 계획목표량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ㄷ. 農藥

해방후 국내의 농약공장은 불과 10여 개소가 있었는데 이들 공장은 해방전에 보유하였던 원료와 우방에서 수입한 원료를 기자고 농약을 제조하여 왔으므로 당시의 생산량은 아주 적어 年平均 200M/T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1953년경부터 외국에서 우수한 농약이 도입됨으로써 농약소비의 패턴에 변모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도입된 새로운 농약 가운데는 DDT, BHC, EPN300, 폴리돌, 파라치온, 세레산석회, 2-4-D, 와르파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당국은 이 기간중에 농약시용에 관한 적절한 계몽과 지도책을 강구하였는데 일반 경종농가에도 이 농약시용이 병충해 방제나 농작물 증수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주입시켜 줌으로써 農民의 자각을 促求하였으며, 농약생산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생산량의 증진에 노력한 결과 농약은 1955年을 전후하여 생산량, 도입량, 소비량이 모두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국내생산량은 1954年에는 1000M/T이던 것이 1955年에는 2,150M/T으로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약 100M/T에 달하였다. 그리고 消費動向을 보면 1954年까지는 年平均 1,000M/T이던 것이 1955年에는 3,800M/T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는 농약소비량이 증가함으로서 농작물재해가 점차적으로 防止될 수 있기는 하였지만 그 수요를 외국산 도입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농약으로 대치한다는 장기적인 課題와 함께 短期的으로는 실 수요자인 농민에게 농약의 사용방법과 농약사용에 관한 化學知識을 指導하며 농약 살포기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농촌지도기관으로 하여금 농약에 관한 지식과 그 施用方法을 지도케 하는 한편, 농업증산계획과 병행하여 농약공급계획도 아울러 책정함으로써 소요농약의 확보와 增

〈表-41〉 農藥需給動向

單位: kg

年度別	生産量	輸入量	消費量	年度別	生産量	輸入量	消費量
1951	363,788	38,450	770,541	1955	2,610,732	1,735,866	4,017,129
1952	146,281	122,669	806,136	1956	3,918,920	1,650,803	4,872,721
1953	423,568	1,118,291	776,556	1957	5,464,887	2,094,545	6,764,086
1954	1,024,140	740,556	1,671,697				

資料 : 農林部, 韓銀刊 經濟年鑑 1959年版

量供給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1957年을 계기로 그 이후의 농약소비량은 매년 5,000M/T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1958年에는 農林部가 농약사용의 보급과 장려 및 지도를 위하여 撒粉用有機水銀劑 396M/T을 각도에 무상배급하였고, 이를 위해 농임부예산 1,75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1958년도 撒粉用有機水銀劑 소비량 1,775M/T의 22%에 해당한다.

④ 農業技術

1950年代의 農業生産을 위한 技術政策은 한마디로 말하면 品種改良 및 그 갱신사업에 치중하였다. 이는 그 당시의 농업기술이 얼마나 단조로운 것이었던가를 말하여 준다. 日政下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土地改良事業에 의한 경작면적의 擴張, 水利施設의 정비도 중요시되었지만 이것은 그 효과가 단시일내에 발휘될 수 없고 또 경비지출이 막대하여 해방이래 비교적 관심을 모았던 農業技術改善事業은 자연히 응급적이고 단기적인 施肥改善, 品種改良에 主로 의존하여 왔다.

해방후의 우리나라 우량종육성사업은 현 농촌진흥청의 前身인 농사시험장·중앙농업기술원·농사원 등이 취급하여 왔다. 당시 政府가 이 농사시험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 왔던 왔던 育成品種은 병해나 충해에 대하여 抵抗力이 강하고 숙기가 빠르며 한해나 냉해 그리고 염해에 강하면서 耐肥性이 있는 多收穫品種이었는데 해방이래 약 10年 동안 각 지방의 자연적 조건이나 농업경영방식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로 우량품종으로서 보급·장려된 수도, 맥류 및 두류 등의 품종은 다음과 같다.

〈表－42〉 水稻優良品種普及狀況

市道別	奬 勵 品 種
서 울	豊玉
京 畿	中生銀坊主·豊玉·八達·多摩棉·穀良都·陸羽132號·愛國
忠 北	錦72號·錦90號·中生銀坊主·豊玉·南韓13號·鮮端·八達·倍達·大坪
忠 南	中生銀坊主·朝光·豊玉·端光·鮮端·南鮮102號
全 北	早生銀坊主·中生銀坊主·晩生銀坊主·朝光·豊玉·端光·雄叮
全 南	晩生銀坊主·朝光·多摩錦·農林6號·早大關·千本旭·榮光·中生神力
慶 北	穀良都·豊玉·日進·南韓13號·南鮮87號·南鮮104號
京 南	晩生銀坊主·朝光·穀良都·農林6號·八 ·朝日
江 原	關山·陸羽137號·伊勢珍子·中生銀坊主·早錦·八達·豊玉
濟 州	中生神力·農林8號·銀坊主·早大關

資料：大韓金融組合聯合會刊 韓國農業年鑑 1955年版

〈表－43〉 麥類優良品種普及狀況

市道別	大 麥	과 麥	小 麥
서 울	水原4號·水原6號·水原8號·僧麥	白胴38號	水原85號·育成3號
京 畿	水原4號·水原6號	鬼과·白胴38號	水原85號·育成3號·水原85號·프루쓰純系
忠 北	水原8號·僧麥15號·僧麥126號	白胴38號	水原96號·育成3號·프르쓰19號
忠 南	중보리·통보리·大田6角	白胴38號·鬼과·島原·洪城	農林6號·農林7號·江島·칼포니아
全 北	水原14號·三德·坊主	白胴38號·鬼과	農林6號·江島·森谷
全 南	關取·倍取·新4號	白胴38號·島原·竹下	農林6號·赤達磨·江島·神力
慶 北	堤川1號·堤川6號·水原6號·水原18號·僧麥·慶6號	鬼과	水原96號·江島·칼포니아
慶 南	堤川5號·關取崎1號	靑麥·慶과1號	農林4號
江 原	寧越6角·수원4號·통보리	鬼과	水原6號·育成3號·도루꼬·칼포니아
濟 州	倍取·關取·新4號·골덴메론	白胴38號·竹下·島原	農林9號·赤達磨·江島·神力

資料：大韓金融組合聯合會刊 韓國農業年鑑 1955年版

〈表－44〉 豆類 및 雜穀優良品種普及狀況

市道別	大豆	小豆	粟
서 울	長湍白目		
京 畿	長團白目·達用·紫白·忠北白		
忠 北	忠北黃·忠北白	淸州赤	支那粟
충 남	長湍白目·白종콩·白방콩·天安	在來1號·在來2號	
전 북	長湍白目		
전 남	長湍白目·赤穀		무고다마시·靑味實·強實粒
경 북	慶豆·浮石		國分
경 남	咸安·長湍白目·蔚山·泗川		
강 원	金剛太		平壤·砂粟

資料：大韓金融組合聯合會刊 韓國農業年鑑 1955年版

이들 種子育成事業은 水稻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 신품종은 약 1할 6품의 증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시험결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종자갱신 사업에 注力하였는데 쌀, 보리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보통이었으나 두류나 잡곡의 경우에는 예산, 技術者不足으로 이 사업이 잘 진보되지 못하였다.

栽培技術에 있어서는 수도작의 경우 당시에만 하더라도 特殊栽培方法이라 할 수 있는 황산식 또는 보온절충묘판설치가 권장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6·25전쟁으로 기존의 시설이나 자재가 파괴되거나 분실되어 한때 극도로 실의에 빠졌으나, 1952年에 해방후 처음으로 123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여, 종자개량사업에 재착수함으로서 제 1차 채종답에서는 11,333石, 제 2차 채종답에서는 426,497石의 우량품종을 채종하여 이를 1,605,978戶의 農家에 배부함으로서 952,984叮步에 걸쳐 種子更新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사시험 및 교도 사업이 본격적인 괘도에 올라선 것은 1957年부터이다. 1957年 6月 15日字로 농사원이 새로 發足하면서 종래의 농사시험 및 농촌교도사업은 이 기관에 의해 一元的으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58年에는 農事敎導法附則 第3項에 의거 원예기술원, 축산기술원, 임업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등도 農事院에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1958年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財源으로 都合 19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이 사업은 기본적인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農林當局이 注力하였던 主要農業技術施策은 수도작에 있어서는 보온절충묘판설치, 자급비료증진, 심경다비였으며, 맥류는 종자소독, 적기파종, 廣條播栽培이고, 두류는 윤작방법의 강화 등 이었다.

(2) 1950年代의 農業政策

1950年代의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 수탈당한 토지에 대한 재배급과 토지개혁사업 등을 통하여 農地의 재개편에 일어났으며, 3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의 6·25전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부족현상이 나타나, 기아상태가 지속되고 미국 잉여농산물의 본격적인 한국내 도입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든지간에 이러한 제반상황은 우리나라 農業의 변천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1950년대의 두가지 농업정책인 토지개혁사업과 미국잉여농산물 도입정책을 고찰하고, 당시 광주군 농업의 현황을 각 항목별로 세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① 土地改革事業

高率物納小作料로 특징되어 있는 小作制度와 土地資本에 寄生하는 不在地主의 土地所有를 폐지하여 小作農을 自作農化함으로서 농촌수탈을 막고 소작농의 경제발전을 耕地所有로서 해결할 것을 주안으로 하는 農地改革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사적인 요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군정하에서는 농지개혁정책이 "前日本人 所有地의 拂下形式으로 수행되었으나 大韓民國政府의 수립과 동시에 헌법에 農地改革의 필연성을 규정함으로써, 1949年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1950년 3월 10일 다시 개정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동년 3월 25일에는 施行令이, 동년 4월 28일에는 施行規則이 공포됨으로써 농지개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改正農地改革法 第1條를 보면 농지개혁의 目的이 기술되어 있다. 즉 "本法은 헌법에 의거

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서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農民生産의 향상 내지 國民經濟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農地改革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ㄱ. 買收對象農地

㉠ 農家아닌 者의 農地

㉡ 自耕하지 않는 農地

㉢ 戶當 3町步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부분의 農地

㉣ 多年生植物栽培土地를 3町步이상 자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多年 生殖物栽培 以外의 農地

ㄴ. 買收農地에서 제외된 農地

㉠ 農家1戶當 3町步이내의 自耕 및 自營農地

㉡ 多年生植物栽培의 자영농지

㉢ 非農家가 가정원예로서 경작하는 5백평 이내의 농지

㉣ 政府 公共團體, 教育機關 등에서 使用目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토지

㉤ 공인된 학교, 종교단체, 후생기관의 自耕農地

㉥ 학술연구 등 特殊目的을 위한 農地

㉦ 墳墓 1位當 2段步이내의 位土

㉧ 未完成된 개간 및 간척농지

㉨ 本法施行以後에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ㄷ. 買收農地의 平價基準

㉠ 買收農地의 보상액은 해당 농지의 平年作 主生産物의 15할로 한다.

㉡ 多年生植物을 재배하는 경우는 時價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한다.

㉢ 개간, 간척 및 기타 특수

지에는 특별 보상액을 첨가한다.

ㄹ. 農地의 分配對象農家

㉠ 현재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農家

㉡ 耕作能力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農家

㉢ 농업경영에 경험이 있는 순국열사의 유가족

㉣ 영농능력을 가진 被雇傭農家

㉤ 國外에서 귀환한 農家

ㅂ. 買收農地의 地價補償

㉠ 政府는 지가증권을 발급하며 同證券이 企業資金으로 사용될 때에는 정부가 융자를 보증한다.

㉡ 증권액면은 피보상액을 당년도 해당농지의 주생산물 수량으로 환산한다.

㉢ 증권보상액은 5年間 均分年賦로 하여 매년 額面農産物의 法定價格으로 산출한 圓貨로 지급한다.

ㅂ. 分配農地의 地價償還

㉠ 상환액은 해당농지의 보상액과 동일한 액수로 한다.

㉡ 상환은 5年마다 均分年賦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상환을 일시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농지 개혁법은 6·25동란의 발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終戰과 함께 정부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지만 동란 중에 농지개혁에 관한 관계서류와 公簿가 많이 소실되어 다수의 농지가 買收對象農地에서 제외되었다.

農地改革事業이 일단락을 본 1957년 12월 31일 현재 農林部의 集計狀況을 보면, 一般農地의 경우 952,731戶에 논 191,411 정보, 밭 76,467 정보, 계 267,878 정보가 분배되었으며, 歸屬農地의 경우에는 596,801호에 논 160,999정보, 밭 41,145정보 計 202,144정보가 분배되었다.

〈表-45〉 受配農家戶數 및 分配面積

(1957년말 현재)

區 分	受配農家(戶)	分配面積(町步)		
		畓	田	合 計
		(363,131)	(237,917)	(601,048)
一般農地	952,731	191,411	76,467	267,878
歸屬農地	596,801	160,999	41,145	202,144
合 計	1,549,532	352,410	117,612	470,022

資料：農林部 農政局 補償償還課
農協中央會「農政 20年史」1965, p. 98
( )안의 一般農地는 1949. 6. 21 顯在 買收對象農地

이와 같이 진행된 農地改革事業이 종래의 小作農地를 自作農地化시킴으로써 地主가 小作制의 排除를 통하여 농민들의 토지소유욕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주었으나, 개혁이전의 小作地가 그대로 전부 分配對象農地로 전환되었거나 분배 농지와 일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분배농지는 해방 당년 12월 小作地面積에 비하여 논은 39.4%, 밭은 21.3%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2) 美剩餘農産物의 導入

1950年의 농지개혁은 우리나라의 農業發展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바, 비록 農地改革 그 자체가 농민의 경제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종합적인 시책은 아니었지만, 前近代的인 地主·小作制度를 철폐시킴으로써 농민에게 自主的 發展可能性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이에 해방직후 국내 食糧事情도 많이 변모하게 되었다. 즉 해방직전 우리나라 농민은 기아

상태하에서도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하여 식량을 강제로 공출당하였다. 그러나 1950년 종전과 함께, 일제와 지주의 수탈에서 해방된 농민은 기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동포의 귀국과 북한동포의 월남으로 인하여 식량수요는 급격하게 증대하였던 것에 반해 食糧供給事情은 비료 특히 화학비료의 부족현상과 농민의 役牛放賣現象 등에 의하여 악화되었으며 미곡자유 시장의 폐지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의 6·25동란은 農業生産을 크게 감퇴시키고 말았다.

또한 1951년과 1952년에는 극심한 旱害와 수해때문에 미곡생산이 平年作에 비해 20~30% 減收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인플레억제와 정부양곡의 확보라는 이율배반적인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9월 25일자로 臨時土地收得稅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미가시세의 폭등과 흉작에 따른 절대량의 부족으로 이 계획도 완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麥作도 흉작이 되어 1951년에는 40%이상이 減收되었으며, 이에 따라 1951米穀年度의 국내 總供給量은 1950년도에 비해 320만석이 적은 20,284,000石으로 되었다. 그 후에도 식량의 공급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1951년산 미곡은 30% 감수하였고, 1952년 麥作도 凶作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55년 5월 韓美間에 剩餘農産物導入協定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미국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잉여농산물이 援助로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美國이 이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美公法 480號(PL480호)가 그 근거로 되고 있는데, 그 정식명칭은 "農業交易增進 및 援助法"으로서 미국과 유방간의 교역확대, 미국 잉여농산물의 合理的 活用, 友邦諸國의 經濟開發 促進, 전략물자의 구입 및 미국의 해외부담금 지불을 위한 현지 통화의 사용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잉여농산물의 導入量을 國內生産量과 비교해 보면, 도입초기인 1956년에 있어서는 국내양곡생산량에 대한 도입양곡의 비중은 7%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1958년에는 16.5%에 달하였다. 그러나 1958年 米價의 低落과 1959年 米穀生産의 豐作으로 인하여 1959年에는 도입양곡이 국내양곡생산량의 2.1%로 나타났다.

또 60년대에는 2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잉여농산물의 도입은 국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의의가 있는지 검토하여 보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慢性的인 食糧不足의 완화를 들 수 있다. 특히 6·25동란에 의한 農耕地의 황폐화는 우리나라 農業生産力의 감퇴를 가져 와 식량부족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國內年間 生産量의 약 15%에 달하는 40~50만 M/T의 미잉여양곡이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食糧不足狀態를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國防力의 강화와 財政의 안정이라는 점이다. 즉 對充資金 중 80~90%가 우리나라의 국방비에 충당됨으로써 우리나라 財政의 안정과 國防強化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간접효과로서 資本形成과 각종 開發事業과 救護事業의 추진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食糧不足의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3,000만 달러 정도의 外貨를 지출해야 했지만 동원조에 의해서 外貨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이 절약된 자금을 資本形成 및 각종 사업에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財政과 經濟에 肯定的인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이와 함께 국

내사업에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3) 1950年代 廣州郡의 農業

① 農家戶數와 耕地面積

1956年度 廣州郡의 農家戶數는 총 15,351戶 였는데 이를 業態別로 분석하면 畜作을 하는 農家는 12,745戶이며, 田作이 2,044, 果樹가 28好, 채소가 471戶, 특용작물 9戶, 축산 30戶 기타가 24戶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채소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農家가 많은 편이며, 양잠과 火田을 하는 農家는 거의 없는 편이다.

〈表-46〉 業態別 農家戶數

1956.12.31 現在

區別 市郡別	耕種					畜蠶		火田	其他	合計
	畜作	田作	果樹	菜蔬	特用作物	畜産	養蠶			
	戶	戶	戶	(255)戶	戶	戶	戶	戶	戶	戶
仁川市	5,371	2,322	42	294	1	74	—	—	—	(255)8,104
水原市	1,028	317	25	(23)75	1	24	—	—	—	(23)1,474
高陽郡	7,486	495	61	225	—	2	4	—	—	8,273
廣州郡	12,745	2,044	28	471	9	30	—	—	24	15,351
楊州郡	17,298	1,998	72	40	—	17	—	6	10	(1)19,441
漣川郡	2,398	769	—	33	—	59	12	—	22	3,291
抱川郡	8,288	1,029	1	5	—	—	—	4	—	(1)9,327
加平郡	5,379	(4)1,309	—	42	35	76	10	129	9	(4)6,989
楊平郡	10,219	688	15	55	—	2	—	150	—	11,129
驪州郡	11,961	1,126	8	31	14	18	—	14	81	(2)13,253
利川郡	12,038	235	19	28	—	10	—	—	61	(1)12,392
龍仁郡	11,154	2,228	4	—	12	113	30	—	—	13,541
安城郡	14,011	559	14	(8)24	1	1	—	—	—	(8)14,610
平澤郡	13,935	550	47	(3)93	—	23	—	—	—	(3)14,648
華城郡	25,081	956	25	(3)6	1	10	—	—	—	(3)25,079
始興郡	8,758	863	54	(1)505	12	28	—	1	21	(1)10,242
富川郡	8,468	(1)894	47	127	1	3	—	—	5	(1)9,545
金浦郡	11,496	(7)413	17	—	—	1	—	—	—	(7)11,927
江華郡	12748	(1)535	14	37	—	9	—	—	18	(1)13,361
坡州郡	9,681	1,362	15	14	—	9	3	—	272	11,356
甕津郡	132	893	—	—	—	—	—	5	—	1,030
	(2)	(14)		(265)						(281)
計	209,676	21,583	509	2,109	87	509	59	309	523	235,363

註 : 括弧內는 外國人表示임.
資料 : 경기도, 1956. 도세일람

위에서 언급한 통계자료보다 비록 3년전인 1953년에 나온 통계이지만 〈表-47〉은 廣州郡의 경영방식별 농가호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때의 총호수는 29,592戶이며, 農家戶數는 1956年과 별차이가 없는 15,480戶이었다. 이를 경영방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農業이 14,246戶, 兼業이 1234戶로 거의 전업을 하고 있었다.

〈表-47〉 農業經營方式別 農家戶數

1953년

구 분	총호수	농 업 호 수			비 고
		전 업	겸 업	계	
인 천	50,059	5,700	1,805	7,505	中國人 169호
수 원	20,041	1,508	191	1,699	10
고 양	10,943	7,198	780	7,978	
광 주	29,592	14,246	1,234	15,480	기타외국인 1
양 주	26,977	17,112	1,235	18,347	中國人 1
포 천	11,592	7,686	381	7,067	
가 평	12,143	7,496	878	8,375	
여 주	17,097	12,874	1,086	13,960	외국인 1
용 인	20,860	13,686	928	14,724	
이 천	17,346	11,774	802	12,576	中國人 5호
안 성	21,420	13,686	1,038	14,724	3
평 택	21,708	12,692	1,000	13,692	
화 성	38,131	24,996	1,304	26,300	1
시 흥	17,277	8,816	1,637	10,453	1

(자료) 전과동일

당시의 통계자료로 보아 전업위주의 이러한 경향은 광주군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고양군의 경우는 총 농가호수 7978戶 중에서 전업이 7,198戶, 겸업이 780戶이었으며, 양주군의 경우도 총농가호수 18,347戶 중에서 전업이 17,112戶, 겸업이 1,235戶로 전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耕地面績을 살펴 보면, 廣州郡의 총경지 면적은 179,557反인데 이중 畓이 90,228反이고 田은 89,269反이었다. 畓중에서 1모작은 85,750反이며 2모작은 4538反이었다. 또한 총농경지 중 등록지는 177,157反이며 미등록지는 2,400反이었다. 이러한 경지면적을 農家戶當 平均面績으로 계산하여 보면 1호당 논은 5.9, 밭은 5.8反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수원, 고양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적은 면적이다. 이처럼 광주군은 좁은 농경지에서 많은 農家가 耕作을 하는 영세성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利川이나 平澤 등은 상대적으로 광주에 비해 1가구당 경지면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畓의 면적이 넓었다. 옹진군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논의 면적보다 밭의 면

〈表－48〉 耕 地 面 積

(단위: 反) 1956.12.31

군별 / 시군별	등 록 지			미 등 록 지			합 계			농가1호당평균면적	
	畓	田	計	畓	田	計	畓	田	計	畓	田
인천시	37,073	27,362	64,435	341	469	810	37,414	27,831	65,245	4.6	3.4
수원시	5,882	5,711	11,593	11	16	27	5,893	5,727	11,620	4.0	3.8
고양군	70,810	25,605	96,415	3,631	1,854	5,485	74,441	27,459	101,900	9.0	3.3
광주군	89,062	88,095	177,157	1,226	1,174	2,400	90,288	89,269	179,557	5.9	5.8
양주군	118,658	94,325	212,988	474	629	1,103	119,132	94,954	214,086	6.1	2.9
연천군	22,915	17,283	40,198	–	–	–	22,915	17,283	40,198	6.9	5.2
포천군	49,219	57,023	106,242	560	233	793	49,779	57,256	107,035	5.3	6.1
가평군	30,455	40,688	71,143	327	344	671	30,782	41,032	71,814	4.8	5.7
양평군	69,097	60,499	129,543	551	836	1,387	69,648	61,285	130,933	6.2	5.5
여주군	103,373	65,235	168,608	1,054	1,308	2,362	104,427	66,543	170,970	7.8	5.0
이천군	112,209	55,454	167,663	869	773	1,642	113,078	56,227	169,305	9.1	4.5
용인군	98,309	63,392	161,701	618	840	1,458	98,927	64,232	163,159	7.3	4.7
안성군	120,834	60,666	181,500	457	1,010	1,467	121,291	61,676	182,967	8.3	4.2
평택군	130,125	51,689	181,814	6,966	4,238	11,204	137,091	55,927	193,018	9.3	3.8
화성군	200,260	113,613	313,873	1,786	1,677	3,463	202,046	115,290	317,336	7.7	4.4
시흥군	69,361	46,066	115,427	631	903	1,534	69,992	46,969	116,961	6.8	4.5
부천군	76,505	39,371	115,876	229	1,893	2,122	76,734	41,264	117,998	8.0	4.3
김포군	108,626	40,758	149,384	1,220	830	2,050	109,846	41,588	151,434	9.2	3.4
강화군	119,624	37,124	156,748	1,452	337	1,789	121,076	37,461	158,537	9.0	2.7
파주군	86,663	46,273	132,936	1,087	1,871	2,958	87,750	48,144	135,894	7.7	4.2
옹진군	2,840	10,406	13,247	80	410	490	2,921	10,816	13,737	2.8	15.0
합계	1,721,801	1,046,588	2,768,489	23,570	21,645	45,215	1,745,471	1,068,233	2,813,704	7.4	4.5

자료 : 전과동일

적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총경지면적은 화성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화성군의 경우 논이 202,46反, 밭이 115,290反으로 총면적이 317,336反이었다. 그러나 농가호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논이 7.7反, 밭이 4.4反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양주군, 평택군의 순으로 많았지만 평택군을 제외하고는 호당 경지면적이 적은 편이었다.

② 農産物生産高 및 植付面積

1950年代 廣州郡의 주요 농작물 생산고를 1956년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食糧作物의 생산량과 식부면적을 살펴보면 〈表-49〉와 같이 水稻의 총생산면적은 8,223.3町反이며 수확량은 109,672石이다. 다른 시·군에 비하여 수확량은 중간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反當收穫高는 수원이나 화성·안성·포천 다음으로 높은 1,334合을 보이고 있었다.

〈表-49〉 食糧作物 生産高

1956年

구분 / 수확량 / 식부면적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대맥	쌀보리	밀	호밀	대두	소두	녹두	완두		
수확량	(石) 109,672	44,206	215	8,454	1,403	10,224	910	437	50	1,287,124	12,763
식부면적	(町反) 8,223.3	(反) 45,956	294	11,792	2,533	21,068	2,314	1,341	131	6,991	21,374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맥류는 大麥이 재배면적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밀, 호밀, 쌀보리의 순이다.

大麥의 總收穫量은 44,206石으로 전체 맥류수확량 54,278石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내에서 화성군과 안성군 다음으로 많은 수량인 것이다.

그리고 豆類는 대두, 소두, 녹두, 완두의 순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대두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기타 서류나 잡곡의 생산량도 식량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을 재배하고 있었다.

〈表-50〉 菜蔬類 植付面績 및 收穫高

1956年

무우		배추		양배추		참외		오이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反) 6,717	(貫) 1,498,050	4,722	902,523	345	90,450	778	133,400	1,349	234,900

호박		수박		고추		파		마늘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631	126,700	310	61,800	836	25,812	165	50,250	147	13,470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菜蔬類의 植付面積 및 收穫高는 〈表-50〉과 같은데 이를 보면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무우로서 총 6,717反이다. 그 다음으로는 배추, 오이, 고추 등이다. 무우와 배추의 재배면적은 총채소류 재배면적의 70.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채

소류 재배면적을 보아도 무우와 채소 및 고추, 마늘 등 김장을 위한 작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김치와 관련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성때문이다. 特用作物의 生産高 및 植付面績을 보면 廣州郡의 대표적인 특용작물은 면화, 대마, 닥나무, 참깨, 들깨이다.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表-51〉 特用作物 生産高 및 植付面積

1956年

구 분	면 화	대 마	닥나무	참 깨	들 깨	피마자
식부면적	9,366	219	44	908	981	107
수 확 고	354,932(斤)	3701(貫)	880	308	311(石)	30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것은 면화이며, 그 다음은 들깨와 참깨이다. 면화의 식부면적은 9,366反으로 總特用作物 植付面績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당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마와 닥나무의 재배면적도 각각 219 및 44反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재는 면화 참깨, 들깨 세종류의 특용작물만 다소 많이 재배되고 있을뿐 다른 작목의 재배면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果樹의 재배면적은 경기도내에서 화성군이나 안성군에서 비교적 많이 재배하고 있는 편이며, 廣州郡도 비교적 많은 면적을 이 당시에 재배하고 있었으나 수확량은 재배면적에 비해

〈表-52〉 果 樹 栽 培 狀 況

1956年

구 분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감	계
재배면적(反)	279	461	397	33	30	1,200
수 확 고(貫)	29,475	24,843	16,660	4,150	1,080	76,208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양이었다. 이는 廣州郡이 다른 지역에 비해 反當收穫量이 매우 적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과수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은 배이며 그 다음은 복숭아이지만 이들의 反當收穫量이 낮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훨씬 적은 사과보다 오히려 전체 수확량은 적다. 이러한 점은 과수재배의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기타 桑田面績은 2,632反으로 경기도내에서 안성군, 용인군, 포천군, 안성군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으며, 煙草栽培面績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表-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廣州郡의 耕作面績은 670.9反이 耕作戶數 796戶이다. 그리고 연초는 재래종과 황색종이 대표적 종류인데 경기도의 주요 담배 생산지인 위의 5곳에서는 재래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表-53〉 煙 草 栽 培 狀 況

4289年産

區分 / 市道別	耕作戶數	耕作面績	生産高	生産價格	摘要
	戶	反		圜	
廣州郡	793	670.9	52,886.0	13,857,325	
驪州郡	669	973.9	85,466.5	32,300,395	
利川郡	714	710.3	47,481.5	15,209,250	
龍仁郡	1,222	979.3	72,289.5	18,621,625	
安城郡	223	575.1	56,699.5	25,962,990	
計	3,624	3,909.5	314,823.5	105,951,585	
註 在來種	2,951(戶)	2,221.5(反畝)	160,506( )	40,114,850(圜)	
黃色種	673	1,688.0	154,417	65,836,735	

〈表-54〉 主 要 家 畜 飼 育 狀 況

1956.12.31

區 分	한 우	젖 소	말	돼 지	닭	오 리	토 끼	개
인천시	1,785	10	89	4,436	95,261	5,037	838	1,608
수원시	261	13	28	2,501	38,108	269	296	612
고양군	2,228	1	4	3,017	30,520	903	845	995
광주군	6,527	1	15	2,099	70,748	1,104	1,197	808
양주군	7,330	34	57	4,406	65,227	562	1,729	3,504
포천군	4,647	—	—	3,183	29,308	686	1,052	915
여주군	6,636	—	—	8,305	59,106	3,860	2,122	774
이천군	5,452	—	2	7,640	58,433	2,973	2,358	285
용인군	7,384	1	1	4,484	46,382	1,289	2,020	841
안성군	7,074	5	—	5,029	37,247	1,467	2,783	304
화성군	12,947	7	—	8,968	16,482	1,343	2,052	3,208
시흥군	3,271	57	7	2,665	43,465	95	1,116	677
부천군	3,259	10	10	4,299	58,105	3,152	1,271	1,248
김포군	3,956	—	11	3,925	69,463	658	507	1,347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pp 115-117

생산호수나 경작면적은 용인군이 가장 많으나 실제 생산고와 생산가격은 여주군이 훨씬 높으며, 안성군도 생산면적에 비해 생산고가 높은 편이다.

③ 畜産

1950女代 광주군의 축산은 기업적, 전업적 경영이라기 보다는 自家利用的, 自家消費的 生産體系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주요 가축의 생산 두수를 보면 한우가 6,527두, 젖소가 1두, 말이 15두, 돼지가 2,099두 닭이 70,748마리, 오리가 1,104마리, 토끼, 개가 각각 1,197,808마리이었다.

다른 시·군에 비하여 약간 특이한 현상은 돼지의 사육 두수가 비교적 적다는 것과 닭의 사양수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表-54〉와 같다. 이후 계속적으로 나타난 축산분야의 현상은 젖소의 사육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에 말은 물품운반기능 등 주요기능의 상실과 동시에 사육 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한우의 경우는 화성군이 12,947두로 가장 많이 사육하였으나 이는 농가호수가 많음을 기인한 것이지 호당 사육두사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흥군이나 양주군의 경우 그 당시 거의 사육하지 않았던 젖소를 각각 57두, 34두 사육하였다. 이천이나 여주군의 경우 다른 가축에 비해 돼지의 사육 두수가 비교적 많은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④ 農地改良事業

당시 농지개량사업은 주로 水利組合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1956年 現在 廣州郡의 수리조합은 廣州,廣州中央, 慶安, 松坡, 分院, 大旺, 樂生 등 7곳이 있다. 이중 廣州水利組合은 1927年에 설립되어 광주군 농지개량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조합원 수도 860명이 넘었다. 기타 각 수리조합의 설립인가 년수, 조합원수, 몽리면적 등은 〈表-55〉와 같다.

이러한 수리조합들은 小規模土地改良事業을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1956年 現在 주요 事業地는 퇴촌면, 초월면 등을 비롯한 10곳이었다. 주요 工事種類는 보, 방수제, 저수지 등이 있는데 저수지나 보의 설치가 대부분 이었다.

〈表-55〉 廣州郡 水利組合現況

1956年

조합명	설립인가 (年·月·日)	조합원수	몽리면적(町)	관개시설		적요
광 주	1927. 3.31	865	524.0	양수기	2.49	
광주중앙	1050. 3.15	621	299.0	저수지	2,81	공 사 중
경 안	1949. 7.12	187	75.0	양수기	2.22	
송 파	1950. 5.15	452	195.0	양수기	2.15	
분 원	1952.12.25	232	102.0	양수기	3.43	
대 완	1954. 3.23	346	212.0	저수지	1.72	
낙 생	1956. 2. 9	405	299.7	저수지	2.21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p. 93

1956年 당시 실시되고 있었던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을 각 항목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表-56〉과 같다.

〈表-56〉 小規模土地改良事業現況

기 업 자	사 업 지	공사종류	몽리면적	공사비	보조비	지원부담금
良才土地改良契	廣州郡 彦州面	보	650	180,000	120,630	59,370
大旺 〃	廣州郡 大旺面	방수제	500	1,328,312	1,062,650	265,622
光東 〃	廣州郡 退村面 廣東里	보	700	1,300,000	650,000	650,000
麗水 〃	廣州郡 退村面 光東里	양수기	470	802,400	561,680	240,720
草月 〃	廣州郡 突馬面 驪水里	저수담	140	1,557,500	1,246,000	311,500
彦州 〃	廣州郡 草月面 上樊里	저수담	100	505,000	404,000	101,000
春宮 〃	廣州郡 彦州面 靑潭里	저수지	295	4,200,000	2,100,000	2,100,000
樂生 〃	廣州郡 樂生面 樂生里	저수지	1,500	2,562,500	2,050,000	512,500
光東 〃	廣州郡 退村面 光東里	보	700	296,650	273,320	59,330
樂生 〃	廣州郡 樂生面 金谷理	저수지	2,990	2,990,000	1,495,000	1,495,000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pp. 96-99

⑤ 土地改革事業

1950年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토지 개혁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거시적 目的 아래서 廣州郡에서도 착실히 수행되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 광주군의 農地償還收納狀況을 보면 〈表-57〉과 같다.

〈表-57〉 廣州郡 農地償還收納現況

1956年

년 도	매수 농지	귀속농지(石)	계
1951	10,536.06	1,795.27	12,341.33
1952	17,215.80	2,733.10	19,948.90
1953	19,299.47	3,313.30	22,612.77
1954	21,051.63	3,099.63	24,161.26
1955	8,571.65	1,256.36	9,828.01
1956	365.00	158.00	514.00

(資料) 경기도, 1956, 도세일람. p. 91

이 表에 의하면 당시 廣州郡의 매수 농지 및 귀속농지의 상황을 연대별로 구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農地改革事業의 수행은 농민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地價償還으로 지연때문에 상환의 법정기한인 1954년에 이르러서도 完決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연기되었다.

5. 1960年代 農業과 廣州郡 農業의 發達史

1) 1960年代의 韓國農業의 現況

(1) 農村人口와 食糧生産

1960년의 國勢調査의 結果에 의하면 총인구가 2천 4백 98만 9천인데, 그 중 農家人口는 1천 4백 55만 9천으로서 총인구 수의 58.3%에 달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66년까지의 總人口, 農家人口, 農家戶數의 증감은 〈表-58〉과 같다.

〈表-58〉 農家人口의 變化

구분 / 연도	총인구수 (千人)	농가인구 (千人)	농업인구 구성비(%)	농가호수 (千人)	농가호당 인구수(人)
1960	24,989	14,559	58.3	2,350	6.20
1961	25,731	14,509	56.4	2,327	6.24
1962	26,470	15,079	57.0	2,469	6.11
1963	27,226	15,226	56.1	2,416	6.33
1964	28,181	15,553	55.2	2,450	5.35
1965	28,648	15,881	55.2	2,506	6.31
1966	29,207	15,780	54.0	2,540	6.21

(資料) 농업연감(1966), 경제통계연보(1967)

이 表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60年 14,559千名에서 1966年에는 15,780千名으로 약 1,221千名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업인구의 구성비는 1960年 58.3%에서 1966年에는 54.0%로 감소하였다. 식량생산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1955년도 4백 81만 3천 9백 48톤에서 1963년도에는 5백 22만 1천 5백 63톤으로 농업증산을 가져왔으며 그 식량 증식량은 1백 13만 7천 6백 15톤이다. 같은 해에 1백 27만 8백 81톤의 식량수요량이 증가됨과 동시에 양곡의 도입도 36만 6천 8백 44톤에서 50만 1백 10톤으로 증대되었다. 이는 약 2백 50만석에서 3백 50만석으로 약 1백만석 정도의 양곡도입이 증대하게 된 것이다.

보다 세분화하여 1936년부터 1964년까지 28년간의 穀物生産高 推移를 살펴보면 60年度를 100으로 한 生産指數는 1938年과 41年, 59年, 60年, 61年의 다섯해 밖에는 100%이상을 돌파한 事例가 없었다. 그나마도 41年의 3백 80만 1천 톤이 최고 생산실적임을 볼 때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米穀의 生産實績에 있어서는 63年, 64年에 超過生産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耕地規模

우리나라 農業의 구조적인 특수성은 크게 ①經營規模의 영세성, ②米麥中心의 主穀農業, ③家族勞動 爲主의 生計農業등으로 특징지워진다.

〈表-59〉 穀物生產量과 生產指數

年度別	生產量(1,000톤)				生產指數(1960=100)			
	쌀	맥류	잡곡	計	쌀	맥류	잡곡	計
1936	2,013	—	—	2,013	87.6	—	—	—
1937	2,786	1,149	133	3,068	121.3	119.4	164.8	89.5
1938	2,514	885	130	3,529	109.4	92.0	160.9	100.2
1939	1,057	1,016	209	2,282	46.0	105.6	258.7	66.4
1940	2,219	1,019	98	3,336	96.0	105.9	120.9	96.9
1941	2,722	992	87	3,801	118.5	103.1	108.1	113.5
1942	1,516	841	97	2,454	66.0	87.4	102.2	71.1
1943	1,943	687	95	2,725	84.6	71.3	118.1	78.7
1944	1,477	1,063	133	2,673	64.3	110.5	164.3	77.0
1945	1,848	331	78	2,257	80.5	34.4	97.0	65.7
1946	1,735	559	78	2,372	75.6	57.9	97.0	68.7
1947	1,994	501	60	2,555	86.8	52.1	74.4	70.9
1948	2,230	522	80	2,832	97.1	54.3	99.4	82.1
1949	2,122	675	114	2,921	92.4	70.1	141.4	81.4
1950	2,103	699	72	2,874	91.6	72.6	89.4	62.0
1951	1,634	409	97	2,140	71.2	42.5	120.3	74.8
1952	1,337	584	157	2,578	58.2	60.7	194.4	81.2
1953	2,036	690	85	2,811	88.6	71.7	105.6	90.7
1954	2,160	870	86	3,116	94.1	90.4	106.0	90.7
1955	2,234	726	92	3,150	97.3	75.5	113.4	77.0
1956	1,840	772	81	2,693	80.1	80.2	100.9	85.4
1957	2,266	685	82	3,033	98.7	71.1	101.3	97.2
1958	2,390	837	108	3,335	104.1	86.9	134.4	100.0
1959	2,391	963	86	3,439	100.0	100.1	106.7	100.0
1960	2,297	962	81	3,434	118.5	100.0	100.0	100.0
1961	2,722	1,044	96	3,862	99.9	108.4	119.4	112.5
1962	2,295	994	99	3,388	120.4	103.3	122.6	98.3
1963	2,766	305	108	3,179	131.5	31.6	133.5	92.5
1964	2,922	—		—	—	—	—	—

資料: 「食糧作物統計」, 原資料를 4捨5入함.

「國際食糧農業」, (1965년 5월호 p.3)

〈表－60〉 耕地規模別 農家戶數 및 面積

(單位：1町步,1戶)

年度別	合計		3段步未滿				3～5段步				5段步～	
	面積	戶數	面積	%	戶數	%	面積	%	戶數	%	面積	%
1956	1,967,123.3	2,200,549	113,815.3	5.8	419,660	19.0	232,051.8	11.8	522,530	23.7	560,683.8	28.5
1957	2,010,020.6	2,210,914	112,655.3	5.6	421,936	19.1	235,426.8	11.7	523,298	23.7	569,755.3	28.3
1958	2,017,900.0	2,218,323	107,133.5	5.3	421,408	19.0	228,220.4	11.3	515,313	23.2	562,352.4	27.9
1959	2,020,791.6	2,267,419	105,528.4	5.2	430,132	19.0	230,377.4	11.4	528,038	23.3	563,356.7	27.9
1960	2,026,914.0	2,349,506	106,524.1	5.3	463,415	19.7	230.521.0	11.4	545,209	23.2	565,714.1	27.9
1961	2,039,109.5	2,327,116	103,834.3	5.1	440,328	18.9	216,718.0	10.6	506,361	21.8	585,387.2	28.7
1962	2,066,013.5	2,469,453	110,928.8	5.3	490,349	19.8	218,164.7	10.6	522,986	21.2	612,432.6	29.7
1963	2,079,566.9	2,415,593	114,335.4	5.5	489,653	20.3	220,663.8	10.6	519,585	21.5	601,337.3	28.9
1964	2,178,238.4	2,450,308	110,270.9	5.1	466,098	19.0	217,459.5	10.0	512,689	20.9	617,124.9	28.3
1965	2,260,236.8	2,560,899	86,354.9	3.8	430,825	16.0	194,862.1	8.6	470,015	19.0	603,025.9	26.7

年度別	1町步		1～2町步				2～3町步				3町步以上			
	戶數	%	面積	%	戶數	%	面積	%	戶數	%	面積	%	戶數	%
1956	676,108	30.7	714,887.5	36.3	448,981	20.4	315,365.2	16.0	125,133	5.7	30,319.7	1.0	8,157	0.4
1957	672,328	30.4	733,087.5	36.5	455,855	20.6	329,547.7	16.4	129,574	5.9	29,512.0	1.5	7,923	0.3
1958	673,900	30.4	740,940.6	36.7	463,323	20.9	355,279.5	17.6	137,900	6.2	23,973.0	1.2	6,479	0.3
1959	688,303	30.3	744,955.6	36.9	474,247	20.9	351,889.0	17.4	139,810	6.0	24,533.5	1.2	6,889	0.3
1960	706,689	30.1	749,090.4	36.9	485,933	20.7	350,218.0	17.3	141,371	6.1	24,846.4	1.2	6,889	0.3
1961	740,999	31.8	756,683.9	37.1	490,688	21.1	354,654.7	17.4	142,680	5.7	21,831.4	1.1	6,060	0.3
1962	803,162	32.5	752,359.0	36.4	505,093	20.5	345,662.2	16.7	140,598	5.7	27,165.2	1.3	7,265	0.3
1963	761,015	31.5	760,160.2	36.6	497,398	20.6	348,950.0	16.8	138,999	5.8	34,120.2	1.6	8,943	0.4
1964	782,499	31.9	802,444.2	36.8	525,672	21.5	371,053.1	17.0	147,835	6.1	59,885.8	2.8	15,515	0.6
1965	793,864	32.0	915,106.1	40.5	643,305	26.0	346,020.6	15.3	139,599	6.0	114,867.2	5.1	29,291	1.0

資料:「農業年鑑(66年)」,「一般統計(32～33面)」.

〈表－60〉에 의하면 農家戶當 경지면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0.9ha로써 세계에서 당시 小農國이라고 하는 일본의 1.19ha보다도 적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경지규모의 절대적인 영세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경영규모별로 세분하여 보면 5단보 미만의 농가수가 전체농가수의 35.7%(65年)나 되며 총 경지면적 2백 26만 2백 36정보 중에서 12.4%에 해당하는 27만 1천 2백 17.8정보의 경작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정보 미만～5단보 이상의 소농가가 27.9%인 79만 3천 8백 66호로서 60만 3천 26정보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1정보 미만의 농가만도 67%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3정보 이상의 농가는 58년도의 6천 4백 79戶에서 63年度에는 8천 9백 43戶, 64年에는 1만 5천 5백 15戶, 65年度에는 2만 9천 2백 91戶로 증가하여 18년 동안에 2만 2천 8백 12호가 증가하였으며, 총경작면적의 약 5%인 11만 4천 8백 67정보의 농토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農村에 大農家는 거의 없고 1정보 미만의농가가 65년 현재 67.0%나 된다는 것은 토지의 영세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業態別로 農家戶數를 보면 畜作의 농가 수가 전체수의 75%~82%를 오르내리고 있고, 田作이 15%~22%를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나라가 米麥에 편중한 주곡농업을 95%~98%까지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表-61〉 業態別 農家戶數

(單位 : 1戶)

年度別	耕種									
	畜作		田作		果樹		菜蔬		特用作物	
1958	1,825,901	82.3	351,990	15.9	7,217	0.3	13,106	0.6	1,634	0.1
1959	1,874,809	82.7	351,479	15.5	7,710	0.3	13,088	0.6	2,418	0.1
1960	1,948,366	82.9	362,079	15.4	7,841	0.3	13,234	0.6	2,765	0.1
1961	1,930,499	82.9	356,457	15.3	8,288	0.4	13,283	0.6	3,243	0.1
1962	2,018,601	81.7	403,175	16.3	9,220	0.4	14,434	0.6	4,373	0.2
1963	1,965,536	81.4	405,021	16.8	9,096	0.4	12,393	0.5	3,924	0.2
1964	1,970,047	80.4	428,834	17.5	9,946	0.4	13,408	0.5	4,990	0.2
1965	1,898,127	75.7	549,130	21.9	11,819	0.5	13,251	0.5	3,928	0.2
1966	1,868,186	73.5	593,544	23.3	12,323	0.5	13,604	0.5	6,724	0.2

年度別	畜產·養蠶				火田		*其他		合計	
	畜產		養蠶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1958	5,857	0.2	1,526	0.07	4,679	0.2	6,413	0.3	2,218,323	100
1959	6,245	0.3	1,241	0.05	5,335	0.2	5,094	0.2	2,267,419	"
1960	5,297	0.2	1,108	0.05	5,500	0.2	3,316	0.2	2,349,506	"
1961	5,633	0.2	930	0.04	6,427	0.3	2,406	0.1	2,327,116	"
1962	6,796	0.4	1,292	0.05	9,033	0.3	2,529	0.1	2,469,453	"
1963	5,440	0.2	961	0.04	10,738	0.4	2,484	0.1	2,415,593	"
1964	3,790	0.2	1,687	0.06	15,224	0.6	2,380	0.1	2,450,308	"
1965	3,127	0.1	1,537	0.06	18,380	0.7	7,600	0.3	2,506,899	"
1966	3,732	0.1	1,883	0.06	17,566	0.7	22,714	0.9	2,540,274	"

資料 :「農業年鑑(65年)」, 一般統計(36~37面), *其他는 花卉業·手工業農家를 말함.

그리고 農產物 所得面에서 비교적 고율의 집약성을 보여 주는 축산호수가 66년에 3천 7백 32호로서 0.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주곡농업에 편중함으로서 영세화를 초래하게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2) 1960年代의 農業政策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농업정책 제1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1962~66)의 기본

목표는 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산업구조의 균형화 및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공업화만이 經濟自立을 가능 케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업화 우선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農業部門에 대한 개발계획의 방향과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全農村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의 유형에 따르는 지역농업을 수립하고 적정규모의 농가를 維持創設하는 데 주력한다.

②農村人口 증가에 대비하여 新耕地 및 牧野地를 조성한다.

③農產物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며 영농자금과 비료보상금을 확보한다.

④農村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企業化를 촉진하고 加工處理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農政의 支援을 도모한다.

⑤林業資源의 조성과 황폐임야의 복구를 촉진한다.

⑥農政의 民主化와 영농단체의 민주적 관리를 도모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國民食生活의 기본이 되는 식량의 自給自足을 위하여 양곡의 증산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결정하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地의 확장과 단위면적당 生產力의 提高를 도모토록 하였다. 農地擴張事業을 위해서는 목포, 영산강, 섬진강, 동진강 유역의 干拓事業을 비롯한 전국적인 開發事業을 전개하여 계획기간 중에 2만정보의 農耕地를 새로이 확장하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水利事業을 완성시키는 한편 종자갱신, 비배관리의 개선, 병충해 방제의 徹底化, 농사시험 및 지도사업 등으로 영농방식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래의 주곡위주의 단순영농방식을 止揚하고 영농의 多角化를 기함으로써 農家所得의 증진과 農產物의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로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아울러 전체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영농의 多角化와 경제작물의 대폭 증산, 그리고 농업증산계획 관련사업으로서의 축산장려 5개년 계획 및 잠업장려 5개년계획을 흡수시켜서 농업증산 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식량수급의 만성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식량의 自給自足과 農業近代化를 이룩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과거의 증산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目標達城手段을 입체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입안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假定과 基本方向을 설정하여 놓고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 당시의 계획수립의 가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앞으로도 國民食糧의 소비양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人口의 자연증가율은 현재의 2.88% 수준에서 2.31%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다.

③農產物의 加工原料需要와 飼料需要는 매년 증가될 것이다.

④미국잉여농산물의 導入依存度는 점차 감축될 것이다.

⑤農業生產條件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⑥계획기간중 여타산업의 연관관계로 보아 현재의 생산구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와 같은 大前提의 設定下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식량증산 7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첫째, 식량증산의 중점을 양곡에 두고 물량증산과 아울러 國民所得을 보장하며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증산시책에 직결될 수 있도록 施策推進態勢를 정비강화하여 증산붐이 일어나도록 한다.

둘째, 증산을 저해하는 自然的·經濟的 및 社會的 障碍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制度的 뒷받침을 한다.

세째, 식량증산시책은 일관성이 있고 持續的이어야 하며 集中的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량증산효과가 農業近代化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단체인 農協과 農地改良組合이 單位生産組織體의 핵심체가 되는 가운데 추진하도록 한다.

네째, 양곡 중 工業原料需要 및 飼料需要는 彈性値를 감안하여 目標年度需要는 基準年度에 비하여 약 2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充足시키는 수준에서 추진토록 한다.

다섯째, 作物別 生産性이 低位에 있으므로 主要作物의 증수수단은 旣耕地의 단위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식량증산추진계획 외에도 農漁村에 누적되어 있는 高利債를 일소함으로서 農村經濟의 自立을 도모한다는 目的下에 농어촌 고리채의 정비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비법을 1961년 6월에 공포하여 시행한 바 있고 自立安定農家의 造成事業을 추진하여 전개한 바 있다. 이것은 과거의 對農業的 次元을 對農民的 次元으로 승화시킨 사업내용이고 畜産과 耕耘農業의 結合誘道, 그리고 5~10 段步를 소유한 小農을 대상으로 하여 自立安定農家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한 것이었다.

이어서 經濟性 作目을 중심으로 한 생산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생산비의 保章條件下에 영농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農産物 價格維持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政府收買, 擔保融資, 輸出奬勵, 必要時 補助金 支給 등의 수단을 통하여 농산물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收買價格豫示制의 시험적인 도입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양곡매상가격을 인상하여 실현하도록 하였다.

(2)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推進과 農業發展

경제개발 제2차 계획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自立體制를 갖추고 近代化의 경제적 기초 즉 國際收支의 균형, 필요한 投資財源의 완전한 國內調達, 完全雇傭의 완성 등을 명제로 하였던 것이며, 경제 및 사회의 長期開發을 쌓아 올리는 한 과정으로서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自立經濟의 확립을 더욱 촉진케 한다는 계획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基本目標下에서 농업부문의 개발계획의 주된 基調는

첫째, 農工併進政策의 展開를 적극적으로 期한다.

둘째, 水利施設의 확충을 도모한다.

세째, 耕地擴張 및 整理를 기한다.

네째, 單位生産性의 提高를 기하도록 한다.

다섯째, 양곡증산을 적극적으로 도모 한다.

여섯째, 經濟作物의 증산을 기한다.

일곱째, 축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적 기조하에 農業生産性의 향상, 農業所得의 증대 및 農業構造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先進農業國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接近으로서 농업기본법을 1967년 1월에 제정한 바 있고, 농산물의 가공, 저장처리 업무를 開發育成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農漁村開發公社를 1967년 12월에 발족하게 한 바 있으며, 농업기반조성의 추진과 大單位農業開發事業의 추진 및 農業用水의 대대적 개발을 위해 1970년 2월에 農業振興公社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밖에도 농산물가격의 보장과 農業所得源의 開發, 農民의 地位向上 그리고 農業部門 資金支援의 확충을 통한 농업과 공업부문의 균형성장을 추진, 개발케 한 바 있었다.

그리고 分散農政에서 綜合地域開發農政으로의 전환과 適地適作의 農業立地論에 따른 農特事業의 展開下에서 團地農業에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한 바 있고 소비수요와 수출수요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방안으로서 경제작물의 수요충족과 수출증대품목을 선정하여 육성 개발한 바 있다. 그밖에도 종전의 食糧作物爲主 및 生計營農을 탈피하고 경제작물의 증산을 통한 상업영농에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저곡가정책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고곡가시대에도 糧政方向을 전환시켜 米穀收買價格의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으며 農地改革法에 의거 農地擔保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1969년 12월에 農地擔保法 施行令을 공포하여 농민의 資金借入時 농지담보가 담보설정으로서 가능하게 해결하였으며, 농지의 담보가치 부여하에서 농민의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하였고 1969년부터는 농업자금의 공급확대를 위해 借入資金의 도입을 적극화 하였다.

3) 1960年代 廣州郡 農業

(1) 農家戶數

1960년초인 1963년과 1964년의 광주군 농가호수는 각각 12,682戶와 12,918戶이었다. 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소 농가호수가 증가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60년대 말에 와서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表-62〉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진행중인 1968년과 1969년의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를 제시한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1968년의광주군 농가호수는 13,163戶이었으며 農家人口는 82,405名이었다. 이 통계치는 1969年에 와서 다소 감소현상을 보여 農家戶數는 12,979戶, 農家人口는 80,100으로 되었다. 기타 전업과 겸업, 남,녀수 면별 농가호수 및 인구는 〈表-62〉와 같다.

〈表-62〉 農業農家戶數 및 人口

구분 / 면명	농가호수			농가인구		
	계	전업	겸업	계	남	녀
1968년	13,163	11,876	1,287	82,405	41,520	40,885
1969년	12,979	11,795	1,184	80,100	40,309	39,791
광주면	1,114	935	179	7,028	3,532	3,496
오포면	1,016	1,000	16	6,245	3,096	3,149

초월면	1,176	1,156	20	7,622	3,794	3,828
도척면	894	881	13	5,454	2,739	2,715
실촌면	1,061	960	101	6,714	3,370	3,344
퇴촌면	1,036	930	106	6,121	3,041	3,080
남종면	582	498	84	3,492	1,765	1,727
중부면	476	316	160	2,891	1,455	1,436
성남출장소	742	649	93	4,673	2,293	2,380
동부면	1,252	1,049	203	7,688	3,944	3,744
서부면	953	920	33	5,919	3,074	7,645
대왕면	839	794	45	5,125	2,608	2,517
낙생면	921	329	92	5,735	2,847	2,888
돌마면	917	678	39	5,393	2,751	2,642
계	12,979	11,795	1,184	80,100	40,309	39,791

〈表－63〉 業態別 農家戶數

(단위 : 호 69.10.1 현재)

구분 / 면명	총수	경종						축잠		기타			비고
		답작	전작	과수	소채	특용작물	고등원예	축산	양잠	화전	임금노동	기타	
1968년	13,163	10,120	2,119	62	373	62	16	120	12	43	207	252	
1969년	12,979	10,370	1,714	35	353	41	40	133	12	29	177	65	
광주면	1,114	741	301	12	14	2	8	8	6		22		
오포면	1,016	842	159					2	3		7	3	
초월면													
도척면	894	857	9	1	3			2	1	5	15	1	
실촌면	1,061	917	116		3		1	1			16	7	
퇴촌면	1,036	810	102	4	50	7		2	1	24	18	18	
남종면	582	308	82		160		3				29		
중부면	476	317	147	4		1	1	1			5		
성남출장소	742	602	120	2				11			7		
동부면	1,252	1,102	97	3	46	15	6	58	1		14		
서부면	953	849	67	1	4	1	14	3			4	11	
대왕면	839	654	65	7	25	13	11	23			15	25	
낙생면	921	754	96	1	44	1	6	8			10		
돌마면	917	883	9		1			11			13		
계	12,979	10,370	1,714	35	35	41	50	133	12	29	177	65	

農家戶數를 다시 업태별로 분석해 보면 〈表-63〉과 같이, 답작과 전작이 가장 많다. 그리고 1968년에 비해 69년에는 전체 농가호수는 184戶가 줄어들었지만 답작을 위주로 하는 農家는 오히려 250戶가 증가되었다.

축산도 마찬가지로 120戶에서 133戶로 증가되었다. 이는 경제개발 1,2차 계획 중 農業部門에서 식량증산과 자립농가육성, 축산진흥의 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高等作物 즉 고등원예도 경제작목의 開發과 육성이라는 시책하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다소 늘어났다. 이외의 기타작물재배를 하는 농가는 全體農家戶數의 감소와 함께 줄어들었다.

이를 다시 面別로 나누어 보면 축산의 경우 동부면과 대왕면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등원예는 서부면과 대왕면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2) 耕地面績

1960年代 초기인 1963年과 1964年 廣州郡의 총경지면적은 각각 142,514단보, 149,564단보이었다. 이중 1964年을 기준으로 보면 등록지가 142,854단보(논: 74,516, 밭: 68,338)이며 미등록지는 6,710단보로 이중 논이 2,080단보 밭이 4,630단보이다.

이를 다시 面別로 나누어서 살펴 보면 가장 경지면적이 넓은 곳은 동부면으로 16,008단보이며 그 다음이 초월면으로 13,646단보이다.

60年代 말인 1968년과 1969년의 광주군 경지면적은 그동안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각 156,098단보, 153,417단보 이었다. 1969年에 약간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60년대 초에 비하면 증가된 면적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답의 면적중 1모작 답면적은 64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2모작답 면적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등록지나 미등록지나 똑같은 현상인 것으로 그만큼 광주군의 경지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表-64〉 面別 耕地面積

구분 / 면별	총 계					등 록 지					미 등 록 지				
	합계	답			전	합계	답			전	합계	답			전
		계	1모작	2모작			계	1모작	2모작			계	1모작	2모작	
광주면	9,714	4,777	4,266	511	4,937	9,048	4,548	4,058	490	4,500	666	229	208	21	437
오포면	11,902	6,672	6,029	643	5,230	11,300	6,430	5,787	643	4,870	602	242	242		360
초월면	13,645	7,003	6,766	237	6,642	13,277	6,754	6,517	237	6,523	368	249	249		119
도척면	11,701	6,107	5,789	318	5,594	11,041	5,949	5,631	318	5,092	660	158	158		502
실촌면	12,938	6,270	6,216	54	6,668	11,866	5,943	5,889	54	5,923	1,072	327	327		745
퇴촌면	11,480	5,920	4,323	1,597	5,560	11,346	5,875	4,284	1,591	5,471	134	45	39	6	89

구분 면별	총 계					등 록 지					미 등 록 지				
	합계	답			전	합계	답			전	합계	답			전
		계	1모작	2모작			계	1모작	2모작			계	1모작	2모작	
남종면	6,308	2,729	2,604	125	3,579	6,308	2,729	2,604	125	3,579					
중부면	13,341	6,192	5,877	315	7,149	12,861	6,082	5,778	304	6,779	480	110	99	11	370
(성남출장소)	(8,115)	(4,172)	(3,937)	(235)	(3,943)	(7,730)	(4,064)	(3,840)	(224)	(3,666)	(385)	(108)	(97)	(11)	(277)
동부면	16,008	7,946	6,980	966	8,062	14,981	7,518	6,581	937	7,463	1,027	428	399	29	599
서부면	9,071	5,321	5,206	115	3,750	6,071	5,321	5,206	115	3,750					
대왕면	10,129	5,221	5,107	51	4,908	9,786	5,205	5,154	51	4,581	343	16	16		327
낙생면	11,592	6,238	5,978	260	5,354	11,309	6,183	5,923	260	5,126	283	55	55		228
돌마면	11,735	6,200	5,492	703	5,535	10,660	5,979	5,271	708	4,681	1,075	221	221		854

〈表－65〉 年度別 耕地面積

구분 면별	총 계					등 록 지					미 등 록 지				
	합계	답			전	합계	답			전	합계	답			전
		계	1모작	2모작			계	1모작	2모작			계	1모작	2모작	
1969년	142,514	73,391	66,598	6,703	69,123	139,846	72,472	65,736	6,733	67,374	2,664	919	862	57	1,749
1964년	149,564	76,596	70,696	5,900	72,968	142,854	74,516	68,683	5,833	68,338	6,710	2,080	2,013	67	4,630
1968년	156,098	77,342	64,363	12,979	78,756	149,596	75,647	62,801	12,846	73,946	6,502	1,695	1,562	133	4,807
1969년	153,417	75,780	62,924	12,856	77,637	149,482	74,801	62,067	12,734	74,681	3,935	979	857	122	2,956

(3) 農產物 收穫高 및 植付面績

廣州郡의 農產物 收穫高 및 植付面績은 크게 식량작물, 채소원예, 과수원예, 특용작물 등으로 大別하여 고찰할 수 있다. 우선 1960年代 廣州郡의 주요 식량작물 생산고 및 식부면적을 살펴 보면 〈表－66〉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廣州郡의 미곡재배면적은 69,186단보이며 수확량은 18,067.0톤이었다. 미곡의 생산량 및 식부면적은 다른 시·군보다 다소 적은 편이다.

〈表－66〉 主要 食糧作物 生產高 및 植付面積

(1964)

구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京畿道	1,684,503	428,053.0	760,999	73,005.0	191,535	11,584.7	538,908	34,356.7	126,645	149,184.7
인 천 시	37,391	10,150.0	14,765	1,573.1	2,808	197.5	10,238	708.9	8,542	10,975.1
수 원 시	22,069	6,128.0	6,924	755.8	1,311	71.6	5,581	297.2	2,628	2,900.0
의정부시	7,785	1,180.0	2,643	286.2	2,483	131.9	1,316	91.9	892	1,074.2
고 양 군	75,722	19,924.0	20,318	1,898.9	2,077	153.3	8,040	532.3	3,824	5,157.3

광 주 군	69,185	18,067.0	43,996	4,514.3	16,476	1,049.0	22,257	1,643.0	7,456	8,918.4
양 주 군	97,285	21,104.0	56,841	5,041.6	23,408	1,327.6	29,464	2,029.5	8,550	9,916.5
포 천 군	53,477	11,427.0	45,510	4,351.0	24,047	1,541.2	24,683	1,650.9	4,688	5,089.4
가 평 군	25,652	5,692.0	19,934	1,870.0	8,345	452.8	21,635	1,093.7	2,529	2,430.3
양 평 군	70,831	16,540.0	44,210	4,191.1	15,721	1,048.1	25,160	1,697.6	4,879	5,814.0
여 주 군	94,280	23,828.0	35,246	3,525.0	4,939	318.9	34,395	2,039.6	9,934	11,157.3
이 천 군	106,359	27,315.0	34,136	2,995.4	5,078	287.6	27,470	1,874.7	8,725	11,181.5
용 인 군	93,668	24,866.0	44,760	4,391.2	9,818	633.9	42,250	2,716.6	7,488	8,223.9
안 성 군	116,550	31,701.0	63,740	5,591.6	7,804	478.0	42,036	2,672.9	8,460	10,901.3
평 택 군	147,723	39,549.0	67,129	6,048.2	6,645	392.3	36,402	2,468.8	7,447	8,466.5
화 성 군	177,802	47,632.0	86,957	8,886.2	14,178	701.7	82,295	4,788.9	10,849	11,440.7
시 흥 군	63,159	16,053.0	27,237	2,748.9	4,673	309.2	18,557	1,322.4	5,290	6,387.6
부 천 군	70,822	19,250.0	22,955	2,482.2	5,182	374.0	15,430	1,180.3	5,484	6,847.4
김 포 군	92,580	25,713.0	26,720	2,486.5	2,632	146.6	24,887	1,481.4	3,774	4,421.7
강 화 군	120,461	32,342.0	32,947	3,326.0	2,685	195.0	21,929	1,393.9	6,703	8,556.5
파 주 군	102,781	22,859.0	41,360	3,828.7	17,075	900.5	21,929	1,355.3	4,061	4,743.0
연 천 군	34,682	5,971.0	17,695	1,721.2	10,042	721.9	18,829	1,163.4	3,329	3,773.6
옹 진 군	4,239	762.0	4,976	491.9	4,108	152.1	3,768	153.5	1,114	808.5

(資料) 農林部, 1964. 食糧作物統計

맥류의 경우는 식부면적이 43,996단보이고 수확량은 4,514.3t이었다. 잡곡은 식부면적이 16,476단보, 수확량이 1,049.0t이었고, 두류는 식부면적이 22,257단보, 수확량이 1,634.0t이었다. 두류는 주로 大豆, 小豆 등이 많이 재배되었고 녹두도 약간 있었다.

1960年臺 果樹作物의 收穫量과 植付面績은 〈表-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 1차년도와 제2차 경제개발년도로 구분지어 제시하였다.

제1차경제개발년도에 속하는 1964년을 보면 가장 생산면적이 많은 것이 복숭아, 배, 사과, 포도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후 사과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포도의 재배면적도 증가하

〈表-67〉 果樹作物 收穫量과 植付面積

구분 / 년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합계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1963	62	24	46	46.5	50	32.7	12	9	18	11.8	—	—	188	124
1964	40	52.4	50	71.6	57	46.9	37	30.2	33	21.4	—	—	217	222.5
1968	320	147.2	210	105	380	159.6	260	156	21	10.5	172	77.4	1,363	655.7
1969	330	105.6	210	82	390	32	290	92.2	14	4.2	180	21.6	1,414	333.6

여 1969년에는 봉숭아, 사과, 포도, 배의 순으로 재배면적에 있어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다.

特用作物의 경우에도 이 기간동안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종래까지 적은 양이지만 계속 그 명목을 유지해 왔던 완초나 대마 등이 60년대 말로 접어 들면서 꼬리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피마자 역시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經濟作物의 育成·開發政策으로 참깨와 들깨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特用作物이 지니는 자급자족적 작목의 성격이 제1,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경제작목이란 개념으로 바뀌어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변경 현상이 일어났으리라 본다.

〈表-68〉 特用作物 生産高 및 植付面積

구분 / 년도	면 화		대 마		참 깨		들 깨		피마자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면적	수확고
1963	-	-	7	34.7	993	38	857	29	320.5	9
1964	2,027	91	36	2	1,163	48	1,138	48	240	12.8
1968	1,076	86.0	-	-	1,300	78	1,243	74.5	24	1.9
1969	1,100	83.6	33	-	1,777	138.6	1,618	129.4	14	1.21

(4) 畜産

1960年代 초까지만 해도 牛의 경우 한우가 주종이었고, 젖소는 거의 없었다. 더우기 한우는 農耕을 위한 역축으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가구당 사육두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表-69〉는 이를 잘 설명하여 주는데, 1964年의 경우 한우 사육호수 7,635戶에 사육두수가 7,783두로 1가구당 사육두수는 불과 1.02에 불과하다. 농가에서는 대개 식용으로 돼지나 닭고기를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돼지나 닭의 사육마리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 볼 수 있다.

1964년말 당시 한우의 경우 한 가구에서 여러두수를 사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데 반하여 닭의 경우 50수이상을 키우는 농가가 94戶나 있었고, 전년도인 63년의 경우는 무려 1,256戶나 있었다. 더우기 서부면의 경우 50수 이상의 닭을 키우는 농가가 54戶나 있어서 양계의 집산지의 역할을 하였다.

〈表-69〉 主要家畜飼育狀況

구분 / 년도	한 우		젖 소		돼 지		산 양		토 끼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1963	8,118	8,275	9	30	3,778	4,884	76	189	2,196	8,320	5,799	74,173
1964	7,636	7,783	26	96	2,773	3,366	72	170	1,127	3,849	5,302	49,280
1968	6,011	6,094	36	355	2,029	2,871	121	178	542	2,111	4,475	247,557
1969	5,314	5,686	31	498	2,169	2,994	64	797	250	759	3,490	314,677

이러한 가축사육상황은 60년대말로 접어 들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젖소의 경우 사육가구수는 별로 변화가 없었으나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하여 1가구당 사육두수가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국 이는 60년대말 畜産의 育成·保護政策에 맞추어 젖소와 양계가 농가소득원으로서 보호되고 장려되어 상업위주의 경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表-70〉 가축 사양 가구수

1964년말 현재

구분 / 면별	유축 농가수	축우	말	돼지			닭		
				계	10두미만	10두이상	계	50수미만	50수이상
광주면	927	600	—	293	293	—	401	398	3
오포면	919	580	—	431	431	—	474	474	—
초월면	842	895	—	263	261	2	568	568	—
도척면	799	651	—	341	340	1	510	509	1
실촌면	912	799	—	392	392	—	673	672	1
퇴촌면	952	713	—	87	87	—	609	609	—
남종면	401	337	—	91	91	—	268	267	1
중부면	738	632	—	98	98	—	287	285	2
(성남출장소)	(447)	(373)	—	(51)	(51)	—	(158)	(156)	(2)
동부면	1,163	409	—	180	179	1	515	498	17
서부면	713	546	—	234	234	—	197	143	54
대왕면	694	419	—	101	100	1	145	135	10
낙생면	700	565	—	162	161	1	315	312	3
돌마면	566	490	1	100	100	—	340	338	2

(5) 林業

廣州郡의 임야면적은 60年代에도 큰 변화는 없었는데, 1963年에 총면적이 45,456.69ha이던 것이 1969年에 44.623ha로 833.69ha가 줄어들었다. 임야는 소유자별로 크게 국유림, 공유림,

〈表-71〉 林野面積

(단위 : ha)

구분 / 년도	총면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963	45,456.69	4,261.02	2,143.92	39,051.75
1964	44,779	4,226	2,110	38,443
1968	44,623	3,705	1,962	38,956
1969	44,623	5,072	1,782	37,770

(資料) 광주군, 1965, 1970. 통계연보

사유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60年代 廣州郡의 경우 사유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유림, 공유림의 순이다.

〈表-71〉과 같이 국유림은 1963年 4,261ha에서 5,072ha로 크게 증가한 반면 사유림과 공유림은 줄어들었다.

〈表-72〉 임산별 임야면적

소유별 / 임상별	총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요존	불요존	타부처	계	도유	군유	
1969년도	44,623	5,072	49	3,553	1,470	1,781	815	966	37,770
성림지									
계	42,371	4,902	49	3,383	1,470	1,594	672	922	35,875
침 엽 수	18,399	581	49	405	127	529	186	343	17,289
활 엽 수	11,894	569		569		980	486	494	10,345
혼 효 림	12,078	3,752		2,409	1,343	85		85	8,241
미성림지									
계	678						114		564
천연갱신									
요인공조림	306						114		192
요 사 방	372								372
기타									
계	1,574	170		170		73	29	44	1,331
제 지	250	107		107		62	29	33	581
개 간 지	824	63		63		11		11	750

임산별로 임야면적을 보면(1969年 기준) 성림지가 42,371ha인데 이중 침엽수는 18,399ha, 활엽수는 11,894ha, 혼효림은 12,078ha이다.

그리고 미성림지의 경우 총 678ha중 요인공조림 306ha, 요사방 372ha이다. 기타 개간지가 824ha, 제지가 250ha이다.

전체 임산별 임야면적을 다시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지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表-72〉와 같다.

(6) 農機具 保有現況

1960年代의 농기계는 人力을 위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動力은 거의 없었다. 廣州郡의 경우도 농업기계가 그리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인력이나 축력에 의존하여 경작을 하였다.

〈表-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을 경작하는 경운기의 경우 총 4,892대(1969年)이었는데 이중 동력경운기는 불과 32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력과 축력을 이용하는 쟁기등이었다.

〈表－73〉 農業用 農機械 保有現況

구분 / 면별	경운기	분무기	산분기	탈곡기	가마니기	양수기	농업용원동기
1963	4,721	477	181	2,516	5,135	63(54)	218
1964	5,411(3)	648(23)	389(14)	2,608(9)	5,882	67(59)	178
1968	5,326(14)	1,478(77)	374(52)	2,768(20)	2,407	194(189)	307
1969	4,892(32)	1,936(85)	334(53)	2,476(50)	1,587	219(213)	338

(資料) 광주군, 1965, 1970, 통계연보
*( )안은 전체 대수 중 동력인 것을 말함

1964年이후 등장한 동력경운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을 이용한 기계들이 줄어들었다. 분무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인력에 의존하다가 1964년 이후 차츰 동력부문기가 증가하게 되었다.

양수기의 경우는 그 作業的 特性때문에 인력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60年代초에도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表－73〉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농업기계화가 촉진될수록 많은 노동력이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1970年代의 農業과 廣州郡 農業의 發達史

1) 1970年代 韓國農業의 現況

1970年代는 정치적으로 보면 民主化가 후퇴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1960年代에 이어서 계속 高度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로 특정지워질 것이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1962年에 실시된 이후 약 20년간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발전은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급격한 경제성장이 工業化에 크게 힘입은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특히 製造業의 성장이 급격하였다.

이와같은 공업의 급격한 성장은 農林水産部間의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농업과 임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을 사양산업으로까지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농업의 격동기인 1970年代 농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廣州郡의 농업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農家人口 및 耕地面積

1960年 이전에도 農村人口는 權力이 집중되어 있고, 經濟的으로나 社會, 文化的으로 유리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로 전출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공업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農村人口는 더욱 대량으로 都市에 전입하였다. 공업화 과정에서 실제로 耕地面積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절대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農家戶當 耕地面積은 증가하고 있다. 즉 1969年에 있어서 총경지면적은 2,311.2천 ha였고, 1979年에는 2,207.1천 ha로 약 105천

ha가 감소하였는데 호당 경지면적은 90.7a에서 102.1a로 증가하였다.

1970年代의 農家人口의 변화를 50年代, 60年代와 비교하여 살펴 보면 〈表-74〉와 같다.

〈表-74〉 年齡別 農家人口

(單位 : 名, %)

年齡區分(세)	1959	年齡區分	1969	1979
15이하	5,954,106(42.1)	13이하	6,262,000(40.2)	3,460,000(31.8)
16~20	1,643,754(11.6)	14~19	1,961,000(12.6)	1,625,000(14.9)
21~50	4,471,921(31.7)	20~49	4,945,000(31.7)	3,537,000(32.5)
51~65	1,391,544 (9.9)	50~59	1,312,000 (8.4)	1,102,000(10.1)
66이상	664,426 (4.7)	60이상	1,109,000 (7.1)	1,159,000(10.7)
計	13,125,751(100.0)	計	15,589,000(100.0)	10,883,000(100.0)

註 : 年齡區分은 1968년 전과 이후는 다름.
資料 : 1959년의 資料는 1960년 「農業年鑑」, 1969년과 1979년은 「農業統計要覽」
(農協中央會 調査部 1981年刊)에 의함.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를 보면 1959년과 1969년 사이에는 별로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두 시기의 연령구분이 약간 달라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20세 미만으 인구와 20세에서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1969年과 1979年 두시기의 연령별 農家人口를 보면 13세 이하의 연령층은 비율에 있어서 현저하게 감소하고 대신 50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이 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가인구가 노령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59年과 1969年의 농가인구의 총수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1969年의 農家人口 總數가 150만 명 정도 오히려 더 많은 편이었는데, 1979年의 農家인구는 1969年의 69.8%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비율로 보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16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연령층의 인구는 1979年보다 3.1% 더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數에 있어서는 71.5%나 감소하고 있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이 實數에 있어서 10년간 거의 반감했다는 것은 한편에서 結婚하고 어린애를 낳을 젊은 男女가 이농하여 都市로 전출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계획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빠져 나감에 따라 농촌에서의 노동력과 국민학교 교육, 그 밖의 社會生活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工業化에 따른 도시화가 진척됨에 따라 農村에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 나갔고 그 결과 零細農家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表-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9년 전체 농가의 42.3%를 차지했던 5단보 미만의 영세농가는 1969年에는 33.1%로 상당히 줄어 들었으며 1979年에는 29.8%로 다소 감소하였다.

1969년에서 1979년에 이르는 기간의 감소는 비율상으로 보아 3.3%에 지나지 않으므로

1959~69년 사이에 감소한 9.2%에 비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른지 모르지만 전체 농가의 약 40만호가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70年代에 耕作規模別로 본 농가의 계층구조가 中農을 중심으로 同質化하고 대농이나 소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村落社會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도니다. 왜냐하면 同質的인 집단은 이해관계가 합치되기 쉽기 때문에 어떤 공동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같은 해결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表-75〉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單位 : 千戶, %)

年度	總數	0.3ha 미만	0.3~0.5	0.5~0.1	1.0~2.0	2.0~3.0	3.0이상	耕種外營農家
1959	2,257.3	430.1	528.0	688.3	474.2	139.8	6.9	—
	(100.0)	(19.0)	(23.3)	(30.3)	(20.9)	(6.2)	(0.3)	—
1969	2,546.2	399.8	442.4	807.4	667.6	130.5	39.4	59.1
	(100.0)	(15.7)	(17.4)	(31.7)	(26.2)	(5.1)	(1.6)	(2.3)
1979	2,161.8	281.0	362.6	764.2	555.6	80.7	26.8	81.9
	(100.0)	(13.0)	(16.8)	(35.4)	(25.7)	(4.1)	(1.2)	(3.8)

註 : 1959년 統計數字는 ha가 아니고 叮步를 기준으로 한 것임.

1959년의 통계는 農業銀杏 調査部 刊,「農業年鑑」, 1960에 의거하고 1969년과 1979년의 統計는 農協中央會 調査部 刊,「農業統計要覽」, 1981에 의거 함.

(2) 農業生産資材

工業化에 의한 경제발전이 농촌생활에 미친 영향 중의 하나는 저렴하고 질이 좋은 農業生産資材의 공급일 것이다.

공업화가 상당히 진척되기 이전에 한국 농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穀價와 더불어 肥料共給問題였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필요한 종류의 비료를 필요한 양만큼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값으로 손쉽게 획득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念願이었다. 그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에 예민한 농촌지역출신의 國會議員들도 비료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言論界에서도 비료문제를 자주 논의하였다. 특히 6·25동란 이후 식량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것은 국민생활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여간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食糧增産에 긴요한 비료를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農政當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1969年 韓國에서 生産된 비료의 총량은 550,336M/T인데 그중에서 질소질비료가 355,793M/T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산질비료는 145,936M/T으로 26.5%, 카리질비료는 48,607M/T로 8.8%를 점하였다. 이 양으로 國內所要量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만 종류가 다양화되지 못하여 어떤 비료는 國內生産으로 감당되지 않아 외국에서 도입하기도 하였다.

비료의 生産能力은 그 이후 더 크게 향상되어 1979年에는 1969年의 거의 2.5배가 되는 1,455,935M/T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소비량을 보면 1969年의 化學肥料의 消費實績은 54만 M/T이였는데 1979年에는 84만 M/T으로서 1.6배 증가하고 있다.

비료에 대하면 농약의 공급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던 것같다. 농약의 소비량은 60年代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69年에는 17,531M/T, 1979年에는 30,598M/T가 되었다.

〈表-76〉 化學肥料生産과 消費實積

(單位 : M/T)

區 分	年度	窒素質	燐酸質	加里質	計
年間生産能力	1969	410,307	131,740	43,334	585,381
		(70.1%)	(22.5%)	(7.4%)	(100.0%)
	1979	837,938	488,203	129,794	1,455,935
		(57.6%)	(33.5%)	(8.9%)	(100.0%)
消費實績	1969	320,223	130,749	83,717	534,689
		(59.9%)	(24.4%)	(15.7%)	(100.0%)
	1979	443,891	226,312	191,150	861,353
		(51.5%)	(26.3%)	(22.2%)	(100.0%)
自給率	1969	128.1%	107.6%	51.8%	109.4%
	1979	188.8%	215.7%	67.9%	169.0%

資料 : 1970년 「農業年鑑」과 1980년 「農協年鑑」에 의거함.

이처럼 農藥消費量이 해마다 약 25%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면 農作物의 收穫量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병충해가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방으로 미리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다가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共同防除를 하는 것이 절대로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공동방제로 많은 농약이 사용되게 된 점, 그리고 新品種 중에는 병충해에 약한 것이 많아서 대량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에 의한 것이다.

1979年에 소비한 약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살충제로서 53.7%를 차지하며, 다음이 살균제로서 25.8%, 제초제 17.3%, 기타 3.2%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초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근년에 와서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다. 즉 제초제는 1970년에 940M/T을 소비했는데, 1979년에는 5,304M/T을 소비하고 있어서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5.6배나 증가하였다. 農業生産資材의 공급에 있어서 工業化가 이룩한 또 하나의 기여는 農業機械化의 촉진이다. 工業化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이입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져 갔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벼의 移秧期와 보리의 收穫期가 겹치는 6월 7월 그리고 秋穀收穫과 보리 播種을 해야 하는 9월과 10월에는 노동력이 과거에도 굉장히 바쁜 때였느데 젊은 일꾼이 빠진 1970年代에는 일손이 크게 모자라서 적기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農業機械化의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었다.

1961年 이후 政府는 農業近代化 施策의 일환으로 農機械生産業體에 대해서 國庫를 보조하는 한편 品質의 向上을 위하여 농기구를 검사하는 性能試驗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60年代 후반부터 농기구의 생산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보급률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農林部는 工業化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이 대응책으로 農業機械化 5個年計劃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1976年까지 농가 19戶當 1대꼴로 보유할

수 있도록 13.2만대의 동력경운기를 생산보급케하고 動力防除機 13,7만대, 動力揚水機 6.2만대, 動力脫穀機 10.9만대 등 모두 44.6만대의 동력농기계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農業機械化 5個年計劃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그것이 끝나는 1976年을 전환점으로 농업용기계 및 기구의 보유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表-77〉에 의하면 1969년에서 1979年에 이르는 10年間 人力에 의존하는 기계·기구의 보유대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表-77〉 農業用 機械·機具의 保有狀況

(單位 : 臺)

區分	1969	1976	1979
1. 動力耕耘機	8,832	122,079	235,909
2. 트랙터	99	790	2,035
3. 動力移秧機	—	24	2,416
4. 人力撒噴機	34,525	30,339	18,427
5. 人力噴霧機	331,804	870,589	844,379
6. 動力撒噴霧機	—	123,638	207,473
7. 動力噴霧機	—	40,534	82,301
8. 足踏製繩機	73,053	139,916	137,080
9. 動力製繩機	1,113	14,722	22,321
10. 人力吅織機	416,271	282,274	140,556
11. 動力吅織機	183	6,833	8,508
12. 動力刈取機	—	114	913
13. 바인더	—	122	11,117
14. 人力脫穀機	391,692	370,579	276,285
15. 半自動脫穀機	33,878	108,511	118,478
16. 自動脫穀機	33,878	52,581	84,603
17. 콤바인	—	77	505
18. 農用揚水機	49,534	85,704	187,608
19. 動力除草機	—	52	323
20. 乾燥機	—	628	1,143
21. 動力播種機	769	1,525	3,773
22. 動力飼料切斷機	—	4,877	10,516
23. 玄米機	21,456	22,316	21,697
24. 精米機	41,006	29,925	26,573
25. 製粉機	22,078	20,000	17,742
26. 精麥機	30,580	24,584	22,752
27. 發動機	62,252	74,308	106,868
28. 電動機	4,949	26,174	84,836

資料 : 農協中央會, 1982年「農協年鑑」.

그중에서 人力噴霧機는 1976年까지 상당히 보유대수가 증가했다가 그 다음 해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동력농기계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동력경운기는 26.7배,

트렉터 20.5배, 동력탈곡기 6배, 농용양수기 3.8배, 동력파종기는 4.9배로 증가하였다. 그 밖에 동력이앙기, 예취기, 바인더, 콤바인, 동력제초기, 건조기, 동력사료절단기 등은 1969年까지에는 생산조차 되지 못한 것이며, 한편 현미기, 정미기, 제분기, 정맥기 등 穀物加工機具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3) 農業生産性

① 穀類

1960년대말에서 70년대말에 이르는 기간에 대체로 대부분의 농산물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表-79〉에서와 같은 특히 채소, 과실, 가축, 축산물의 생산지수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쌀의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米穀이 GNP에 있어서 차지하는 附加價値는 10%이며, 韓國人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쌀을 가급적 많이 수확하여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려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일관된 염원이었다. 그리하여 벼의 新品種開發과 栽培技術의 향상, 生産基盤의 확충과 더불어 米價의 적절한 조정과 收買方法의 적용으로서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가 취해져 왔다. 이로 인하여 1959年에 段當 213kg의 수확을 올리던 것이 1969年에는 335kg으로 증가되었다. 그후 統一벼 新品種을 채택하여 확대, 재배하는 동시에 영농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급격히 생산고가 높아져서 1977年에는 段當 488kg의 수확을 올리게 되었으며 전체 생산량은 4천만석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쌀생산량에 관한 한 한국은 段當收穫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 가난한 農民들이 쌀 대신 많이 먹던 麥類는 段當 수확량이 대체로 늘고 있으나 경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植付面積이 1969年에 비해서 1979年에는 56.7%의 수준으로 감소했고 生産容量도 81.7%로 떨어졌다. 그러나 雜穀은 植付面積이 같은 기간에 34.5%로 줄었는데 생산용량은 오히려 23.2% 증가를 보이고 있다.

豆類도 역시 段當收穫高가 높아져서 식부면적은 16.3% 줄었는 데도 생산용량은 19.5%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는 단당 수확고가 406kg에서 528kg으로 많이 증가하지 못했는데 식부면적은 반 이하로 줄어서 생산용량도 대폭 감소하였다.

〈表-78〉 米穀生産量

年 度	植付面積(ha)	段 收(kg)	生産量(千石)
1959	1,122,462.8	213	16,602.5
1969	1,219,529.2	335	28,405.9
1979	1,233,234.4	451	38,644.5

資料 : 1959年은 1969年「農業年鑑」, 1979年은 農協中央會 調査部, 1981年「農業統計要覽」에 의거함.

食糧作物은 70年代에 들어 맥류나 서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생산용량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맥류나 서류도 생산성은 역시 향상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이 적어서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食糧作物의 자급도는 과거에 비하면 높아졌으며, 특히 주곡인 쌀은 1977年에 자급도가 100%를 초과하여 오히려 외국에 대여하기도 하였다.

② 菜蔬·果實類

쌀, 보리 다음으로 채소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아주 긴요한 것이다. 채소중에서 배추, 무우, 고추, 마늘, 양파, 오이는 한국인의 副食을 마련하는데 아주 긴요한 것이다. 이 채소작물의 과거 20년간의 生産量推移를 보면 배추는 20년 전에 비해서 5.8배, 10년전에 비해서 2.9배 증산되었다.

〈表-79〉 主要菜蔬作物生産量

(單位 : M/T)

區 分	1959(A)	1969(B)	1979(C)	C/A	C/B
배 추	309,360.8	790,691.6	3,444.924.0	11.14	4.36
무 우	358,997.3	721,609.4	2,081,829.6	5.80	2.88
고 추	26,428.1	62,473.3	112,398.8	4.25	1.80
마 늘	23,336.4	27,262.4	349,906.8	13.29	4.41
양 파	38,648.6	98,867.2	393,098.6	10.17	3.98
오 이	26,986.2	85,839.6	144,093.8	5.34	1.68

註 : 1959년 生産量은 貫으로 표시된 것을 M/T으로 환산함.
資料: 1970년「農業年鑑」과 1980년「農協年鑑」.

고추는 조미료로 일찍부터 워낙 많이 소비되었던 품목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의 증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마늘과 양파는 그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오이의 생산량 증가율은 고추와 비슷하여 높지 않았으며 특히 과거 10년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증가율이 낮았다.

〈表-80〉 主要果實生産量

(單位 : M/T)

區分	1959(A)	1969(B)	1979(C)	C/A	C/B
사 과	104,020.12	219,410.9	443,660.9	4.27	2.02
배	25,967.25	46,040.3	65,446.5	2.52	1.42
감	13,243.57	33,854.0	33,385.9	2.52	0.99
포 도	3,424.57	37,406.9	53,933.8	15.75	1.44
복숭아	14,825.13	68,341.2	92,424.6	6.23	1.35
귤	117.97	2,768.8	145,456.6	1,232.99	52.53

註 : 1959년 生産量은 貫으로 표시된 것을 M/T으로 환산함.
資料 : 1970년「農業年鑑」과 1980년「農協年鑑」.

과실의 生産量推移를 보면 채소에 비해서 그다지 생산량의 증가속도가 높지 않다. 과실의 생산속도는 70년대 보다도 1960년대에 굉장히 빨라서 사과는 4.3배, 복숭아는 6.2배로 증가했으며, 포도는 15.8배, 귤은 1,232배나 증가되었다.

과실이 아니고 채소로 분류되는 수박, 참외, 딸기등은 사실 한국인에 있어서는 副食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아니라 다른 과실과 같이 후식으로 먹는 것이다. 이 품목에 관해서는 과거 20년간의 生産量推移에 관한 統計資料를 쉽게 얻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제시하지 못하지만 수박과 참외는 여름 한철, 딸기는 봄에 한국인이 즐겨 먹는 嗜好品이다. 이 품목도 상당히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박은 1976년에 비해서 1979년에는 35.4%, 참외는 28.6%, 딸기는 53.2%로 각각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딸기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農閑期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이른 봄철에 공급함으로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畜産物

畜産物은 채소와 더불어 중요한 부식재료가 된다. 특히 이것은 단백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맛이 좋기 때문에 즐겨 먹는 식품재료이다. 主要家畜의 飼育頭數를 보면, 1959年에 韓牛는 1만두를 헤아렸는데, 그것은 다음 10년후에 18%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1979年까지는 53% 증가하였다.

그러나 亂牛는 1959年에 불과 1766頭였던 것이 10年 후에 24.5배, 20年 후에는 무려 213.2배로 증가하였으며 肉牛도 각각 5.8배, 54.0배로 증가하고 있다.

돼지는 농가의 副業으로 많이 사육했던 것인데 이것 역시 한우처럼 생산량이 많이 증가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1969년에는 10年 전에 비하여 7%감소하기도 하였으며, 1979年에는 20년 전에 비하여 배로 느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닭도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육한 가축인데 이는 1959~69年 사이에 1.9배로 늘었고, 1959~1979년 사이로 따지면 3.4배로 首數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육방법도 副業으로 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업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表-81〉 主要家畜의 飼育頭數

區分	單位	1959(A)	1969(B)	1979(C)	C/A	B/A
韓 牛	頭	1,020,374	1,202,400	1,562,591	1.53	1.18
亂 牛	頭	766	18,800	163,299	213.18	24.54
肉 牛	頭	670	3,900	36,189	54.01	5.82
豚	頭	1,438,854	1,338,500	2,843,163	1.98	0.93
鷄	首	12,041,156	22,651,400	41,120,522	3.41	1.88

註 : 1969년의 頭數는 10單位 이하의 實數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0으로 표시했음.
資料 : 1970년 「農業年鑑」과 1980년 「農協年鑑」.

畜産企業農家는 1959년경에 양돈과 양계에 극히 적은 수가 있었고, 1969年에는 상당히 늘

어나서 乳牛의 畜産企業農家가 749戶, 肉牛가 59戶, 養豚은 1,149戶, 養鷄는 2,024戶 등이 있었다.

가축을 사육하는 집이 늘어나고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육류나 우유, 양계의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1950年代의 축산물생산량에 관해서는 통계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1969年과 1979年의 축산물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쇠고기는 2.6배, 돼지고기는 2.9배, 닭고기는 2.1배로 각각 2배내지 3배 가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유의 생산량은 10.7배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계란은 1.7배로 主要畜産物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낮다.

이처럼 축산물의 생산량도 많이 증가하였지만 워낙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國內生産量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육류는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表-82〉 畜産物生産量

區 分	單 位	1969(A)	1979(B)	B/A
쇠 고 기	(M/T)	33,144	86,494	2.61
돼지고기	(M/T)	76,080	218,742	2.88
닭 고 기	(M/T)	42,251	89,723	2.12
牛 乳	(M/T)	35,470	380,730	10.73
鷄 卵	(千個)	2,430,000	4,231,000	1.74

資料 : 「農協年鑑」.

1979年의 肉類輸入狀況을 보면 前年보다 57% 증가한 1억 3,4천만 弗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前年度에 비교적 많이 계약한 것이 移越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긴하지만 2년간 수입한 육류를 평균해 보더라도 1억 3천만弗을 넘고 있는 것이다.

〈表-83〉 畜産物 1人當 消費推移

區 分		單 位	1970(A)	1979(B)	B/A
肉 類	쇠 고 기	kg	1.2	3.0	2.50
	돼지고기	kg	2.6	5.9	2.27
	닭 고 기	kg	1.4	2.4	1.71
小 計		kg	5.2	11.3	2.17
牛 乳		kg	1.5	9.9	6.60
鷄 卵		10個	7.6	11.2	1.47

資料 : 「農協年鑑」.

2) 1970年代이 農業政策

1970年代의 농촌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새마을사업으로 일기 시작한 農村開發은 우리 농촌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러한 도약기의 농업정책을 제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비록 4차 계획이 81年까지 포함되나 이 계획이 80년의 도약을 위한 계획이므로 동시에 다루고자 한다.

(1)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推進과 農業 및 農村開發政策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農漁村經濟의 革新的 開發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즉,

①農業生産基盤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적극화하여 農業用水의 開發, 大單位農業, 綜合開發事業, 경지정리와 배수개선, 농경지의 보전과 開發擴大事業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年間 수백억원씩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農業機械化 事業을 추진하며 動力耕耘機 등 여러가지 영농기계를 대량으로 보급하도록 한다.

③食糧의 自給自足을 위하여 식량증산을 農政의 최우선 시책으로 삼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한다.

④제2차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農家所得增大에 기여토록 한다.

⑤수익성이 높은 잠업과 축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⑥양곡의 浪費節約運動을 강력히 추진하여 主穀의 自給達城이 앞당겨 이룩되도록 한다.

⑦農産物의 수출증대와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基本目標下에서 4가지 주요사업이 전개되었다.

첫째는, 새마을 운동추진과 農業開發이다. 즉 환경개선과 정신계발에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발전된 새마을 운동의 확산과 새마을 지도자의 양성 그리고 作目班, 協同會 및 婦女會 등의 農村協同組職의 육성개발에 의한 새마을 운동의 확산속에서 農村開發의 積極化가 이룩된 바 있으며, 농어민 소득증대의 21개 품목설정과 137지역의 설정, 75만 호 農漁家를 대상으로 한 농어민소득증대 特別事業의 추진에 의하여 農業發展의 새로운 면모를 낳게 하였다.

둘째는 農地保全과 擴大開發下의 農業發展이다. 工業化 및 都市化 過程下에서의 農地資源의 侵蝕을 억제하여 農地資源의 적극적인 利用開發下에 농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구분 지정하고 절대농지의 轉用時 그만큼 새로운 農耕地를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을 1972年 12月에 제정, 시행한 바 있으며, 農地開發의 촉진을 유도하고 所有主의 개발을 의무화하기 위한 農地擴大開發促進法이 1975년 4월에 제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지개발의 촉진을 위한 계획관리기관으로서 農業振興公社에 農地擴大開發技術團을 발족시켜 운영케 한 바 있다.

세째, 農業生産基盤造成과 農業發展이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확충의 일환으로 영산강 1단계 사업을 1972년에 大單位農業綜合開發事業으로 시행한 바 있고 이어서 1974년에 경주지구, 1975년에 제화도 및 삽교천지구 그리고 1976년에 임진강지구, 영산Ⅱ단계 및 창녕지구에 대한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추진전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農業生産基盤造成事業의 확충으로서 재해대책 및 일손 부족 해소에 주력을 둔 농업

기계화의 본격적인 추진·전개가 있었고 농업기계화의 본격적인 普及擴大機種으로서는 防除機를 비롯하여 양수기, 경운기 및 탈곡기의 중점적인 보급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최초로 농업기계화사업 5개년 계획의 수립도 있었다.

네째는, 農產物 價格安定施策下의 農業發展이다. 農產物價格安定施策의 推進은 收買穀價의 높은 수준 유지와 米麥의 이중가격제도의 시행으로 농업발전을 추구한 바 있다.

즉 1972~1976년 평균 米穀의 收買價引上率을 21.9%수준에서 책정하였고 맥류의 경우는 22.3%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는 가운데 수매곡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생산량 대 수매량의 비중은 1972년의 미곡의 12.8%에서 1976년에 20.0%로 확대·시행하였고 맥류의 경우는 1972년의 20.8% 수준에서 1976년에는 30.9% 수준으로 上向 調整하여 수매량 비율의 확대에서 農產物價格의 안정책을 강구하였다. 그밖에도 밀가루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1973년 이후부터는 양곡의 최고판매가격제를 실시하여 농업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2)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과 農業 및 農村開發政策

농업의 중요한 目標는 증산을 통한 國民食糧의 安定的 共給과 農家所得의 지속적 향상 및 農村開發에 의한 복지 농촌의 건설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시책의 노력은 많이 傾注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련한 농업부문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바 있다.

①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연평균 4%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다.

②國民食糧의 安定的 共給을 이룩한다.

③農漁民 所得增大를 계속 추진하도록 한다.

④農漁村에서도 都市生活 못지 않게 文化的이며 福祉施設이 갖추어진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한다.

이러한 기본목표하에서 추진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農產物流通時策의 強化이다. 農產物都賣市場法과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法의 통폐합의 바탕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1976년 12월에 제정된 바 있고, 制定目的은 民間의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경쟁적으로 운영·조성토록 하며, 農水協共販場의 도매기능을 강화하고 備蓄事業을 체계적으로 실시코저 함에 있었다. 그밖에도 생산의 集團化 및 團地化를 통한 대량생산 및 대량출하기반을 조성하며 농협의 산지출하체제의 확립을 통한 產地流通體制의 擴大強化下에 農業發展을 추구 하였다.

둘째, 農業金融擴充을 통한 農業發展政策이다. 利益補償 依存方式의 從前 制度를 개선 운행하며 中長期 農業資金의 대폭적인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農業開發資金設定을 1977년 5월부터 별도 설치 운용한 바 있으며, 새마을 所得綜合開發事業의 지원을 효율화 하기 위하여 財政資金과 농협자금의 운영을 1978年부터 綜合開發事業의 바탕에서 실시한 바 있고 동시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을 政府貸下金, 地方自治團體, 國民住宅資金, 農協資金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세째, 새마을 所得 綜合開發事業의 展開를 통한 農業發展政策이다. 그동안의 새마을 소득증

대사업은 特定品目과 個別農家를 對象支援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성과가 부진하였고 地域內 賦存資源의 合理的 利用側面에서도 미흡하였다. 이는 계획수립과정과 推進體系가 중앙에서 조정·하달되는 계획방식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반성과 각성하에 새마을소득 종합개발사업을 1977년부터 전개하였고,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사업을 확대개편하여 그 추진주체를 단위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전개시켰다.

네째, 農政支援體系 強化를 통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이다. 中長期 食糧政策과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정책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농어촌문제 등 社會問題, 硏究事業, 농어촌 여론조사 및 기타 교육훈련사업을 주요 임무와 역할로 하는 農政專硏究機關으로서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립이 1978년 4월에 있었고, 농산물의 收買 및 輸入, 備蓄 그리고 수매, 수입한 농산물의 보관 및 시장조사나 價格安定事業을 媒介하는 가교체로서의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이 농어촌개발공사내에 1978년 8월에 설치되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生産과 金融支援 그리고 축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가공 등의 지원을 위한 축산농민의 자조단체로서의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1981년 1월에 설치 발족됨에 따라서 이들 농정지원 체제의 강화하에 농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색이 있게 되었다.

3) 1970年代 廣州郡의 農業

(1) 耕地面績 및 農家人口, 家口數

1970年代 광주군의 경지면적은 1979年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1,141ha이였는데 이중 논이 5,427.8ha이고, 밭이 5,713.2ha이었다. 79年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80年代 초인 1984年에는 9,102ha로 약 5년동안 2,039ha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1가구당 경지면적도 감소하여 1979年 1.38ha(논 0.67ha, 밭 0.7ha)이었던 것이 1984年에는 1.29ha가 되었다.

농가인구 및 가구수는 크게 형태별, 경작규모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우선 형태별로 살펴 보면 〈表-84〉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1979년 현재 농가 가구수는 8,535戶이었는데 이중 전업이 총 6,438戶로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종겸업이 14.2%, 2종겸업이 10.4%이었다

〈表-84〉 形態別 農家家口數 및 農家人口

구 분	합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농가가구수	8,535	6,438	1,212	885
농가인구수	43,191	30,728	7,338	5,125

資料 : 광주군, 1980, 통계연보

農家人口는 총 43,191名 중 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728名, 1종겸업이 7,338名, 2종겸업이 5,125名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농가가구수를 業態別로 살펴 보면 답작이 69.4%로 가장 많고 채소가 11.7%, 축산이 7.3% 등이다.

〈表－85〉 業態別 農家家口數

구분 / 년도별	총 수	경종					축산		농업임금 노동자
		답작	전작	과수	채소	특용작물	축산	양잠	
79년	8,535	5,910	600	120	1,000	－	625	－	280

(資料) 광주군, 1980, 통계연보

농가가구수를 다시 耕作規模別로 살펴보면 총 8,535 戶 중 50a～1ha사이의 농가가 2,812戶로 가장 많고, 1～1.5ha는 1,610戶, 30～50a는 1,116戶이었다.

〈表－86〉 耕作規模別 農家家口數

구분 / 년도별	계	10아르 미만	10－30	30－50	50-1텍타	1－1.5	1.5－2	2－3	3텍타 이상
79년	8,535	16	718	1,116	2,812	1,610	917	575	66

(資料) 광주군, 1980. 통계연보

광주군의 경작규모도 우리나라 전체의 규모와 비슷하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表－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ha미만의 농가가 총 4,662戶로 54.6% 차지하고 있으며, 1.5ha미만의 농가는 6,272戶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3ha이상이 66戶로 0.7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업의 경영형태가 얼마나 영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곡농업에 치우쳐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영세성은 더욱 더 농가소득의 증대를 장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表－87〉 廣州郡 食糧作物 生產高

(1974)

구 분	면적(ha)	10a당(kg)	생산량(M/T)
미 곡	4,541.9	352	16,001.8
맥 류	760.0	163	1,239.1
잡 곡	128.3	70	90.7
두 류	1,973.5	100	1,794.5
서 류	2,441	354	863.5(정곡)
			3,818.1(생서)
계	7,647.8	264	20,170.2

(資料) 광주군, 1975. 통계연보　p. 13

(2) 農產物 植付面積 및 收穫高

먼저 1974年을 기준으로 廣州郡의 식량작물 생산고 및 식부면적을 살펴 보면, 미곡의 재배면적이 총 7,647.8ha중 59.4%인 4,541.9ha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두류로 1,973.5ha를 재배하고 있다. 맥류의 경우 우리나라의 2대식량작물의 하나이나 70年代이후 급격히 대두된 벼재배시 조기이앙때문에 맥류재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 이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현재 맥류재배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特用作物의 경우 참깨와 들깨가 주요 작목이며 면화는 1960년말 이후부터 재배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70년대말에는 불과 3ha수준에 머물렀다. 아주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요의 감소와 함께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반면에 참깨와 들깨는 계속적인 수요와 높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농촌의 경제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재배되었다. 60년대까지는 들깨가 참깨보다 많이 재배되었으나 그 이후 계속 변화를 거듭하여 70년대에는 참깨의 재배량이 100ha이상이나 많았다.

채소류는 배추, 무우 등의 김장류가 여전히 많이 재배되고 있다. 1974년 현재 배추는 1,164.5ha, 무우는 902.6ha, 고추는 286.7ha가 각각 재배되엇으며 기타 오이, 참외 등도 많이 재배되었다.

果樹類의 경우는 배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과가 많다.

〈表-88〉 70年代 特用作物 生産量

구분 / 년도	면 화		참 깨		들 깨		아주까리		해바라기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1974	30.4	26.3	218.3	108.4	116.5	70.0	63.4	25.4	78.7	28.0
1977	7.7	6.4	199.5	101.6	98	61.7	2.4	1.2	20	0.64
1978	3	2.4	175.6	87.7	98	62	10	5.4	—	—
1979	3.7	4.0	201	110	98	68.6	—	—	—	—

(資料) 광주군, 1975, 1980. 통계연보

〈表-89〉 果樹類 植付面積 및 收穫高

구분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감		자 두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1974	34.1	139.9	57.6	231.8	37.0	207.8	27.2	286.8	2.6	13.4	15.1	89.0
1977	42.9	204.4	62.8	296.3	23.2	109.6	31.8	224.5	6.9	35.3	10.9	52.7
1978	43	213.8	63	202.6	20.3	102.0	31.8	244.0	6.9	32.6	10.9	39
1979	45.6	164.2	63	324.2	24.4	94.3	31.8	263.2	6.9	40.3	10.9	62.9

(資料) 광주군, 1975, 1980. 통계연보

복숭아는 1970年代 중반에 다소 재배면적이 감소되다가 말년에 와서 약간 증대되었으며 포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왔다. 수량은 그 해의 자연조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3) 畜産

70年代 대표적인 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타 산양·개·사슴 등이 사육되었으나 개를 제외하고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韓牛는 사육가구수가 70年代에도 계속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육두수도 줄어들었다.

반면에 젖소는 사육가구수 및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를 보인 반면에 닭은 사양가구수는 감소하였지만 사양수는 계속 증가를 거듭하였다. 이는 그만큼 양계가 기업화·전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돼지나 소는 어느 가축보다도 가격변동 즉 파동을 많이 겪었다. 농산물가격의 변동과 함께 소나 돼지가격의 파동은 우리 농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70년대 후반의 廣州郡 축산통계의 변화에서도 그 당시 가격파동과 가축사육두수의 변화 관계를 알 수 있다.

(4) 林業

廣州郡의 임야면적은 1960年代말부터 1970年代 초를 거치면서 많이 감소되었다.

그후 72년부터 79年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所有別로 보면 國有林은 1000ha정도 증가된 반면 공유림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사유림은 60年代이후 계속 감소되다가 1970년 중반이후 별 변화가 없었다.

〈表－90〉 70年代 廣州郡 家畜飼養 現況

구분 / 년도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양가구수	사양수	사양가구수	사양수	사양가구수	사양수	사양가구수	사양수
1974	5,441	6,463	185	1,725	934	11,915	1,937	669,633
1977	5,201	6,193	398	2,621	1,268	10,791	1,499	1,282,583
1978	4,598	6,414	446	3,646	1,272	12,448	1,502	1,724,928
1979	3,747	5,509	424	4,080	1,494	22,415	933	1,809,704

(資料) 광주군, 1975, 1970. 통계연보

〈表－91〉 所有別 林野面積

(單位 : ha)

년도	총면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972	35656	3,879	1,553	30,224
1974	35,656	4,262	1,759	29,635
1977	35,622	4,147	1,765	29,710
1979	36,205	5,009	936	30,260

(資料) 광주군, 1975, 1980. 통계연보

〈表－91〉을 보면 72년부터 79年까지 廣州郡의 소유별 임야면적을 알수 있다.

임상별로 임야면적을 보면(1979年 기준)성림지가 총 34,599ha인데 이중 침엽수가 13,705, 활엽수가 8,721ha,혼효림이 12,173ha이다. 그리고 미성림지는 총 354ha인데 요인공조림이 268ha로 가장 많고 요사방이 58ha, 천연갱신이 28ha이다. 이밖에 기타 제지와 개간지가 합쳐 1,252ha이다.

전체 임상별 임야면적을 다시 세분하여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는 〈表－92〉와 같다.

4) 農機械 保有現況

196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農用 動力耕耘機는 70年代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74年에 불과 179대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에는 1천대를 훨씬 넘은 1,153대이었다. 또한 본격적인 농업기계화를 예고하는 트렉타도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여 70년대말에는 11대를 광주군에서 보유하였다. 분무기의 경우도 동력분무기가 크게 증가하였다.

70年代 새마을운동과 함께 등장한 농업기계화촉진과 농가소득증대방안은 광주군의 농촌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해 기초사업으로 농로정비, 경지정리 등 농촌하부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농기계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공동구매도 늘어났다.

기타 예취기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表－92〉 林相別 林野面積

구분 / 임야별	합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요존	불요존	타부처소관	계	도유림	군유림	
1977년	35,622	4,147	—	2,656	1,491	1,765	795	970	29,710
1978년	36,284	4,200	3	2,785	1,412	1,745	809	936	30,339
1979년	36,205	5,009	3	2,785	2,221	936	—	936	30,260
성림지									
계	34,559	4,872	3	2,650	2,219	907	—	907	28,820
침 엽 수	13,705	874	—	365	509	464	—	464	12,367
활 엽 수	8,721	854	—	228	626	347	—	347	7,520
혼 효 림	12,173	3,144	3	2,057	1,084	96	—	96	8,933
미성림지									
계	354	68	—	68	—	—	—	—	286
천연갱신	28	—	—	—	—	—	—	—	28
요인공조림	268	68	—	68	—	—	—	—	200
요 사 방	58	—	—	—	—	—	—	—	58
기 타	1,252	69	—	67	2	29	—	29	1,154

〈表－93〉 70年代 廣州郡 農機械 保有現況

구분 / 년도	동력경운기	트렉타	예취기	분무기		탈곡기		곡물가공 기계	양수기
				인력	동력	인력	동력		
1972	–	–	–	–	–	–	–	–	–
1974	179	1	–	3,035	310	2,243	238	501	248
1977	628	4	11	3,645	565	2,109	508	441	594
1979	1,153	11	34	3,501	759	–	671	317	1,014

資料, 광주군, 1976, 1980, 통계연보.

7. 最近의 廣州郡 農業現況과 問題点 및 展望

1) 最近 韓國農業의 問題

(1) 農業問題를 보는 시각

우리나라의 농업은 일제하에서는 식민국 일본의 식량과 원료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느라 농업생산의 성과가 축적될 여지가 없었고,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발전의 길이 봉쇄되었다. 그후 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물러가고 정치적 자주독립과 함께 經濟的 自立을 민족의 지상과제로 삼자, 農業은 국민경제형성의 일환으로서 산업간의 有機的 연관을 가지고 발전되어 農業이 가지는 國民經濟에 대한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하의 왜곡된 식민지 農業構造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대부분을 온존시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는 무너지고 농업문제는 심각한 국면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農業의 特徵인 영세적 小農構造가 고착화되면서 국민경제 속에서 機能的 發展이라는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자주적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60年代 이후 政府는 小農經濟의 터전위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농업경시에로 방향을 굳히기 시작하였고, 農業을 토대로 하는 경제자립의 의지가 희박해져 갔다.

초기의 국가경제개발은 점점 성장·발전하며 외국원조와의 연관 속에서 더욱 더 고도화되어져 갔는데, 고도화된 의존형 경제발전은 국내자원 개발형의 經濟開發 보다는 外國의 資本, 技術, 原料에 의존하고 이를 외국에 팔아야만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결국 이미 악화된 국내시장에서는 판로를 구할 수 없어 심각한 대외의존형으로 되었다.

이같은 외향적 發展政策이 계속되려면 해외시장에서 韓國의 製品을 계속 구매해 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우수한 제품을 계속 값싸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低勞賃이 필수조건이 되고 아울러 農産物 價格이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소농경제는 이같이 고도화된 의존형 국가경제개발을 지탱하는 기지의 구실을 수행해 왔으나 農業이 이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화되자, 비교우위 이

론에 입각하여 수입자유화 시책을 펴면서 外國의 값싼 農産物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農業政策의 추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農業問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農業構造의 근본적 개혁과 정책적 방향의 전환 없이는 農業問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農業問題의 樣相

最近 농업문제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 보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중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營農後繼者 問題와 농어촌 의료보험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나머지 농업노동력, 농촌부채, 농산물수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①營農後繼者 育成의 問題

영농후계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느냐에 대해 학자에 따라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農業을 직업으로 택하기 위하여 영농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영농에 착수하여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장년들을 총칭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영농후계자는 식량의 중요성의 증대와 과학영농의 수행을 위해 당연히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하고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로, 社會的인 면에서 營農後繼者 育成에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農業이라는 職業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업이란 직업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 청소년에게 별다른 매력을 주지 못한다. 이밖에도 農村은 都市에 비해 아직도 보건, 문화시설에 격차가 있고, 교육환경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아 농촌보다 도시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실정은 農村의 靑少年 중 남성보다 여성쪽에서 심하게 나타나 농촌의 미혼여성들은 영농에 꿈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靑少年들과의 결혼마저 주저하고 이촌현상이 급증함으로써 農村靑少年들의 배우자 선정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로 經濟的인 관점에서 영농후계자와 관련된 문제는 농업도 수지맞는 직업이라는 것을 농촌 청소년에게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農業政策을 보면 農業生産費의 高價, 농산물가격의 파동, 농산물유통구조의 미개화 등으로 농업경제진단과 설계가 불가능하므로 경제적 보수가 불안하다. 이때문에 농촌청소년들은 영농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세째, 敎育的인 면에서 영농후계자 문제는 농업의 장기전망, 농업 장단기 인력 수급계획, 영농정착과정에 따른 단계별 특성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고 농민후계자를 육성하고자 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1985年까지는 20,944名에 평균 700만원씩 1,40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87年까지는 40,000명에게 2,806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農漁村指導者와 선진농업가 육성을 목표로 출발한 이 사업은 農水産部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수산업협동조합, 지방행정기관, 관련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인 協同體制를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 후계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켰고 농촌 청소년에게 영농정착 의지를 북돋우는 등 큰 파급효과를 가져 왔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후계자사업 이후에 시설원예작목의 후계자들은 비닐하우스 면적이 적어도 500여평 가량 늘어나 평균적으로 900평 가량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들 농가의 농업소득도 1980年에 비해 1982年에는 499만원으로서 250만원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畜産作目(대부분 한우)의 후계자들은 후계자사업 이후에 한우를 약 5마리 가량 증식하여 평균 6마리의 성우를 기르고 있으며, 그들 農家의 農業所得도 1980年에 비하여 1982年度에는 432만원이 늘어났다. 이와 같이 후계자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후계자들이 계획하고 기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社會敎育的인 성과를 보면 그들이 後繼者로 선발됨으로써 農村에서 영농생활에 대한 의지와 향토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졌으며 영농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그들 하나 하나를 성공적인 營農者로서 육성하고 그들을 組織化하여 지도력과 향토개발의 사명감을 계속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農村發展을 이끌어 나갈 주체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1983년경부터 시작된 外國의 農産物 輸入政策, 物價安定策, 농산물과잉생산, 소파동 등으로 영농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이 사업자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후계자들의 사기는 크게 위축되었다. 아무리 후계자들을 잘 지도한다 할지라도 농업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조절, 농산물가격의 보장 등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②농촌의 疾療保險

올해부터 全國 134개 郡에서 실시된 농어촌의료보험이 하나의 社會保章制度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의 준비미흡과 보험료 등의 차등부과에 따른 문제로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율은 79.8%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國民 保險制度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료부과가 현실에 동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평 등 農漁村 住民들의 불만이 계속 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 실시로 국민의 79.8%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이 制度가 정작 필요한 계층은 農漁村住民들」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결실을 본셈이고 당사자들인 농어민들도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醫療制度가 지닌 여러 장점과는 별도로 농어촌의보의 운영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農漁村疾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不足과 地域間 불균형 문제, 고정소득이 없는 농어촌에서 월평균 7천~8천원의 보험료가 과연 적은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財源安定이 안된 상태에서 組合主義라는 운영방식이 과연 社會保險으로서의 機能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보험실시의 가장 큰 난점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이 지나치게 不足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政府는 국고를 이용하여 보건소와 지소의 시설, 장비를 現代化하고, 專門人力을 投入하기 위한 努力을 하고 있지만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의 지역간 불균형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邑單位 以上의 주민들은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면 里單位의 주민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보건소나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진료체계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 郡組合에서는 郡內의 의·병원을 1차 진료기관으로, 道內의 모든 병원과 생활권내에 있는 他市·道 病院을 2차 진료기관으로 전국 대학병원급 이상을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차 진료기관에 갈 경우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組合側은 住民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질병으로도 2차기관을 찾을 우려가 많고, 이에 따라 큰병원에서는 의료수요 과잉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반면 郡內의 병원은 경영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료등급의 책정기준과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農漁村醫保의 보험료부과는 15등급으로 나누어져 최저 3천원~3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등급의 기준은 재산상태와 세대별 가족수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농어민들은 보험료책정이 재산세규모, 세무서 소득기준, 유형의 재산상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한데다 무형의 所得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던 점, 국고보조금도 4인 가족의 경우 1천 6백 50원으로 공무원이나 사업장 의보가입자에 대한 보조보다 규모가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 소득계층에 따른 기준의 세분화와 국고보조금의 증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組合과 住民들의 異見은 자칫 조합재정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의료수진율이 도시의 절반(3.2대 1.6)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근로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보험료(월 7천~8천원)을 낸다는 것은 농어촌주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범지역에서 나타난 문제로 지난 85년 조사에 의하면 재정적자가 2천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農漁村醫保의 운영방식으로 채택된 組合主義 方式이 住民들의 自發的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책임을 이루고, 地域別 特性에 따라 自治的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의 면에서는 오히려 통합주의 방식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組合主義는 작은 규모의 集團內部에서만 서로를 돕는데 그칠뿐 위험의 보다 폭넓은 분산이라는 保險原理나 전국민이 한솥에서 서로 돕는 미덕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는 미흡할 뿐 아니라 所得의 재분배라는 社會保險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統合主義 역시 관료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재정에 적자가 나는 경우, 주민들의 經濟的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대비, 組合主義에 통합주의방식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어촌의료보험시행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인접 市의 시민이 주민등록증만을 군으로 이전, 郡醫保組合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민의 군전입은 경기도의 경우, 始興, 高陽, 廣州郡 등 서울이나 대도시와 근접한 군인 경우 그리고 같은 군에서도 도시형 읍면인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농어촌의료보험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은 制度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수정하고 협조를 구할 조합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33명이 의보조합원이 있지만 군주민전체를 상대로 일하기엔 人力이 너무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 인원으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의료보험홍보활동을 해야 하고, 11개읍면지소에서 상담과 보험료 재조정업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거주자 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③농가부채의 증가

오늘날 農家는 農事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가 커진다는 말이 있다.

1984년 말 농가 호당 평균부채 178만 4,000원은 대부분 農家의 상환능력의 한계를 넘는 액수이다. 지난 10년간 農家所得은 11.5배 증가한 데에 반하여 농가부채는 45.8배나 늘어났다. 또한 부채 농가호수도 전체가구 중 1971년 75.7%에서 1983년에는 91.2%로 증가하였다.

농가의 빚은 그 성격상 계절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모내기가 끝난 6월경부터 가을 추수가 끝난 12월 사이에 많고 추곡수매후인 12~2월 사이에 가장 적다. 따라서 농수산부의 통계자료가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태와는 달리 부채 액수가 대부분 적게 나타난다. 또한 집계기관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농수산부보다는 농협중앙회의 자료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소득증가와 부채증가의 비율을 체계적으로 살펴 보면 1980년~1984년까지 4년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6.6%인데 반하여 부채증가율은 107.0%였다. 절대액수에 있어서도 1983년 대비 1984년 증가액이 소득은 42만원 증가했으나 부채는 50만원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1980년 12.6%에서 1984년 32.1%로 커졌다.

한편 농가호당 평균가계수지 및 차입현황을 살펴 보면 1984년 농가소득 555만원 중 가처분 소득은 547만원으로 여기서 가계비 및 기타 지출을 차감한 농가 잉여는 116만원이다. 결국 농가부채 178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表-94〉 농가호당소득·부채 현황

(단위 : 1,000원)

구분 \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연 평균 증가율
부 채	338	437	830	1,285	1,784	107.0%
소 득	2,690	3,690	4,470	5,130	5,550	26.6%
부채/소득	12.6%	11.85%	18.6%	32.1%	32.1%	

(資料) 한국국민당, 1985, 농어촌백서

그리고 1983年의 농가부채 128만 5천원 중에서 공채와 사채 비율을 보면 공채 67.2%, 사

채 32.8%이다. 이러한 공사채의 비율을 경지규모별로 보면, 경지규모 0.5ha미만의 農家가 사채비율이 40.6%로 제일 높으며 1.5~2.0ha 농가가 공채비율 74.5%로 나타났다. 즉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사채의 비율이 높아서 높은 이자의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지어 살펴 볼 수 있는데, 所得의 不安定性, 자금지원의 부족, 복리·후생·교육비의 과다 등이다.

④其他 諸般 農業問題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온 農業問題 중 위에서 언급한 영농후계자문제, 농촌의료보험, 농가부채문제 등을 除外한 나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業生産力의 불균등발전에 따른 農産物의 과잉과 과소의 공존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農産物價格을 不安定하게 만들어 가격폭락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表-95〉 경지 규모별 공·사채 비율(1983)

(단위 : 원)

경지규모(ha)	계	공 채	사 채	비 율(%)	
				공채	사채
평 균	1,285,125	863,948	421,177	67.2	32.8
0.5미만	941,607	559,702	381,905	59.4	40.6
0.5~1.0	1,018,319	676,669	341,650	66.4	33.6
1.0~1.5	1,465,308	977,640	487,666	66.7	33.3
1.5~2.0	1,613,282	1,203,478	409,804	74.5	25.5
2.0이상	1,800,722	1,206,181	594,541	70.0	30.0

資料 : 한국국민당, 1985, 농어촌백서, p.58

둘째, 農業生産力의 광범위한 후퇴현상이다. 전체적으로 식량자급율이 저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 놓고 재배할 작목이 적어 農地가 非農地化되거나 경지 이용율이 저하되고 있고, 젊고 유능한 농업노동력이 大量流出되면서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여성화·겸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재배와 사육관리의 粗放化가 전진되고 있다.

세째, 農業經營의 不安定性의 심화현상이다. 지가 등귀, 토지 투기, 농지 잠식 등으로 농지구입에 의한 경영규모의 擴大가 곤란한 가운데 소작농이 증가하고 있고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등의 구입증가로 過剩設備投資가 發生하거나 경영비가 팽창하고 있으며, 성장농산물에 대한 전문화가 진전된 結果로 재래농업이 사양화되거나 전통적 복합경영이 쇠퇴하여 농업경영의 不安定性이 증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農·工間 불균형발전의 심화, 수입자유화 시책에 따른 농산물수입의 증대, 농가수지의 악화, 이농증가, 농업의 지위저하, 도·농간의 격차 심화가 악순환되는 것이 현단계 농업문제의 양상들이다.

(3) 廣州郡 農業의 開發方向과 展望

앞에서 언급한 農村問題의 외형적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農民들이 도대체 農事

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農村에 거주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앞으로 展望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심각한 불안감에 가득차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 의식이 우리 農民에게 만연되어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나라 農村의 活力은 회생 될 수 없을 만큼 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하루 속히 우리나라 農村住民들의 좌절감에서 벗어나 農村에서 營農生活을 하려는 의욕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심각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政策方向의 큰 흐름은 民生安定을 통한 農民의 총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農政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숙되고 안정된 國民經濟의 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 한국경제운영의 타성으로 되다시피한 "成長至上主義"의 정책을 극복하고 民生安定을 經濟政策의 基本理念으로 삼아 農村住民의 "삶"의 보전과 질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다원적인 측면에서 綜合的 發展施策을 전개하여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農業과 農村 그리고 農民은 그들에게 분담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산업과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되어 선진조국으로 도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몇가지 중요한 우리나라 農村開發의 方向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外國農産物의 선별적 輸入

②農村工業化를 통한 農外所得增大

③農村住民組職의 活性化

④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의 效率的 推進

⑤農村의 人間定住空間形成

⑥農村의 福祉增進 등이다.

廣州郡도 이러한 農村開發의 方向을 토대로 중·장기 農村開發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廣州郡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좋은 지리상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作目을 재배할 경우 많은 소득을 올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광주군은 예로부터 밭이 많았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잘 나와 있다. 지금도 밭농사를 부쳐서 거두어 들이는 이득이 논농사를 지어 거두어 들이는 이익보다 많은 편이다.

서울 땅에는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성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채소 따위의 밭갈이를 해서 논농사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所得을 올렸다.

그러나 옛날의 성밖인 서대문구나 동대문구 등이 점차로 도시화에 밀려 서울의 중심부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廣州郡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해방된 이후부터 서울시가 더 큰 소비시장이 되자 밭농사는 더 재미가 붙었고, 비닐하우스 재배법이 개발되고 나서 채소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는 것은 죄다 가꾸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재배의 집산지인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이 1963년에 서울시에 편입됨으로서 밭농사거리의 절반을 서울시에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年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서 멀리 남쪽에서 나는 채소류가 헐값으로 서울

땅에 부려지자 동부읍, 서부면, 남종면, 중부면,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의 밭농사도 전처럼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1973年에는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이 성남땅으로 떨어져 나가고 1974年에는 군납용 채소를 많이 재배하던 남종면마저 팔당땜으로 거의 절반의 밭이 물에 잠기게 되자 근교농업이 약간 시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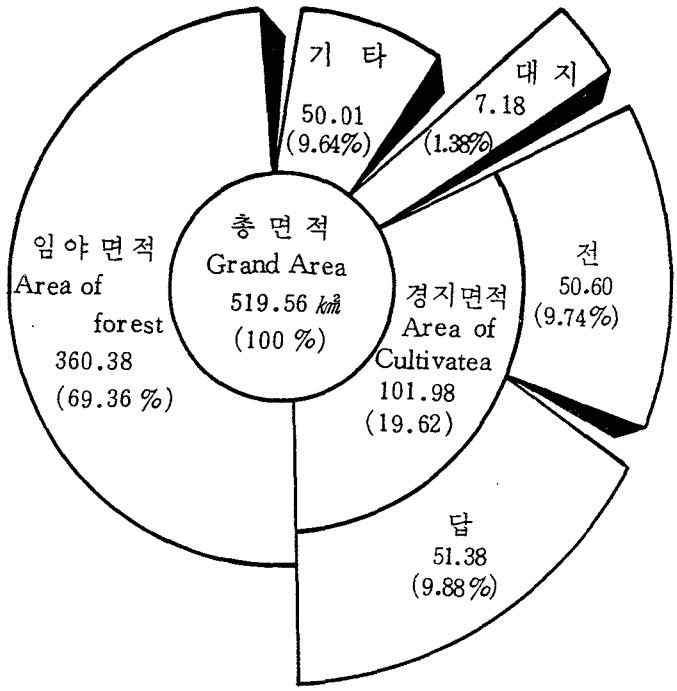
그래서 "송파의 무우와 분원의 배추와 실촌의 고추만 갖추면 김장으로서는 으뜸"이라던 말도 이젠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한산성 언저리에는 맵기로 이름난 마늘이 있다. 이제는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여 서울 인접지로서 광주군의 유리함을 살려 많은 농가소득을 올려야 할 것이다.

2) 廣州郡의 最近 農業現況

(1) 農耕地現況

총면적 519.56㎢중 임야면적이 360.38㎢로 전체의 6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1.9㎢인데 그 중에서 논이 51.38㎢, 밭이 50.60㎢로 경지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6%이다.

광주군의 전체 토지 내역을 간략하게 도식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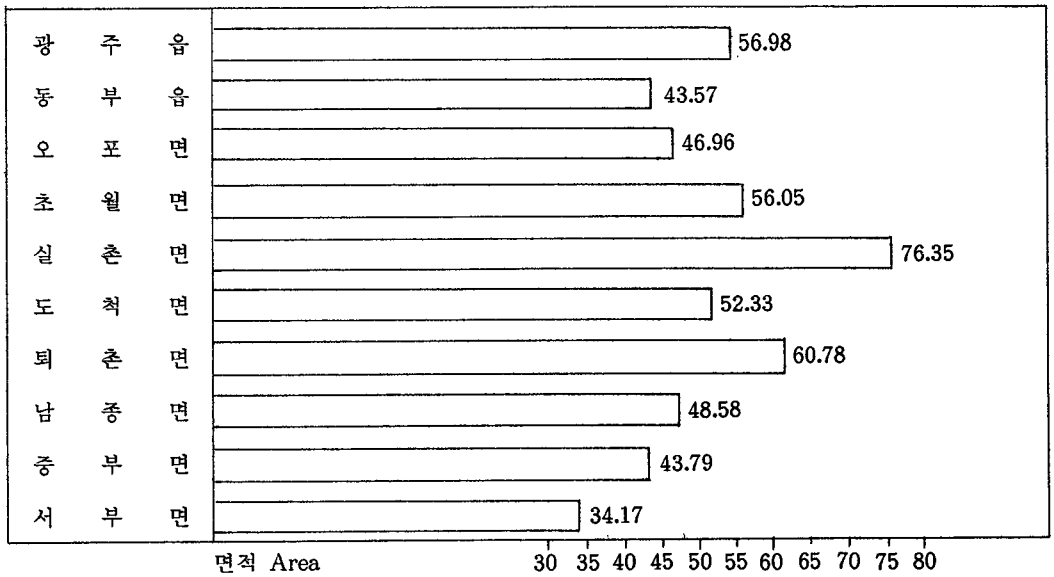


〈그림-2〉 邑面·別 面積(1986년말 현재)

위에서 언급한 총면적을 邑·面別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그림-3〉과 같다. 이 그림에 의하면 실촌면이 76.35㎢로 가장 넓고 그다음은 퇴촌면 60.78㎢, 광주읍 56,98㎢ 등의 순서이다.

면적이 가장 좁은 면은 서부면으로 34.17㎢이며 동부읍이나 중부면도 비교적 면적이 좁다.

(1986년말 현재)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그림 3〉 邑·面別 面積

(2) 農家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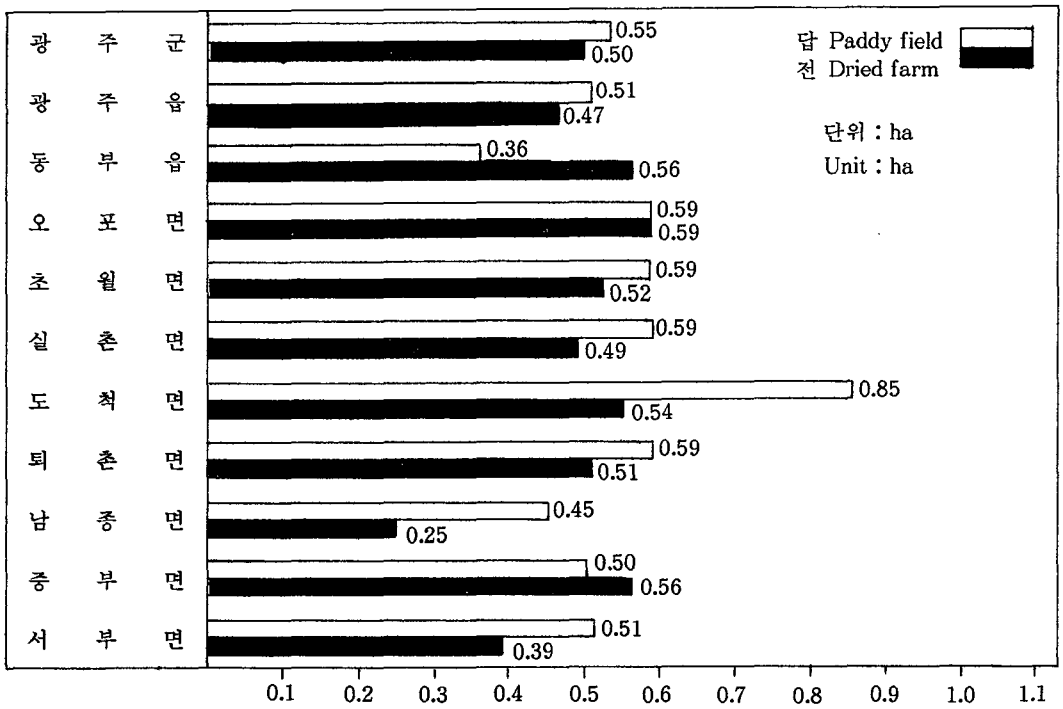
1986년말 현재 총호수 37,074戶 중 農家戶數는 23%인 8,375戶이며 非農家는 77%에 해당하는 28,699戶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경지면적과 戶數를 분석하여 邑面別 戶當 耕地面積을 살펴보면 (그림-4)와 같다.

이 그림에 의하면, 1호당 경지면적중 논은 도척면이 0.85ha로 가장 넓고, 동부읍이 0.36ha로 가장 좁으며, 밭은 오포면이 0.59ha, 동부읍이 0.56ha로 넓으며, 남종면과 서부면이 각각 0.25ha, 0.39ha로 좁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全體農家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주군의 1가구당 경지면적은 1ha내외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척면의 경우 1가구당 총경지면적이 1.39ha로 비교적 높으나, 남종면의 경우는 0.7ha로 극히 적은 편이다.

(3) 農産物 收穫高

최근의 광주군의 주요 농작물 생산고를 살펴 보면, 食糧作物 生産高는 총생산량이 19,843.1M/T로 이중 미곡의 생산량은 16,413M/T이며, 맥류는 10, 잡곡은 168, 두류는 1,143.4, 서류는 2,097M/T로 집계되었다. 재배면적은 단연 미곡이 제일 높아서 4,013ha이며, 맥류는 4ha, 잡곡은 76ha, 두류는 954ha, 서류는 132ha이었다. 麥類의 경우, 중부 이북은 다음해의 조기 모내기때문에 거의 재배를 하지 못하였다.



(그림-4) 邑·面別 戶當 耕地面積

〈表-96〉 食糧作物 生産高

1986. 12. 31 현재

구분 / 읍·면별	합 계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광주읍		2,502.5	470	1,927	0.3	0.7	9.1	20.9	105	130	27	423.9
동부읍		1,626.8	340	1,397	–	–	5.2	12.3	112	137	5	80.5
오포면		2,231.1	466	1,919	–	–	7.5	17.3	103	121	11	173.8
초월면		2,357.7	504	2,051	–	–	9.1	12.5	130	152	9	142.2
실촌면		3,004.9	626	2,554	0.2	0.5	10.1	23.8	140	169	16	257.6
도척면		2,650.6	535	2,188	2.1	5.4	9.9	23.2	123	146	18	288
퇴촌면		1,961.2	355	1,455	0.7	1.7	8.5	19.5	74	90	25	395
남종면		828.4	172	705	0.7	1.7	3.5	8.1	43	50	4	63.6
중부면		864.9	187	764	–	–	4.6	10.9	49	58.4	2	31.6
서부면		1,815	358	1,464	–	–	8.5	19.5	75	90	15	241.5
계		19,843.1	4,013	16,413	4	10	76	168	954	1,143.4	132	2,097.7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P. 54

食糧作物의 生産高를 邑面別로 보면 전체생산량은 실촌면이 3,004.9M/T로 가장 많지만, 맥류는 도척면, 잡곡은 도척면과 실촌면이 비슷하게, 서류는 퇴촌면과 광주읍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菜蔬類 生産高는 〈表-97〉과 같은데 이를 살펴 보면, 재배면적은 고추가 총 469ha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배추, 무우, 오이, 참외의 순이다. 위의 각 채소류를 邑面別로 고찰하면, 무우는 동부읍과 퇴촌면이, 배추는 서부면과 퇴촌면이, 오이는 동부읍과 서부면이 각각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고추나 마늘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재배면적의 큰 차이 없이 고르게 재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表-97〉 主要 菜蔬類 生産高

(단위 : ha, M/T) 1986.12.31. 현재

구분 / 읍·면별	무 우		배 추		오 이		참 외		수 박		고 추		마 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광주읍	21.0	783	29.0	2,462	7.3	130.4	13.2	192.1	4.1	78.4	54	74.5	5	30
동부읍	32.0	1,195	41.0	3,485	35	602	10	150	5	96	39	54.6	4	24
오포면	28.0	1,044	28.0	2,377	17	291	22	315	11	212	47	64.4	3	18
초월면	29.0	1,082	28.0	2,377	15	255	18	270	8	154	58	81.2	3	18
실촌면	19.0	707	27.0	2,290	11	187	14	210	14	272	41	60.0	3	18
도척면	18.0	670	17.0	1,442	20	340	15	225	10	194	43	59.3	5	30
퇴촌면	31.0	1,153	17.0	1,443	6	97	5	74	5.5	98	51	70.9	3	18
남종면	9.0	335	9.0	764	2	32	5	60	5	92	45	63.0	2	12
중부면	21.0	781	17.0	1,443	6	102	5	75	3	57.9	46	64.4	3	18
서부면	26.7	996	41.8	3,553	30	510	–	–	–	–	45	62.5	4	24
계	234.7	8,746	254.8	21,636	149.3	2,546.4	107.2	1,571.1	65.6	1,254.3	469	654.8	35	210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pp. 58~65

廣州郡의 채소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최근 몇년간에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재배면적을 살펴 보면, 1981년에 393ha에서 1983년에 451ha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계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86년말 현재 총 재배면적이 불과 234.7ha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생산량도 1981년 20,043M/T에서 1986년에는 8,746M/T로 격감되었다.

特用作物은 광주군에서 그다지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비교적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참깨와 들깨 두종류에 불과하다. 이의 총생산량은 각각 162.6M/T와 131.8M/T이며, 재배면적은 참깨가 240.5ha로 들깨의 179.5ha보다 다소 넓은 편이다. 邑面別 재배면적 및 수확량은 (表-98)과 같다.

마지막으로 主要 果實收穫高 및 面績을 살펴 보면, 가장 재배면적이 많은 과수는 사과이며 그 다음은 포도와 배이다. 사과의 총생산량은 448.6M/T, 포도와 배는 각각 312.7, 311.5M/T,

〈表－98〉 特用作物 生產量

1986.12.31

구분 / 읍·면별	면 화		참 깨		들 깨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면적	수확량
광주읍	–	–	20.0	16.3	20.0	14.0
동부읍	–	–	21.0	13.2	9.0	6.5
오포면	–	–	31.0	19.5	20.0	15.2
초월면	–	–	30.0	19.0	25.0	18.0
실촌면	–	–	27.3	16.9	32.5	23.7
도척면	–	–	30.0	18.9	25.0	17.5
퇴촌면	–	–	27.2	21.7	21.0	16.7
남종면	–	–	8.0	4.9	5.0	3.5
중부면	–	–	21.0	14.2	12.0	8.7
서부면	–	–	25.0	18.2	10.0	8.0
계	–	–	240.5	162.6	179.5	131.8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pp. 68～69

복숭아는 81.7M/T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다.

사과는 특히 초월면, 복숭아는 중부면, 포도는 광주읍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表－99〉와 같다.

〈表－99〉 主要果實 收穫高

1986.12.31 현재

구분 / 읍·면별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광주읍	7.2	82.0	1.7	15.3	1.0	8.5	15.4	135.5	0.2	1.1
동부읍	4.9	61.0	7.0	61.5	0.5	4.3	8.0	71.2	–	–
오포면	3.6	43.0	5.1	41.6	–	–	2.4	21.1	–	–
초월면	8.6	107.0	3.0	27.0	1.0	8.5	1.6	13.9	–	–
실촌면	0.4	4.0	–	–	0.2	1.7	0.8	6.2	–	–
도척면	1.2	15.0	–	–	0.2	1.7	1.0	8.8	–	–
퇴촌면	6.8	62.1	1.9	14.1	0.4	3.4	1.2	10.6	0.7	3.2
남종면	1.1	12.0	4.6	41.0	1.7	14.5	–	–	–	–
중부면	1.5	18.0	4.6	38.0	4.2	35.7	1.2	10.2	–	–
서부면	3.4	44.0	8.1	73.0	0.4	3.4	4.0	35.2	–	–
계	38.7	448.6	35.4	311.5	9.6	81.7	35.6	312.7	0.9	4.3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pp. 70～73.

(4) 畜産

家畜家 飼養頭數 및 家口數를 분석해보면, 한우의 사육호수는 2,932戶이고, 마리수는 12,660으로 사육 1가구당 마리수는 4.3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젖소의 사육호수는 1,115戶, 사육두수는 8,876頭이다. 돼지는 사육호수 576, 사육두수 42,954頭이며, 기타 산양이 343頭, 닭이 1,974,413마리, 꿀벌이 2,737통 사육되고 있다.

이를 邑面別로 구분하여 보면, 한우는 실촌면이 호수가 가장 많지만, 사육두수는 오포면이 2,031頭로 가장 많다. 그리고 飼養家口 對 飼養頭數는 동부읍이 8.1頭로 가장 많다.

〈表-100〉 家畜家 飼養頭數 및 家口數

1986.12.31

구분 / 읍·면별	한 우		젖 소		돼 지		산 양		닭		꿀 벌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광주읍	330	1,409	110	654	88	7,037	6	11	80	257,474	9	156
동부읍	188	1,527	111	978	62	4,242	—	—	38	248,531	22	431
오포면	276	2,031	157	1,241	92	5,276	3	3	27	248,058	10	301
초월면	323	1,889	48	791	71	12,036	12	154	56	689,559	59	309
실촌면	566	1,408	182	1,330	83	4,714	8	49	39	409,391	49	438
도척면	363	966	134	1,083	57	2,736	24	55	28	64,107	24	255
퇴촌면	298	1,057	9	343	35	2,209	5	9	19	15,134	32	483
남종면	194	489	48	160	—	—	7	30	17	90	17	130
중부면	159	563	59	676	19	1,478	5	31	26	6,923	11	94
서부면	235	1,321	257	1,620	62	3,226	1	1	16	25,136	5	140
계	2,932	12,660	1,115	8,876	576	42,954	71	343	346	1,974,413	238	2,737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p. 106

〈表-101〉 韓牛 飼育規模別 戶數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 읍면별	사 육 규 모 별 가 구									
	계	1~2마리	3~4	5~6	7~9	10~14	15~19	20~29	30~49	40마리이상
1981	3,363	2,955	230	76	52	33	6	8	2	1
1982	3,689	2,858	557	137	60	41	16	13	4	3
1983	3,767	2,564	750	242	111	55	21	8	10	6
1984	4,011	2,520	826	340	171	96	26	17	7	8
1985	3,531	2,106	782	294	138	106	45	34	15	11
1986	2,932	1,835	487	191	137	104	59	55	33	31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젖소는 서부면이 1,620마리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으나 사육가구당 사육두수는 퇴촌면이 38.1마리로 가장 많다. 돼지는 초월면이 12,036두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기타 산양, 닭, 꿀벌의 사육도 초월면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리고 한우를 사육규모별 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表－101〉과 같다. 또한 1986년말 현재 가축의 사료생산고를 살펴 보면 총자급사료생산량 271,032M/T중에서 청초가 124,155.9M/T로 가장 많이 생산·자급되고 있다. 목초는 크게 건초와 녹사료로 구분되는데 녹사료의 생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건초인데 1986년말 건초의 총생산량은 80,781.9M/T이었다. 각 읍면별 자급사료생산량은 (表－102)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表－102〉 自給飼料 生産高

1986년 말 현재

구분 / 읍·면별	계	청 초	목 초			매 초	농산부산물
			계	건 초	녹사료		
광주읍	26,003	9,452.4	724.6	7,234.6	－	5,324	3,992
동부읍	23,395	11,773.6	6,830.2	6,830.2	－	935.2	3,856
오포면	33,614	16,114	10,315	10,315	－	1,583	5,572
초월면	31,120	16,511	8,664	8,664	－	1,160	4,785
실촌면	44,472	17,113.8	13,672	13,672	－	6,104.2	7,582
도척면	30,058	13,411.8	9,310.2	9,310.2	－	2,358	4,978
퇴촌면	18,315	9,945	4,521	4,521	－	1,354	2,495
남종면	9,453	5,318.8	2,396.7	2,396.7	－	409.5	1,328
중부면	16,846	8,206.7	5,021	5,021	－	866.3	2,752
서부면	37,756	16,278.8	12,817.2	12,817.2	－	1,665	6,995
계	271,032	124,155.9	80,781.9	80,781.9	－	21,759.2	44,335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表－103〉 所有別 林野面積(ha)

1986.12.31

구분 / 년도별	계	국 유 림				공 유 림			사유림
		계	산림청소관		타부처소관	계	도유림	군유림	
			요 존	불요존					
1981	36,268	4,203	6	2,855	1,342	291	－	291	32,055
1982	36,197	4,194	4	2,848	1,342	291	－	291	31,712
1983	36,126	4,182	4	2,836	1,342	291	－	291	31,653
1984	36,076	4,465	4	2,821	1,640	291	－	291	31,320
1985	36,038	4,450	4	2,806	1,640	291	－	291	31,297
1986	36,038	4,461	4	2,815	1,642	291	－	291	31,577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보

(5) 林業

廣州郡 임야의 총면적은 36,038ha인데 이중 國有林이 4,461ha, 公有林이 291ha, 私有林이 31,577ha로 집계되었다. 國有林 中에서도 산림청 소관이 2,819ha이고, 타부처소관이 1,642ha이다.

전체임야면적 및 所有別 林野面積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최근 변화양상은 〈表－103〉과 같다.

임야면적을 林相別로 보면 〈表－104〉와 같은데 침엽수가 15,024ha, 혼효림이 12,061ha, 활엽수가 8,365ha이다.

〈表－104〉 林相別 林野面積(ha)

구분 / 년도별	계	임목지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 림	계	미임목지	황폐간	개 간	기타
1984	36,076	35,812	14,623	8,534	12,655	－	264	80	－	－	184
1985	36,038	35,692	14,807	8,447	12,438	－	346	91	3	－	252
1986	36,038	35,450	15,024	8,365	12,061	－	588	194	－	－	394

(資料) 광주군, 1989, 통계연보

造林現況을 보면, 현재 총조림면적은 292.8ha이며, 식재본수는 718.4천 본이다.

이중 장기수의 면적이 221.6ha로 가장 넓고, 식재본수도 664.8로 속성수나 유실수보다 많다. 邑面別로 보면 초월면이 장기수 51.5ha, 속성수 5ha, 기타 4.8ha로 가장 조림면적이 넓다.

광주군의 각 읍면별 조림면적 및 식재본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表－105〉와 같다.

〈表－105〉 造林現況

1986.12.31

구분 / 읍·면별	합 계		장 기 수		속 성 수		유 실 수		기 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광주읍	48.08	120.25	36.8	110.4	7.25	3.6	1.13	0.45	2.9	5.8
동부읍	14.5	21.4	4	12	6	2.8	1.5	0.6	3	6
오포면	31	74.2	22.5	67.5	5.5	3.1	1.5	0.6	1.5	3
초월면	61.3	166.5	51.5	154.5	5	2.4	－	－	4.8	9.6
실촌면	38.5	100.6	32	96	5	2.4	0.5	0.2	1	2
도척면	47.22	124.2	40.35	121.05	6	2.8	0.87	0.35	－	－
퇴촌면	28.25	74.35	24.25	72.75	4	1.6	－	－	－	－
남종면	7.55	15.7	4.8	14.4	2.75	1.3	－	－	－	－
중부면	4.5	2.75	0.25	0.75	2.75	1.4	1.5	0.6	－	－
서부면	11.9	18.45	5.15	15.45	2.75	2.6	1.0	0.4	－	－
계	292.8	718.4	221.6	664.8	50	24	8	3.2	13.2	26.4

(6) 農業用 機械保有現況

현재 광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기계중 가장 많은 것은 경운기로 총 3,375대 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력분무기, 양수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트렉타의 순이다.

과학영농과 농업기계화장비 중 고급장비인 이앙기, 바인더, 트렉타 등의 보유현황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아 廣州郡의 농업기계화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邑面別로 區分하여 살펴 보면 경운기는 실촌면과 초월면이 비교적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트렉타는 도척면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인력분무기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일 정도로 동력화가 잘 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동력분무기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초월면의 경우 동력분무기가 300대가 되며 광주읍, 실촌면 등도 2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앙기는 실촌면이 58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도척면이 44대, 초월면이 35대로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바인더와 콤바인은 도척면과 퇴촌면에서 각각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表－106〉과 같다.

〈表－106〉 農業用 機械 保有現況

1986.12.31

구분 / 읍·면별	경운기	트렉타	인력분무기	동력분무기	이앙기	양수기	바인더	콤바인
광주읍	247	5	－	256	9	117	4	5
동부읍	388	7	－	202	9	239	9	5
오포면	356	5	－	225	9	82	8	5
초월면	514	7	－	301	35	144	10	10
실촌면	554	12	－	261	58	286	17	15
도척면	390	14	－	158	44	204	16	14
퇴촌면	279	4	－	150	28	117	4	18
남종면	154	3	－	72	20	81	15	2
중부면	142	1	－	84	4	32	3	－
서부면	351	3	－	165	2	20	5	－
계	3,375	61	－	1,874	218	1,322	92	74

(資料) 광주군, 1987, 통계연부

(7) 農業氣象概況

廣州郡의 농업기상을 단독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여기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氣象概況을 언급하고자 하며, 광주군도 이 범주내에서 파악하면 별오차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①氣象要素

1986年度 경기도의 平均氣壓은 1,016.7mb이었고, 평균기온은 10.7℃이며, 평균습도는 74%, 최저습도는 18%이고, 平均風速은 1.5m/sec, 降雨量은 1,144.7mm, 증발량은 1,051.4mm로 집계되었다.

②天氣日數

1986年度 天氣日數를 보면 맑음 98일, 흐림 11일, 갬 156일, 서리 115일 , 강수 107일, 눈 18일, 얼음 140일, 안개 35일, 뇌전 7일로 집계되었다.

③季節趨勢

서리가 처음 내린 날은 10월 19일, 눈이 처음 내린 날은 11월 28일이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表-107)과 같다.

〈表-107〉 季節 趨勢

區分 / 年度別	서리		눈		얼음(結氷)	
	最初月日	最終月日	最初月日	最終月日	最初月日	最終月日
1979	79.10. 6	80. 4.26	79.11.12	80. 3.23	79.10.22	80. 4.26
1980	80.10.15	81. 5. 4	80.10.25	81. 3.26	80.10.22	81. 4.14
1981	81.10.14	82. 4.19	81.10.23	82. 3.16	81.10.23	82. 4.19
1982	82.10.22	83. 4.19	82.12. 1	83. 4. 3	82.10.24	83. 4.30
1983	83.10.23	83. 4.30	83. 1.16	84. 3.27	83.10.24	84. 4.13
1984	84.10. 5	84. 4.24	84.12.16	85. 3. 7	84.10. 5	85. 4.28
1985	85.10.18	85. 4.28	85.10.21	86. 3.18	85.11.11	86. 4.17
1986	86.10.19	86. 4.21	86.11.28		86.10.27	

(資料) 경인일보사, 1987, 경기연감. p 176

④氣團과 氣候

氣團이란 수평적으로 같은 性質을 가지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덮고 있는 大氣의 團塊를 말하며 發生場所에 따라 명칭과 性質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氣團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은 高緯度 地域이나 低緯度 地域과 같이 大氣의 流動이 거의 없는 靜穩한 지역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성질이 다른 4개의 기단이 접촉하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단의 접촉지역에 불연속선과 移動性 저기압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기단의 접촉지는 大陽高度의 季節的 移動에 따라 自然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단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3월이 되면 亞寒帶大陸氣團의 세력약화와 아열대대륙기단의 발달로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는 수가 빈번하다. 이 고기압은 位置에 따라서 日氣가 다르나 중심부는 대체로 평온청명한 날씨가 되는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른봄 유달리 날씨가 따뜻한 날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온대성저기압이 대개 바람을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겨울에 몹시 건조하였다가 봄철이 되어 내리는 비는 이러한 저기압과 불연속선에 기인하여 中南部로 가면 봄의 강우량이 年中雨量의 15% 이상이 된다.

이러한 저기압에 따르는 風雨는 비교적 暖和한 것이다. 고온다습의 南風이 이에 부딪칠 때는 의외로 폭우를 내리고 한다. 봄철의 雨量如何는 우리나라의 벼移秧期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월부터는 대체로 無風平穩한 날씨가 계속된다. 남해안일대의 海風現狀은 中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는 日本 東南海上에 發達하는 아열대해양기단의 영향하에 들게 된다. 이 氣團은 원래 中緯度高氣壓帶의 一部를 形成하는 것으로 年中存在하는 것이나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대륙기단발달에 눌려 나타나지 않는다. 여름에 우리나라를 덮는 계절풍은 이 亞熱帶 海洋氣團에서 排出되는 大氣이며 이와 同時에 본격적인 더위와 雨期가 始作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해양기단이 평균수위보다 북진하여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게 되면 찌는 듯한 더위만 계속되고 비오는 날은 극히 적어 農作物에 심한 피해를 주게 된다.

7월 이후에는 때때로 열대성저기압의 來襲으로 태풍이 오게 되어 農作物과 人間에게 莫大한 被害를 끼친다. 9월이 되면 아열대 해당기단이 약화되어 더위가 물러나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나 가끔 아열대 해양기단이 세력을 만회하여 대륙기단과의 사이에서 불연속선을 형성하여 비가 내린다. 이것이 바로 가을의 霖雨인데 農作物의 수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대륙에 形成되는 한냉한 大陸性氣團의 세력이 활성화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北西季節風이 때때로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크게 下降하게 되며 습도가 낮아 대단히 乾燥한 날씨가 된다.

그러나 南으로 확장되었던 고기압이 중국의 華中 도는 華南地方에서 分類되어 변질된 移動性 高氣壓이 東으로 이동할 때 바람이 약해지고, 南西風으로 바뀌면서 대개 흐린 날씨에 어느정도 기온이 상승하는 이른바 三寒四溫의 기후가 이루어진다.

기온은 西海岸과 內陸으로 갈수록 한냉하여 지므로 서해안과 내륙지방과의 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⑤氣溫

경기도는 緯度上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中間的인 기온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우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30년간의 기상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중부지방의 여름기온은 30℃를 오르는 날이 평균 한달이 넘고 가장 높은 온도의 기록은 37.6℃였다.

그리고 道內 各地方의 平均氣溫이 20℃이상의 달이 6·7·8월의 3개월인데 비하여 12℃以下의 달은 11, 12, 1, 2, 3, 4월로서 6개월 즉 半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嚴冬의 기준을 영하 5℃로 하여 일수를 따져 보면 11월(3·9일), 12월(19·8일), 1월(25·4일), 2월(18·5일), 3월(6·3일) 도합 2개월 반이다.

三寒四溫의 현상은 生活上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영하 10℃ 以下의 혹한을 어느정도 완화시킨다는 뜻이므로 비록 삼한사온이 있더라도 경기도의 동계 5개월이란 고통스러운 엄동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최근 20年間(1960~1979)의 平均氣溫은 10.8℃~12.3℃이고 겨울과 여름인 1월(평균 −4.2℃)과 8월(평균 26.7℃)의 年平均氣溫의 차는 30.9℃로서 비교적 계절에 따른 평균기온의 차

는 심하다. 이 기간중 최고수치는 1961년 8월 1일의 35.3℃로 강릉보다 약 2℃가 낮은 수치이며, 최저수치는 1963年 1월 23일 −18.4℃였다.

⑥降水量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三大多雨地域의 하나이다. 봄이 되면서부터 빈번하게 지나는 不運續線과 저기압이 작용하였고 지역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한 것은 지형적인 요소이다. 상승기류를 가져오는데 기복이 약한 해안지역에는 1000mm의 寡雨地가 생기고, 상승기류를 가져오는데 적합한 지역인 漢江下流 및 臨津江流域 일대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리하여 해안지역의 寡雨와 60%이상의 一照時數는 남양면, 군자, 남동일대의 염전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광주군은 한강을 끼고 있으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후적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8) 農業協同組合 廣州郡 支部

廣州郡 廣州邑 京安里 53에 所在하고 있는 농협 광주군지부는 1961年 8月 15日 農協法에 의거 農業銀行과 協同組合이 통합되어 廣州郡 農業協同組合으로 발족되었다.

1981年 1월 1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광주군지부로 개편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機構 및 業務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광주군 지부에는 支部長 밑에는 2名의 차장과 7명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광주군 지부의 산하에 新長支店이 있으며, 五浦, 京安, 東部, 草月, 昆地岩, 광도, 동광, 中部, 西部 등 9개의 단위조합이 있다. 또한 경안단위조합 산하에 역말분소가, 곤지암단위조합 산하에 만선분소가, 동강단위조합 산하에 남종분소가 있으며 동부, 서부 단위조합산하에도 각각 황산분소와 감북분소가 있다.

주요업무는 광주군 內의 농산물판매, 구매사업, 이용사업, 가공산업, 공제사업 등이다. 그리고 對農民 指導業務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主要協同事業의 실적은 〈表−108〉과 같다. 구매사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사업도 최근에 와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은 사업실적이 최근에 와서 다소 떨어지고 있다.

〈表−108〉 主要協同事業實積

1986.12.31

구분 / 연도별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가공산업	공제사업
1981	2,559,885	1,868,671	3,699	12,119	2,524,949
1982	3,505,094	2,811,293	6,203	7,571	2,789,160
1983	7,709,617	4,695,487	5,892	8,162	1,481,730
1984	8,750,957	5,120,053	3,295	8,557	3,658,480
1985	8,605,907	6,961,004	341	−	11,998,270
1986	9,966,606	9,417,521	834	10,549	7,337,000

광주군, 1987, 통계연보 p. 101

(9) 廣州地區 畜産業協同組合

廣州郡 廣州邑 京安里 83－2에 所在하고 있는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은 1957년 10월 17일 廣州郡 畜産協同組合으로 설립된 후에 많은 변천과정을 겪은 뒤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63年 12월 4일에 廣州郡 養鷄協同組合으로 개칭되었고, 1965년 8월 2일 에는 廣州郡 畜産協同組合으로 개칭된 후 다시 1974년 3월 16일 廣州地區畜産協同組合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81년 1월 1일에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廣州地區 畜産業協同組合으로 또 다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85년 2월 18일에 京安支所를 개점하였으며, 1986년 11월 27일에는 新長支所를 개점하였다. 이 두지소외에 현재 광주지구 축협산하에 성남지소와 곤지암지소가 있다.

機構 및 組職面을 살펴보면, 廣州地區산하의 4개支所에 총 조합원수는 1,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에는 組合長을 비롯하여 전무 1名, 상무 2名, 대리가 있으며, 각 支所에는 상무 1名과 대리가 있으며, 각 지소에는 상무 1명과 대리가 각각 근무하고 있다. 이리하여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산하의 임직원은 총 75名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廣州地區 畜産業協同組合의 업무는 광주군 관내 養畜家의 自主的 協同體인 지역축협을 지도육성함으로써 協同組職을 통한 畜産振興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福祉農村을 구현한다는 사명아래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主要事業은 養畜家指導教育, 會員組合育成, 家畜改良增殖事業 및 家畜市場管理, 信用事業 등이다.

(10) 廣州農地改良組合

광주읍 驛里 141번지에 所在하고 있는 광주 농지개량조합은 1927年 3月 31日 廣州水利組合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그후 1962년 1월 21일 廣州土地改良組合으로 개칭되었고, 1973년 4월 30일에는 廣州中央農地改良組合을 흡수합병하여 5월 1일에 東部邑 德豊里 418－1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機構 및 組職은 總務, 事務係 등 2係가 있고, 산하에 東部出張所가 있으며, 職員은 총 15명으로 組合長과 3級 2명, 4級 3명, 5級 5명, 雇傭員 4명이 있다.

蒙利區域은 廣州郡 東部, 廣州邑, 五浦, 草月, 中部, 都尺面과 서울시 강동구 고덕, 下一洞 등 1市 1道 8개 邑面洞으로 인가면적은 1,294.8ha로서 興農契는 48개이며 조합원은 2,142명이다.

그리고 耕地整理事業 現況을 보면, 총 1,294.8ha 중 경지정리 시행면적은 209.9ha로서 16.2%에 그치고 있다. 殘餘面績 1,084.9ha는 산간오지의 砂 락事土와 都市化 추세에 밀려 경지정리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곳이다.

광주농지개량조합은 경기도 所在 農改 및 山林組合 중에서 水華農地改良組合과 抱川 및 漢江農地改良組合 다음으로 일찍 설립된 것으로 다소의 행정구역변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의 조합현황은 다음과 같다.

〈表－109〉 農地改良組合現況

1986.12.31현재

구분 / 연도별	몽리면적	조합원수	예산액	조합비부과		
				면적	10a당(원)	총액(원)
1981	1,320.5	2,108	249,223	1,152.9	17,932	206,749,000
1982	1,320.5	2,117	305,504	1,139.8	17,624	200,883,000
1983	1,096.9	2,144	491,149,000	16,880	16,880	192,476,000
1984	1,337.8	2,129	294,759	1,112.8	17,137	190,616,000
1985	1,337.8	2,129	834,837	1,115.7	17,825	201,098,000
1986	1,294.8	2,142	480,617	1,294.8	18,769	210,074,000

第2節 農村指導事業

朝鮮朝의 經濟活動은 農業이 主였기 때문에 勸農에 대한 關心은 컸다. 太祖를 비롯한 歷代王은 "親耕籍田"을 設置하여 몸소 農事일을 示範하였고, 世宗 勸農文("國以民爲體 民以食爲天 農者衣 食之源而王致之所先也" －나라는 국민을 위함이요, 국민은 먹기 위함이니 농자는 먹고 입는것의 근원이니 왕정의 우선이 여기 있다－)을 보면 國政의 優先을 農政에 두었으며, 正祖는 "求言論音"을 全國의 守令과 선비에게 내려 農業發展을 爲하여 좋은 進言을 求하기도 하였다.

主要한 農書를 보면 中國農書 飜譯版인 「農桑輯要」, 「四時纂要」를 비롯하여 老農들의 經驗을 土臺로 엮은 「農事直說」(世宗때 鄭招, 卞孝文엮음)과 「衿陽雜錄」「農家集成」(孝宗때 申風엮음)이 나왔고 英·正祖때 朴世堂의 「穡經」, 洪萬選의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徐命膺의 「放事新書農圃門」, 朴齊家의 「北學議」, 朴趾源의 「課農少抄」, 徐浩修의 「海東農書」, 徐有榘의 「林園經濟志」등을 들수있는 바 土地制度, 悅刷, 救農方案等이 다루어졌다.

封建時代의 農村指導는 興農을 勸하되 그 理念은 어디까지나 朱子學的 農民統制理論에 立脚하여 封建的 社會經濟秩序의 安定維持에 두었다.

벼의 栽培法만 보아도 水利施設이 빈약했던 옛날에는 直播法이었으나 努力節減과 增收의 利點때문에 移秧法이 조선 初期에 이미 慶尙道地域에서 農民間에 普及되고 있었으나 政府는 旱魃時의 危險性때문에 太祖의 「經濟六典」에서 禁止시켜 줄곧 抑止시킴으로 政府 農民間 緊張이 그치지 않았으나 政府의 制裁에도 不拘하고 中北部까지 移秧法이 퍼져 감으로 禁止對象을 高燥奉天畓에 限定하도록 政府가 양보해 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農業技術은 官이 主導하는 것보다 篤農家들의 施行錯誤를 通한 오랜 經驗技術의 蓄積으로 徐徐히 퍼져나갔으며 한편 農書普及으로 篤農家들에게 새로운 着想을 줌으로서 꾸준히 改良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正祖때의 「求言論音」에 호응한 69名의 農政上疏를 보더라도, 勸農可設置, 惰農警戒, 遊食人統制, 貴農抑末(農을 重視하고 末業 卽 他業으로의 雜農抑制) 水利施設擴充과 農業技術改良等이었고, 그뒤 實學派學者들도 示範農場設置, 茶의 普及, 開墾促進等을 建議하였으나, 當時의 行政機關은 農業問題를 積極的으로 解決할 能力이나 活力을 넣을 수 있는 財政이 빈약하였다.

1876年 江華條約으로 三遷을 연 뒤 1881年 正月 金弘集을 修信使로 한 紳士遊覽團이 新興日本을 硏究하기 爲하여 6個月이나 日本에 머므르면서도 近代化의 尖兵인 軍隊, 學校, 工場등 見學을 굳이 拒絶한 史實이라든지, 1883年 韓·美修好條約이 成立되어 閔泳翊大使一行이 拔美하여 工場과 農場을 視察하고 "아더" 大統領이 農事技術支援을 提議하였으나 이렇다할 受容反應이 없었음은 當時의 위정자들의 무능력을 잘 말해 준다. 이는 오랜 政爭과 急激한 外勢干涉으로 인한 混亂의 結果였다.

1894年 甲午更張의 結果 中央에 農商衛門을 設置하고 그 안에 農桑局, 山林局, 水產局, 勸奬局을 두었다가 1895年 4月 1日 二次 管制改革에 依하여 工業部를 統合하며, 農工商部로 改編하였으나 政治不安이 계속되고 近代化作業을 企劃하고 밀고 나갈만한 訓鍊된 人材 不足과 豫算의 貧弱으로 產業振興 施策展開는 느릴 수밖에 없었다.

1905年 日本統監府가 設置되고 日本人들이 官職에 任用되면서 韓國을 日本資本主義의 食糧 및 原料市場으로서 作物改良에 優先을 두게 되고 大韓政府 또한 外貨獲得과 農業振興의 面에서 그 利害를 같이 하게 됨으로 1900年 11月에 農工商部 傘下에 蠶桑試驗場을 세워(筆洞) 改良養蠶技術에 對한 訓鍊을 시켜 技能工을 養成하는 한편, 桑田·桑苗圃·稚蠶共同飼育과 品評會에 對하여 補助金까지 주면서 적극 장려하였다.

1904年 9月 처음으로 서울에 官立農工商工學校(豫科1년, 本科3年)를 세웠으며 1906年 9月 農科를 분리하여 水原에 農林學校를 세워 農科와 林科를 두고 本科2年, 硏究科1年의 課程을 두었다.

統監府는 1906年 4月 水原에 勸業模範場을 設置하여 日本의 作物品種과 技術의 適應試驗과 普及에 나섬으로써 水原은 韓國農業의 技術과 敎育의 中心地가 되었다.

1906年 棉花栽培協會에서는 美國產棉花品種의 普及을 爲하여 1908年부터 1910年까지 全局各郡까지 採種圃를 두었다.

1908年 이른바 東洋拓殖會社를 設立한 日本은 日本農民을 移住시키면서 農地를 차지하고 農會를 結成하는 등 日本農法을 本格的으로 試圖하기에 이르렀다.

菜蔬栽培는 1887年 무렵 中國 山東人船員이 富川君 朱安面에 定着함을 始作으로 京仁地方을 中心으로 漸次 많은 農民이 液素하여 近郊菜蔬를 늘려 갔으며 1904년에는 그 戶數가 364戶였던 것이 1936年에는 2,793 戶에 이르렀다고 한다.

改良農法을 急速히 普及하기 爲하여 조선총독부는 強弱 2가지 方法을 併行하였으니 各地의 日本憲兵分所가 앞장서서 위압적 手法으로 지정한 作物 또는 品種을 보급하였으며, 한편 金融組合에도 農業指導員을 두었고 短期講習會와 誤評會를 各地에서 열었다.

○ 日帝下의 農事指導事業

1910年 總督府는 勸業模範管制를 公布하여 園藝試驗場 (뚝섬) 棉花栽培所 (木浦)를 勸業模範場 (水原)의 支場으로 하고 農林學校(水原)를 新設하였다. 한편 同年 10月에는 龍山에 女子蠶業講習所를, 1913年에는 原蠶種製造所를 本場에 設置하였고 作目의 奬勵品種指定, 標準施肥量決定 및 栽培法試驗, 肥料分析 등을 하는 동시에 模範圃設置, 技術指導員의 講習, 小冊子의 配付 등 日本이 필요로 하는 作目勸勵에 힘썼다.

日帝下의 水稻作은 地主의 主導로 農事指導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生産量의 50~70%를 小作料로 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小作權을 移動할 수 있기 때문에 增産의 結實이 곧 自己의 利益과 結付되고 強壓的 指導가 容易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大地主가 主動이 되어 만든 地主會, 勸農會, 農友會, 勸業會等 團體가 1920年에는 758個에 達하였고 會員도 近 300万名에 達하였으니 一般農民에 군림하는 단체의 구실도 겸하였다.

1918年 一次大戰의 勝戰國이 된 日本은 食糧에 對한 需要가 크게 늘어 쌀 騷動을 겪게 되었다. 1919年 950万石이란 尨大한 量의 外穀을 輸入한 日本은 米穀增産에 狂奔하게 되어 朝鮮에서 43萬 町步의 農地를 改良하고 1億4萬圓의 資金을 投入하여 쌀 900万石을 增産하여 해마다 700万石을 日本에 共給하게 하는 第一次 米穀增産計劃을 發表(1920)하고 1926年엔 다시 1000万石 水準까지 올리려 하였다.

1921年 各道에 農務課를 新設하고 郡에도 技術員을 增員配置하였으며, 1928年 5月에는 水利組合令의 施行規則을 개정하여 農事改良指導를 水利組合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 1926年 農業關係 團體의 亂立으로 1農家가 加入된 多種團體의 混亂과 會員의 過重한 부담 등 그 整備가 必要하게 됨에 따라 農會令으로 統合을 갖게 되니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種類 : 市·郡農會, 道農會, 朝鮮農會의 종류로 區分하였다.

(2) 會員資格 : 市·郡農會는 區域內의 地主를 비롯하여 3段步 미만의 小作人을 除外한 全農民을 강제로 加入시켰다.

(3) 事業 : 農事指導, 農業에 關한 研究 및 調査, 農業에 關한 分爭調整等

(4) 任員 : 郡農會長과 副會員은 道知事가 任命하고 道農會 및 中央農會의 會長과 副會長은 總督이 임명하였다.

이로 因하여 統合된 郡農會는 水稻作, 綿作, 養畜, 養蠶 等에 關한 專門技術者를 配置하여 調整된 指導事業을 展開하였으나 指導方法은 非民主的이어서 指導員은 增産目標達城을 爲하여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지시와 督勵를 자행하면서 農民을 학습 시키기는 커녕 服從을 強要하는 強權的 指導였으므로 農民과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1940年 戰時統制時代에 들면서부터 農産物供出(쌀·棉花)이 강요되기 시작하였고 農事指導員은 指導活動外에 供出督勵, 公課金徵收의 임무까지도 맡게 됨에 農民에게는, 支配者로 취급받게 되었다.

○美軍政下의 農事敎導事業

1945年 8月 15日 解放과 더불어 國土는 양분되고 經濟政策의 當面課題는 인플레 수습과 食糧供給의 안정이었다.

農民을 收奪하던 小作制度의 改革, 農民의 經濟利益을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한 協同組合의 育成, 農民들을 啓蒙·敎育하기 위한 指導事業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過渡的 行政任務을 담당한 美軍政은 農業發展을 위하여 美國에서 50年間 實施하여 成功한 農事敎導事業을 導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政治的 混亂과 敎導事業에 對한 社會的 認識不足으로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겨우 始作만 한 채 新生共和國에 引繼하였다.

1947年 12月 美軍政은 過渡政府令 第260號로 農業技術敎育令을 公布하였다. 이 法令에 依하여 國立農事改良院이 설치되고 (農科大學, 農業試驗場, 敎導局을 統合) 各道에는 道農事試驗場과 敎導局을 따로 두었으며 郡에는 農事敎導所를 設置 하였다. 여기서 廣州郡 農事敎導所도 發足하게 되어 國費豫算으로 運營되게 되었으나 財政的 뒷받침의 부족과 訓鍊된 敎導員 부족으로 큰 隘路가 되었다.

1948年 2月에서야 市·郡 農事敎導所長級 150명에 대한 敎導理念과 敎導方法에 對한 短期講習所를 水原에서 가졌고, 같은 해 6月에 各 邑面에 1名씩의 敎導員을 배치하여 敎導活動을 실시하게 되었다.

○大韓民國의 農事指導事業

①政府樹立後의 農村敎導事業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됨에 따라 敎導事業도 계승되었으나 일부의 無用論과 當局의 微溫的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當時 敎導事業 從事者들은 農業技術者大會를 열고 建議書를 關係要路에 제출하는 등 줄기찬 노력으로 1949年 1月 折衷的인 機構改編을 보게 되었다. 卽 農事改良院이 폐지되고 水源農科大學 大敎部 산하로 귀속되고 試驗部와 敎導部로 구성된 農業技術院이 새로 발족함에 따라 各道에 道農事技術院이 생기고 郡農事敎導所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1949年 農地改革이 시행됨에 農村民主化를 위한 制度的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6·25動亂으로 모든 農事敎導事業은 1951年을 期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53年 7月 27日 休戰成立에 따라 農事敎導事業의 再建도 추진되었다. 1952年 UNKRA(國際聯合韓國復興委員團)가 招聘한 FAO(國際食糧農業機構) 使節團은 "韓國의 農業, 林業, 水產業의 復興發展策"(Rehabilition and Development of Agricoltvre, Forestry, and Fisheris in Sovth Korea)이라는 報告書를 통하여 敎導事業에 관한 유익한 建議를 함으로써 韓國政府와 指導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UNKRA는 本 事業振興을 위하여 1953年에 25万$의 豫算을 세우고 敎導事業關係技術者 11名을 美國에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동시에 指導用物資導入 등 적극적인 後援活動을 전개하였다.

1953年 12月 29일 農林, 內務, 文敎, 社會, 保健等 五部長官 名義로 「農業敎導事業實施에 관한 通牒」을 시달하여 邑面에 農業指導所를, 郡과 道 및 中央에 各各 農業敎導委員會를 設置하게 하였으며 1954年 1월 大統領令 제863호로 農業技術院의 「敎導部」를 삭제하였다.

1955年 3月 農林部 農政局에 農業敎導課를 새로 두고 1956年 3月 6日 大統領令 1136號에 의하여 各道 產業局에 農業敎導課를 市·郡에 產業課에 農業敎導係를 두게 되어, 廣州郡의 農業敎 導係長에 蔡相範氏가 補職되어 敎導員 1名과 함께 農業敎導事業을 펼치게 되었다.

②農事院의 發足과 農事教導所

1956年 韓國政府와 美國援助當局間에 「農事教導事業發展에 관한 協定」이 성립되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 農事教導事業의 機構를 法律에 의하여 설치하고, ㉡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백한 行政系統을 수립하며, ㉢ 所要豫算은 國會의 豫算措置에 의하여 충당하고, ㉣ 農事教導機關에는 農民을 위하여 非政治的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技術知識과 훈련을 받은 人材를 배치한다는 것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協定과 美 미네소타大 農科大學長 H.Macy博士와 教導局長(S.Rvtford) 家政科長(D. Simmous) 一行의 試驗機關과 教導機關을 一般行政機關에서 獨立시켜야 된다는 메이시 報告書다. Ramsoua氏의 助言等을 토대로 農林部와 OEC(駐韓美國經濟協助處)는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法案作成에 진력하여 같은 해 9月 國會農林分科委員會와 農林部및 OEC農業局 三者會同으로 19次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57年 1月 29日 農事教導法이 國會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2月 12日 法律 제435호로 公布되었다. 이어 같은 해 5月 28日 大統領令 제1275호로 農事院職制가 公布되고 6月 15日 勸農日을 계기로 水原에서 農事院 開院成을 갖게 됨에 따라 廣州郡 廣州邑 松亭里에 廣州郡農事教導所가 開所되면서 初代所長에 蔡相範氏가 就任하고 農事教導員 2名 生活改善教導員 1名으로 廣州郡 農事教導의 本格的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적은 人員이지만 農事指導, 青少年指導, 生活改善指導, 協同組合教育을 個人接觸 集團接觸, 大衆接觸等의 多양하며 徹底한 民主的 教育方法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郡內部落 구석구석까지 教導活動이 고르게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農民의 이해는 증진되어 教導員의 태도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農民 스스로가 教導員에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自發的 學習團體인 4-H俱樂部, 農事改良俱樂部, 生活改善俱樂部가 郡內 곳곳에 組職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教導事業의 헌신적인 공로라 할 수 있다.

1959年末 農民의 높아진 인식에 힘입어 各面까지 支所를 설치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다가 4·19革命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1961年 軍事革命政府에 의해 대폭적인 政府機構改編에 따라 郡農事教導所는 郡産業課의 한 係로 編入되고 말았다. 따라서 다시 옛날과 비슷하게 후퇴하고 말았으므로 반대輿論이 沸騰하게 되었다.

③農村振興廳과 農村指導所

農事院이 발족한 뒤에도 農民에 대한 農事教導機關의 專擔指導가 되지 않고 農林部의 各局道의 産業局, 市郡의 産業課, 邑面의 産業係等 一般行政機關과 地域社會開發機關. 水利組合및 協同組合等에서도 獨自的으로 農事指導, 生活改善, 模範部落育成 等 여러 가지 형태의 指導事業을 推進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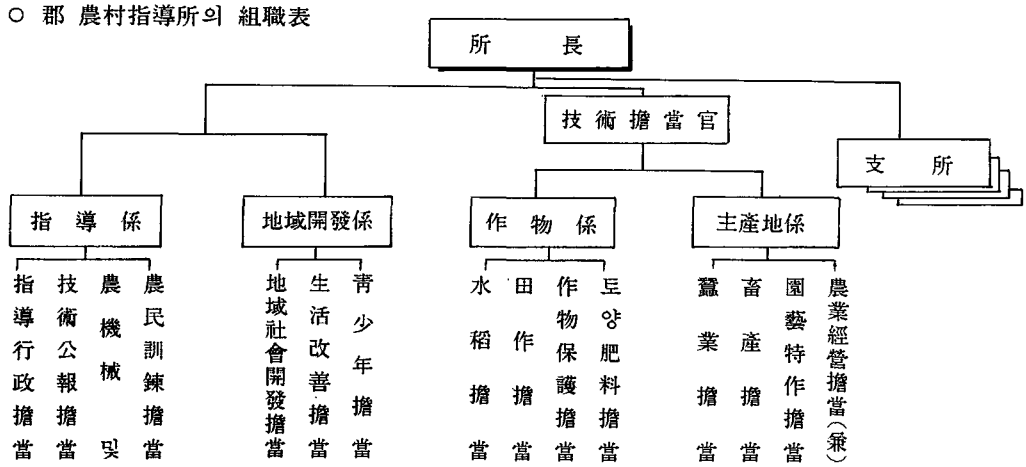
이와같이 指導體系가 多元化됨에 따라 混亂과 非能率이 초래되었다. 이에 指導體系의 一元化는 물론 農村指導主管處의 行政機構로부터 獨立을 모색하던 中 1962年 2月 17日 朴正熙議長의 指示에 對한 內閣案을 廓正하였으며 3月 21日 農村振興法이 公布되어 同年 4月 1日을 기하여 農村振興廳 發足과 함께 廣州郡 農村指導所가 廣州郡廳의 事業所로 獨立하면서 人事權은 農村振興廳이 갖게 되었고 專門人力管理와 一貫된 事業監督體系를 確立하게 되었다.

1963年 10月 5日 閣令 제1595호에 의한 職制改正에 따라 草月, 實村, 退村, 東部에 支所를 두어 支所長과 指導員 1~2名을 배치하였고 1975年 1月 農村指導事業에 대한 農民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各 邑面에 支所를 두고 支所마다 독립된 廳舍를 두고 農村指導의 一線役割을 擔當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指導所 廳舍도 군청안에 新築하여 1979. 11. 移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廣州郡農村指導所歷代所長

1代	蔡相範	1957. 6 ~ 1968.12	4代	任相淳	1975. 8 ~1977. 1
2代	李天호	1969. 1 ~ 1969. 9	5代	文在雲	1977. 1 ~ 1980.11
3代	蔡相範	1969.10 ~ 1974.12	6代	鄭泰彦	1980.11 ~ 現在
職代	尹자용	1975. 1 ~ 1975. 8			

○ 郡 農村指導所의 組職表



○農村指導事業 主要業積

1. 農民組職部門

○4-H俱樂部

· 60年代-45個會 925名
· 70年代-206個會 2956名
· 80年代-130個會 2270名
· '88. 1月 現在 70個會 2056名

(農民 組職精銳化로 組職 縮小)

*1979年 1月 새마을 靑少年會로 組職改編

○生活改善 俱樂部

· 60年代-35個會 875名
· 70年代-67個會 2010名

*1977年 7月 새마을 婦女會로 統合

○農事改良俱樂部

· 60年代－56個會 1520名

· 70年代－65個會 1835名

*1977年 7月 組職解散

2. 生產技術提高部門

食糧作物

○60年代

· 벼農事

－在來農法인 물못자리에서 保溫못자리 形態로 劃期的인 發展

－品種에 있어서는 八達, 農林5號 , 水城, 白舍, 豊玉 等 低段收品種栽培

－막모심기 및 坪當 60株程度 심기에서 줄모심기 및 坪當 70～80　심기로 轉換

· 밭農事

－보리의 條播栽培에서 廣播栽培로 收穫量 提高

－콩의 優良品種인 光敎, 普及으로 收量提高

○ 70年代

· 벼農事

－多收品種인 統一벼의 出現으로 綠色革命 이룩

－個別栽培에서 集團栽培形態로 바뀌어가고 있음

· 밭農事

· 밭農事

－콩의 優良品種인 長葉콩, 短葉콩 普及으로 收量增加

－참깨 等 밭作物의 비닐被服栽培로 收量增加

○ 80年代

· 벼農事

－80年度의 全國的인 冷害被害 發生으로 못자리 設置期間 短縮

－機械化營農으로 急速한 發展

('88現在 機械化率 68%)

－收量보다도 밥맛좋은 一般係品種으로 代替底傾向

○ 밭農事

－콩優良品種 擴大普及(黃舍, 八達, 晋穗)

－참깨 優良品種 擴大普及(安山, 軍白,廣産)

· 땅콩 優良品種 擴大普及(새들, 올, 大廣)

○ 園藝作物

· 60年代－自給營農時代

(1) 木竹材利用 하우스 施設 섬피 위주의 外皮覆에 의한 保溫및 共同으물 利用 在來式 灌水에서 竹材및 파이프 活用 턴넬하우스 設置, 하우스內 被覆保溫 方法改善

(2) 菜蔬種子의 自家採種과 全面積 在來式 栽培, 露地 醸熟溫床設置, 기름종이 이용으로

果菜類 早,熟栽培에서 種子 選別 우량종자栽培 하우스內 溫床設置育苗方法普及

(3) 참외, 수박, 連作에 의한 만할병 避害急增으로 퇴비·석탄시용및 輪作體系 改善指導

· 70年代－半自給營農時代

(1) 標準 하우스施設普及. 施設菜蔬栽培擴大 하우스內 被覆, 揚水施設活用으로 半自動灌水, 하우스內 育苗床設置, 폿트育栽培法普及

(2) 채소 우량종자 및 新品種 구입栽培, 菜蔬接木技術普及

(3) 畓前作 봄배추, 무우, 감자, 완두콩栽培및 畓裏作 딸기 비닐피복 栽培后二毛作으로 早生統一벼 栽培등 논 移用度 提高

(4) 果菜類 비닐 被覆栽培 擴大 및 밭 除草劑使用法 普及, 省力化에 따른 努力 절감

(5) 참깨, 땅콩 新品種普及 비닐 피복재배실시 참깨 段當收穫提高(45kg에서 120kg/10a로)

(6) 農業用 綱紗및 遮光綱普及 山間地 대상 여름 結球배추 및 그루 오이 여름 상추栽培로 오지 山間마을 所得源 開發

(7) 기호성 높은 山菜栽培法補給－더덕, 고들빼기, 취나물, 돌나물 등

(8) 果菜類 着果增進 및 商品性 提高를 爲한 生長調節劑 利用, 技術 普及

(9) 大型連棟 하우스(棟當 500～1000坪) 施設普及 作業環境改善과 機械化, 省力化, 灌水, 保溫 환기施設 改善

(10) 느타리버섯 示範栽培후 점차 재배면적 擴大로 團地化造成～64戶 152천평

(11) 채소 병충해 관찰포 설치 순기별 예찰 방제통보 및 예찰정보 발표, 원예작물 병충해 사전 예방대책 정립

· 80年代 一商業 營農化 時代

(1) 商業營農에 對應한 自立經營農家育成, 促成, 半促成, 早熟, 抑制栽培技術 普及, 作付體系 改善에 따른 年中 新鮮菜蔬生產 體系定立

(2) 花卉 泮彩類 示範圃設置로 수요 急增 作目擴大普及－2個團地 4ha

(3) 느타리 버섯 사철재배 新品種 普及 및 영지버섯 재배기술 보급

(4) 청정채소 생산을 위한 水耕栽培團地造成과 直營 直販場設置로 年中販賣

(5) 果菜類 여름 하우스內 재배로 災害防止 및 연작장해방지와 수확기연장으로 安全生產을 유도하고 집약재배에 의한 경영개선을 도모

(6) 농업관측 및 유통 예고제 홍보 농축산물 價格動向 弘報로 生產物 出荷조절실시

○畜產

· 60年代

(1) 韓牛中心 力牛爲主의 家畜飼養이었고 소의 고창증 예방, 닭의 예방주사 돼지 코레라 예방등 초보적인 畜產技術指導였었다.

· 70年代

(1) 韓牛 生食의 必要性 및 飼育効果에 對한 重点教育實施

(2) 번식우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人工乳를 最初로 보급

(3) 示範마을별로 우형기를 공급하고 體重測定에 따른 표준사양과 사료급여 효율성 제고 및 日당 增體量을 提高함(1日 1kg 增體)

(4) 靑刈飼料用 新品種 옥수수 수원 19號를 農家에 普及한 결과 도복에 강하여 多收性이 立證되어 面積이 擴大되고 담근먹이(싸이코) 제조 기술 보급으로 韓牛生飼技術 정착으로 多頭飼育化

(5) 山地利用 不耕耘 및 林間草地造成 技術普及

· 80年代

(1) 답이작 호맥재배와 밭사료 작물 재배면적 擴大와 옥수수와 유채 무우와 호맥등의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수단그라스 재배 예취이용 기술 보급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이 확고히 되었다.

(2) 볏집 암모니아 처리 이용기술이 보급되었다.

(3) 호맥 담근먹이 제조 이용방법이 보급 되었다.

(4)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의 본격적인 활동과 가축 분비물의 정화시설 보급이 시작 되었다.

(5) 대단위 초지조성이 시작되고 전면적 우량초지화 방목기술의 보급이 시작되었다.

重要업적

1982 全國農民相談環境改善中央競進1位

1983 京畿道農村指導事業綜合審査準優勝

1984 〃 優勝

1985 〃 準優勝

1985 새마을 靑少年道競進大會綜合1位

主要作物 生產高 比較

구 분	65		75		85	
	면 적	단 수	면 적	단 수	면 적	단 수
벼	4,685	247	4,790	413	4,369	418
보 리	3,063.3	61	786	249	71	120
콩	1,567.4	62	1,061	107	932	114
감 자	260.4	758	323	1,870	153	1,629
배 추	367	1,659	1,030	1,209	292	8,520
무 우	248	1,102	926	1,233	264	3,667
고 추	177	307	276	160	402	126
마 늘	208	429	102	479	145	563
파	27	1,044	48	1,176	81	2,504
오 이	131	1,104	220	1,190	197	2,073
참 외	158	765	182	1,100	111	1,488
수 박	118	960	—	—	57	2,021
토마토	21	1,254	32	1,498	50	2,226

참 깨	92	36	225	52	286	76
들 깨	102	38	110	64	193	73
버 섯	—	—	—	—	2.5(64)	16,300
잠 업	139.6	2,308	216	2,988	38	749
한 우	6,003	6,040	5,644	7,355	3,531	12,457
유 우	29	99	152	2,022	819	8,775
돼 지	2,295	2,886	1,163	9,346	599	38,503
닭	3,896	40	1,663	840	307	1,735

第 2 章 教 育

第一節 古代의 廣州教育

1. 百濟의 建國과 廣州

廣州는 民族史의 發祥地이며, 漢江을 젖줄로 하여 유구한 民族의 歷史와 文化를 꽃피워온 땅이다.

百濟의 옛 都邑인 慰禮城은 지금의 廣州郡 西部面 春宮里 부근으로 始祖인 溫祚王은 B.C 6年에 漢江以北에서 이곳으로 都邑을 옮겨 온 이래 480 여 年間 百濟의 都邑으로 百濟文化를 꽃피워 왔다.

일설에 의하면 始祖 溫祚와 沸流는 優台의 아들로 北扶餘 解夫婁의 庶孫이고 어머니는 卒本人 延陁勃의 딸인 召西奴였다. 召西奴는 처음에 優台에게 시집가서 沸流와 溫祚를 나았다가 優台가 죽자 卒本으로 돌아와서 홀몸으로 지냈다. 前漢 建昭 2年 (BC 37年)에 東扶餘에서 도망온 朱蒙은 卒本에서 高句麗를 세우고 召西奴를 그의 妃로 맞았다. 召西奴는 朱蒙의 開國에 정성으로 內助하였으며 朱蒙도 王妃를 사랑하였고 沸流와 溫祚도 친자식처럼 여겼다. 그런데 朱蒙이 東扶餘에서 있을 때 얻었던 前妻(禮氏夫人)의 소생이었던 類利가 도망해오자 그를 太子로 삼아 王位를 계승시켰다.[1] 이에 불만과 함께 신변의 위협을 느낀 召西奴와 그의 두 아들 沸流와 溫祚는 卒本을 떠나 南下하게 된다. 南下하던 沸流와 溫祚는 祝福받은 天惠의 땅 京畿에 定着하여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바 형 沸流에 의한 沸流百濟와 동생 溫祚에 의한 溫祚百濟가 그것이다.

廣州는 앞서 밝힌 것처럼 溫祚百濟의 都邑인 것이다. 그 이전에 이미 古代馬韓의 疆域이었으므로 일찌기 한반도의 歷史가 始作되었던 民族雄飛의 요람으로 榮光과 遺蹟의 고장이기도 하다.

2. 形式教育 以前의 廣州教育

廣州가 오랜 古都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百濟의 建國이 이루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廣州를 中心으로 한 地域에서의 形式教育 以前의 教育에 대해서는 史料와 記錄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古代社會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原初的인 教育의 形態까지를 추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宗教儀式의 教育과 外敵을 물리치기 위한 軍事教育, 生計를 維持하기 위한 生活教育은

1) 金聖昊,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서울 : 知文社, 1982), p.38.

部族國家 以前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이므로 廣州地域의 古代의 教育도 이러한 범주 안에 있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形式教育 以前의 古代教育을 論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成年式의 教育的 意味이다. 古代社會 또는 原始社會에서 갖는 成年式의 教育的 意義는 道德的 價値의 傳受와 宗教的 共感帶의 形成이라는 意味 외에도 役割意識과 遂行이라는 社會生活의 實際的인 意味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古代教育의 形態는 文學가 出現되기 전까지 상당 期間 답습되어 오다가 文學의 出現으로 教育의 方法이 記錄되어지면서 學習內容의 習得과 傳達을 용이하게 하고 教育의 機能과 範圍가 擴大되어 드디어는 形式教育에 이른 것이다.

形式教育이라 함은 意圖的이며 計劃的이고 繼續的인 教育을 뜻하는 바 形式教育이 記錄으로 나타나기 始作하는 것은 三國時代부터이다.

廣州는 三國의 변방에 位置해 있었던 관계로 百濟의 都邑地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新羅에 때로는 高句麗에 때로는 百濟에 속해 있어 三國의 教育制度가 모두 收容되었으리라고 믿어진다.

3. 三國時代의 廣州교육

廣州의 地域的 特性과 歷史的 特殊性에 따라 三國의 教育制度가 모두 關聯이 되어 있다.

1) 百濟의 學校教育

百濟는 廣州에서 建國되어 國初의 상당 期間을 이 땅에서 國家를 經營했으며 文物이 三國 중에서도 가장 發達되어 中國의 本土에 植民地를 두고 있었을 만큼 막강한 國力을 과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學校教育이나 形式教育을 實施했다는 史料가 發見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百濟에 形式教育이 存在하지 않았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記錄에 나타나는 博士라는 호칭을 미루어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博士라는 칭호는 당시의 中國 史料에서도 發見될 뿐 아니라 高句麗의 官職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當代의 官職임과 동시에 學問的인 成就를 이룬 사람에 대한 호칭이었을 것이다.

이를 미루어 博士란 호칭이 지니는 뜻은 '教學主任'을 맡은 官職인 것을 알 수 있으며 百濟博士의 기록은 三國史記 近肖古王記에 '博士 高光'의 명칭이 나오는 것이 처음이나 日本에 千學文과 論語를 傳한 博士 王仁의 기록이 日本側 史料[2]에 나타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高句麗보다 87년이나 먼저 形式的인 教育을 실시했다는 말이 된다.

近肖古王 29年에 高光을 博士로 삼아 '書記'를 짓게한 사실이라던가 武寧王大에 이르러 五經博士 段楊爾, 高安武등을 日本에 보내어 日本 文化를 발전케 한 사실, 또 聖王 元年에 梁나라에 使臣을 보내어 毛詩博士를 請해 온 사실, 武王 3년에 중 觀勒이 歷書와 天文 등의 書籍

2) 古史記, 日本書記, 續日本書記 나타나고 있다.

을 日本에 傳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高句麗의 太學에 필적할 만한 教育機關이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見解이다.

記錄이 傳하여지지 않고 있음은 앞서 말한대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國初의 都邑地를 發掘하는 作業이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으므로 수千年이 이땅의 어딘가에 묻혀 있을 百濟의 記錄도 함께 發掘되어 찬란한 文化의 實體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울러 百濟의 教育制度도 밝혀질 것이다.

2) 高句麗의 學校教育

漢民族의 歷史上 初有의 形式教育機關은 高句麗 17代 小獸林王 2年인 A.D 372年 6月에 設立된 太學이다. 이 해는 前泰에서 佛教가 高句麗에 전파된 해이기도 하며 다음 해인 373年에는 高句麗의 律令이 公布된 해여서, 太學의 設立은 高句麗의 統治體制와 함께 社會制度가 整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太學은 儒教의 太學課程으로 設立되었으며 教育課程을 詩傳, 書傳, 周易, 禮記, 春秋 등이었으며 國家的 次元에서의 必要性이 제기되면 武藝를 포함시켰을 것이어서 經典과 武藝를 겸한 文武兼備의 教育을 實施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太學이 國家的인 公教育機關이었다면 展堂은 私學機關이었다.

高句麗의 上流社會의 權門勢家에서는 各處에 展堂을 세워 平民의 未婚 子女에게 讀書와 弓術을 익힐 수 있게 하였고 五經과 史記 등의 史書와 文選 등의 文藝書 등이 教育內容이 되었다. 展堂은 未成年集會로서의 軍事的 機能을 重視하여 文武를 겸한 私學으로서의 學校教育機能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後에 書堂의 起源이 되었다.

따라서 平民教育機關으로서의 展堂은 다음과 같은 教育思想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첫째, 開國 후 차츰 일반대중에게 私學教育이 보급되었으며

둘째, 教育이 少年期로부터 青年期에 걸쳐 가장 重要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세째, 당시 고구려의 國內外 정세에 비추어 文武一致의 교육을 공교육기관에서는 물론 私學에서도 실시하였으며

네째, 教育課程의 범위가 넓고 그 程度가 높은 것으로 보아 扁堂은 초등교육 수준에서부터 고등교육 수준까지를 포함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이다.

廣州가 원래 고구려의 買忽郡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당시 廣州 地域엔 몇 쯤의 私學기관인 扁堂이 운영되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할 記錄이 남아있지를 않다.

3) 新羅의 學校教育

新羅의 形式的 教育에서 먼저 論議해야할 것이 花郎道 教育이다.

新羅의 花郎道는 本來부터 教育機關이나 學校組織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花郎道는

3)京畿道教育委員會,《京畿教育史·1833－1959》(仁川：中央印刷社, 1975), p.88.

治安을 담당하는 司法的 기능과 國防을 담당하는 軍事的 機能과 平和時에 青少年의 教育을 담당하는 教育的 機能을 가진 단체였다.

花郎道 教育은 표면적으로 용감한 兵士와 實踐的인 人間을 양성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內面的으로는 新羅 특유의 宗教的, 道德的 教育을 目的으로 하고 있어 忠孝를 基調로 국가에 奉公하는 精神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圓光法師의 世俗五戒인 事君以忠, 事親以孝, 教友有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은 花郎道의 生活 指標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新羅가 高句麗 百濟와 같은 學校教育의 設立은 統一후에나 나타나지만 무릇 教育의 使命이 人材養成과 民衆教化에 있다고 한다면 新羅 고유의 花郎에 의한 教育은 古代 哲學思想에 비추어 고구려나 백제의 太學에서 나타나는 形式的 教育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教育 制度[4]라는 점이다.

花郎道 教育은 도덕교육을 先行條件으로 하여 人間教育, 生活教育, 直觀教育, 情緖教育을 중심으로 하는 全人教育을 指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教育的 意味를 찾을 수 있다.

花郎道 教育이 統一新羅 이전까지의 형식적 教育이라면 統一新羅 이후의 形式的인 教育은 神文王 3年에 이르러 최초로 설립된 儒教大學인 國學이다.

國學의 教育課程은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등의 五經과 文選의 여섯 科目을 이수하게 되어 있었다.[5]

國學은 神文王 2년 設立 이후 70여년이 지난 景德王 18년에 太學으로 개칭되었다가 17年후 惠恭王 12년에 다시 國學으로 고쳐졌다.[6]

諸生의 讀書는 三品出身으로 정하였는바 이것을 흔히 讀書三品科라 칭하며 元聖王 4年에 처음으로 制定되어 國學에서 實施하였고 동시에 國學의 平價法이 되기도 했다. 國學의 設立目的이 儒教社會의 인재 양성에 있었으므로 이 評價에 의해 人材를 등요해 썼다.

上品 : 春秋左氏傳 禮記, 또는 文選을 읽고 그 뜻에 能通하며 論語, 孝經에 밝은 자

中品 : 曲禮, 논고, 孝經을 읽고 그 뜻에 能通한 者

下品 : 曲禮와 孝經을 읽고 그 뜻에 能通한 者

學生은 15세에서 30세까지의 연령으로 在學年限은 9년이었으며 學校 組織은 책임자인 卿과 그 밑에 博士와 助教가 있어 학생들을 教授하고 또한 事務官吏를 두고 있었다. 入學의 身分은 貴族의 자녀에 한하였으므로 骨品制에 의한 指導者의 양성이 目的이었으나 讀書三品 出身을 통해 인재의 등용 폭을 넓혀 갔다.

廣州는 百濟가 新羅 眞興王에게 빼앗겨 漢山州라고 고쳐부르게 된 것으로 보아 統一新羅 이후에는 形式的인 教育機關인 國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나 그에 대한 記錄이 전하지 않는다.

---

4) 韓國青少年文化硏究所, 《韓國教育 2000年史》 (서울 : 民友出版社, 1981), p.43.

5) 康吉秀 外, 前揭書, p.30

6) 上揭書, p. 28.

第二節 高麗時代의 廣州教育

1. 高麗의 教育制度

高麗에는 國都에 官學으로 國子監(成均館)과 東西5部學堂이 있었고 私學으로 十二徒가 있었으며 地方에는 官學인 鄕校와 私學인 經館과 書社*등이 있었으며 國初에는 西京에 學校·學院도 있었다.

「高麗史」[7]에 의하면 太祖 13년에 태조가 西京(平壤)에 행차하여 학교를 세우고 生徒를 가르치게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學院을 세워 六部[8]에서 教育을 實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교육기관은 文部, 즉 中央官署의 官史가 될 生徒를 가르쳤다는 점에서 國子監의 前身이 아니었나 하는 해석을 하게 한다.

國子監은 成宗 11년(92)에 創設되었다. 成宗이 教를 내려 "有司에게 좋은 땅을 넓게 골라 書齊와 學舍를 넉넉하게 짓고 전답을 헤아려 줌으로써 기숙사 비용에 충당토록 하라"고 이르므로써 國子監을 創立이 된 것이다. 이때의 國予監은 대체로 唐나라의 國子監을 따랐으나 創設된지 약 130년이 지난 仁宗代(1123~46)에 와서 式目都監*이 學式을 詳定하였다[9] 이 學式에 의하면 國子監은 國子學 太學, 西門學의 세 學과 律學, 書學, 算學등 모두 六學으로 教育課程이 짜여진 國立大學校라고 볼 수 있다. 이들 六學의 入學資格, 定員, 教官 및 學科目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國 子 監

學校名	入學資格	定員	教官	學科
國子監	文武官 三品以上 子孫	300		易, 詩, 書, 三禮 ①
太學	文武官 五品以上 子孫, 三品의 증손	300	博士	春秋三博 ②
西門學	文武官 七品以上의 子	300	助教	孝終, 論語
律學	文武官 八品以上의 子 및 庶人	미상		
書學		미상	博士	
算學		미상		

① 周禮, 儀禮, 禮記 ② 公羊博, 穀梁傳, 左博

* 이는 書堂으로 간주됨.

7) 「高麗史」, 卷七十四志, 28, 選擧二, 學校

8) 吏, 戶, 禮, 兵, 刑, 工部

* 오늘의 法制委員會와 같음

9) 康吉秀, 전게서, pp. 55~56

위의 教育課程에서 보면 教科는 周易, 尙書, 禮記, 毛詩, 春秋左氏博, 公羊博, 穀梁傳을 각각 一給으로 하고 孝經이나 論語는 必順科目으로 課하였다. 또한 律學에는 律令을, 書學에는 入書를, 算學에는 算術을 가르쳤다.

修學年限은 孝經과 論語를 합쳐서 1年, 그 다음에 諸經을 읽는데 尙書, 公羊傳, 穀梁傳중 一經을 읽되 2년半이며, 毋詩, 周禮, 儀禮중 一經을 2년限으로 읽고 禮記, 左傳중 一經을 3년까지 읽도록 했다.[10]

다음 東西學堂과 五部學堂이 官學으로 運營되었는 바 東西學堂은 元宗2年(1261)에 設置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 學堂들은 開京에서 學徒들에게 地方의 鄕校 程度의 教育을 實施하던 곳으로 1390년에 五部學堂으로 擴張 改編되었다. 東西學堂의 특징은 鄕校와 달리 文廟가 없이 學徒들이 學習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公立教育機關으로 地方에 設置된 鄕校가 있었다.

鄕校는 仁宗 5년(1127)에 내린 詔書에 의하여 각 州縣에 세운 地方 學校이다. 中央에 國子監과 地方에 鄕校라는 學制는 대체로 唐制를 따랐던 것으로 생각되며 入學資格은 國子監의 律, 書, 算등 3學의 그것과 同一하여 文武官 8品 이상의 子와 庶人에게도 入學을 허가했으며 文廟가 있어 廟·學이 함께 했기때문에 鄕校를 國子監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公教有機關 외에도 私學機關으로 12公徒가 있었으며 또한 經館과 書社라고 하는 書堂정도의 私塾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12公徒의 始初는 당대의 學者였었던 海東孔子 崔冲이 文宗9년(1055)에 設立한 九齊學堂이었으며 이 私塾에 모인 貴族의 子弟들을 文憲公徒라 불렀다. 文憲公徒의 教育이 成功을 거두자 당시의 朝廷 功臣들이 이를 본받아 私塾을 設立하니 그 徒가 12에 이르러 이를 十二公徒라 일컫는다.

十二公徒는 崔冲의 文憲公徒, 侍中 鄭倍傑의 弘文公徒, 參政 且慮의 匡憲公徒, 祭酒 金尙賓의 南山徒, 僕射 金無帶의 西園徒, 侍限 段鼎의 文忠公徒, 平章 金義珍의 良愼公徒, 平章 黃瑩의 貞敬公徒, 柳監의 忠平公徒, 侍中 文正의 貞憲公徒, 徐碩의 徐侍限徒, 設立者 未詳의 龜山徒 등이다.[11]

學班은 크게 樂聖,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大和, 侍聘등 九齊로 나누고 學課는 文憲公徒에서 주로 五經과 三史를 中心으로 實施했으므로 다른 徒에서도 여기에 준했으리라 본다.

무릇 科擧에 응시하려는 者는 거의 모두가 이 私學기관에 모여 學問을 연마하였으며 이곳 出身들이 科擧에 급제하여 官界에 進出하는 일이 많아져 國子監을 무색케 했다.[12]

2. 高麗의 教育思想

高麗社會는 學校의 形式教育이 儒教의 經典에 바탕을 두었던 것에 반해 民衆의 宗教的 意

10) 康吉秀外 前揭書, p.56.

11) 韓國青年文化硏究所 前揭書. p. 76

12) 水原市史編纂委員會,《水原市史》(水原 : 京仁日報, 1986). p.1287.

識은 佛敎에 바탕을 두었다. 佛家的 價値觀은 性理學을 發達시킨 原因이 되었던 바 이는 佛敎의 宗派와도 무관하지 않아서 佛敎의 禪宗이 性理學의 發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야 한다. 禪宗은 以心傳心,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敎旨로 삼아 必性의 內面을 응시해 가는 主觀的 宗敎로 性理學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性理學은 25代 忠烈王 때 安珦에 의해서 導入되었으며 麗末 儒敎發興의 기운을 타고 새로운 政治哲學과 敎育哲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 時期에는 佛敎와 儒敎의 思想的 對立 및 이의 調和내지 극복이 가장 큰 課題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時代의 敎育의 特質을 制約하였다.[13]

高麗는 新羅의 文化를 계승하였고 思想面에서도 郎·佛·儉 三家가 아무 對立이나 葛藤 없이 高麗社會를 支配하였다.

佛敎가 花郎道와 타협하였기 때문에 은연중에 郎·佛 對 儒敎의 양상을 나타내기 始作한 것은 妙靑의 亂이 고비를 이룬다. 기실 妙靑의 亂을 郎·佛思想을 대표한 妙靑과 儒敎思想을 대표한 金富軾의 戰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高麗思想의 두 줄기는 佛敎思想과 儒敎思想이며 여기에 佛敎와 접맥된 花郎道精神이다. 妙靑의 亂 이후에 점차 儒敎의 세력이 확장되었고 儒敎思想은 敎育의 中心 思想이 되었으며 敎育制度를 中國式으로 하게 되었다.

3. 廣州의 敎育機關

당시 廣州에는 公敎育機關인 鄕校가 廣州郡 東部邑에 設立되어 있었다. 廣州鄕校는 高麗時代에 設立되었으리라고 추측되나 정확한 設立年代는 알 수 없고 廣州地方의 中等敎育을 擔當하였다.

廣州鄕校에서는 敎育機能 외에 文廟를 設置하고 中國의 5聖2賢과 우리나라의 18賢을 배향하고 春秋로 제향을 올리며 매월 초하루 보름에 분향 헌작하여 聖賢들의 위덕을 추모하였다.

廣州鄕校에 入學하는 學生은 文武官 8品 이상의 子와 庶人들의 子弟들이었으며 入學定員은 알 수가 없고 敎育課程 역시 記錄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私學機關으로서의 書堂에 관한 기록은 高麗圖經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바 仁宗 1年(1123)이 宋의 使臣으로 고려에 왔던 徐兢이 다음 해에 써 낸 記事에서 '마을의 人家가 많은 곳에는 두서너 개의 經館과 書社가 서로 바라보이게 서 있으며 民間의 未婚 子弟로 무리를 모아 선생에게서 經書를 배운다.

그리고 좀 成長하면 類 대로 벗을 택하여 寺(佛敎)나 觀(道敎)에 가서 講習하고 아래로 卒伍童稚도 역시 鄕先生에게서 배우니 참으로 훌륭하고 盛大하도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書堂의 數가 地方 곳곳에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廣州地域에도 몇 개의 經館이나 書社가 部落의 自治的인 運營에 의해 이끌어져 감으로써 初等敎育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

13) 康吉秀, 韓基彦,《韓國敎育史》(서울 : 韓國放送通信隊 出版社, 1983). p.42.

第 三 節 朝鮮時代의 廣州教育

1. 朝鮮時代 教育의 性格

朝鮮時代의 教育을 특징지우는 것으로는 儒教的인 兩班官僚體制 아래서의 學問을 위한 教育이라는 점과 科擧試驗의 準備를 위한 教育이라는 점이다. 科擧의 機能이 人材의 등용에 있었으므로 官吏의 養成과 指導者의 育成이 朝鮮의 教育的 특징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朝鮮의 教育制度가 中國의 制度를 모방한 것으로 教育體制와 內容이 中國的인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 속에 스스로 小中華로 自處했을 만큼 事大主義의 教育을 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의 特徵은 몇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朝鮮時代의 教育發展課程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첫째, 段階가 教育制度의 確立期로 太祖의 開國 이래 成宗期에 이르는 時期이다. 이때는 朝鮮社會의 支配的 秩序가 確立되는 시기로서 政治的으로는 官制가 確立되고 經濟的으로는 土地制度가 確立되었으며 對外的으로는 領土의 境界가 確定되는 時期이다. 文化的으로는 訓民正音이 創制되어 韓國 國語學史의 새로운 地平을 열었으며 教育史的인 側面으로 보면 學校制度가 確立되고 교육철학으로서의 朱子學이 그 哲學的 體系를 完成시킨 時期이다.[14]

둘째, 段階는 教育思想의 發展分裂時期로 燕山朝에서 景宗에 이르는 時機를 말한다. 이 時期는 政治的으로는 士禍와 黨爭의 시기이며 權力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對外的으로는 倭, 淸의 浸入에 의한 壬辰倭亂, 丙子胡亂등의 民族的 受難을 맞이한 時期이다.[15]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國初 이래 確立된 田制가 紊亂하게 되는 때이며 이에 따라 社會的인 부패와 혼란이 격증되는 때이기도 하다. 教育史的인 側面에서 볼때는 國立教育技關인 成均館에서 教育을 받은 傳統的인 貴族과 士林에서 學問的인 體系를 形成한 新進 士類와의 사이에 思想的 對立을 보이게 되는 한편 儒學者들 사이의 활발한 硏究風土 조성으로 花潭, 退溪, 栗谷등과 같은 大學者가 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哲學思想의 集大成은 學派 상호간의 思想的 분열을 가져 왔으며 結果的으로 교육철학에 있어서의 朱子學의 解析에 따른 계보의 형성을 가져오게 했다.

세째, 段階는 英祖에서부터 高宗13年에 이르는 時期로 정치적으로는 英祖의 탕평책에 의한 정치질서의 再確立이 보이고 西色黨派가 再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勢道政治가 출현하는 등 복잡한 政治形態를 피게 되는 時期이며 對外的인 面에서는 淸에 對한 적개심이 이미 事大的 친선관계로 바뀌게 된다. 教育史的인 側面에서는 學校教育의 재정비가 시작되어 成均館 學堂 등의 定員과 그 職制에 많은 變動을 보이게 되고 또 教育哲學으로서의 朱子學의 독선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 이른바 實學思想이 나타나는 한편 西洋의 天主教가 들어와 朝鮮의 朱子學的 社會에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14) 韓國靑年文化硏究所, 「韓國教育2000년史」 (서울, 民友出版社, 1981), p. 127

15) 唐吉秀 外, 前揭書, p.72.

네째, 段階는 教育思想에 對한 反省과 近代學校教育 탄생기로 日本과의 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된 高宗 13年부터 韓日合併에 이르는 時期이다. 이 時期는 政治的으로 西洋列強과 交流가 시작되어 문호가 개방되고 日本의 식민지로 몰락해가는 時期이기도 하다. 따라서 國內政治동향은 朝鮮 在來의 주子學的 政治傳統에 대한 회의와 西洋의 정치이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西洋列強의 朝鮮에 대한 植民地化 정책은 朝鮮人의 民族的 감정을 불러 일으켜 東學革命과 같은 民族革命運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教育史的인 側面에서는 傳統教育哲學이었던 朱子學이 크게 퇴색하면서 西洋의 학교제도를 모방한 새로운 학교교육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서양교육사상에 의한 自主的 국가, 市民을 育成하려는 私學의 活動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 朝鮮時代의 教育制度

朝鮮朝의 教育制度의 근간은 成均館, 西部學堂, 鄕校 등의 官學과 書院, 書堂등의 私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成均館의 명칭은 國學, 太學, 國子監, 洋官, 賢關 등으로 時代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으니 高句麗와 新羅에서는 國學이라고 칭하였다가 新羅 景德王 6年에 太學監이라 하였고 高麗에서 처음에는 國子監이라 하다가 成均館으로 고쳐 불렀으며 이를 다시 成均館으로 칭하여 朝鮮朝에 이르게 되었다.

西部學堂은 太宗 11年에 세운 南部學堂이 始初이며 곧이어 中部, 西部, 東部등의 設置가 이루어져 이를 西部學堂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또는 西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鄕校는 高麗 때부터 보급되었던 것으로 太祖가 즉위하면서 改善強化 하였다. 그는 各道 監使에게 명하여 鄕校의 興廢로 守令의 治績을 考査하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鄕校는 南으로는 濟州로부터 北으로는 甲山에 이르기까지 學生을 모아 經書를 가르쳐 府, 州, 郡, 縣에 鄕校가 隆盛하게 되었다.[16]

이와 같은 朝鮮朝의 教育制度를 中央과 地方으로 나누어 體系的으로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의 教育制度

《表 1》

- 中央
  - 儒學
    - 成均館
    - 五部學堂(後에 西部學堂)
    - 宗學
  - 雜學 — 十學[17]
- 地方
  - 儒學
    - 鄕校
    - 書堂
  - 雜學 — 譯學, 기타 雜學

16) 康吉秀, 韓基彦, 前揭書, pp.103－104.

17) 儒學, 字學, 史學, 譯學, 陰陽風水學, 律學, 醫學, 書學, 道學

1) 成均館의 教育體制

(1) 學舍의 構造

ㄱ. 文廟 : 大聖殿과 東西兩廡로 되어 있으며 大聖殿에는 孔子와 諸賢을 모시고 있다.

ㄴ. 明倫堂 : 文廟의 뒤에 있으며 北側 中央에 本堂이 자리 잡고 左右로 東齊와 西齊가 있어 이곳에 儒學生이 居處하였다. 本堂에서는 儒學生이 學講하는 곳이다.

ㄷ. 尊經閣 : 明倫堂 北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孔叔梁紇(孔子의 父), 顔無(顔回의 父), 曾點(曾參의 父), 孔鯉(孔仍의 父), 孟激(孟軻의 父)를 享祠하는 곳이다.

ㄹ. 丕闡堂 : 明倫堂 西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佛教를 금하는 방침으로 세운 것이다.

ㅂ. 六一閣 : 明倫堂에서 떨어진 北쪽에 세워져 있으며 大射禮를 행할 대 쓰는 건물이니 射가 六藝의 一이라하여 六一閣이라 한 것이다.

이밖에도 一兩齊와 闢入齊, 正錄廳, 書吏廳, 京仁廳, 典祀廳, 守僕廳, 香廳, 樂生廳, 祭器廳, 遮帳庫, 直房, 食堂, 西壁庫, 門庫, 東西月廊 등의 건물이 부속되어 있다.

(2) 成均館의 職制

成均館의 職制는 太祖元年, 太祖 7年, 經國大典의 職制가 조금씩 다르게 변천되었고 高宗의 甲午年 職制가 다르나 그 줄기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表 2》 太祖 7年의 成均館 職制[18]

知 事	同知事	大司成	祭 酒	司 芸	直 講	典 籍	博 士	學 正	學 錄	學 諭	備 考
正二品	從二品	正二品	從三品	正四品	正五品	正六品	正七品	正八品	正九品	從九品	
1	2	1	2	3	4	13	3	3	3	3	

(3) 入學資格

成均館의 入學資格은 經國大典에 비교적 엄격하게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運營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經國大典을 바탕으로 한 入學資格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生員과 進士, 둘째, 生員과 進士가 不足할 때 年齡 15才 이상의 西部學堂 학생으로 小學과 四書一經에 통하는 者나 일찌기 文科나 生員, 進士 또는 鄕·漢城試에 合格한 者, 朝士로서 學問을 닦기를 원하는 者, 蔭嫡子로서 小學에 통하는 者, 京, 鄕, 幼學優秀者.

이밖에도 宗親의 入學이 허용되고 있어 世宗 12年 晋平大君 瑈와 安平大君 구가 成均館에 入學한 이후로 많은 宗親들이 成均館에서 修學하게 되었다.

(4) 修業年限

授業年限에 대한 기록은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으나 4年 6個月에서 8年까지의 期間으로 보여지며 이 기간도 퍽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다.

18) 太祖實錄 권214, 7年 戊寅篇

일반적으로 學을 마치는 데는 보통 8年의 교육년한이 설정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이는 太宗 10年 司諫院 左司諫大夫 柳伯淳의 上疏에서 '武藝는 1, 2年의 學으로 科擧에 합격되면 八品의 官職을 받는 데 비해 文人들은 成均館에서 8年의 學을 닦고도 또 藝文館에서 4年동안 在職한 후에야 六品을 받고 있는 모순[19]을 말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5) 定員

國初에는 100名으로 되어 있던 學生定員을 世宗 11年에 200名으로 늘렸다.

經國大典에 보면 200名으로 되어 있으나 國家政策에 따라 가변성 있게 운용되었다.

(6) 教育課程

成均館의 教育課程은 九齊之法[20]에 大學, 論語, 孟子, 中庸, 書, 詩, 春秋, 禮記, 易등을 位階的으로 배열하여 大學에서 周易에 이르게 하고 있다.

(7) 財政

成均館의 財政은 養賢庫를 운영하여 해결함으로써 國初부터 學校 교육재원의 確保에 깊은 관심을 기울렸다.

養賢庫에 贍學田으로 밭 1,035結이 주어진 후에도 世宗 13年에 田 965結을 더 할애했으며 世宗 元年에는 奴婢 100口를 내려 成均館의 勞役을 담당케 했다. 이처럼 朝鮮朝의 教育財政은 견실하여 人材를 育成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2) 西部學堂의 教育體制

(1) 學堂의 設立

西部學堂은 高麗末의 教育制度가 그대로 답습된 것이다. 이 學堂은 定宗2年에 寺僧과의 對立[21]으로 破했다가 太宗代에 이르러 부활이 되었고 世宗代에 와서 體制가 完備되었다.

太宗 11年에 誠明坊에 南部學堂을 세웠고 世宗 6年에 西部學堂을 세웠으며, 世宗 21年에 東部學堂을 세웠다.

北部學堂은 他 學堂의 건물을 빌어 쓰다가 폐지되었으며 北部 觀光坊에 中部學堂을 세워서 운영했다.

(2) 西部學堂의 職制

職制로서는 教授 2名과 訓導 2名을 두었으며 이들은 대개 成均館의 官員이었다. 그러나 太宗 11年과 世祖 9年에 教官 專任制의 實施르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教授專任을 위한 노력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成宗8年에 30個月 觀續法이 제정되었고 世宗6年에 教官의 輪番直宿의 專任制를 위한 法이 제정되었으나 끝내 實効를 거두지 못했다.

(3) 入學資格

西部學堂의 入學資格은 兩班子弟로서 10才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15才에 이르러 學問이 우수하면 成均館에 入學하는 특전이 주어졌다.

---

19) 韓國青年文化研究所, 前揭書, p.132

20) 世祖 10年에 만들어진 成均館의 學規에 따른 교육과정

21) 이때의 學堂은 독립된 校舍가 없이 절(寺)을 빌어 수학했음

學生의 定員의 각각 100名이었다.

(4) 教育 課程

成均館의 教育課程 운영에 준하여 1日부터 15日까지 詩文을 짓고 16日부터 30日까지는 經書, 諸史를 강독하게 하였으며 學科成績이 우수한 者는 生員이나 進士의 覆試에 응할 수 있게 했다.

3) 宗學의 教育體制

宗學은 王室의 子弟들의 教育을 위하여 設立된 것이다.

世宗 10年에 처음 設立하여 大君 이하의 宗親子弟들을 就學시켰으며 學堂은 최초에는 宗親博士 4名을 두어 教授케 했다가 후에 6名으로 늘렸고, 三品이하 六品 이상의 東西班을 경직케 했다. 후에 世祖 13年 博士의 겸직을 금하여 새로 正寺品의 道善 1名과 從五品의 典訓 1名, 正六品의 司誨 2名을 두게 되었다.[22]

宗學의 入學資格은 15才이상의 宗親子弟였으며 定員은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 成宗 9年에 150여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教育課程은 成均館과 같이 經術과 文藝를 주로 했으며 小學도 중요한 科目으로 취급했다.

4) 鄕校의 教育體制

成均館 教育이나 西部學堂의 教育이나 宗學의 教育은 廣州地域의 教育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으나 公教育으로서의 鄕校의 教育은 廣州 教育과 관련을 갖게 되므로 詳述할 必要가 있다.

(1) 鄕校의 設立

鄕校는 地方의 公教育機關으로 高麗 때부터 設立이 되어왔으나 朝鮮朝에 이르러 全國의 行政 單位에 따라 鄕校가 세워져 地方의 교육을 부흥시켰다. 이는 地方教育에 대한 國家的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太宗代에 이르러 鄕校教育은 全國的으로 확장되게 된다.

世宗實錄에 의하면 鄕校의 設立은 戶口 五百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行政官廳이 있는 곳에서는 戶口 500 未滿일지라도 鄕校를 세워 學官을 파견할 것을 規定하고 있었다.

(2) 鄕校의 職制

經國大典에 나타나 있는 京畿道의 鄕校數는 37校, 教授는 11名, 訓導數는 26名이었다.

學官의 資格은 生進科에 合格한 生員이나 進士 또는 文科合格者로 定하고 있었으나 점차 文科合格者 등이 官吏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鄕校의 教授가 되기를 기피하여 質的인 저하를 가져와 나중에는 生員進士級 幼學에게 맡기게 되었다.

(3) 教育課程

鄕校의 교육과정은 成均館과 같아서 小學, 四書五經 등을 위주로 하여 近思錄 諸吏, 三綱行實 등이 쓰여졌다.

---

22) 韓國青年文化研究所 前葛書, p.136.

鄕校에서 修學한 者 중에서 우등생을 선발하여 생원 進士의 覆試에 응할 수 있는 特典을 부여했다.

生員 進士가 되면 成均館에 가서 文科試에 응하여 高級官吏가 되는 資格을 얻게 되었다.[23] 이로 인해서 中期 이후의 鄕校는 오로지 科擧 준비장이 되었다.

(4) 學生定員

學生 定員은 府牧의 鄕校는 90名, 都護府의 鄕校는 70名, 郡의 鄕校는 50名, 縣의 鄕校는 30名으로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다. 도리어 例外로 16才 이하의 子弟들이 入學할 수 있었으나 이는 定員으로 管理하지 않았다.

(5) 入學資格

入學資格은 兩班의 子弟 또는 鄕吏로서 年齡 16才 이상으로 하였으며 庶民의 子弟에게는 原則的으로 入學의 길이 막혀 있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社會的 분위기로 보아 庶民의 子弟가 쉽게 入學하여 修學할 수 있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庶民의 入學規制는 오랜 동안의 관습에 의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6) 鄕校의 財政

國初부터 太祖는 鄕校 운영 財源에 관심을 보여 田 15結을 내리어 그것을 財源으로 鄕校 운영을 하게 했으며 그후 太宗 10年에 다시 15結을 더 내려 30結을 支給하도록 했다.

太宗 17年에는 奴婢를 支給하였는 바 이들의 鄕校의 一般雜役을 담당하였다.

ㅅ. 京畿道의 鄕校

朝鮮時代의 鄕校의 수는 時代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므로 기록에 따라 확실하게 남아 있지 못하나 1918年의 調査에 의하면 그때까지 全國에 남아 있는 鄕校의 수가 335校였으며 그 중에서 本道의 鄕校數는 《表 3》와 같다.

5) 雜科의 敎育體制

太祖는 儒學 以外의 일반 技術學問에도 관심을 가져 元年에 成均館 職制를 개편하면서 典醫監에 博士 8名, 助敎 2名과 律學博士 2名과 算學博士 2名을 두었다. 그후 漢陽으로 천도한 후인 太祖 2年에 兵學, 律學, 字學, 譯學, 醫學, 算學등 六學을 設置하였다.

그후 6年에 儒學, 史學, 蔭陽風水學, 藥學등 4個 部門의 學問分野를 추가하여 十學으로 雜科敎育에 體制를 完成하였다.[24]

이 十科에 대한 敎育課程의 확립은 世宗 12年에 이루어졌으며 世宗에 이르러 十學에서 七學[25]으로 雜學의 학문범위가 축소되었다.

---

23) 京畿道 敎育委員會, 前揭書, p.110

24) 上揭書. p.141

25) 天文學, 風水學, 律學, 醫學, 陰陽學, 史學, 詩學으로 雜學의 학문범위가 축소되었다.

《表 3》 京畿道內 鄕校 現況

1918年 현재

鄕校名	所在地	鄕校名	所在地
1. 水原 鄕校	水原市 校洞	21. 交河 鄕校	坡州郡 交河面
2. 南陽 鄕校	華城郡 南洋面	22. 陽川 鄕校	金浦郡 陽川面
3. 振威 鄕校	平澤郡 振威面	23. 金浦 鄕校	金浦郡 金浦面
4. 平澤 鄕校	平澤郡 彭城面	24. 通津 鄕校	金浦郡 陽村面
5. 安城 鄕校	安城郡 安城邑	25. 富平 鄕校	仁川市 富平洞
6. 陽城 鄕校	安城郡 陽性面	26. 果川 鄕校	始興郡 果川面
7. 竹山 鄕校	安城郡 一竹面	27. 安山 鄕校	始興郡 秀岩面
8. 龍仁 鄕校	龍仁郡 駒城面	28. 仁川 鄕校	仁川市 文鶴洞
9. 陽知 鄕校	龍仁郡 內四面	29. 江華 鄕校	江華郡 江華面
10. 利川 鄕校	利川郡 利川邑	30. 喬桐 鄕校	江華郡 橋桐面
11. 羅州 鄕校	驪州郡 驪州邑	31. 漣川 鄕校	漣川郡 漣川面
12. 廣州 鄕校	廣州郡 東部邑	32. 長湍 鄕校	長湍郡 郡內面
13. 陽根 鄕校	楊平郡 玉泉面	33. 開城 鄕校	開城市 雲鶴洞
14. 砥平 鄕校	楊平郡 砥平面	34. 豊德 鄕校	開豊郡 光德面
15. 楊州 鄕校	楊平郡 州內面	35. 麻田 鄕校	漣川郡 嵋山面
16. 抱川 鄕校	抱川郡 抱川面	36. 朔寧 鄕校	漣川郡 朔寧面
17. 永平 鄕校	抱川郡 永平面	37. 延安 鄕校	延白郡 延安邑
18. 加平 鄕校	加平郡 加平面	38. 白川 鄕校	延白郡 白川面
19. 高陽 鄕校	高陽郡 碧蹄面	39. 甕津 鄕校	甕津郡 甕津面
20. 坡州 鄕校	坡州郡 州內面		

十學의 目的과 學習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儒學 : 禮曹에서 담당하여 下級官吏 양성을 目的으로 四書五經, 通鑑, 大學衍義, 楚辭, 韓柳之文 등을 학습하였다.

(2) 字學 : 校書館에서 담당하여 文書整理 校正등을 맡아보는 下級官吏의 양성을 目的으로 敎育內容은 說林, 字林, 篆字, 不經三體 圖書 등을 學習시켰다.

(3) 武學 : 兵曹에서 담당하여 武人官僚群을 양성할 目的으로 武經七書, 陳圖, 將鑑博議 등의 科目을 學習하였다.

(4) 吏學, : 承女院에서 담당하여 교린무서를 취급하는 下級官吏를 양성시켰다.

(5) 譯學 : 司譯院이 담당하여 通譯官을 양성할 目的으로 漢學, 蒙學, 女眞學, 倭學을 學習케 했다.

(6) 蔭陽風水學 : 觀象監에서 담당하여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 등을 가르쳤다.

(7) 算學 : 戶曹에서 錢穀會計를 담당할 官吏를 養育할 目的으로 교육과정은 詳明算, 啓蒙算, 揭輝算, 地算 등을 中心으로 學習케 했다.

(8) 藥學 : 掌樂院에서 담당하여 登歌雅章과 文武之舞를 專掌할 樂工을 目的으로 雅樂, 琴瑟編, 鍾編 등을 學習케 했다.

(9) 律學 : 國家行政의 實施를 위한 執行과 一般行政訴訟을 담당할 官吏를 養成할 目的으로 刑曹에서 담당하여 교육했다.

(10) 醫學 : 典醫監과 惠民署에서 담당하여 國民保健을 맡을 사람을 모아 의학을 學習케 했다.

(11) 書學 : 圖書署에서 담당하여 書工을 양성할 목적으로 定員 15名을 教育했다.

6) 書院의 教育體制

書院은 中宗 36年(1541)에 시작된 私學教育機關이다.

풍기군수 周世鵬이 麗末의 儒教者 安珦을 위하여 慶尙道 順興縣 白雲洞에 白雲洞書院을 세워 그 地方의 青少年을 교육함과 아울러 先賢을 奉祀한 것이 始初이다.

이 白雲洞書院은 明宗 5年(1550)에 〈紹修書院〉이라 賜額받고 四書五經 性理大典등을 王으로부터 하사받았다.

書院의 構造는 鄕校와 유사했으며 축소된 鄕校라고 보면 옳다. 書院은 名儒 功臣을 祭享하는 私設教育機關으로 青年 子弟를 모아 學問과 德行을 닦고 鄕黨의 文化와 儒學을 發展시킨 修道場으로서의 鄕校의 機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書院은 또 自身의 社會的 地位와 세력을 유지하려는 수단과 파당을 형성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 道에 수십개의 書院이 서게 되었고 正祖때에는 전국에 650여개의 書院이 서게 되었다.

書院이 이처럼 본래의 設立 취지에서 벗어나 파당적 당쟁의 진원지가 되어 국가의 기강을 흐리게 하자 大院君이 書院을 폐쇄하게 되었다.

3. 朝鮮時代의 教育思想과 廣州教育

朝鮮時代의 教育思想의 主流는 儒教思想이었으며 이러한 思想은 廣州地域의 鄕校와 書院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儒林을 움직였다고 보여진다.

朝鮮朝의 教育思想의 時代的인 흐름을 보면 前期인 成宗 때까지는 高麗末 儒教의 學問的 傾向인, 實際的인 政治, 經濟, 法律과 文章을 學習의 對象으로 하는 漢唐流의 學風을 따르고 있었다.

朝鮮中期에는 儒學의 學風이 철저한 性理學 中心으로 發展하였으며 教育에 있어서도 修身을 強調하는 觀念的 詞章中心의 爲人, 人倫, 淸廉節義한 教育을 重視하였다.[26]

朝鮮後期에 이르러서는 英·正祖 時代에 淸國에서 考證學이 傳해지면서 종래의 고질적인 타성이 變革될 계기를 맞게 된다.

柳馨遠, 李瀷, 丁若鏞 등의 實學派 學者들은 먼저 쇠퇴한 國家와 社會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져 있는 百姓을 救해 보려는 뜻해서 當代의 政治, 經濟, 社會, 制度 등에 대한 體系的인 政

26) 京畿道教育委員會, 前揭書, p.122.

革案을 마련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開化期에 접어들면서 西洋의 文物을 받아드리게 된다.

이상의 흐름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斥不崇儒의 思想과 性理學의 추구, 그리고 實學의 實踐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斥佛崇儒의 思想은 朝鮮朝의 建國初에 混迷를 거듭한 社會를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民衆을 이끌고 民心을 수습하기 위해 채택한 思想으로 忠孝를 道德의 根本으로 하고 三綱五倫을 實踐德目으로 하여 上下의 階級과 秩序를 尊重하며 文敎를 높이려는 意圖에서 채택한 것임으로 統治理念과도 무관하지 않다.

性理學의 추구는 朝鮮中期에 있었던 思想的 흐름으로 國初의 敎育思想의 한흐름이었던 漢·唐流의 儒學에 반발하여 나타난 思想으로 存養과 窮理를 目標로 하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存養이란 항상 選良한 마음을 가지고 天賦의 本性을 기른다는 뜻이고 窮理란 知識을 確實하게 한다는 意味를 가진다. 性理學者들은 이것으로 宙宇의 根本原理를 探究하여 天과 人의 關係를 간파하고 人生 當爲의 本務를 發見하고자 했던 것이다.

實學思想은 朝鮮朝 後期의 英·正祖 時代에 敎育思想의 主流를 이루었던 것으로 西區의 文物과 思想, 그리고 柳馨遠의 史實求是의 學問이 李瀷과 丁若鏞에 이르러 體系的으로 集大成된 學問이며 思想이다. 그러므로 實學은 性理學에 대한 반발이며 歷史에 대한 反省이라고 보아야 한다.

實學思想이 추구했던 敎育的인 人間像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務實力行하고 誠實한 人間이며 勞作을 통하여 學問과 技術을 습득하는 勤勞的인 人間이며 實質을 崇尙하는 有用한 人間이고 見主人이며 民主主義를 實踐하는 民主人이였다.

4. 廣州의 敎育思想家

廣州의 敎育思想家로는 李瀷을 들 수 있다. 先生의 字는 子新이요 號는 星湖이다. 肅宗 8年 大司憲 李夏鎭의 아들로 태어났다. 本末는 驪州 사람으로 廣州 瞻星里에서 살았으며 實學의 始祖인 柳馨遠의 學風을 繼承發展시킨 實學의 大家로 廣州의 자랑이다.

그는 일찌기 西區의 學問을 즐겨 天主實學, 天宙敎理, 등 西洋의 宗敎 天文地理 律算 등을 배웠다.

1764年에 增廣科에 合格하였으나 兄 利贊이 黨爭에 의해서 희생되가 벼슬에 뜻을 버리고 오로지 求道와 學問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自修力踐에 힘썼으며 엄하게 自己를 律하였고 남과 접함에 있어 禮가 있었다. 그리하여 士林이 모여 그를 推重하고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그를 따르는 선비가 많았다.

1772年 英祖 3年에 朝廷이 그의 이름을 듣고 繕工假監役에 任命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으며 1763年에는 僉知中樞府事가 제수되었으나 그해에 유명을 달리했다.

高宗 때 이르러 그의 學德과 業績이 높이 評價되어 正鄕을 超授하였고 吏曹判書를 下賜하였다.

李瀷은 西區의 學問을 受容하는 한편 明·淸時代의 새로운 考證學風을 받아들여 朱子學의 觀念的인 知識을 버리고 實證的인 科學의 世界로 들어갔다. 그는 惟氣論을 主張하여 物質不滅을 믿었으며 實踐을 重視하였고 教育의 目的이 個人의 以上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教育方法에서 日新全攻과 求新好奇를 強調하고 書牘質疑 敬玩書籍을 主張하였다.[27]

教育의 實際에 있어서 李瀷의 思想은 家庭教育을 重要하게 여겼으며 實用性없는 學問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祠道의 존경을 부르짖었고 儒門의 禁錮를 責하였으며 科擧의 廢害를 지적함과 동시에 兩班爲主의 人材養成에 반기를 들었다.

그가 주창한 教育耐用은 孝經, 論語, 孟子, 易, 詩, 書, 禮記, 周禮, 春秋, 註說, 諸史, 程朱文學, 退溪集, 韓國史 등이다.

이렇게 볼 때 李瀷은 進步的 思想의 所有者이며 教育改革精神을 지닌 實學者이다. 이러한 위대한 實學者를 廣州에서 배출하였다는 것은 都民 모두의 榮光이자 자랑이기도 하다.

5. 朝鮮時代의 教育法規

朝鮮時代의 教育을 위한 法規와 法令으로는 「學齡」, 「勸學事目」, 「九文學規」, 「進學節目」 「京外學校節目」 「學校規範」 「學校節目」 「制講節目」 「圓點節目」 등이 制定되어 있었다.

(1) 勸學事目

權近이 1407年(太宗 7年)에 지어 올린 것으로 全文이 8條로 되어 있다.

(2) 九齊學規

禮曹에서 1463年 (世祖 9年)에 製進한 것으로 四書五經을 아홉단계로 나누어 大學에서부터 周易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學習하게 했다.

(3) 進學節目

禮曹에서 1470年 (成宗元年)에 지은 것으로 教師의 就任·轉職과 學生의 勤勉, 결석에 대한 補充規制였다. 즉 儒生이 父母의 老病을 핑계로 登校치 아니하고 休暇를 받아 館試에 응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規制하려는 法規이다.

(4) 京外學校節目

禮曹에서 1546年(明宗 元年)에 制定 領布한 것으로 서울과 地方의 모든 學校에 適用시킨 學規였다. 成均館과 四學의 教授 任命에 있어서는 文官으로서 學行이 祠表될 만한 者와 經學에 정통한 者를 각별히 선택하게 하였으며, 居館한 生員, 進士 및 四學儒生들의 讀書要領과 기한을 定하고 있었다. 成績考査와 資格수여에 있어서는 매달 초순에 禮曹와 成均館 堂上이 合同하여 考講토록 하였고 評點은 通·略·祖·不의 四段階로 하였다.

6. 廣州의 教育機關

廣州는 政治的 비중으로 보나 歷史的 비중으로 보나 상당한 教育機關이 設置되어 있어야

27) 京畿道教育委員會, 上啓書, p. 131.

마땅한 地域이다. 朝鮮朝의 教育制度에 따라 廣州에 設置된 公教育機關은 廣州鄕校가 있었으며 私教育機關으로는 書院과 書堂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우수한 儒生들은 과거에 응시하였다.

道觀察使가 道內 校生을 골라 매년 6月에 都會所를 設置하고 文官 3名을 보내어 講論과 製述로 시험을 실시하여 3名씩의 生員과 覆詩에 응할 자격을 주는데 이때 廣州의 儒生도 매년 응시하였나 年度別 應試者 名單이 남아 있지 않다.

1) 廣州 鄕校

○ 廣州郡 東部面 교산리 289번지 소재

본재 古邑 서쪽 8㎞쯤 되는 곳에 있었는데 肅宗癸未年 (1703)에 府尹 李濟가 古邑으로 옮겨 세웠으며 大成殿 東西廡 典祀序祭器庫 明倫堂 東京齊 內外神門이 있다.

大成殿 正位는 大成至聖文文王(孔子)을 가운데 南向하여 모셨다. 그리고 東廡에 弘德候薛廳 文成公 안향, 文敬公 金宏弼, 文正公 趙光祖, 文純公 李滉, 文簡公 成渾文正公 宋時烈, 文純公, 朴世采 등을 모시었고 西廡에는 文昌候 崔致遠, 文忠公 鄭夢周,文獻公 鄭汝昌, 文元公 李彦迪, 文成公, 李珥, 文元公 金長生, 文正公 宋浚吉, 등을 모시고 있다.

廣州鄕校는 高麗朝 以後 地方官學으로서 이곳을 통해 수많은 人材를 養成하기도 했다.

2) 書院

(1) 龜巖書院

龜巖書院은 1667年(顯宗 8年)에 設立되었으며 賜額年代는 1697年(肅宗 23年)이었다. 主詞는 高麗 判典校寺事 李集, 刑曹左參議 李養中, 李朝承旨 贈 吏曹判書 鄭誠謹, 右彦贊 贈 右議政 文肅公 鄭嶸, 領議政 忠貞政 吳允謙, 修撰 贈副提學 任叔英 등이다.

(2) 秀谷書院

秀谷書院은 1715年(肅宗 41年)에 設立되었으며 賜額年代는 1719年(肅宗 45年)이었다. 主詞는 工曹正郎 贈執義李義健 進善 贈 吏曹參判 趙今, 右議政 忠貞公 李厚源 등이다.

(3) 顯節詞

顯節詞는 1688年(肅宗 14年)에 設立되었으며 賜額年代는 1693年(肅宗19年)이었다. 主詞는 左議政 贈 領議政 文正公 金尙憲, 吏曹參判 贈 領議政 文簡公 鄭蘊, 掌令 贈 領議政 忠正公 洪翼漢, 校理 贈 領議政 忠烈公 吳達濟 등이다.

위와같은 書院은 儒生들이 學問을 硏究하고 先賢을 祭祀하는 곳으로 한 때는 公教育 機關인 鄕校의 教育을 능가하기도 했었으나 黨爭과 軍役 기피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3) 書堂[28]

私學의 初級 教育機關으로 볼 수 있는 書堂은 廣州地域에도 여러 곳에서 運營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 확실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다.

書堂은 朝鮮 中期 이후의 童蒙教育의 代名詞라고 해도 좋다.

---

28) 水原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p.1296~1297.

書堂은 운영의 分類에 따라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첫째, 訓長 자신이 자기의 生計를 위하여 또는 취미로 經營하는 訓長自營書堂과,

둘째, 마을의 부유한 有志가 書堂을 세워 자기의 子弟를 敎育함과 동시에 親知의 子弟를 수용하기도 한 有志獨營書堂,

세째, 洞理의 有志 몇 사람이 組合하여 訓長을 초빙하고 교실을 마련하여 그들의 子弟를 敎育했던 有志組合書堂,

네째, 마을 전체가 한 組合을 이루어 書堂을 설치하고 訓長을 초빙하여 마을의 學童을 敎育한 村組合書堂이 있었으나 廣州地域에는 이 모든 類型의 書堂이 함께 운영되었으리라고 본다.

어떤 流刑의 書堂이던지 교육과정은 유사했으니 처음에 千字文으로부터 시작하여 童蒙先習, 通鑑, 小學, 四學, 三經, 史記, 唐律로 격이 높아졌고 訓長의 질에 따라 5·7言絶句, 四律, 古風十八詩등의 作文이 부과되었고 楷書, 草書 등의 習字도 重要한 敎育課程이 되고 있었다.

敎育方法은 한 교실에 敎育程度가 각기 다른 여러 學童들을 수용하여 個別 敎育法에 의해 學習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現代的인 교육방법에 비추어보아도 아주 理想的인 교육방법에 비추어보아도 아주 理想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學童은 자신의 能力에 따라 學習의 진행 속도가 결정되었으며 敎師와 일대일의 人格的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學習方法은 주로 소리를 내어 암송하다 혹 의문이 있으면 訓長에게 指導를 받았다. 또 季節에 따르는 學科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여름철의 더울 때에는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硬文學科를 피하고 學習에 흥미를 중시한 詩와 律을 읽고 짓는 것으로 日課를 짰으며 春秋에는 史記나 古典 같은 文章을 읽으며冬節에는 經書를 읽게 하였다.

여가를 잘 이용하게 하여 春秋 야간은 비교적 밤이 짧기 때문에 야독이 없고 이 시간을 이용하여 四律을 짓게 하였으며 낮에는 讀書가 끝난 후 짧은 時間을 이용하여 書道를 익히게 하였으니 오늘날의 特別活動 敎育이나 課外活動에 準하는 교육활동이었다.

書堂의 訓長은 그 資格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며 學識의 標準이 일정치를 않았다. 讀講으로는 經史, 百家에 통하는 實力있는 訓長이 드물었고 註釋과 諺解를 참고로 하여 겨우 經書의 文義나 해독할 정도의 水準이 많았다.[29]

1917年 京畿道의 각 村落에는 2463個所의 書堂이 있었다고 調査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廣州地域에 있었던 書堂은 상당 數에 이른 것으로 추측이 되나 記錄으로 남아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29) 京畿道「京畿道史」제1권. p.770

第四節 大韓帝國의 廣州教育

1. 政治的 變革과 新教育의 胎動

우리나라의 新教育은 우리 스스로 發展시킨 教育思潮가 아니라 外來의 教育思潮에 의해서 始作된 것이다.

新教育이 始作될 무렵인 19世紀 중엽으로부터 말엽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國力은 衰退했으며 社會는 混亂해 있었다. 四色黨爭과 教育政治로 인하여 政府는 權力의 角逐場이 되었고 國權은 王位를 둘러싼 支配階級의 私有物이 되다시피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9世紀는 어찌 보면 격동과 울분과 民族的 自覺의 時期였다.

1876年 丙子修好條約에 의하여 朝鮮에 進出한 日本은 그 後 1884年 甲申政變을 조종하고 1894年 外勢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民族的 覺醒運動인 東學革命을 계기로 淸日戰爭을 일으키더니 甲午改革이라는 美名下에 朝鮮을 그들의 侵略的 野心에 따라 再編成하였다.

다음 해에는 乙未事變을 일으켜 閔妃를 殺害했고 그 후 1904年 露日戰爭에서 승리하자 朝鮮政府로 하여금 強制로 韓日議政書에 署名케 하였으며, 계속하여 韓日協約 등의 과정을 거쳐 1905年에는 乙巳保護條約에 調印케 함으로써 朝鮮強點의 一般階를 成功시켰다.[30]

이것을 계기로 하여 日本의 侵略的 野心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 1907年 日本의 만행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高宗皇帝를 海牙密使事件의 책임을 씌워 退位시키고, 高宗 退位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朝鮮支配를 더욱 명백히 하는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을 강제로 締結케 한후 軍隊를 解散시켜 朝鮮의 司法權과 警察權을 장악하므로써 朝鮮強點의 모든 정지 작업을 끝낸 것이다.[31] 1910年 東洋平和와 安全을 保障한다는 명분 아래 朝鮮의 主權을 빼앗으니 이것이 우리 민족의 치욕의 歷史인 소위 韓日合邦이다.

朝鮮을 強點한 日本은 그들 植民地 政策의 일환으로 朝鮮人의 강한 民族精神을 말살하여 새로운 日本精神에 忠僕할 수 있는 忠良한 日本皇國臣民으로 改造하려는 악랄한 기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외세침략의 와중에서 朝鮮의 新教育은 胎動이 되어 새교육의 大綱領(三條)이 제시되고 教育으로써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教育立國'의 理想과 굳은 決心을 피력한 高宗皇帝의 詔書가 1895年 2月에 반포되었다.

그 詔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내 생각하건대 祖宗께서 業을 시작하시고 統을 다리사 이제 504年을 지내었다. 실로 우리 列朝의 教化와 덕택이 人心에 젖은 것은 또한 우리 臣民이 능히 그 忠愛를 다한 데 있

30) 韓國靑年文化硏究所, 前揭書, pp.281~282.

31) 上揭書, p.282.

다. 이러함으로써 내가 한량없는 大歷眼을 계승하여 밤낮 조심하여 祖宗의 遺訓을 받드노니 너희들 臣民은 나의 마음을 본받을지어다. 오직 너희들 臣民의 祖上은 곧 우리 祖宗이 保育한 어진 신민이다. 나와 너희들 신민의 祖宗의 큰 터를 지켜 억만년 아름다운 命을 맞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國家는 鞏固하기가 심히 어렵다. 宇內의 형세를 보건대 富가 강하며 독립하여 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다 人民의 知識이 開明하였다. 지식의 개념은 교육의 善美로 되었으니 敎育은 실로 국가를 保存하는 데 根本이다. 이러함으로써 내가 郡師의 자리에 있어 교육의 責任을 스스로 메노라 敎育은 또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이름과 實用을 먼저 分別해야 할 것이다. 독서나 습자로 열사람의 찌꺼기가 좁고 時勢大局에 어두운 者는 그 文章이 비록 古令을 능가할지라도 한 쓸데 없는 書生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내가 敎育綱領을 보여 헛이름은 이에 버리고 실용은 이에 쓰게 하노라. 가로되 德養이나 五倫의 行實을 닦아 俗綱을 문란하게 하지 말고 風敎를 扶植하며 人世의 秩序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라. 가로되 體養이니 동작을 떳떳이 하여 부지런과 힘쓰기를 주장하고 게으름과 편안을 탐하지 말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피하지 말며 너희 힘줄을 굳게하고 너희 뼈를 튼튼히 하여 康壯하고 병없는 낙을 누려 받으라. 가로되 知養이니 物을 캐고 知를 끝까지 하여 理를 窮究하고 性을 다하여 좋고 미운 것과 옳고 그른 것과 길고 짧은 데서 나와 남의 구역을 세우지 말고 자세히 연구하고 널리 통하여 한 몸의 私를 꾀하지 말고 公衆의 益을 헤아릴지니다. 가로되 이 세가지는 교육의 綱紀일지나 내내 政府를 命하여 널리 學校를 베풀고 人材를 양성하여 너희들 臣民의 학식으로써 國家中央 大功을 찬성하게 하려 하노니 너희들 臣民의 忠君하고 愛國하는 心性으로 네 德과 네 몸과 네 智를 길러라.

王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國家의 富強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다. 너희들 신민이 善美한 지경에 다다르지 못하면 내가 어찌 나의 다스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어찌 감히 그 책임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너희들 臣이 또한 어찌 감히 교육의 道에 마음을 다하여 協力하였다 할 수 있으랴, 아비는 이것으로써 그 아들을 끌어내고 형은 이것으로써 그 아우를 끌어내고 형은 이것으로써 그 아우를 권면하고 벗은 이것으로써 도웁는 길을 행하며 분발하여 벗지 말라. 국가의 慣을 대적할 이가 오직 너희들 신민이요 국가의 업신여김을 막을 이가 오직 너희들 신민이요. 국가의 정치와 제도를 닦고 지을 이가 또한 오직 너희들 신민이니 이것이 다 너희들 신민의 당연한 직분이다. 학식의 등급으로 功效의 높고 낮음을 아뢰어라. 이러한 일로 上을 위하는 도는 비록 사소한 缺端이 있더라도 너희들 신민은 또한 오직 말하기를 너희들의 교육이 밝지 못한 탓이라고 하며 上下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쓰라. 너희들 신민의 마음이 또한 나의 마음이니 힘쓸지어다. 진실로 이와 같으면 나는 祖宗의 德光을 四表에 날릴 것이요 너희들 신민은 또한 오직 너희들 선조의 어진 자식과 착한 손자일 것이니 힘쓸지어다.[32] 라고 되어 있는 바 敎育이 國家의 責任이며 國家의 富強이 敎育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時期의 東學과 西學은 民家의 意識을 일깨우고 새로운 문물과 學問에 눈뜨게 하는 역할

32) 康吉秀 韓基彦「韓國敎育史」(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 1983). p.p.183~184

을 담당하여 많은 선각자들이 私學을 여는데 촉매의 구실을 하였다.

2. 新敎育의 發端과 廣州敎育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西洋의 文化와 接觸하게 된 것은 16世紀부터이며 이것도 직접교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西區와 교역을 하고 있던 中國을 통해서였다. 그러다가 宣祖 때 天主敎 宣敎師가 우리 나라를 宣敎를 目的으로 찾게 되어 비로소 西區文物과 직접적인 접촉이 시작된 것이다.

天主敎의 뒤를 이어 新敎도 19世紀 중엽을 지나면서부터 들어오기 始作하여 1885年에 長老派와 監理派의 宣敎師가 들어오게 된다.

舊韓末의 近代學校의 出現時期는 이와 같은 宣敎師들의 宣敎 活動과 脈을 함께 하며 門戶가 開校되자 무엇보다도 外國의 文物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건 語學問題였던 것이다. 이 필요에 따라 1883年 묄렌도르프(P.G.Von Mollendolf)와 하리팍스(T.E.Halifax)가 英語學校를 개설했고 1886年에 貴族學校인 育英公院이 설립되어 1894年까지 운영되기도 했다.

1885年에는 스크랜톤(Scranton)에 의해 培材學堂이 문을 열었으며, 언더우드(H.G. Underwood)가 1886年에 儆新學校를 세웠으며 한편 스크랜톤 부인도 최초의 女宣敎師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1886年에 梨花學堂을 세워 女性敎育의 선구자가 되었다.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宣敎를 목적으로 入國한 여러 선교사들이 新敎育을 위한 學校를 設立하여 우리나라의 私學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대부분 仁川을 거쳐 입국하였기 때문에 仁川은 일찌기 新文物에 눈을 뜨게 되었고 宣敎의 기항지가 되어 1890年代에 學校의 設立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永化女學堂이며 永化學校이다.

永化女學堂은 1892年에 존스(Mrs. George Heber Jones)女史에 의해 設立이 되었고 永化學校는 1893年에 존스(G.H.Jones)宣敎師에 의해 세워졌다.

1) 甲午更張과 新學制

19世紀末 우리나라는 舊梏으로부터 벗어나 새時代와 호흡을 맞추면서 國家를 近代化하여야 할 때인데도 爲政者들은 여전히 權力 다툼에 세월을 보내고 自黨의 勢力 進持에 골몰하고 있었다.[33]

이럴 무렵에 政府를 일깨우는 決定的事件이 일었났으니 그것이 곧 東學革命이었다. 政府가 이 東學의 抗爭을 平定한다는 口實로 日本의 힘을 빌어 淸의 勢力을 背景으로 한 保守黨을 뒤엎고 國家를 近代化하려는 勢力으로 나타난 것이 甲午更張이었다.

甲午改革은 1894年(高宗 31年) 6月의 軍國機務處의 活動과 더불어 始作되었으며 在來의 文物制度를 西區의 進步된 法式을 본받아 改革하자는 데 큰 뜻이 있었다. 甲午更張을 통해서 政治, 外交社會, 經濟 전반에 걸쳐 一代改革이 단행되었으니 무려 208件에 달하는 改革措置가 이루어졌다.

---

33) 京畿道敎育委員會, 前揭書. p. 142

그 槪要를 들어보면 政治 外交面에 있어서 전래 淸國 위주의 傳統的 外交政策을 지양하고 獨立國家로서의 개국기원을 사용하며 소위 六曹를 개편하여 內務, 外務, 度支, 軍務, 法務, 工務, 農商務, 등의 八衙門을 設置하고 또 王室業務와 國政事務를 분리하므로써 政治紀綱을 확립하는 등의 改革이 나타나고, 社會 經濟的인 면에 있어서는 양반과 상민 등의 문벌을 타파하여 四民平等의 原則을 確立하고 文武尊卑의 制度를 폐지하며 公私奴婢의 法典을 革罷하고 嫡庶로서의 차별을 없이함으로써 身分秩序를 基盤으로 하는 封建的 잔재를 타파하고 각자의 能力에 의하여 仕路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설정되었으며, 早婚의 폐단을 엄금하고 과부의 再嫁를 허용하는 등 封建的 社會論理에 대한 修正이 나타나며 또 金本位貨幣制度의 設定과 租稅의 金納化, 예산계획과 같은 近代的 經濟體制가 확립되어 갔다.

특히 階級에 打破와 科擧制度의 폐지와 같은 社會論理의 재편성은 새로운 敎育哲學에 의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學校敎育이 이것을 前提로 하여 전개될 수 있는 교육사적 배경을 이루게 된 것이다.

1895年에 발표된 國政改革을 위한 洪範 14條는 다음과 같다.

1. 淸國에 의존을 끊고 自主獨立의 基礎를 確立한다.
2. 王族과 친척을 구별 王의 계승은 王族만 한다.
3. 宗室, 外戚의 內政干涉을 허용하지 않는다.
4. 王室職務와 國政을 분리한다.
5. 政府機構의 職務, 權限을 명백히 규정한다.
6. 納稅를 法制化한다.
7. 度支衙門에서 國家財政을 담당한다.
8. 王室은 模範的으로 경비를 절약한다.
9. 國家 財政은 예산에 의해 집행한다.
10. 地方 管制를 제정하여 地方 官吏의 權限을 제한한다.
11. 우수한 젊은이들을 海外로 유학시킨다.
12.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軍制를 확립한다.
13. 民法, 刑法을 制定하여 國民의 生命 財産을 보장한다.
14. 문벌을 타파하여 널리 人材를 등용한다.

甲午改革은 敎育에도 그대로 反英되어 1894年 6月 六曹를 개편한 八衙門中 學務衙門(後에 學部로 개칭)은 國內의 敎育 學務등을 관장하는 成均館 및 庠校書院事務局, 中學校, 大學校, 技藝學校, 外國語學校 및 專門學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專門學務局, 小學校, 師範學校에는 事務局등을 두고 있었다. 이 機構를 보면 甲午改革의 初부터 近代學校 개설에 대한 國家的인 관심이 컸었음을 알수 있으며 小學校, 中學校, 專門學校, 大學校, 技藝學校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4年 7月에 學務衙門은 告示를 발표하여 國政刷新에 있어 英材敎育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小學校와 師範學校를 세워 從來 敎育에 있어 階級衣食을 佛拭하고 班常의 區別없이 俊聰을 모아 人材를 기를 뜻을 밝히며 장차로는 大學과 專門學校를 개설할 것을 約束하고 있

음을[34] 본다.

新教育을 위한 官制와 制定 公布 年月日은 다음과 같다.[35]

· 漢城師範學校 官制	1895年	4月	16日
· 外國語學校 官制	1895年	5月	10日
· 成均館 官制	1895年	7月	9日
· 小學校 令	1895年	7月	19日
· 漢城師範學校 規則	1895年	7月	23日
· 成均館 經學科 規則	1895年	8月	9日
· 小學校 教則 大綱	1895年	8月	12日
· 補助公立小學校 規則	1896年	2月	20日
· 醫學校 官制	1899年	3月	24日
· 中學校 官制	1899年	4月	4日
· 商工學校 官制	1899年	6月	4日
· 外國語學校 規則	1900年	6月	24日
· 農工學校 官制	1904年	6月	8日

이때에 官制에 의하여 廣州地域에는 小學校가 設立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小學校 令에 따른 目的과 編制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6]

(1) 小學校의 目的

小學校는 兒童 身體의 발달에 鑑하여 國民教育의 基礎와 그 생활상에 필요한 普通知識 및 技能을 줌을 本能으로 한다.(第1條)

(2) 小學校의 種類

小學校는 官立, 公立 및 私立의 3種으로 하고 官立은 國庫, 公立은 府 혹은 郡, 私立은 私人의 부담으로 한다.(第2條, 3條)

(3) 編制와 授業年限

小學校를 나누어 尋常과 高等 두 科로 하고 授業年限은 尋常科와 3年 高等科 2年 또는 3年으로 한다(第6條 7條)

(4) 教科目

尋常科의 教育科目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및 體操로 하되 時宜에 따라 學部大臣의 허가를 얻어 體操를 제하고 韓國地理, 歷史, 圖書, 外國語 1科 혹은 數科를 가할 수 있다. 女兒를 위하여 재봉을 더할 수 있다.

高等科의 教科目은 修身, 讀書, 習字, 韓國地理, 理科, 圖書, 및 體操로 하되 女兒를 위하여 재봉을 더할 수 있다. 時宜에 따라 學部大臣의 허가를 얻어 外國語 1科를 더하고 外局地理, 圖書 1科 혹은 數科를 除할 수 있다.(第8條, 第10條).

---

34)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 163.

35) 京畿道, 前揭書, p. 789

36)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p.165－167.

(5) 教科用 圖書

小學校의 教科用 圖書는 學部에서 편집한 것 혹은 學部大臣의 검정을 거친 것을 써야 한다.(第15條).

(6) 學齡 및 就學

만 8세로부터 만 15세까지의 8개년을 학령으로 하고 각 府, 郡은 그 管內의 학령 아동을 就學시킬 公立小學校를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第16條, 第17條).

(7) 教員의 資格과 任免

小學校 教員른 면허장을 가져야 檢定에 합격함을 요한다. 官立小學校 教員은 學部大臣, 公立小學校 教員은 각기 해당 觀察使가 임용하고 어느 경우나 判任官이 된다(第20條, 第24條).

(8) 施行期日

本令은 개국 504年 8月 1日부터 지방 사정을 감안하여 점차 시행한다[37] (附則 27條)

(9) 經費

官立小學校는 물론 그 經費가 지변되나 公立小學校 經費도 당분간 국고가 지변한다. (附則 28條)

이와 같은 神學制에 의해 京畿道에 設立된 學校는 水原의 京畿觀察府立小學校 (現 新豐國民學校), 華城의 南陽公立小學校(現 南陽國民學校), 江華의 江華公立小學校 (現 江華國民學校), 開城의 豊德公立小學校, 仁川의 富平公立小學校(現 富平 國民學校), 楊州의 楊州公立小學校(現 議政府中央國民學校), 平澤의 振威公立小學校(現 振威國民學校), 始興 安山公立小學校(現 安山國民學校), 金浦 陽川公立小學校(現 서울 陽川國民學校) 등 이었으나 불행하게도 廣州郡에는 小學校의 設立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郡勢가 다른 郡에 비해 약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植民地 教育의 陰謀와 學制 修正

日本은 1904年 8月에 第一次 韓日協約을 강요하여 그 協定에 따라 顧問政治를 始作하였다. 다음 해인 1905年 9月 포스머스 條約에 따라 同年 11月에 己巳條約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를 그들의 保護國으로 만들었다. 己巳條約에 따라 日帝는 1905年 12月에 統監府를 設置하고 1906年 2月 1日부터 統監府 業務를 始作하였으며 이로부터 韓國에 대한 굴욕적 복종을 強要하기에 이르렀다.

招待 統監으로는 伊藤博文이 就任하였으며 學部大臣은 李完用이었다. 이때의 教育方針은 다음과 같다.[38]

첫째, 愚民化가 基本方針이었다.

둘째, 점진적인 同化政策의 한 方法으로 官·公立普通學校를 擴張하였다.

셋째, 統監府는 同化政策의 한 方法으로 日本語의 教育에 重点을 두었다.

---

37) 上揭書, pp790~791

38)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p.184-185.

넷째, 教科를 通하여 親日教育을 強化하였다.

다섯째, 日本人 教員配置에 重点을 두었다.

1) 學制의 修正

이와 같은 教育方針에 따라 우리 나라 종래의 學制를 修正하기 始作했으며 여러 가지 法令을 制定 公布하게 되었는 바 이를 年代順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師範學校令	光武 10년	(1906년)	勅令	41號
高等學校令	光武 10년		勅令	42號
外國語學校令	光武 10년		勅令	43號
普通學校令	光武 10년		勅令	44號
高等女學校令	隆熙 2년	(1908년)	勅令	22號
私立學校令	隆熙 2년		勅令	62號
學會令	隆熙 2년		勅令	63號
私立學校補助規程	隆熙 2년		學部令	14號
公立私立學校認定規程	隆熙 2년		學部令	15號
學科用圖書檢定規程	隆熙 2년		學部令	16號
學部編纂教科溶圖書發賣規程	隆熙 2년		學部令	18號
實業學校令	隆熙 3년	(1909년)	勅令	56號
實業學校令實施規則	隆熙 3년		學部令	1號
高等女學校令施行規則	隆熙 3년		學部令	2號
師範學校令施行規則	隆熙 3년		學部令	3號
高等學校令施行規則	隆熙 3년		學部令	4號
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	隆熙 3년		學部令	5號
普通學校令施行規則	隆熙 3년		學部令	6號

(1) 初等教育의 修正

1906年의 普通學校令과 同施行規則은 1907年에 2次, 1909年에 1次의 修正을 보았다.

新學制에서는 종전의 小學校를 普通學校로 개칭하고 尋常, 高等 2科로 되어 있던 것을 1科로 통일했으며 修業年限을 4年으로 단축하고 1年의 授業日數를 200日 以上으로 定했다. 教科目은 종전과 다름없었으나 日語가 부과된 것이 주목된다.

學校令 第23條로 公布된 普通學校 刻學年 教育課程 및 週 教授時數를 보면 다음 表와 같다.[39]

(2) 中等教育의 修正

1096年 勅令 第40號로 公布된 學部直割學校 및 公立學校官制가 實施됨에 따라 종래의 中學校 官制가 폐지되고 같은 해 勅令 第42號, 高等學校令 學部令 第21號로 高等學校令 施行規

39) 京畿道 教育委員會, 上揭書, pp. 187－188.

則이 制定되었으며 다시 1909年에 高等學校令이 일부 改定됨에 따라 同施行規則도 대폭 改正되었다.

普通學校 刻 學年 敎科課程및 每週 時間數

科目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第4學年
修身	1	1	1	1
國語	6	6	6	6
漢文	4	4	4	4
日語	6	6	6	6
算數	6	6	6	6
地理歷史	—	—	—	—
理科	—	—	2	2
圖書	2	2	2	2
體操	3	3	3	3
手藝	—	—	—	—
唱歌	—	—	—	—
手工	—	—	—	—
農業	—	—	—	—
商業	—	—	—	—
計	28	28	30	30

그 內容 중에는 종래의 中學校가 高等學校를 최종 學力으로 만들어 韓國人에게 愚民政治를 펴려는 意圖로 보인다.

高校의 學力으로 社會의 指導者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日本은 學制부터 愚民政策을 實施한 것으로 보인다.

高等學校의 學科過程 및 週 授業時間數는 다음 表와 같다.[40]

(3) 普通學校의 擴張

1906年부터 1908年에 이르기까지 普通學校의 擴張이 이루어졌으며 京畿道에는 甲種公立普通學校가 水原普通學校, 開城普通學校, 仁川普通學校], 安城普通學校, 驪州普通學校, 江華普通學校, 등이었다.

이 때의 乙種普通學校 속에 廣州普通學校가 設立되어 최초의 新敎育機關으로 등장하게 된다. 乙種普通學校는 廣州普通學校 외에도 通津普通학교, 振威普通學校, 楊平普通學校, 安山普通學校, 豊德普通學校, 陽州普通學校, 富平普通學校, 金浦普通學校가 있었다.

40) 上揭書, pp. 188－189.

高等學校 學科課程및 每週 教授 時間數

學年 學科目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第4學年	
修身	時數 1	程度 實踐道德	時數 1	程度 實踐道德	時數 1	程度 實踐道德	時數 1	程度 實踐道德
國語及漢文	6	講讀作文 文法習字	6	講讀作文 文法習字	6	講讀作文 文法	6	講讀作文 文法
日語	6	讀法解釋 會話書取	6	讀法解釋 會話書取 文法作文	6	講讀作文 文法	6	講讀作文 文法
歷史	3	本國歷史	3	外國歷史	3	外國歷史	—	
地理	3	本國地理	3	外國地理	3	外國地理	1	地文
數學	6	算術代數	5	代數幾何	4	代數幾何 薄記	4	幾何薄記
博物	40	鑛物植物	2	動物生理	2	生理衛生	—	
物理化學	—		—		3	化學	4	化學物理
實業	1	實業概說	3	農業 상업 工業 中 1	3	農業 상업 工業 中 1	4	農業 상업 工業 中 1
圖書	2	自在畵	1	自在畵	1	自在畵 및 用器畵	1	用器畵
體操	3	學校體操	3	學校體操	2	學校體操	2	學校體操
法制及 經濟	—		—		—		(2)	現行法制及 經濟大要
唱歌	(1)	單音唱歌	(1)	單音唱歌	—		—	
外國語	(2)	讀法解釋 書取習字	(3)	讀法解釋 書取習字	(3)	讀法解釋 書取習字	(3)	讀法解釋 書取習字
計	31 (3)		30 (4)		31 (3)		30 (5)	

資料：咸宗圭, 教育課程 沿革調査(前編), 1974, p.36.

(4) 書堂에 대한 統制와 監督

廣州뿐 아니라 이 時期의 書堂은 全國에 1萬個所 以上 散在해 있었으나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廣州公立普通學校가 1910年 代에 設立되었으므로 이 時期의 대부분의 教育은 書堂教育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1908年 8月 私立學校令 公布와 동시에 學部 訓令 第3號로 '書堂에 관한 訓令'을 公布하였다.

이 訓令에 의하면 書堂은 府尹, 郡守의 監督下에 두고 그 設置 또는 廢止는 府尹, 郡守에게 報告 屈出케 한는 한편 禁錮 이상의 刑에 처한 者, 또는 性行이 不良한 者는 開設할 수 없도록 하고 教師도 될 수 없게 했다. 또한 法令의 規定에 위반할 때 혹은 公安을 害하고 教育上

有害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書堂에 대하여 상당한 措置를 할 수 있게 하였다.[41]

書堂은 時期까지도 庶民의 敎育手段이었으므로 學部는 書堂의 存在를 認定하여 內容 改善에 관한 것을 訓令으로 취급한 인상이 짙다. 訓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2]

- 보통학교가 있는 지방에서는 그자제로 하여금 되도록 이에 입학하도록 장려하되 보통학교가 없는 지방이거나 있어도 수용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당에 입학하여도 무방함
- 재래의 서당에서는 주로 한문을 가르쳤으나 국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어도 함께 가르칠 것
- 종래의 한문교수는 素讀에 치중하였는데 지금부터는 知德의 上進을 중요시 하는 교수방법으로 개선할 것
- 종래의 서당은 아동의 건강에 무관심하여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수업을 강요하였는데 금후는 교수시간이 아동의 신체와 두뇌에 적당하도록 단축할 것
- 재래의 서당은 아동의 규율, 風儀를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좋은 습관 양성에 힘쓸 것
- 종래의 서당은 협잡하여 아동 보건상 유해한 바 많았는데 금후는 채광, 통풍 등에 주의하고 청결 정돈에 힘쓸 것

書堂은 新敎育으로서의 普通敎育이 普及되지 않았던 時代에 重要한 役割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다.

第五節 日帝暗黑期의 廣州敎育

1. 韓日 合併과 植民地 敎育政策

1910年 8月 29日은 民族의 受難日이며 國取日이다. 日帝는 이 날 韓日合併條約을 發表하여 우리 나라를 強點하고 本格的인 植民地 統治를 始作하였다. 그들은 統監府를 朝鮮總督府로 바꾸고 立法, 司法, 行政 및 軍事의 統師權까지 장악하는 한편 악명 높은 憲兵과 警察制度를 도입하여 철저한 탄압을 시작했다.

韓國人은 政治, 經濟, 社會, 文華, 學術등의 活動을 禁止시켰으며 集會의 自由도 박탈당했다. 한편 民族的 主張을 펴는 新聞을 폐간하여 言路를 봉쇄하기에 이르렀으며 韓國文華의 焦土化를 도모한 것이다.

日本의 植民地 정책은 한결 같이 그최종 目標를 조선인의 皇國臣民化 정책에 두어 朝鮮人을 日本人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漢民族에 대한 抹殺政策이었으며 이에 대한 民族精神의 각성이 고조되어 國權回復을 위한 獨立運動이 強力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日本의 植民地 政策은 民族的 覺醒에 對應하여 몇 차례의 統治方式에 대한 불가피한

41) 上揭書, p. 213.

42) 上揭書, pp. 213-214

修正을 가져오게 된다.

제1단계는 日帝強點이 있던 1910年 부터 3·1民族運動이 일어났던 1919年까지의 初期 10餘年 동안의 日本植民地政治로서 武斷政治로 表現된다. 일본제국주의는 서울에 총독부를 두고 陸海空軍의 大將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으며 그들은 憲兵과 警察을 統合하여 中央의 警務總長에 憲兵司令官, 各道의 警務部長에 헌병대장을 임명하여 조선인의 民族的 活動을 철저히 탄압하고 政治的 結社 集會는 물론 단순한 集合까지도 금지하였으며 한글로 된 신문의 발간마저 금지하였다. 官吏나 教員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허리에 칼을 차게 할 정도로 오로지 위압에 의하여 韓國人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다.[43]

제2단계는 1919年 3·1운동을 起點으로 하여 1929年 光州學生運動을 거쳐 日本의 침략적 야심이 大陸으로 확대되던 1931年까지 10餘年間으로 이 時期는 形式的 文化政治의 時期로 表現된다.

日帝強點 후 漢民族의 民族精神抹殺을 위한 일본의 폭력정치는 1919년 3·1운동에 의하여 朝鮮人의 강력한 民族的 抗爭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인 소위 文治文華政策이란 이름 아래 陸海空軍의 大將에서 임명하던 조선총독을 政治人으로 임명하였으며 憲兵警察 대신에 보통경찰이 治安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官吏와 教員이 칼을 차는 것을 폐지하였다. 이와 아울러 미소 政策의 하나로 일본인에게만 주었던 普通學校長職에 朝鮮人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言論에도 어느 정도의 自由를 주어 朝鮮日報, 東亞日報, 時事日報 등 國文新聞의 刊行도 허락하였다. 또 中央과 地方의 政治에 있어 극히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韓國人의 政治的 發言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은 격앙된 朝鮮人의 民族感情과 擧族的 反抗을 무마하기 위한 일제의 形式的 미소정책에 불과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보다 強力한 高等警察制度를 확립하여 朝鮮人의 民族的 獨立運動을 탄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3단계는 日帝의 침략적 야심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時期로서 1931年 만주사변을 일으켜 그곳에 그들이 傀儡政府인 滿州國을 세우고 1937年 中國과 衝突을 일으켜 中日戰爭의 서막을 열었으며 世系2次大戰이 일어나자 독일, 이태리와 동맹을 맺고 1941年 12月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美國과 英國을 상대로 太平洋戰爭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日本은 조선을 大陸侵攻의 兵站基地로 삼아 朝鮮人을 전쟁에 동원시켰으며 3·1운동 후의 형식적인 文化政治를 打棄하여 철저하게 조선인 民族精神을 탄압하고 內鮮一體, 同祖同根의 詭辯的인 이론을 내세워 植民政策의 최종적 목표인 皇國臣民化를 실현하려고 획책했다.

日帝는 1938年 教育令을 改正하여 日本式으로 學校名을 고치고 皇國臣民의 誓詞라는 것을 만들어 자라나는 學生과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외우게 했으며 日本語의 보급을 위하여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우리말로 발행되던 新聞을 폐간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신을 朝鮮民族에게 주입하기 위하여 皇國臣民化 體操를 制定하여 학교는 물론 官公署와 青年團에 보급시키고 愛國日을 정하여 神社參拜와 日皇旗 揭揚을 강제로 시켰으며 조선인의 전통과 조선

43) 韓國青年文化研究所, 前揭書, pp.281－282

인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오로지 일제에의 절대 복종만이 強要되었다.[44]

이와 같이 日帝는 政治的으로는 武斷政治를 펼쳤고 經濟的으로는 收奪政策을 폈고 教育的으로는 愚民化政策과 低質政策을 썼던 것이다.

日帝의 植民地 教育政策을 좀더 깊이 천착하면

첫째, 韓國國民의 民族意識을 말살하고 忠誠스러운 皇國臣民을 만들려는 皇國臣民化 教育이었으며,

둘째, 日帝의 植民地 統治에 服從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愚民化 教育이었고

셋째, 植民地의 經濟的 收奪과 勞動搾取에 移用할 수 있는 基礎的인 實務教育에 치중하는 일이었다.[45]

日帝初期의 植民地教育의 基本政策은 1911年에 公布한 朝鮮教育令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격하게 劣等한 學校制度 밑에서 各級 學校의 教育內容을 統制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日語를 강요하고 일본의 文物을 注入하며 日本人 教師를 채용해 쓰고, 教科書를 統制하였으며 韓國人 教師와 學生들의 思想을 감시하는 등 植民教育의 努力을 〈忠良한 國民〉을 育成하는 데 傾注하였다.

學校制度에 있어서는 民度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구실 아래 日本人 教育을 위한 학교제도와는 差別을 두어 普通學校 3~4年, 高等普通學校 4年, 女子高等普通學校 3年, 專門學校 3~4年의 劣等한 授業年限을 規定하였을 뿐 아니라 私立學校의 設立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2. 日帝 初期의 教育政策과 廣州教育

1) 教育을 통한 民族精神 抹殺企圖

韓日合併條約의 公布와 함께 이 땅에는 植民地政策의 担當 機關으로 朝鮮總督府가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通鑑時代의 마지막 通鑑인 寺內가 總督으로 부임하여 植民地의 統治를 시작하면서 民族精神 抹殺을 위한 教育政策을 遂行하였다.

당시 日帝의 韓國人을 위한 教育方針은 '忠良한 國民'을 기르는 것과 '時勢와 民度'에 맞는 教育을 實施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새로 制定된 朝鮮教育令 第2條와 第3條에서 分明히 밝히고 있어 第2條에서 「教育은 教育에 관한 勅語의 취지에 터하여 忠良한 國民을 養成함을 本義로 한다.」고 하였고 第3條에서 「教育은 時勢 및 民度에 適合하게 할 것을 期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던 것이다.

이는 韓國人을 忠良한 日本臣民으로 育成하려는 意圖였던 것이다.

日帝가 韓國을 支配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民族精神에 바탕한 排日思想이었다. 그러므로 日帝는 忠良한 日本臣民을 만들기 위해서는 排日思想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政策課題였다.

排日思想의 除去를 위해서 日本帝國主義가 시도한 것은 學校教育을 통한 皇國臣民化였으

44) 上揭書, p. 282.

45)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 220

며, 이와 並行해서 古來의 儒學的 思想에 의한 傳統과 民族精神을 탄압했다. 그뿐 아니라 私學에 對한 탄압과 民族主義者에 대한 탄압도 점차 극렬해 졌던 것이다.

廣州의 鄕校는 成均館과 함께 朝鮮歷史 5百年 동안 廣州地方의 最高의 교육기관으로 교육의 技能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8年 새로운 學則에 의하여 旣存 成均館의 정원이 30名으로 감축되면서 鄕校의 운영에 관한 결정적인 法令이 된 〈學校費用令〉을 1911年에 公布하여 '公立普通學校의 신설 및 그 維持費는 鄕校財産 收入과 학교설립 구역내의 朝鮮人이 부담하는 教育稅에 의한다.'고 하여 鄕校의 운영과 儒林 活動의 基金으로 사용되었던 鄕校의 財産을 學校費라는 名目으로 박탈하였기 때문에 廣州鄕校도 活動의 기반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憲兵과 警察이 廣州地域 儒林들의 鄕校 出入을 統制하면서 그 動態를 査察監視하기에 이르렀다.

2) 第1次 朝鮮學校令의 公布와 廣州教育

寺內總督은 1911年 8月에 全文 30條로 이루어진 朝鮮教育令을 公布하여 서서히 日帝의 植民地教育을 위한 馬脚을 드러냈다. 이 法令은 日帝初期의 植民政治 10年 동안의 틀을 마련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普通學校 規則, 高等普通學校 規則, 女子普通學校 規則, 實業學校 規則, 私立學校 規則, 學校官制 및 經學院 規定등 관계법규가 공포되었다.

이어서 1915年에는 私立學校法을 改正하고 같은 해에 專門學校 規則을 制定公布하였다.

朝鮮教育令[46]

第 一 章 綱領

第 1條 朝鮮에 있어 朝鮮人의 教育은 本令에 의한다.

第 2條 教育은 教育에 관한 勅語의 취지에 터하나 忠良한 國民을 기르는 것을 그 본뜻으로 한다.

第 3條 教育은 時勢 및 民度에 맞도록 이를 베푼다.

第 4條 教育은 이를 크게 나누어 普通教育, 實業教育 및 專門教育으로 한다.

第 5條 普通教育은 普通의 知識 技能을 가르쳐 주고 특히 國民된 性格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6條 實業教育은 農業, 商業, 工業에 관한 知識 技能을 가르쳐 주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7條 專門教育은 高等의 學術 技藝를 가르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二 章 學 校

第 8條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國民教育의 基礎가 되는 普通教育을 시키는 곳으로서 身體의 發達에 유의하고 德育을 베풀고 국민된 性格을 길러 生活에 必要한 普通 知識 技能을 가르친다.

第 9條 普通教育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46)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p. 229－231

단, 地方 實情에 따라 1年을 줄일 수 있다.

第10條 普通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年齡 8年 以上인 者로 한다.

第11條 高等普通學校는 男子에게 高等한 보통교육을 베푸는 곳으로 常識을 길러 國民된 性格을 陶治하고 그 生活에 有用한 知識과 技能을 기른다.

第12條 高等普通學校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第13條 高等普通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나이 12歲 以上으로 修業年限은 4年의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 한다.

第14條 官立 高等普通學校에 師範科또는 教員養成(速成科)을 두어 普通學校 教員養成(速成科)은 1年 以內로 한다.

師範科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한 者로 하고 教員養成(速成科)에 入學할수 있는 者는 년령 16年以上으로 高等普通學校 第2學年의 課程을 修了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 한다.

第15條 女子高等普通學校는 女子에게 高等의 普通教育을 베푸는 곳으로서 婦德을 길러 國民된 性格을 陶治하고 그 生活에 有用한 知識을 가르친다.

第16條 女子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第17條 女子普通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연령 12年 以上으로서 修業年限은 4年의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한 學歷이 있는 者로 한다.

第18條 女子普通學校에는 技藝科를 두어 연령 12세 이상의 女子에 대하여 裁縫 및 手藝를 專修시킬 수 있다.

技藝科의 修業年限은 3年以內로 한다.

第19條 官立高等普通學校에는 師範科를 두어 普通學校의 教員이 될 者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師範科의 修業年限은 1年으로 한다. 師範科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女子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한 자로한다.

第20條 實業學校는 農業, 商業, 工業 등의 實業에 從事코자 하는 者에게 必要한 教育을 시킬 수 있다.

第21條 實業學校를 나누어서 農業學校, 商業學校, 工業學校 및 簡易實業學校로 한다.

第22條 實業學校의 修業年限은 2年내지 3年으로 한다.

第23條 實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修業年限은 4年의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한 학력이 있는 者로 한다.

第24條 簡易實業學校의 修業年限 및 入學資格에 관해서는 前2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

第25條 專門學校는 高等의 學術技藝를 教授하는 곳으로 한다.

第26條 專門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내지 4年으로 한다.

第27條 專門學校에 入學할 수 者는 년령 16세 以上으로서 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學歷을 가지 者로 한다.

第28條 公立 또는 私立의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 및 專門學校의 設置 또는 廢止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9條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 및 專門學校의 教科目 및 그 課程, 職員, 教科書, 授業科에 관한 規定은 朝鮮總督이 이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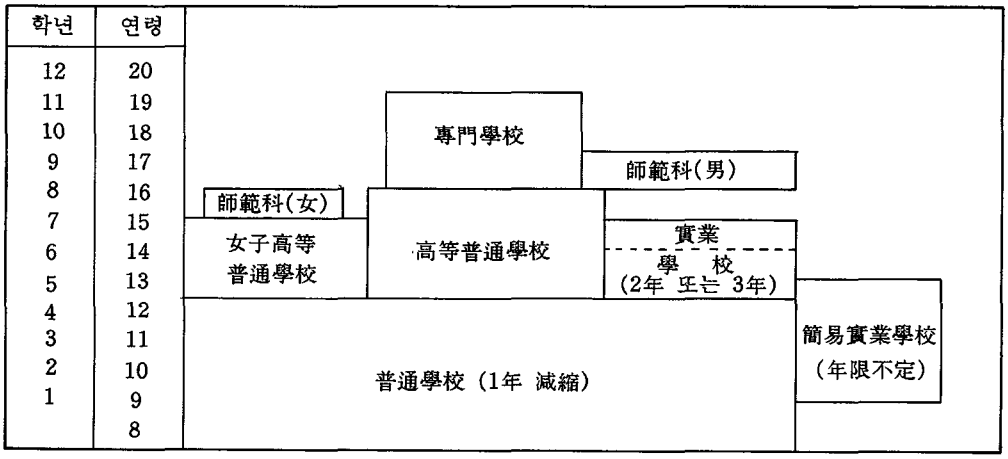
第30條 本章에 든 이외의 學校에 관해서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附 則

從來의 普通學校, 高等學校, 高等女學校는 本令에 의하여 設置한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로 간주하고 從來의 農業學校 및 實業補習學校는 本令에 의하여 설치한 農業學校, 商業學校 및 簡易實業學校로 간주한다.

당시 廣州地域에서 本 令에 의해서 적용을 받은 學校는 普通學校로서 廣州公立普通學校가 있었으며, 이 學校는 같은 해인 1911年 7月에 郡內面 下北里에서 3學級 158名의 學生으로 開校했다.[47]

第1次 朝鮮學校令에 따른 學制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3) 廣州의 教育機關 狀況

第1次 朝鮮教育令에 의해서 다소 教育活動에 있어 위축되기는 했으나 新教育을 위한 열망과 教育救國을 위한 一念은 就學人口의 증가를 가져왔다.[48]

1912年의 廣州의 유일한 公教育機關은 廣州公立普通學校뿐이었다. 이때까지 私立學校나 實業學校 또는 專門學校가 設立되지 못한 것은 廣州 發展을 위해 퍽 不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廣州의 郡勢가 朝鮮期에 비해 開化期를 거치면서 쇠퇴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廣州公立普通學校의 各種 統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朝鮮總督府 京畿道,《朝鮮總督府 京畿道 統計年報》, (서울 : 京城日報, 1912) p. 87.

48) 朝鮮總督府 京畿道「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報」(서울, 京城日報社, 1914), pp 86－130

〈表 3〉 公立普通學校 一覽

校 名	位 置	設立年月日	學級數	教員數	學生數	校 長
廣州公立普通學校	郡內里下北里	1911. 7. 1	3	4	158	大畏尙義

〈表 4〉 普通學校 敎員과 兒童移動 狀況

1912現在

學 校	學級	敎員		兒童					入學者	中途退學者	日日出席平均數	日日缺席平均數
		韓人	日人	學年	2學年	3學年	4學年	計				
廣州公立普通學校 (男)	3	3	1	54	39	19	18	130	59	20	110,63	26,05
(女)				8	20			28		8	26,70	3,34

〈表 5〉 普通學校.兒童 年齡別 統計

學 校	7歲	8歲	9歲	10歲	11歲	12歲	13歲	14歲	15歲	16歲 이상	計
廣州公立普通學校	18	31	15	14	17	20	19	8	6	10	158

한편 庶民을 위한 私敎育機關으로 書堂이 移用되고 있었다. 1908年 學部訓令 第3號로 '書堂에 관한 訓令'이 公布된 이래 書堂의 運營이 상당히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廣州郡을 歷史的인 地域이라서 다른 地域보다 많은 書堂이 存續되어 있었다.

《表 6》 書 堂 狀 況

書堂數	敎員數	學生數			備考
		男	女	計	
101	103	829	-	829	-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書堂의 學生數가 學校에서 수용하고 있는 學生數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各級學校의 敎育內容

(1) 普通學校의 敎育內容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注目할 것은 日語敎育을 強調한 점이다. 日帝는 일제강점이후 朝鮮人의 日本人化를 위한 政策의 하나로 보통학교 교육과정에 日本語를 國語로 改稱하고 이를 강제로 學習시킨 것이다. 따라서 보통학교의 敎科書는 朝鮮語와 漢文科를 제외하고는 모두 日語로 편찬되었다.

週當 日語時間 配當은 各學年 공히 10時間이었으며 敎授用語와 學校內의 生活用語도 모두 日語를 강요했다.

普通教育을 위한 教科目은 修身, 朝鮮語 및 漢文, 日語, 算術 등의 必順科目과 理科, 唱歌, 體操, 圖書, 手工, 裁縫, 手藝, 農業初步, 商業初步 등의 교양과목이 있었다.

普通學校의 教科目 및 週當 教授時間表는 다음과 같다.

《表 7》 公立 普通學校 教科目 및 週當 時間表[49]

科目 / 學年	修身	國語	朝鮮語 漢文	算術	理科	唱歌 體操	圖畫	手工	裁縫 手藝	農業 初步	商業 初步	計
1	1	10	6	6	·	3	·	·	·	·	·	26
2	1	10	6	6	·	3	·	·	·	·	·	26
3	1	10	5	6	2	3	·	·	·	·	·	27
4	1	10	5	6	2	3	·	·	·	·	·	27

(2) 實業學校의 教育內用

日帝初期의 教育에 있어서 實業教育은 日語教育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교육이었다.

그리하여 普通學校에서는 농업과 상업의 初步教育을 實施했으며 公立農業學校, 公立商業學校, 公立工業學校 등의 實科 專門教育 計劃하였고 簡易實業學校를 세워 實務者 教育을 장려하였다.

日帝는 實業教育을 통해 질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 노동력을 바탕으로 植民地를 수탈하려는 속셈에서 實業教育을 強化하였다. 이러한 政治的 目的에 따른 당시의 實業教育의 內用은 첫째, 實習에 중점을 두었으며 産業의 개량과 발달을 도모했고 둘째, 教科目은 修身, 實業科目, 實習, 日語, 朝鮮語 및 漢文, 數學, 理科를 必順科目으로 하고, 기타는 地域의 實情에 응하여 定했다. 세째, 蠶業, 山林, 畜産, 水産에 관한 教科를 주로 가르치는 學校는 農業學校로 보았다.

(3) 專門學校의 教育內容

朝鮮教育令 第25條에 '專門學校는 高等의 學術技藝를 教授'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1915年 3月에 公布된 專門學校 規則은 教育內容이 日語, 專功科目, 體操 등이었으며 高等農林學校의 教育課程은 다음 과 같다.

日帝의 教科書 政策은 朝鮮人에게 日本 國體에 관한 觀念을 가르치며 日本天皇의 盛德, 특히 韓國을 合併한 '明治天皇이 韓國人에게 베푼 恩惠(?)의 鴻大함'을 알게 하는 데 두었으며[50] 이는 특히 修身教科書에 잘 나타나 忠良한 帝國臣民을 만들려는 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었다.

---

49) 孫仁수, 「韓國近代教育史」 p.101

50) 京畿道廳, 《京畿道史》, 第一卷, p. 829.

5) 學校級別 教科別 構成 內容

(1) 普通學校 教科用 圖書

① 修身書

各 學年에서 皇室과 國家에 대한 관념, 家族에 대한 관념, 自身에 대한 관념 他人에 대한 관념, 社會에 대한 관념을 반복 순화시키고 國民性 양성에 필요한 德目을 모두 教授할 수 있게 構成하였다.

《表 8》 農林學校 本科 教育課程[51]

學年 / 學科目	週當時間	1學年	週當時間	2學年	週當時間	3學年
修身	1	人倫道德	1	人倫道德	1	人倫道德
國語	6	讀書作文會話書取	6	讀書作文會話書取	5	讀書作文會話書取
數學	3	數學	—		—	
理科	2	物理化學	1	氣象	—	
博物	3	動物植物鑛物	1	人體生理	—	
土壤學	2	土壤學	—		—	
土地改良論	—		1	土地改良論	—	
肥料學	—		2	肥料學	1	肥料學
道具論	3	農具論	—		—	
作物論	3	普通作物論	3	園藝作物論	2	工藝作物論
畜産學	—		1	畜産學	2	
蠶系學	1	蠶體解○及生理飼育法	1	飼育法蠶體病理製種法	1	栽桑法製系法
農產製造學	—		—		2	農產製造學
作物病虫學	1	作物害虫學	2	作物害虫學	2	作物病理學
林學通論	1	林學通論	—			
桑林生產學	2	造林學保護學	4	造林學利用學 林產製造學	1	造林學
桑林經營學	—		—		3	測樹學經理學 林價算法
獸醫學大意	—		2	獸醫學大意	—	
測量	—		2	測量	3	測量
經濟法規	—		—		2	經濟及法規
計	26		27		25	
實習	無定時		無定時		無定時	

國民道德의 中區가 되는 忠孝觀念의 養成에 치중하여 各 卷에 이에 대한 教材를 배당하고 國體에 대한 관념을 밝히며 天皇, 皇后 兩陛下, 明治天皇 및 照憲太后의 盛德을 알게 하고 특히 明治天皇이 朝鮮人에게 베푼 恩惠를 學年의 程度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알리

51) 1910년 12月 校則 改正과 함께 1909年의 교육과정을 一部 변경하여 1918年 2月까지 施行하던 것임.

도록 하는 데 強調点을 두었다.[52]

② 國語讀本 및 習字帖

國語讀本의 內容은 修身書와 더불어 品性을 陶治하며 國民性의 함양에 필요한 教材를 선택하고 日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教材를 많게 하였다.

漢字는 國民讀本 8卷을 통하여 1500字 정도를 넣었는데 이것은 따로 漢文科가 있어 漢文學習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었다.

③ 朝鮮語 및 漢文讀本

朝鮮語는 綴字부터 시작하여 차차로 文章에 이르게 하고 卷1은 全部 口語, 卷2부터는 文語를 주로 하였고 漢文은 漢字로부터 시작하여 文章에 이르게 構成하였다.

教材는 國語와 더불어 國民性 涵養에 資料가 될만한 것을 취하였다.

이밖에 算術書, 理科書, 農業書, 唱歌集등이 있었으나 편찬의 취지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2) 實業學校와 專門學校의 教材用 圖書

實業學校와 專門學校의 國語讀本은 總督府에서 편찬 출판하였으며 修身教科書는 專用할 것이 없어서 새로 편찬하게 되었다.

實業 및 專門學校의 各 教科書에 대해서는 農業學校의 교과서만 편찬하였으며 商·工業에 관한 것은 日本에서 出版된 것을 상용케 했다.

또 專門學校의 學生은 高等普通學校를 卒業했으므로 教科書를 사용하지 않고 講義와 筆記에 의하여 教授키로 하고 教科書는 편찬하지 않을 方針이었다.

이상이 당시에 廣州에 있었던 교육기관에서 사용한 교과서에 대한 방침과 내용이며 참고로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서 편찬 內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高等普通學校와 女子高等普通學校의 教科用 圖書

高等普通學校와 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 사용하는 教科用圖書는 民間의 著書에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부터 總督府에서 編纂出版하는 方針을 세우고 우선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 및 漢文, 外國歷史, 日本地理, 地文, 法制, 教育의 諸教科書를 편찬하였다.

그 중 國語(日本語) 教科書가 시급하다 하여 우선 高等國語讀本(全8冊), 實業國語讀本(全3冊), 女子高等國語讀本을 편찬하였다.

그밖의 教科書는 男女別로 편찬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國民性 양성에 관계가 적은 數學, 物理, 化學 등의 教科書와 師範學校用 教科書 같은 것은 文部省 檢定의 圖書 가운데서 적당한 것을 사용케 했다.

이상에서 學校級別 教科別 構成內容을 밝혔으나 당시 廣州郡에는 公立普通學校밖에는 設立되어 있지 않아 實業學校 및 專門學校,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의 教科別 構成耐用은 參考로 提示한 것이다.

---

52)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p. 243-244.

3. 日帝 中期의 敎育政策과 廣州敎育

1) 敎育政策의 修正

武力에 의해서만 韓國民을 支配할 수 있다고 믿었던 日帝는 1919年 三·一運動을 계기로 植民地 政策의 轉換을 試圖한다. 소위 文化政策의 표방이 그것이다. 이러한 政策의 變化는 敎育政策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1922年 2月 4日 勅令 제19號로 第2次 朝鮮敎育令이 改正 公布되었다. 第 1次 敎育令이 韓國人 敎育을 차별하고 있었는데 반해 2次 改正令을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敎育年限이 16年에서 17年으로 연장되었고 學校級別도 普通, 實業, 專門에서 普通, 實業, 專門, 大學, 師範學校 등, 5種으로 나누어 敎育을 實施하도록 全的인 뒷받침을 해 놓고 있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普通學校의 授業年限을 4年에서 6年으로, 高等普通學校는 4年에서 5年으로, 女子高等普通學校는 3年에서 4年으로 연장하였다.

韓國人과 日本人의 共學을 原則으로 했으며 폐지되었던 朝鮮語科가 必順科目으로 부활되었는데 이러한 外現的인 變化는 모두 植民地 文化政策을 反英한 것이며 順從하는 植民地人을 育成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文化傳統을 抹殺하려는 政策의 所産이었다.

改正敎育令에 의한 敎育政策에 숨겨진 日帝의 의도를 具體的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敎育制度와 敎育期間을 日本人과 同一하게 함으로써 日本式 敎育을 強化하여 우리 고유의 民族思想과 傳統意識을 抹殺하여 日本化하려는 속셈이었다.

둘째, 改正敎育에 반영된 全體敎育의 目的은 日本人과의 同化였으며 強力하게 日本語를 習得케 했다.

세째, 敎育課程 속에는 韓國語도 지도하게 되어 있었으나 敎授時間] 配定面에서 形式的인 것이었으며, 日本 歷史를 注入 強要하고 韓國에 관한 歷史的 사실을 歪曲 敎授하여 民族意識을 糊塗하였다.

네째, 改正敎育令은 表面上 日本內의 敎育制度와 同一하게 하였다 했으나 高等師範學校는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진정한 敎育機會의 확대는 아니었다.

다섯째, 대학의 설치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3·1운동 이후 朝鮮民立大學을 세우려는 民族主義者들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데서 온 政策上의 假裝에 불과한 것이었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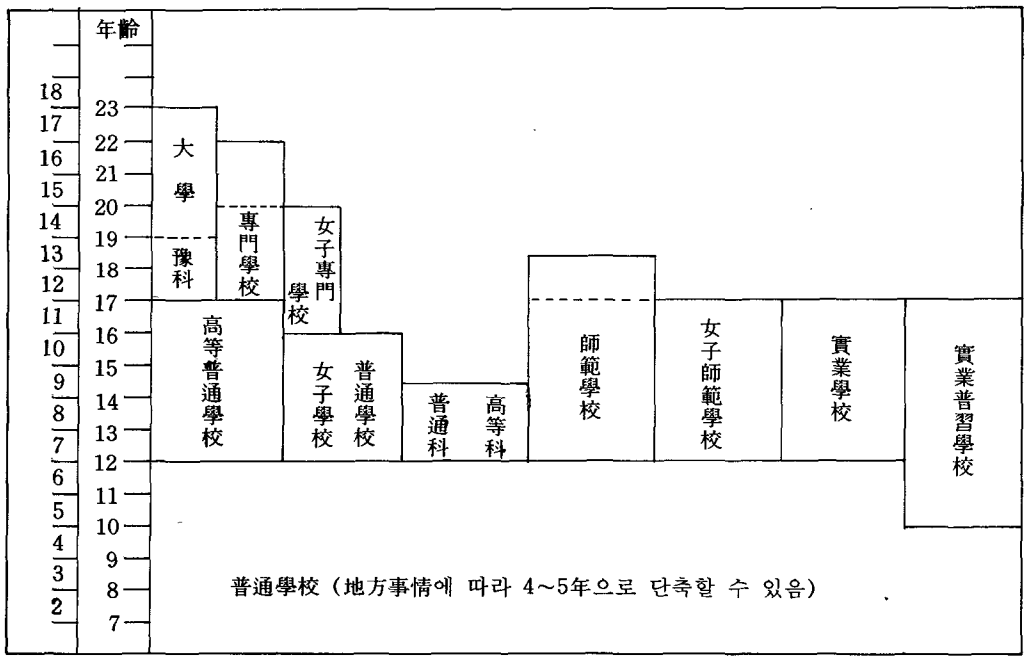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의도가 숨겨진 제2차 朝鮮敎育令은 1928年 약간의 修正을 가한뒤 1938年 제3차 朝鮮敎育令이 改正되기까지의 변화없는 植民地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시하였다.

제2차 朝鮮敎育令에 의한 學制르 도식화하면《圖 4》와 같다.

日帝 中期의 교육정책 중 특기할 것은 齊藤總督에 의해 추진된 三面一校의 政策과 一道一校의 高等普通學校의 設置 政策이었으며 山梨總督은 그 후에 부임하여 1929年 이후 一面一校 設置 計劃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歷代의 총독들이 이처럼 初等普通敎育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韓國人을 소위 그들의 皇國臣民化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初等普通學校의 증설과 함께 高等敎育機關도 증설되었으나 당시 廣州郡에는 高等敎育機關

53) 水原市史編纂委員會,《水原市史》(水原 : 京仁日報社), pp. 1320-1321.



이 設置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郡勢와도 깊은 關係가 있었다.

또한 實務教育이 強化되었는데 특히 宇垣一成 總督은 '時勢와 境地에 順應 空論虛飾을 배격하며 現實을 凝視하면서 장래의 文化와 經濟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物心兩面의 生活 安定'을 기할 것을 第1義로 한다는 市政方針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食糧補給地가 되게 하기 위해 教育政策에 이를 反映하여 '教育 節 勤勞'라는 철저한 勤勞主義 教育을 폈다.

實務爲主의 교육은 이밖에도 初等教育에 있어서의 職業科 教育이 強化, 普通學校 卒業生의 進路指導, 實習施設의 확충, 簡易學校와 實業補習學校의 設置 등으로 나타났다.

2) 廣州의 教育機關의 擴張

日帝의 文化政策에 의해서 全國에 많은 수의 教育機關이 설치되었는 바, 京畿道의 경우 1981年 69個 校에 학생수가 14054名 1937年에는 284個 校에 107145名의 學生이 就學하게 되어 학교수는 4倍가 學生수는 7倍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인 교원수도 1918年에 122名에 불과하던 것이 1937年에넌 542名으로 증가되었고 私立普通學校의 수도 1918年에 5個校였던 것이 1937年 23個校로 늘어나고 있다.

簡易學校는 1934年에 처음 나타나서 1937年에는 80個校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서당수는 급격하게 줄어 1937년에는 338個의 書堂만이 남아 있게 되어 많은 어린이가 新教育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8年과 1926年 그리고 1937年의 京畿道 各級 學校 狀況을 表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54]

54) 上揭徐, pp. 1321-1322

日帝 中期 京畿道 各級學校 狀況

學校別	年度別	學校數	學生數	教員數	備考
普通學校	1918	69	14,054	399 (122)	官立 2, 公立 62, 私立 5
	1926	154	56,537	1,165 (347)	官立 2, 公立 135, 私立 17
	1937	284	107,145	1,566 (542)	公立 261, 私立 33
簡易學校	1918	—	—	—	—
	1926	—	—	—	—
	1937	80	4,819	80	公立 80
高等普通學校	1918	6	3,036	152(79)	公立 1, 私立 5
	1926	9	5885	240 (64)	公立 2 (京城第2增設), 私立7(中央, 光成增)
	1927	8	6,184	227 (93)	公立 2, 私立 6
女子高等普通學校	1918	4	676	57 (34)	公立1, 私立3(好壽敦, 淑明, 進明)
	1926	6	1,439	101 (64)	公立1, 私立5, (梨花, 培花 增設)
	1937	7	3,168	134 (43)	公立1, 私立6 (同德增設)
實業(補習)學校	1918	3	320	31 (26)	水下洞, 於義洞, 渼洞
	1926	9	594	61 (45)	農業4(議政府, 安城, 五山)商業5(仁商外4)仁川, 議政府, 楊平, 長湍, 漣川, 李川, 安城
	1937	9	778	—	
專門學校	1918	6	899	169 (131)	官立4, 私立2(延專, 世醫專)
	1926	9	1,736	280 (194)	官立5(京城高等商業增), 私立4(普成, 梨花 增設)
	1937	10	?	?	官立5, 私立5(淑明 增設)
各種學校	1918	121	11,529	625 (41)	一般校69, 宗教校 53
	1926	69	11,598	464 (38)	一般校37, 宗教校 32
	1937	18	6,263	156 (124)	中等程度18, 初等程度20(一般7, 宗教13)
		20	3,701	85 (7)	
書堂	1918	2,463	25,395	2,490	女教師 13, 女學生 706
	1926	1,802	22,260	1,904	女教師 8, 女學生 880
	1937	338	6,804	363	
幼稚園	1918	54	388	(18)	
	1927	21	1,692	(74)	
	1937	54	3,099	111 (40)	

資料：朝鮮總督府 統計年鑑, (1937), pp.293－321, 拔萃.
朝鮮總督府, 朝鮮教育要覽, (1937). p. 314
朝鮮總督府, 朝鮮教育要覽, (1926)

「備考」 1.( )안은 日本人 教員數이며 總數에는 日本人教員數가 包含되었음.
2. ①은 中等 ②는 初等에 屬하는 各種學校 數임.
3. 當時 京城府는 本道 行政區域이었으므로 서울을 포함한 數임.

普通學校 一覽表[55]

1936年 現在

學校名	所在地	設立年月日	學級數	教員數			學生數			備考
				日本人	韓國人	計	男	女	計	
南漢山公立普通學校	中部面山城里	1911. 9. 1	6	2	4	6	292	61	353	
廣州公立普通學校	慶安面慶安里	1918.11.19	8	3	6	9	437	115	550	
上一公立普通學校	九川面上一里	1921.11.30	4	1	4	5	251	55	306	
分院公立普通學校	南終面分院里	1921.12. 1	4	1	4	5	174	58	232	
昆池岩公立普通學校	實村面昆池岩里	1923. 3. 1	3	1	3	4	151	32	183	
板橋公立普通學校	樂生面板橋里	1924. 4. 1	4	1	4	5	212	48	260	
松坂公立普通學校	中垈面石村里	1924.12.23	5	2	5	7	248	68	316	
彦州公立普通學校	彦州面譯三里	1927.10. 8	2	1	2	3	116	30	146	
草月公立普通學校	草月面新月里	1931. 7. 8	2	1	2	3	129	16	145	
都尺公立普通學校	都尺面老谷里	1931. 7.10	2	1	2	3	118	29	147	
大旺公立普通學校	大旺面細谷里	1933. 5. 1	2	1	2	3	110	26	136	
東部公立普通學校	東部面德豊里	1934. 5.17	2	1	2	3	27	29	106	
突馬公立普通學校	突馬面二梅里	1935. 4. 1	2	1	1	2	68	18	86	

小學校 一覽表[56]

1935. 5. 30 現在

學校名	所在地	設立年月日	學級數	教員數	兒童數		備考
					日本人	韓國人	
廣州公立小學校	慶安面京安里	1921. 5.12	1	3	14	1	
松坂公立小學校	中垈面石村里	1921.11. 1	1	3	4	11	

京畿道의 이와 같은 교육기관의 양적인 팽창에 따라 廣州郡의 교육기관도 數的으로 발전하여고 就學兒童도 늘어났다. 이를 表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廣州에서도 상당수의 교육기관이 같은 期間에 설치되었다.

한편 日本人의 教育을 위해서 廣州尋常小學校를 設立하여 廣州地域에 거주하는 日人 子女의 初等教育을 担當케 했다.

公立普通學校와 尋常小學校 외에도 簡易學校가 3個校 設置되어 新學問에 대한 教育機會를 가지게 되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 表와 같다.

3) 教育內容

(1) 普通學校(初等)의 教育課程

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6年(地域實情에 따라 4年 또는 5年)이었으며 教科目은 修身, 國語

55)京畿道《京畿道勢概要》(서울 : 行政學會印刷所, 1936), pp. 230－231

56) 上揭書, p. 234.1936年 現在

簡易學校 一覽表[57]

1935. 5. 30 現在

學校名	所在地	設立年月日	教員數	學生數
彦州公立普通學校附設廉谷簡易學校	彦州面廉谷里	1934. 4. 16	1	71
東部公立普通學校附設下山谷簡易學校	東部面下山谷里	1934. 4. 18	1	78
昆池岩公立普通學校附設晩仙簡易學校	實村面晩仙里	1935. 5. 1	1	50

(日本語), 朝鮮語, 算術, 國史(日本歷史), 地理(日本地理), 理科, 職業, 圖書, 唱歌 및 體操로 하였고 女學生에게는 家事 및 裁縫을 課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地域社會 實情에 따라 手工業 또는 隨意科目으로서 漢文을 課할 수 있었는데 다만 修業年限 4年의 경우에는 앞의 教科目에서 國史 및 地理를 課하지 않게 하는 반면 漢文을 隨意科目으로 課할 수 없게 하였다.

6年制 普通學校의 教科目 및 週間 教授時數는 다음과 같다.

普通學校의 教科目 및 週間教授時數表[58]

學科目 \ 學年	1	2	3	4	5	6
修身	1	1	1	1	1	1
國語	10	12	12	12	9	9
朝鮮語	5	5	3	3	2	2
算術	5	5	6	6	4	4
國史	—	—	—	—	2	4
地理	—	—	—	—	2	2
理科	—	—	—	2	2	2
職業	—	—	—	男2	男2	男3
	—	—	—	女1	女3	女1
圖書	(1)	(1)	1	1	男2	男2
					女1	女1
唱歌	3	3	1	1	1	1
體操	—	—	3	男3	男3	男3
	—	—		女2	女2	女2
家事및裁縫	—	—	—	2	4	4
手工	(1)	(1)	(1)	(2)	(2)	(2)
計	24	26	27	男33 女31	男35 女31	男35 女31

資料：成宗圭,「教育課程 沿革調査(前篇)」. (1974)

備考：( ) 안의 數는 따로 課할 수 있는 時間數이고 實習은 教授 時數 외에 課할 수 있음.

57) 上揭書, p. 245

58) 京畿道 教育委員會의 成宗圭 引用을 再引用

6季制 普通學校에는 2年制의 高等科를 附設할 수 있었는데 이때의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 算術, 國史(日本歷史), 地理(日本地理), 理科, 職業, 圖書, 手工, 唱歌, 體操, 그리고 女學生에게 家事와 裁縫을 課하였다. 이밖에 漢文과 必要한 科目을 隨意科目으로 課할 수 있었으며 職業科目에서 工業을 이수하는 學生에게는 手工을 課하지 않았다.

高等課의 教科目 및 週間 教授時數는 다음과 같다.

高等科(普通學校)의 教科目 및 週間 教授時間表[59]

學年 / 教科目	1	2	備考
修身	1	1	
國語	7	7	
朝鮮語	2	2	
算術	4	4	
國史	2	2	
地理	2	2	
理科	2	2	
職業	南 6 女 2	南 6 女 2	
圖書	1	1	
手工	1	1	
唱歌	1	1	
體操	南 3 女 2	南 3 女 2	
家事	—	—	
裁縫	5	5	
計	男37 女32	男37 女32	

資料：成宗圭,「教育課程 沿革調查(前篇)」

(2) 簡易學校의 教育課程

簡易學校의 修業年限이 2年이었으며 普通科의 教科 比率을 2：1로 課하였다.

(3) 高等普通學校의 教育課程

高等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5年이며 1年 課程의 補習課를 둘 수 있다.

高等普通學校의 教科目은 修身, 國語(日本語) 및 漢文, 外國語,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 化學, 法制 및 經濟, 實業, 圖書, 唱歌 및 體操로 課했으며 外國語는 英語, 獨語, 佛語로 하였다.

59) 京畿道教育委員會의 成宗圭 引用을 再引用함.

高等普通學校의 敎科目과 週間 敎授時數는 다음과 같다.

簡易學校의 敎科目 및 週間 敎授時數表[60]

學年 / 敎科目	1	2	備考
修身	2	2	
國語	12	12	
朝鮮語	2	2	
算術	4	4	
職業	10	10	
計	30	30	

資料：成宗圭,「敎育課程 沿革調査(前篇)」

高等普通學校의 敎科目 및 週間 敎授時間表[61]

學年 / 學科目	1	2	3	4	5
修身	1	1	1	1	1
國語및漢文	7	7	6	5	5
朝鮮語및漢文	2	2	2	3	3
外國語	6	6	6	5	5
歷史·地理	3	3	3	3	3
數學	4	4	4	4	4
博物	2	2	2	1	—
物理및化學	—	—	2	4	3
法制및經濟	—	—	—	—	1
實業	2	2	2	3	3
圖書	1	1	1	1	1
唱歌	1	1	—	—	—
體操	3	3	3	3	3
計	32	32	32	33	32

資料：成宗圭,「敎育課程 沿革調査(前篇)」

60) 京畿道敎育委員會의 成宗圭 引用을 再引用

61) 京畿道敎育委員會의 成宗圭 引用 再引用

(4) 女子高等普通學校의 教育課程

女子高等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5年이였으며 地域에 따라 4年制도 있었다.

教科目은 修身, 公民科, 國語(日本語), 朝鮮語, 外國語, 歷史, 地理, 數學, 理科, 圖書, 家事, 裁縫, 音樂 및 體操를 課하였다.

女子高等普通學校의 教科目 및 週間教授時數 는 다음과 같다.

高等普通學校의 教科目 및 週間 教授時間表[62]

學科目 \ 學年	1	2	3	4	5
修身	1	1	1	1	1
公民科	—	—	—	—	1
國語	6	6	6	5	5
朝鮮語	3	3	3	2	2
歷史·地理	3	3	3	3	2
數學	3	3	3	2	2
理科	2	2	2	3	3
圖書	1	1	1	1	1
家事	—	—	—	—	4
裁縫	4	4	4	4	4
音樂	2	2	2	1	—
體操	3	3	3	3	3
計	30	30	30	30	30

資料 : 成宗圭,「教育課程 沿革調査(前篇)」

※ 公民科는 1932年 3月 女子高等普通學校 規定을 府令으로 改定한 후부터 實施.

4. 日帝 末期의 教育政策과 廣州教育

韓國을 植民地로 確保한 日本은 이를 바탕으로 大陸侵略을 劃策하여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을 일으켰으며 이 두 戰爭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政治, 社會, 經濟, 教育 등에서 超非常事態를 맞게 되었다.

戰爭遂行을 위한 非常對策에 따라 教育政策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와 이 時期의 教育을 철저한 日本化教育과 教育의 戰時體制化에 있었으므로 모든 教育活動을 日帝의 戰爭遂行을 위한 手段으로 利用될 수 밖에 없었다.

朝鮮民族을 皇國臣民化하려는 그들의 計策을 더욱 간교하고 악랄해졌다.

62) 京畿道教育委員會, 前揭書, pp. 309－310

1) 戰時體制下의 植民地 教育정책

1936年에 부임한 南次郎總督은 철저한 日本化教育과 教育의 戰時體制化를 위해 〈國體明徵〉〈內鮮一體〉〈忽若鍛鍊〉의 교육정책을 提示했다. 이 교육정책은 初等教育에서부터 高等教育에 이르기까지 추구해야 할 교육 궁극의 目標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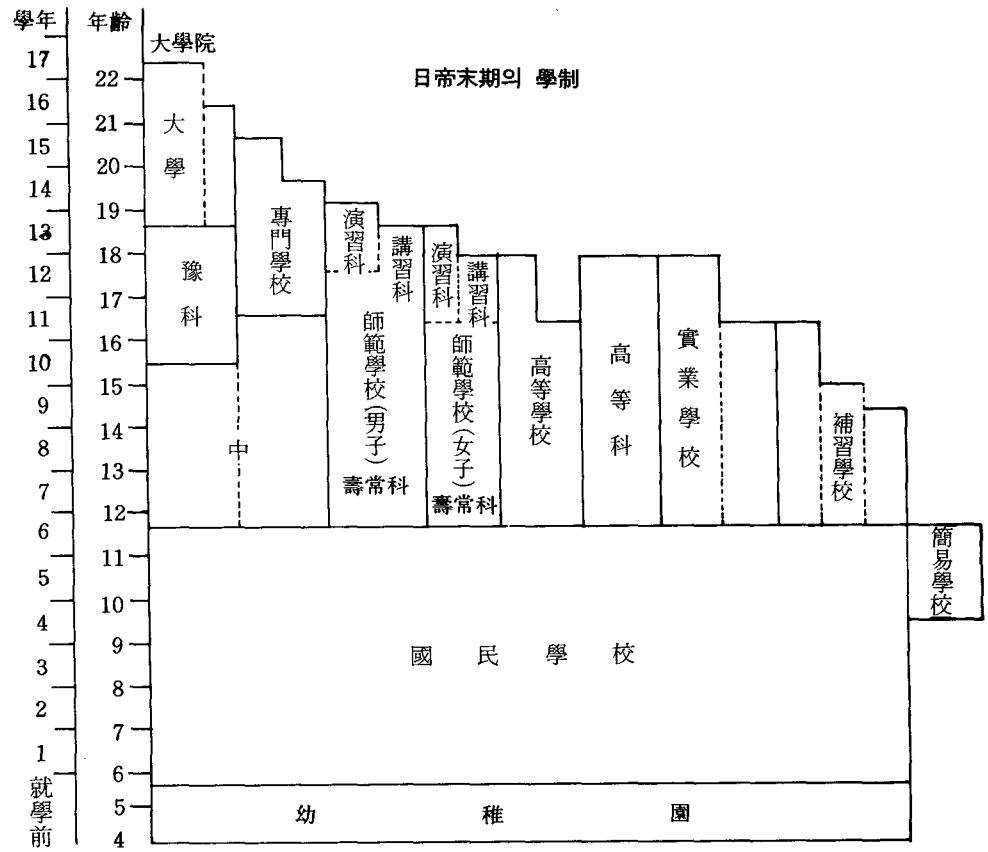
그 內容은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63]

(1) 國體明徵 : 이는 皇國臣民化 教育의 指導精神으로 우리를 日本 國家의 번영에 奉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日帝는 모든 學校에 神社參拜를 強要하였다.

(2) 內鮮一體 : 韓國人과 日本人이 같은 皇國臣民이며 歷史的 뿌리가 같은 一體라고 강조했다.

(3) 忽若鍛鍊 : 언제나 一死로서 君國을 받들려는 각오로 精力과 熱血을 경주하고 어떠한 곤경도 극복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政策은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民族의 精神的 文化的 바탕을 파멸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戰時目的을 위한 강력한 皇國臣民化 政策이었다.[64]



63) 上揭書, p. 862.

64) 日帝末期인 1938年 3月3日 勅令 第10號로 公布한 3次朝鮮教育令에 따른 것임.

2) 戰時의 改正 朝鮮教育令

日帝는 〈國體明徵〉〈內鮮一體〉〈忍若鍛鍊〉의 教育政策 수행을 위해 第3次 改正 朝鮮教育令을 1938年 3月 3日 勅令 第10號로 公布했다.

이 改正教育令에는 帝國臣民化라는 用語가 皇國臣民化라는 用語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教育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各級學校의 명칭이 日本의 그것과 同一하게 바뀌었다.

모든 學校의 教科에서 朝鮮語科를 必順에서 선택으로 돌려 語文 抹殺을 더욱 노골화했다.

그들이 同等한 교육을 指向한다 함은 결국 우리의 民族魂을 없애고 그들의 충복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皇國臣民化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僞裝政策에 불과했다.

3) 日帝末期의 廣州의 教育機關

日帝 末期의 10年間의 廣州教育은 量的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룩하고 있다. 成長은 특히 初等教育分野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忠良한 臣民의 教育은 初等教育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들의 底意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1936年에 日本人 教育을 위한 尋常小學校가 2個校이던 것이 5年 後인 1941年에도 2個校도 없었으며 공립국민학교는 13個校에서 16개교로 3個校가 증설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취학아동수가 배이상 늘어났다. 또한 간이학교는 1936年에 3개교이던 것이 1941年에 5개교로 늘어났다.

1938年에는 최초의 中等教育機關인 實業補習學校가 設立되어 28名의 學生이 入學하기도 했다.

中等教育이 私學에 의존해서 發展되었으나 이時期까지 廣州에는 私學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幼稚園 또한 設置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어찌보면 保守性이 強한 廣州의 기질이 新教育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은연 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私學과 幼稚園 教育에 대한 不毛의 땅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日帝 末期에 新設된 教育機關은 다음表와 같다.

新設 教育機關[65]

1941年 現在

學校名	所在地	設立年月日	學級數	教員數		學生數			校長名
				韓人	日人	男	女	計	
五浦公立國民學校	五浦面추自里	1935. 10.	3	3	1	125	45	170	人保孝太郎
陶水公立國民學校	退村面陶水里	1935. 10	3	1	2	137	50	187	三原正郎
西部公立國民學校	西部面甘一里	1936. 10	3	2	1	134	56	190	淵上寧
南漢山公立國民學校									
附設壽進簡易學校	中部面壽進里	1936. 4		1	1	65	24	89	
五浦公立國民學校	五浦面梅山里	1939. 7		1	1	36	26	64	
附設梅山簡易學校									
廣州公立農業實修學校	廣州面驛里	1938. 5	1	1	2	28	-	28	島村乙作

65) 京畿道,《京畿道勢概要》p.1941年 現在

한편 青少年의 教育을 위해서 公立青年訓練所를 運營하고 있었는 바 學業에 지장이 없는 休業期나 體日, 夜間, 아침時間 등을 利用해서 青少年에게 철저한 植民地 教育을 實施하려고 試圖했다. 이무렵 廣州郡에 設立되어 있던 青年訓練所는 다음과 같다.

青年訓練所 設置狀況[66]

1941年 現在

訓練所名	所在地	創立年月日	指導員				學生數			備考
			보통학과	교련과	직업과	계	韓人	日人	計	
廣州公立青年訓練所	廣州面	1940. 7	2	2	2	6	35	-	35	
九川公立青年訓練所	九川面	1940. 7	2	2	1	5	50	-	50	
中垈公立青年訓練所	中垈綿	1940. 7	2	2	1	4	46	-	46	

小學校의 教科目은 修身, 國語, 算數, 國史, 地理, 理科, 職業, 圖畫, 手工, 唱歌, 體操였으며 女子를 위하여 家事와 裁縫을 따로 두고 있었다.[67]

4) 日帝末期의 教育內容

(1) 公立國民學校의 教育內容

小學校의 教育目的은 '兒童身體의 健全한 發達에 留意하여 國民道德을 涵養하고 國民生活에 필요한 普通의 知能을 얻게 함으로써 忠良한 皇國臣民을 育成하는 데 있다.'고 小學校規定 第1條에서 밝히고 있어 教育의 力點이 忠良한 皇國臣民을 育成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中等學校의 教育內容

中學校의 教育目的은 '男子에게 필요한 高等普通教育을 하고 특히 國民道德을 涵養함으로써 忠良有爲의 皇國臣民을 養成하기에 힘쓴다'고 中學校規定 第1條에서 밝히고 있다. 修業年限은 5年이며 1年 이내의 補習科를 둘 수 있었다.

教科目은 受信, 公民科, 國語, 漢文, 歷史, 地理, 外國語, 數學, 理科, 實業, 圖畫, 音樂, 體操 외에 朝鮮語는 隨意科로 하였다.

(3) 小學校의 教科書 政策

日帝末期의 教科書 編纂方針은 原則的으로 著作權을 文部省이 가지고 採定權은 道知事가 가졌다.

修身, 國語, 算術, 國史, 地理, 理科, 家事, 圖畫를 제외한 기타의 圖書에 限하여 위의 規定에 구애됨이 없이 文部省에서 著作權을 갖고 있거나 文部大臣의 檢定을 받을 것 중에서 道知事가 채택할 수 있었는데 朝鮮總督府에서 편찬한 小學校用 教科圖書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使用할 수 있게 했다

體操, 家事, 裁縫, 手工 및 小學校 4學年 이하의 唱歌에 관하여는 兒童에게 教科用 圖書를 使用할 수 없게 하였으며 國語, 君道, 算術, 理科, 圖畫의 教科用 圖書 및 小學校 地理府圖는 學校長이 兒童에게 使用시킬 수 있게 하였으나 때로는 上部의 認可를 받게 했다.[68]

---

66) 上揭書, p.

67) 京畿道教育委員會, 前揭書, pp. 320-321

68) 上揭書, p. 331.1941年 現在

第6節 民族解放과 廣州教育

1. 光復과 美軍政의 教育政策

1945年 8月 15日은 民族史에 중요한 획을 긋는 날이었다. 日本의 패망과 함께 오욕의 時代가 끝나면서 民族解放의 뜨거운 감격을 가져다 준 날인 것이다. 그러나 光復의 기쁨은 잠시뿐 民族의 解放이 自力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日本軍의 武裝解除라는 名分으로 38線을 境界로 南韓에는 美軍이, 北韓에는 소련軍이 進駐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國土가 分斷되고 民族이 分裂되어 南韓에는 3年間의 美軍政이 實施되었다. 民族 悲劇의 또 다른 잉태였다.

軍政의 實施와 함께 教育部門의 政策도 美軍政의 學務局에서 樹立하여 實施하게 되었다. 우선 급한 것이 教育行政機構를 整備하고 學生을 소집하여 學校를 여는 일이었다.

美軍政의 學務局은 1945年 9月 17日에 一般命令 第4號로 同年 9月 24日을 기해서 公立初等學校에 대하여 授業을 開始할 것을 指示하였으며 이 措置도 教育界는 충격과 혼돈에서 깨어나 서서히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었으며 解放後의 教育界의 進路를 진지하게 展望하면서 모색하게 되었다. 私立國民學校는 개교전에 當局의 許可를 받도록 조치했다. 同年 9月 28日에는 各道에 통첩을 보내어 中學校 以上의 學校에서도 授業을 開始할 것을 指示했다. 따라서 廣州의 初等學校는 9月 24日부터, 中學校는 9月 28日부터 정상 授業을 實施하게 되었다.

같은 해 12月 19日에 兪億兼이 學務局長에 임명되고 1946年 3月 29日 學務局은 軍政法令 第64號에 의해 文教部로 승격이 되었다.

한편 1945年 11月 23日에 教育界와 學界의 권위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朝鮮教育審議會를 구성하고 이 機構를 통하여 새나라의 教育理念과 教育制度를 研究 提示하게 하였다. 따라서 美軍政下에서의 教育理念과 政策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마련이 된 것이다.

이때 第1分科 委員長이었던 安在鴻이 보고한 教育理念과 教育方針은 다음과 같다.[69]

弘益人間의 建國理念에 基하여 人格이 完全하고 愛國精神이 투철한 民主國家의 公民을 養成함.

위의 理念 貫徹을 위하여 下記 教育方針을 樹立함.

① 民族的 獨立 自存의 기풍과 國際우호·협조의 精神이 俱全한 國民의 품성을 도야함.

② 實踐窮行과 勤勞力作의 精神을 強調하고 충실한 責任感과 상호 애조의 公德心을 발휘케 함.

③ 固有文化를 醇化昂揚하고 科學技術의 獨創的 創意로써 인류 문화에 공헌을 기함.

④國民體位의 向上을 圖謀하며 聖忍不拔의 기백을 함양케 함.

⑤ 崇高한 藝術의 鑑賞, 創作性을 고조하여 淳厚圓滿한 人格을 養成함.

---

69) 韓國青年文華研究所, 前揭書, p. 330.

이러한 教育理念을 設定함에 있어 古朝鮮의 建國說話에서 〈弘益人間〉을 도출한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教育制度는 종래의 二元制에서 一元制를 채택하여 單線型 學制를 가지게 되었으며 國民學校 6年, 中學校 3年, 高等學校 3年, 實業高等中學校 6年, 師範學校 3年, 大學 4年, 의과대학 6年(前期 2年을 豫科라고 함), 大學院 1年 以上의 修業年限을 두었다.

이처럼 學制를 6·3·3·4制로 확정한 것은 美國의 教育制度르 참작한 것이기는 하나 이 또한 朝鮮教育審議會의 공로이다.

그리고 學期制는 재래의 3學期를 폐지하고 1年을 2學期로 나누었고 1學期를 9月부터 다음해 2月까지, 2學期를 3月부터 8月까지로 定하고 1946年 9月부터 施行하기로 하였다.

美軍政下의 文教政策은[70] 첫째, 教授用語를 韓國語로 使用하는 일, 둘째, 日帝殘滓인 皇國思想의 조속한 拂式, 세째, 民主教育 理念의 普及을 위한 教員再教育講習, 네째, 教育制度의 民主化와 教育施設의 擴充, 다섯째 文盲退治를 위한 成人教育 등이었다.

2. 民族教育의 再開와 廣州教育

廣州의 國民學校가 다시 校門을 연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45年 9月 24日의 일이었다.

이것은 美軍政의 一般命令 第4號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令에 의해서 廣州의 中等學校로 9月 28日부터 등교가 시작되고 국기게양대에 우리의 太極旗가 게양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校庭에서는 힘차고 우렁찬 愛國歌가 울려 퍼졌으며 教室에서는 우리 말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 왔다.

廣州教育의 힘찬 出發이 시작되는 장엄한 순간이며 民主韓國의 序章이 열리는 歷史的 순간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廣州教育은 「한글의 첫걸음」이 教材의 全部였다.

이때 京畿道의 教育責任者는 美軍政에서 任命한 金元圭였으며 中等係 視學官에 李德鳳, 初等系 視學官에 朴哲圭가 취임해서 奬學業務를 관장했다.

이들은 우선 各級學校의 校長을 任命할 절차를 마련하여 軍政 京畿道의 승인을 요청하여 1945年 9月 30日字로 正式 發令을 받게 하고 신임 學校長으로 하여금 京畿教育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케 하였으며 廣州의 各級學校長의 임명도 이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 무렵의 京畿道 教育時策은 美軍政의 文教政策을 具現하기 위해서 設定된 것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첫째, 教授用語의 우리말 使用, 둘째, 教員 再教育의 實施 세째, 文盲퇴치를 위한 成人教育으로 定하여 이를 推進함으로써 廣州教育 역시 이 教育時策을 구현하는 데 力點을 기울였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70) 中央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 研究所「文教史」(서울 : 中央大學校 出版社, 1974) pp 29~30

(1) 教授用語의 우리말 使用

日帝治下에서 그들의 國語常用이라 하여 國民學校 어린이에서부터 每國語가 아닌 日本語를 강제로 使用시켰으므로 每國語의 회복은 教育의 가장 시급한 課題일 수밖에 없었다. 1945年 9月 24日부터 公立學校의 教育活動이 再開됨에 따라 廣州郡의 各級學校에서 韓國語를 교육用語로 使用할 것을 教育時策으로 펴나간 것이다.

(2) 教員 再教育 實施

日帝의 治下에서 소위 皇國臣民化의 教育政策을 충실히 따르기를 강요받던 당시의 教師들이 새 時代의 새 教育을 열어가기에는 資質이 크게 不足한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새교육을 담당하게 될 教師들을 위해 1945年 12月 22日 부터 1946年 1月 19日까지는 初等學校 教員을, 1946年 1月 9日부터 1月 18日까지는 中等教員을 위한 再教育講習會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서 受講을 마친 京畿道의 教員이 廣州郡 教員을 비롯하여 各市郡의 教員에 대한 再教育을 實施하여 새 時代의 教員上과 新教授法, 民主主義 教育理念을 체득케 했다.

(3) 文盲退治를 위한 成人教育

解放 당시의 우리나라의 12歲 以上 總人口의 79%가 文盲者였고 京畿道의 문맹율이 68%였으므로 문맹퇴치를 당면시책으로 設定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새教育運動의 시작[71]

8·15해방과 더불어 한국교육계는 죤 두이(J Dewey)의 經驗主義 教育哲學의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어 새로운 교육운동이 전개됐다.

전통적 教育을 止揚하고 民主主義의 이념 위에 教育을 세우려는 이 운동은 그 후 상당 期間을 한국의 교육계를 풍미했었다. 듀이의 教育思想은 당시 韓國教育을 이끄는 指針이었으며 經驗主義에 의한 生活中心 教育을 〈새 教育〉이라 불렀다.

새教育運動의 必要性을 강력하게 主唱했던 吳天錫의 기록을 보면 새 교육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 교육의 階級主義, 差別主義를 배격하고 民主精神에 터를 둔 새로운 교육제도를 希願하는 것이었다.

둘째, 人間을 道具化, 手段化하는 교육을 배척하고 人間 自體를 위한 教育을 第1主義的 目的으로 하는 教育을 提唱했던 것이다.

세째, 옛 교육의 特色인 抑壓主義的 教育에 反旗를 들고 自由에 기반을 둔 교육을 시도한 것이다. 個人의 權利가 중요시되고 個人的 能力, 性格, 취미, 希望등이 존중되는 교육방식이었다.

네째, 과거의 文化的 유산을 전달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는 知識中心教育, 現在의 生活과 遊離된 書籍中心主義 教育을 배격하고 사람 全體의 成長, 發展을 目標로 하는 현실과 따뜻한

71) 水原市史編纂委員會 範揭書, p.1334

교섭을 가진 산 教育을 志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새 교육운동의 方向에 따라 光州教育界에서도 教授方法의 혁신과 生活指導方法의 改善, 그리고 特別活動의 다양한 전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美軍政期의 京畿道 教育行政

8·15 解放 이후 美軍政이 實施됨에 따라 教育行政組職에 큰 變革을 가져왔다. 즉 中央集權的 教育行政組職에서 地方集權的 教育行政組職으로 發展하기 始作한 것이다.

軍政 當時 中央의 文教行政組職을 보면 軍政官 락카아드(E.L.Lockard)大尉가 軍政廳의 教育部門에 있어 學務局 責任者였고 산하에 6課를 두고 課長을 韓國人으로 任命했다.[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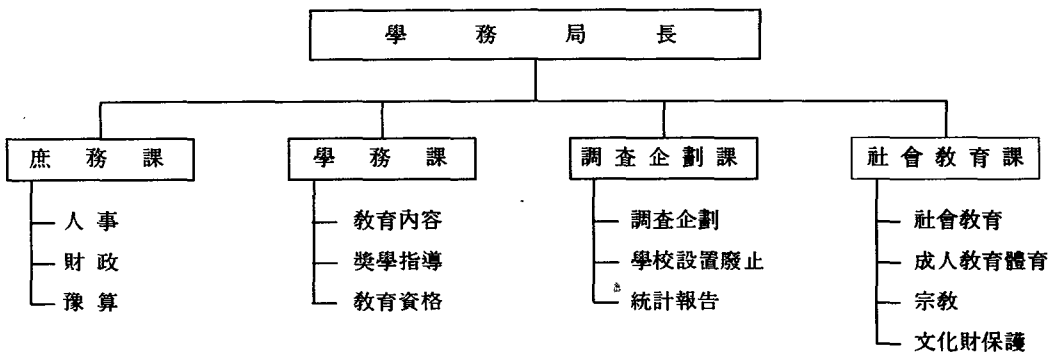
1945年 12月 19日에 兪億兼이 局長으로 任命됨과 동시에 學務局이 9課로 改編되었다.

本道의 教育行政機構는 中央의 行政機構의 改編 때마다 改編될 수 밖에 없었으며, 軍政 實施 直後 本道의 教育行政을 形式上으로 종래 日帝時代의 機構와 같이 軍政廳 京畿道 內務局에 예속되어 있는 學務課가 担當하고 있었으나 實質的으로는 內務局을 떠나 獨立된 行政機構로 運營되었던 것이 하나의 特徵이었다.[73]

廣州郡의 教育行政도 이와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郡의 行政機構에 그대로 예속되어 運營되고 있었다.

當時 京畿道의 教育行政의 實質的인 責任者는 學務課長 金元圭였다.

1946年 10月 23日에 軍政社會 第114號에 의하여 中央行政機構의 改編에 따라 學務課가 學務局으로 昇格되었으며 이에 따라 本道 學務國의 機構는 다음과 같이 改編되었다.



72) 上揭書, p. 383.

73) 上揭書, p. 383.

第七節 第1共和國과 廣州教育

1. 建國 初期의 廣州教育

改正의 桎梏으로부터의 解放은 곧 大韓民國의 樹立과 이어지지를 않았다. 이는 民族의 또 다른 悲劇의 始作이었다.

勝戰國인 美國과 蘇聯은 38線을 境界로 우리나라를 分割 점령하여 駐屯하므로써 온 國民의 분노를 샀다.

이 時期의 혼미한 政治狀況은 北韓集團의 赤化野慾을 부채질했으며 美國은 1947年에서야 韓國의 獨立 問題를 UN에 提出했다.[74]

UN은 韓國 國民의 自由와 獨立을 즉시 實現하게 한다는 提示 아래 UN韓國委員團을 파견할 것을 決議하고 그 監視 아래 南北韓의 人口 比例에 따른 普通 選擧를 實施할 것을 決定했다.

그러나 本心이 달랐던 蘇聯 점령하의 北韓 共產黨은 이 決定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韓國委員團의 北韓에서의 活動은 不可能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自然히 UN韓國委員團의 活動은 南韓地域에 限定되었으며 選擧는 活動이 可能한 地域을 對象으로 實施하여 大韓民國政府를 樹立할 것을 決議하게 되었다.

이러한 UN의 決定에 의해서 1948年 5月 10日 5000年 歷史上 처음으로 民主方式에 의한 總選擧를 以南地域에서 實施하여 制憲國會를 構成하고 7月 17日에 歷史的인 憲法을 制定 公布하였다.

이 憲法에 따라 初代 大統領을 선출하여 政府를 樹立하고 8月 15日에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을 世界 萬邦에 宣布하였다.

政府의 樹立과 함께 初代 文教部長官에 安浩相이 취임하여 民主主義 民族教育을 강력히 주장하고 國民思想을 歸一시켜 反共精神을 確立시키기 위하여 一民主義 思想을 펴나갔다.[75]

1) 學徒護國團 設置와 一民主義

一民主義는 初代 文教長官에 就任한 安浩相의 主唱에 의한 文教時策이였다.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에 바탕한 一民主義教育은 學園의 思想的 安定과 反共體制의 確立을 가져 왔으며 學徒護國團의 設置로 本格的인 活動이 展開되게 되었다.

一民主義라고 지칭된 말의 槪念은 弘益人間의 理念에 立脚하여 南北이 民族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民族的 念願을 一民主義라는 表現으로 불렀으며 이는 當時의 혼란했던 政勢를 타개하기 위한 教育政策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當時 一民主義 思想 普及을 教育에서 최대의 課題로 삼고 있었음은 이때문이다. 一民主義

74) 韓國青年文化研究所, 前揭書, p. 333

75) 上揭書, p. 333.

教育理念을 바탕으로 文教部는 學生들의 團體訓練을 통하여 身體를 鍛鍊하고 精神을 鍊磨하여 學園內에서 左翼系列의 策動을 分碎하며 또 民族意識을 高唱함으로써 愛國的 團結心을 涵養하겠다는 趣旨에서 1948年 12月에 中等學校 以上의 各級學教에 學徒護國團을 組織키로 決定하였다.[76]

이에 따라 1948年 12月부터 學生幹部 2,400名을 文教部에서 선정하여 中央學徒訓練所에 入所시켜 短期軍事訓練을 實施하고 學生 訓練을 위하여 全國 中·高·大學의 體育教師 387名을 陸軍士官學校에 入校시켜 短期 訓練을 시키는 등 必要한 準備를 마친 뒤 1949년 1월 23일 〈學徒護國團 組織要領〉을 公布했다. 이에 따라 京畿道에서도 1949년 2月에 學徒護國團이 創設되었으며 이를 즈음하여 廣州의 유일한 中等教育機關이었던 廣州中學校에서 學徒護國團이 創設되었다.

당시의 혼란한 政勢에 비추어 學園의 思想的 安定과 反共體制의 確立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課題였으며, 學徒護國團의 創設 運營으로 學園이 점차 安定을 찾아 갔다.

文教部長官 安浩相이 당시에 밝힌 學徒護國團 設置動機를 보면 다음과 같다.[77]

> 동서 고금의 역사를 들춰보면 한 나라와 민족의 되살림(再生) 운동은 항상 知性의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日帝의 압박에 조국의식이 흐려지고 美·蘇의 지배에 民族思想이 분열되었다. 이 흐려진 의식과 분열된 사상을 바로잡아 민족이 재생하려면 우리 젊은 학도들에 自主的 民主教育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민족의 운명은 이 젊은 학도들이 좌우하게 된다. 이들의 올바른 교육은 一民主義 그 첫째 단계인 제 민족의 統一獨立의 思想教育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저들의 힘으로써 학교내의 공산분자들의 파괴행동을 막아내고 진실히 공부하며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資本國家的인 行動과 活動을 버리고 항상 씩씩하고 협동적이며 조직적인 행동과 기풍을 기르기 위하여 自律的이며 自治的인 學徒護國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安浩相의 一民主義는 人間主義와 民主主義를 바탕으로한 民族主義로서 다음 다섯가지 原則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78]

① 바른 백성(正民) 곧 한밝삶(大學生)으로서의 한백성 주의 ② 백성통일(民族統一)로서의 한백성주의 ③ 세계 한백성(世界一民)으로서의 한백성주의 ④ 만백성 다같이(萬民同一)로서의 한백성주의 ⑤ 백성 첫째 (一民第一)로서의 한백성주의

文教部는 學徒護國團 組織은 原則的으로 學校教育을 받고 있는 中高等學校이상의 男女學生 및 同校 教員을 團員으로 組織하게 되어 있었다.

學徒護國團의 規約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79]

---

76)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研究所, 前揭書, p. 21

77) 韓國青年文化研究所, 前揭書, p. 335

78) 上揭書, p. 234

79) 京畿道教育委員會, 前揭書, pp. 387－388

① 學園의 守護와 鄕土防衛의 成果를 高度로 推進시키기 위하여 學校別 地域別로 團을 組織한다.

② 學徒護國團은 敎鍊과 不離一體性을 가진 有機的 組織體로 한다.

③ 全國的인 總合體로는 中央學徒護國團이 있으며 總裁는 大統領으로 추대한다. 그리고 傘下團體로서 市道學徒護國團 다시 그 아래 學校 單位別 學徒護國團을 둔다.

④ 京畿道 學徒護國團 團長은 道知事, 副團長은 文敎社會局長으로 추대하고 學校別 學徒護國團은 當該 學校長이 團長으로 校監이 副團長으로 組織한다.

⑤ 京畿道 學徒護國團 및 學校學徒護國團에는 當該 學徒護國團의 運營에 關한 主要 事項을 審議하는 指導委員會를 두고 道 學徒護國團에는 事務局을 두어 學徒護國團에 關聯된 一體의 業務를 管掌한다. 學校 學徒護國團에는 學生 代議員으로 組織되는 運營委員會를 둔다.

⑥ 學校 學徒護國團 內에는 다음과 같은 部를 두고 關係된 業務를 맡아보게 한다.

㉠ 總務復 ㉡ 工作部 ㉢ 紀律部 ㉣ 學藝部, ㉤ 厚生部 ㉥ UN學生部 ㉦ 體育部 ㉧ 訓鍊部

⑦ 그밖에 編隊團體訓鍊 實施上 必要에 의하여 全體學生을 大隊, 中隊, 小隊로 編成하되 이를 學校 訓鍊 編隊와 同一하게 하였다.[80]

學徒護國團의 組織을 圖式化하면 다음표와 같다.

2) 敎育法制定과 敎育理念의 定立

大韓民國 政府 樹立과 함께 建國理念에 부응하는 敎育基本法을 制定하게 되었다.

1949年 6月 3日부터 初案 審議에 착수하여 여기서 成案된 案이 1949年 11月 30日에 國會를 통과하고 同年 12月 31日 公布되었다. 이로써 敎育理念으로 '弘益人間'이 法的인 理念으로 된 것이다.

敎育法 第1條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갖추게 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기여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弘益人間'이란 檀君聖祖의 建國理念이며 「三國遺事」와 「帝王韻記」에있는 말로 有史以來 우리 民族의 信念인 것이다.

敎育法은 또한 敎育自治制 實施를 위하여 제2장에서 郡을 단위로 敎育區를 두고 특별시에 特別市 敎育委員會, 市에 市敎育委員會, 中央에 中央敎育委員會, 道에 道敎育委員會를 둔다고 되어 있다.

이 敎育法에 나타난 學制는 다음과 같다.[81]

① 國民學校 6年

② 中學校 4年

③ 高等學校 1~3年(中學校 3年 修了後 入學)

④ 大學 4年~6年(高等學校 卒業 後 入學)

⑤ 初級大學 4年(中學校 卒業 後 入學)

---

80) 上揭書, pp. 387-388

81) 上揭書, p.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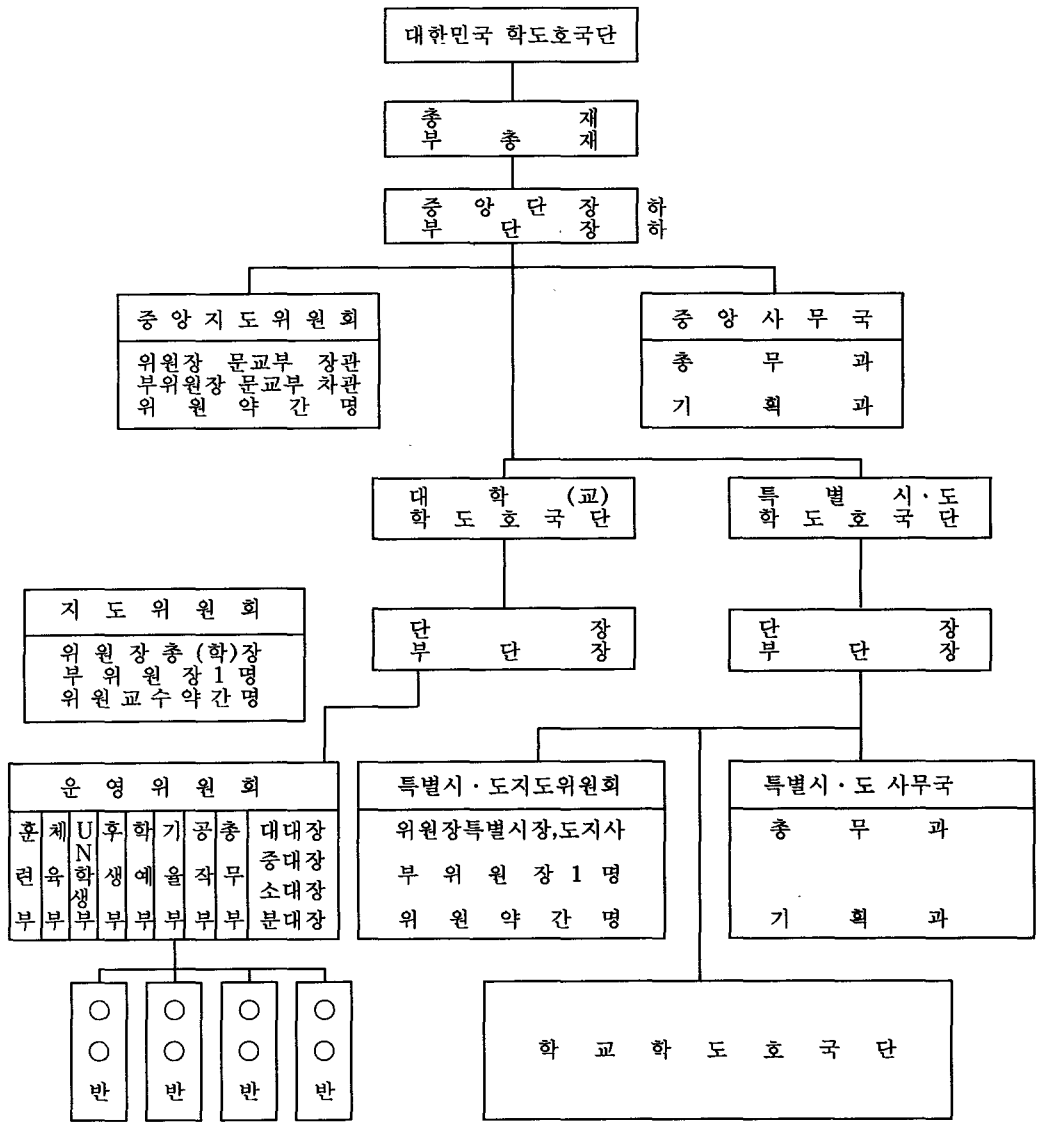
⑥ 初級대학 2年(高等學校 卒業 後 入學)

⑦ 師範學校 3年(中學校 卒業 後 入學)

⑧ 師範大學 2年 또는 4年(高等學校卒業 後 入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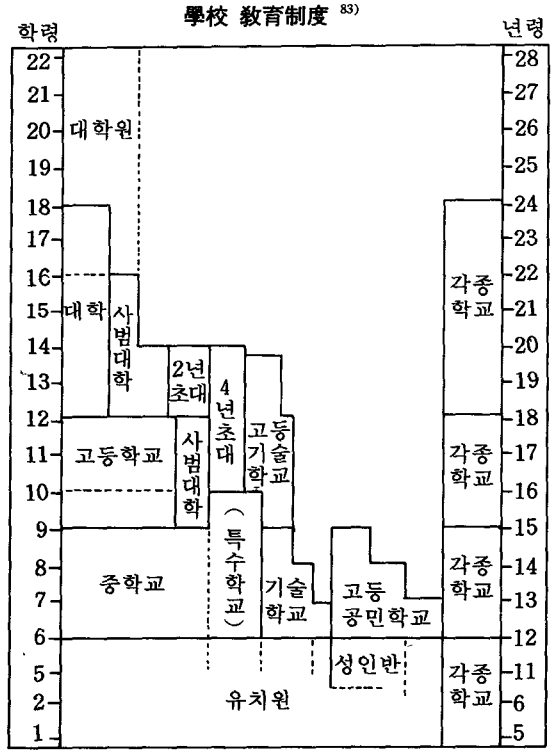
⑨ 公民學校, 高等公民學校, 高等技術學校, 技術學校 등이다.

中央學徒護國團 組織 [82]



82) 上揭書 p. 389.

學校 教育制度 [83]



이 學制는 다시 1950年 2月 10日에 學制改正安이 國會를 통과하고 3月 10日에 公布되어 中學校를 3年으로 하고 初級大學 4年制를 삭제하게 됨으로써 歷史的인 6·3·3·4制의 單線制가 완전히 樹立되었다.

3) 第1共和國에서의 廣州教育時策

(1) 義務教育 施策

우리나라의 義務教育은 1949年 12月 31日字로 教育法이 制定 公布됨으로써 實施되게 되었다.

學制가 美國型의 單線學制인 것처럼 義務教育 또한 歐美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 憲法에서 그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모두 國民에 대한 國家的 教育이 定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義務教育은 憲法에 명시된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데 法的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憲法以外에도 教育法의 精神과 內容에 따라 實施하게 되었다. 1950年 3月 16日에 京畿道 文教社會局에서는 道內 適齡兒童實態를 調査할 것을 市·郡 內務課에 指示하여 廣州郡의 學務系에서 이에 대하여 調査하고 對象 兒童 全員을 受容할 諸般準備를 마치고 1950年 6月 1日을 기해 대망의 義務教育을 향한 첫 巨步를 내디뎠다.[84]

廣州郡의 이러한 義務教育 施策은 1950年 6月 25日의 不意의 戰爭 勃發로 一時 그 推進이 中斷되는 불운을 맞기는 했으나 先進國의 義務教育을 制度化하여 그 實施를 위한 기반을 造

83) 京畿道 前揭書 p. 1343
84)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 393.

成했다는 데 큰 義意가 있다. 이때 調査되었던 就學兒童에 대학 統計는 戰亂으로 정확한 것이 남아있지를 못한다.

(2) 特別 活動 敎育의 實施

新敎育의 始作과 함께 日帝의 皇國臣民化 敎育이 청산되면서 廣州의 各級學校에서는 學生의 慾求에 부응하는 敎育活動이 활발하게 展開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趣味와 特技를 伸張시키려는 Club活動을 廣州國民學校를 비롯하여 郡內의 國民學校와 廣州中學校에서 實施하였다.

當時의 特別活動 敎育目標는 다음과 같다.[85]

① 어린이들로 하여금 創意表現의 機會를 갖게 한다.

② 社會人으로서 필요한 여러가지 技能, 態度, 習慣을 理解하게 하고 體得시킨다.

③ 어린이의 個性 伸張의 좋은 機會와 環境을 提供할 수 있다.

④ 學生 活動을 더욱 즐겁게 한다.

⑤ 身體의 發達을 도모하기 위하여 趣味的 運動을 하게 한다.

⑥ 自律的인 活動을 통하여 協同하고 奉仕하는 生活訓鍊의 機會를 갖게 한다.

⑦ 어린이의 餘暇活動을 올바르게 利用할 수 있게 한다.

⑧ 부드러운 情緖生活에서 生活內容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3) 敎育機關의 新設

8·15 解放과 함께 맞게된 軍政期間과 第1共和國 樹立 後 6 25 戰亂직전까지에 新設된 廣州郡의 敎育機關은 다음과 같다.

新設敎育機關

學 校 名	所 在 地	設立年月日
山谷國民學校	동부면 하산곡리	1948. 5. 1
晩仙國民學校	실촌면 마선리	1948. 5. 10
고골 國民學校	서부면 하산창리	1949. 9. 20
廣州中學校	광주읍 경안4리	1946. 4. 1

2. 6·25 動亂과 廣州敎育

第1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던 國民敎育은 예기치 못했던 6·25 事變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6·25 戰爭은 韓國을 美國의 防衛圈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소위 에치슨 聲明에 고무된 北韓의 南侵野慾이 빚은 民族的 悲劇이었으며 이 戰爭으로 인한 손실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치명적인 것이었으며 特히 敎育分野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

85) 上揭書, p. 413

다.

이 戰禍로 教育施設은 거의 파괴되었으며 어린 學生들은 거리를 헤메는 거리의 天使가 되었으며 青年教師들은 戰線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6·25는 뼈아픈 經驗을 통해 反共思想을 깊게 해 주었다.

1) 戰時의 教育非常措置와 廣州教育

戰時 중에도 教育은 中斷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어서 文教部에서는 1951年 1月 17日에 「戰時下의 教育特別措置要綱」을 發表하여 教育의 中斷을 막으려 필사의 努力을 기울였으며 教師 또한 불타는 使命感으로 教育危機를 극복하려고 애썼다.

이 戰時下 教育特別措置要綱의 大要를 정리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86]

첫째, 學校教育 再開에 대한 措置

1951年 1月 17日字로 戰時下 教育特別要綱을 發表하고 이 要綱에 따라 露天授業을 開始할 것을 示達하고 避難學生은 原住學校에 謄錄하여 授業을 받게 措置하였다.

둘째, 戰時用 教科書 發刊

戰時의 學習과 生活을 指導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文教部는 戰時教材로 「전시생활」 1, 2學年, 3, 4學年, 5, 6學年의 3種을 각각 3回에 걸쳐 發行하여 教材問題를 解決하려고 했다.

세째, 中學校 入學試驗에 대한 措置 1951년 7월 31일에 南韓의 修復地區全域에서 韓國教育史上 처음 있는 中學校 入學을 위한 國家考査가 實施되었다.

네째, 생벽돌 校舍 및 臨時 校舍의 建築

露天教室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생벽돌로 校舍를 짓거나 임시 校舍를 지을 것을 措置했다.

다섯재, 地方國立大學의 設置

우리 나라의 大學이 中央에만 集中되어 있어 教育의 機會 均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問題点을 解決하기 위해 全北, 全南, 慶南에 國立綜合學校를 設立하였다.

여섯째, 國民思想 指導院의 設置

韓國 國民의 올바른 國民思想 確立을 위하여 國民思想 指導院을 設置하여 運營하였다.

이와같은 戰時下 教育特別措置要綱에 따라 文教部에서는 戰時教育方針[87]을 設定하여 이를 적극 推進하였다.

첫째, 道義教育

道義教育을 제창하게 된 것은 國土建設을 하자는 데 그 본뜻이 있었다.

둘째, 1人 1技 教育

1인1기 教育은 戰爭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再建하는 데 필요한 技術 人力을 養成하려는 데 目的이 있었다.

세째, 國防教育

國防教育은 당시의 狀況으로 보아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國民體位 向上과 軍事的 技術錬磨

86)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 研究所 「文教史」 (서울 : 中央出版局, 1974), pp. 150~151

87)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p. 438~439

를 위한 教育은 世界安全防衛로 직결된다고 믿었다.

위와 같은 戰時 教育方針 위에 文教部의 奬學方針이 示達되었는 바 이 奬學方針은 곧 廣州郡 教育委員會의 奬學方針의 根幹이 되었다.

· 1952年의 奬學方針

① 自活人의 養成(個人) : 生活의 原理

② 自由人의 養成(國民) : 自由의 原理

③ 平和人의 養成(國際人) : 協同의 原理

· 1953年의 奬學方針

① 建國文教(建國教育)로서 道義教育과 生産教育

② 戰時文教(戰時教育)로서 生活教育과 國防教育

③ 獨立文教(獨立教育)로서 文化獨立과 教育自治

2) 教育自治制의 實施

教育自治制는 모든 教育者들의 한결같은 念願으로 이미 憲法과 教育法에서 明文化하고 있었다.

教育自治制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실한 참意義는 民主政治의 기반인 政黨政治의 파쟁이 教育에까지 미쳐 教育이 政權의 收單이 됨을 막기 위함이다.[88]

教育自治制를 規定한 教育法이 制定 公布된 것은 1949年 12月의 일이었으나 準備 期間 2年여를 거쳐 1952年 5月 24日 各 郡教育區와 各 市教育委員會의 委員이 선출되고 同年 6月 4日에 郡教育區에 教育委員會가 發足되었다.

이로써 內務部에 예속되어 있던 教育行政이 文教部 教育行政으로 移管되어 명실상부한 教育行政을 遂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廣州군 教育委員會가 構成되어 教育市政의 自治的 雲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廣州郡 教育廳 沿革誌에 따라 教育行政의 發展過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9]

- 1920. 11. 1 廣州郡 學校委員會設置 (執行機關)
- 1948. 8. 郡 教育區 및 教育委員會 設置令 制定(過度政府令 216, 217號)
- 1952. 4. 24 地方議會 議員選擧
- 1952. 5. 24 教育委員選擧
- 1952. 6. 4 教育自治制 實施
- 1952. 8. 8 初代教育監 南慶祐 選出(임시 廳舍 : 廣州國民學校內)
- 1953. 11. 25 教育監 職務代理 權赫東 就任
- 1954. 1. 12 2代 教育監 李景烈 就任
- 1957. 11. 8 教育區廳舍 新築(京安里 36番地 現廳舍)
- 1961. 3. 17 3代 教育監 丁宅鎭 就任
- 1962. 1. 1 教育自治制 廢鎭 廣州郡 教育課로 編入

88) 韓國青年文化研究所, 前揭書, pp. 345~346

89) 廣州郡教育廳, 《沿革誌》, 1988. p. 1~5.

○ 1964. 1. 1. 教育自治制 復亂로 廣州教育廳 發足 教育長 職務代理 이부열 就任
○ 1964. 3. 20 初代教育長(連4代) 權炳九 就任
○ 1968. 12. 15 2代教育長(連5代) 韓善永 就任
○ 1969. 4. 15 3代教育長(連6代) 劉雄烈 就任
○ 1973. 3. 1 4代教育長(連7代) 朴容大 就任
○ 1973. 7. 1 行政區域 改編에 따라 城南市 教育廳 分離
○ 1973. 7. 1 5代教育長(連8代) 金丙鍊 就任
○ 1975. 9. 1 6代教育長(連10代) 金丁奎 就任
○ 1977. 3. 1 7代教育長(連10代) 韓成完 就任
○ 1977. 11. 20 新廳舍 完工(現廳舍)
○ 1980. 9. 1 8代教育長(連11代) 李保鉉 就任
○ 1983. 9. 1 9代教育長 韓 憬 就任
○ 1985. 9. 1 10代教育長(連12代) 李容馥 就任
○ 1987. 3. 7 11代教育長(連13代) 金東燦 就任

郡教育委員會에 관한 規定

1. 郡에는 郡教育委員會를 둔다.

郡教育委員會는 제1차로 , 제2차로 文教部長官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구역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郡의 教育委員會는 郡과 郡議會에서 선출한 10人의 委員으로 조직한다.

3. 郡의 教育委員會에 必要한 경비는 市의 부담으로 한다. 教育稅와 기타 수입은 市의 특별 회계로 한다.

4. 郡教育委員會는 필요한 경우에 特別賦課金을 의결하여 군수를 통해 郡議會에 提出한다. 郡議會에서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教育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5. 郡教育委員會에 속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同法 第 37條)

①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사항
②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교육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
④ 起債와 借入金에 관한 사항
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⑦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⑧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其他설정, 건물 신개축에 관한 사항
⑨ 사회교육 및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⑩ 교육감 추천에 관한 사항.
⑪ 道 教育委員會 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

6. 郡教育委員會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를 통하여 郡議會에 제출한다. 郡議會는 이를 수정 또는 삭감하고자 할 때는 郡教育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7. 郡教育委員會는 教育監을 두게 되어 있는데 教育監은 教育公務員法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郡教育委員會의 추천으로 道知事와 文教部長官을 經由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8. 教育監은 教育委員會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同法 第43條)

① 教育委員會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 제출과 그 결의 사항의 집행
② 교원의 任免 등 人事에 관한 사항
③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⑤ 취학에 관한 사항

이상이 廣州郡教育委員會의 組織과 事務를 規定한 당시의 教育法中 第33條 및 第43條의 內容이다.

3) 各級 學校의 戰禍

6·25에 의한 教育界의 避害는 막심한 것이었다. 特히 廣州郡은 作戰地域에 속해 있었던 關係로 그 被害가 극심할 수 밖에 없었다.

京畿道誌編纂委員會의 資料에 따르면 6·25 當時 廣州郡間 國民學校의 被害는 26個校로 全燒가 3,129坪, 半燒破가 2,266坪, 被害金額이 當時의 價格으로 4,606,379,000환이며 기타 피해액 734,889,000환을 합쳐 5,341,268,000환이었다.

中學校의 被害狀況은 2個校에 全燒破 594坪, 被害金額 773,586圓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거의 모든 教育機關이 全燒되거나 半燒되어 실제로 教育活動을 展開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막학교를 세워 임시 校舍로 쓸 수 밖에 없었다.

3. 戰後 再建期의 廣州教育

1) 文教政策과 教育再建

仁川 상륙작전을 통해 한반도의 戰勢는 反轉되어 9·28收復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政府도 還都되었으며 文教行政도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還都 직후 第 4代 文教部長官으로 李瑄根이 就任한다.

그는 文教部의 基本政策으로 反共民主教育의 推進과 教育의 質的 向上 및 生活文化의 간소화를 提示하였다.

당시의 社會的 분위기로 보나 國家的 要求로 보나 이러한 文教政策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데올르기의 教育을 통한 反共教育만이 求國의 길이였을 것이며, 6·25戰爭으로 인한 教育의 피폐를 復舊하기 위해서도 教育의 質的 向上은 至上 命題였을 것이다. 당시의 文教政策을 좀더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90]

90) 문교부, 「文教○○」, (1958), pp. 20-25

첫째, 反共民主教育의 推進

北進統一에 대한 민족적 여망에 따라 反共教育을 강조하며 6·25戰爭을 통해서 겪은 共產主義 만행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철저한 反共意識을 함양함으로써 教育을 통하여 國民的 思想統一을 도모하는 데 注力하였다.

둘째, 教育의 質的 向上

事變으로 인한 教育施設의 破壞, 指導資料의 不足을 補充 再建하기 위하여 힘쓰는 한편 教員의 增加에 기인된 教育의 質的 低下를 防止하고 그 改善을 圖謀하기 위한 現職教育에 拍車를 가하였다.

세째, 生活文化의 簡素化

事變으로 인한 國民經濟의 파탄을 극복하고 經濟復興의 擧國的 當面課題를 完遂하기 위하여 國民生活의 醇化와 그 簡素化를 주장하여 勤儉勞作하고 務實力行하는 國民的 氣風을 振作하는 生活態度의 確立에 盡力하였다.

이와 같은 文教政策은 第5代 文教部長官 崔奎南, 第6代 文教部長官 崔在裕에 의해서 變化를 가져와 새로운 文教政策이 樹立 施行되었다. 새 文教政策은 다음과 같다.[91]

첫째, 教育의 質的 向上과 道義教育의 振興

이에 대한 實踐目標는 ① 寬厚高潔한 人間性의 陶治, ② 愛國愛族의 思想鼓吹 ③ 協同心과 責任感의 養成 ④ 勤勞力行精神의 涵養이었다.

둘째, 科學技術教育의 推進

이에 대한 實踐目標는 ① 祖國魂과 自由民主主義 精神의 振作 ② 教育의 質的向上 圖謀 ③ 義務教育과 科學技術教育의 적극 推進 ④ 醇美한 民族文化 發達의 促進 ⑤ 師道刷新과 道義教育의 強化 등이다.

이와 같은 文教政策은 京畿道의 教育目標를 決定하는 重要한 指標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京畿道의 教育目標를 樹立하여 各級 學校에 下達하였다. 各級學校에서는 京畿道의 教育目標에 따라 學校教育 努力目標를 設定하게 되었다.

1756年부터 強力하게 推進되게 시작한 京畿教育目標는 廣州의 各級學校에서 이를 受容하여 學校 教育 活動을 통해 具現하였다.

◇ 京畿道의 教育目標[92]

첫째, 民族精神의 再興振作

民主大韓의 國土統一과 民族救援의 至上課業을 達成하여야 할 重大時期에 처하여 民族團結의 中核이 될 民族固有의 精神을 再興振作하여 각자의 歷史的 使命을 自覺完遂케 하고 民主友邦과 協調하여 世界 平和와 人類共榮에 寄與하는 民主的 民族道義 確立을 目標로 한다.

둘째, 改新創建의 務實力行

國力伸張과 文化再建을 成就하여야 할 現下 實情에 비추어 國民 각자가 創意에 의한 새로운 建設을 위해서 務實力行하며 産業復興과 經濟自立을 指向하여 利己를 超越하고 協同團結

91) 京畿道教育委員會, 前揭書,, pp. 459~460

92) 京畿道 教育委員會, 前揭書, p. 463

하여 總力을 集結 發揮하는 有能하고 健實한 役軍育成을 目標로 한다.

위의 敎育目標를 達城하고 再建敎育에 拍車를 가하기 위하여 1955년 2월 1일 당시의 道知事 李益興은 '道內敎育公務員에게 告함' 이라는 訓示文을 發表하여 國家再建의 創造者로서 皆發邁進할 勇氣를 내어줄 것을 一線 敎育者에게 呼訴하였으니 이는 當時의 敎育方針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이는 다음에서 밝힐 京畿道 鄕土學校 建設의 前夜的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2) 戰後 復舊期의 廣州 敎育의 施策

앞에서 밝힌 京畿敎育 目標를 達城하기 위하여 廣州敎育委員會에서는 〈學校敎育의 努力重點〉을 奬學指導를 통해서 一線學校에 파급 침투시켰다.

◇ 學校敎育 努力目標

① 滅共統一의 精神 振作

國語, 國史 및 反共 防日敎育의 철저를 기하여 民族的 志標를 공고히 하고 民族正氣를 顯彰하여 韓民族의 특수성의 절대적 自覺과 時代的 使命의 統一的 意識을 促進함으로써 國民皆兵의 責任感을 養成하여 率先 國防의 先鋒이 되어 民族의 宿願인 南北統一을 完遂하려는 滅共統一精神의 振作에 努力한다.

② 民主道義 確立

道義敎育과 社會奉仕 施策의 強力한 推進과 學徒風紀의 先導를 통하여 利己主義的 傾向과 依他的 態度를 제거하고 특히 責任과 信義와 協同의 氣風을 助長하여 外來思想에 극도로 도취됨이 없이 韓國 固有의 美風良俗을 계승하여 民主道義確立에 努力한다.

③ 人格陶治를 위한 生活指導의 徹底

生活經驗의 擴充을 圖謀하여 社會의 要求에 응하며 社會 秩序에 基礎를 둔 自治 協同의 民主的 社會生活 態度를 先導함으로써 民主社會의 一員으로 社會的 職分을 完遂할 수 있는 全體로서의 人格完成에 努力한다.

4. 勤勞生産 敎育의 推進

經濟再建에 의한 國家復興의 重要性과 아울러 産業人을 높이 評價하는 氣風을 助長함과 동시에 近代産業의 擧皆가 科學技術의 適用임에 비추어 實習地 및 實習技術 習得에 必要한 施設의 完備에 힘쓰고 學行一如의 生産敎育이 되도록 努力한다.

⑤ 女性敎育의 刷新

女性敎育의 特異性을 명확히 認識하고 女性 固有의 純潔한 習性 涵養에 유의하여 특히 生活指導館 設置 運營과 家政科 敎育의 徹底를 기하여 生活改善에 必要한 態度 能力 등 實技硏磨에 注力하여 새時代의 向上을 圖謀할 수 있는 女性敎育刷新에 努力한다.

⑥ 健康敎育의 徹底

戰災破壞로 인한 施設의 不備와 生活의 不調和에 基因한 體位의 低下를 防止하고 健康을 增進하기 위하여 體育施設의 擴充을 圖謀하고 養護施設과 保健科 敎育의 徹底를 기하여 學生體位 向上에 努力한다.

⑦ 敎職員 資質向上의 促進

生活의 主體者로서의 人間育成을 指向하여 敎職員 각자는 定型化된 敎材를 가르치고 敎師보다 人間을 만드는 敎師로서 人格에 의한 감화를 줄 수 있는 施策을 강력히 推進함에 努力

한다.

⑧ 學習指導法의 刷新

從來의 教科目이 純學問的이었고 學生의 必要充足에 等閑하였으며 生活과 유리되었던 傾向을 시정하여 學校生活을 통한 모든 經驗이 教育課程이라는 새로운 뜻에서 부단의 改善을 圖謀하고 注入式 講義를 위주로 하는 指導法을 고집함이 없이 學生 教師 共同으로 問題를 解決한다.

⑨ 教育評價의 研究改善

從來의 教育評價가 점수를 위주로 하여 教科評價에 편중하고 試驗成績에 의하여 等級을 決定짓는 것에만 置重하였던 傾向을 是正하여 全人的 人間을 理解하는 기반 위에서 學生의 人格의 최대한의 發展을 위하여 指導되어야 할 問題를 명확히 把握하는데 努力한다.

⑩ 教育資料 및 施設의 充實

教育의 効果가 教育資料 및 施設의 充實 여하에 좌우됨에 비추어 抽象的인 指導方法을 是正하여 直觀, 계속적 觀察實驗, 實測, 實習 등 原理原則의 事實에의 適用을 重視하고 이에 必要한 施設의 擴充을 圖謀하여 教育內容의 완벽을 기하도록 努力한다.

⑪ 地域社會와의 關係改善

學校教育이 地域社會를 反映시켜야 하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地域社會의 後援協助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에 비추어 學校는 地域社會를 理解하고 地域社會는 學校를 理解할 수 있도록 相互關係를 改善하는 데 留意할 것이며 특히 教職員 및 學生을 통한 社會啓蒙에 적극 努力하여 學校教育의 向上과 地域社會의 發展을 기함에 努力한다.

이 學校學校 努力目標에 대하여 一線學校에서는 反共, 道德教育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推進하였는 바 이는 廣州郡이 속해 있는 京畿道가 接敵地域인 특수성과 6·25戰亂으로 크게 손상된 民族固有의 道德心을 再建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廣州의 各級學校에서 實施하였던 〈寬厚高潔한 人格陶治〉, 〈愛國愛族思想 鼓吹〉, 〈協同心과 責任感의 養成〉, 〈勤勞力行의 精神涵養〉등은 모두 反共·道德教育에 強調를 둔 教育活動이었다.

廣州郡教育委員會의 2代 教育監 李景烈은 反共·道義教育을 위하여 管割各級 學校에 서 推進해야 될 教育活動 內容을 全獎學力과 行政力을 集中하여 指導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도에 힘입어 教育再建을 위한 戰後 復舊期의 廣州의 教育活動은 일찍 자리를 잡아갔다.

國民學校와 中學校에서 實踐해야 할 活動內容과 高等學校에서 실천해야 할 活動內容을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寬厚高潔한 人格陶治〉를 위한 各級學校의 教育活動

① 國民學校와 中學校

○ 學校에서

· 分斷學習을 할 때 모르는 아이에게 서로 가르쳐 준다.
· 언어 동작 복장을 단정히 한다.
· 급우에 대하여 동정적인 심정을 서로 갖는다.
· 남의 과실을 깊이 허물치 말고 친절히 한다.

·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자기 의견을 언제나 쾌히 발표하도록 하는 습관을 갖는다.
· 급우의 나쁜 소행에 대해서는 잘 충고한다.

○ 家庭에서
· 가정이나 이웃 어른에게 인사성 있고 예절바른 행동을 한다.
· 자매나 이웃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귀여워한다.
· 일반 사회인에게 명쾌한 태도로 대한다.
· 거짓말로 돈을 탐내는 일은 없도록 한다.
· 물건을 사거나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할 때는 공손한 말을 한다.
· 학교와 가정 사이의 통신은 꾸며서는 안된다.
· 동생들을 유혹해서는 안된다.
· 부모나 가족들 앞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② 高等學校
· 사회 명사를 초빙하여 훈화를 듣는다.
· 음악회, 미술전람회 등을 개최한다.
· 학교마다 화단을 꾸미도록 한다.
· 누구에게나 원만하게 교제하고 진실성있게 대한다.
· 남에게 항상 동정심과 이해를 갖도록 한다.
· 일상 생활에서 예의를 지니도록 한다.
· 자기에게 불리할 때도 허언을 하지 않고 표리없이 행동을 하게 한다
· 평소의 행동과 태도가 명랑하고 대범하며 활발하게 한다.
· 불의를 미워하고 스스로 정당한 일을 하도록 한다.

◇ 〈愛國愛族의 思想鼓吹〉를 위한 各級學校의 教育活動

① 國民學校와 中學校

○ 反共思想
· 6·25사변을 통해서 본 공산당의 만행을 인식시킨다.
· 파괴된 교사와 교구를 통해서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시킨다.

○ 防日思想
· 역사에 나타난 방일 투사의 전기를 읽힌다.
· 3·1운동, 임진왜란 등을 학습함으로써 자존심을 고취시킨다.
· 일본어 일소 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 고전 예술에 대한 고적 답사를 한다.

○ 愛國思想
· 애국적인 가요를 적극 권장한다.
· 자치적인 훈련을 한다.
· 애국지사들의 사진을 제시한다.
· 국기를 존중히 한다.

② 高等學校

○ 反共思想

·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학술적인 비판을 시킨다.
· 공산당에 대하여 분석 비판한다.
· 6·25사변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소행을 비판시킨다.

○ 防日思想

·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한 사실을 연구시키고 자료를 수집케 한다.
·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야기시킨 원인과 결과를 연구시킨다.
· 한국과 일본과의 고대문화를 비교한다.
· 일본의 민족성을 검토 비판시킨다.
· 한국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사실을 연구시킨다.

○ 愛國思想

· 국어, 국사, 국문학에 대하여 더 한층 연마시킨다.
· 애국적인 가요를 장려한다.
· 고전 예술에 대한 감상력을 배양한다.
·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연구한다.

◇ 〈協同心과 責任感의 養成〉을 위한 各級學校의 敎育活動

① 國民學校와 中學校

· 여러 사람이 결정한 사항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않아도 잘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 청소, 실습, 운동, 경기 및 공동 작업 등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도록 한다.
· 소풍이나 견학을 갔을 때 개인행동은 안하도록 한다.
· 소풍이나 견학을 갔을 때 개인행동은 안하도록 한다.
· 당번 활동은 성실히 하도록 한다.
· 집단 내에서 자기의 의무를 자각 하도록 한다.
· 자기의 과실로 기구를 파손하였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책임감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자기 본위의 생각을 안하도록 한다.
· 가정, 이웃의 바쁜 일을 도와주도록 한다.
· 자매에 대하여 선도하고 가족들을 즐겁게 하도록 노력한다.
· 공동 사용물을 아끼도록 한다.
· 내집의 편의를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 부모가 시키는 일은 완수하도록 한다.
· 가정에서의 자기 위치를 자각하도록 한다.

② 高等學校

· 항상 자진하여 전체를 위하여 협력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신을 기른다.

· 자기의 할 일은 충실히 실행하여 실패에 대해서는 변명없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때로는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보며 타인을 잘 설득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 남에게 도움을 받기 전에 남을 먼저 도울 수 있는 봉사정신을 기르도록 한다.

◇ 〈勤勞力行의 精神涵養〉을 위한 各級學校의 教育活動

① 國民學校와 中學校

○ 學校에서

· 청소나 실습 등 타인과 같이 하는 일에 지속성이 있도록 한다.

· 감독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

· 일이 결정되면 곧 착수하여야 한다.

· 교과서나 기타 서적에 표지를 덧붙이도록 한다.

· 연필 노우트 등 학용품은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 책이나 책상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 분량이 많고 힘이 드는 과제라도 끝까지 하도록 한다.

○ 家庭에서

· 심부름을 잘 하도록 한다.

· 마당쓸기, 길쓸기, 밭에서 하는 일도 열심히 잘 하도록 한다.

· 집의 일을 피하려고 귀가 시간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가정에서 하는 일에 꼭 물질적인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

· 자기 물건의 정돈, 보존에 힘쓰도록 한다.

· 푼돈을 모아서 이용하도록 한다.

· 폐품을 모아서 이용하도록 한다.

○ 高等學校

· 근로는 신성하다는 인식을 철저히 한다.

· 노동은 자진하여 열심히 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습관을 기른다.

· 매사를 중간에서 그만두지 않고 끈기있게 하며 결핍과 빈곤에 대하여도 견디는 의지를 기른다.

· 금전과 물품을 낭비하지 않는다.

· 타인의 의견에 맹종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기질을 기른다.

3) 地域社會 學校의 推進

(1) 地域社會學校의 胎動

1975年 京畿道는 奬學指標로 〈地域社會 學校의 建設〉, 〈學園倫理運動 展開〉를 設定하였다. 이 奬學指標에 따라 廣州郡教育委員會에서는 教育이 生活에서 유리될 수 없고 實生活이 地域社會에서 떠날 수 없다는 理論에 바탕을 두고 學校教育이 地域社會의 要求에서 出發하고 결국은 地域社會로 돌아와야 한다는 地域社會學校의 建設에 奬學力을 集中하였다. 따라서 學校의 門은 언제나 開放되어 있었으며 地域社會의 人的 物的 資源은 學校教育資料로 活用되었

다.

또한 1958年 1月 14日부터 19日까지 水源新豊國民學校에서 開催된 京畿道地域社會教育推進方案研究會에 廣州教育廳 奬學士와 校長·校監 등 7名이 참석하여 道內의 200여 教員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決 議 文

국가의 융성과 민족의 번영은 오로지 참된 교육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장래를 기약하는 건실한 교육은 보편 영원한 것의 회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현실에 두어야 하고 그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사회 현실과 그 속에서 걸어온 교육의 발자취를 냉정히 더듬어 볼 때 양단된 국토는 6·25의 참상과 더불어 경제적 질식을 초래하여서 국민은 빈곤에서 허덕이고 결핍된 국민생활은 민주사상의 그릇된 인식과 더불어 신의도 책임도 저버린 혼탁 유폐된 사회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은 학교교육 활동에 이모저모 작용되어서 뜻한 바 사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성과를 저해하니 역사적인 필연의 운명이라고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큰 치욕이며 너무나 큰 슬픔이기에 겨레의 등불임을 자부하면서 사회에서 격리된 학교생활에서 유리된 교육의 구태에서 용감하게 벗어나서 현실을 타개 개조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개척적인 인간의 육성과 민족혼을 진작하고 도의 사회를 건설하는 교육으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고 그 실현은 지역사회학교의 건설과 학원윤리운동의 전개에 있다고 확신하여 학교교육을 새로운 기틀에 세우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동시에 그 실천에 전심할 것을 교육자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1. 우리는 과거의 인문지상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참된 개인의 생활능력을 부여하여 국가의 당면과제인 경제부흥에 이바지할 생산과학기술인을 육성한다.
2. 우리는 학교의 문을 열어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그 필요에 응하고 교육의 보람을 부탁, 지역사회 개조에서 얻고자 일교 일부락을 담당지도 하고 그 발전에 봉사한다.
3. 우리는 교육의 원동력이 교육자의 불하는 정열과 꾸준한 실천에 있음을 다시 깨닫고 더욱 사도를 연마하고 협동단결하여 본도 교육발전에 매진한다.

(2) 廣州教育에서의 地域社會學校의 槪念과 展開

地域社會學校란 學校教育이 地域社會에 터전을 두고 教育프로그램을 地域化하며 地域社會의 모든 것을 教育에서 利用하고 地域社會는 學校를 地域發展의 센타로 삼아 學校와 地域社會가 함께 相互作用하여 發展을 이루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槪念을 바탕으로 廣州教育에서의 地域社會學校의 槪念을 規定하면 다음과 같다.

地域社會學校라 함은 地域社會에서 學習資料를 획득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生活機能의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조하며 발전시키는 바람직한 社會生活學校로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지닌 學校이다.[93]

93) 경기도 교육위원회, 《京畿教育史》 1833－1795 (仁川 中央印刷社, '975), p. 478.

이와 같은 地域社會學校의 槪念을 바탕으로 展開한 敎育活動은 다음과 같다.

① 地域社會와의 유대 강화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師親會 운영의 새로운 모색과 아울러 廣州地域의 各級 機關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人士들을 學校敎育에 참여시켰다. 이와 함께 成人敎育과 奉仕活動을 통한 學校의 門戶를 開校하여 住民들이 學校의 敎育施設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② 地域資料單元의 作成

廣州郡內의 各級 學校別로 地域社會의 實態를 調査하여 資料單元을 作成하여 活用하였으며 이를 통한 學習活動의 改善과 職業敎育을 重視하는 敎育課程 連結

4) 各級學校의 硏究活動

6·25 以後 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노력을 廣州敎育區뿐 아니라 京畿道敎育委員會에서도 共同으로 기울이게 되었다.

이 때 實施된 것이 硏究學校 制度였다. 硏究學校는 크게 文敎部의 制定과 道敎育委員會의 制定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制定硏究學校의 所任은 硏究學校自體가 學校經營 全體를 통하여 一般學校의 示範이 되고 指導的 役割을 하며 敎育現場에서 일어나는 問題를 硏究 實踐함으로써 廣州敎育내지는 京畿敎育에 공헌토록 하는 데 있었다.

廣州國民學校는 1955年에 道指定硏究學校로 指定을 받아 3年間 硏究學校로서 運營되었으며 당시의 硏究主題는 「效果的인 學習指導를 위한 環境構成」으로 1957年 10月 20日에 道內의 會員 200名이 參與한 가운데 硏究公開報告會를 가져 호평을 받았다.

한편 1958年부터 實施된 實業敎育 強化策의 일환으로 道內의 各 實業學校에 一校一課題 硏究가 推進되었으며 이 課題 運營을 통하여 實業學校의 傳門的 機能敎育을 質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었다. 이는 實業學校의 職業訓練要綱에 의한 강력한 技術敎育 實踐을 통해 地域社會의 經濟復興에 공헌케 할 目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施策에 따라 廣州農業高等學校에서는 「育種果樹」에 대한 硏究主題를 선정하여 소채, 화분과 육종법, 과수, 각종 화분의 재배법, 생화 등에 관하여 硏究하였다.

5) 敎育自治制의 實施

1948年 8月 15日 政府樹立과 함께 敎育部門의 再建을 위한 몸부림으로 學制의 改編과 敎育自治制를 制度化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敎育自治制는 全國·敎育者들의 한결 같은 희망이었으나 敎育自治制는 政府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곧 實施될 수는 없었다. 본래 敎育自治制는 敎育法 第二章 第15·16條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節次上 먼저 地方議會가 構成되어야 하고 地方議會에서 敎育委員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6·25 사변이 발발하여 결국 敎育自治制는 일시 그 推進이 中斷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1952年 4月 25日 임진강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收復된 京畿道地域에서는 歷史的인 市·邑·面議會 議員總選擧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1925년 4월25일에 市, 邑, 面議員총선거를 실시한 지역은 敎育區와 市의 敎育委員會 委員總

選擧를 1952年 5月 24日에 施行한다.」고 公告하였다.

따라서 이 땅에 최초의 教育委員이 選出되어 教育自治制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1952年 6月 4日 歷史的인 教育自治制가 實施되었다.

廣州 教育區의 初代 教育監으로 南慶祐가 選出되어 1952年 8月 8日에 發令을 받아 임시 廳舍를 廣州國民學校 內에 마련하고 教育區廳 業務를 개시하였다.

廣州教育廳의 沿革誌에 따르면 發展課程은 다음과 같다.[94]

1952. 4. 24. 地方議會 議員選擧
1952. 5. 24. 教育委員 選擧
教育議會構成 議長·郡守
1952. 6. 4. 教育自治制 實施
1952. 8. 8. 初代教育監 南慶祐發令
임시 廳舍：廣州國校
9. 2. 學務課長 崔文단 發令
主事 柳根東 發令
主事 南廷大 發令
9. 10. 奬學士 全鍾根 發令
主事 黃榮順 發令
1953. 1. 25. 奬學士 梁大錫 發令
主士 李相稷 發令
1953. 11. 25. 教育監 職務代理 權赫東 發令
1957. 1. 12. 2大 教育監 李景烈 發令
11. 8. 教育區 廳舍 48坪 新築 京安里 現廳舍
1961. 3. 7. 3代 教育監 丁宅鎭 發令
1962. 1. 1 教育自治制廢鎖
廣州郡 教育課로 편입.
郡守 조덕수
廣州郡 現廳舍로 이전

教育法에 보면 教育區는 郡을 단위로 하되 法人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教育區內의 教育·學藝에 대한 일체의 事務를 擔當하게 되어 있으며 財政에 관한 特別規定에 한해서만 일차로 道知事, 이차로 文教部長官과 內務部長官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다.

教育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區域內의 學令兒童 全員을 就學시키기에 필요한 國民學校를 設置 經營하는 일이다.

그리고 教育區內에는 議決機關으로 廣州教育區 教育委員會를 두고 있었으며 執行機關으로 教育監을 두고 있었다.

당시 教育法에 나타난 教育區에 관한 중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94) 廣州教育廳,「沿革枝」1987.

1. 郡을 단위로 法人 敎育區를 둔다.
2. 敎育區는 제1차로 道知事, 제2차로 文敎部長官과 內務部長官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3. 敎育區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4. 敎育區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세 등으로 지변한다.
5. 敎育區에 議決機關으로 區敎育委員會를 둔다.
6. 區敎育委員會는 郡守와 區內 各 邑·面 議會에서 1인씩 포함한 임기 4년의 위원으로서 조직하고 군수가 의장이 된다.
7. 區敎育委員會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同法 제27條)
   ① 근례의 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예산의 의결과 결산보고의 심사 인정에 관한 사항
   ③ 교육세,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④ 기채와 차입금에 관한 사항
   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폐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⑦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⑧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 설정, 건물 신개축 등에 관한 사항
   ⑨ 사회교육 및 기타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⑩ 교육감 추천에 관한 사항
   ⑪ 도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
   ⑫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⑬ 계속비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⑭ 예산 통과의 지출, 또는 예산에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
   ⑮ 교육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
   ⑯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⑰ 교육에 관한 청원
   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일
8. 敎育區에 敎育監을 둔다. 敎育監은 敎育公務員法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區敎育委員會의 추천으로 道知事와 文敎部長官을 경유하여 大統領이 임명한다.
9. 敎育監은 敎育區를 代表하며 敎育事務의 執行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구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 집행과 일반 사무 처리
   ②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 제출과 그 의결 사항의 집행
   ③ 교육구 재산과 기타 교육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⑤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⑥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⑦ 취학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10. 教育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教育監의 지휘·감독하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상과 같은 중요 業務 內容에 따라 實施되던 廣州教育區의 教育自治制는 5·16 軍事革命과 함께 1962. 1. 1字로 폐쇄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6) 學校 師親會의 發足

廣州郡·教育에서의 師親會는, 6·25事變中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文教部가 각시·도 文教社會局長 會議에서 각급 학교 후원회를 師親會로 改編하도록 하는 行政指示로부터 始作된다.

그것은 사변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궁핍과 극심한 교사의 생활고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廣州郡에서는 1951年에 師親會의 會長을 校長이 맡도록 했다.

1952年 1月 文教部의 指示「師親會 運營監督에 關한 件」에 의하여 行政官廳이 師親會 經理에 관하여 강력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1953年 2月에「師親會 規約準則」과「師親會監督規定」이 發表되어 師親會가 制度化됨에 따라 廣州郡에서도 師親會 運營委員會를 두어 各級 學校의 師親會를 指導 育成하였다.

師親會의 性格은 종래의 後援會와는 달라서 財政支援 외에 學校의 教育方法과 內容을 研究하고 學生의 복지를 증진하며 會員의 教養을 높이고 社會環境을 改善하는 등 廣州教育의 올바른 發展을 위하여 學校와 家庭이 친밀하게 협조하고 제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때의 會員은 學父母를 正會員으로 하였으며 教育에 특별히 關心이 있는 사람을 特別會員으로 영입할 수 있었다.

당시 廣州教育區 國民學校 師親會의 會費負擔金과 教育厚生費의 支給額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一〉 廣州教育區 國民學校 師親會 運營狀況

아동총수	1인당 부담액	교원1인당 후생비 지급액		
		교 장	교 감	교 사
9,544	400	18,000	16,000	13,000

당시 中學校는 月 1,450환, 高等學校는 1,800환을 師親會로 납부했다.

7) 戰時에서의 廣州의 教育課程

文教部는 戰時下에서의 教育의 中斷을 막기 위해서 1951년 2월16일자로「戰時下 教育特別措置 要綱」을 制定 發表하였다.

教室도 教科書도 學用品도 없는 상황에서도 教育은 實踐되어야 했으므로 눈물겨움이란 이

루 말할 수 없었다.

學生들에게 戰時生活을 指導하기 위해서 國民學校用「전시생활」1(1, 2學年用), 2(3, 4學年用), 3(4, 5學年用)과 中學生用「戰時讀本」을 發刊하여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表 二〉 初·中學生用 戰時教材 [95]

구 분	1집	2집	3집
전시생활(1)	비행기	탱 크	군 함
전시생활(2)	싸우는 우리 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씩씩한 우리 겨레
전시생활(3)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국군과 유우엔군은 어떻게 싸우나?	우리는 싸운다
전시독본	침략자는 누구냐?	자유와 투쟁	겨레를 구하는 정신

戰時下의 廣州教育區의 國民學校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은 1學年 630時間, 2學年 630時間, 3學年 700時間, 4學年 840時間, 5學年 男子 945時間 女子 980時間이었으며 社會가 점차 安定됨에 따라 教育도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여 1952年 4月에 制定公布된 教育法 施行令에 의거 授業日數를 230日 이상으로 規定했다.

다시 1954年 4月 20日에「教育課程時間配當令」을 公布하고 1955年 8月 1日에 文教部令 第44號로 國民學校 教育課程을 公布하여 完全한 教育內容을 갖추게 되었다.

廣州教育區의 國民學校의 教科目과 年間 時間配當 基準을 表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三〉 1952年 以後의 國民學校 教科用 및 年間時間配當表

學科目 \ 學年	1	2	3	4	5	6
國語	245	245	245	245	245	245
社會生活 理科	140	140	175	175 140	210 140	210 140
算數	140	140	175	175	175	175
體育·保健	35	35	35	35	35	35
音樂	35	35	35	35	35	35
美術	35	35	35	35	男105 女 70	男105 女 70
家事	—	—	—	—	70	70
計	630	630	700	840	男945 女980	男945 女980

자료 : 경기도 교육위원회「경기교육사」(833－1958) p. 560.

95) 文教史, 1974, p. 231

〈表 四〉1954年 以後의 國民學校 教育課程 時間配當基準

學年 / 時間表 / 學科目	1	2	3	4	5	6
國語	25~30% (分) (分) (240~290)	25~30% (分) (分) (250~300)	27~20% (分) (分) (290~220)	20~23% (分) (分) (220~260)	20~18% (分) (分) (240~220)	20~18% (分) (分) (250~220)
算數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0 (180~120)	15~10 (190~120)
社會生活	10~15 (100~140)	10~15 (100~150)	15~17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自然	10~8 (100~80)	10~8 (100~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5 (120~190)
保健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音樂	12~10 (120~100)	15~10 (150~100)	8~10 (190~110)	8~5 (90~80)	8~5 (100~60)	8~5 (100~60)
美術	10~8 (100~80)	10~8 (100~8)	8~10 (90~110)	7~10 (80~110)	10~8 (120~100)	10~8 (120~100)
實科	—	—	—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特別活動	5~2 (50~20)	5~2 (50~20)	5~8 (50~80)	5~8 (60~100)	5~10 (60~120)	5~10 (60~120)
計	100% (960分)	100% (1,000分)	100% (1,080分)	100% (1,120分)	100% (1,200分)	100% (1,240分)
一年間總授業時間數	840時間 (24)	875時間 (25)	945時間 (27)	980時間 (28)	1,050時間 (30)	1,085時間 (31)

자료 : 경기도 교육위원회 「경기교육사」 (1833－1958), p. 564

한편 中學校의 教科는 教育法 施行令 第15條에서 國語, 社會生活, 數學, 科學, 體育, 實業家政, 音樂, 美術, 外國語로 規定하고 다음과 같이 教育課程 時間配當基準을 公告했다.

〈表 五〉 1952年 以後의 中學校 教育課程 時間配當基準

學年 / 時間表 / 學科目		1	2	3
必	國語	140 (4)時間	140 (4)時間	140 (4)時間
	數學	140 (4)	105 (3)	105 (3)
順	社會生活	175 (5)	175 (5)	140 (4)
	科學	140 (4)	140 (4)	105 (3)
教	體育	70 (2)	70 (2)	70 (2)
	音樂	70 (2)	35 (1)	35 (1)
科	美術	70 (2)	35 (1)	35 (1)
	實業家政	175 (5)	175(5)	175(5)

學科目 \ 時間數 \ 學年		1	2	3
小 計		980(28)	875 (25)	805 (23)
選擇科目	實業家政	35~245(1~7)	35~245(1~7)	35~245(1~7)
	外國語	105~175(3~5)	105~175(3~5)	105~175(3~5)
	其他教科	0~105(0~3)	0~210(0~6)	0~280(0~8)
特 別 活 動		70~105 (2~3)	70~105 (2~3)	70~105 (2~3)
計		時間 時間 1,190~1,330(34~38)	時間 時間 1,190~1,330(34~38)	時間 時間 1,190~1,330(34~38)

자료 : 경기도 교육위원회「경기교육사」(1833-1958). p. 564

廣州郡 管內 高等學校에서 教育法 施行令 第117條에서 規程하고 있는 國語, 社會, 數學, 科學, 體育, 教練, 實科, 家政, 音樂, 美術, 外國語, 哲學, 教育 科目을 가르쳤다.

4. 第一共和國에서의 教育機關

6·25 事變으로 인한 教育施設의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사변 전 국민학교 26개교 중 24개교가 사변 중에 施設의 파괴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中學校도 2個校가 파괴당했으며 高等學校의 피해도 이와 비슷한 狀況이었다. 前後의 復舊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는 各 資料에 記錄되어 있는 統計가 서로 같지를 않아 京畿道 文教社會局에서 1955年에 發刊한「京畿文教」를 參考로 했다.

國民學校 校舍 再建 狀況 [96]

1956. 7. 31 현재

사 변 전		사변중 피해		복 구 내 역				현 재 의 상 황						부 족
학교수	교실수	학교수	교실수	운크라	군자원	지방부담	계	학교수	학급수	정규교실	가교실	직원실	계	교실수
26	193	24	187	58	17	142	217	29(3)	323	129	62	32	223	132

復舊期에 廣州郡教育委員會에서는 많은수의 公立學校를 新設하여 義務教育의 量的 擴充과 質的인 向上을 圖謀하였다.

이들 新設學校를 學校 級別 設立順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6) 京畿道文教社會局〈京畿文教〉(1955), p. 130에서 발췌引用

97) 上記 各學校의 學校 便監 1956. 7. 31 현재

新說國民學校 狀況[97]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 代 校 長	備 考
광남 국민학교	1954. 11. 9	광주군 광주면 중대리, 6	김 정 연	
분당 국민학교	1954. 11. 20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	윤 호 섭	
도곡국민학교	1956. 2. 1	광주군 초월면 쌍동리	김 낙 용	
신기국민학교	1957. 10. 21	광주군 낙생면 금곡리	박 근 용	

新說 中學校 狀況[98]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 代 校 長	備 考
효성중학교	1953. 7. 7	광주군 대왕면 심곡리	이 동 헌	
영양중학교	1954. 1. 23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	이 인 구	
광주동중학교	1955. 4. 27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권 종 국	

新說 高等學校 狀況[99]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 代 校 長	備 考
효성 고등학교	1955. 3. 23	광주군 대왕면 심곡리	이 동 헌	

5) 教育機關 實態

戰爭의 참화로부터 벗어나서 廣州 教育을 再建하려는 강한 의욕과 노력은 復舊期인 1954年부터 1959年 사이에 學校教育施設을 大部分 원상회복했을 뿐 아니라 많은 증축과 新說을 하게 했다.

教育施設 一覽

1958. 3. 31 현재

구분 / 校別	학 교 수	교 실 수	학 급 수	교 원 수			학생 및 아동수		
				남	여	계	남	여	계
국민학교	29(3)		323			324	8824	6818	15,642
중학교	6		28			54	1153	195	1348
고등학교	5		10			19	313	21	334
공민학교	11		14			14	345	433	788
고등공민학교	3		8			8	145	28	173
기술학교	2		5			10	120	10	130
計	56		388			428	10900	7505	18,405

98) 上揭書
99) 上揭書

〈表 六〉 1952年 以后高等教育課程 時間配當基準

學科目 \ 學年 / 時間數				1	2	3	內容
必須教科	국어(一)			時間 140(4)	時間 140(4)	時間 105(3)	現代人의 國語生活을 中心으로 하고 古典 一部를 넣음.
	社會	一般社會		105(3)	105(3)	35(1)	政治·經濟·社會를 中心으로 하고 地理와 歷史를 背景으로 하여 民主社會와 公民的 資質을 伸張함
		道德		35(1)	35(1)	35(1)	倫理 道德을 中心으로 禮義를 올바르게 指導함
		國史		—	105(3)		文化를 中心으로 우리나라 歷史를 硏究함
	數學			140(4)	—	—	一次函數 二次函數 對數函數 三角函數 其他 一般 敎養으로 必要한 一般受學의 基礎를 硏究함
	科學			140(4)	—	—	物理 化學 生物 地學中에서 하나를 選擇하여 必須로 課한다
	體育			31(1)	35(1)	35(1)	健康에 必要한 事項의 硏究와 徒手陸上競技, 球技, 機械體操, 徒手陸上競技, (體力검사 등의 實技指導)
	音樂			140(4)			聲樂 樂器 作曲 鑑賞에 對한 指導와 硏究 圖書 工作 書道의 實技및 그 鑑賞에 對한 指導 硏究함
	美術						
	實業家庭			105(3)	105(3)	105(3)	實業 家庭에 關한 理論과 實技를 習得시킨다
	小計			770(22)	490(14)	420(12)	
選擇敎科	普通課程	國語(二)		105(3)	105(3)	105(3)	現代文 古典文法 文學 語學史 文學史 漢文 等에 關하여 硏究
		社會	世界史	—	105(3)		現代 世界를 理解시키기 爲하여 世界文化의 類型과 그 發展의 歷史를 考察함
			地理	105(3)			人文 地理를 中心으로 함
		數學	解析		105~210(3~6)		數學(一)의 基礎위에 解析을 硏究함
			幾何		70~140(2~4)		數學(一)의 基礎위에 幾何를 硏究함

科學	物理	140(4)			物體의 性質 原子物理의 基礎知識에 對하여 硏究함	필요에서 選擇하지 않는 科目中에서 選擇한다
	化學	140(4)			無機化學 有機化學의 基礎知識에 관하여 硏究함	
	生物	140(4)			動物 植物 生理衛生을 中心으로 生物全般에 관하여 硏究함	
	地學	140(4)			脂質 鑛物을 中心으로 하고 天文氣象 海洋도 함께 硏究함	
教練		140(4)	140(4)	140(4)	男學生에게는 必須로 課한다 軍事에 관한 知識과 技術을 訓練하여 이들의 心身의 鍛鍊을 꾀함	
哲學·教育		—	210(8)		論理 哲學槪論 教育原理 教育史 教育心理學 教育方法 중에서 그 基礎를 硏究함	
體育 音樂 美術		0~210(0~6)			體育 音樂 美術 중에서 選擇함	
外國語	英語 獨逸語 佛蘭西語 中國語	0~175 (0~5)	0~175 (0~5)	0~175 (0~5)	英語 獨語 佛語 中國語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選擇하되 文章方法에 對한 基礎能力 會話能力 및 各國의 文化를 理解하는 能力을 기른다	
專門課程	實業其他專門에 관한 教科	0~420 (0~12)	0~700 (0~22)	0~770 (0~22)		
特別活動		70(2)	70(2)	70(2)		
總計		時間 1900~1365 (34~39)	時間 1900~1365 (34~39)	時間 1900~1365 (34~39)		

第8節 第 2共和國과 軍事政府에서의 廣州教育

1. 第2共和國의 文教政策

1960年은 第 1共和國이 붕괴되고 第2共和國이 建設되는 意味 있는 해였다.

第1共和國의 末期的 狀況은 1960年 3月 15日에 있었던 소위 3·15 不正選擧로 기폭이 되어 전국의 學生과 國民이 총궐기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당시 不正選擧는 全國에서 자행되었으며 이에 항거한 馬山 市民의 데모가 全國에 비화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어 4月 18日에는 高麗大學校 學生들을 先頭로 4月 19日에는 全國의 學生들이 총궐기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있던 大學教授들도 25日에 教授團 데모를 벌여 不正選擧를 규탄했다.

1960년 4月 29日 大統領 李承晩은 下野聲明을 發表하고 물러나게 되어 執權 10여년의 自由黨 政權은 무너지고 學生運動을 기폭으로 한 시민의거로 제2共和國이 탄생하게 되었다.

7·29총선거에서 壓勝을 거둔 民主黨은 8月 23日 大統領에 尹普善, 國務總理에 張 勉을 취임시키고 第2共和國을 출범시켰다.

第2共和國이 출범하면서 第8代 文教長官에 취임한 吳天錫은 다음과 같은 文教政策을 밝혔다.[1]

첫째는 學園의 民主化로서 學園에 民主的인 雰圍氣를 造成하므로써 學園內에 精神의 民主化, 體制의 民主化 및 教育內容과 方法의 民主化 등으로 教育行政의 基本 施策을 教育의 民主化에 두었다.

둘째는 行政權限의 地方分讓으로 行政權力을 中央에 集中하여 일어나는 諸般弊端을 是正하고 文教部로서는 教育政策의 設定, 教育의 長期計劃, 傳門的 指導助言, 教育의 綜合的 研究調査와 統計 蒐集 등의 業務를 관장하므로써 傳門的인 指導行政을 中心機能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째는 教育의 資質向上으로 그때까지 教育 內容과 方法에 대한 全般的인 再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을 基礎로 教育內容을 制新하는 同時에 이러한 教育을 다루는 學校行政家 및 教師의 教育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業務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國民學校 教師 養成機關으로 2年制 初級大學의 設置, 實業教育의 실질적인 진흥책을 위한 實業學校 教師들의 水準向上과 實驗實習의 重視, 奬學金制度의 大幅 擴大 등을 強調했다.

第2共和國의 奬學方針은 다음과 같다.[2]

△ 反共 및 國防 教育의 徹底, △ 生產教育의 建設, △ 科學의 振興. △ 大學教育의 정비 및 강화, △ 國民文化의 暢達, △ 體位의 向上

이와 같은 奬學方針은 一線 教育行政機關에서 충분히 실천되고 정착되지도 못한채 第2共

1) 孫仁鐵, '第2共和國의 文教部, 새교육(1971, 8), pp 152~153

2) 京畿道 教育委員會, 「京畿道教育史 1960~1974」(서울, 농원문화사, 1976) p. 43

和國은 종언을 맡게 되어 5·16 구테타에 의해 수립된 군사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教育政策이 樹立된다.

2. 軍事革命政府의 文敎政策

1961年 5月 16日에 우리나라의 現代史를 가름하는 軍事革命이 일어나 第2共和國을 가름하는 軍事革命이 일어나 第2共和國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최초의 軍事政府를 樹立하였다.
1961年 9月 1日「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法律 第708號로〈教育에 관한 임시특별법〉을 制定公布하였으며 文敎重要政策은 다음과 같다.[3)]

◇ 學園의 淨化와 人間 改造

革命政府는 學園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負擔金 徵收를 是正하였고 韓國에 알맞는 有能한 人間像을 定立하고 이를 위하여 意識構造와 性向을 改造하려는 데 전력을 集中하였다.

◇ 教育行政의 刷新

教育公務員의 대폭적인 人事陶汰, 交流를 斷行하는 한편〈教育公務員人事交流要綱〉을 制度化하였다. 또한 學期를 조정하여 3月 1日을 新學期로 定했다.

또한〈教育에 관한 臨時特別法〉에 의해 教育自治制가 中斷되었다.

◇ 義務教育의 強化

당시까지의 義務教育은 教室不足, 教員不足으로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다.

軍事政府는〈義務教育實施基準法〉을 制定하여 義務教育 施設 擴張을 꾀하는 한편 必要한 義務教育 財政을 確保하도록 하였다.

◇ 教育制度의 刷新

3年制 師範學校를 2年制 教育大學으로 승격시키고 教員의 停年을 65歲에서 60歲로 낮추었다. 또한 學士考試制를 實施하였으며 中·高等學校의 入試를 共同出題로 하였다.

◇ 教育內容의 刷新

5·16軍事革命政府는 祖國 近代化를 위하여 民主主義 土着化, 先進工業化, 民族文化의 暢達 등을 地標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人間 改造임을 強調한 革命政府는 精神的인 면의 教育을 重視하였다.

이와 같은 革命政府의 文敎政策에 따라 京畿道 教育局의 主要 施策은 다음과 같다.[4)]

첫째, 奬學方法의 改善

둘째, 教員教育의 合理化

세째, 教育研究所의 運營과 事業強化

네째, 文化事業의 普及強化

다섯째, 島嶼僻地 教育行政의 強化

---

3) 上揭書

4) 上揭書, p. 53

이상의 施策을 具現하기 위한 1961년의 奬學目標는 〈地域社會學校의 建設〉이었으며 奬學方針은 '① 學校運營의 協同的 機能을 強化하고 ② 教育課程 運營을 合理的으로 推進한다'였으며 1962年의 奬學目標는 〈鄕土學校의 推進〉이었고 奬學方針은 '① 學校運營體制의 民主化를 圖謀하여 協同的 機能을 強化한다. ② 鄕土社會 發展에 寄與하는 自立하는 生活人과 民主的 實踐人을 기른다. ③ 鄕土社會 發展에 대한 教育課程構成 및 運營에 관한 研究와 學習指導性을 改善한다'로 定해 이를 추진하였으며 1963년의 奬學目標 역시 〈鄕土學校의 推進〉으로 두고 奬學方針을 ① 民主的인 國民精神 鼓吹(自主性) ② 教育課程 運營의 研究的 推進(生産性)으로 잡아 이를 강력히 實踐토록 하는 데 奬學力을 集中하였다.

이와 같은 京畿道의 奬學目標와 奬學方針에 의해서 廣州 教育의 奬學施策이 마련되었다.

3. 廣州의 鄕土學校로서의 教育課程 運營

鄕土學校로서의 教育課程 運營은 學生들에게 鄕土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길러 주고 鄕土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는 데 目的이 있었다.[5]

이러한 視點에서 볼 때 당시의 廣州教育 뿐 아니라 京畿道의 教育課程 運營의 反省과 問題點으로 대두된 것은 다음과 같았다.

◇ 教育의 劃一性 問題

鄕土學校의 建設이 地域的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地域社會의 特性에 따른 地域目標가 學校教育目標에 反映됨과 同時에 各學科의 單位 指導目標에 一貫性있게 침투하도록 했다.

◇ 知識教科 偏重의 問題

지금까지의 學習指導가 知識 위주로 이루어져 藝體能學科에 대한 指導가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균형있는 人間發達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反省과 함께 實踐的 能力을 育成하도록 했다.

◇ 學習指導의 單一性 問題

學習指導 方法의 多樣性이 없어 學習效果가 오르지 않으며 講義式 方法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學習할 줄 아는 思考力 中心의 學習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反省에 따라 廣州郡 教育界에서는 教育課程 運營의 鄕土化를 위해 활발한 奬學活動과 研究 研鑽이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教育課程 管理를 위한 基本方針에 따라 鄕土學校로서의 教育課程 運營이 이루어졌다.[6]

1) 國民學校의 教育課程 管理

(1) 教育計劃 樹立은 地域社會의 實踐을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의 欲求와 學生의 適性 및 能力에 副應하도록 마련한다.

(2) 學科間의 相互關聯性, 地域社會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經驗의 補充을 期하는 教育課程으로 補強할 것이며 合理的인 運營方案을 研究 實踐하도록 한다.

---

5) 上揭書, p. 97

6) 上揭書, p. 98

(3) 勝共 道義教育의 徹底를 期하고 禮節을 준수케 하여 民主秩序 確立을 위한 教育內容이 되도록 한다.

(4) 保健體育을 強化하여 體位 增進과 技術 向上을 期하도록 한다.

(5) 特別活動의 效率的인 運營을 통하여 學生의 民主的 生活經驗과 個性의 伸張을 期하도록 한다.[7]

2) 中學校의 教育課程 管理

(1) 새로운 教育課程의 發展을 위하여 教師들의 健全한 教育哲學觀이 確立되도록 現職研修를 強化한다.

(2) 教育課程을 鄕土化하기 위한 研究를 推進한다.

(3) 教育課程의 計劃은 月別 學期別 年間으로 作成하고 地域社會의 變化에 適應할 수 있도록 計劃한다.

(4) 教育課程 管理는 學生의 個人差 性別 등이 考慮되어야 하며 個人의 適性 開發에 留意한다.

(5) 教育課程의 再構成에 있어서는 生產性을 考慮한다.

(6) 實業高等地域에서는 教育課程 構成에 있어서 實踐 專門課程을 50% 以上 配當하여야 한다.

4. 鄕土學校의 推進과 廣州 教育

1) 우리나라 鄕土學校建設의 必要

우리나라의 鄕土學校運營은 6·25事變이 終結된 1953年頃부터 싹트기 始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鄕土學校運動이 6·25事變後에 싹텄다는 事實에는 必然코 여기에 時代的인 意義가 있다고 본다. 6·25事變은 世界戰爭史上에 稀有한 大破壞와 混亂과 苦痛을 가져 왔다. 이 悲慘한 傷處는 政治 經濟面에서만이 아니라 社會構造와 文化面에서도 同時에 혼란을 招來하였다.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民族的 社會的 團結, 秩序의 恢復, 經濟的 復舊와 復興, 文化의 再建等이 必要한 것이니 萬一 이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民族的 一大危機에 陷入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狀態에 있어서도 우리 韓國社會는 漸次的으로 安定되어 가고 傷處를 아무리면서 自身의 힘으로 再起할 態勢를 갖추어,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의 모든面에서의 再建이 國民들의 각성과 團結과 努力으로 이루어지기 始作하였다. 卽 共產主義의 惡辣相을 反膚로써 느껴 그들의 威脅으로부터 벗어날려는 反共意識은 精神的 武器가 되었으며 國家社會의 福祉를 目標로 하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面의 改造가 提唱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나라에 眞正한 民主主義를 實現하기 爲하여 모든 文化再建의 核心이 되는 教育은 傳統的인 過去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方向으로 轉換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趨勢가 곧 國民들의 社會的 團結과 協同과 勤勉을 強調하는 地域社會中心의 教育으로 나타난

7) 京畿道 教育委員會,「鄕土學校 10年」(서울 : 천풍인쇄주식회사, 1968) pp. 137~138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처럼 社會中心敎育을 強調하는 社會的 背景은 美國에 있어서도 同一한 것이었다고 黃宗建은 強調하였다.[8]

卽 1929年頃으로부터 始作되는 美國의 一大經濟恐慌과 거기에 뒤이어 爆發된 第二次世界大戰은 美國歷史上 처음 보는 國家的 危機와 混亂의 時機였다. 그때에 그들은 無制限한 個人主義的 自由와 經濟的인 物質享樂의 陶醉로부터 國家的 福利를 위한 團結과 協同이 強調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卽 個人的 利益과 制限없는 自由속에서 各自의 安樂과 便利를 喝求해 온 美國市民들은 곧 民主主義의 自體가 內包하고 있는 相互理解와 協同의 美德을 찾기 始作하였으며 이와같은 團結과 協同은 반드시 各 地方의 鄕土社會(local community)를 基盤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이와같은 社會的 要求와 그 反映으로서 學校敎育도 地域社會生活을 強調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올센(Olsen)도 當時의 複雜한 여러가지 問題를 內包하고 있는 緊急한 時期에 있어서 美國의 敎師들의 關心이 地域社會中心敎育으로 集中되고 있었다는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例로 들고 있다.

以上을 다시 要約하여 말하면 鄕土學校는 國家的 社會的 時期的으로 地域社會를 바탕으로 하는 國民의 단결과 協同을 要請하는 敎育을 必要로 하는 바 美國에서 經濟恐慌과 第二次大戰을 戰後하여 이 運動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6·25事變을 겪은 國家的, 社會的 危機에서 再建이 필요한 때에 敎育도 必然的으로 地域社會를 中心으로 하여 團結과 理解와 協同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鄕土學校 建設이 必要하게 된 所以라는 것이다.

이런 面에서 볼 때에도 前項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이러한 事態의 色彩가 濃厚한 點이 많은 까닭에 京畿道에서 鄕土學校建設의 必要論을 일찍부터 提唱하게 된 然由도 있는 것이라 본다.

2) 鄕土學校의 槪念 [9]

(1) 鄕土社會의 槪念

오늘날 鄕土學校라고 부르는 것은 元來는 地域社會學校였다. 4·19學生義擧 以後 文敎部가 鄕土學校를 내세우기 前에 부터도 學者들이 鄕土學校運動을 主張하는 데에 "地域社會學校"云云으로 紹介되었고 우리 京畿道에서도 "地域社會學校建設"로 부르짖기 始作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往往 敎師들은 "地域社會學校"와 "鄕土學校"가 別個의 槪念을 가진 양 誤謬를 犯하는 解釋을 하기 쉬운 까닭으로 黃宗建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10]

"향토"는 일반적으로 "시골"또는 "고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향토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적, 물적 문화적 환경을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향토학교"라고 하면 시골 또는

8) 황종건, 향토학교건설의 문제점, 중앙교육연구소, 調査硏究第十九즙(서울 : 배영사 1963) p. 4

9) 京畿道敎育委員會,《鄕土學校十年》1968, pp. 45-46.

10) 황종건「향토학교 건설의 문제점」, 중앙교육연구소, 調査硏究 第十九즙 (서울 : 배영사, 1963), p. 4

농촌의 학교를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일선 교사들은 갖게 되었다…中略…그러나 오늘날 쓰고 있는 '향토'라는 개념은 결코 농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과 주민의 공동생활을 강조하는 컴뮤니티(Community;지역사회 또는 공동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컴뮤니티로서의 향토사회는 일정한 지역안에 모여 사는 일정한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과 "都市"를 망라한다. 그 안에는 주민들의 공동의욕이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그 해결을 위한 사회조직과 기관들이 있다. 그 뿐만아니라 주민들은 일정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 또는 공동분배한다. 그러기 때문에 향토사회에서는 그 고장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과 협동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미국의 "컴뮤니티스쿨"(Community School) 이론의 개척자인 쿠크(Cook)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향토사회의 구성요소는 다음 일곱가지를 들 수 있다.

① 群居해 사는 일정한 人口
② 한정된 범위의 지역
③ 歷史的 유산의 共有
④ 주민들의 공동의욕과 필요한 충족시켜주는 봉사기관
⑤ 공동생활양식에의 참여
⑥ 지역적 통일의식과 집단감정
⑦ 협동의 가능성

…中略……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향토사회"는 共同自治體的(Communal)인 協同社會로서 흔히 인구 구성과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것을 말해왔다. 원래 '컴뮤니티'는 농촌적인 부락의 형태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며 매일 매일 서로 만날 수 있는 경험과 생활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성원들간에 친밀감과 단결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교통 통신기관이 고도로 발달하고 지방 또는 국가간의 문화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는 사회의 범위가 확대되며 따라서 "컴뮤니티"의 성격과 개념 자체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래 "컴뮤니티"를 대표하는 농촌적인 사회(rural community)는 都市化될 사회(urban community)로 변천할 뿐 아니라 그 크기와 성격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개념은 鄕土社會(local community) 地方社會(regional community) 國家社會(national community)로 확대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토사회라고 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를 망라한 온갖 고장과 그 주민들의 공동 생활을 칭하는 것이며 각 고장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사회의 연결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즉 "鄕土社會"는 "地域社會"를 말하는 것이며 地域社會는 고장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社會로 擴大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鄕土學校"와 "地域社會學校"는 同一한 槪念의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2) 鄕土學校의 槪念

8·15解放後 우리나라의 敎育에 새교육의 風潮가 導入되었으며 그것도 大部分이 美國의 思潮이었던 바 1953年 頃부터 地域社會學校問題가 우리나라의 一部 先覺的 敎育學者들로부터 나오기 始作하여 '57年頃부터 地域社會學校 運動이 漸次 擡頭되었는데 이 亦是 美國의 "community school"이 根幹을 이루어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나라 "地域社會學校運動"이 擡頭될 무렵에 紹介된 文獻中 二, 三個를 들면 그 中 鄭範謀는 "地域社會學校의 槪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11]

「本來 社會機能의 一面으로서의 敎育에는 學校라는 것이 없었다. 學校라는 敎育의 "專門機關은 近世의 所産이며 더구나 中等學校 國民學校라는 것은 더욱 그렇다.

한 社會機能으로서의 敎育은 未成人의 成人社會에로의 導入을 意味한다. 옛날에는 이 社會機能이 學校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地域社會에서 '生活的'으로 그 地域社會의 諸行事를 成人未成人이 얼려 해나가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導入"에 必要한 知識·技能·態度·價値觀·其他 生活樣式은 大小의 地域社會行事……家庭·밭갈기·나무하기·祭祀·端午놀이·사랑방 이야기·秋夕·人事·개울 뚝막기……에 未成人들이 제 힘이 자라는 대로 漸次的으로 參加함므로 배웠다. 이것이 말하자면 "原本的"인 地域社會學校의 槪念이다. 어떻게 보면 "本然의 敎育"이다. 地域社會가 學校이고 學校가 地域社會였다. 이 點에서 본다면, "學校"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 도리어 敎育은 여러가지로 "本然의 敎育"을 잃고 비뚜러지고 망쳐졌다고도 볼 수 있다. 비뚜러졌으나마 學校敎育은 現代의 여러 頭痛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無難했다. 그러나 科學工業으로 出發한 社會의 分岐化·階層化, 文化的 崩壞, 成人과 未成人의 隔離, 價値觀의 修羅場 家庭機能의 弱化, 地域社會紐帶의 弱化, 社會의 流動性등 기타 現代의 特徵은 어느듯 學校를 거의 完全히 地域社會의 一角의 "學校壁"속으로 隔離시켜 놓았고, 움직이고 흐르는 現代의 全般的 社會의 潮流에는 無關히 "學問社會"와 "過去社會映像"을 위해서만 送日케 만들어 버렸다. 다라서 어느듯 學校는 本來의 敎育使命을 못하고 따라서 그런 學校에서 나오는 卒業生도 "十年工夫"헛되게 다시 現代라는 分岐場 修羅場에서 分岐와 修羅를 일삼는다. 要는 非社會的 敎育과 非敎育的 社會가 現代의 學校와 지역사회를 特徵지우고 있다.

이 是正의 努力이 現代的인 地域社會學校의 槪念으로 나선다. 이런 是正의 努力은 近來에 強弱廣狹 여러가지로 나왔다. 弱하게는 학교교육에서 지역사회에로의 "出張"을 좀 자주하는 것에서부터 強하게는 學校敎育自體의 槪念의 根本的 變革과 더불어 "學校"가 地域社會에 뒤어날 따름이 아니라 地域社會가 敎育的 責任을 積極 나누어 가지는 것을 主張한 것까지 있다. 終局의 目的은 "地域社會中心의 學校"(community－centered school)이라기 보다는 "敎育中心의 地域社會 (education centered community)다.

지역사회학교의 特徵으로 여러가지가 提案되어 있는데 다음이 그 要點이 될 것이다.

① 敎育計劃은 넓은 國家社會·世界社會의 必要를 應함이 없이 特定한 地域社會의 必要에 應할 수 있도록 計策되어야 한다.

② 地域社會의 여러 課題와 活動은 兒童·靑年이 敎育經驗을 얻을 수 있는 媒介가 되어야 한다.

③ 兒童·靑年은 相互關心事인 問題에서 成人들과 協同해서 일해야 한다.

④ 學校는 그 內部組織과 運營에 있어 한 模範的 民主地域社會라야 한다.

⑤ 地域社會의 改良을 위한 課業의 創始計劃 및 運行의 指導的 役割을 자주 學校가 擔當해

11) 鄭範謀, 敎育課程(서울 : 中央敎育出版社 ; 1956), pp. 500～502

야 한다.

좀 세밀히 이상 다섯가지 條件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從來의 學校라는 槪念, 敎育이라는 槪念과 相當히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1952年에 來韓했던 윌리아드·가스린(Williard E.Goslin)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學校프로그램을 地域社會의 必要와 興味와 보다 效果的으로 關聯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地域社會는 學生들에게 산硏究室이 되고 社會的·市民的 生活의 敎科書로 될 수 있다. 學校는 그(학교) 속에서와 그 周圍에서 敎師·學生·父兄 및 社會機關·市民機關 및 娛樂機關이 文化的·敎育的프로그램을 發展시키는 地域社會의 센터(community center)로 되어야 한다. 學校建物은 그러한 諸活動을 위해서 더 一般的으로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國內國外 여러 學者들의 主張하는 共通된 敎育哲學에 立脚해서 學校를 運營해 가면 自然 學校와 地域社會의 統合이 高度로 이루어질 것이며 다시 말하면 地域社會의 敎育的 價値있는 資源을 學校프로그램에 利用하고 學校의 資源을 利用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結論지웠다.

以上으로 보아서 鄕土學校의 槪念은 從來의 傳統主義的 學校 卽 地域社會와 隔離된 組織化된 學校敎育, 象牙塔的 存在에서 벗어나 地域社會에 터전을 두고 ① 學校프로그램은 地域社會에서 얻어지고 ② 學校는 地域社會를 利用하고 ③ 地域社會는 學校를 利用하여 學校는 곧 지역사회요 地域社會는 곧 學校라는 觀念이 成熟하여서 學校와 地域社會가 모든 自然的·文化的 諸資源이 相互 活用되어 學校와 地域社會의 發展이 이룩됨으로서 '우리의 學校'라는 廣義의 올바른 敎育觀이 成立되는 學校運營이 鄕土學校의 槪念이라고 볼 수 있다.

2) 鄕土學校의 性格

(1) 鄕土學校의 基本的性格

앞에서 鄕土學校의 槪念을 鄕土社會와 地域社會는 同一의 意味를 가진 것이며 學校와 地域社會는 相互 紐帶를 가지고 敎育을 함으로써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을 企圖한다는 데에 目的을 두고 있음을 말하였다. 元來 敎育의 機能은 社會文化를 維持하고 存續시키는 一面과 아울러 이를 傳達하여 社會를 發展革新시키는 重要한 他面이 있어서 이와같이 敎育과 社會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社會란 通念的인 一般的 社會가 아니라 勿論 넓게는 世界社會도 包含되기는 하지만 具體的으로는 兒童 學生들이 生活 盛裝하는 고장 卽 兒童 學生들의 直接的인 經驗을 通하여 그들의 知識을 넓히고 信念을 形成하며 民主的 生活態度를 기르는 고장을 발판으로 하여 人間敎育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兒童學生들은 于先 그 地域社會의 存續과 維持에 必要한 것을 學習함으로써 地域社會의 成人들의 期待와 고장의 傳統과 文化에 대하여 認識과 理解함과 아울러 다른 面으로는 兒童 學生들이 자라고 있는 地域社會에서 改善되어야 할 許多한 問題 卽 迷信·懶怠·知識의 落後·利己的 傾向의 集團感情·前近代的인 生産性의 落後 等 古來로부터의 沈滯的 維持의 陋習같은 問題가 가로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問題들을 改善하고 革新하여 보다 낳은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또한 敎育의 一面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現在의 兒童 學生들을 올바르게 敎育함으로써 漸進的으로 革新할 수도

있을 것이며 學校가 中心이 되어 直接的으로 또 直刻的으로 社會改善을 이룩할 수도 있는 것이다.

以上 論한바와 같이 地域社會學校란 教育의 社會的 機能을 強調하고 있는 學校이며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올센(Olsen)의 그 性格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12]

Olsen(올센)의 地域社會學校의 特徵

① 地域社會學校는 同地域社會의 지금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② 地域社會學校는 地域社會를 學習의 實驗場으로 使用한다.

③ 地域社會學校는 學校施設을 地域社會센터로서 使用한다.

④ 地域社會學校는 生活의 기본적 과정과 문제를 中心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⑤ 地域社會學校는 학교정책과 교육계획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行使하며 또한 이를 增進시킨다.

(2) 文教部가 制定한 鄕土學校의 一般的 性格

우리나라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1953年頃부터 教育學者들의 "地域社會學校"에 대한 槪念紹介와 아울러 그 運動을 主張하여 硏究및 實踐의 氣運이 漸次 싹트기 始作하였다. 우리 京畿道에서는 1957년부터 "地域社會學校를 建設하자"는 것을 奬學方針으로 定式 내세우고 實踐하기 始作한 지 數年後인 1960년 4, 19學生義擧를 거쳐 第二共和國이 誕生한 翌 1961年 民主黨政權은 鄕土學校 建設을 重要 奬學方針으로 내세우고 用語도 "地域社會學校"를 "鄕土學校"로 고쳤다.

그리고 一線 各級學校및 教師에게 鄕土學校의 哲學的 指針을 提示하기 위하여 理論的 資料인 "향토학교란?" 이라는 小冊子를 編纂 發刊하였다.

거기에는 "바람직한 향토학교의 일반성격"의 14個項目과 5개項目의 鄕土學校建設에 隨伴되는 行政原理가 明示되어 있어 이는 前記한 美國의 컴뮤니티, 스쿨理論이나 우리나라의 諸教育學者들이 主張하는 韓國의 地域社會學校의 理論과 거의 近似한 것으로 韓國教育의 指向을 提示하였다고 보는 바 그 內容을 拔萃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13]

(3) 바람직한 鄕土學校의 性格

① 鄕土學校는 直接으로 또는 人間形成을 通하여 社會의 向上改善에 이바지한다.

② 鄕土學校는 가장 가까운 社會를 活動의 터로 하되 항상 보다 넓은 社會의 必要와 問題를 考慮하여 全體的으로 關聯이 긴밀한 活動을 한다.

③ 鄕土學校는 長期的 性格을 띤 社會基本的 問題 혹은 重要問題에 합쳐 短期的인 긴급한 社會問題를 아울러 考慮한다.

④ 鄕土學校는 社會가 傳達 更新해 온 基本的인 文化財의 學習을 더욱 有効하게 한다.

⑤ 鄕土學校와 社會(특히 鄕土社會)의 關係는 相互的이며 또 서로 惠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12) Edward G.Olsen and Others, School and Community (Revised), (NY, Premtice-Hall, 1954)pp 14~18을 引用한 金宗西의 地域社會學校의 實際. pp 18~20, (서울 : 現代教育○書출판 1966)

13) 문교부, 향토학교란?, 향토학교 건설자료 제1집, 1961, pp. 16~22

⑥ 鄕土學校는 鄕土社會와의 建設的인 關係를 造成 유지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⑦ 鄕土學校는 鄕土社會 改善을 위한 活動의 中心的 "터"로서 提共된다.

⑧ 鄕土學校는 鄕土社會 改善을 위한 諸活動에 있어 다른 향토사회의 機關이 할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 學校가 할 바를 中心的으로 정선한다.

⑨ 鄕土學校는 그의 活動의 전면에 걸쳐 民主主義的 過程을 強調한다.

가) 民主主義的 過程은 各 個人 혹은 各個 團體의 自主的 創意性 發揮르 強調한다.

나) 民主主義的 過程은 關與하는 사람의 自由로운 또 充分한 의사 표시에 의한 討議를 권장한다.

다) 民主主義的 過程은 관여하는 사람의 自主的 協助를 強調한다.

라) 民主主義的 過程은 知性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도록 권하며 問題解決에 있어 科學的 態度와 技術을 強調한다.

마) 民主主義的 過程은 계속적인 向上을 위하여 끊임없이 評價를 권한다.

⑩ 鄕土學校는 學校와 社會가 가진 모든 人的 物的 資源을 有效 適切히 利用한다.

⑪ 鄕土學校는 다양성 있는 學習方法을 채택하여 가장 큰 학습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⑫ 鄕土學校는 鄕土社會의 特殊性을 充分히 考慮하여 여기에 適應하여야 한다.

⑬ 鄕土學校는 社會의 必要와 問題의 움직임에 敏感하여야 하며 여기에 適應하여야 한다.

⑭ 鄕土學校는 學校 自身이 가진 制限과 또 鄕土社會에 따른 制限을 充分히 考慮하여 언제나 現實에 입각한 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어떤 理想型을 急激히 좇아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鄕土學校의 像에 걸맞게 廣州敎育區에서도 各級學校의 施設, 學校行政, 組織, 敎育課程運營, 職員管理, 鄕土社會의 人的 物的 資源의 充分한 活用을 기하도록 努力하였다.

(3) 廣州敎育에서의 鄕土學校 性格

文敎部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람직한 鄕土學校의 一般的 性格에 따라 廣州敎育에서 다음과 같은 性格을 規定했다.

첫째, 敎育課程을 地域化하는 學校

地域社會는 모든 人間經驗의 縮圖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無限한 學習問題와 學習資料를 찾을 수 있다. 구태어 교실안에서 文字를 中心으로 하는 敎育을 하지 않더라도 地域社會는 學習의 實驗場으로서의 役割을 充分히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敎育課程을 地域化한다. 하여도 各學校의 傳統, 地域社會 및 學生의 必要에 따라 여러가지로 그 構造를 計劃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問題를 中核으로 하고 모든 學習을 이에 統合시키는 中核型的인 構造에서부터 敎科書를 中心으로 그 資源을 最大限으로 地域社會에서 求하여 學習을 具體化하고 活氣있게 할 수 있는 分科型에 이르기까지 몇 段階가 있을 수 있다.

둘째, 住民과 學校가 바람직한 關係를 유지하는 學校

地域社會 學校는 그 學校가 있는 바로 그 社會에 발판을 두고 있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地域社會住民들의 마음속에 學校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萬一 學校와 地域社會가 對立·反目, 葛藤 不信의 關係에 있다면 地域社會學校의 建設은 不可能하다. 住民과 學校가 바람직한 關係를 유지하는 일은 教育課程의 地域化, 地域社會 開發, 學校施設 設備의 開放등의 모든 問題에 걸쳐서 그成敗를 左右하는 關鍵이 된다.

세째, 地域社會 開發을 위하여 奉仕하는 學校

從來에는 學校와 地域社會 開發은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學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였고 地域社會에서도 이를 當然視하였다. 그러나 學校와 社會를 遊離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오늘날의 教育은 學校가 地域社會 開發活動을 直接的으로 擔當하여야 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特히 後進性을 띄고 있는 國家에서는 學校가 中心이 되어 地域社會開發을 한다는 것은 잘만計劃한다면 推進하기가 容易할 뿐 아니라 그 効果도 또한 大端히 클 것이 期待된다.

네째, 學校의 建物, 施設, 設備를 地域社會 住民에게 開放하는 學校

어느 地域社會에서던지 學校와 같이 좋은 建物과 施設, 設備가 있는 곳도 드물다. 이것을 兒童教育에만 쓰고 午後 늦게서부터 夜間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放置하여 둔다는 것은 經濟的 立場에서 볼 때도 不合理하다 特히 우리나라의 學校의 大部分은 國家에서의 補助와 過去에는 師親會費 現在는 期成會費의 도움을 받아 建立하였음을 생각할 때에 이는 마땅히 地域社會 住民이 利用하도록 開放하여야 할 것이다. 學校開放에 따르는 諸問題點은 計劃만 緻密히 잘 한다면 相當히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地域社會의 여러 機關이 調整者의 役割을 하는 學校

地域社會에는 여러 機關들이 있다. 學校·警察支署·洞事務所·農協·4H클럽·國民再建運動·青年會·婦女會·山林係等 許多히 많은 機關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 모두가 地域社會發展이라는 共同目標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機關에서는 相互 密接한 連結밑에 各自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協力하고 相互助力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學校가 中心이 되어 各 機關의 調整者(cordinator)的인 役割을 해야 한다. 學校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가장 適切한 기관이라는 것이 漸次로 認定되어 가고 있다.

여섯째, 民主的인 學校인 것이다. 위에 列擧한 다섯가지 일들이 아무리 效率的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專制와 命令에 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地域社會學校라고 할 수 없다. 上部命令에 依하여 各 單位學校들이 手足의 役割을 擔當하여 地域社會開發活動의 成果를 거두고서 이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고 錯覺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 學校長의 行政方式 教職員會의 움직임, 學生指導의 方法등의 民主的이며 民主的 過程의 본보기를 學校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地域社會學校의 特徵의 하나인데 이點이 많은 教育者들이 忘却하기 쉬운 問題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廣州教育의 鄕土學校 性格의 規定에 따라 各級學校에서는 活潑한 教育活動이 推進되었다.

(4) 各級 學校의 鄕土學校 推進

廣州教育區의 鄕土學校의 推進은 빈곤타파를 위한 生産하는 教育, 實業教育의 강화 學校所在地域의 研究特殊課題 등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 1962年의 빈곤타파를 위한 生産하는 教育推進

廣州敎育區는 1962年의 鄕土學校 推進의 力點을 貧困打破와 人間改造에 두고 文敎政策을 具現하였다.

貧困打破를 위해서는 ① 實業敎育의 強化로서 實業敎育의 革新 ② 科學敎育의 忠實 ③ 經濟開發計劃에 필요한 技術人力의 養成을 꾀하였으며 勤勞敎育을 위하여 ① 生産敎育의 強化 ② 産業施設과의 연계촉진 ③ 勤勞奉仕活動의 展開등을 奬學方針으로 세워 推進하였다.

곤지암중학교는 가축사육을 통해서 生産하는 敎育을 實踐한 대표적인 學校였기에 그 事例를 소개한다.

〈사육활동 사례〉

토끼 王國의 學校[14]

곤지암중학교

1962年 7月 1日 現在 鄕土學校 建設을 위한 本校의 實績은 다음과 같다.

1. 行動 및 生活의 成長面에서

가. 학생 각자가 자기 소유의 가축을 무엇이나 한 마리 이상 가질 수 있고 이것을 자력으로 기르기 시작하였다.

나. 일하기를 싫어하고 천시하던 학생들이 점차 근로에 대한 애착심이 붙기 시작하였다.

다. 조기청소가 습관화되어 가고 있다.

라. 생활개척 의욕이 점차 나타나서 자기집 생활형편을 걱정하여 부모에게 자주 집안 일을 의논하고 있다.

마. 유휴지 개간의식이 점차 왕성해지고 있다.

바. 포푸라 및 특수작물 재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 내고장의 봉사활동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가고 자진 봉사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아. 부형들이 자주 학교에 찾아와서 의욕적인 건의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자. 점차 자연부락 단위로 학생들끼리의 협동의욕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마을단위 학부형들끼리의 친밀과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사마련, 개간 등을 대부분 마을에서는 공동품앗이를 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2. 노작 생산활동에 있어서

본교의 노작 생산 실적으로는 1961年 11월에 벼이삭 줍기와 가마니짜기 등으로 88,300환을 얻어 1961年 12月에 토끼 50마리를 사들이고 토끼 사육상자70개와 시험용 양토굴 8평을 마련하였고 1962年 3月에는 번식 양토굴 50평을 확장하였다.

1962年 4月에는 유휴지 15680평을 개간하고 1962年 5月에는 양토굴 50평을 더 마련하였다.

그리고 양계사 10평, 돈사 3평, 산양사 10평, 축우사 5평을 마련하였다.

---

14) 경기도교육위원회, 《鄕土學校十年》 (1958－1967), p. 144.곤지암중학교

이상과 같이 사육한 가축수는 1962年 6月末 현재 토끼가 840마리로 번식하여 전교생에게 1인1토 사육을 장려하였고 인근 국민학교의 빈곤한 아동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아동에게 장차 새끼토끼 한 마리 씩을 상환 받기로 하고 종토를 분양하여 자력으로 길러서 학자금을 보태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끼고기의 요리, 토끼가죽의 가공 등도 성공하여 향토사회 주민의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닭이 20수, 산양이 2두, 벌 2통, 돼지 1두, 미주리 양식 50평 운영도 다 성적이 양호하였다.

이렇게 해서 향토사회 생활개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교의 태도에 향토사회 주민들과 오고 가는 정은 날로 높아지고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때로는 나무 한짐을 져다 주고 "선생님 수고하시니 때시오."하는 순진한 농민, "우리 밭에서 난 호박이니 맛보시오."하고 두고 가는 할머니, 이래서 오고 가는 정이 넘쳐 흐르는 이 고장의 학교는 명실공히 향토학교의 건설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바치었던 것이다. -後略-

○ 1964~1967年의 前進하는 鄕土學校의 推進

廣州敎育區의 鄕土學校의 推進은 發展段階에 접어들어 1964年에는 學園의 革新運動推進, 敎育課程運營의 改善 및 硏究推進을 奬學方針으로 한 鄕土學校 推進의 해라고 볼 수 있으며, 1965年은 經濟成長을 위한 敎育課程 運營의 推進과 自立하여 前進하는 精神的 姿勢 確立을 方針으로 한 戰鏖하는 鄕土學校 建設의 해라고 할 수 있다. 1966年과 1967年은 民族主體性의 確立, 生産하는 敎育의 推進, 健全한 學風達成을 方針으로 하여 66年을 더 일하는 해였으며 67年은 前進하는 해였다.

이러한 時期에 實踐한 主要 時策은 다음과 같다.

첫째, 反共道德敎育의 철저를 위하여 國旗달기 運動을 展開하였고 反共 및 鄕土館을 各級學校에 設置하여 運營하였고 서로 돕기 運動을 展開하였다.

둘째, 科學敎育의 振興發展을 위하여 科學的 知識을 획득하게 하고 科學技術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科學的 態度를 함양하였을 뿐 아니라 科學原理를 生活化하고 科學施設을 확충하는데 힘썼다.

세째, 實科敎育의 發展을 위해서 學校實習地를 합리적으로 운영케 했고 學校 및 地域社會에 푸른 숲을 조성케 했으며 飼育 및 栽培 活動을 촉진하였을 뿐 아니라 營農學生會를 指導育成했다. 이 때 이미 就業進路指導를 實施하여 廣州의 靑少年들에게 올바른 職業觀을 갖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國家敎育時策에 부응하는 敎育을 實踐하면서 廣州敎育區는 十年間의 重吳的 敎育目標인 鄕土學校의 建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敎育時策을 펼쳐 왔다.

첫째, 各級學校 敎育課程改編에 따른 郡敎育區의 對應方案 硏究와 國民學校의 새 敎育課程運營指針 作成普及, 鄕土敎育課題 調査硏究, 廣州郡 鄕土資料單元 作成, 國民學校 技能 및 藝能方面의 敎育實態 調査와 改善方案 提示, 鄕土資料人事의 活用, 調査學習活動으로 敎育課程運營의 鄕土化에 힘썼다.

둘째, 視聽覺的 方法의 學習指導方法 普及과 敎員의 現職硏修活動 強化를 통한 敎育方法의

現代化를 強力하게 實踐하였다.

세째, 鄕土奉仕活動의 적극 추진과 敎育自治制의 實施에 따른 各級 機關과의 유대 강화와 人和團結을 實踐하여 명실상부한 鄕土敎育을 實踐코자 하였다.

이 時期의 廣州敎育의 중요한 敎育實踐 事例를 學校別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學校 硏究 活動

〈廣州農業高等學校〉: 1965年度

• 꿩사육을 통한 生産敎育의 實踐

〈南漢國藝高等學校〉: 1967年度

• 밤나무의 새로운 번식법

○ 營農學生 硏究 活動

〈廣州農高 축산과 3학년 박치순〉

• 1956年 : 건파재배에 적당한 벼품종 조사

〈廣州農高 농과 3학년 박기하〉

• 1966年 : 밭벼 신품종 이천 금관의 이모작 재배 실험

〈廣州農高 축산과 3학년 윤방원〉

• 1967年 : 나의 꿩 사육 실제

특히 위의 윤방원은 제2회 전국영농학생 발표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第2回 全國 營農學生 發表會> 一等 當選 所感

廣州農業高等學校
畜産科 3年 尹邦源

발표가 다 끝나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이 서로서로 말을 주고 받는 표정이 심상치 않다. 나는 초조했다. 어떻게 될것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무한이 긴 것 같이 지루하였다. 드디어 등수 발표가 시작되었다.

3등이 발표되었다. "청주농고" 내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한다. 2등이 발표되었다. "성주농고"실망아니면 더욱 큰 희망, 내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더욱 뛰고 숨마져 크게 쉬지 못하고 발표하는 선생님 입만 바라 보았다. 실로 숨막히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1등 경기도 광주농고 윤방원"이라고 발표 되었을때 내 가슴은 터질듯이 기뻤다. 나도 모르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청중을 향해 "감사합니다."하고 절을 했다.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의 이 조그만 "꿩사육"이 전국에서 1등이 될지는 미쳐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할지는 정말 몰랐다. 한편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 京畿道敎育委員會, 鄕土學校十年史, pp. 213-214.

무엇인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영광을 차지한 "꿩사육"의 동기와 과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꿩이 산에 많다는 이야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었고 산에 나무하러 갔을 때 사람에게 놀라 날아가는 것도 보았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처음 실습농장에 실습하러 갔을 때 꿩사육장 안에 꿩이 노는 것을 보고 하도 신기하여 실습도 잊고 한참 동안 서서 지켜 봤다. 근처만 가도 날아가던 것이 꿩사육장 가까이 가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놀고 있고 농부아저씨가 모이 주는 통을 들고 갔을때 모여드는 것이 닭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처음으로 자세히 보는 꿩이라 모양이 아름답다. 암놈은 별게 아니다. 그러나 숫놈은 참으로 아름답다. 알록달록 색도 곱거니와 머리 양쪽에 뾰족하게 키가 난 것이 더욱 우습다. 콧등 위에는 진홍색 벼슬이 있고 목에는 흰띠를 두른 아주 멋쟁이 신사다.

그날부터 나는 꿩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꿩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나도 꼭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과 같이 어느 날 오후 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다.

꿩에 대한 나의 관심도를 측정하시고 성의 있게 꾸준한 노력을 해야된다는 다짐을 받은 후 비로소 꿩 전공생으로서 일할 것을 허락해 주셨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첫날 저녁은 잠을 못잤다. 내 어린 가슴은 부풀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농장에서 힘껏 일했다. 때때로 나의 정성이 식어갈때는 선생님으로부터 충고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즐거운 여름방학 친구들이 산과 바다로 놀러갈때도 나는 농장에서 일했다. 밥 지어 먹고 뒤처리를 하기란 죽기보다 싫은 자취생활을 겨울 방학에도 했고, 굳었던 결심이 허물어질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철없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고통과 즐거움이 인내와 극기 또한 충고가 뒤섞인 가운데 한 해의 연륜이 짙어갔다. 2학년이 되던 어느날 선생님과 의논하여 1년간 배운 실력을 기초로 하여 집에서 자신의 힘으로 길러보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책임감이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만 하였는데 막상 자신의 힘으로 할려고 하니 막막하였다. 모르는 것이 더욱 많고 자신이 점점 없어져 갔다. 후회도 많이 했다. 때로는 나 혼자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5~6월 장마철에 꿩병아리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깝기 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슬픈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써 키운 꿩들이 우리 안에서 즐겁게 노는 광경을 볼 때는 모든 고통은 일시에 사라지고 보람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고 나는 귀중한 이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시켜 영농학생회가 요구하는 참뜻을 살려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꿩을 해외에 널리 알리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외화획득이라는 국가시책에 호응하고 아울러 우리나라를 널리 외국에 알리는 데도 뜻이 있다고 본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토의 74%라는 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자료로 하여 많이 사육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이것이 향토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나의 이 조그마한 꿩사육이 더욱 보람있고 빛나리라 생각한다. 오늘의 이 영광을 받기까지 아낌없이 지도를 해주신 여러 선생님과 특히 밤낮으로 걱정해 주신 본교 송기재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廣州農業高等學校〉: 1966年

實業高等學校 實習生産物 展示會에서 「園藝作物 病害表本」을 出品하여 入選함

〈南漢園藝 高等學校〉: 1967年

實業系學校 鄕土學校 研究結果報告

主題 : 밤나무(내병성)의 새로운 번식법

〈廣州農業高等學校〉: 1967年

學校所在地域에 따른 研究 特殊課題를 ① 乾畓直播 ② 宿根草栽培를 통한 收益強化 ③ 大豆移植 栽培로서의 收益強化로 잡고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廣州東中學校〉 1965年

廣州東中學校에서는 鄕土學校에 대한 研究로서 「養兎에서 發展된 鄕土生活 改善運動」을 展開했다.

1967年에는 京畿道教育委員會主催의 鄕土學校 經營의 事例發表에서 「鄕土開發研究推進에 대하여」라는 답신서를 發表하였다.

5. 軍事政府에서의 廣州의 教育機關

1) 教育機關의 新設

軍事政權 아래에서도 廣州教育은 成長을 거듭하여 이 時間 동안 3個의 國民學校와 1個의 中學校, 1個의 高等學校가 設立되었다. 또한 1963. 1. 1字로 行政區域 改編에 의해 구서·구원·중대·언북·언남·언주·대왕국민학교 등 7個 國民學校가 서울로 編入되기도 했다.

〈表 一〉 新設 國民學校 狀況[15]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備 考
望月國民學校	1960. 1. 25	廣州郡 東部面 望月里	심 태 섭	分教에서 승격
檢川國民學校	1961. 3. 1	廣州郡 退村面 檢川里	임 후 재	
廣明國民學校	1961. 4. 3	廣州郡 五浦面 新峴里	김 정 학	

〈表 二〉 新設 中學校 狀況[16]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備 考
樂生中學校	1961. 9. 1	廣州郡 樂生面	정 대 화	

15) 京畿每日新聞社, 《京畿教育年鑑》, 1967. pp. 335-343.

16) 上揭書 p. 156

〈表 三〉 新設 高等學校 狀況[17]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備 考
南漢園藝高等學校	1962. 1. 17	廣州郡 東部面 德豊里	곽 노 인	

2) 教育機關 實態

軍事政府 2年 7個月間의 廣州教育은 質量面에서 크게 成長하지 못했으나 鄕土學校의 推進을 통해서 地域의 問題를 새롭게 認識하게 된 중요한 時期였다.

1963年 3月 1日 現在의 廣州教育 實態는 다음과 같다.

〈表 四〉 各級 學校別 在籍者數

1931. 3. 1 現在

총 수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7682	9558	8124	15556	7992	7564	1405	1011	394	159	153	24	391	313	78	171	107	64

資料：京畿道 統計年鑑 1963

〈表 五〉 國民學校 狀況

1963. 3. 1 현재

학교수		18학급이상	교원수			아동수			교실수			졸업자수			진학자수			신입생수		
본교	분교		계	남	여	계	남	여	정교	가교실	부족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6	1	1	274	190	84	15556	7992	7564	172	33	52	1361	719	642	606	424	182	3041	1574	1469

資料：京畿道 統計年鑑 1963

〈表 六〉 中學校 狀況

1963. 3. 1 현재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교실수			졸업자수			진학자수			신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정규	특별	가교실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	30	43	35	8	1405	1011	394	21	2	9	470	337	133	269	219	50	478	326	152

資料：京畿道 統計年鑑 1963

17) 上揭書, p. 155

〈表 七〉 人文系 高等學校 狀況

1963. 3. 1 현재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교실수			졸업자수			진학자수			신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정규	특별	가교실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	3	5	5		159	135	24	3	-	1	43	35	8	8	8	-	70	59	11

資料 : 京畿道 統計年鑑 1963.

〈表 八〉 實業界 高等學校 狀況

1963. 3. 1 현재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교실수			졸업자수			진학자수			신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정규	특별	가교실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	9	16	12	4	391	313	78	8	-	1	87	61	26	13	12	1	164	132	32

資料 : 京畿道統計年鑑

〈表 九〉 公民學校 및 高等公民學校狀況

1963. 3. 1 현재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재적수			주간		야간		졸업자수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2	6	9	7	2	177	107	70	107	70	-	-	61	43	18	

第9節 第3共和國과 廣州教育

1. 第3共和國의 出帆과 文敎政策

5·16과 함께 들어선 軍事政府는 1962年 12月 6日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第5次 改憲案을 議決 通過시키고 같은 해 12月 17日 國民投票를 실시하며 12月 26日 確定 公布하였다.

새로운 憲法에 따라 1963年 10月 15日에 大統領 選擧를 거쳐 12月 17日에 第5代 大統領 朴正熙의 就任과 第6代 國會가 開院됨으로써 現代史의 새로운 地平을 여는 第3共和國이 出帆하였다.

第3共和國은 5·16軍事革命 主體가 거의 政界로 進出하였기 때문에 革命 當時에 公約으로 천명했던 經濟政策의 基本精神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經濟復興을 통해 祖國近代化를 이루고자 하여 「民族中興을 위한 祖國 近代化의 作業」은 많은 高級 人力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第3共和國에서의 文敎政策은 人力資源의 開發과 깊은 關係를 갖게 되었다.

第3共和國(1964~1968)의 敎育을 한마디로 말해 整備期의 韓國敎育이라고 表現할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脈絡에서 敎育政策의 方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18]

1) 敎育政策 方向

(1) 民族主體性과 國民的 倫理觀의 強調

國民에게 自信感을 심어 주어 民族的 自負心을 고취시키고 강한 成就意慾과 함께 忍耐性을 바탕으로 經濟成長과 自主國防을 위하여 國民主體性과 國民的 倫理觀을 敎育政策의 基本 方向으로 정했다.

(2) 經濟建設과 生産敎育의 強調

經濟開發計劃은 다른 分野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계속 10% 以上의 成長率을 보이게 되어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人力共給과 資本調達을 위한 우수한 産業人力을 배출할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敎育政策을 設定했다.

(3) 學園의 敎權과 師道의 振作

계속되어 오는 學園事態와 실추된 敎權을 다시 찾기 위해서 安定된 學園目的으로 敎權과 師道의 振作이라는 敎育政策을 세웠다.

이와 같은 文敎政策은 歷代 文敎長官의 敎育을 보는 視角이며 당시 國家·社會의 要求이기도 했다. 여기서 16代부터 18代까지의 文敎長官의 文敎政策과 奬學方針을 살펴보면 廣州敎育의 內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6代 權五柄 文敎長官

- 文敎政策 : 祖國 近代化를 위하여 前進하는 敎育
- 奬學方針
  - ① 民族自體性의 確立
  - ② 生産하는 國民敎育의 推進
  - ③ 健全한 學風의 造成

◇ 17代 文鴻柱 文敎長官

- 文敎政策 : 공부하는 學園을 建設하여 生産하는 敎育推進
- 奬學方針
  - ① 健全한 學風造成
  - ② 生産하는 敎育의 推進
  - ③ 民族自由性의 確立

◇ 18代 權五柄 文敎長官

- 文敎政策 : 공부하는 學園을 建設하여 近代化를 위한 人間敎育과 生産하는 敎育을 推進하고 새國民像 定立

18) 대한 어머니회 중앙연합회, 〈韓國敎育三十年史〉 (서울 : 성문인쇄사, 1977), pp. 377~379.

○ 奬學方針

① 倫理觀의 確立

② 산 敎育의 推進

③ 敎育課程 運營의 正當化

④ 한글 專用 推進

⑤ 師道의 確立

위와 같은 文敎部의 敎育政策에 터하여 京畿道敎育委員會에서는 敎育의 自由性을 強調하고 확고한 敎育哲學을 견지하여 敎育의 中立과 敎育의 自立을 추진하였으며 敎育의 生産性과 自由性을 強調하여 鄕土學校 建設의 지속적인 推進과 祖國 近代化에 이바지하는 敎育을 推進하는 한편 敎育의 專門性을 深化하는 施策을 펼쳤다.

이를 年度別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 京畿道의 奬學目標·方針·努力重點 [19]

년 도	장 학 목 표	장 학 방 침	노 력 중 점
1964	향토학교의 추진	1. 학원의 혁신 운동 추진(자주성) 2.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연구추진(생산성)	
1965	전진하는 향토학교 건설	1.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추진 2. 자립하여 전진하는 정신적 자세 확립	① 맨손수업 지양 ② 교육연구의 철저 ③ 과학교육의 강화 ④ 학생저축장려 ⑤ 향토개발 봉사활동 전개
1966	전진하는 향토학교의 건설	1. 민족주체성의 확립 2. 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3. 건전한 학풍 조성	① 국민적 자존심의 앙양 ② 공공생활 교육의 합리화 ③ 향토개발 봉사활동의 강화 ④ 실험실습 교육의 생활화 ⑤ 1인1기 교육의 발전 ⑥ 저축교육의 발전 ⑦ 학교관리의 과학화 ⑧ 자율학습의 여행

19) 京畿道 敎育委員會, 前揭書, p. 161.

년 도	장 학 목 표	장 학 방 침	노 력 중 점
1967	공부하는 학원을 건설하여 생산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1. 건전한 학풍 조성 2. 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3. 민족주체성의 확립	① 국기·국가·국가 원수에 대한 존엄성 앙양 ② 반공도덕 교육의 강화 ③ 교육과정 운영의 향토화 ④ 실험 실습 교육의 중시 ⑤ 집단질서의 확립
1968	공부하는 학원을 건설하여 근대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생산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1. 건전한 학풍조성 2. 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3. 민족 주체성의 확립	① 승공도덕교육의 강화 ② 교육과정 운영의 향토화 ③ 과학교육환경의 조성 ④ 학교관리의 철저 ⑤ 집단질서의 확립 ⑥ 향토개발 봉사활동의 강화 ⑦ 교직연수의 철저

2. 京畿教育 施策에 따른 廣州教育

京畿道는 接敵地域과 首都圈이라는 特殊教育環境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教育的 對應 方案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地域이다.

따라서 1964年부터 1968年까지의 京畿教育의 時策에서는 勝共道義生活을 日常生活에서 習慣化하는 實踐的인 教育을 하는 데 力點을 두었다.

1) 科學教育의 革新

發展하는 각종 産業構造의 變化와 農村의 近代化에 다라 科學技術教育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創意的이고 合理的인 生活態度를 갖게 하고 生産活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기궁을 훈련하기 위하여 觀察하고 實驗實習하는 經驗을 重視하였으며 自己의 進路에 따른 生産的 適應教育을 合理化하였다.

2) 教育課程 運營의 鄕土化

鄕土教育의 具現을 위하여 發展의 要素인 人力開發을 위한 教育의 實踐이 필요하다. 鄕土의 開發에 기여할 수 있는 教育課程 運營에서 地域性을 살리는 教育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이를 強力하게 推進하였다.

3) 教職使命의 完遂

産業發展에 따른 人力需要는 教員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教育의 推進을 위해서 教員의 使命感의 확립과 資質의 向上을 위한 教員 研修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4) 民主的 集團秩序의 確立

오늘의 教育問題 가운데 學園의 秩序確立과 學生의 生活態度 確立을 위한 教育對策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集團指導를 強化하여 集團의 成員으로서의 올바른 自律秩序를 確立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京畿教育의 基底에 바탕을 두어 廣州教育에서도 ① 學校管理의 科學化 ② 教育課程 運營의 正常化 ③ 生活指導의 徹底 ④ 教育平價의 研究 ⑤ 人性教育의 強化 ⑥ 特色 있는 學校 運營 ⑦ 實驗實習指導의 效率化 등을 各級 學校에 示達하여 強力하게 推進하였다.

1968年度 廣州教育의 主要業績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教育廳 日誌

3月 : 教育計劃 樹立 集團協議會 개최
4月 : 研究主任會議, 科學擔當者會議, 教科別委員會, 反共道德委員會, 校長團情報學校 見學, 反共웅변 大會, 自體監査實施
5月 : 標準學力 및 知能檢査實施, 校長行政講習 개최
6月 : 兒童藝能實技大會 개최.
7月 : 反共道德委員會 개최, 1人1研究大會 개최
8月 : 反共道德轉達講習 개최, 1正講習 개최, 科學作品展示會 개최, 올갠實技修練審査, 美術實技大會, 兒童工作實技大會,
10月 : 保健環境審査, 廣州文化祭參加
11月 : 學力檢査, 변검사, 혈액검사,
12月 : 綜合評價, 陸士 및 美8軍學校 見學

◇ 1968年度 豫算總額 : ○ 132,317,000원

◇ 1968年度 事業實績

① 1인1연구발표대회 : 도 원고심사 결과 입선 5편, 장려상 1편 입상
② 도 주최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③ 전국 과학전람회 : 1점 출품
④ 도 주최 아동과학 실험실기 대회 : 2등 입상
⑤ 도 주최 아동공작 실기대회 : 우수상 1명, 가작 1명
⑥ 1정강습 : 100명 수강
⑦ 군내연합체육대회 개최
⑧ 도지정 연구학교 발표회 : 동부국민학교 음악과
⑨ 교장 행정 강습
⑩ 도집단 장학지도 받음

⑪ 교직원 공작실기 대회 개최
⑫ 교직원 올갠 실기 수련 : 여름, 겨울 방학 기간
⑬ 표준화 학력검사 실시
⑭ 반공웅변 대회 및 그리기 글짓기 대회 개최
⑮ 아동 예능 실기 대회 개최

◇ 1968 學年度 奬學上의 強調點

① 奬學計劃上의 強調點

가.諸 實態調査의 구체화 및 內面的면에 調査를 통해 教育計劃의 자료를 수집해야 겠음

나. 長期計劃을 요하는 問題는 長期計劃을 세워야 겠음

다. 自主性을 살린 計劃을 수립하고 教育計劃이 그 學校의 問題点을 해결하고 실태에 맞추어 計劃이 수립되어야 겠음.

라. 集團思考에 의한 計劃을 수립, 공동참여로 집단사고에 의해 모든 문제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 실천토록 해야 겠음.

② 奬學指導上의 強調點

○ 各教科委員會를 통한 單元性 格分析表 作成
○ 自學自習態度의 순치를 위하여 研究써클 組織
○ 現職研修의 強化로 教員의 資質向上
○ 結果活用의 確認과 教職員 姿勢確立

가. 生活指導面

· 學校教育目標를 中心으로 年間 月間 週間 計劃을 세우게 한다.

나. 特別活用面

· 저학년은 생활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計劃을, 고학년은 기능활동을 통해 자기 소질을 계발토록 한다.
· 전학년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개인의 개성을 신장시키며 계발시킨다.
· 성격조사를 통해 각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신장시킨다.

다. 反共·鄕土館 運營의 強化

·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 다양한 방법 속에 수시 시사성을 강구한다.
· 전교육과정과 관련시키며 아동들을 참여시켜 스스로 활용한다.

라. 教育課程의 合理的 運營

· 전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반공도덕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 체육과 미술과의 교재군과 비율을 별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지도한다.
· 교재 내용 분석에 따라 합리적인 계절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마. 教職員 研修의 合理的 推進

· 각종 실기연수의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 교장 교감 연수 의욕 고취를 위한 강습회를 개최한다.

· 각종 연구 써클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수립한다.

3. 教育自治制의 復活과 廣州教育行政機構

1) 教育自治制에 따른 京畿道教育委員會의 發足

5·16 軍事革命에 의해 教育自治制가 중단된 이래 만 2年 7個月만에 全教育者의 여망에 부응하여 1964年 1月 1日부터 教育自治制가 復活되었다.

같은 해 2月 6日 初代, 教育監 洪樂善이 취임하면서 京畿道教育委員會가 출범했다.

당시의 教育委員은 李光培, 李鳳九, 趙慶未, 金亨鎬, 李炳穆, 任天淳, 洪樂善이었으며 下部組織으로 學務局과 管理局을 두었고 市郡에 教育長을 두게 했다.[20]

2) 廣州教育廳의 開廳

1964年 1月 1日字로 教育自治制가 實施되고 同年 2月 6日字로 京畿道教育委員會가 發足되면서 廣州教育廳이 開設되었다.

開設 初期에는 教育廳에서 國民學校만을 관장하였으나 1972年부터 中學校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教育廳이 開廳하면서 그 下部 組織으로 學務課와 管理課를 두었으며 學務課에 奬學係와 人事係를 두고 管理課에 庶務係, 經理係, 施設係를 두었다.

教育廳 開設 이후의 廣州教育廳의 發展略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4. 1. 1 教育法 改定으로 廣州郡教育廳으로 開廳하고 學務課와 管理課로 編成 教育長 職務代理 이부열 발령
1964. 3. 1 仙東 및 鳳現分教場 設置
1965. 3. 1 福井 分教場 設置
1967. 3. 1 福井, 樊川, 鳳峴, 仙東, 國民學校 開校
1969. 11. 3. 城南제1, 제2國民學校 設立 承認
1970. 11. 3 수진 및 선기국민학교 설치 인가
1971. 3. 1 곤지암 도군분교 설치승인
1971. 9. 1 상원, 중원, 대원국교 개교
1971. 9. 22 신탄, 희망대 국교로 개명
1973. 7. 1 行政區域改編에 따라 城南市教育廳 分離
1974. 3. 11 도수·분원 分教場 승인
1974. 11. 30 분원국교 산성분교장 설립 승인

20) 京畿教育委員會, 前揭書, p. 188.

1976. 12. 28 廣州東中 老各分校設立 認可
1977. 11. 20 教育廳 廳舍 竣工
1981. 3. 1 廣一中學校 開校
1983. 3. 1 鳳峴國交 分教場 格下

3) 廣州地區 協同奬學委員會 發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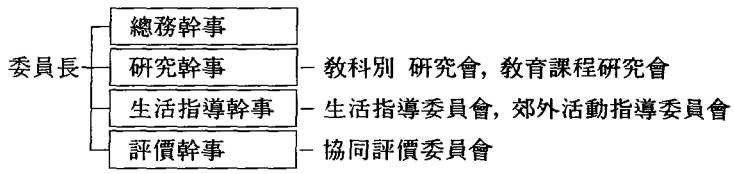
廣州教育廳이 開廳할 당시에 관할 學校가 國民學校이었으므로 中·高校에 대한 指導 監督權이 없었다. 따라서 中·高校의 奬學指導를 위한 協同奬學委員會를 發足하게 되었다.

廣州地區 協同奬學委員會의 運營방침은 다음과 같다.[21]

- 教員의 資質向上
- 教育課程 地域案作成의 共同研究推進
- 郊外生活指導委員會의 活動 強化
- 協同的 行事教育計劃 推進
- 協同評價 發展

地域區 協同奬學委員會의 構成員은 奬學擔當機能을 가져야 했으므로 校長 校監 중에서 委員을 選任하고 活動을 組織化하였으며 授業研究, 1人1研究發表, 등에서 實効性 있는 活動을 展開하였으나 一般行事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廣州郡 協同奬學委員會의 組織은 다음과 같다.



위의 組織表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廣州地域 協同奬學委員會에서는 각종 研究씨클 活動을 強化하고 教育課程地域案을 開發活用하였으며 指導方法改善에 대한 協同研究를 추진하였고 郊外生活指導를 合同으로 實施하여 實効를 거두었다. 그리고 各 學校에서 保有하고 있는 實驗實習資料를 共同으로 活用하였으며 各種 行事를 合同으로 實施하여 教育의 効果를 거두었다.

이 時期에 協奬校로 중요한 役割을 擔當했던 學校가 廣州農高와 그 후의 廣州綜合高校이다.

21) 京畿道教育委員會, 《京畿教育史》 (1960-1974), p. 195.

5. 國民敎育憲章의 制定과 廣州敎育

1968年 12月 5日에 制定 公布된 國民敎育憲章은 第三共和國에서 力點을 두고 추진했던 소위「第二經濟」의 發展的 所産이다. 이時期의 廣州敎育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國民敎育憲章 制定의 敎育的 意味

第二經濟의 開發의 일환으로 制定 公布된 國民敎育憲章이 지니는 敎育史的 意味는 다음과 같다.[22]

첫째, 우리나라 敎育의 地標를 온 國民의 衆智를 모아 成文化하고 制定公布했다는 것을 形式上 民主主義的 議決課程을 밟았다는 점에서 과거 君主體制 밑에서 制定 公布된 敎育勅語나 敎育詔書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하겠다.

둘째, 이에 弘益人間이라는 敎育理念이 있었으나 거의 상징적인 것이 되어 敎育의 指導理念의 구실을 못하는데 비추어 보아 새로운 敎育地標, 새로운 敎育理念의 提示가 요망되고 있던 차에 政府의 立場으로부터 여기에 착안하여 構體案을 提示했다는 점이다.

세째, 國民敎育憲章의 公布를 통해서 그간 政府가 經濟建設 일변도와 같은 인상을 보이던 것을 지양하고 國家의 항구적 번영을 위해서는 敎育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것을 再認識하고 천명했다는 점이다.

네째, 제2차 大戰後 社會 情勢 또한 급격한 變化를 되풀이하여 온 것이지만 國家에 따라 차가 있기는 하나 새로운 價値觀을 定立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敎育哲學을 提示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랐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國民敎育憲章을 公布한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문제에 대한 명확한 代案의 提示로서 各國의 關心을 끌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다섯째, 우리 나라 歷史上 중지를 모아 敎育의 理念을 천명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는 民主主義 國家建設과 民族中興의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2) 硏究學校의 推進

이 무렵의 廣州敎育에서의 學校硏究는 1966年부터 始作된 廣州東部國民學校의「器樂指導의 硏究」廣州東中學校의「鄕土關聯硏究」1968年부터 始作된 廣州國民學校의「保健衛生生活의 習慣化」등이 있다. 이는 國民敎育憲章의 宣布에 따른 全人敎育具現의 일환이었다.

이 중 東部國民學校의 硏究槪要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3]

22) 韓國靑年文化硏究院, 前揭書, p. 569-570

23) 경기매일신문사,《경기교육요람》, (1968), pp.171-172

《器樂指導의 硏究》

廣州東部國民學校

Ⅰ. 硏究의 動機

1. 기악은 어린이들을 음악으로 접근시키는 데 가장 이상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 교사의 기능 부족등 제 요인으로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1966년도에는 가창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보력 및 시창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 금년도에는 본교의 실태와 여건에 맞는 기악 지도에 중점을 두어 악기의 편성 및 편곡과 음악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재 통합안 작성 활용을 중심 과제로 연구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Ⅱ. 年次計劃

1년차 주제 : 독보력 신장에 관한 연구
2년차 주제 : 기악 지도에 관한 요구
3년차 주제 : 리듬 및 가락짓기에 관한 연구

Ⅲ. 硏究의 槪說

1. 악기 연주의 기를 넓힌다.
2. 악기의 특징 및 실태에 맞는 편곡에 의하여 지도한다.
3. 여러 가지 연주 기호를 착실하게 지도한다.

Ⅳ. 硏究의 實踐과 結果

1. 가설 1의 실행 및 결과

① 음악 교재 통합에 의한 학습전개

◦ 실행 : i. 교재 문석표를 작성하여 통합의 기반으로 삼았다.

ii. 분석된 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음악 교재 통합안을 작성 활용하였다.

○ 조성, 박자, 리듬, 형식, 곡의 특징, 곡의 흐름 등을 보아 유사한 교재를 통합하였다.

○ 교육과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곡수를 조정하였다.

○ 피통합 교재는 보고 부르기 율동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 조건으로 보아 통합이 가능한 교재라도 기악 지도 자료로 적합한 교재는 가급적 독립시켰다.

◦ 결과

i. 시간적 여유를 얻어 기악 학습활동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

ii. 교사의 의도에 따라 음악과의 기악을 제외한 타영역 학습에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iii. 계절 감각에 맞는 가사 내용에 의한 지도를 하는 데 대표가 있었다.

② 주요 리듬꼴 및 가락꼴 지도를 기악 지도와 직결시켰다.

◦ 실행

i. 리듬꼴카아드 및 그림카아드에 의해 주요리듬꼴을 제시하여 손뼉 혹은 리듬악기로 치게 하였다.

ii. 가락악기로도 일정한 음으로 리듬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iii. 학년 수준과 악기의 종류에 따라 음정, 리듬, 분량 등에 의해 난이도를 근절하여 연주하도록 하였다.

◦ 결과

i. 부분적인 연주를 통해 부족한 각종 악기 연주 경험을 넓히기가 용이하였다.

ii. 각종 악기의 주법, 취급법 지도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iii. 세밀한 학습 계획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야 흔들리지 않는 수업이 되었다.

③ 여가 활용권장

◦ 실행

i. 간이 악기가 개인별로 구비되었다.

ii. 자유 연주 기회가 늘어났다.

iii. 연주부가 조직 운영되었다.

◦ 결과

i. 개별악기 구비가 늘어났다.

ii. 점차 개별악기 연습을 즐기는 어린이가 늘어났다.

iii. 기악합주의 경우 개별 연습시간이 점차 단축되었다.

2. 가설 2의 실행 및 결과

① 교재를 어린이의 능력과 악기구비 실태에 맞는 곡에 의해서 지도

◦ 실행

i. 학년별 합주교재 분석표 작성

ii. 리듬합주를 위한 편곡 방법 연구 및 편곡에 의한 지도

iii. 기악합주를 위한 단계적인 편곡방법 연구 및 편곡에 의한 지도

iv. 실패를 고려하여 난이도 악기수, 곡 수를 조절한 편곡

◦ 결과

i. 어린이의 능력 및 실태에 맞도록 편곡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리 없는 합주 지도가 이루어졌다.

ii. 편곡 능력으로 인한 교사의 능력이 문제가 된다.

② 악기의 취급법, 주법 및 감상지도

○ 실행

i. 문헌 연구 및 직원 연수에 의한 악기의 주법 및 취급법 지도

ii. 모의 건반 활용

iii. 감상 활동을 통한 간접 경험

○ 결과

i. 기초 조사에서 저조했던 악기주법이 세련되었다.

ii. 악기를 소중히 여기고 연주 후의 뒷처리가 좋아졌다.

iii. 구체적인 감상태도로 변했다.

iv. 남의 연주를 보고 듣고 비교하며 스스로의 연주를 교정했다.

③ 개별 연주를 위한 자료의 계속 제공

○ 실행

i. 교과서의 교재를 통한 자료 제공

ii. 악기별 연습곡집 편집 활용

○ 결과

i. 악기를 대하는 어린이들의 태도가 비교적 진지해졌다.

ii. 같은 연주라도 비교적 짜여진 연주를 할 수 있었다.

3. 가설 3의 실행 및 결과

① 악전 분석표를 작성하고 감각적인 훈련에 치중하였다.

○ 실행

i. 악전 분석표 각성 및 감각 훈련

ii. 감각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절대요소를 추출 및 감각적 훈련

iii. 계이름 부르기 및 계이름 외워부르기의 중시

iv. 단계적인 독보 및 연주의 훈련과정 중시

v. 3학년 이상 음악 노트 사용

○ 결과

i. 가사창의 기회가 적어졌으나 숙달됨에 따라 차츰 가사창의 시간을 넓힐 수 있었다.

ii. 리듬감 및 음정감이 매우 발달되고 기호의 이름을 모르면서 표현하는 어린이도 많았다.

② 효과적인 겹리듬 훈련을 위해 리듬악기말을 고안 활용하였다.

○ 실행

i. 리듬악기말 일람표

악기명	악기말	트래몰로연주시	악기명	악기말
캐스터네츠	짝		작은북	덕
탬버린	찰	찰~~	큰북	쿵
트라이앵글	칭	칭~~	심벌즈	쟁, 쨍

○ 결과

i. 겹리듬감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

ii. 리듬합주지도에 직접적인 도움

③ 독보활동을 돕는 자료활용범위를 넓혔다.

○ 실행

i. 가사를 삽입하지 않은 확대악보수가 제작활용

ii. 리듬꼴 및 가락꼴 카아드 활용

iii. 화음꼴 및 화음선 카아드 활용

iv. 확대 합주악보 및 등사합주악보

○ 결과

i. 보다 다양적인 경험및 어린이의 주의 집중으로 독보력신장에 매우유익하였다.

ii. 자료제작에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제공할 여유가 적었다.

V. 앞으로의 전망

1. 음악교재 통합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로서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기동성있는 운영을 모색할 것이다.

2. 개별악기 구입에 대하여는 가급적 가정에 계몽과 협조를 요구하고 개별악기 연주기회 제공과 지도법에 관하여 무리없는 방법을 구상할 것이다.

3. 악기연주 기능을 각악기에거쳐 전이성이 적용되어 능력있는 어린이는 고루 진보도가 빠르나 능력부족 어린이의 지도가 크게 문제된다.

4. 지도법 연구와 성의로 독보력과 악기연주 능력을 신장시킬수 있으나 음악의 각영역이 고루 다루어지도록 유의할 것이다.

5. 편곡에 의한 지도는 실태에 맞도록 구상할 것이며 편곡에 관한 교양을 높이도록 힘쓸 것이다.

당시 廣州東部 國民學校의 이러한 成果는 상당한 評價를 받았던 것으로 音樂教育의 새로은 地坪을 여는 것이었다.

5. 第三共和國에서의 廣州敎育機關

1) 敎育機關의 新設

1903年부터 1968年까지의 第三共和國은 民族主體性과 倫理觀을 強調하였고 經濟建設과 師道의 振作을 文敎政策으로 推進하였다. 따라서 이 時期에 廣州敎育에서도 各級學校의 新設이 뒤따랐다.

〈表 一〉 新設 中學校 狀況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備 考
광수중학교	1966. 12. 3	광주군 퇴촌면 도수리	홍 순 길	

〈表 二〉 新設 國民學校 狀況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備 考
번천국민학교	1966. 12. 6	광주군 초월면상번천리	이 정 화	
선동국민학교	1967. 3. 1	광주군 초월면 선동리	안 병 길	
도수국민학교	1967. 3. 1	광주군 퇴촌면도수리	정 형 모	
봉현국민학교	1967. 3. 8	광주군 실촌면 봉현리	조 문 행	
복정국민학교	1967. 3. 8	광주군 중부면 복정리	최 인 준	

2) 敎育機關 實態

第3共和國에서의 廣州敎育은 質과 量的인 面에서 괄목할 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었다.

이 時期의 廣州敎育은 主體性에 바탕을 둔 鄕土愛의 敎育으로 愛鄕意識이 고취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各級 敎育機關의 實態는 다음과 같다.

〈表 三〉 各級 學校別 在籍者數

1969. 4. 1

총 수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2,472	12,050	10,422	19,587	10,097	9,490	2,068	1,356	712	165	94	71	418	307	111	234	196	38	

자료 : 경기도 통계년감, 1969

〈表 四〉 國民學校 狀況

1969. 4. 1 현재

학교수	학급수	교 원 수			아 동 수			교 실 수	사립학교	현 황	비 고
본교분교		계	남	여	계	남	여		학 교 수	학 생 수	
30 2	338	373	234	139	19,587	10,097	9,490	313	-	-	

〈表 五〉 中學校 狀況

1969. 4. 1 현재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공립학생수			사립학생수			비 고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8	5	2	51	36	15	2,930	1,826	564	2,068	1,356	712	862	470	392	

자료 : 경기도 통계연감, 1969

〈表 六〉 人文系 高等學校 狀況

1969. 4. 1 현재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공립학생수			사립학생수			비 고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	-	1	3	-	3	165	94	71	-	-	-	165	94	71	

자료 : 경기도 년감, 1969

〈表 七〉 實業系 高等學校 狀況

1969. 4. 1 현재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공립학생수			사립학생수			비 고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	3	-	12	12	-	418	307	111	418	307	111	-	-	-	

자료 : 경기도 통계연감, 1969

〈表 八〉 幼稚園 狀況

1969. 4. 1 현재

학 급 수	교 원 수	원 아 수	비 고
1	3	40	남:21 여19

자료 : 경기도 통계연감, 1964

〈表 九〉 高等·公民學校 教員狀況

1969. 4. 1 현재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재적자수									졸업자수			비고
					총수			주간			야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	6	6	6	-	234	196	38	234	196	38	-	-	-	-	-	-	

자료 : 경기도통계 연감, 1969.

〈表 十〉 中·高等學校 教員 狀況

1969. 4. 1 현재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0	36	14	22	18	4	5	3	2	5	5	-	27	25	2	-	-	-

자료 : 경기도 통계연감 1969

第10節 維新政治에서의 廣州교육

1. 維新期의 文敎政策과 奬學方針

1971年 7月 1日 朴正熙가 第7代 大統領에 就任하였다. 이 때의 世界情勢는 급박하게 돌아갔고 北韓의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고 판단되던 때였다. 北韓의 南侵 野慾을 미연에 방지하고 勝共體制를 強化할 목적으로 12月 6日에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게 되었다.

1972年 7月 4日에는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하여 分斷의 장벽을 헐고 對話의 場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커다란 사건이었으며 급변하는 國內外 情勢의 일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情勢의 급격한 變化에 能動的이고도 主導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대 改革과 刷新의 必要性에 따라 1972年 10月 17日에 全國에 非常戒嚴을 宣布하고 이어서 維新의 大改革을 단행하게 되었다.

1972年 11月 21日 維新憲法에 대한 國民投票를 거쳐 12月 23日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第8代 大統領으로 朴正熙를 再選出하였다. 이로써 질곡의 한 時代인 維新時代가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10月 維新으로 70年代 國政의 모든 部分이 維新을 위한 行政體制로 急轉換하였고, 敎育도 維新課業을 수행을 위한 國家에 따라 維新敎育을 위한 敎育施策으로 大轉換을 가져오게 되었다.[24]

24) 京畿道敎育委員會, 前揭書, pp. 301~303.

이에 따라 教育은 획일적 中央集權的 統制下에 놓이게 되었으며 政權維持의 手段으로 전락하였다.[25]

70年代의 文教政策은 한마디로 維新課業遂行이었으며 教育을 통한 維新理念의 定着化였다.

이를 위해서 國民教育憲章의 理念具現 國家安保教育, 새마을教育, 科學技術教育, 保健體育教育을 中心으로 「國籍 있는 教育」이 提唱되었으며 1968年에 宣布한 國民教育憲章이 國籍있는 教育을 推進하기 위한 指標가 되었다.

당시의 文教 當局者는 奬學의 基底가 되는 教育施策을 大統領에게 報告하였으니 1974年 1月 29日 文教部 初度巡視에서였다.

이 報告에서 文教部는 教育力 強化를 위한 文教施策의 바탕을 世界秩序의 再編成, 南北關係의 새로운 展開, 安定과 번영에 대한 시련, 維新課業遂行을 위한 긴급조치 선호 등 狀況 變動에 따른 時代的 要請에 부응하는 教育에 두고, 經濟의 上位 中進國 水準 도달, 참다운 福祉社會의 建設, 主體的 民族文化의 中興, 統一에 대한 새로운 展望으로 未來指向的 教育體制를 確立한다는 것이다.[26]

이에 따라 ① 教育을 통한 維新精神의 內實化, ② 새로운 學園 秩序의 確立, ③ 教育의 生産性과 實用性 提高 ④ 참된 스승像의 부각 등을 文教施策으로 펼쳐 維新教育立國을 實現코자 했다.

여기서 1970年의 文教奬學 基底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7]

1.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가는 기반으로서의 우리 한국 교육의 목표는 「민족중흥과업을 영예롭게 성취할 수 있는 국민성」에 두어야 겠다.

2. 이러한 교육 운동의 내용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력 안보교육과 인간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의 3대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길이다.

3. 성실한 국민, 슬기로운 민족 만들기 운동의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사회, 가정의 동일 목표를 향해서 협조하는 범국민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4. 교육의 관건은 교사에게 주어져 있다. 겨레의 스승, 국민의 향토로서의 교육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의식에 투철할 때 그리고 교육유신을 위한 정열에 불탈때 우리 국민성은 더욱더 밝아지고 민족의 체질은 훨씬 젊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文教 奬學의 基底에서 보는 것 처럼 教育과 教員 이 維新體制 아래에서 道具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는 유신의 길을 가고 있다. 유신 이념의 생활화로 민족 중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체제 등을 쇄신함으로써 스스로 정신혁명의 기수가 되고 지역 사회 발전의 두뇌가 되어 조국 통일의 선봉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유신의 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教育이 維新政權의 道具가 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

25) 水原市史編纂委員會, 《水原市史》, p. 1358.

26) 上揭書 p. 1385

27) 경기신문사, 《경기교육 요람, 1976》 (수원 : 경신문사, 1976), pp. 56~57

◇ 1973年의 文教部 奬學方針

1. 維新教育의 深化
2. 學園秩序의 刷新
3. 重化學工業教育 強化와 産學協同體 確立
4. 教育의 社會化 機能 擴大
5. 國民體育의 向上
6. 國際社會에 對應하는 教育

◇ 1974·75·76年 文教部 奬學方針

1. 國籍있는 教育의 伸張
2. 教育維新의 深化
3. 새마을 精神의 生活化
4.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5. 保健體育教育의 充實

◇ 1977年 文教部 奬學方針

— 奬學目標 —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아래
나라를 사랑하고
협동 봉사하는
참다운 한국인을 육성한다.

1. 國籍있는 教育의 伸張
2. 教育維新의 深化
3. 새마을精神의 生活化
4.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5. 保健體育教育의 充實

◇ 1978年 文教部 奬學方針

1. 國民精神教育의 深化
2.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
3. 새마을精神의 生活化
4.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5. 保健·體育教育의 充實

◇ 1979年 文教部 奬學方針

— 奬學의 目標 —

국민교육 헌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애국 애족 정신에 투철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지 높은 한국인을 육성한다.

1. 國民精神敎育의 深化
2. 敎育課程 運營의 內實
3. 새마을精神의 生活化
4.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5. 保健·體育敎育의 充實

이상과 같은 文敎部의 敎育政策은 京畿道敎育委員會의 奬學方針 具現施策으로 具體化되어 廣州敎育의 얼개를 形成하였다.

2. 京畿道敎育委員會의 維新敎育施策과 廣州敎育

維新 時代의 개막과 함께 1972年 2月 4日 第3代 京畿道敎育監에 申能淳이 就任하였다.

그는 京畿敎育의 基本 施政方針을 ① 安保敎育의 徹底 ②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③ 敎育內實의 充實 ④ 새敎師像의 定立 ⑤ 敎育의 社會的 機能 提高 ⑥ 人和團結에 두고 國家的 要求에 부응하는 敎育施策을 推進하였다.

京畿道敎育委員會의 敎育維新期의 奬學目標 및 奬學方針, 그리고 努力重点은 다음과 같다.

◇ 1972年 京畿敎育施策

○ 奬學目標

國民敎育憲章의 生活化를 奬學의 基本目標로 삼고 安保敎育體制를 정비 강화하여 敎育風土의 刷新과 學園秩序의 確立을 기하고 敎育機能을 극대화하여 敎育의 質的 充實과 敎育社會化運動을 적극 展開함으로써 愛國愛族의 새價値觀이 透徹한 國民像을 創造한다.

○ 奬學方針

1. 安保敎育體制의 強化
2. 새價値觀의 定立
3. 科學技術敎育의 徹底
4. 保健, 體育의 振興
5. 敎職의 專門性 提高
6. 鄕土學校의 建設과 敎育의 社會化

○ 努力重点

1. 反共精神의 行動化
2. 敎鍊敎育의 強化

3. 主體的 國民精神의 培養
4. 産學協同體制의 發展的 運營
5. 戰力 增強의 敎鍊敎育 推進
6. 學校經營의 科學化
7. 敎育課程 運營의 鄕土化
8. 새마을가꾸기 運動의 展開

◇ 1973年 京畿敎育施策

○ 奬學目標

國民敎育憲章理念의 生活化로 敎育의 體制를 刷新하고「國籍있는 敎育」을 強化하므로써 維新課業遂行에 앞장서는「참다운 새韓國人」을 育成한다.

○ 奬學方針

1. 民族主體性의 涵養
2. 維新敎育體制의 確立
3. 새마을敎育의 深化
4. 保健體育敎育의 深化
5.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 努力重点

1. 國語 國史 및 古典敎養敎育의 強化
2. 學園綠化의 計劃的 推進
3. 새마을學校 및 成人敎室 設置運營
4. 全人敎育의 徹底
5. 實驗實習 施設 및 資料開發

◇ 1974年 京畿敎育施策

○ 奬學目標

國民敎育憲章의 理念 아래 國籍있는 敎育과 生産的인 敎育을 推進하여 維新課業遂行에 앞장서는「誠實하고 能力있는 韓國人」을 育成한다.

○ 奬學方針

1. 國籍있는 敎育의 伸張
2. 維新敎育體制의 確立
3. 새마을敎育의 深化
4.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5. 保健體育敎育의 充實

○ 努力重点

1. 國語 國史敎育의 強化
2. 바른 禮節運動의 展開

3. 反共教育의 內實化
4. 教授學習의 能率化
5. 基礎學力의 平準化
6. 勤儉貯蓄生活의 勵行
7. 自活學校 運營의 效率化

◇ 1975年 京畿教育施策

○ 奬學目標

國民教育憲章의 理念 아래 나라를 사랑하고 祖國의 發展과 번영을 위해 獻身할 수 있는 참다운 韓國人을 育成한다.

○ 奬學方針

1. 國籍있는 教育의 伸張
2. 維新教育體制의 確立
3. 새마을教育의 深化
4.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5. 保健體育教育의 充實

○ 努力重点

1. 反共安保教育의 強化
2. 教育維新體制의 確立
3. 새마을教育의 深化
4. 科學技術教育의 強化

이후의 1976~1979年 사이의 京畿教育施策은 점차 維新教育體制에 대한 表現上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어 특이하며 1978年과 1979年에는 奬學方針에서 維新教育의 項目이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廣州教育 方針과 各及學校의 教育活動

(1) 廣州教育 方針

維新初期에 3代 廣州教育長으로 就任한 유응열(1969. 4. 15~1973. 2. 28在任)은 教育維新을 위한 廣州教育 方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國民倫理의 實踐
2. 安保教育의 強化
3. 維新教育 體制의 確立
4. 學校 經營의 刷新
5. 師道의 振作
6. 教育課程 運營의 鄕土化
7. 새마을 가꾸기 運動의 定着
8. 成人教育 機會 擴大
9. 基礎 體力의 伸張

維新의 中期인 1975年에 第6代 敎育長으로 就任한 김정규(1975. 9. 1－1977. 2. 28)는 76學年度의 廣州敎育의 方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敎育活動을 활발히 展開했다.

1. 反共敎育의 深化
   ① 민족중흥관 설치 운영
   ② 반공글짓기 및 웅변대회 개최
   ③ 반공교육자료 전시회 개최
   ④ 간첩신고요령 훈련
   ⑤ 반공소년·소녀대 운영
2. 學校 經營 體制 改善
   ① 수업분석요령 강습
   ② 학습지도 강습
   ③ 지구별 장학 협의회 조직 운영
   ④ 학력검사 및 학교평가
   ⑤ 각종 실기대회 개최
3. 勤勞精神 고취
   ① 각종 표창 행사
   ② 물자 아껴쓰기
   ③ 저축목표 배가 달성
   ④ 자활학교 육성
4. 深究的 態度 涵養
   ① 과학실기 대회 개최
   ② 탐구학습 실시
   ③ 과학실 운영
   ④ 실험실습의 이행 철저
5. 基礎體力 定着
   ① 1인1 운동 권장
   ② 보이스카웃·걸스카웃 조직 운영
   ③ 체육시설 확충
   ④ 순환운동의 철저
   ⑤ 사제동행 교육 철저
6. 새마을精神敎育의 지속
   ① 애향단 활동의 계속적 추진
   ② 학교환경 개선의 날 실시
   ③ 봉사활동 실시
7. 資源節約 및 所得 增大敎育
   ① 학용품 절약
   ② 혼분식 지도 강화

8. 基礎科學技術教育의 充實
   ① 탐구학습 방법의 훈련
   ② 과학실험 기교재 확충
9. 產學協同體制의 效率化
   ① 실과 및 가정과 노작실습 철저
   ② 공작실기 기능의 연마
10. 國民體位向上
   ① 체육과 영역별 지도의 철저
   ② 체능 급수 1급 올리기
11. 教育環境의 公園化 및 教材化
   ① 학교 환경의 공원화
   ② 학교 환경의 교재화

維新 末期인 1979年에 第7代 教育長으로 就任한 한성완(1977. 3. 1~1980. 8. 31)은 79學年度의 奬學을 위한 方針과 事業을 다음과 같이 定하고 推進하였다.

1. 國民精神教育 深化
   ① 國民精神教育研究方針 組織運營
   ② 廣州의 얼 계승
   ③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④ 경로교실 설치 운영
   ⑤ 민속놀이 대회
   ⑥ 반공 웅변대회 및 글짓기 대회
   ⑦ 반공교육요원 전지 훈련
   ⑧ 반공교육자료 전시회
   ⑨ 방위성금 모금
   ⑩ 효행실천 사례발굴
   ⑪ 효행장제 및 선학장제 실시
   ⑫ 모범학생 표창
   ⑬ 교외 생활지도반 운영
2.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
   ① 장학계획서 발간
   ② 새수업 체제 운영
   ③ 군지정 연구학교 운영
   ④ 새수업체제 평가협의회 운영
   ⑤ 장학자료 발간
   ⑥ 학력평가 실시
   ⑦ 학력정착 상금제 실시

⑧ 수업실기 및 교육자료 전시회
⑨ 초·중학교 평가의 실시
⑩ 지구별 장학협의회 운영
⑪ 1인1 연구발표 대회
⑫ 예술제·학술제·음악회 개최

3. 새마을敎育의 生活化
① 새마을 교육 우수 사례 발굴
② 학교환경의 교재화·공원화 추진
③ 자연보호 운동의 적극 추진
④ 저축목표의 달성
⑤ 새마을 실천 사례 발굴

4.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① 교재교구의 확보
② 지역 자료실의 운영
③ 과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5. 保健體育敎育의 充實
① 종합 체육대회 개최
② 교재군별 지도 철저

3. 維新期의 敎育制度의 發展

1) 敎育長의 權限 擴大

1970년 3月 14日 京畿道敎育規則 第30號로 京畿道敎育委員會 行政權限委任에 관한 規則을 制定 公布하여 敎育監의 行政權限中 一部를 敎育長에게 委任하였다.

이는 敎育法 第84條의 改正에 의하여 國民學校, 公民學校, 高等公民學校, 幼稚園만을 指揮·監督하던 市·郡 敎育長에게 中學校의 指揮監督까지 할 수 있게 그 權限을 移轉시킨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는 中學校 無試驗 進學으로 中學校의 증설과 業務의 과다를 敎育委員會가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취해진 조치였다.

이 때 敎育長에게 移管된 重要 業務內容을 다음과 같다.[28]

○ 公立의 國民學校, 中學校, 公民學校 高等公民學校, 技術學校의 監督 및 敎師의 管內 轉補

○ 國民學校 中學校의 校監, 敎師의 任地 指定 및 休職 復職 호봉재사정, 校監 敎師 및 奬學士의 定期昇給

○ 校監 敎師의 經歷 勤務評定 및 再敎育 指名

이와 함께 敎育長 管轄權 밖에 있는 高等學校 校長에게는 臨時敎師의 任用, 學生學費減免,

28) 京畿道敎育委員會, 前揭書, pp. 350－351

公務員證發給, 教員再教育指名 등의 行政 權限을 委任했다.

2) 城南教育廳의 新設

1972年 12月 16日에 改正된 教育法 第15條에 의해 小規模 教育廳이 統合 運營될 수 있게 되었으며 1973年 7月 10日의 行政區域 改編에 따라 廣州郡 中部面을 中心으로 한 城南市가 새로 發足되면서 城南教育廳이 開設되었다.

3) 主任教師制의 實施

1970年 12月 26日 部令 第209號로 公布된 主任教師 任用規定은 그 이전까지 學校長이 經營의 必要에 따라 임의로 設定하던 主任教師를 國民學校는 教育長이, 中學校 이상은 教育委員會가 任命하게 되었다.

當時 廣州郡內의 學校級別 主任教師 任用 狀況은 다음과 같다.

國民學校의 경우 學務主任은 7學級이상, 研究主任은 19學級이상, 學年主任은 37學級이상되는 學校에 任命할 수 있도록 했으며 中學校의 경우, 教務主任은 모든 學校에, 研究主任과 學生主任을 13學級이상에 두도록 하였고 高等學校의 경우, 學務主任은 모든 學校에, 研究主任과 學生主任은 10學級이상에 두고 특별히 實業界 高等學校에는 實科主任을 두도록 하였다.

이 規定은 1972年에 다시 改正하여 12學級이상의 國民學校와 中學校에 體育主任을, 12學級이상의 國民學校에 科學主任을 두도록 하였고 그 後에 倫理主任과 새마을主任이 추가되기도 했다.

4. 各級 學校의 教育研究 活動

維新期의 廣州教育에서 研究 活動은 활발편은 아니었다.

1972年부터 2年間 京畿道教育委員會로 부터 制定을 받고 研究學校를 運營했던 廣州東部國民學校의 國語科 '말하기 能力向上을 위한 實踐研究'가 文型指導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研究 活動이 보이지 않는다.

同校에서는 1976年부터 또 다시 國語科 研究 學校로 指定을 받아 '課題學習을 통한 讀解力伸張에 關한 研究'를 하게 된다.

1) 廣州東部國民學校의 研究 活動

(1) 주제 : 과제 학습을 통한 독해력 신장에 관한 연구

(2) 연구내용

① 과제의 작성

i. 각 단원을 분종별로 분류하여 각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기능을 중점적으로 학습 문제에 수록한다.

ii. 독해과정에서 지도되어야 할 일반적 요소는 계획된 시간 범위 내에서 지도되도록 빠짐없이 기록한다.

iii. 학습문제는 교과서를 충분히 읽어야 답할 수 있고 사고 추리할 수 있는 문제를 수록하되 학습자의 흥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iv. 학습문제의 차례는 독해지도 과정에 맞추어 구성하는 시간 단위로 끊어서 조사할 시간

과 내용의 발표시간을 명시하여 지도시간의 적정을 기한다.

v. 학력의 정착을 위하여 학습문제는 주관적 서답형으로 작성하되 가급적이면 정답이 뚜렷한 것으로 구성한다.

vi. 학습 내용의 복습과 예습을 시키기 위하여 가정학습 문제를 단위학습 말기에 수록하고 다음날 아침 자습 시간에 교사와 같이 해결한다.

vii. 작성된 학습 과제는 학습자의 성장 발달에 알맞은 용어로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시력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절한다.

② 실천

i. 등사된 학습 문제지를 배부하여 본시의 학습 목표를 확인시킨 후 아동들은 학습 문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결하게 했다.

ii. 학습의 진전 상태는 신호 카드(노랑－진행중, 빨강－의문있음, 파랑－완료)에 의해 표시하고 교사는 의문이 있는 아동을 개별지도 했다.

iii. 동일한 문항에 의문을 가진 아동이 많을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제 지도를 하여 의문점을 해결했다.

iv. 독자학습으로 문제 해결이 끝나면 각자가 학습한 내용을 확인했다.

v. 교사는 아동의 거수수에 따라 70% 이상이 정답을 했으면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고 미달했으며 재투입과정을 가졌다.

vi. 오답을 한 아동은 그때 그때 수정해 나가면서 정답을 확인했다.

이상의 東部國民學校의 研究 內容은 퍽 소박한 것이었으나 당시로서는 課題學習方法이라는 새로운 學習方法의 적용으로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

2) 1인1研究 活動

現場의 教育問題를 解決하기 위한－線教師의 1인1 研究活動은 이 期間 동안에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維新期의 廣州教育에서의 現場 研究 活動을 통해서 全國大會의 1等級「푸른기장」을 수상한 教師는 다음과 같다.

〈表 一〉 全國 現場教育研究大會 入賞者

分 科	年 度	所 屬	姓 名	主 題
體育教育	1976	동부국교	김상협	행동체력을 기르기 위한 순환운동 개선 연구
生活指導	1972	광주수진국교	이동완	아동의 생활주변 실태와
特別活動	1972	광주국교	박인환	아동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학급행사 교육
學習指導	1976	서부국교	강영숙	학급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발문을 통한 발표력 신장에 관한 연구

〈表 二〉 全國敎育資料展 入賞者

校 科	年 度	所 屬	姓 名	作 品 名
道德科	1978	곤지암국교	신각영 임노진	반공정신 심화를 위한 인상중심의 종합자료

같은 時期에 京畿道敎育委員會에서 實施한 學生科學實驗大會에 다음 學校의 學生들이 참가하여 入賞하였다.

〈表 三〉 學生科學實驗大會 入賞者

年 度	所 屬	入 賞 者
1978	광주중학교	정세진 임명복
	남한중학교	이문자 신용분
	광주동중학교	송재경 신두영
1979	광주중학교	김종호 손복기
	광주동중학교	문태경 김문봉

5. 維新末期의 各級 學校의 經營重点

廣州管內의 中·高等學校에서는 安保 위주의 敎育體制를 確立하고 敎育의 機能을 극대화하여 國民精神敎育을 強化하고 새 價値觀이 투철한 國民像 創造에 力點을 두면서 1979年의 學校經營重点을 다음과 같이 가졌다.

〈男子中學校〉

1. 學校 管理
   - ○ 80년대를 향한 국가시책 완수를 위한 학교교육계획의 충실
   - ○ 우열학급 편성 지양과 학습의 개별화
   - ○ 수업일수의 확보
   - ○ 신규 임용 교사의 자질 향상
   - ○ 중·고 병설교의 완전 분리
2. 敎育課程
   - ○ 인간교육의 강화, 기술교육 쇄신
   - ○ 교육과정 시간 배당기준 준수
   - ○ 목표지향적인 평가 관리
   - ○ 국민정신함양을 위한 반공도덕 교육 전담제 실시
   - ○ 실업가정 중 기술과 운영 충실
   - ○ 실험실습 활동 최저 50% 확보

3. 生活指導
   - ○ 민속주체의식 고양과 민주공동생활태도 육성
   - ○ 학생의 자율성 신장
   - ○ 학생 이해 자료의 과학적 분석과 개별지도
   - ○ 교도교사를 핵심으로 학급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女子中學校〉

1. 새 女性像 教育目標의 具現
   - ○ 한국 여인상의 덕성교육
   - ○ 학문적 소양 갖춘 지성인 육성
2. 女性의 生活能力 向上
   - ○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 여성 교육을 위한 기자재 정비확충
   - ○ 기초기능 습득을위한 실험실습 교육철저
   - ○ 자활을 위한 진로 지도
3. 家政 管理室 運營 強化
   - ○ 家政科의 綜合的 實習教育 철저
   - ○ 새마을教育을 통한 地域社會 生活 改善

〈人文系 高等學校〉

1. 學校管理
   - ○ 목표지향적 학력 향상책 수립
   - ○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 학교운영의 효율화와 평가제도의 합리화
   - ○ 학원내의 부조리, 비능률·비생산 요인제거
   - ○ 교수·학습체제 및 평가 방법 개선
   - ○ 고교 평준화에 대비한 시설 정비
2. 教育課程 運營
   - ○ 수업 결손 방지 및 수업 시수의 확보
   - ○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의 분리 운영
   - ○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정 운영
   - ○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정 운영
   - ○ 교육과정 운영에서 국민교육 헌장의 생활화
   - ○ 학생의 진로교육의 철저
   - ○ 실업과정의 공업으로의 유도
   - ○ 종합고의 영어교육 형식화 방지
   - ○ 근로를 중시하는 학습 경험
   - ○ 반공 소년 소녀대의 운영으로 민주주의 우월성 교육
   - ○ 학교장 책임하의 부기관리 철저

3. 生活指導
   - 교련교육의 강화로 반공 정신 강화
   - 학생의 자율성과 적응력 신장
   - 진로지도의 철저 및 예방적 생활지도
   - 건전한 여가 선용지도
   - 국가관의 확립 및 학원질서 수립
   - 향토 봉사의 날 실시로 봉사정신 함양
   - 안전에 대한 지도 철저
4. 올바른 학력관에 입각한 구조적인 기본 개념 학습 실시
5. 향토의 인적 물적 제 자원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한 향토의 당면과제 해결
6. 1교실 1실험실의 마련과 탐구적 실습의 의무화

〈實業系 高等學校〉

1. 學校管理
   - 실업계 고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계획 수립
   - 실업고교의 중장기 교육계획 완성
   - 산학협동체제의 확립으로 지역사회 유대 강화
   - 향토개발 위한 특수 과제 선정
   - 1교1연구 및 1인1기 선정
   - 시설 및 기교재의 확보
   - 지역사회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 실험실습을 바탕으로 응용적 배양
   - 농업계 고교의 농업 상담 철저
   - 졸업 후의 추수지도 철저
   - 농업계 고교의 졸업 후 정착지원

6. 維新期의 廣州 敎育機關

維新期의 廣州敎育機關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新設 敎育機關과 敎育機關 一般 狀況은 다음과 같다.

1) 新設 敎育機關 現況

1972年부터 1979年까지의 廣州郡內의 新設 敎育機關은 國民學校 3個校(分敎場 포함), 中學校 1個校 등이었다.

2) 廣州 敎育機關 現況

維新 末期의 廣州敎育機關은 國民學校 24個校, 公立中學校 4個校, 私立中學校 1個校, 公立高等學校 3個校, 私立高等學校 1個校 등이었다.

〈表 一〉 新設 國民學校 狀況

1979. 12. 31 현재

機 關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 代 校 長
도웅국민학교	1974. 3. 1	광주군 도척면 도웅리 128	
광주국교 목현분교	1973. 3. 1	광주군 광주면 목현리 386	-
분원국교 삼성분교	1975. 3. 1	광주군 남종면 삼성리 347	-

자료 : 경기신문사《경기요람》1980

〈表 二〉 新設 中學校 狀況

1979. 12. 31 현재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 代 校 長
廣州中老谷分校	1976.12.24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
경화여자고등학교	1976. 3. 3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52	

〈表 三〉 國民學校 現況

1979. 12. 31 현재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教 室 數	教 員 數	備 考
		計	男	女			
24(3)	291	13,089	6,704	6,385	265	322	

資料 : 京畿新聞社,《京畿要覽》, 1980

〈表 四〉 中學校 狀況

1979. 12. 31 현재

區 分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備 考
			계	1	2	3	
公立	4	63	3,889	1,307	1,269	1,313	
私立	1	13	849	295	277	277	
計	5	76	4,738	1,602	1,546	1,690	

〈表 五〉 高等學校 狀況

1979. 12. 31 현재

區 分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備 考
			계	1	2	3	
公立	3	33	1,918	664	634	620	
私立	1	4	243	243	-	-	
計	4	37					

資料 : 京畿新聞社,《京畿要覽》, 1980

〈表 六〉 高等公民學校 一覽

1979. 12. 31 현재

校 名	所 在 地	設 立 者	校 長 名	學 生 數	教 員 數
동성고등공민학교	서부면광암리 63	오정섭	이덕원	104	6

〈表 七〉 技術學校 一覽

1979. 12. 31 현재

校 名	所 在 地	設 立 者	校 長 名	學 生 數	教 員 數
동부실업학교	동부면 천현리 390	양인석	양인석	86	6

〈表 〉 國民學校 一覽

1979. 12. 31 현재

학교명		소재지	설립·개교	학급수	학생수				보유교실수	특수지별	교원수	전화번호
본교	분교		년 월 일		남	여	계	평균인원				
廣 州		광주면 경만리 47	1918. 4. 1	35	1,045	1,026	2,071	57	30		38	광주 2029
	木 峴	광주면 목현리 386	1973. 3. 2	2	19	24	43	22	2		2	
廣 南		오포면 루자리 19	1954. 4. 6	12	145	230	475	40	12		13	광주 2258
五 浦		오포면 추자리 500	1935. 6.31	7	152	159	311	44	7		8	오포 10
廣 明		오포면 신현리 365	1961. 4. 3	6	93	96	189	32	6		7	분당 42
梅 谷		오포면 양벌리 558	1938. 3. 2	7	186	169	335	51	7		8	오포 146
草 月		초월면 신월리 455	1931. 3. 3	8	201	171	372	47	8		9	초월 72
仙 東		초월면 선동리 274	1967. 3. 1	6	81	70	151	25	6		7	초월 71
道 谷		초월면 쌍동리 182	1956. 4. 2	12	216	215	431	36	12		13	초월 53
都 尺		도척면 노곡리 222	1931. 3. 3	11	235	226	461	38	11		12	도척 20
陶 宮		도척면 도궁리 128	1974. 3. 1	6	98	135	233	39	6		7	
昆池岩		실촌면 곤지암리 453	1924. 3. 1	12	343	265	608	50	12		13	곤지암 14
晩 仙		실촌면 만선리 317	1947. 5.10	11	204	189	393	35	11		12	
鳳 峴		실촌면 봉현리 303	1967. 3. 8	6	56	62	118	20	6		7	
陶 水		퇴촌면 도수리 609	1934.12. 5	12	254	218	472	39	12		13	퇴촌 76
	牛 山	퇴촌면 우산리 228	1967. 3.10	3	33	42	75	25	3		3	
分 院		남종면 분원리 103	1941. 4. 1	6	107	89	196	33	6		7	남종 25
	三 成	남종면 삼성리 347	1975. 3. 1	3	61	63	124	41	3		3	
檢 川		남종면 검천리 114	1961. 3.16	6	87	76	163	27	6		7	
南漢山		중부면 산성리 378	1912. 1.25	6	83	61	144	24	6		7	산성 6
光池院		중부면 광지원리 209	1945. 3.31	6	89	91	180	30	6		7	
樊 川		중부면 상번천리 538	1969. 3.24	6	101	124	225	38	6		7	
東 部		동부면 덕풍리 427	1934. 4. 1	93	1,206	1,111	2,317	56	27		42	신장 2006,2273
	拜 謁	동부면 배알미리 130	1949. 8.10	3	22	29	51	17	2		3	
望 月		동부면 망월리 127	1960. 1.25	20	559	519	1,078	54	17		22	신장 2158
山 谷		동부면 한산곡리 35	1934. 4. 1	12	250	258	508	42	12		13	
西 部		서부면 감일리 12	1936. 3.20	17	454	463	917	54	12		19	서부 5
고 골		서부면 하사창리 263-1	1949. 9.20	11	224	204	428	39	11		12	서부 74
24 교	4 교			291	6,704	6,385	13,089	45	265		322	

자료 : 경기신문사, 《경기요람》, 1980.

〈表 九〉 中學校 一覽

1979. 12. 31 현재

구분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월일	인가학급	학급편성상황								전화번호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공립	광주중	광주면 경안리 45	1947. 9.26	15	5	307	5	306	5	337	15	950	광주 2255
	남한중	동부면 덕풍리 420-12	1960. 2.10	22	8	510	7	476	7	452	22	1,438	신장 2707
	광주동중	실촌면 곤지암리 453	1955. 4.27	12	4	254	4	254	4	265	12	773	곤지암34,40
	광주노곡분교	도척면 노곡리 240	1976.12.28	6	2	97	2	82	2	106	6	285	도척 34
	광수중	퇴촌면 도수리 587	1966.12.13	8	2	139	3	151	3	153	8	443	퇴촌 101
		4(1)개교		63	21	1,307	21	1,269	21	1,313	63	3,889	
사립	京花女中	광주면 송정리 52-1	1975.11.14	13	5	295	4	277	4	277	13	849	광주 2751-5
		1개교		13	5	295	4	277	4	277	13	849	

〈表 十〉 高等學校 一覽

1979. 12. 31 현재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과	인가학급	학급편성상황								전화번호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공립	廣州商高	실촌면지암리 453	상업	6	2	121	2	120	2	117	6	358	40, 34
	廣州綜高	광주면 역리 145		18	6	361	6	340	6	348	18	1,049	2482,2484
			보통		2	120	2	119	2	116	6	355	
			원예		1	60	1	60	1	59	3	179	
			농업		1	60	1	46	1	57	3	163	
			축산		1	60	1	59	1	57	3	176	
			농업기계		1	61	1	56	1	59	3	176	
	南漢綜高	동부면 덕풍리 420		9	3	182	3	174	3	155	9	511	신장2707
			보통		1	61	1	58	1	57	3	176	
			원예		2	121	2	116	2	98	6	335	
		광주군 3개교		33	11	664	11	634	11	620	33	1,918	
사립	京花女商	광주면송정리 52-1	상업	4	4	243					4	243	2751~5
		광주군 1개교		4	4	243					4	243	

第11節 第5共和國과 廣州教育

1. 第5共和國의 文教政策과 奬學方針

1979年 10月 26日의 大統領에 대한 시해는 維新政權의 종언을 가지고 왔다.

이 事件으로 인해서 우리의 現代史는 또 한번의 중요한 轉機를 맞게 될 것이며 힘의 空白期間이 몇 개월간 계속되었다.

國家指導力의 不任와 軍統師權의 空白期에 軍의 主導勢力으로 부상한 12·12事態의 主役들에 의해 1980年 5月 17日 全國非常戒嚴이 확대 宣布되고 5月 31日에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發足시켰다.

1981年 3月 3日에 軍의 主導勢力의 핵심인물이었던 全斗煥이 第12代 大統領에 就任함으로써 第5共和國이 出帆하게 되었다.

第5共和國의 國定地標는 ① 民主主義 土着化 ② 福祉社會의 建設 ③ 正義社會의 具現 ④ 教育改革과 文化暢達이었으며 새로운 教育政策을 提示했다.

第5共和國에서의 教育政策은 內實있는 教育과 격조 높은 文化를 暢達하겠다는 意志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提示했다.[29]

① 公教育 投資를 대폭 늘리고 私學을 育成하여 모든 領域의 教育與件을 획기적으로 改善한다.

② 中學校까지의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內實化하여 國民基礎教育의 質的 向上을 이룩한다.

③ 早期教育과 平生教育體制를 確立하여 全人的 人間像을 具現한다.

④ 教育機會를 다양하게 擴大하고 均等한 條件에서 누구나 필요한 教育을 받을 수 있게 한다.

⑤ 科學技術 및 職業教育을 強化하여 高度産業社會에 대처할 수 있는 人材를 養成한다.

⑥ 學校體育과 社會體育의 振興으로 體育을 生活化하여 國民體力을 向上시킨다.

⑦ 傳統文化를 계승 발전시켜 民族의 긍지를 높이고 國民精神 순화에 기여토록 한다.

⑧ 文化藝術人의 創作活動을 적극 支援하고 國際文化 交流를 적극 확대하여 국위를 선양한다.

⑨ 中央과 地方의 文化 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大衆文化를 育成한다.

⑩ 宗教의 自由를 保障한다.

⑪ 言論의 自由를 保障한다.

⑫ 女性의 地位 向上을 위해 불리한 條件을 制度的으로 시정 보완하며 女性人力을 開發하여 國家 發展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⑬ 青少年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價値觀을 확립하여 統一主導勢力으로 育成해 간다.

이상과 같은 教育政策을 바탕으로 文教當局의 教育施策이 마련되었으며 年度別 文教部의 施策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文教部의 教育施策

第5共和國 태동 직전의 過渡期에 文教長官에 就任한 金玉吉(1979. 12~1980. 5 在任)은 學校의 自律化를 표방하여 ① 人間教育의 重視 ② 國民精神教育의 充實이라는 2大 教育地標를 提示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 奬學方針을 示達하지않고 各 市道의 自律的 施策에 奬學을 맡겼다.

---

29) 韓國青年文化研究所, 前揭書, pp. 1069-1078.

◇ 1980年 文教指標

○ 民主的이고 愛國的인 國民을 기르는 教育

1. 全人教育
2. 精神教育
3. 科學教育
4. 平生教育

◇ 1981年 文教指標

○ 民主的이고 愛國的인 國民을 기르는 教育

1. 國民精神教育의 強化
2. 基礎教育의 內實
3.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4. 全人教育의 充實

◇ 1982年 文教指標

○ 民主·福祉·正義의 새社會 建設을 위한 自主的이고 有能한 韓國人 育成

－. 7. 30 教育改革事業의 發展的 展開－

1. 민주·正義社會 建設을 위한 教育
2. 福祉社會 具現을 위한 教育
3. 高度産業化社會에 對應하는 教育
4. 國際化 時代에 對備하는 教育
5. 創造·改革·發展을 위한 教育

◇ 1983年 文教指標

○ 民主·福祉·正義의 새社會 建設을 위한 自主的이고 創意的인 國民教育

1. 國民精神教育의 強化
2.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3. 全人教育의 充實
4. 平生教育의 擴充

－ 2000年代에 對備 7·30教育改革의 持續化 －

◇ 1984年 文教指標

○ 7·30 教育改革의 持續化

1. 國民精神教育의 強化
2.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3. 全人教育의 充實
4. 平生教育의 擴充

－ 2000年代에 對備 －

◇ 1985年 文教指標

○ 7·30 教育改革의 持續化

1. 國民精神教育의 強化
2.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3. 全人教育의 充實
4. 平生教育의 擴充

－ 2000年代에 對備 －

◇ 1986年 文教指標

○ 量的 成長에서 質的 成長으로의 轉換

1. 韓國人의 矜持를 심는 國民精神教育
2. 創造力을 기르는 科學技術教育
3. 知·德·體의 均衡發達을 위한 全人教育
4. 學習社會를 指向하는 繼續教育
5. 86·88大會에 對備한 秩序·親節教育

－ 先進·統一祖國을 이끌어갈 人材養成－

◇ 1987年 文教指標

○ 量的 成長에서 質 向上으로의 轉換

1. 國民精神教育의 強化
2.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3. 全人教育의 充實
4. 平生教育의 定着
5. 올림픽 教育의 徹底

－ 教育의 質的 高度化 －

이상의 文教 教育 指標를 종합하면 첫째, 國民精神教育의 強化 둘째,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세째, 全人教育의 充實 네째, 平生教育의 擴充 다섯째 올림픽 對備教育으로 要約할 수 있다.

2. 京畿教育指標와 廣州教育方針

1) 京畿教育指標 및 教育施策

위에서 밝힌 文教指標를 바탕으로 京畿道教育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教育施策을 마련하여 各級 學校에 示達함으로써 廣州教育의 方向을 決定하게 했다.

◇ 1983年 京畿教育行政指標 및 教育施策

京畿道教育委員會는 「民主·福祉·正義의 새 社會 建設을 위한 自主的이고 創意的인 國民을 育成한다.」는 目標 아래 다음과 같은 京畿教育行政指標를 決定했다.

1. 矜持 높은 師道 確立
2. 教育의 効率 提高
3. 支援行政의 強化

위와 같은 行政指標의 具現을 위해서 다음의 教育施策을 示達하였다.

1. 尊敬받는 教員像 定立
2. 國民精神教育의 深化
3.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4. 全人教育의 充實
5. 教壇中心 支援行政의 極大化
6. 學校 淨化運動의 推進

◇ 1984年 京畿教育指標 및 教育施策

○ 教育指標

1. 다듬은 教育實踐

精誠과 創意로 正確하고 정밀하게 다듬어진 教育課程의 充實한 運營과 自我實現의 生活의 場을 提共하여 國家觀이 透徹하고 民族의 矜持와 主體性이 確固한 愛國的인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과 德性을 涵養하며 천부적인 소질과 잠재적 가능성을 啓發하여 國家發展과 價値 創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듬는 教育 實踐으로 調和로운 人間 教育에 盡力한다.

2. 基礎 科學 教育 實施

科學教育에 대한 國家的 期待와 필요를 재확인하며 科學教育을 觀察·實驗·實習 中心의 探究學習方法으로 轉換하고 科學的 生活環境을 造成하여 어려서부터 科學的으로 생각하는 態度와 探究하는 能力을 기르고 科學的 硏究를 위한 基礎 知識과 技能을 습득하게 하여 先進科學技術을 創造하는 소지를 키워 나가고자 基礎科學 教育에 充實한다.

3.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우리 京畿教員은 투철한 國家觀과 教育哲學의 基礎 위에서 스승으로서의 自負와 矜持를 가지고 教職의 使命 完遂에 充實하며 부단한 自己 修養과 硏鑽으로 教職의 專門性을 높여 有能한 人材 養成에 盡力하는 尊敬받는 스승像을 定立한다.

4. 敎室中心 行政 強化

밝고 信賴로운 民主·奉仕·責任의 敎育行政을 정착시키고 精誠과 보람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敎育環境을 造成하여 質 높은 敎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敎室中心 行政을 強化한다.

이와 같은 敎育指標에서 특기할 것은 「다듬는 敎育實踐」으로 이는 83年에 就任한 第6代 黃哲秀 敎育監의 敎育哲學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때의 敎育施策은 다음과 같다.

1. 國民精神敎育의 深化
2. 全人敎育의 充實
3.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4.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5. 敎室中心의 行政 強化

◇ 1985年 京畿敎育指標 및 敎育施策

○ 敎育指標

1. 다듬는 敎育 實踐
2. 基礎科學敎育 充實
3.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4. 敎室中心의 行政 強化

○ 敎育 施策

1. 國民精神敎育의 深化
2. 全人敎育의 充實
3.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4.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5. 敎室中心의 行政 強化

◇ 1986年 京畿敎育指標 및 敎育施策

○ 敎育指標

1. 다듬는 敎育 實踐
2. 基礎科學 敎育 充實
3.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4. 敎室中心의 行政 強化

○ 敎育施策

1. 國民精神敎育의 深化
2. 全人敎育의 實施
3. 科學技術敎育의 振興
4.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5. 敎室中心의 行政 強化

2) 廣州教育指標 및 教育施策

廣州教育施策은 京畿道教育委員會의 教育指標 및 教育施策에 더하여 地域의 教育課題와 特殊性을 고려해 設定되었으며 廣州教育의 課題分析, 教育指標, 教育施策, 力點事業은 다음과 같다.[30]

(1) 廣州教育의 課題

① 地域의 特殊性과 教育課題

特 殊 性	教 育 課 題
○ 사회構造의 多樣性	○ 教職使命感 고취와 教員資質向上
	○ 教育의 上向的 平準化
	○ 教育 環境 與件의 改善
○ 歷史·文化 遺跡地 및 觀光地	○ 國民精神教育의 強化
	○ 學徒愛鄕隊 活動의 活性化
	○ 秩序지키기의 生活化
○ 産業構造의 異質化	○ 科學技術教育의 強化
	○ 進路 指導의 徹底
	○ 勤儉節約生活의 充實
○ 學校規模의 零細性	○ 學校特色發現 自律經營
	○ 教授-學習 方法의 改善
	○ 教室中心의 支援強化

② 教育 領域別 課題

領 域	教 育 課 題
○ 學習指導	○ 自律學習方法 訓鍊
	○ 目標學力의 達成
	○ 讀書 및 作文教育의 充實
○ 生活指導	○ 自律精神教育의 徹底
	○ 訓話 및 修鍊教育의 強化
	○ 學徒愛鄕隊 活動의 活性化
○ 特別活動	○ 1校1特色活動 運營
	○ 生活英語教育의 強化
	○ 優秀選手 早期發掘育成
○ 教員의 資質向上	○ 授業中心의 協議奬學
	○ 現職研修의 強化
	○ 教育情報 및 奬學 資料發刊
○ 支援 行政의 強化	○ 示範學校 指定運營
	○ 教育弘報 및 教育相談擴大
	○ 教育施設 및 與件의 現代化

(2) 廣州教育指標 및 教育施策

① 廣州教育指標의 基調

바른 정신·알찬 실력·참된 생활

우리 廣州教育은 先進 祖國 創造의 主導的 役割을 할 「自主的이고 創意的인 國民을 育成한다」는 歷史的 使命아래 「2000年代에 對備하는 健康人·審美人·能力人·道德人·愛國人 育

30) 廣州教育廳, 《教育計劃》, 1986.

成」이라는 教育目標와 「先進·創造의 京畿教育」指標를 達城하는 데 精誠과 슬기를 다하고 있다. 더욱이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 主催國으로서 先進國民의 資質을 함양시켜야 할 教育的 課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부응하여 우리廣州教育은 「바른 精神」「알찬 실력」「참된 생활」을 教育의 指標로 삼고 다듬는 教育을 實踐하고자 한다.

첫째, 「바른 정신」을 가져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인간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높은 뜻을 갖되 바른 뜻을 지녀야 하고 거기에다 시작하는 용기, 하면 된다는 자신감, 중단하지 않는 끈기, 해내고 마는 성취감이 필요하다.

둘째, 알찬 실력을 다져야 한다.

실력은 곧 힘이다. 국가 발전과 역사창조는 힘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력을 갖되 기초 지식에 충실해야 하며 바르게 열심히 끝까지 배우는 바른 지식과 知·德·體·藝·技에다 어학실력을 갖춘 고른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

셋째, 참된 생활을 쉬지 않고 실천해야 된다.

참된 인간을 참된 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참된 생활은 바른 정신, 바른 행동, 바른 습관, 바른 인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 정신의 바탕 위에 알찬 실력을 바르게 열심히 끝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知行一致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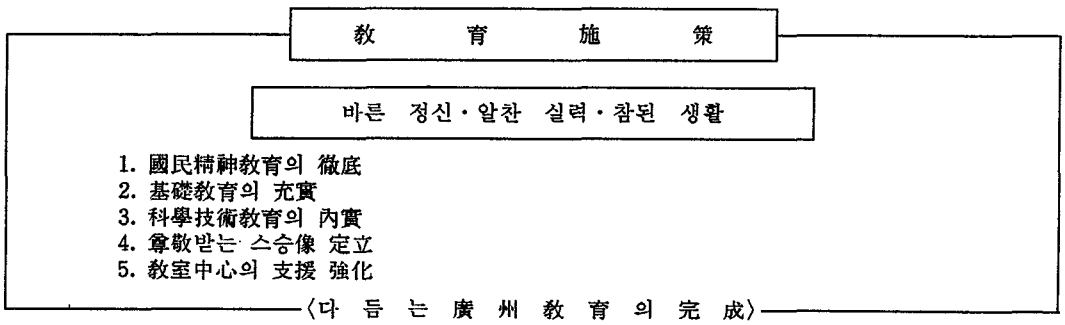
이에 廣州教育은 전영역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여

○ 주인정신과 자율정신이 투철한 「바른 정신」을

○ 배움에 애착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는 「알찬 실력」을

○ 바르게 배워 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생활」을 教育指標로 設定하여 실천하므로써 「사랑받는 학생」「존경받는 스승」「신뢰받는 학교」를 건설하고자 한다.

② 具現施策 및 具現重点



〈다 듬 는 廣 州 教 育 의 完 成〉

첫째, 國民精神敎育의 徹底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을 가진 떳떳한 한국인으로 자아를 정립하고 협동정신, 사명감, 준법정신을 고양하여 다함께 보람을 가꾸어 가며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의지를 북돋아 국가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찾고자

- ○ 주인정신의 고취
- ○ 통일안보 교육의 강화
- ○ 학도애향대 운영의 활성화
- ○ 학교 새마을운동의 내실

등을 통하여 주인정신, 자율정신, 애국심을 다지는 국민정신 교육의 철저를 기한다.

둘째, 基礎敎育의 充實

건전한 심신육성과 지력·기술의 배양을 위해 지·덕·체·예·기에다 어학 실력을 고루 갖춘 전인적 인간과 자주적 학습 능력을 갖추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학습 성취인을 기르고자

- ○ 목표 학력의 달성
- ○ 특별 활동의 활성화
- ○ 보건 체육 교육의 정상화
- ○ 생활지도의 충실
- ○ 평생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기하여 기초 교육의 충실을 다지는 데 창의와 정성을 다한다.

세째, 科學技術敎育의 內實

선진 조국 창조는 고도 산업 사회 건설에 있고 적응력과 창의력을 가진 산업역군 양성에 있다. 이에 기초 과학과 수학교육을 중시하여 광주 교육이 앞으로 다가올 과학문명의 발달과 국제경쟁시대에 대처하고 개발시대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적 교육환경 조성과 살피고 생각하며 알아내는 탐구중심의 실험실습, 과학적 흥미와 관심을 위한 과학교육행사와 과학적 생활태도를 기르고자

- ○ 과학교육 환경조성 및 시설정비
- ○ 실험중심 수업의 강화
- ○ 과학지도교사 연수
- ○ 글 과학교육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하여 기초 과학교육의 내실에 역점을 둔다.

네째,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교직을 보람과 긍지로 아는 교사, 학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사, 항상 예습하며 가르치는 교사, 민족의 스승으로 사도 지침을 실천하는 교사, 교육을 올바로 이해하는 학부모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 ○ 교원의 자질 향상
- ○ 교원의 존중 풍토 조성
- ○ 교육 총보의 강화

등으로 교직 사명을 다하고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 힘쓴다.

다섯째, 教室中心의 支援 강화

교육의 성패는 교육개혁에 있고 교육개혁은 수업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며 수업개선은 수업제일주의에 있다. 이에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경영을 돕고자 민주봉사 책임의 지원행정을 강화하여 교실을 삶과 배움의 활기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 교육 환경 및 여건의 개선
- 장학 지도 방법의 개선
- 자율행정의 활성화
- 정화운동의 지속화

등으로 교실중심의 지원행정을 강화하고자 한다.

(3) '86 力點事業

우리 廣州教育은 「바른 정신·알찬 실력·참된 생활」의 教育指標를 具現하고자 ① 國民精神教育의 徹底 ② 基礎教育의 充實 ③ 科學技術教育의 內實 ④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⑤ 教室中心의 支援強化 등의 5個 時策을 設定하고 이를 더욱 深化 發展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個 力點事業을 設定 運營한다.

첫째, 自律精神教育의 徹底

둘째, 目標學力의 達城

셋째, 授業中心의 協議奬學

넷째, 優秀選手 發掘 育成

다섯째, 生活 英語教育의 強化

3. 廣州教育에서의 教育革新

1) 다듬는 教育의 定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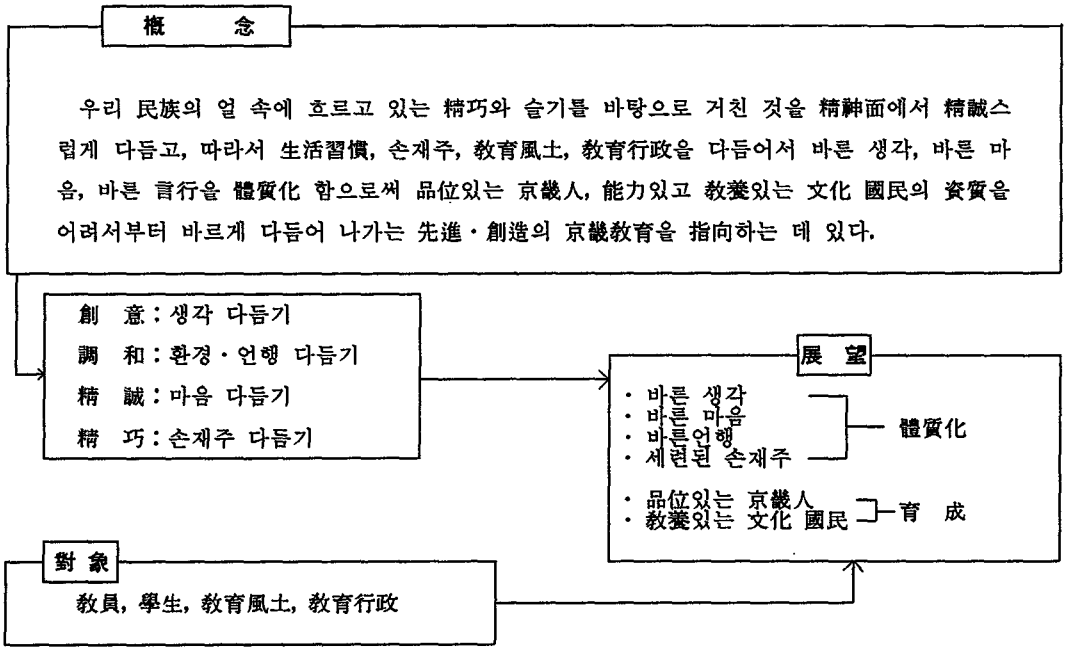
다듬는 教育을 提唱한 것은 1983年 2月에 취임한 第6代 京畿道教育監 黃哲秀에 의해서였다.

다듬는 教育은 올바른 精神, 적합한 知識, 바람직한 習慣, 유용한 技術을 포함한다. 즉 知識과 人格을 포함하는 全人教育을 意味하며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과 일치하며 문교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教育力의 伸張을 통한 先進化와 일치하고 弘益人間의 理念과 國民教育憲章의 內容과 연계되고 있는 槪念이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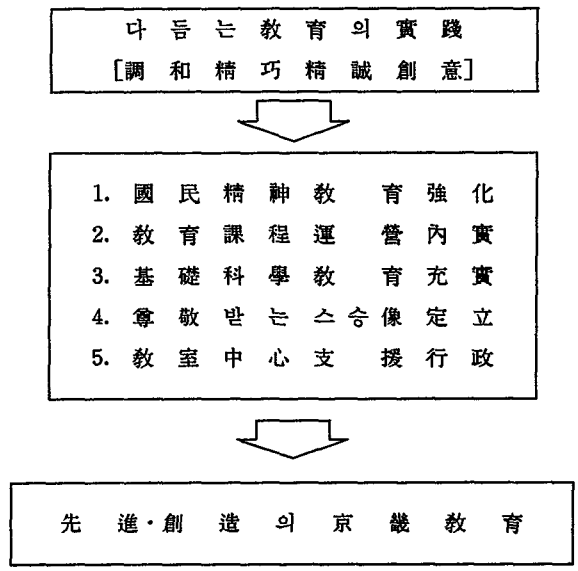
따라서 다듬는 教育 實踐에 대한 理念과 哲學을 韓國人의 傳統思想과 京畿人의 特色에서 추출하고 있으며 이의 實踐을 통해 廣州人의 主體性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31) 京畿道教育委員會, 〈先進創造의 京畿教育〉 (수원 : 세창문화사, 1986) p. 203

① 다듬는 教育의 槪念[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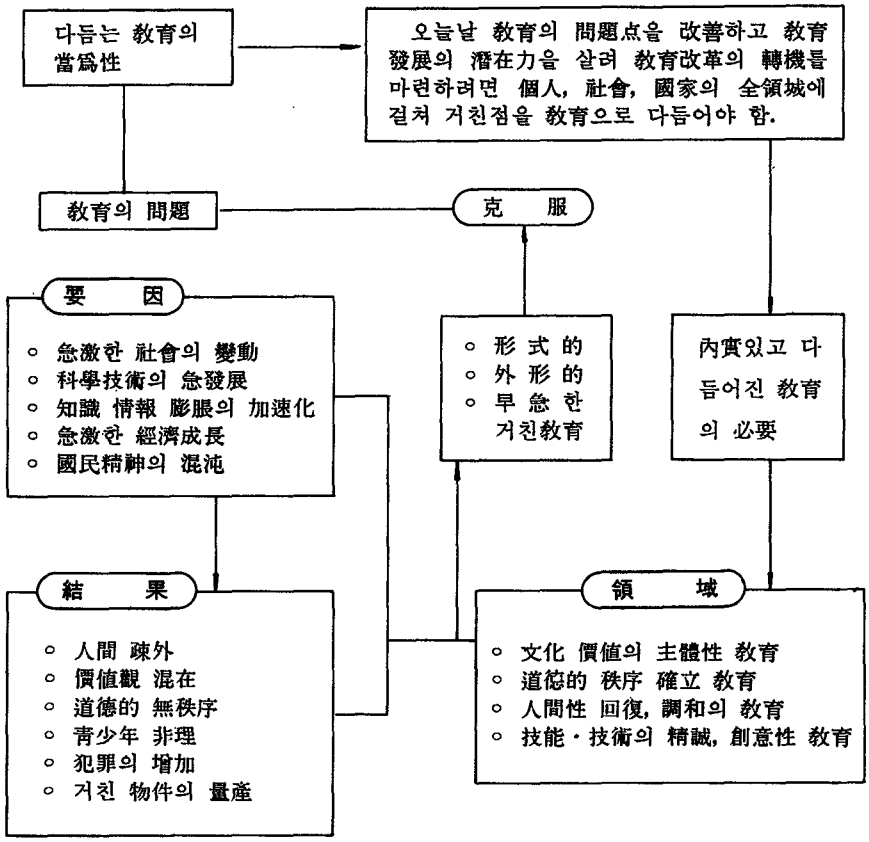
② 다듬는 教育의 實踐方向[33]



32) 上揭書, p. 206

33) 上揭書, p. 206

③ 다듬는 教育 實踐 體系 [34]



④ 다듬는 教育의 實踐 內容

i. 다듬는 教育으로서의 學習指導 [35]

2000年代를 대비한 教育改革과 文教部教育行政指標에 입각한 教育革新의 지속화를 위한 일환으로 教育課程의 改編이 이루어지고 教科書가 改正되며 또한 教室中心의 行政이 強化되고 教室改革이 推進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다듬는 教育實踐 속에서 學習指導에 대해서 다듬는 教育을 論하면 다음과 같다.[36]

i) 授業條件을 다듬는다.

授業의 成立에서 基本的 條件은 教育的 價値가 있어야 되며 授業이 이루어짐으로써 개개

34) 上揭書, p. 207

35) 上揭書, p. 208

36) 京畿道教育研究院, 「다듬는 教育으로서의 學習指導」《京畿敎學》, 제80호, 1983. pp. 17-31

學生이 바람직한 변모를 보이고 또 학생 自身이 변모를 확인했을 때 그 授業은 成立條件을 갖춘 것이다.

우리 廣州敎育이 敎育現場에서 다듬어야 할 成立條件은 다음과 같다.

- ○ 學習意慾과 關心度
- ○ 정확한 學習目標의 把握
- ○ 學習場內의 人間關係

ii) 授業者의 質을 다듬는다.

- ○ 敎育公務員으로서의 資質
- ○ 專門職으로서의 資質
- ○ 授業者로서의 資質
- ○ 스승으로서의 資質
- ○ 선생님으로서의 마음씨

iii) 敎材를 다듬는다.

- ○ 興味와 關心度가 높은 敎材
- ○ 典型的으로 理解하기 쉬운 敎材
- ○ 敎師 自身의 力量에 맞는 敎材
- ○ 學生의 能力度나 學級實態에 맞는 敎材
- ○ 問題意識을 일으키는 敎材
- ○ 情報蒐集, 分析整理, 選擇活用 등 學習場 構成이 이루어질 수 있는 敎材

iv) 授業計劃을 다듬는다.

- ○ 敎材의 焦点化
- ○ 學習의 自律化
- ○ 學習의 協同化

v) 授業方法과 技術을 다듬는다.

- ○ 自主的 學習指導
- ○ 個性을 살리는 學習指導
- ○ 主體的이며 相互 信賴關係가 깊은 授業

ii 다듬는 敎育實踐으로서의 生活指導[37]

다듬는 敎育을 위한 生活指導를 함에 있어서 指導의 主體인 學生을 基本的으로 理解하고 指導에 임하는 基本態度와 原理를 前提로 한 다듬는 學生指導의 方向은 다음과 같다.

i) 他律的 生活指導 方向에서 自律的 生活指導에로 轉換

ii) 入試爲主의 生活指導에서 全人敎育爲主의 生活指導

iii) 폐쇄시설을 개방시설화하여 活用度를 극대화하는 生活指導

iv) 個人主義 意識이 짙은 學生들을 共同體意識形成으로 유도

v) 物理的 說得에서 理解中心의 說得으로 轉換

---

37) 京畿敎育委員會, 「다듬는 敎育實踐으로서의 生活指導」《京畿獎學》 제80호, 1983. pp. 35-36.

vi) 確認主義指導에서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過程中心 指導로

vii) 理論爲主·指導形態에서 산 教育的 現實爲主의 指導로

viii) 學校爲主의 指導에서 다양한 社會化指導로 學生生活指導의 轉換

iii. 다듬는 機能教育으로서의 特別活動指導

特別活動은 教科活動과 더불어 學生의 全人的 成長을 돕기 위한 教育課程의 한 領域으로서 學生의 自律的이고 協同的인 참여하에 自由로운 自記表現의 機會를 가지게 하여 學生 各者의 個性과 素質의 發見 및 伸張을 도모하고 나아가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과 能力을 기르기 위한 教育活動으로 다듬는 特別活動의 方向을 다음과 같이 設定한다.

i) 國民學校

集團生活에 自發的으로 참여하게 하고 自記表現의 機會를 가지게 하여 個性과 素質을 發見 伸張하고 나아가 民主市民으로서의 能力과 資質을 함양한다.

ii) 中等學校

集團活動에 自發的으로 참여하고 자유로운 自己表現의 機會를 가지게 하여 個性과 素質의 發見 및 伸張, 心身의 健康을 도모하여 協同과 奉仕精神 또는 自律的인 問題解決能力을 길러 民主市民으로서의 能力과 資質을 함양하게 한다.

iv. 다듬는 教育의 管理行政

i) 教室中心의 支援體制 確立

ii) 現場의 教育與件 改善·整備

iii) 教育機會의 均衡的 擴大

iv) 教育發展에 기여하는 教育行政體制 確立

2) 學校 學級 淨化運動

第5共和國의 胎動 무렵인 1980年 8月 6日 京畿道教育委員會에서 道內 22個 市郡 學務課長 및 41個 公私立 高等學校長 合同會議를 열고 이날 國家保衛對策委員會가 發表한 社會惡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른 學校淨化運動을 강력히 推進하라고 提示하는 한편 이에 따른 細部指針을 示達했다.

京畿道教育委員會는 이날 會議에서 이번 機會에 學生들의 폭력, 공갈, 불순써클 등 각종 不良學生을 제거하고 學校社會內에 기생해 온 각종 不條理를 淨化해야 할 것이라고 強調하고 이를 위해 各級學校는 學校別로 淨化推進委員會를 同年 8月 13日까지 構成하라고 提示했다.

京畿道教育委員會가 構成하도록 指示한 淨化委員會의 任務는 ① 學校內와 주변의 不良學生 및 불량배와 그 組織의 實態를 파악하고 教員은 課外 안시키기, 學生은 課外 안받기 運動을 展開하는 한편 ② 教員의 금출 수수, 내신서 작성의 정실 배제 및 결강 수업 결손 일소 ③ 全人教育實施 ④ 入試爲主의 教育을 탈피하여 教育目的에 一致하는 教育實施로 正常的 學校機能 발휘 ⑤ 學校 주변의 不良食品, 오염 물질 등 學校衛生 저해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廣州教育廳에서도 各級 學校에 「學校淨化委員會」와 「學級淨化委員會」를 構成케 하여 活動을 始作하게 했으며 教育廳內에서 淨化委員會가 構成되었다.

學校 淨化委員會의 目的 方針 活動內容 등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學校 淨化運動의 活性化로 正義社會의 기반을 造成한다.

(2) 方針

① 淨化運動의 理念을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② 各級 淨化推進委員會의 組織을 보강하여 敎職員과 學生의 自律的 參與度를 높인다.

③ 重点 淨化課題를 選定하여 敎育的인 活動을 集中的으로 展開함으로써 非理와 폐습이 자연히 소멸되도록 한다.

④ 硏究機關이 正義社會 具現을 위한 學術的 調査硏究와 體系的인 理論 開發에 參與하도록 誘道한다.

(3) 學校級別 淨化活動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學校淨化運動은 全員 能動的 參加, 肯定的活動, 지속적추진, 自律的 展開, 多樣性을 原則으로 各級 學校의 與件에 맞도록 展開되었다.

이 대의 選定 課題 選定原則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대다수가 꼭 필요한 것부터
- 생활주변의 문제부터
-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 공익성이 큰 것부터
- 교육적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부터
- 시의에 맞는 것부터
- 가정이나 사회에 영향이 큰 것부터 등이었다.

廣州敎育廳과 郡內의 高等學校에서는 京畿道敎育委員會의 活動方案에 따라 淨化活動推進方案으로 全校어린이 및 學生會, 學徒護國團의 下部 組織인 學級會, 特別活動班, 課外活動班, 등 기존 學生組職을 적극 활용하게 하고 學校에서는 敎科指導, 生活指導, 特別活動, 訓話敎育, 弘報, 揭示敎育, 웅변, 글짓기, 美術, 音樂, 標語, 포스타 그리기, 講演會, 運動會, 學藝會, 소풍, 修學旅行 등의 行事敎育과 全敎育活動을 통하여 學生들의 淨化活動을 指導 支援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學生들의 建議나 要求事項이 있으면 적극 支援하여 解決하게 하였다.

이 時期에 廣州郡內의 各級 學校에서 展開한 淨化 活動은 다음과 같다.>

① 國民學校·中學校

i. 秩序觀念의 體質化

- 거리질서 지키기
- 공중도덕 지키기
- 정리정돈 잘하기
- 인사잘하기
- 실내에서 조용히 하기
- 운동규칙 지키기

ii. 不信風潮 퇴치

- 약속지키기

- ㅇ 거짓말 안하기
- ㅇ 서로 양보하기
- ㅇ 친절하기
- ㅇ 남의 흉 안보기
- ㅇ 주운 물건 찾아 주기

iii. 國民健全生活 저해행위 근절

- ㅇ 과외공부 안하기
- ㅇ 고운말 바른말 사용하기
- ㅇ 사이좋게 지내기
- ㅇ 불량식품 안사먹기

iv. 분수 지키기

- ㅇ 사치스러운 학용품 안쓰기
- ㅇ 검소한 옷입기
- ㅇ 근검절약하기
- ㅇ 저축하기
- ㅇ 걸어서 통학하기
- ㅇ 생일 가족과 함께 보내기

② 高等學校

i. 秩序觀念의 體質化

- ㅇ 거리질서 지키기
- ㅇ 공중도덕 지키기
- ㅇ 교칙 지키기
- ㅇ 예절 생활하기
- ㅇ 실내 정숙 지키기
- ㅇ 운동 규칙 지키기

ii. 不信風潮 퇴치

- ㅇ 정직하기, 서로 믿기, 거짓말 안하기
- ㅇ 약속 지키기, 시간 지키기
- ㅇ 서로 양보하기, 서로 친절하기
- ㅇ 불우 학우 돕기
- ㅇ 공정한 시험 치르기

iii. 國民健全生活 저해 행위 근절

- ㅇ 과외 공부 안하기
- ㅇ 언어 순화하기
- ㅇ 면학 분위기 조성하기
- ㅇ 불양 만화, 음반, 카셋트 구독 안하기
- ㅇ 학생 출입금지 구역 출입 안하기

- ○ 학생 신분 지키기, 일찍 귀가하기
- ○ 불량 써클 가담 안하기
- ○ 폭력 행위 안하기
- ○ 저속한 노래 안부르기
- ○ 사행 행위, 도박 행위 안하기
- ○ 흡연 음주 안하기

iv. 분수 지키기(허례 허식 추방)

- ○ 도보 통학하기
- ○ 근검 절약하기
- ○ 사치스런 복장 안하기
- ○ 학생 신분에 맞는 용모 갖추기

3) 教室改革 運動 展開

2000年代의 科學化, 産業化된 未來社會에 對備하는 教育을 위해서 1980年의 7월 30일 教育改革 措置 이후인 1982年 9月 7日 文教部는 各 市道教育委員會에 教室改革 基本指針을 示達하여 教育의 質的 改革을 試圖했다.

이 基本指針은 教育現場을 위축시키고 教育活動을 구속하는 각종 規例, 訓令, 指針, 方針 등에 대한 대폭적인 정리를 통해 教員의 事務를 경감시켜 教師가 더 많은 時間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긍지와 사기를 높여 教育効果를 극대화 하려는 데 目的이 있었다.

教育改革의 成功 여부는 教授-學習 方法의 改善에 달려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던 廣州 教育廳에서는 일제식 타율학습에서 탐구식 자율학습으로, 가르치는 教室에서 스스로 배우는 教室로 學習의 方法을 바꾸는 데 奬學力을 集中하였으며 各級 學校의 校長도 校內奬學을 통해서 이를 實踐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

당시 學校組織의 官察化에 따른 學校教育行政의 硬直現象, 學校規模의 비대화에 따른 教職員間의 共同體意識의 결여, 改革에 대한 教師들의 保守的 기질 등의 問題를 극복하고 教育改革을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教室改革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데 모든 教職者들이 認識을 같이 함으로써[38] 廣州 教育界 뿐만 아니라 全國 教育의 중요한 잇슈가 「教室改革」이었다.

各級 學校에 示達된 文教部의 〈學校教育改革委員會 運營指針〉의 重要 內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39]

1. 目的

2000年代의 高度 産業社會와 國際化 時代에 대처할 有能한 人材는 教室 現場에서 잉태되는 바 각급 學校마다 學校教育改革委員會를 構成 運營하도록 하여 學校가 主導的 創意的으로 教室現場의 問題을 解決함으로써 學校教育改革을 加速化하는 데 있다.

2. 方針

1) 教育改革을 위한 意志가 충만한 당해 學校 教員으로 組織 運營한다.

---

38) 水原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 1410.

39) 上揭書, p. 1410

2) 學校教育改革 任務에 따른 具體的 計劃을 樹立하여 段階的으로 解決한다.

3) 計劃의 內容이나 活動은 學校의 實情을 감안, 創意的으로 特色을 發現한다.

4) 道教委·市郡教育廳의 教壇支援體制와 긴밀한 연계하에 運營한다.

3. 運營 方法

1) 委員會長은 當該學校 校長, 또는 主任教師로 하되 學校實情을 감안적의 선정한다.

2) 委員選定

○ 教育改革意志가 뚜렷한 教員

○ 傳門的인 素養과 資質을 갖춘 教員

3) 構成人員

○ 學校 實情을 감안하여 當該 學校 教員授의 3分의 1, 또는 5分의 1 程度로 組織한다.

4. 機能

學校 教育改革委員會는 學校長을 補佐하여 다음과 같은 機能을 遂行한다.

1) 學校 教育計劃樹立 및 合理的 實踐方案 모색

2) 自主的 探究學習을 위한 教授－學習 方法의 改善

3) 教育目標 達城을 측정하기 위한 多樣한 評價方法의 모색

4) 教具 施設 및 環境 등 教育與件의 改善

5) 學生 및 地域社會에 알맞는 生活指導 對策 樹立

6) 教育改革을 위한 教員研修의 效率的 推進

7) 기타 重要한 教育施策의 發案 討議 審議

이상의 教室改革은 그러나 커다란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일과적 교육 시책으로 끝나고 말았다.

4. 第4次 教育課程 改正과 廣州教育

第5共和國이 出帆하면서 새로운 教育課程이 分布되었다. 이것이 소위 四次教育課程으로 1981年 12月 31日字로 公示된 것이다.

四次 教育課程의 基本方向은

① 國民精神教育의 體系化

② 全人教育의 強化

③ 進路教育의 充實化

였으며 教育을 통해 育成하고자 한 人間像으로는

① 健康한 사람

② 審美的인 사람

③ 能力있는 사람

④ 道德的인 사람

⑤ 主體的인 사람

으로 定하였다.

本 四次 教育課程에서의 強調 事項으로는

① 健全한 心身의 育成

② 知力과 技術의 培養

③ 調和로운 人格 形成

④ 共同體意識의 培養

등이었다.

基本方向에서 提示하고 있는 國民精神의 效率化를 위해서 考慮되어야 할 점으로는

첫째, 大韓民國體制에 대한 理念教育을 根幹으로 삼아 이를 體系化하여 關聯教科教育에 反映토록 하였다.

둘째, 國民精神教育은 學校教育 全般을 理念教育의 立場에서 보고 教科의 프로그램만이 아닌 特別活動에서도 이를 허용한다.

세째, 幼稚園에서부터 始作하여 上位級別 教育機關에서 一貫되게 國民精神教育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네째, 全體 授業時間이 現行 教育課程에 비해 상당히 끌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民精神教育과 직접적으로 關聯된 教科는 가급적 3次教育課程 時間數를 그대로 유지하였다.[40]

또한 全人教育의 強化를 위하여 四次教育課程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強調하였다.

첫째, 授業時間과 教科의 量을 줄이고 水準을 下向 調整하여 여가의 活動時間을 늘리도록 했다.

둘째, 初期에는 教科間의 統合을 試圖했고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教科目을 分化하여 學習이 深化 擴大되도록 했다.

세째, 특히 高等學校의 경우 一般系 實業系 共通科目을 設定하여 이수케 함으로써 自我實現을 이룰 수 있는 一般教育을 強化하였다.

네째, 主知教科와 道德·藝體能 및 實業家政에 대한 教科의 均衡있는 時間 按配를 하려고 하였다.[41]

또한 進路教育의 充實化를 위하여 4次教育課程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考慮하였다.

첫째, 基本能力과 關係되는 基礎 教育을 強化하였다.

둘째, 特殊課程의 設定 根據를 마련하고 教科選擇의 폭을 擴大하였다.

세째, 各 教科에서는 個人과 社會問題를 올바르게 理解하고 判斷할 수 있게 하는 高等精神能力이 길러지게 하는 데 힘썼고 科學科와 數學科教育을 強化하였다.

---

40) 京畿道教育委員會, 前揭書, pp. 494－495.

41) 上揭書, pp. 495－496.

1. 各級 學校級別 敎育課程 運營

第4次 敎育課程에 따른 廣州郡內 各級學校의 敎育課程運營 內容은 다음과 같다.

〈表 —〉 國民學校 敎育課程 運營

시간배당기준

구분 \ 학년		1	2	3	4	5	6
교과활동	도덕	374 (11)	374 (11)	68 (2)	68 (2)	68 (2)	68 (2)
	국어			238 (7)	204 (6)	204 (6)	204 (6)
	사회			102 (3)	102 (3)	136 (4)	136 (4)
	산수	204 (6)	136 (4)	136 (4)	136 (4)	170 (5)	170 (5)
	자연		68 (2)	102 (3)	136 (4)	136 (4)	136 (4)
	체육	204 (6)	238 (7)	102 (3)	102 (3)	102 (3)	102 (3)
	음악			68 (2)	68 (2)	68 (2)	68 (2)
	미술			68 (2)	68 (2)	68 (2)	68 (2)
	실과				68 (2)	68 (2)	68 (2)
	계	782 (23)	816 (24)	884 (24)	952 (28)	1,020 (30)	1,020 (30)
특별활동				34~ (1~)	68~ (2~)	68~ (2~)	68~ (2~)
총계		782 (23)	816 (24)	918~ (27~)	1,020~ (27~)	1,088~ (32~)	1,088~ (32~)

〈表 二〉 中學校 敎育課程 運營

시간 배당 기준

교과 \ 학년				1	2	3
교과활동	도덕			68(2)	68(2)	68(2)
	국어			136(4)	170(5)	170(5)
	국사				68(2)	68(2)
	사회			102(3)	68~102(2~3)	68~102(2~3)
	수학			136(4)	102~136(3~4)	102~136(3~4)
	과학			136(4)	102~136(3~4)	102~136(3~4)
	체육			102(3)	102(3)	102(3)
	음악			68(2)	68(2)	34(1)
	미술			68(2)	68(2)	34(1)
	한문			34(1)	34~68(1~2)	34~68(1~2)
	외국어		영어	136(4)	102~170(3~5)	102~170(3~5)
	실업·가정	필수	생활기술(남) 가정(여)	102(3)	136~203(4~6)	
		선택	농업			택1~2 170~238(5~7)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자유선택			0~34(0~1)	0~34(0~1)	0~34(0~1)
	계			1,088~1,122(32~33)	1,088~1,156(32~34)	1,088~1,156(32~34)
특별활동				68~(2~)	68~(2~)	68~(2~)
총계				1,156~1,190~(34~35)~	1,156~1,224~(34~36)~	1,156~1,224~(34~36)~

〈表 三〉 高等學校 敎育課程 運營

고등학교단위 배당기준

교과	과목	보통교과				전문교과
		공통필수	일반계고교 선택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실업계 및 기타계열 고교 선택	실업계 및 기타계열 고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교직업 과정 선택
			인문·사회 과정	자연과정		
국민윤리	국민윤리	6				농업에 관한 교과
국어	국어(Ⅰ, Ⅱ)	14~16	14~18	8~10	3~8	공업에 관한 교과
국사	국사	6(4)				상업에 관한 교과
사회	사회(Ⅰ, Ⅱ)	4~6(2~6)	4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지리(Ⅰ, Ⅱ)	4-6(2~6)	4		택 1 2~6	가사 실업에 관한 교과
	세계사	2(2)	2			기타 계열에 관한 교과
수학	수학(Ⅰ, Ⅱ)	8~14	6~8	10~18	4~18	
과학	물리(Ⅰ, Ⅱ)	4~6		4	택 1~2 4~12	
	화학(Ⅰ, Ⅱ)	4~6		4		
	생물(Ⅰ, Ⅱ)	4~6		4		
	지구과학(Ⅰ, Ⅱ)	4~6		4		
체육	체육	6~8	8~10	8~10	4~8	
교련	교련	12				
음악	음악	4~6	택 1 4~6	택 1 4~6	택 1 2~6	
미술	미술	4~6				
한문	한문(Ⅰ, Ⅱ)		8~14	4~6	4~6	
외국어	영어(Ⅰ, Ⅱ)	6~8	14~16	14~16	6~16	
	독일어		택 1 10~12	택 1 10~12	택 1 6~10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실업·가정	산업기술		택 1 8~10	택 1 8~10	택 1 4~8	
	가정					
	농업		택 1 8~10	택 1 8~10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자유선택			0~8	0~8	0~8	
이수 단위 소계		88~102 *(72~84)	90~116	90~116	10~38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52~106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82~122
이수 단위 합계		192~204				
특별활동		12~				
총계		204~216				

2) 教育課程 運營 關聯活動

1986年의 廣州郡의 教育課程 關聯 教育施策別 具現重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2]

具現重点	推進 事業
1. 目標學力의 達城	1) 基礎學力의 定着 ○ 學校 實情에 맞는 學力向上計劃 ○ 한글 구구 미해득자 일소 ○ 基礎學力 診斷 ○ 學力 評價實施 2) 自律學習 能力 伸張 ○ 個人別 成就目標 設定 ○ 學習方法의 學習 訓鍊 ○ 週間學習案內 ○ 能力別 單元別 自律學習課題 ○ 讀書課題提示 ○ 自律學習時間 設定 運營 ○ 體暇中 共同課題 부여 3) 教授－學習方法 改善 ○ 教育課程 研修 ○ 教材研究時間 設定 運營 ○ 發刊板書要領研修 ○ 實用授業案作成活用 ○ 教科先導學校運營 ○ 教科示範學級 및 研究示範學校運營 ○ 教授－學習資料의 開發 ○ 奬學資料 및 教育情報提共 ○ 教科改善 및 教科教育研究會 運營 4) 目標指向的 學力評價實施 ○ 評價基準尺度作成活用 ○ 學年別 教科別 共同出題 ○ 段階別評價實施 ○ 主觀式評價擴大 ○ 學業成績管理徹底

42) 廣州郡 教育廳,《教育計劃》 1986. pp. 18－20

2. 特別活動의 活性化	1) 特別活動 運營의 正常化 ○ 特別活動時間確保 ○ 클럽活動常設運營 ○ 教師1特技伸張 ○ 自律的學級會 및 學生會 運營 ○ 1校 1特色 特活運營 2) 發表力 伸張 機會擴大 ○ 讀書 및 글짓기 時間設定 運營 ○ 學藝發表會 ○ 讀書 글짓기 發表會 ○ 말하기 및 雄辯大會 ○ 音樂·美術實技大會 3) 生活英語 教育強化 ○ 英語 特別班 運營 ○ 英語 말하기 大會 ○ 英語 學力章制 ○ My country 活用 ○ 英語研究 協議會 運營 ○ 外國人초빙 英語教師研修 ○ 1日 生活英語 活用 ○ 錄音및 VTR資料活用 4) 健全歌謠 協同놀이 普及 ○ 건전가요 및 의식노래 적극지도 ○ 協同놀이 開發普及
3. 保健體育教育의 正常化	1) 保健衛生의 生活化 ○ 양호실 확충 정비 ○ 年中 溫水 共給 ○ 水洗式 便所使用指導 ○ 給食學校指導 ○ 養護教師 순회지도 ○ 井戶水 檢査 ○ 多種 病理檢査 ○ 學校 環境 衛生淨化管理 2) 體育教育의 充實 ○ 教育課程領域別 時間配當基準이행 ○ 體育施設教具整備 및 擴充

	○ 教師實技研修 ○ 選手缺員授業補充 ○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책임지도 ○ 種目別評價戰 ○ 冬夏季強化訓練 ○ 體育振興 管理委員會 組織運營 ○ 少年體典 上位圈入賞指導 ○ 88올림픽 對備 競技力向上指導
4. 科學教育環境造成 및 施設整備	1) 科學코너 및 教材園設置 ○ 動植物 教材園 ○ 物理實驗場 ○ 岩石園 및 氣象台 2) 海洋探究教育充實 ○ 海洋探究實驗案內書 活用 ○ 海洋探究코너 補完 ○ 海洋圖書 읽기 指導 3) 實驗實習施設 擴充 ○ 科學資料室 整備 및 資料確保 ○ 유휴교실 科學室로의 改造 4) 科學機教材 確保 ○ 科學機教材擴保
5. 實驗中心授業強化	1) 特別活動 科學班 組職運營 ○ 科學클럽 組織運營(國校) ○ 科學班 組織運營(中校) 2) 科學先導班 組織運營 ○ 科學先導班 ○ 컴퓨터 先導班 3) 科學示範學校 指定運營
6. 科學指導教師研修	1) 科學實驗要員研修 ○自然科 實驗要員研修 ○ 科學동산 指導教師研修 2) 自然科 一般研修 3) 컴퓨터 研修
7. 郡教科資料室運營	1) 郡 科學資料室 擴充 2) 郡科學資料室 活用徹底 ○ 資料目錄 印刷配付

	○ 科學先導實驗室開放 ○ 學校放送資料(VTR) 복사보급
8. 奬學指導方法의 改善	1) 授業中心의 奬學指導 ○ 地區別奬學協議會運營 ○ 同學年 및 教科協議會運營 ○ 教科先導學校 指定運營 ○ 研究示範學校指定運營 2) 教育情報 및 奬學資料의 案內 ○ 專門職協議會運營 ○ 教育情報 資料 수시支援 ○ 教育改善 및 教科教育研究會 運營 3) 奬學計劃 推進評價

5. 廣州教育의 奬學行政

第5共和國에서의 廣州教育의 奬學行政은 授業中心의 奬學이라는 特性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第5共和國 末期의 廣州教育에 있어서의 奬學行政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3]

1. 基本方向

1) 目的

○ 學力向上을 위한 現場教育力의 強化

○ 現場問題解決 및 教育改善策 講究

○ 教育施策 및 教育計劃 推進狀況 確認指導

2) 基本方針

○ 奬學人力 構造의 合理化로 奬學機能의 效率化 圖謀

○ 奬學指導의 專門性과 具體性 提高

○ 學習指導 成果 提高를 위한 授業奬學指導 強化

3) 奬學指導의 類型

(1) 一般奬學

○ 教壇教師 中心의 對話奬學實施

○ 教育情報의 수집과 問題의 豫防指導

○ 教育活動 推進實績 파악 및 指導

○ 기타 奬學의 必要時 現場指導

(2) 特殊奬學

○ 特殊 目的 遂行을 위한 特別指導 確認

43) 廣州教育廳,《教育計劃》, 1987.

(3) 通信奬學

○ 通信手段에 의한 수시 지도

(4) 綜合奬學

○ 學校教育計劃 推進狀況 및 指導 助長

○ 各級 學校 教育活動 전반의 綜合的 指導 助長

○ 綜合奬學指導 是正 補完事項의 確認指導

○ 優秀教育活動의 事例發掘 및 一般化

4) 推進方向

(1) 授業中心의 奬學指導

(2) 現場教育發展 및 問題解決 改善에 關한 指導

(3) 自律·創意·責任의 學校 經營 助長

(4) 教育情報의 提供 및 優秀 事例의 普及

(5) 一般奬學指導는 學期別 1回 以上 實施

(6) 綜合奬學指導는 年 1回 實施

(7) 奬學指導 結果 確認奬學 實施

5) 月別 奬學指導 重点

월 \ 항	중　　점	착 안 사 항
3	1. 학습 환경정비	○ 교내서 면학분위기 조성
		○ 학교특색 및 역점사항 추진
	2. 학력향상계획추진	○ 기초학생실태분석 지도계획 수립
		○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개선
	3. 학도애향대운영보완	○ 학도애향대 합리적 운영계획수립
		○ 기본생활 습관및 5대덕목실천
4	1.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개선	○ 실용적 교재 연구록 작성 활용
		○ 준비된 수업하기
	2. 경제교육 철저	○ 근검 절약의 실천지도
		○ 교재원의 계획적 관리
	3. 생활지도 충실	○ 기본생활의 체질화 지도
		○ 사랑의 대화장 활용지도
5	1. 행사교육의 내실	○ 학예행사의 계획적 추진
		○ 체육행사의 충실
	2. 특별활동의 활성화	○ 경로효친교육 철저
		○ 취미 특기 지도 철저
	3. 학력향상의 지속적 추진	○ 수업연구의 충실
		○ 생활영어교육의 철저
6	1. 理念思想教育의 철저	○ 학년수준별 사상교육
		○ 국민정신교육추진 지도

	2. 보건위생습관 지도	○ 보건위생습관 지도 ○ 신체검사 결과활용
7	1. 學徒愛鄕隊운영의 활성화	○ 5大덕목의 생활화 ○ 간부수련 강화
	2. 교원연구 활동조장	○ 현장연구의 지도 ○ 학력관리의 철저
	3. 휴가중 생활계획 사전지도	○ 자율학습및 공동과제 ○ 안전지도및 수련활동
8	1. 직무능력신장	○ 자율적인 현직연수 ○ 교사취미 특기신장
	2. 학교자체평가실시	○ 1학기 교육추진 성과분석 ○ 시설·자료보수 정리
	3. 선수강화운련	○ 선수훈련여건개선및 지도강화
9	1. 교육환경의 정비	○ 학습분위기 조성 ○ 수업준비도 높이기
	2. 기초체력·특기의 지도	○ 교육적인 체육행사계획추진 ○ 영재교육
10	1. 독서작문지도의 충실	○ 도서확충정비 및 독서방법지도 ○ 종합독서발표회
	2. 시범학교지도	○ 시범학교공개지도
	3. 행사교육지도	○ 소풍·수학여행의 교육적지도 ○ 訓話敎育 자료활용 ○ 문화재 애호교육
11	1. 학력의 정착	○ 기초학력 평가관리 ○ 학습부진아지도
	2. 교수-학습 연구개선	○ 계획적인 과제제시 ○ 학습매체의 효율적 활용
	3. 진학지도의 철저	○ 입시교육의 실시 ○ 진학상담
12	1. 휴가중 생활계획 사전지도	○ 자율학습계획 효율화 ○ 안전및 생활지도 충실
	2. 졸업생 진로지도	○ 졸업생특별지도 ○ 교육계획 수립 사전지도
1	1. 자율연수의 철저	○ 교육과정의 연수 ○ 자기연수의 충실
	2. 학교관리의철저	○ 화재방지 ○ 특별실 및 시설물의 보수
2	1. 학년말 정리및 개학준비	○ 학년말 정리 ○ 졸업식 지도 ○ 신학년 개학 준비지도

6. 各級 學校의 敎育硏究 活動

1981年부터 1987年 사이의 廣州郡의 學校硏究로 記述되어야 할 것은 京畿道敎育委員會로부터 指定硏究를 받은 곤지암국민학교의 國語敎育硏究, 西部國民學校의 學習指導硏究, 廣州中學校의 科學敎育硏究, 廣州東中學校의 體育敎育硏究 등이었다.

1) 西部國民學校

(1) 指定區分 : 京畿道敎育委員會指定學習指導 示範學校

(2) 主 題 : 學習方法의 學習訓練을 통한 主體的 學習力 伸張

(3) 硏究內容

① 運營重点

i. 自主的 學習 與件 造成

- ○ 自律學習 분위기 조성
- ○ 참고도서 활용방법 탐색
- ○ 학부모 계도 교육실시

〈결과〉

- · 학교교실이 자율학습의 장이 됨
- · 참고도서 활용에 의한 과제해결
- · 학교 가정 연계 지도 가능

ii. 學習方法의 學習 訓練案 作成 活用

- ○ 學習지도 길잡이 작성 활용
- ○ 학습의 길잡이 작성 및 활용

〈결과〉

- · 학습기능요소에 의한 바른 지도와 학습 실시
- · 학습방법 순서에 의한 과제 해결

iii. 學習課題의 自主的 解決

- ○ 예습과제의 효율적인 부과 방법 탐색

(4) 結論

i. 自主的 學習 與件의 造成을 위한 自律學習 분위기 조성, 參考圖書의 活用方法 探索, 學父母 敎育 活動을 통해 敎室의 兒童이 自律的인 學習을 할 수 있는 學習의 場으로 전환되었고 家庭과 學校의 연계로 兒童의 學力이 向上되었다.

ii. 학습지도 길잡이 작성 활용과 敎科別 學習의 길잡이 作成 活用은 敎師의 立場에서는 敎科學習 技能要素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兒童의 立場에서는 學習方法에 따른 알찬 學習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었다.

iii. 學習課題의 自主的 解決을 위한 豫習課題의 效率的인 부과방법 探索과 豫習課題의 解決을 통해 學習意慾을 왕성하게 하여 主體的 學習力을 培養할 수 있었다.

2) 廣州中學校

(1) 指定區分 : 京畿道敎育委員會 指定 科學敎育 示範學校

(2) 主 題 : 探究學習의 效率化를 위한 觀察活動의 內實化 方案

(3) 研究 內容

① 運營重点

i. 觀察活動의 深化指導를 통한 探究意慾의 진작

○ 탐구 활동 신장을 위한 실험안내서 활용

○ 과학장제 운영의 심화

〈성과〉

· 탐구활동 신장을 위한 실험 안내서 작성으로 탐구 능력 신장

ii. 探究中心의 實驗實習의 여행

○ 탐구학습 모형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활용

○ 실험 평가문항 카드 작성 활용

○ 필수 실험종목 선정운영

○ 과학교사 연수 활동강화

○ 과학 실험 선도교실 운영

○ 과학 행사 교육 충실

〈성과〉

· 풀로우챠트 학습지도안 개발적용

· 필수 실험종목별 실험·평가 문항카드 작성활용

· 과학 행사 교육을 통한 창의력 계발

iii. 實驗實習室을 위한 施設設備 및 環境의 內實化

○ 科學實驗室 移轉 整備(정비)活用

○ 教材教具의 整備 및 確保

〈성과〉

· 科學室 確保 및 多目的 실험대 設置

(4) 結論

i. 生物에 대한 觀察活動의 深化 指導로 觀察能力의 伸張과 資料의 수집 處理 能力이 向上되었다.

ii. 探究學習模型 教授·學習 指導案의 作成 活用으로 效率的인 學習指導를 이루게 되었다.

iii. 教師의 事前 實驗活動으로 實驗時間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으며 探究學習에 대한 教師의 指導 體系가 確立되었다.

iv. 科學實驗 先導教室의 運營 철저로 實驗活動時 先導的 役割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실험 효과가 거양되었다.

v. 科學班 運營의 活性化를 통한 각종 科學教育行事의 철저로 科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재능의 早期 發見에 도움을 주었다.

vi. 實驗室 및 實驗設備의 擴充 整備로 學習與件이 改善되고 活用이 극대화되었다.

7. 第5共和國에서의 廣州敎育機關

第5共和國에서의 廣州敎育機關으로 中等敎育機關이 많이 增設되었다.

특히 公立學校로는 國民學校가 1個校, 中學校 2個校가 開校되었고 私立學校로 高等學校 2個校가 開校되었다.

1) 新設 敎育機關 現況

新設 敎育機關으로는 新長國民學校, 廣一中學校, 東部女子中學校, 正允高等學校 등이 1979年부터 1987年 사이에 增設되었다.

〈表 一〉 新設 國民學校 狀況

1987. 12. 31 현재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新長國民學校	1983. 9. 1	東部面新長里 422	金 麒 年

資料 : 庚寅要覽, 1987.

〈表 二〉 新設 中學校 狀況

1987. 12. 31 현재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廣一中學校	1981. 4. 23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241	최 기 영
東部女子中學校	1982. 3. 4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 458	이 상 득

資料 : 京仁敎育要覽, 1987.

〈表 三〉 新設 中學校 狀況

1987. 12. 31 현재

校 名	設立年月日	所 在 地	初代校長
正允高等學校	1979. 11. 21	광주군 동부읍 망월리 778-1	권 태 기

資料 : 京仁敎育要覽, 1987.

2) 廣州敎育機關 現況

제85共和國 末期인 1987年 廣州敎育機關은 國民學校 24개교(분교5) 학급수 378학급 학생수 15,994名이며 中學校 公立 7個校, 私立 1個校에 學級數 104學級, 學生數 5,644名이다. 高等學校 現況은 公立 3個校, 私立 2個校에 89學級으로 學生數는 5,011名이며 特殊學校 私立 1個校, 6學級에 學生數 72名이다.

〈表 一〉 幼稚園 狀況

1987. 3. 1 현재

公 立	私 立	學 級 數	園 兒 數	備 考
23	7	47	1,570名	

資料：京仁敎育要覽, 1987.

〈表 二〉 國民學校 現況

1987. 3. 1 현재

學校數	學級數	學 生 數			敎室數	敎員數	備考
		計	男	女			
24(5)	378	15,994			312	421	

資料：京仁敎育要覽, 1987.

〈表 三〉 中學校 狀況

1987. 3. 1 현재

區分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敎 員 數	備 考
			計	1	2	3		
公立	6	82	4615	1602	1552	1461	123	
私立	1	16	981	348	307	326	22	
計	7	98	5,596	1,950	1,859	1,787	145	

資料：京仁敎育要覽, 1987.

〈表 四〉 高等學校 狀況

1987. 3. 1 현재

區分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敎 員 數	備 考
			計	1	2	3		
公立	3	45	2465	866	838	761	89	
私立	2	42	2066	735	697	388	57	
計	5	87	4,531	1,601	1,535	1,149	146	

資料：京仁敎育要覽, 1987.

〈表 五〉 高等公民學校 狀況

1987. 3. 1 현재

校 名	開校年月日	校 長	학 생 수		학 생 수			備考
			인 간	편 성	계	남	여	
東西高等公民學校	1967. 3. 2	李 載 賢	3	3	49	20	29	

資料：京仁敎育要覽, 1987.

〈表 六〉 特殊學校 狀況

1987. 3. 1 현재

校 名	開校年月日	校 長	학생수		학생수			備考
			인 간	편 성	계	남	여	
聖 光 學 校	1985. 3. 7	黃 義 京	초12	1	17	-	-	교원수 : 4

資料 : 京仁教育要覽 : 1987.

3) 教育機關 一覽

(1) 幼稚園

① 公立幼稚園

1987. 3. 1 현재

유치원명	소재지	원장명	자격별	개원년월일	교사수	학급수	원아수	전화번호
광주		한준택	국교장	1963. 3. 1	2	2	80	2-2029
광남	광주읍 중대리 19	서정하	국교장	1986. 3. 1	1	1	66	2-2258
오포	오포면 추자리 500	전종백	국교장	1981. 3. 1	1	1	39	62-4010
광명	오포면 신현리	박경남	국교장	1985. 3. 1	1	1	31	44-2217
매곡	오포면 양벌리	서병길	국교장	1984. 3. 1	1	1	17	62-4146
초월	초월면 신월리	경돈수	국교장	1981. 3. 1	1	1	44	2-4480
선동	초월면 선동리 273	임상학	국교장	1982. 3. 1	1	1	33	62-4479
도곡	초월면 쌍동리	정순섭	국교장	1982. 3. 1	1	1	30	2-4461
도척	도척면 노곡리 223	하완용	국교장	1982. 3. 1	1	1	29	62-5020
곤지암	실촌면 곤지암리	김낙용	국교장	1982. 3. 1	2	2	40	62-6014
만선	실촌면 만선리 8	이만종	국교장	1982. 3. 1	1	1	39	62-6800
도수	퇴촌면 도수리 609	안동희	국교장	1981. 3. 1	1	1	40	2-6076
분원	남종면 분원리 116	이구현	국교장	1982. 3. 1	1	1	20	62-9025
검천	남종면 검천리 114	김창해	국교장	1983. 3. 1	1	1	10	62-9063
남한산	중부면 산성리 373	이용무	국교장	1986. 3. 1	1	1	17	43-6550
광지원	중부면 광지원리	정달영	국교장	1982. 3. 1	1	1	12	2-5424
번천	중부면 상번천리 537	최용준	국교장	1986. 3. 1	1	1	6	2-2961
동부	동부읍 덕풍리	정의모	국교장	1986. 3. 1	1	1	40	4-2006
신장	동부읍 신장리 422	김기년	국교장	1986. 3. 1	1	1	40	4-4392
망월	동부읍 망월리	조완제	국교장	1981. 3. 1	2	2	50	4-2158
산곡	동부읍 하산곡리	이성재	국교장	1981. 3. 1	2	2	32	4-2091
서부	서부면 감일리 11	안중훈	국교장	1983. 3. 1	2	2	43	485-0005
고골	서부면 하사창리 263	방대련	국교장	1981. 3. 1	1	1	21	4-2195

② 私立 幼稚園

1987. 3. 1 현재

유치원명	소재지	원장명	자격별	개원년월일	교사수	학급수	원아수	전화번호
광주	광주읍 경안리 62	방효천	무	1963. 12. 20	4	3	100	2-4802
성모	광주읍 경안리 94	최은자	유치원장	1981. 11. 24	3	3	71	2-4314
계명	동부읍 덕풍리 419	정순희	유치원장	1972. 1. 1	5	5	180	4-2645
선린	동부읍 천현리 62	정휘탁	무	1981. 4. 23	1	1	43	63-6394
중앙	동부읍 덕풍리 414	김무환	무	1982. 5. 22	2	2	88	63-6392
천광	동부읍 덕풍리 316	엄금숙	유1정	1983. 1. 19	2	2	80	63-6410
무궁화	동부읍 신장리	조한구	국1정	1986. 3. 1	2	2	70	63-0210

(2) 國民學校

1987. 3. 1 현재

학교명	개교년월일	소재지	학교장	학급수	학생수	교실수	교원수	전화번호
廣 州	1918. 4.15	광주읍 경안리 36	韓俊澤	44	2,481	32	48	2-2089
(木 峴)	1973. 3. 2	광주읍 목현리 419		3	48	3	3	2-4397
廣 南	1954. 4. 6	광주읍 중대리 19-4	徐鼎河	12	471	12	14	2-2258
五 浦	1935.10.23	오포면 추자리 500	全鍾佰	7	276	7	10(1)	오포 10
廣 明	1961. 4. 3	오포면 신현리 365	朴炅南	6	256	6	8	성남 44-2217
梅 谷	1938. 3. 2	오포면 양벌리 558	安重勳	9	353	9	11	오포146
草 月	1931. 7. 8	초월면 신월리 455	慶敦秀	10	348	10	13(1)	2-4480
仙 東	1967. 3. 1	초월면 선동리 274	郭儀信	6	106	6	9(1)	2-4479
道 谷	1956. 4. 2	초월면 쌍동1리 182	鄭舜燮	8	308	8	10	2-4461
都 尺	1931. 3. 3	도척면 노곡리 222	河完容	11	381	11	13	도척 20
陶 宮	1971. 3. 1	도척면 도웅리 125	安來鉉	6	170	6	8	도척 141
昆池岩	1924. 3. 1	실촌면 곤지암리 453-2	金洛容	19	700	18	22(1)	곤지암 14
晩 仙	1947. 5.10	실촌면 만선리 8-4	李萬鍾	7	273	7	10(1)	2-6800
(鳳 峴)	1967. 3. 8	실촌면 봉헌리 303		5	79	5	5	2-6808
陶 水	1934.12. 5	퇴촌면 도수리 609	安同熙	11	369	11	14(1)	2-6078
(牛 山)	1967. 3. 1	퇴촌면 우산리 228		3	38	3	3	2-6186
分 院	1941. 4. 1	남종면 분원리 116	鄭達永	6	127	6	9(1)	남종 25
(三 成)	1978. 3. 1	남종면 삼성리 347		4	56	4	4	2-6184
俊 川	1961. 3.16	남종면 검천리 114	金昌海	6	103	6	9(1)	남종 63
南漢山	1912. 1.25	중부면 산성리 378	金泳龍	6	97	6	8	성남 43-6550
光池院	1945. 3. 31	중부면 광지원리 209	權寧贊	6	130	6	9(1)	2-5224
樊 川	1967. 3. 4	중부면 상번천리 537	崔龍俊	6	148	6	8	2-2961
東 部	1934. 4. 1	동부읍 덕풍리 427	鄭義謀	56	3,106	40	60	4-2006
(拜 謁)	1949. 9. 3	동부읍 배알미리 4		2	14	2	2	4-4750
新 長	1983. 9. 1	동부읍 신장리 422	金麒年	30	1,675	23	33	4-3492
望 月	1960. 4. 1	동부읍 망월1리 127	趙完濟	19	756	17	23(1)	4-2158
山 谷	1948. 5. 1	동부읍 하산곡리 산35	李星材	12	419	12	17(2)	4-2091
西 部	1936. 3.20	서부면 감일리 12	朴英奎	19	856	18	24(2)	서울485-0000
고 골	1949. 7.20	서부면 하사창리 263	方大連	12	386	12	14	4-2195
計24(5)校				351	14,530	312	421(14)	( )는 병설유치원 전임교사도포함

(3) 中學校

1987. 3. 1 현재

廣州郡	廣州中	1946. 1.26	광주읍 경안리 45	宋榮晋	338	373	344	1,055	25	광주 2-2256
(공립)	南漢中	1960. 2.10	동부읍 덕풍리 450	李鍾福	417	390	348	1,155	30	광주 4-2024
	廣州東中	1955. 4.27	실촌면 곤지암리 453	李完植	219	222	234	675	19	곤지암 34
	廣一中	1981. 3. 1	도척면 노곡리 241	金貞來	62	81	86	229	10	도척 34
	廣水中	1967. 4. 1	퇴촌면 도수리 587	李鍾福	104	119	123	346	11	광주 2-6101
	東部女中	1981.11.26	동부읍 덕풍리 458	李相得	462	367	326	1,155	28	광주 4-4956
	6校				1,602	1,552	1,461	4,615	123	
(사립)	京花女中	1975. 6. 1	광주읍 송정리 51	朴承德	348	307	326	981	22	광주 2-4121~5
	1校				348	307	326	981	22	

(4) 高等學校

1987. 3. 1 현재

廣州郡 (公立)	廣州綜高	광주읍 역리 145	金潤植	보통·농업·축산·원예·농기계		341	329	297	967	38	광주2-2484
	廣州商高	실촌면 곤지암리 453	李完植		9	174	171	154	499	18	곤지암 40
	南漢高	동부읍 덕풍리 450	金正道	1	18	351	338	310	999	33	광주2-2707
	3校			7	27	866	838	761	2,465	89	
(私立)	京花女商高	광주읍 송정리 52	朴承德	1	18	341	355	346	1,042	33	광주2-4121
	正允高	동부읍 망월리 778	金祈烈	1	20	406	370	347	1,123	28	광주4-2665
	2校			2	37	735	697	634	2,066	57	

(5) 私設 學園

1987. 3. 1 현재

계열	학원명	소재지	원장명	설립년월일	강사수	원생총수	전화번호
예능	은정음악학원	광주읍 경안리 74-8	이은관	1984.12.15	2	85	2-5538
	성음음악학원	동부읍 신장리 427-288	노귀남	1984.12.15	1	65	63-7782
	은혜음악학원	동부읍 덕풍리 373-9	이순일	1985. 7.20	2	45	4-4859
	개나리미술학원	동부읍 신장리 430-22	안영희	1985. 2.15	2	90	4-2130
	성심미술학원	동부읍 덕풍리 372-19	김태순	1985. 5.20	2	90	63-6991
	샬롬미술학원	광주읍 경안리 38-84	송열월	1985. 8.31	1	60	2-2328
	덮미술학원	동부읍 덕풍리 309-117	복현순	1986. 3. 6	1	60	63-7465
	진선미술학원	동부읍 덕풍6리 431-15	전철홍	1986. 7.19	1	40	4-4097
	샛별미술학원	동부읍 덕풍리 427	이상근	1977. 7. 5	2	90	4-3023
	무지개미술학원	동부읍 덕풍리 380	이병금	1982. 2. 8	1	96	4-3088

계열	학원명	소재지	원장명	설립년월일	강사수	원생총수	전화번호
	나비미술학원	광주읍 경안리 67－29	경기복	1983. 8. 9	1	90	2-4327
	청원미술서예학원	동부읍 덕풍리 459－12	신정순	1983.11.30	2	90	4-3388
	동부미술학원	동부읍 신장리 432－7	정순모	1983.12.23	3	120	63-8920
	세종미술학원	광주읍 경안리 103－23	지혜숙	1984. 2.15	1	120	
	아름미술학원	동부읍 신장리 437－4	강숙임	1984. 9. 5	1	90	4-2360
	란무용학원	동부읍 덕풍리 418－1	조성애	1986.11. 3	1	60	63-1218
체육	신장유도장	동부읍 신장리 415－4	안우경	1987. 1. 5	1	80	63-8585
	만유육체미체육도장	동부읍 덕풍리 459－12	박종운	1985.12.18	1	60	63-7437
	중앙체육도장	광주읍 경안리 33－10	정진근	1985. 7.25	3	180	2-5378
	경기체육도장	동부읍 덕풍리 326－4	송두종	1985. 2.27	1	140	63-6991
	신장체육도장	동부읍 신장리 430－7	조인숙	1982. 9. 1	3	180	4-2880
	동부유도장	동부읍 풍산1리 190－2	이명만	1981. 2. 8	1	120	4-2329
문리	영락여자신학원	중부면 산성리 667	박조준	1975. 6.20	10	120	43-6537
	대성학원	광주읍 역리 40－20	임병규	1987. 2. 2	16	160	
	등용문학원	광주읍 경안리 81－4	박차준	1987. 2.10	11	90	
독서실	동부독서실	동부읍 덕풍리 419－22	김병렬	1984. 1.21	1	50	4-4471
	임마누엘독서실	동부읍 신장리 430－99	송승철	1984.11.17	1	63	63-7818
	청운독서실	광주읍 덕풍리 412－19	이하용	1985. 7. 6	1	57	63-6220
사무	세종주산부기학원	광주읍 경안리 103－23	조병학	1977. 4. 1	2	200	2-2710
	동부타자주산부기학원	동부읍 덕풍리 460－12	옥광훈	1978. 7.14	4	520	4-3156
	곤지암주산부기경리학원	실촌면 곤지암리 445－2	김정윤	1980. 7. 8	1	200	62-0316
	동산주산학원	동부읍 신장리 432－12	이영길	1983. 4.15	1	160	4-3189
	고려주산부기학원	광주읍 경안리 419－14	한우기	1983. 4.15	3	200	2-3364
	신장주산부기학원	동부읍 신장리 427－279	한기복	1984. 5.31	2	160	4-4093
	천일주산학원	동부읍 덕풍리 379－6	이용천	1985. 5.20	1	120	2-5124
	동부웅변학원	동부읍 덕풍리 418－9	이윤식	1984. 9. 5	2	60	4-2378
	광주속셈학원	동부읍 덕풍리 372－4	이시형	1985. 7.25	2	120	63-7743
	경기주산부기학원	동부읍 신장리 446－18	이용환	1986. 6.16	1	110	
	현대주산부기학원	동부읍 덕풍리 324	함성식	1986. 7.21	2	140	4-2470
	서울주산부기학원	광주읍 역리 23－16	임헌종	1986.12.19	1	150	62-1143
	신곡속셈학원	동부읍 신장리 427－127	유병승	1987. 1.28	2	45	4-4786
예능	신장음악학원	동부읍 덕풍리 419－34	신안태	1977. 5. 9	2	105	4-3707
	경안음악학원	광주읍 경안리 36－3	지윤숙	1984.10.24	1	65	2-4346

4) 廣州郡 敎育廳 組織

1987. 3. 1 현재

敎育長 趙成胤(金東燦)

學務課長 吳熙喆

初等敎育係長 金萬應 管理課長 吳錫炫 奬 學 士 李淑熙 庶務係長 金鍾律

奬 學 士 李俊永 管理係長 安聖老 中等敎育係長 柳光浩 經理係長 鄭弘載

奬 學 士 李學雄 施設係長 李元雨 社會體育係長 朴尙鎬

8. 1987年度 各級 學校의 敎育

1987年 廣州敎育 指標는 「바른 정신·알찬 실력 ·참된 생활」이었으며 이의 具現을 위한 敎育時策은 ① 國民精神敎育의 徹底 ② 基礎敎育의 充實 ③ 科學技術敎育의 內實 ④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⑤ 敎室中心의 支援強化이었다.

이런한 敎育時策을 바탕으로 各級學校에서 展開한 敎育活動은 다음과 같다.

1) 國民學校의 敎育活動

(1) 檢川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남종면 검천리 114
- 開校年月日 : 1961年 3月 16日
- 校長 : 金昌海
- 學生數 : 81명
- 敎職員數 : 9명
- 敎育目標
  - ① 나라의 주인으로 참되게 사는 어린이
  - ② 잘 살피고 탐구하여 슬기롭게 사는 어린이
  - ③ 땀흘려 일하며 분수에 맞게 사는 어린이
  - ④ 재주를 살려서 즐겁게 사는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 ① 실험실습 교육 충실
  - ② 기초 학력 신장

(2) 廣南國民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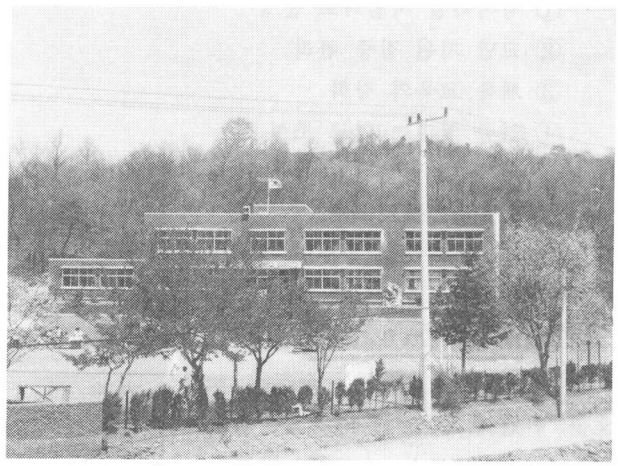
- 所在地 : 광주군 광주읍 중대1리 19
- 開校年月日 : 1955年 4月 6日
- 校長 : 徐鼎河

역대교장 : 김정연, 이은구, 강도희, 이용무, 김창호, 이병태, 경태현, 김학원, 임상학, 김영찬,



○ 學生數 : 523명
○ 教職員數 : 19명
○ 教育目標
① 나라의 고마움을 알고 내 할 일을 내가 하는 어린이
② 열심히 공부하며 슬기롭게 사는 어린이
③ 탐구하는 태도로 새롭게 생각하는 어린이
④ 일하며 서로 도와 알뜰하게 사는 어린이
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학생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 연수—ⓐ 개인 연수 ⓑ 집단 연수 ⓒ 직무 연수
② 실외 환경의 공원화 및 교재원화 추진—ⓐ 무궁화 동산 및 생울타리조성 ⓑ 사철 꽃피는 학교 조성 ⓒ 종합 관찰원 조성
③ 독서지도—ⓐ 도서 200권 확보 ⓑ 학생 1인당 월 2권 이상 읽기 ⓒ 독서장제 실시

(3) 廣明國民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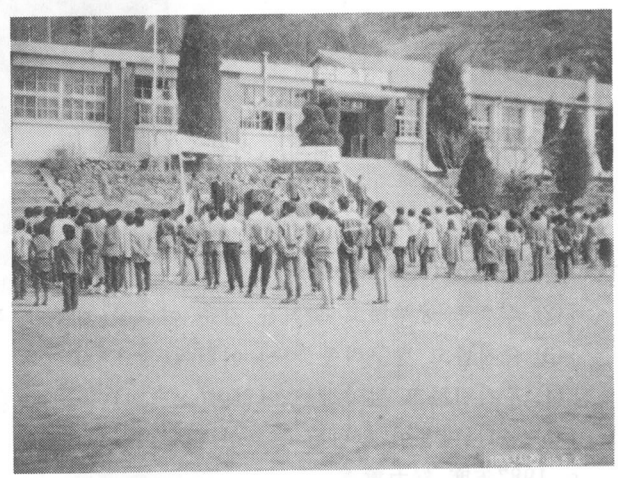
○ 所在地 :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365
○ 開校年月日 : 1961年 4月 3日
○ 校長 : 朴炅南
○ 學生數 : 271명
○ 教職員數 : 10명
○ 教育目標
역대교장 : 김정락, 한하택, 김창호, 이천의, 장현수, 구철회, 이봉구, 한준택
① 나라를 사랑하고 예절을 지키는 어린이(애국인, 도덕인)
②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을 갖춘 어린이(자주인, 능력인)
③ 슬기롭고 탐구력을 지닌 어린이(창조인)
④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어린이(경제인)
⑤ 몸과 마음이 단련된 튼튼한 어린이(건강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국민 정신 교육 9대 덕목의 내면화

② 사랑의 방송(명상의 시간)시간 운영
③ 학교 학력 성취목표 완성
④ 실험중심의 연구학습
⑤ 광명 기본생활 훈련안의 체질화
⑥ 학도 애향대 활동의 정착
⑦ 공부하는 스승상 실천
⑧ 학교장 중심의 선진학교 운영

(4) 廣州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광주읍 경안4리 36
○ 開校年月日 : 1918年 11月 15日
○ 校長 : 韓俊澤
○ 學生數 : 2875명
○ 教職員數 : 62명
○ 教育目標
① 바른 정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어린이
②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며 실력 쌓는 어린이
③ 성실하고 질서있게 참된 생활하는 어린이
④ 강인한 의지와 체력을 갖춘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영어특활 시범학교 운영
② 교단 지원 집중 관리
③ 체육 교육의 강화
④ 연중 꽃피는 학교 조성

(5) 光池院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 開校年月日 : 1945年 3月 31日
○ 校長 : 鄭達永

역대교장 : 鄭熙秀, 金泰鎔, 韓文奎, 朴冠緖, 洪秉億, 沈泰燮, 金南孫, 崔東根, 權炳九, 金元錫, 崔利晙, 崔炳悅, 崔 榮. 李鍾億, 梁四成, 安性遠, 趙完濟, 權寧찬

○ 學生數 : 101명
○ 教職員數 : 11명
○ 教育目標
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다지는 어린이(건강인)

② 사물의 아름다움을 찾고 가꾸는 어린이(심미인)
③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는 어린이(능력인)
④ 정직하며 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도덕인)
⑤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어린이(자주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목표학력 80%이상 달성—ⓐ 협동 학습 조직체 운영(마을, 학급) ⓑ 전일제 학습 이행 ⓒ 주관식 교육 평가 적용

② 표현 및 발표 기회 확대—ⓐ 1인1악기 다루기 지도 ⓑ 5대 전시회 개최 ⓒ 발표조회 운영

③ 자주적 생활 운영—ⓐ 기본생활 습관지도 ⓑ 역할 분담 활동 지도 ⓒ 1주 반장제 운영

(6) 고골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서부면 하사창리 263
○ 開校年月日 : 1949年 9月 20日
○ 校長 : 方大連
○ 學生數 : 382명
○ 教職員數 : 18명
○ 教育目標

①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자주인)
② 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도덕인)
③ 서로 도우며 부지런한 어린이(심미인)
④ 슬기롭게 탐구하는 어린이(능력인)
⑤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건강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학급 도서실 운영의 충실
② 교과 전담제 운영
③ 시청각 기교재 활용의 최적화

(7) 昆池岩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453
○ 開校年月日 : 1922年 9月 18日
○ 校長 : 金洛容
○ 學生數 : 731명
○ 教職員數 : 24명
○ 教育目標

①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의 인간
②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인간
③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의 인간

④ 질서를 존중하는 도덕적인 인간

⑤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인 인간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개인별 목표학력의 초과 달성

② 참된 생활 다듬기

③ 특별활동 활성화

(8) 南漢山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373

○ 開校年月日 : 1921年 5月 1日

○ 校長 : 李容武

역대교장 : (광복후) 조욱현, 정희수, 전이일, 임상학, 이정희, 이일성, 이시우, 전영하, 신희균. 홍순화, 정영남, 김영룡

○ 學生數 : 80명

○ 教職員數 : 10명

○ 教育目標

① 투철한 국민 정신으로 애국애족하는 어린이(애국, 애족인)

② 스스로 공부하며 실력을 기르는 어린이(유능한 실력인)

③ 깊이 생각하여 생활을 과학화하는 어린이(과학적 생활인)

④ 몸과 마음을 닦아 체력을 기르는 어린이(강인한 체력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소인수 학급의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의 개선 ⓑ 학습지도 과정의 연구 ⓒ 학습지도 협의회 개최

② 독서지도의 효율화-ⓐ 영역별 도서확보(도서 확충 계획) ⓑ 도서장 확충 ⓒ 독서카드 배부 ⓓ 도서위원 선정 및 대여관리 ⓔ 도서실 개방 운영 ⓕ 독서장제 운영

(9) 道谷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초월면 쌍동리 182

○ 開校年月日 : 1956年 4月 2日

○ 校長 : 鄭舜燮

역대교장 : 위종익 · 심의봉 · 허차범 · 정의모 · 김학원 · 이계원 · 박동준 · 임정순

○ 學生數 : 303명

○ 教職員數 : 11명

○ 教育目標

① 국민정신이 투철하고 예의바른 어린이(정신)

② 스스로 탐구하며 창조하는 실력있는 어린이(학력)

③ 바른 마음씨를 다듬는 참된 어린이(심성)

④ 명랑하고 강인한 체력과 기능을 지닌 어린이(체력)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교통도덕 지키기

② 학습장 바로쓰기

⑽ 陶宮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도척면 도웅1리125

○ 開校年月日 : 1974年 3月 2日

○ 校長 : 安來鉉

역대교장 : 김영룡, 임정순, 박경선, 최용준

○ 學生數 : 182명

○ 教職員數 : 10명

○ 教育目標

① 몸이 튼튼한 어린이

② 마음씨 고운 어린이

③ 생각하며 공부하는 어린이

④ 예절바른 어린이

⑤ 나라의 고마움을 아는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도궁 어린이 자기 관리 일기장 발간 활용

② 전교생 1인 2악기 연주 기능 연마

③ 1학급 1특색 교육 실천

④ 과학 산수 클럽 조직 운영

⑤ 교과별 학습 방법에 의한 학습지도 실천

⑾ 陶水國民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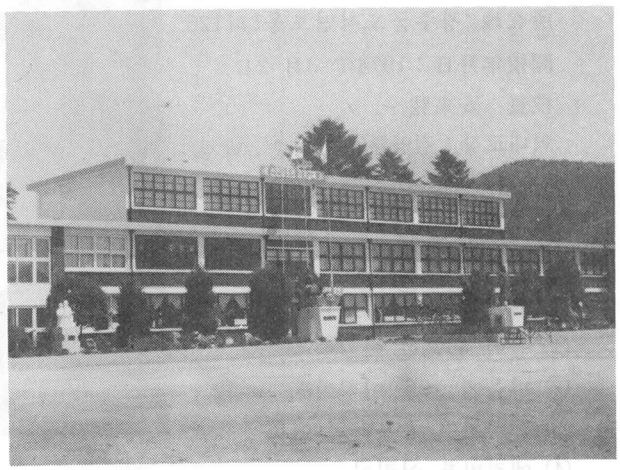
○ 所在地 : 광주군 퇴촌면 도수1리

○ 開校年月日 : 1935年 10月 2日

○ 校長 : 安同熙

○ 學生數 : 336명
○ 教職員數 : 21명
○ 教育目標
① 나라를 사랑하고 예절바른 어린이
②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있는 어린이
③ 근검절약하고 자주적인 어린이
④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린이
⑤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지닌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학력 신장
② 학교 환경의 공원화
③ 글짓기 능력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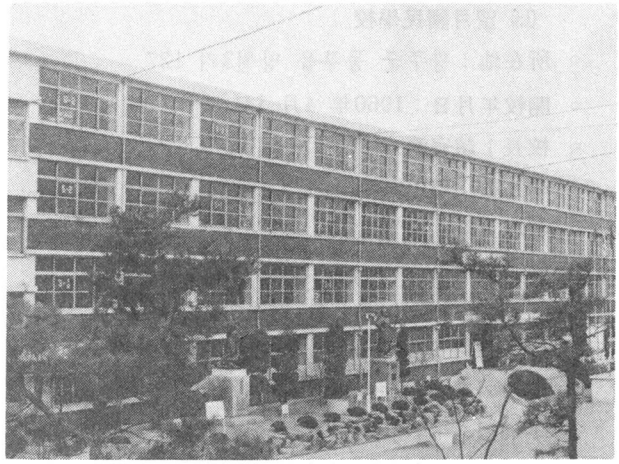
⑿ 都尺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223
○ 開校年月日 : 1931年 7月 10日
○ 校長 : 河完容
역대교장 : 김련성 · 이완성 · 황인성 · 오현옥 · 염도순 · 김명희 · 이용명 · 임상학 · 안성원 · 쇠순광 · 이현상 · 문경윤 · 김창훈 · 정의효
○ 學生數 : 351명
○ 教職員數 : 16명
○ 教育目標
① 나라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린이(도덕인, 애국인)
②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건강인)
③ 스스로 공부하며 실천하는 어린이(능력인)
④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는 어린이(과학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기초교육의 충실—ⓐ 자율학습의 습관화 ⓑ 학력 정착 책임제
② 국민정신 교육 강화—ⓐ 국민정신 교육 9대 덕목 실천 ⓑ 통일안보 교육강화 ⓒ 기본 예절 생활의 실천(인사 잘하기, 고운말 쓰기, 차례 지키기)
③ 교직원 현직 연수 철저—ⓐ 실험 실기 연수 ⓑ 교직 교양 연수

⒀ 東部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 427



○ 開校年月日 : 1934年 4月 1日

○ 校長 : 鄭義謀

역대교장 : (광복후) 안동주, 구자승, 조효범, 김성옥, 정인철, 이기두, 남상익, 조남성, 유광식, 이기관, 유광식

○ 學生數 : 3463명

○ 教職員數 : 78명

○ 教育目標

① 나의 긍지를 알며 애국하는 어린이

② 생각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③ 자율과 질서를 생활화하는 어린이

④ 심신이 아름다운 강인한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자율 정신 교육의 철저

② 목표 학력의 달성

③ 과학 시범학교 운영 특별활동 강화

④ 학도 애향대 활동의 활성화

⑤ 꿈나무 육성

⑭ 晩仙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실촌면 만선리 8-4

○ 開校年月日 : 1948年 5月 10日

○ 校長 : 李萬鍾

○ 學生數 : 330명

○ 教職員數 : 18명

○ 教育目標

① 효행에 힘쓰는 어린이

② 생각하며 공부하는 어린이

③ 성실하게 생활하는 어린이

④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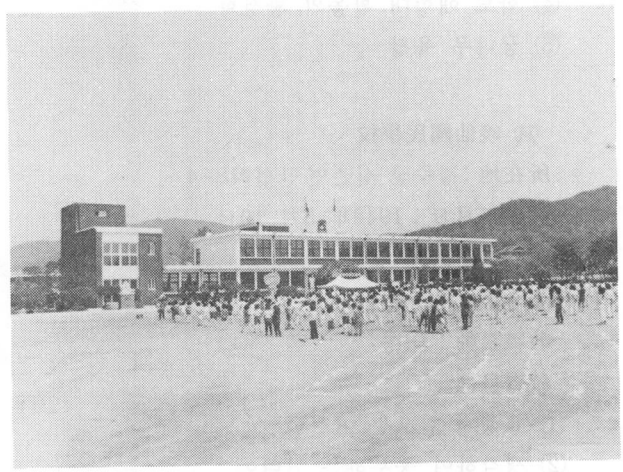
① 목표 학력의 78% 성취

② 장거리 달리기 선수 발굴 육성

⑮ 望月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망월3리 127
○ 開校年月日 : 1960年 4月 1日
○ 校長 : 趙完濟
○ 學生數 : 710명
○ 教職員數 : 24명
○ 教育目標
①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건강인)
② 아름다움을 찾고 가꾸는 어린이(심미인)
③ 슬기롭게 실천하는 어린이(능력인)
④ 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도덕인)
⑤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어린이(자주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건강 생활을 다듬는다.
② 정서 생활을 다듬는다.
③ 교수-학습을 다듬는다.
④ 경로 효친 생활을 다듬는다.
⑤ 국민 정신을 다듬는다.

⑯ 梅谷國民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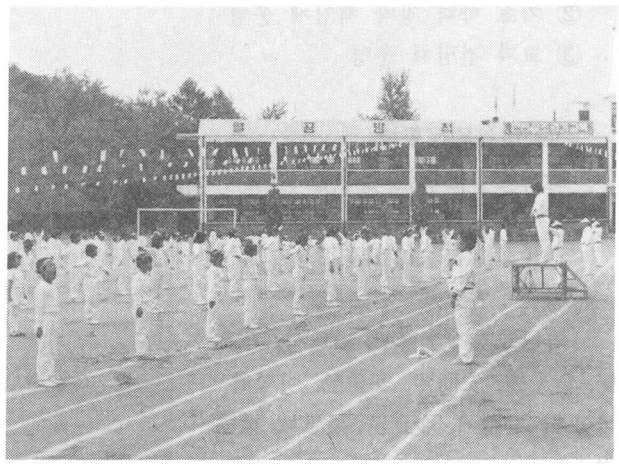


○ 所在地 :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557-1
○ 開校年月日 : 1938年 7月 10日
○ 校長 : 徐丙吉

역대교장 : 백낙영, 구본순, 정계동, 이상득, 권영찬, 안병길, 박경선 유명선, 안중훈

○ 學生數 : 392명
○ 教職員數 : 16명
○ 教育目標
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다지는 어린이
② 스스로 공부하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어린이
③ 정직하고 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
④ 부지런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실력 올리기

② 짓기 능력 기르기



⑰ 奬川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 537

○ 開校年月日 : 1967年 3月 24日

○ 校長 : 崔龍俊

역대교장 : 이정하, 이기봉, 유광식, 이성재

○ 學生數 : 119명

○ 教職員數 : 10명

○ 教育目標

① 나라를 사랑하며 예의 바른 어린이

② 부지런하고 공부 잘하는 어린이

③ 잘 생각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④ 굳세고 튼튼한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목표 학력의 달성-ⓐ 보충 지도 시간을 통한 기초학력 확보 ⓑ 자율 학습 태도 육성 ⓒ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 학력 기대치 설정 운영 ⓔ 수업 중심의 교내 장학

② 저축의 생활화-ⓐ 저축 생활의 교육적 지도 ⓑ 국가 시책에 따른 저축태도 조성

③ 생활 영어 지도 강화-ⓐ 듣고 말하기 중심의 영어 교육 ⓑ 교내 방송을 통한 생활영어 지도 ⓒ 지도 자료 개발 및 확보

④ VTR 활용을 통한 학교 방송의 효율적 운영(학교 특색 사업) : VTR 카메라 활용을 통한 교내 방송의 과학화

⑱ 分院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

○ 開校年月日 : 1921年 12月 1日

○ 校長 : 李九鉉

○ 學生數 : 175명

○ 教職員數 : 16명

○ 教育目標

①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

②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어린이

③ 질서를 지키고 부지런한 어린이

④ 심신이 아름다운 건강한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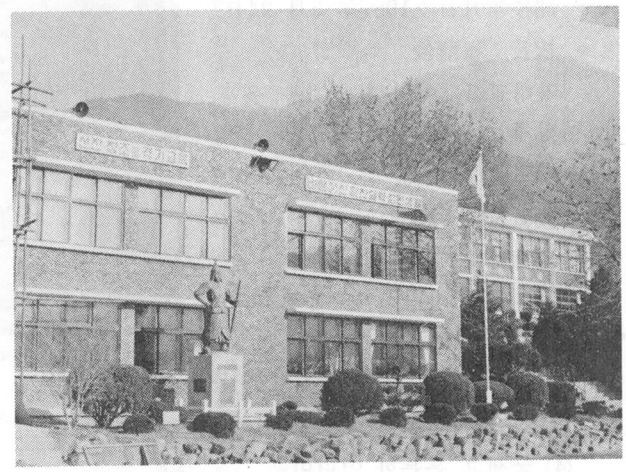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교육 환경의 개선

② 기초 학력 정착 책임제 운영

③ 교과 전담제 운영

⑲ 山谷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하산곡리 431－6

○ 開校年月日 : 1948年 5月 1日

○ 校長 : 方大蓮

역대교장 : 李容明, 조태석, 趙亮燮, 兪光植, 安同熙, 安重勳, 이병열, 이공우, 김순애, 金正浩, 梁思城, 權寧讚, 李星材

○ 學生數 : 381명

○ 教職員數 : 17명

○ 教育目標

① 나라를 사랑하고 반공하는 어린이(애국, 반공)

② 스스로 공부하며 기본 학력을 지닌 어린이(자율, 학력)

③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어린이(과학, 창의)

④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어린이(정직, 건강)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기본 학력 정착

② 국민 정신 9대덕목의 생활화

③ 경로 효친 교육 강화

④ 다듬는 교육의 심화 발전

⑳ 西部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11－1

○ 開校年月日 : 1963年 3月 20日

○ 校長 : 安重勳

○ 學生數 : 918명

○ 教職員數 : 28명

○ 教育目標

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다지는 어린이(건강인)

② 스스로 공부하며 아름다움을 가꾸는 어린이(심미인)

③ 슬기롭게 탐구하고 실천하는 어린이(능력인)

④ 정직하며 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도덕인)
⑤ 나라를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는 어린이(자주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도 지정 학습지도 시범학교 운영
② 제3TV 교육방송 녹화 활용
③ 3대 교육 관리(체력장제, 학력장제, 생활장제 운영)

㉑ 仙東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초월면 선동리 274
○ 開校年月日 : 1967年 3月 1日
○ 校長 : 任相學
○ 學生數 : 115명
○ 教職員數 : 11명
○ 教育目標
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반공 애국하는 어린이
② 슬기롭게 생각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③ 근면 성실하고 협동 봉사하는 어린이
④ 심신을 단련하여 즐겁게 생활하는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소인수 학급의 학력제고
② 국민자율 정신교육 강화
③ 품위있는 생활습관의 정착
④ 예체능 교육 강화

㉒ 新長國民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신장리 422
○ 開校年月日 : 1983年 9月 1日
○ 校長 : 金麒年
역대교장:권영찬(權寧찬)
○ 學生數 : 258명
○ 教職員數 : 48명
○ 教育目標
①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자주인)
②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능력인)



③ 아름다움을 가꾸는 어린이(심미인)

④ 예절바른 어린이(도덕인)

⑤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건강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자주인)－ⓐ 학생－국기에 대한 바른 경례, 애국가 4절까지 외워쓰기 ⓑ 교사－9대 덕목 함양을 위한 훈화지도 ⓒ 가정－국기달기 및 국기함 비치

②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능력인)－ⓐ 학생－책읽는 학생상 정립 ⓑ 교사－ 교재연구 철저 ⓒ 가정－어머니 장학교실 참여

③ 아름다움을 가꾸는 어린이(심미인)－ⓐ 학생－1인 1화분 가꾸기 ⓑ 교사－예체능 전담제 ⓒ 가정－매일 내집앞 쓸기

④ 예절바른 어린이(도덕인)－ⓐ 학생－인사 잘하기 ⓑ 교사－기본생활 습관지도 철저 ⓒ 가정－가훈제정 및 실천

⑤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건강인) ⓐ 학생－1일5분 달리기 ⓑ 교사－'88대비교육 철저 ⓒ 가정－1가정 1운동기구 비치 및 활용

㉓ 五浦國民學校

○ 所在地：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500

○ 開校年月日：1935年 10月 24日

○ 校長：全鍾伯

○ 學生數：279명

○ 教職員數：14명

○ 教育目標

① 주인정신으로 애국하는 어린이(애국인)

② 스스로 공부하는 실력있는 어린이(지성인)

③ 바르게 보고 탐구하는 어린이(과학인)

④ 몸과 마음이 건전한 어린이(건강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국민정신 교육 9대 덕목지도

② 학년 학력의 책임지도

③ 기본생활습관 및 기본학습태도의 지도

④ 학도 애향대 활동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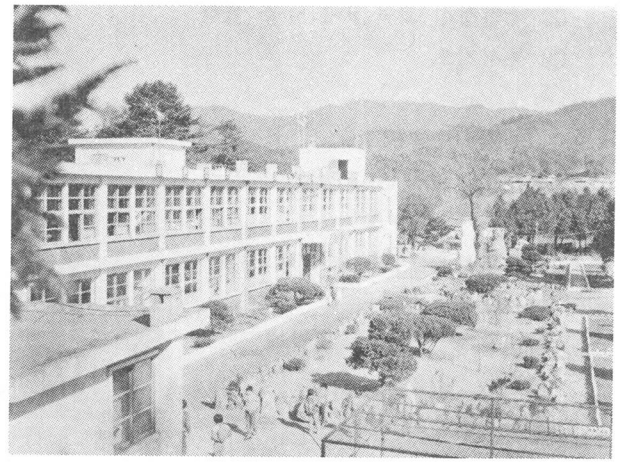
⑤ 교직 연수의 강화

⑥ 교육 환경의 정비

㉔ 草月國民學校

○ 所在地：광주군 초월면 신월리 445

○ 開校年月日：1931年 7月 8日



○ 校長：慶敦秀

역대교장：안병일(安秉一), 윤호섭(尹濠燮), 김준배(金俊培), 봉명욱(奉命昱), 김창호(金昌鎬), 임영환(林暎煥),유장호(兪章鎬),이기목(李起穆), 이철재(李喆載), 김낙용(金洛容), 김창호(金昌鎬), 안동희(安東熙), 심규섭, 윤판성

○ 學生數：295명

○ 教職員數：15명

○ 教育目標

① 예절 바르고 주인정신이 강한 어린이

② 근면 성실하고 협동하는 어린이

③ 스스로 공부하며 새로운 것을 찾는 어린이

④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의지가 강한 어린이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학력신장－ⓐ 학력 책임제 실시 ⓑ 현직교육 철저

② 과학교육의 충실

③ 자율활동의 활성화

2) 中學校의 教育活動

(1) 廣水中學校

○ 所在地：광주군 퇴촌면 도수리 587

○ 開校年月日：1967年 4月 14日

○ 校長：金鍾德

○ 學生數：303명

○ 教職員數：16명

○ 教育目標

① 건강하며 예의바른 사람을 기른다.

② 탐구하며 창조하는 사람을 기른다.

③ 실천하며 책임있는 사람을 기른다.

④ 사랑하며 봉사하는 사람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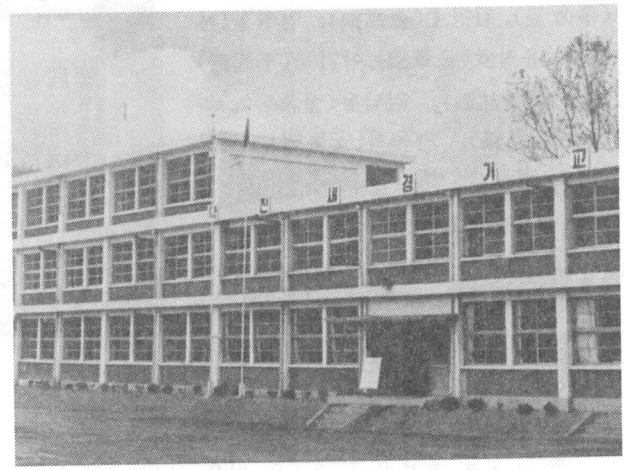
⑤ 반공하며 애국하는 사람을 기른다.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기초학력 정립

② 국민정신 교육 9대 덕목 실천
③ 독서지도

(2) 廣一中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241－2
○ 開校年月日 : 1981年 4月 23日
○ 校長 : 崔鳳奎
역대교장 : 최기영, 김정례
○ 教生數 : 212명
○ 教職員數 : 15명
○ 教育目標
① 굳센 체력과 강인한 의지를 가진사람
② 풍부한 정서와 고상한 취미를 지닌 사람
③ 과학적 사고로 탐구하는 창의적인 사람
④ 공동체 의식을 지닌 자주적인 사람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기본생활 및 학습습관 지도의 내실
② 애향대별 꽃길 가꾸기
③ 교과별 책임 학력의 진작
④ 독서 교육의 충실

(3) 廣州中學校

○ 所在地 : 광주군 광주읍 경안4리 45
○ 開校年月日 : 1946年 4月 1日
○ 校長 : 宋榮晋
역대교장 : 홍순길, 윤상섭, 이준영, 안영환, 박용필, 안영환, 이종복, 이종덕, 홍정자
○ 學生數 : 1046명
○ 教職員數 : 37명
○ 教育目標
①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을 기른다
② 지적 탐구심과 학습 의지력이 강한 사람을 기른다.
③ 강인한 의지력과 체력을 지닌 사람을 기른다.
④ 정당한 정서를 지닌 심미적인 사람을 기른다
⑤ 민주시민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기른다.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목표 학력의 달성－ⓐ 성취 동기 육성 및 자율학습 능력배양 ⓑ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 목표 지향적 학력 평가 실시

② 자율 정신 교육의 철저－ⓐ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 ⓑ 학도애향대 5대 덕목의 생활화 ⓒ 행사 및 수련교육의 철저

③ 과학 교육의 충실－ⓐ 실험 실기 수업 강화 ⓑ 기초과학 교육의 철저 ⓒ 과학행사 교육 철저

④ 독서의 생활화－ⓐ 독서지도의 철저 ⓑ 조장행사 및 발표기회 확대

(4) 廣州東中學校



○ 所在地：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453－12

○ 開校年月日：1955年 5月 25日

○ 校長：李完植

역대교장：남경우, 이희재, 이지인, 김봉산, 김철회, 권경태, 이영, 김용흥, 김정도

○ 學生數：617명

○ 教職員數：23명

○ 教育目標

① 건전한 심신을 길러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건전한 심신의 육성)

② 기초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며 기초 기술의 습득으로 과학적 사고와 진로 개척의 능력을 가지게 한다. (재력과 기술의 배양)

③ 일상생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④ 우리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국가관을 가진 민주 시민을 기른다.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개인별, 교과별 학력 목표치 설정지도 ⓑ 학력 부진아 특별 지도 ⓒ 능력별 과제 학습 ⓓ 교원 연수자료 제작 활용

② 영어 회화력 신장－ⓐ 1일 1문장 암기지도 ⓑ 학급별, 학년별 말하기 대회 ⓒ 시청각 매체 활용

③ 실험 실습 철저－ⓐ 분단별 실험 결과 발표회 ⓑ 과학반 임해 실습 ⓒ 과학 동산 운영 ⓓ 과학영재 특별지도－컴퓨터 교육 및 응용 수학 지도

④ 펜싱부 육성－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5) 南漢中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 450

○ 開校年月日 : 1960年 2月 10日

○ 校長 : 李鍾福

역대교장 : 郭魯仁 · 兪奭濬 · 朴容泰 · 鄭熙模 · 李光薰 · 皮應五 · 金正道

○ 學生數 : 828명

○ 教職員數 : 33명

○ 教育目標

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애국인 육성)

②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실력있는 사람을 기른다.(실력인 육성)

③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기른다.(과학인 육성)

④ 예절을 지키고 협동 봉사하는 사람을 기른다. (도덕인 육성)

⑤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을 기른다. (건강인 육성)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책임학습의 정착

② 핸드보올, 유도선수 발굴 육성 강화

③ 국민정신 교육의 생활화

(6) 東部女子中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 450

○ 開校年月日 : 1982年 11月 17日

○ 校長 : 趙成胤

○ 學生數 : 1,264명

○ 教職員數 : 42명

○ 教育目標

①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을 기른다.

②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인 사람을 기른다.

③ 협동 봉사 정신으로 공익과 질서를 존중하는 도덕적인 사람을 기른다.

④ 자유 민주 정신이 투철하고 민주정의 사회를 건설하는 자주적인 사람을 기른다.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1일 생활목표 실천하기

② 협력 자율 분단학습 실시

③ 율동 체조를 통한 여성미 갖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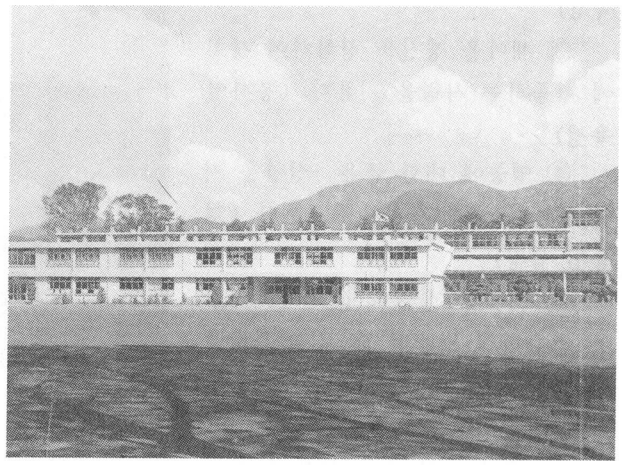
④ 조화로운 학습 환경 꾸미기

(7) 京花女子中學校

- 所在地 :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52-1
- 開校年月日 : 1976年 6月 1日
- 校長 : 최진순
  역대교장 : 현호경 · 박승덕
- 學生數 : 1037명
- 教職員數 : 33명
- 教育目標
  ① 신앙에 뿌리박은 애국인을 기른다.
  ② 예의바른 민주 여성을 기른다.
  ③ 실력향상에 힘쓰는 탐구인을 기른다.
  ④ 사회에 봉사하는 근면한 협동인을 기른다.
  ⑤ 창의성 있는 생활인을 기른다.
  ⑥ 기초 체력 단련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른다.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목표 지향적 학력 향상 방안 강구
  ② 자율 생활 형성 지도
  ③ 테니스부 중점 육성

3) 高等學校의 教育活動

(1) 廣州商業高等學校



- 所在地 :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 開校年月日 : 1974年 1月 5日
- 校長 : 李完植
  역대교장 : 이영, 김용홍, 김정도
- 學生數 : 487명
- 教職員數 : 22명
- 教育目標

① 튼튼한 몸과 굳센 의지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② 정확한 의사 소통과 논리적 사고 능력으로 평생 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게 한다.

③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며 양심과 도덕적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④ 민족 문화를 사랑하며 협동 봉사정신으로 스스로 공동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⑤ 상업및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한다.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교사 연수자료 작성 활용 ⓑ 전교과 수업 연구 ⓒ 군관내 고등학교 교과별 연구 협의회 조직 운영

② 컴퓨터 교육－ⓐ 능력별 조편성 지도 ⓑ 전산반 조, 방과후 특별지도 ⓒ VTR 및 녹음 TAPE확충 활용 ⓓ 교내 P/C경진대회 ⓔ 기능 수준 단계별 구분지도

(2) 廣州綜合高等學校

○ 所在地 : 광주군 광주읍 역리 145

○ 開校年月日 : 1952年 7月 9日

○ 校長 : 金潤植

역대교장 : 석성균, 김문현, 이병직, 남경우, 유석준, 최기섭, 김철회, 최희문, 송재형, 이범승

○ 學生數 : 958명

○ 教職員數 : 51명

○ 教育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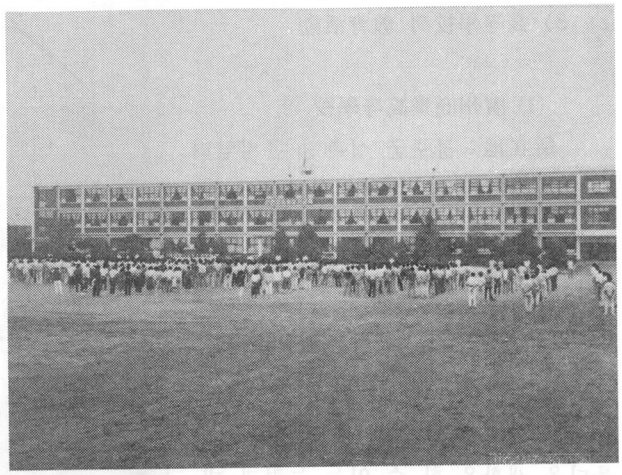
① 나라를 사랑하며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예의 바른 사람을 기른다. (애국인 육성)

② 학력을 정착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실력인 육성)

③ 새마을 정신을 심화하여 사회에 협동하는 사람을 기른다. (봉사인 육성)

④ 영농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닌 유능한 영농 후계자를 기른다. (영농인 육성)

⑤ 자연을 사랑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건강인 육성)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국민 정신 교육 심화 최선

② 전인 교육의 충실

③ 기초과학 기술 교육의 충실

④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3) 南漢高等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 450
○ 開校年月日 : 1962年 4月 10日
○ 校長 : 김홍율
역대교장 : 곽노인, 유석준, 박용태, 정희모, 이광훈, 피응오, 김정도
○ 學生數 : 343명
○ 教職員數 : 41명
○ 教育目標
① 애국 애족하는 애국인
② 탐구 실천하는 실력인
③ 심신 연마하는 건강인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생활 영어 교육 강화
② 덕성 교육 강화
③ 1교 1기 지도 내실

(4) 京花女子商業高等學校

○ 所在地 :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52-1
○ 開校年月日 : 1979年 3月 6日
○ 校長 : 박승덕
역대교장 : 현호경
○ 學生數 : 1208명
○ 教職員數 : 46명
○ 教育目標
① 신앙에 뿌리박은 애국인을 기른다.
② 예의 바른 민주 여성을 기른다.
③ 실력 향상에 힘쓰는 탐구인을 기른다.
④ 사회에 봉사하는 근면한 협동인을 기른다.
⑤ 창의성 있는 생활인을 기른다.
⑥ 기초 체력 단련으로 건강한 여성을 기른다.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바른 생활 습관 갖기
② 자율 학습 잘 하기

③ 교육 환경 잘 갖추기
④ 목표 지향적 학력 향상 방안 강구

(5) 正允高等學校

○ 所在地 : 광주군 동부읍 망월리 778-1
○ 開校年月日 : 1979年 11月 19日
○ 校長 : 박세원
역대교장 : 권기태, 김기열
○ 學生數 : 1334명
○ 教職員數 : 44명
○ 教育目標
① 기독 정신으로 애국하는 사람을 기른다.
② 학력 향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을 기른다.
③ 질서를 존중하며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기른다.
④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창조하는 사람을 기른다.
○ 1987年度 努力重点
① 경기도 평균 학력 도달
② 우수한 학급 만들기(우수학급 평가제 도입)
③ 유도부 전국 대회 입상
④ 강당 건립

第12節 가나안 農軍학교

1.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나안 農軍學校는 廣州郡 東部面 풍산리에 자리잡고 있는 精神教育의 요람이다.

同校는 故 金客基 校長에 의해 設立이 되었으며 福民運動의 理念인 勤勞·奉仕·犧牲精神의 具現을 教育目標로 알도록 배우자, '몸바쳐 일하자' '겸손히 섬기자'는 教訓 아래 運營되고 있다.

故 金客基 校長은 日帝의 支配 아래에서 民族自主獨立을 위해서는 農村開拓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1933年 奉安 理想村을 設立하였으며 이 奉安 理想村으로부터 가나안 農軍學校는 胎動이 되었다.

가나안 農軍學校는 가나안農場內에 設置되어 있으며, 祖國近代化는 투철한 國民精神의 開拓으로 새 人間, 새 家庭, 새 社會, 새 國家의 順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事實을 확인하고 이

를 위한 本格的인 精神教育, 生活教育의 道場으로 設立한 것이다.[44]

故 金客基 校長은 1954年 11月 16日 식솔 7식구를 이끌고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豊山里 황산에 定着하여 황폐하고 버려진 황산을 새 開拓地로 삼아 젖과 물이 흐르는 가나안 理想鄕을 만들 결심을 한다. 이것이 오늘날 제1가나안 農軍學校의 始初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農軍學校를 計劃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제1개척지였던 「奉安理想村」과 제2개척지였던 「삼각산 農場」, 그리고 제3개척지였던 「에덴향」과 마찬가지로 이곳 황산에서도 순전히 버려진 땅을 그와 그의 家族의 피땀으로 開拓하여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볼 생각으로 도전했던 것이다.

그후 7年여의 피땀 어린 투쟁의 結果로 황폐한 땅 「황산」은 점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福地로 변모시켰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마침내 1962年 2月 1日 가나안農軍學校를 開校하였다.

가나안農軍學校의 修了生은 1962. 2. 1 이후 1987. 11. 30 현재 171,114名이나 되며 全國의 社會指導者, 宗教指導者, 公務員, 軍人, 農夫 등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校는 文教部의 定式 認可가 되어 있지 않다. 韓國 教育史에서 非公認 教育機關으로 이만한 教育課程과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는 곳은 일찌기 없었다.

故 金客基 校長은 社會教育의 功勞를 認定받아 1966年 8月 31日 막사이사이賞을 社會公益部門에서 受賞하였다.

이는 同校가 開拓의 精神教育 道場으로 남달리 아시아적 後進性을 克服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同校 學生들의 生活信條인 '올바른 人間이 되자. 또한 健康한 家庭共同體를 建設하자. 보람있는 職業活動을 이루자. 마침내 國家民族을 새로 일으킬 役軍이 되자.'라는 精神教育의 結果 '흙의 開拓時代'에서 '얼의 開拓時代'로 精神教育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 가나안의 開拓 50年 略史 [45]

가나안 개척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33년 김용기 박사의 奉安理想村 건설로부터 시작된다.

가나안의 개척사로 한 개인의 農民運動史가 가나안農軍學校의 成長으로 더욱 확대되어 드디어는 韓國의 農民運動史 또는 精神運動史의 중요한 맥락을 形成하고 있다.

(1) 民族의 自覺과 自我確立

日帝가 1930年代 후반 이후 전대미문의 악랄한 民族抹殺政策을 펴 격심한 탄압을 가하는 속에서도 民衆 속으로 침투된 民族意識과 獨立精神은 점차 民衆 속에서 항일민족저항운동으로 불당겨졌다.

가나안 農軍學校의 創設者인 金容基 博士는 그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理想村 建設運動을 전개함으로써 가나안 개척사의 첫장을 기록하게 된다.

그가 민족적 자각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확립하게 된 것은 3·1獨立 만세 사건이었으며 이

44) 김용기, 《나의 한길60年》, (서울 규장문화사, 1987), p. 250.

45)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복민운동》, p. 10-

를 통해 비극적인 민족사에 대한 開眼과 자각은 自己發見으로 이어져 다음과 같은 精神的인 흐름을 갖게 된다.[46]

첫째, 전통적인 유교의 의식을 갖고 있다.

둘째, 근대 사핵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저항민족주의적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전통적 유교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 받아들인 기독교 사상이 있다.

(2) 위대한 흙과의 結義－奉安理想村 建設

청년 김용기는 성경에 있는 에덴동산을 실현하려는 구상으로 그의 고향에서 奉安理想村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가 구상한 奉安理想村은 10호를 단위로 하는 協業村이었다.[47]

경기도 양주군 외부면 능내리 봉안 마을에 1935년부터 시작하여 7년의 역사로 완성을 보게 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포화로 원형마저 찾을 수 없이 파괴되고 말았다.

奉安村의 理想鄕 건설은 흙의 개척일 뿐 아니라 生活改善이었다. 종래의 인습적인 생활구습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간 것이다. 일체의 형식적인 의례를 개혁하였으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행위를 부정하였다.

理想村의 건설은 전통적인 영농방식인 〈품앗이〉와 〈두레〉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協同方式을 취하여 주요 농기구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였고 종자의 보급과 개발 자금을 공동관리하였다.[48]

이러한 靈과 肉의 同時的 一體的 방법은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이며 독창적인 것이었다.

(3) 해방과 農場 建設

8·15 해방과 함께 청년 김용기는 〈농민동맹〉을 결성하여 農業立國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가지게 되나 당시 좌·우익의 정치적 공세를 좌초하게 된다.[49] 민중 속에서 발생한 그의 소박한 정치적 시도가 좌초됨으로서 그는 다시 흙과의 만남을 시도하게 되고 그것이 두번째 개척한 경기도 고양군 구기리 소재의 「삼각산 農場」이다.

삼각산농장에서는 주로 農村開發과 農民敎育을 硏究하고 뜻 있는 동지들을 규합하는 등 祖國의 百年大計의 초석을 세우는 기초작업을 했다.

구기리 과수원 농장을 개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 시킬 무렵 6·25사변이 일어나 봉안의 理想村이 폐허가 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그는 전쟁의 참화가 가시지 않은 1952년에 그를 따르는 동지 50여명을 이끌고 세번째 개척지인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에 터를 잡는다.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극도의 물자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사암리의 農場을 계획대로 이루어 간 그는 개척 3년만에 사암리 농작을 떠난다. 그가 그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농업구국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농민대학의 설립이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었다.

그가 네번째 農場을 세운 곳은 이름부터 荒山인 경기도 양주군 동부면 풍산리였다.

---

46) 上揭書, p. 14.

47) 上揭書, p. 15.

48) 김용기《참살길 여기에 있다.》p.404.

49) 가나안 농군학교, 전게서, p. 17

이름 뿐 아니라 땅과 마을마저 황산이었던 마을에 1만평의 황무지르 구입하여 〈가나안농장〉을 개척하기로 한 것이 1954년 11월이었다.

3남 2녀를 포함한 가족 일곱식구가 고난에 찬 개척의 주역으로 개척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황산 마을의 개간은 〈황무지 개간 7년 계획〉에 설계된대로 발전되었다. 생활은 처음부터 청교도적인 생활규범에 따라야 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개척이었으므로 흙의 일은 가장 신성한 노동으로 자리가 메겨졌다.

황산 마을 1만평 대지 위에 세워진 〈만평공화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강정책은 칼빈이즘에서 보여주고 있는 〈福政〉그대로 라고 말한다.[50]

신앙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였으며 엄격하고 순결한 생활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청교도적인 생활태도를 준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의 꿈을 삼천리 강토를 젖과 꿈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이룩하는 것이었다. 개척사 주류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청교도 정신은 고 김용기 박사의 인격과 주체적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나안 농장을 모태로 그의 평소의 꿈인 教育機關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農軍學校〉였다.

(4) 가나안 農軍學校의 建設

1962年 2月 1日 마침내 精神開拓의 道場인 農軍學校를 設立하게 된다. 이에 따라 萬坪共利國은 그대로 教育場이 되었으며 식구들은 모두 農軍學校의 教師가 되었다.

教育의 중심은 技術이나 知識의 습득과 함께 정신적인 각성과 자세확립의 강조에 두었다. 이러한 教育方針으로 말미암아 精神姿勢의 확립을 가장 중요한 教育의 課題로 삼는 精神教育道場의 原形이 確立되었다.[51]

意識의 革命, 生活의 革命, 人格의 革命을 주창하는 農軍學校 精神教育의 完成으로 당시까지 흙의 開拓者로 인식되고 있던 金容基 校長은 이제 얼의 開拓者이자 精神教育의 開拓者가 되었으며 가나안 농장에 첫 삽을 꽂은 지 8년만에 42명의 청·장년을 기숙사에 수용하여 教育을 實施하여, 가나안 農軍學校의 社會指導者 教育의 효시가 되었다.

이러한 教育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커서 開校한 지 2年도 안돼서 全國的으로 확대되어 수많은 修了生을 배출하게 된다.

가나안 農軍學校의 教訓은

첫째, 알도록 배우자.

둘째, 몸바쳐 일하자

세째, 겸손히 섬기자

이며 學訓은 다음과 같다.[52]

---

50) 上揭書, p. 23

51) 上揭書, p. 24

52) 上揭署, p. 4

1. 그대들 복민이여!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
2. 그대들 복민이여!
힘을 합쳐 일하는 곳에 성공이 있음을 알자.
3. 그대를 복민이여!
정열로서 참을 찾고 용기로서 이를 지키자
5. 그대들 복민이여!
가정과 향토와 조국을 내손으로 이룩하자.

1962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나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3]

1. 인근지역주민 교육시대
2. 농촌자원 지도자 교육시대
3. 재건국민운동 경기도 지도자 교육시대.
4. 공무원 교육시대
5. 군인 교육시대
6. 학생·교사·성직자 교육시대

이처럼 가나안農軍學校의 精神敎育은 全國의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어 精神革命의 기수가 되었다.

이제는 産業戰士들의 敎育으로 擴大되고 있으며 社會의 發展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계층의 敎育機能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 가나안 農軍學校의 敎育

1) 農軍學校의 敎育理念

가나안 農軍學校의 敎育理念은 '먼저 참 인간이 되자.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참 살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자. 이 길은 한 개인의 인격 완성에 도달하는 길이며 동시에 복된 사회를 만드는 길이며 애국하는 길이다.'[54] 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국가적으로 요청되고 人間을 育成하고 있다.[55]

① 우리 民族의 주체성 確立
② 바람직한 國民論理規範의 生活化
③ 책임있고 民主的인 指導者의 人格涵養
④ 올바른 國家觀, 社會觀 및 人生觀의 確立
⑤ 우리 실정에 맞는 勤儉節約의 생활화
⑥ 能力開發을 통하여 빈궁을 막는 敎育

53) 上揭書, p. 26.
54) 上揭書, p. 34.
55) 上揭書, p. 35.

2) 農軍學校 教育의 特徵

건전하고 표본적인 교육장으로서 한 가정을 標本으로 하여 그 家族의 共同理念을 生活化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個人의 完成과 家庭의 建設, 社會와 國家에 이르는 구원운동을 일으킬 수 있산 教育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있는 教育을 實施한다.

첫째, 精神教育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精神的 姿勢確立과 心身의 단련을 통해 강인한 信念과 精神力 強化를 도모한다. 人生觀을 확립하고 生活觀을 세워서 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精神的 지주를 굳힌다.

둘째, 共同體教育

教育生 전원이 합숙하여 規律 있는 團體生活을 통해서 個人과 社會가 함께 共同福利를 이룰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는 自律的인 人格建設을 도모한다.

세째, 全人教育

배우고 가르치는 이들이 全人格的으로 만남으로써 한 人格體의 生活과 知識과 行動을 일치시키는 全人教育을 실시한다.

네째, 成人指導者教育

正規學校 教育을 이수한 成人에게 급속한 社會的 變化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觀을 세우며 生活化시켜서 유능한 社會指導者로 길러냄으로써 보다 빠른 社會開發을 기하고자 하는 平生教育이다.

3) 教育課程의 運營

(1) 正規教育課程 : 農軍士官學校

농군학교 正規教育프로그램으로서 가장 긴 期間의 教育이 되며 農村 指導者를 양성하는 코스이다.

이 課程은 1981年까지는 3단계로 나누어 15일씩 教育을 實施하여 제1단계 교육은 주로 精神教育은 실시하고, 제2단계教育은 제1단계 教育 수료자로 學校에 재소집하여 주로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제3단계 教育은 제2단계 教育 수료자로서 농업에 성공적인 實踐者를 세번째로 소집하여 주로 指導者 師範教育을 실시하였다.[56]

1982年부터는 韓國産業構造의 變化와 農業의 專門化, 地域社會開發 事業의 深化로 인하여 教育課程을 再調整할 필요가 생겨 農軍士官學校를 創設하여 傳門的인 農村 指導者를 兩性하는 코스로 삼았다.

i. 教育旣刊 : 2個月(재교육 : 수료후 매년 1주일씩)

ii. 모집 人員 : 期마다 50名 미만

iii. 모집 方法 : 機關의 추천, 가나안 직접 모집

iv. 入校自格 : 년령－20세 이상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이상

v. 教育內容 : 주로 農村指導者로서 精神的으로나 農業技術 및 地域社會 開發에 유능한 者

56) 上揭書 p. 36.

를 양성하기 위한 教育 實施

vi. 教育費 : 실생활비 정도

(2) 聖職者 教育課程 : 福民大學

1981年까지는 聖職者들의 教育을 「農牧科」 또는 「特別教育課程 聖職者班」으로 15日 또는 4박5일 教育을 실시했다. 1982年부터 福民大學을 設立하여 聖職者班 教育을 強化하였다.

i. 教育期間 : 4박5일

ii. 教育對象 : 여러 宗派의 종교지도자

ii. 入學方法 : 教團 또는 個人의 희망

iv. 教育內容 : 신앙의 생활화를 중심으로 종교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리더쉽

v. 教育費 : 本校부담 또는 독지가 헌금

(3) 特別教育課程

農軍學校의 특징 있는 精神教育에 대한 각계 사회의 요청에 따라 政府機關 및 社會團體, 宗教團體, 企業體 등의 指導者 및 임직원들을 위한 단기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特別教育課程은 教育을 의뢰하는 團體나 對象者의 배경에 따라 8個 코스로 나누어진다.

i) 企業體 幹部班 : 4日~10日

ii) 軍幹部班 : 4日~10日

iii) 公務員班 : 4日~10日

iv) 教師班 : 4日~10日

v) 大學生班 : 5박6일

vi) 平信徒班 : 4일~10일

vii) 혼성반 : 4일~10일

viii) 高等學生班 : 4일~10일

4) 學校 生活

(1) 日課表

4 : 30 기상

4 : 30 - 5 : 00 점호

5 : 00 - 6 : 30 새벽 정신강의

6 : 30 - 7 : 30 체력단련(체조 및 구보)

7 : 30 - 8 : 00 청소 및 세면

8 : 00 - 9 : 00 아침식사 및 식탁교육

9 : 00 - 11 : 00 오전 제1학과 강의

11 : 00 - 1 : 00 오전 제1학과 강의

1 : 00 - 2 : 00 점심식사 및 식탁교육

2 : 00 - 4 : 30 오후 제1학과 강의

4 : 30 - 6 : 30 오후 제2학과 강의

6 : 30 - 7 : 30 저녁식사 및 식탁교육

7 : 30－ 9 : 30 저녁학과 강의

9 : 30－10 : 00 취침준비및 취침점호

(2) 學科 內容

①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교육

② 애국애족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교육

③ 올바른 인간 생활을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

④ 가정을 바탕으로 한 윤리교육

⑤ 실생활의 번영을 위한 산업교육

⑥ 각 분야에 따른 생활개선교육

⑦ 현실을 위주로 한 경제교육

⑧ 피교육자를 참작한 농업기술교육

⑨ 식탁교육(식탁예절, 식탁과 건강, 식탁과 사명 등)

⑩ 건전한 노래 보급

⑪ 시청각 교육

⑫ 체육 신체단련

(3) 入校 要綱

i. 正規 課程

i) 入校日時 : 매년 6월과 10월 중에 계획되는 교육 일정에 맞추어 입교한다. 입교 당일 오후 3시까지 등록한다.

ii) 具備書類 : 추천서 1통(소속 기관장), 이력서 1통(학력 경력 상세히 기록) 증명사진 2매, 입학원서는 본교에 와서 기록

iii) 資格 : 남자 23세, 여자 2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실력을 갖춘자. 신체 건강한 자.

iv) 지참물 : 필기 도구, 세면 도구, 운동화

v) 비용 : 입교 당시의 물가에 따라 기숙비, 교재대 징수

vi) 入校節次 : 入校日 15日전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신청자는 입교 허락서를 받고 입교한다.

ii. 特別 課程

i) 入校日時 : 오전 10시까지 등록

ii) 具備書類 : ① 입교계획서 ② 추천서

iii) 資格 및 지참물 : 정규반과 동일

iv) 費用 : 비용의 납부는 입교 1주일전에 납부

iii. 登錄日의 節次

i) 등록 : 입학원서를 입교시에 기재하여 추천서와 함께 체출함

ii) 숙소 배치 : 교육기간 중 사용할 숙소를 지정받는다. 교번을 받으면 그 교번에 맞는 좌석과 신발장을 사용한다.

3. 敎材의 構成

成人勇 敎材「가나안 복민운동」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57]

제1부 가나안으로 가는 길

Ⅰ. 가나안의 개척 50년사
1. 시대적 배경
2. 민족의 자각과 자아확립
3. 위대한 흙과의 결의
4. 해방과 그후의 농민운동
5.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
6. 끝없는 개척자의 길
7. 농군학보 수료생 현황
8. 수상 및 저서
9. 가나안 기구표

Ⅱ. 교육 과정 개요
1. 학교 일람
2. 학교 생활
3. 입교 요강

제2부 복민주의 교육 이념

Ⅰ. 가나안의 교육 정신
1. 정신교육의 뜻
2. 사회교육의 방법과 인간교육
3. 인격완성－인간화와 사회화

Ⅱ. 정신교육의 기원과 발달
1. 교육구국 운동의 실천과제로서의 정신교육
2. 국가발전과 인간성장을위한 교육
3. 새마을운동과 정신교육

Ⅲ. 정신교육의 성공사례
1. 인도의 농민 도장
2. 덴마크의 농군학교
3. 가나안 농군학교

Ⅳ. 정신교육 교과구성의 원리
1. 교과구조
2. 교육방법

57) 가나안 농군학교, 前揭書, pp. 5－8.

3. 학교가 수행한 사회적 기능
4. 교육적 인간상
Ⅴ. 정신교육의 과제 : 도덕적 혁명
Ⅵ. 생활 헌장
1. 생활헌장
2. 가나안의 가훈과 가규 및 가정의례
3. 가나안 복민의 생활 수칙
4. 교기 해설
제3부 이렇게 살때가 아닌가
Ⅰ. 인생 오도의 서설
Ⅱ. 사회생활 기본 요령
1. 자기를 먼저 다스리는 정치생활
2. 조화로서 이루는 경제 생활
3. 행복을 구하는 종교 생활
Ⅲ. 인간의 세가지 의식
1. 목적의식
2. 본분의식
3. 사명의식
4. 인간은 세번 산다
Ⅳ. 사랑에 대하여
1. 사랑
2. 희랍의 사랑
3. 기독교의 사랑
4. 에로스와 아카페
5. 자기 희생과 고통
Ⅴ. 가정 윤리
1. 가정의 의미
2. 효
3. 자녀 교육
4. 부부 윤리
Ⅵ. 조국관
1. 애국이라는 것
2. 우리 안보상의 좌표와 세대사명
3. 한국민족의 역사적 사명
제4부 실력행사
Ⅰ. 지도자의 자세와 책임
1. 지도성

2. 지도성의 이론
3. 지도성의 올바른 이해

Ⅱ. 인간의 사회성 성장
1. 협동하는 인간관계
2. 사회성 성장의 중요성
3. 넓은 인간 이해력
4. 대화와 그 훈련

Ⅲ. 여성의 본문과 책임

Ⅳ. 농민운동사
1. 농민운동이란?
2. 농민운동의 역사적 전개
3. 농민운동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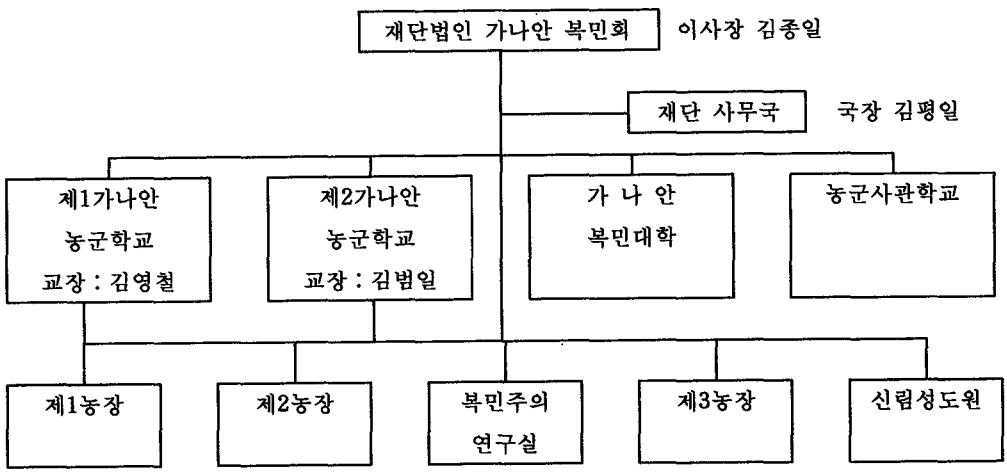
Ⅴ. 협동운동과 신용협동조합

Ⅵ. 범사의 성공비결

Ⅶ. 식탁 교육

4. 가나안 機構表

가나안 農軍學校는 가나안 農場을 모태로 하여 제2가나안 農軍學校와 가나안 福民大學, 農軍士官學校, 제1·2農場 제3農場, 신림성도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5. 가나안 農軍學校 修了現況

(1962. 2. 1~1988. 11. 7 現在)

◇ 修了生 總數 : 171,114名(南 : 129,406 女 : 41,654)

1) 出身道別 狀況

道	人員	道	人員	道	人員
서울	74,044	경기	38,631	전남	8,561
부산	10,352	강원	3,150	경북	5,226
대구	2,202	충북	4,010	경남	6,549
인천	4,750	충남	5,264	제주	746
광주	197	전북	7,509	계	171,114

〈表 一〉

2) 學力別 狀況

학 력	인 원	학 력	인 원
대학원졸	3,126	고 졸	62,576
대 졸	41.894	고 재	10,280
대 재	6,214	중졸이하	37,234
대 퇴	5,171	중 재	360
전문대졸	3,340		
전문대재	927	계	171,114

〈表 二〉

3) 職業別 狀況

직 업	인 원	직 업	인 원	직 업	인 원
농업	12,896	어업	162	새마을지도자	2,899
종교지도자	3,661	군인	9,512	통반장	3,497
사회지도자	8,763	학생	16,771	기타 · 가사	4,369
교육자	2,317	의사 · 간호원	360		
기업체간부	85,744	언론인	131		
공무원	7,265	서비스업	56		
상업	4,782	중개업	5,174		
광공업	362	예비군	2,336	계	171,114

6. 人間 金容基 (1909~1988)

1) 家系 [58]

일가 金容基 선생은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봉안 마을에서 1909년 9월 5일 부친 김춘교 선생님 모친 김공윤 여사 사이의 다섯 형제 중 네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용기 선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으며 특히 모친의 독실한 신앙과 기도 생활은 선생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되었다.

김용기 선생은 봉양 여운형 선생이 경기도 양평지역 농촌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한 민간사학 〈광동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았으며 여운형 선생의 민족 구원의 지도 이념을 충실히 따랐다.

일가 김용기 선생은 1929년 김봉희 권사를 배우자로 맞아 가정을 이루어 1984년 1월 사별할 때까지 55년간 황무지 개척의 동반자로 함께 일하셨다.

두 분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으며 이들은 모두 선생의 뜻을 따라 개척자의 길을 걷고 있다.

큰 아들 종일씨는 제1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 큰 며느리 윤종숙과 결혼하여 1남 3녀를 두었으며 큰며느리는 농군학교 강사이다. 둘째 아들 범일씨는 제2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며느리 홍미자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고 있다. 세째 아들 평일씨는 제1가나안 농군학교 총무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세째 며느리 이화평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세째 며느리 역시 농군학교의 강사로 일한다.

큰 딸 활란씨는 임영철씨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며 큰 사위는 제1가나안 농군학교 부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막내딸 찬란씨는 김기석씨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며 막내사위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막내딸은 농군학교의 강사로 일하고 있다.

2) 金容基 校長의 福民運動 實績

(1) 奉安 理想村 建設

1935年 봉안 理想村을 건설하여 환경 개선, 식생활 개선, 의생활 개선, 농업기술 연구 보급과 새로운 국민의례를 창안하여 상혼제례를 간소화시켰으며 부락 협동 기능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부락의 공동이익을 높이고 독립운동 지사를 후원했다. 정신개조를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근면, 봉사, 희생정신으로 애국 애족하는 법을 익히고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2) 가나안 信用協同組合 組織

1970년 경기도 광주군 망월리 지역 주민과 함께 가나안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여 18년만에 조합원 1600명, 총자산규모 75억을 보유한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시켰다.

(3) 가나안 福民會 設立

1973년 재단법인 가나안 福民會를 설립 (농수산부 허가 69호)하여 제1·2 농군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민운동의 사회적 실천의 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복민사상의 전파와 교육

58) 일가 김용기 장로 약력 : 1988 보도자료

및 사회운동의 추진 모체가 되게 하였다.

(4) 福民主義 研究室 設立

1974년 재단법인 가나안복민회 산하 기관으로 복민주의 연구실을 설립하여 복민운동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범국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전담케 하고 있다.

(5) 一家會 組織

1980년 농군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일가회 조직에 착수하여 앞으로 범국민 사회 운동으로 확산될 복민운동의 운동 주체로 결성하였다.

3) 著述 活動

(1)「참살길 여기에 있다」1962 창조사
(2)「가나안으로 가는 길」1968 창조사
(3)「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1970, 창조사
(4)「심은 대로 거두리라」1972, 창조사
(5)「증 젊음에게」1975, 창조사
(6)「운명의 개척자가 되자」1975 배영사
(7)「그분의 말씀을 따라」1978 규장문화사
(8)「나의 한길 60년」1980, 규장문화사
(9)「조국이여 안심하라」1980, 규장문화사
(10)「영광된 내일을 위하여」1982 규장문화사

第三章 言 論

第一節 韓國言論의 歷史

1. 언론의 시초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기본기능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의 언어 그 자체가 통신적 기능과 함께 언론적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발달되고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조선시대때의 朝報 또는 奇別紙라고 할 수 있다. 朝廷의 공식발표는 아니었지만 承政院에서 관리의 任免이나 주요 행정사안을 발표하면 각 부나 기관에서 파견된 奇別軍士가 기록하게 되며 이것을 다시 奇別書士가 각 기관에 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지방관청에서는 오늘날의 관적으로 볼 때 서울에 상주(常住)하는 연락관이라고 할 수 있는 京土人을 두어 조정에서 발표되는 주요 사항을 수록하여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나 언론 기능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조저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을 널리 알리는 통신수단이자 官報的 성격을 지닌 언론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방식은 大韓帝國이 들어서면서 官報로 발전하게 되는데 근대적 의미의 言論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사(言論史)에서 최초의 신문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漢城旬報가 창간된 것은 1883년(高宗 20년) 10월1일(음23)이었다.

甲午軍亂후 日本修信使로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한 正使 朴泳孝, 副使 金晩植 隨員 徐光範과 開化流였던 金玉均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을 추진한 漢城旬報는 오늘날과 같은 日刊이 아니라 題號에서도 나타나듯 열흘에 한번씩 발행되는 旬刊의 형태였다.

게재되는 기사의 내용도 官報를 우선으로 하였고 당시의 時事에 관한 내용을 곁들여 실었다. 전부 漢文을 사용한 漢城旬報는 일반 독자를 위한 大衆紙라기보다는 당시의 政界나 官界와 관련하고 있는 지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일본에서 귀국한 朴泳孝가 오늘날의 서울시장의 해당되는 漢城判尹에 부임한 것을 계기로 漢城府에서 신문을 발행하려 했으나 작업을 추진하던 중 그가 廣州留守兼 守禦營使로 전임되는 바람에 金晩植이 모든 작업을 인수하게 되었다. 漢城旬報를 발행은 外衙門의 博文局에서 담당하였는데 博文局은 大韓帝國 정부에서 세운것이며 漢城旬報의 제작실무 역시 관리들이 담당하였다. 博文局 初代總裁로는 外衙門督辦 閔泳穆, 副總裁에는 漢城判尹 金晩植 부임하였고 실무는 姜瑋, 玄映運, 鄭滿朝, 張博등이 담당했는데 이들은 그대로 漢城旬報의 제작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漢城旬報의 編輯책임은 일본인 井上角五郎이 맡았는데 그는 博文局 主宰로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여기서 잠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한 경위를 살펴보자.

旬報발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은 1883년초부터였다. 1882년 일본에 修信使로 갔던 朴泳孝 일행이 1883년 1월6일에 돌아올때 朴泳孝는 신문발간을 위해 일본의 근대사상가이자 교육자이며 언론인이라 할 福澤諭吉의 추천을 받아 그가 설립한 慶應義塾의 문하생 3명을 데리고 왔다.

수신사 일행이 돌아온 직후인 1월12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外務기관인 統理機務衙門을 經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하고 다음날인 1월13일에 經理衙門의 한 기구로 同門學을 설립하였다. 뒤이어 이러한 기구의 설치를 뒷받침하는 經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章程을 적어서 왕에게 올리겠다는 뜻을 아뢴 것은 그 월27일의 일이었으며 이와 함께 통리아문에 근무할 관리 10명을 主事로 임명하였다.

임명된 인물은 金思轍(司成) 南廷哲(副司果) 鄭憲時(〃) 徐相雨(副校理), 尹起晋(新及第) 김희진(長興主簿) 高泳喆(司果) 兪吉濬(幻學) 鄭萬朝(〃) 池運永(〃)등인데 이들 중 적지않은 사람이 신문발간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같은 무렵에 朴泳孝는 漢城判尹에 임명되어 신문발간 준비에 착수했는데 1883년 2월 28일 高宗황제로부터 한성부에서 신문발간을 맡으라는 내용의 하교를 받고난 뒤였다. 왕명을 받은 漢城府는 신문발간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朴泳孝는 兪吉濬에게 실무작업을 맡겼다. 유길준은 1881년 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柳定秀와 함께 유학생으로 남아 福澤諭吉이 세운 慶應義熟에서 1년 반 이상 공부했던 사람이다. 朴泳孝는 일본에서 돌아올 때 慶應출신의 牛場卓造를 비롯 高校正信, 井上角五郎 등 3명의 일본인과 함께 유길준을 데리고 왔으므로 이들 일본인과 함께 유길준에게 신문발간준비를 맡긴 것이다. 유길준은 漢城府가 신문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기구와 인원 등을 규정한 漢城府新聞局章程을 비롯해서 신문창간사(創刊辭)와 신문에 대한 해설문까지 만들었다. 유길준은 이 章程에서 신문발간기구의 명칭을 博文局으로 할 것과 그 책임자료는 한성부의 三尹 가운데서 왕명에 따라 한 사람이 맡는다는 것 그리고 教書員 2명이 번역·교정·인쇄·회계 일을 맡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외국어의 번역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 1명과 외국인 1명을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성부에서 신문을 창간하기 전에 朴泳孝가 廣州留守로 전근됨에 따라 유길준도 신병을 이유로 통리아문 주사직을 사임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본인 牛章卓造, 高橋正信도 신문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井上角五郎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되자 신문발간 업무는 한성부에서 통리아문으로 이관되었다. 같은해 4월 26일 통리아문의 參議 金晩植을 同文學 掌教로 임명하고 同文學 주사 南廷哲과 征權司 주사 高永喆을 서로 바꾸어 이동시켰다. 4개월 후인 8월 17일에는 同文學의 부속기구로 博文局을 새로 설치하고 副司果 金寅植을 주사로 승진시켰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사라고 할수 있는 博文局이 문을 연 것이다. 8월 17일에 설치된 博文局은 金寅植 主事로 임명된 후 9월 7일에는 張博, 吳容默, 金基駿을 박문국 근무 司事로 임명하여 실무진을 갖추었다. 이어 9월20일부터는 일본인 井上角五郎이 머무르고 있던 苧洞에 박문국 사무실을 열고 인쇄시설을 갖추어 신문제작 준비에 들어갔다.

드디어 1883년 10월 31일에 漢城旬報 창간호가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新聞史의 새 章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漢城旬報는 甲申쿠데타로 인해 폐간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漢城旬報의 창간 및 제작에 직접·간접으로 간여했던 인물들이 開化派이며 그중에서도 親日的 경향을 나타냈던 인물들이란 사실이다. 이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 文物의 도입을 추진했고 신문은 그같은 開化文物의 보급, 또는 民衆啓蒙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漢城旬報가 창간되던 戰後는 世界 각국 그중에서도 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독일··오슬트리아·淸등 이른바 列強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식민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을 때 였으며 국제정세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朝鮮時代의 주요 외교관계는 明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나 중국대륙의 정세는 明에서 淸나라가 대두하므로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일찍 開化의 물결을 탄 日本이 새로운 強國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歐美 각국의 아시아 진출의 야심이 날로 그 실체를 드러냄에 따라 조선 정부로서는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치, 외교적 혼란상태에 빠져 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朝鮮의 권력계층내에서도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국제정세의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측과 그것을 거부하고 유교중심의 전통적 통치체제를 지켜 나가자는 측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두 그룹내에서도 어느 나라와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지켜 나가려 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향으로 세분된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는 朝鮮정부의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일수 바께 없었던 것이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국제정치 체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떠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 가운데서도 開化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開化流 정치인들이 정치적 기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日本이었다. 朝鮮에서 세력다툼을 하던 각국 중에서 일본은 淸과 러시아를 제치고 주도권을 잡아 나갔고 따라서 親日정치인들의 정치적 비중역시 확대되어 나갔으며 親日派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近代的文物의 수용을 위한 창구로서 일본을 인식하려는 정치인들의 수는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開化그룹의 핵심인물이랄수 있는 金泳均, 朴泳孝, 徐光範 등은 開化정책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일본을 왕래하는 기회가 늘어났고 새로운 문물보급을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신문의 제작이었다. 그 결과 漢城旬報가 창간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漢城旬報가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게 당시의 정치인들간에 漢城旬報를 받아 들이는 시각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랐다.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입장에서는 漢城旬報를 西敎傳播을 위한 수단이라거나 開化黨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開化派 정치인들이 주도했던 1884년 10월의 甲申政變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정치 주도권은 守舊派들에게로 넘어 갔고 그에 따라 守舊派들은 芋洞의 博文局을 습격해 活學와 인쇄기 등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甲申政變을 일으켰던 金玉均, 朴泳孝, 徐光範, 徐載弼등은 일본으로 亡命하고 편집책임을 맡았던 井上角五郎 역시 일본으로 피신하고 말았다. 결국 漢城旬報 역시 더 이상 발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후 국내정치 상황이 또 따시 변함에 따라 1886년 1월 外衙門協辦 金允植은 博文局舍를 校洞으로 옮기게 한 후 井上角五郎과 姜瑋등의 도움을 얻어 한문만을 썼던 漢城旬報 대신 한문과 한글을 함께 사용한 漢城周報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성순보가 정부기관이나 관리등 한정된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漢城周報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배포를 확대하였다. 漢城周報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배포를 확대하였다. 漢城周報역시 성격은 官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처음으로 한글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漢城周報가 한글을 병용하게 된 것은 金允植, 姜瑋등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글(國文)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高宗황제의 允許 및 일본인 井上의 노력등이 합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漢城旬報가 폐간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漢城周報가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 첫째는 上下官民이 모두 신문의 복간을 바랐던 당시의 여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漢城周報창간호에 실린「周報序」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즉 "甲申政變이 일어나 博文局이 철폐되고 旬報가 간행되지 않게 되자 上下官民이 모두 말하기를 사람의 情은 보는 바에 따라 옮겨감이 참으로 심한 것이로다. 과거 旬報가 창간되지 않았을 적에는 불편한 것을 모르고 지냈더니 旬報가 간행되다가 중단되니 겨우 틔었던 耳目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간행을 바라고 廢刊을 바라지 않았다. 왕께서는 이런 실정을 살펴아시고 統理衙門에 命하시어 다시 博文局의 설치에 대한 可否를 의논케 하시니 모두들 다시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미 漢城旬報에서 시작된 근대신문의 기능이 넓게 퍼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통리아문의 협관이었던 金尹植이 甲申쿠데타 이후 督辦으로 승진했다는 것도 周報 발행에 박차를 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1881년 신식병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청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을 때에 領選使로 갔었는데 中國에서 발행되던 申報·中西聞見錄東萃錄등의 신문·잡지 등을 보았으며 귀국할때에는 여러 종류의 책을 가지고 오는등 근대문화에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漢城旬報와 漢城周報는 발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의 開化에 관심을 두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開化문물의 보급과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두 개의 신문이 祉告를 통하여 밝힌 발간의 목적을 종합하면 ①국민의 견문을 넓히고 ②백성을 敎化하고 나라의 保安을 튼튼히 하며 ③下意를 上達시키고 ④廣告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漢城旬報나 漢城周報는 모두 官報的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긴 했지만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를 열었다는 점과 開化사상의 도입, 한글의 사용등을 통해 근대문물의 보급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開化派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된 신문발행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실천하게 됨에 따라 부침을 함께 할 수 밖에 없었는데 甲申政變 이후 국내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守舊派에 의해 1888년 博文局이 폐쇄되면서 漢城周報 역시 폐간되었다.

시대적 요청에 의해 대두되었던 신문이 정치적 변화에 의해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문이 도입된 뒤 신문이 가진 기능적 효과는 널리 인정되었고 이는 곧 확산되어

신문보급의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다.

1. 獨立協會의 독립신문

조선의 관할 주도권을 놓고 淸과 다툼을 벌이던 일본은 1894년의 東學혁명을 계기로 발발한 淸日전쟁에서 이김으로서 조선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침략의 야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선의 정치를 막후조종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는 때를 기다리며 야욕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뜻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그같은 內外의 정세에 대해 우려와 함께 국민적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무렵 甲申政變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던 徐載弼이 조선에 돌아와 外部顧問에 취임하였다. 그는 새로운 文化의 도입을 역설하였고 조선의 정치적 자주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그것을 위하여 徐載弼이 우선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에 獨立協會의 결성작업이었다. 官民이 함께 참여하는 私交모임의 형태를 띤 獨立協會에는 조선정부의 고위관리를 비롯 李承晩, 尹致昊, 李商在, 梁弘默등 청년 지사(志士)들이 참여했으며 民衆의 계몽 및 개화사상의 도입등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았다. 徐載弼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천명한다는 뜻으로 慕華舘과 迎恩門대신에 독립관과 독립문을 세우는 한편 신문발행을 추진하였다. 1896년 4월7일 창간호를 낸 독립신문은 순 한글만을 사용한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1면에는 광고와 논설을 실었고 2·3면에는 정치관계나 官界의 人事, 외국소식등을, 4면에는 英文으로 논설과 국내외 기자를 게재하였다. 徐載弼은 立憲君主制를 근간으로 한 自由, 民權등의 개혁운동을 주창했으나 守舊派들은 王權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매도하는등의 비난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민중의 계몽에 주력하였다. 徐載弼은 훗날 手記에서 「…公正을 期하려 나는 不偏不黨主義로 어느 편 어느 패에도 쏠리거나 기울지를 아니하였다. 나는 親我·親日 할 것 없이 두 편 政客들을 모두 罵倒하였다. 까닭은 그 두편이 너나없이 外的勢力의 傀儡노릇을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公席에서나 私席에서나 글로나 말로나 朝鮮의 놀지 않음이 朝鮮의 놀지 않음이 朝鮮爲政者의 의무임을 力說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말처럼 民利民福을 강조한 독립신문은 조선정치의 革新이나 時局匡救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1897년에는 南下정책을 추진하며 馬山에 해군 기지를 조차(租借)하려면 러시아의 흉계를 폭로하기도 한 독립신문은 民利民福에 우선적 관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漢城旬報나 漢城周報와 마찬가지로 守舊派쪽에서는 절대적인 시각에서 평가했으며 徐載弼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

독립신문을 기반으로 시대적 國亂을 타개해 나가려던 徐載弼과 뜻을 같이 하던 尹致昊가 社長 겸 主筆이 되어 李商在·梁弘默·周時經 등과 함께 계속 발간하였고 論調 역시 변함이 없었다.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한 獨立協會 회원들은 1898년 10월에 서울 종로에서 萬民共同會를 열고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官民이 同心合力하여 皇權을 견고하게 할 것 ●광산, 철도 매탄(煤炭)과 森林, 供與와 政府와 外國條約事는 각부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合洞着 啣捺印한 것이 아니면 不得施行할 것. ●全國재산은 無論某稅하고 度支部에서 同管케 하되 他部와 私會社는 無得干涉하고 豫算을 人民에게 공포 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항의 요구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獨立協會의 정치적 주도를 우려하던 보수세력들과 연계된 보부상(褓負商)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皇國協會員들이 정면으로 견제하고 나심으로서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다. 그 결과 李承晩·李商在·南宮檍·梁弘默등 독립협회의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었으며 尹致昊는 체포직전 피신하였다. 이로써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독립신문 역시 창간 3년만에 폐간되고 말았다. 독립신문의 폐간은 앞의 두 신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한글의 전면 사용 ●영문판의 설치 ●超党派的 논조유지등 특기할만 제작상의 특성을 보인데다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는 점에서 독립신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2. 民間신문의 등장

독립신문은 창간된지 3년만에 폐간되고 말았지만 민간신문의 출현을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光武 2년인 1898년에 들어서자 週報인 <협성회 회보>와 週 2回刊인 <경성신문>이 잇달아 창간되었다. <협성회 회보>는 李承晩, 梁弘默, 崔正植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것으로 시사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경성신문>은 主致昭를 중심으로 발행되었는데 商業啓發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두 신문은 발행인이 바뀌면서 제호도 변경되는데 <협성회 회보>는 <매일신문>으로 다시,「제국신문」으로 바뀌며 <경성신문>은「대한황성신문」으로, 다시「皇城新聞」으로 바뀌게 된다. 제국신문과 皇城新聞은 독립신문 이후 양대 민간신문시대를 주도하게 된다. 1899년에는 황국협회 기관지인「時事業報」와「商務時報」가 발행되었고 그보다 앞서 종교계 신문으로「그리스도 신문」과「조선그리스도인 회보」등이 발행되었으나 일반 독자들을 위한 大衆紙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1898년에 창간된 皇城新聞은 張志淵, 朴殷植, 柳瑾 등 독립협회 활동에 관여했던 지사들과 儒林의 학자들이 상당수 참여했으며 日刊으로 발행하는 동시에 國漢文을 혼용하여 中流이상의 고급독자를 대상으로 삼아 論說을 펴 나갔다.

9월 5일字 창간호에서 同紙는「世宗大王께서는 別로 一種의 文字를 創造하사 愚夫愚婦라 할지라도 未開明한 者가 없기를 期圖하셨던 것이다. 이는 즉 國文이다……箕聖의 遺傳인 文字와 先王의 創造하신 文字를 並行함이 漢字에만 저즌 中流이상의 者로서는 國文만이 文體부담은 오히려 편할 것이다.….」라고 밝혀 국한문을 쓰게 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독자층 역시 中流이상의 諸者층을 겨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皇城新聞은 乙巳보호조약을 전후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자존을 위한 正論을 펴 나갔는데 특히 乙巳보호조약이 체결되자 張志淵은 구속되고 황성신문은 정간되는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지만 유려한 문장과 비분강개한 우국충정의 내용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名文으로 남아 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噫 彼豚犬不若한 所謂 我政府大臣者가 榮利를 希覬하고 假嚇을 恒却하여 …賣國의 賦隷를 驅伴하니 彼等 豚犬不若할 外大 朴齊純 及 各 大臣은 深責할 것이 無하거니와 名爲森政大臣者는 政府의 道揆과 但以否字로 基責하여 要名의 資를 圖하였던가. 金淸陰의 裂書哭도 不能하고 鄭桐溪의 刀割腹도 不能하고 偃然生存하여 世上에 軟立하니 何面目으로 強硬하신 皇上

階下 軟對하며 何面目으로 工千萬 同胞를 軟對하리오. 嗚呼 痛矣며 嗚呼 憤矣과 二千萬 爲人奴隷之 同胞여 生乎아 死乎아 檀箕以來 四千年 國民精神이 一夜之間에 猝然滅亡而止乎아 痛哉痛哉과 同胞여 同胞여」

이글은 당시 지식층에게 일대 파문을 일으키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황성신문이 정간되고 장지연이 구속되자 대한매일신보는 「皇城義務」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 至若 放聲大哭이라는 論說 一篇은 凡爲大韓臣民者가 無不痛哭이려니와 世界 各國의 凡有公心 正義者는 皆當爲忿痛완하리니 嗚呼라 皇城記者之筆은 可與日爭月光이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황성신문의 논설이 민족적 비분강개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황성신문과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제국신문은 1898년 8월 李鍾一, 沈相翊·廉相模·張孝根 등이 매일신문을 인수, 改題한 한글 신문이었다. 역시 日刊이었던 제국신문은, 황성신문이 중류이상의 식자층을 독자로 겨냥했던 데 비해 비교적 교육정도가 낮은 일반 대중및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논지를 펴 나갔다. 따라서 논조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으나 민족의 자주, 민권을 지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제국신문 역시 日人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정간(停刊)을 당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는데, 皇城新聞과 제국신문은 大韓帝國 시절 正論을 펴며 민중의 지지를 받던 양대 민간지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신문은 오늘날과 같은 기업적 바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데다 反日 또는 민족적 자각을 부르짖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우려하던 일본의 유·무형의 압력에 가중되므로서 운영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이 민중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그같은 이유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을사보호조약을 전후해 나온 신문들로는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외에도 大韓每日申報·萬歲報·京鄕新聞·國民新聞·大韓新聞등이 있다.

1905년 8월에 창간한 大韓每日申報는 韓英合辦會社에서 발행하는 日刊신문이었다. 당시의 신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경영이나 주필을 담당했던데 비해 大韓每日申報는 사장 겸 발행인에 영국인 裵說(ErnestT·Bethell)이 취임함으로써 외국인이 발행인이 되는 최초의 신문이 되었다. 이 신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雲岡 梁起鐸이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을 담당했다. 大韓每日申報는 이 신문외에도 영어신문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와 한글판 「대한매일신보」를 잇달아 창간하여 당시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과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국내의 소식을 전달하고 일본의 統監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大韓每日申報는 대담한 필치와 정연한 논리를 내세워 당시 신문들중에서는 일약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발행인이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이 큰 보호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과 일본사이에는 英日동맹이 체결되어 있어서 영국인 裵說이 발행인으로 있던 大韓每日申報는 치외법권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大韓每日申報의 필진에는 玉觀彬·申采浩·卞 一·黃玹琚·張道斌·崔昌植·崔南善등이 참여하였고 경영문에는 梁起鐸을 비롯 林嵐正·安泰國 등이 활동하였다. 이 신문은 1907년 1월 16일字에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高宗황제의 親書를 게재하므로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즉 ●此條約은 皇帝가 認許치도 않았으며 또 親押치 않았으며 ●皇帝는 此條約을 日本이

擅自頒布함을 反對하고 ●獨立帝國을 一毫도 他國에 讓與함이 없을 뿐 아니라 ●外交權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內治上의 一件事라도 何司認准하며 ●統監府의 來駐함을 無許하고 皇帝權을 一毫도 外人에 擅行을 許함이 無하며 ●世界 各國이 韓國外交를 同爲保護함을 翼求한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므로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정책이 근거없는 침략적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경악한 統監府에서는 의정부 外事局長 李建春의 명의를 내세워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大韓每日申報는 굽히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大韓每日申報의 권위는 크게 높아졌다. 이 신문은 또한 1908년부터 官報의 게재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大韓每日申報의 권위와 명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감부에서는 부담스럽게 여겼고 마침내는 매수공작에 나서게 된다.

이해 6월 18일 裵說이 검거되자 그의 비서였던 영국인 萬咸은 통감부와 大韓每日申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서 통감부는 이 신문의 실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로인해 梁起鐸을 비롯한 주요 간부및 필진들이 퇴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大韓每日申報는 題號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내용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1910년 8월22일을 기해 韓日合併조약이 체결되자 大韓每日申報는 「每日申報」로 題號가 바뀌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天道敎를 이끌던 孫秉熙가 1906년 5월에 창간한 萬歲報는 國漢文을 혼용한 신문으로, 社長에 吳世昌, 主筆에 李人稙을 비롯 權東鎭, 李鍾一, 張孝根등이 필진으로 활동했다. 특히 萬歲報에는 李人稙이 쓴 「血의淚」란 소설을 연재소설로 게재했는데 이는 신문소설의 효시가 되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新小說史의 첫장을 연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민족지적인 논조로 일관했던 萬歲報는 天道敎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창간한지 1년만에 경영부진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天主敎界의 지원을 받는 宗敎순로 모습을 보인 「京鄕新聞」은 1906년 10월에 창간한 주간지였다. 이러한신문들의 뒤를 이어 창간된 신문이 大韓協會가 1909년 6월에 협회보형태의 일간지 「大韓民報」였다. 社長에 吳世昌이 취임했고 崔榮穆, 張孝根등이 제작 실무를 담당했다. 이 신문은 1면에 시사만화를 실어 일본인들의 갖가지 술책과 모순된 행동을 풍자, 비판했는데 이는 신문만화의 효시가 되었다.

이들 신문들이 민족지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을 강조한데 비해 親日的 경향을 보인 신문들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비호하며 매국적 언동을 서슴치 않았다.

一進會의 기관지로 1906년 1월에 창간한 國民新報는 일진회 회장이던 李容九가 韓日合邦意見書를 발표하자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호도하는등 일제의 침략적 행위를 지지하며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또한 李人稙의 萬歲報를 인수해 새로 창간한 大韓新聞은 친일파 李完用이 이끄는 內閣의 기관지적 역할을 하며 李完用 내각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펴나가는등 민족자들과는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國民新報나 大韓新聞은 당시 발행된 신문들중 親日的 경향을 보인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중적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한국 침탈을 위한 선전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언론사의 비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韓日合邦을 전후한 시기는 정치 사회적으로 國亂의 시기였고 당연히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극복을 위한 민족적 자각이 크게 확산될 때였다. 지식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혹은 육영사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의병활동으로, 또는 政治結社를 조직하는 등 나름대로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섰고 신문 역시 그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수용하며 선도자로서의 역할에 앞장섰다.

이러한 때에 일부 신문들은 오히려 그같은 시대적 역할을 외면한 채 일본의 침략을 비호했다는 사실은 초창기 우리나라 言論史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漢城旬報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언론은 연대기(年代記)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10년 8월 韓日合併條約이 체결되고 10월1일부터 朝鮮總督府가 한국에 대한 統治權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그 이전을 비록 일본이 한국의 주권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국권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시각에서 논설을 펴나갈 수 있었음에 비해 이후부터는 모든 언론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통치내에 흡수되는 제도권 언론으로 종속되는 것이다.

日帝는 총독정치를 시작하면서 結社의 해산, 집회의 금지, 언론기관의 폐쇄등을 통한 억압과 무력으로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발을 눌렀다. 그러나 잠시 숨을 죽이는 듯 하던 자주독립을 향한 국민적 염원은 마침내 1919년 3월 1일 己未年 獨立萬歲운동으로 분출되고 이는 民族自決을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충격을 받은 日帝는 武力政治에서 후퇴, 文民통치를 표방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3·1운동은 자주독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日帝로 하여금 일방적인 강압통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에따라 사회 각 부문에는 어느 정도의 文民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언론분야에서는 東亞日報를 비롯 朝鮮日報 時代日報등 새로운 신문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한일합병 이후 抗日운동을 위해 지하유인물적인 형태로 발행되었던 獨立新聞을 비롯한 新朝鮮日報·覺醒號·勞動會報등 抗日鬪爭志들이 보였던 활발한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로서는 언론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 결코 일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문발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조선총독부는 東亞日報는 朝日同化主義 단체인 大正친목회의 芮錫宗에게, 時事新聞은 親日本主義를 표방하는 閔元植에게 朝鮮日報는 巨當였던 趙鎭泰에게 각각 발행권이 허가되었다.

1920년 4월 1일에 창간한 東亞日報는 창간사(創刊사)를 통해 「…東方亞細亞무궁화 동산속에 2천만 조선민중은 一大 광명을 見하도다. 공기를 호흡하도다. 아, 實로 살았도다. 復活하도다. 장차 渾身勇力을 奮發하여 멀고 큰 道程을 健行코자 하니 그 일흠이 무엇이뇨. 自由와 發達이로다…」라고 밝히며 창간의 감격을 밝히고 있다. ●朝鮮民族의 表現機關으로 自任하노라 ●民主主義를 支持하노라 ●文化主義를 提唱하노라등 3개항을 社是로 내세운 東亞日報는 仁村 金性洙를 비롯 宋鎭禹, 張德季, 金俊淵, 徐相日 등이 경영에 참여했으며 梁起鐸, 柳 瑾이

監督으로, 李相協이 편집국장에 취임했다.

같은 시기에 출발했던 朝鮮日報는 초창기에는 경영부진으로 진통을 겪었는데 한동안 혼미를 거듭하던 조선일보의 경영은 1924년 趙鎭泰에게서 申錫雨에게로 넘어가게 되며 申錫雨는 月南 李商在를 社長에 기용하였다. 月南 李商在는 민족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人材들이 차츰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경영도 차츰 정상화되었다. 이후 조선일보의 社長에는 安在鴻·林景來·趙晩植등이 차례로 맡았고 1933년 7월에 方應模가 등장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1923년 3월에 창간된 時代日報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六堂 崔南善이 감옥에서 나온후 1922년 9월에 창간했던 주간지 「東明」의 체제개편을 통해 발행된 것이다. 「東明」은 崔南善에게 일체의 정치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된 것이었으나 이듬해 이를 日刊紙로 개편한 것이다. 秦學文·安在鴻·朴錫胤·朱鍾健·卞榮晩·廉相涉등 비교적 명망있는 인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했으나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 인하여 경영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3년여동안 발행되던 時代日報는 1926년 9월 李相協이 판권을 인수, 「中外日報」로 개칭하므로서 단명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中外日報 역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권자가 바뀌면서 「中央日報」로 다시, 「朝鮮中央日報」로 변경되는 등 변신을 거듭하였다.

3·1독립운동이후 한때 東亞日報, 朝鮮日報, 時代日報등의 민간신문들이 발행되어 民間紙 시대를 맞는듯 했으나 이중 時代日報는 재정난등으로 인하여 얼마 견디지 못하고 경영권이 바뀜으로서 日帝하의 우리나라 신문은 東亞日報와 朝鮮日報가 주도하게 된다.

물론 東亞日報나 朝鮮日報는 활발한 보도활동과 논설을 통해 사건·사고보도등은 물론 문화, 예술의 보급, 민중계몽운동등을 펴는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 나갔지만 그 한계는 어디까지나 조선총독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1926년 3월7일 東亞日報가 모스크바 國際農民會本部가 보내 온 3·1운동 기념祝電을 게재했다가 無期停刊을 당했던 것이나 베를린 올림픽마라톤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孫基禎선수의 시상식 사진에서 日本旗를 지워버린 사건으로 인해 역시 무기한 정간을 당했던 것은 당시 신문의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실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日帝가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키면서 1940년 8월에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에 대하여 강제 폐간조치를 강행함으로서 우리나라 언론은 또다시 암흑기를 맞게 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을 때까지의 기간은 軍國主義 선전을 위한 親日 언론 외에는 모두 명맥이 끊어지게 되고 당시의 지식인이라 언론인들은 親日을 위한 매국적 언동에 가담하든지 아니면 절필항 은둔생활을 하든가의 기로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망의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이다.

3. 日帝下의 言論活動

日帝下의 우리나라 언론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유·무형의 통제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취재활동이나 日帝의 식민지 정책에 반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 등에 관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엇다.

言論社이 대한 허가및 검열, 停刊및 廢刊에 관한 행정적 권한을 모두 조선총독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보도와 논평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 신문들의 보도성향이 단순한 사건보도및 문화·예술부문 즉 당시의 용어로 學藝분야의 보도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은 그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점은 민족지를 표방한 東亞日報나 朝鮮日報 역시 마찬가지였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헤아릴 수 없는 지하신문이 제작, 배포되어 독립운동에 매진하자 日帝는 언론정책을 포함한 각 부문의 통치방식을 강압통치에서 표면적인 文化정치를 표방한 회유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신문이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였다.

仁村 金性洙를 중심으로 발기한 東亞日報는 民族순임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京城紡織등의 기업경영을 통하여 財界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金性洙로서는 처음부터 운신(運身)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이념에 타협 내지는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손기정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을 계기로 무기정간 당한 후 발행을 재가하는 조건으로 완전한 親日로 선회한 것은 당시 신문이 갖고 있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처음부터 大正實業친목회를 배경으로 출발한 朝鮮日報가 親日을 표 방하며 창간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지만 결국 운영과정에서 모두 同一한 색채로 변모하게 된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더구나 東亞, 朝鮮 두 신문은 실질적으로 日帝時代의 대표적인 民間紙였지만 金性洙로 대표되는 東亞日報와 후에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方應模의 朝鮮日報는, 日帝時代라는 상황적 조건과 경영자들이 모두 정치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주·토호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경쟁적으로 親日의 대열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民衆의 기대와는 달리 反民族순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日帝와 타협해야 하는 민간신문의 경영층과 민족적 자각과 자주를 주장하는 기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었다.

日帝시대의 기자들은 계층적으로 대지주나 소작농출신이 아니라 대부분 중소지주의 자녀들이거나 몰락한 귀족, 또는 몰락한 중소지주의 자녀들이었으므로 자신의 지식을 무기로 반체제적 투재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민족언론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언론인의 역사적 사명, 그리고 일제 총독부 당국의 신문발행 허가의 저의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었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日帝당국은 신문발행을 허가하면서도 新聞紙法, 출판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제령 제7호등의 법망을 통해 표현의 대상이나 내용을 규제하는 한편 사전규제로서 미리 협조의 형식으로 주의·간담·경고등을 통하여 보도금지를 요청했고 신문이 나온 후에는 삭제, 압수, 발매금지 또는 발행정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처분을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에 대해서도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등 관계법령과 명예훼손등의 협의에 적용시켜 구금하여 체형이나 벌금을 물리는등 조직적인 탄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신문경영진 역시 경영적 안정을 앞세워 기자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보다

는 日帝총독부의 요구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기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까지도 빈번하게 생겨남으로써 기자들은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言論의 본래적 기능회복을 위한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1921년 11월 2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단체인 「無名會」가 창립된 것이나 1924년 11월 19일에 사회부 기자들만으로 구성된 鐵筆俱落部가 조직된 것은 모두 그같은 활동의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중견 언론인 48명이 모여 창립된 무명회는 문화보급의 촉진, 언론자유의 신장, 여론의 선도, 회원의 명예와 권리의 옹호및 회원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 언론인 단체였다. 동아일보는 11월 26일字 사설을 통하여 무명회의 창립취지를 격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한 검을 攻할 자 舌이며 不義한 金을 伐할자 筆이니 언론의 권위를 가진 기자의 단체는 즉 부정·불의를 驅逐하는 先鋒의 一勇敢한 기관이 아닌가… 吾人은 望하노니 그 목적에 擧함과 如히 회원의 친목은 물론이요 권리와 명예를 옹호하야 혼란한 여론을 선도하고 민중의 所向을 지칭하며 압박에 緘口한 언론을 同心同德으로 贊協扶助하야 자유를 신장하며 자유평등의 신문화를 동일한 논조와 공동한 이상으로 주창하야 조선사회에 周遍히 보급케 하고 과연 유종의 實을 擧하기로 노력할 지어다…」

그러나 초창기 無明會의 활동은 출발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자 1924년 8월 19일에 다시 열린 부활발기회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민중의 정신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신문 잡지 기자」로 한정하고 每日申報의 기자를 회원에서 제외시키는 등 성격을 새롭게 한다. 간사제였던 임원도 위원제로 바꾸고 위원 7명을 새로 선출하였다.

無名會의 활동중 특기할만한 것은 8월11일 平北 渭原 주민 학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회원인 조선일보 기자 李奭을 특파하여 9월27일 東亞, 朝鮮 양지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 1925년 4월 15~16일 이틀동안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全朝鮮 記者大會를 연 것이다.

위원 주민학살사건은 독립군이 和昌주재소를 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시비삼아 日帝 경찰이 방화와 총격으로 주민 28명을 무차별 참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전국에서 6백여명이 참가한 全朝鮮記者大會는 「…언론은 권위가 그의 생명이다. 현하 우리의 언론은 과연 어떠한 언론인가? 우리는 힘껏 그 권위를 북돋우고 그 생명의 潑躍함을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한번도 원만히 모여 보지 못했다. 원만히 모이면 반드시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대회의 권위가 여기에 있다. 만천하 언론계의 동직자들이여. 모이자. 그리하여 언론계의 권위를 신장하고 동직자의 친목을 圖하자…」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기자들의 단합과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결의문은 1. 우리는 친목과 신장, 발휘하기를 期함 2. 신문 및 출판물에 관한 현행법규의 근본적 改新을 圖함. 3. 언론집회 및 結社 自由를 구속하는 일체법규의 철폐를 期함 4. 東拓을 위시하야 현하 조선인 생활의 根底를 침식하는 각 방면의 죄상을 적발하여 대중의 각성을 促함 5. 대중운동의 적극적 발전을 촉성하기를 圖함등의 5개항인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바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帝당국의 언론탄압사태는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에 따라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기자들의

조직적 항쟁도 1925년을 전후하여 점차 가열된다. 無名會는 잡지 「개벽」의 발행정지처분에 대한 정간해제투쟁을 비롯 명예훼손죄를 적용, 기자들을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시정촉구, 언론인 폭행사건등에 대한 항의 등의 활동을 통하여 취재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鐵筆俱落部가 1924년에 결성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던 신문의 사회부 기자들로 구성된 철필구락부는 무명회와 마찬가지로 「서로 친목하며 결속하여 기자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취지로 하여 직업조합적 성격을 가미해 결성된 모임이었다. 1925년 全朝鮮記者대회를 無名會와 함께 주관했고 기자들의 처우개선, 언론자유 획득등을 위한 활동을 펴나갔다. 또한 기자들의 처우개선 투쟁과정에서 東亞日報社가 기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15명의 기자를 사퇴시킨 사태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는 등 日帝와 그 세력을 등에 업은 경영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각 지방기자단들이 조직되어 자유언론 쟁취에 나서게 되었다.

1924년 4월 東亞日報 발행인 金性洙와 사장 宋鎭禹에 대한 협박사건으로 동아일보의 권위가 실추되는 등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박춘금 사건으로 야기된 친일단체의 언론에 대한 폭력행위와 이를 묵인하는 경찰당국의 태도를 규탄하기 위한 민중대회가 경찰의 방해로 그 준비과정에서 좌절되자 같은 해 6월과 7월에 대규모 언론집회 압박 탄핵운동이 노농총연맹, 청년총동맹 주관으로 신문사를 포함한 31개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일어났다.

「우리는 언론집회에 대한 당국의 무리한 압박을 공고한 결속으로써 적극적 항거할 것」을 결의하고 언론집회 압박탄핵 민중대회 및 시위운동을 두 차례나 시도하였다가 「치안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일제경찰당국의 상투적인 집회 不許방침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고 기자가 검속되는 등 실현을 보지 못하고 무산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두번의 탄핵운동 과정에서 결의한 다음과 같은 결의문과 실행사항을 통해서, 특히 그 실행사항의 준비과정에서 기자들은 각 지방별로 결속할 기회와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결의문

言論은 生存의 表現이요 集會는 그 충동이라.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향상이 여기에 있다. 만일 우리의 언론과 집회를 압박하는 者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生存權을 박해하는 자이다. 현하의 조선총독부 당국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언론을 압박하여 집회를 억제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은 우리의 生存을 위하여 당국의 이러한 횡포를 탄핵한다.

실행사항

1. 朝鮮內 各地와 海外 필요지에서 7월 20일을 기하야 일제히 탄핵연설회 及 시위운동을 行함

1. 언론집회 압박에 대한 사실을 擧하야 세계적으로 선포할 事.

1. 우리는 언론집회의 자유를 위하야 공고한 결속으로서 최선의 노력할 事.

이렇게 해서 전국 각 지방별로 朝鮮, 東亞, 時代등 한국에 신문의 지국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지방기자단 기자동맹이 조직되었고 그중에서 몇몇 기자단은 坡長記右團(파주, 장단)

三中記者團(칠곡, 성주, 선산)같이 인근 및 지역을 연합한 기자단을 조직했다. 이것이 道別 연합체로 발전함에 따라 각 지방기자단들은 道기자단 기자동맹의 지부로 가맹하게 되는 등 조직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들 기자단들은 매년 기자대회를 가져 기자의 권익옹호와 언론신장을 꾀하며 동직자로서의 친목과 연대의식을 다짐하였다. 기자단들은 매년 정기대회와 집행위원회 및 정계 월례회를 여는 한편 걸핏하면 명예훼손, 보안법 위반등으로 기자를 구금하는가 하면 각 경찰서나 주재소가 무단으로 신문을 압류하는 행위, 그 당시 자주 있었던 日文신문의 조선인 모욕등에 대해 성토하며 언론문제뿐 아니라 東拓문제, 민족적 차별문제, 대중운동, 정치운동등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회문제등에 개입하여 농민과 노동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들의 예리한 사회의식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지방기자대회는 경찰 당국으로부터 비상한 경계를 받아 대회가 해산되고 기자가 검속되어 실형을 받으며 아예 기자대회를 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全鮮記者大會를 열자는 지방기자단의 요구가 높아가고 이에대해 소집권을 가진 無名會의 미온적 태도에 반발하여 1927년에 오면 관서 기자단의 발기로 각 기자단 연합회운동이 일어나며 서울에선 前衛記者同盟이 결성되었다.

이때 조직된 기자단으로는 1924년에 여주기자단(6월 12일 창립)을 비롯하여 全州기자단(6·20) 경남기자동맹(6월) 利原기자단(날짜미상) 高敞기자단(7·6)이 있으며 1925년에는 전남기자단(4월)과 전북기자단(4월)을 비롯하여 호서기자단(충청남북도 기자단 9·20) 함남기자동맹(11·20) 관서기자단(11·23) 영동기자단(12·1)등 道別연맹체를 비롯하여 개성기자단(6월), 安州기자단(6·25) 光陽기자단 (7·30) 청주기자단(8·1) 秀筆團(충주 각지국 기자단 8·18) 안동기우단(11·1) 7군기운단(11·1) 진주기자단(11·13) 咸平筆陣團(11월) 안성기자단(11·29) 김제기자단 (11·29) 하동기자단(12·16) 김천기자 구락부(12·14) 안동기자단(12·28) 금릉기자구락부(12·28) 금릉기자구락부(12·28)등이 창립되었다. 이밖에도 창립날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洪原의 기자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해산되었으며 利原기자대회가 열렸다는 기록과 義州및 부산기자단의 정기총회와 월례회가 열렸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1926년에 도별연맹체로 황해도기자단(1·26), 국경기자연맹(6·20) 慶東기자동맹(6·27)이 결성된 것을 비롯 坡長記友團(6·12) 三中기자단(왜관, 칠곡, 성주, 성산(6·27) 嶺西기자단(철원, 김화, 평강, 이천, 회양(12·30) 등 몇몇 인근지역 연합조직체가 창립, 발기되었고 각 지역조직으로는 하동(1·1), 황주(1·3), 固城(1·15), 경주기운단(1·21), 文川(1·22), 인천(1·22), 信川(1·25), 안변(2·16), 영흥(2·19), 상주기자동맹(2·22), 강경기자단(4·12), 춘천(5·2), 北滿기자단(5·16), 성진(5·21), 북청(5·23), 나주(5·31), 과주기우회(6·8), 군산(7·15), 안악(7·28), 경성사회기자단(11·3)등이 창립되었으며 역시 날짜 미상이나 통영기우회(1·3), 이리기자단(1·22) 강계기자단(9·27) 용암포기자연맹(12·10)등이 긴급총회및 임시총회를 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해보다도 조직면에서 활발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같은 기자단의 결성은 1927년과 28에 계속 이어져 취재기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조직되기에 이른다.

한편 이들 기자단은 매년 정기적인 형태로 기자대회를 열었는데,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긴급총회나 임시대회가 열리는 등 기자들의 결속된 힘을 모아 대처하였다. 대부분의 기자대회는 1925년 4월 15~16일에 열렸던 全朝鮮기자대회의 강령에 준하여 우리는 일치한 보조로써 언론의 권위를 발휘하기를 기함 우리는 상호협조로써 동직자의 친목을 꾀함을 강령으로 내걸고 언론권위에 관한 건, 지방언론기관과 지방언론에 관한 건, 기사통신에 관한 건, 언론기관과 대중운동 촉성에 관한 건, 농촌문제에 관한 건, 본사와 支·分局에 관한 건, 조선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건, 농촌문제에 관한 건,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에 관한 법규의 개정에 관한 건 등을 공통된 議題로 삼아 진지한 토론을 벌이며 지방에 따라 그 지방의 특수한 현실이 등장하여 일치된 보조로써 당국에 항의와 개선을 요망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벌였다.

1927년의 경우 각종 행사에 대한 기자의 방청금지, 기자에 대한 순사 미행, 기자감금등의 횡포에서부터 친일단체인 三九會의 기자폭행, 조선공산당사건을 둘러싼 고문문제, 비공개재판 문제등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기자단들의 항의, 경고가 빗발치기도 하였다.

함남기자대회, 황해기자대회 전북기자대회의 경우는 경찰과 큰 충돌을 빚어 기자들이 검거당하고 징역까지 받게 되자 이를 탄핵하는 시위와 상점들의 동정 撤市까지 벌어지는등 험악한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6월 27~28일 이틀동알 열린 전조선변호사회의에서는 新聞紙法, 출판법의 개정과 함께 보안법과 大正8년의 制令 제7호 및 集會取締令폐지를 요구하는 등 사회단체들의 측면지원도 조직적으로 벌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문에 대한 탄압강화와 민간 신문경영인들의 親日경향이 표면화되면서 기자단 및 기자들의 저항활동은 침체 상태를 맞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하였을뿐 抗日정신이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실증하는 사건이 바로 1936년 8월25일 동아일보 기자들의 일장기 말소사건이었다.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 부문에서 우승한 손기정선수의 시상식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 버린 채 신문에 보도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회복하자는 기자들의 노력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아일보는 279일동안 정간당했으며 사진 변조작업을 맡았던 이길용, 신낙균, 서영호를 비롯, 주필 김준연 편집국장 설의식, 신동아부장 최승만, 사회부장 현진건 및 사장 송진우등 13명이 사직하게 되는데 이는 日帝下 우리나라 언론계 최대의 수난이며 동시에 기자들의 저항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第二節 解放後의 言論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가 日帝로부터 해방된 것은 자주독립을 염원해 오던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감격에 빠지게 하였다. 비록 38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美軍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족의 통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日帝의 식민통치와 같은 힘에 의한 강압정치는 사라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로운 기운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부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연합군에게 항복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던 우리말 일간지

는 每日新報 하나 뿐이었다. 東亞日報와 朝鮮日報가 1940년 8월10일 동시에 폐간된 뒤로 每日新報는 그대로 발행을 계속했었으나 종이를 비롯한 각종 물자부족으로 減面을 거듭해 타블로이드 2쪽 짜리의 좁은 지면만으로 근근이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8월 15일자 每日新報는 총독아베(阿部信行)의 「敗戰論告」를 게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오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완곡한 방법으로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의 「敗戰論告」는 한국민에게 역사적 해방의 감격을 전달하는 보도라기보다는 패전한 총독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데 그쳤고 이틀날인 8월16일자부터 일본의 敗戰에 따른 우리나라의 운명을 예시하는 역사적인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방후 본격적인 언론자유화시대를 맞은 것은 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뒤 美軍政廳이 다음과 같은 언론정책을 천명하면서부터였다.

美軍이 진주해 온 후인 현재 朝鮮에는 문자 그대로의 절대한 언론자유가 있는 것이다.

美軍은 조선사람들의 사상과 의사발표에 간섭도 안하고 방해도 안 할 것이며 出版에 대하여 檢閱같은 것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언론과 신문의 자유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大衆의 論을 振起하고 또한 輿論을 昭昭하게 알리는 데 그 직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美軍은 언론 자유에 대하여 취재를 방해하고 검열을 하려 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정당한 의미의 治安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는 별도로 강구하려 한다.(1945년 9월 12일자 每日新報 하지 중장 기자회견 기사)

美軍政은 이러한 언론정책에 따라 法的으로도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9월 20일쯤 군정장관 아놀드는 日帝下에서 한국인을 억압하던 각종 법령중 출판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12개를 폐지하고 기타 법령에서도 인종·국적·종교·정치·사상상의 차별적인 조항은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의 指令 제5호를 공포하였다. 이어서 10월9일에는 법령 제11호를 공포하여 출판법, 보안법, 예비검속법 등 7개 법률을 폐지한다고 밝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없이 보장하겠다는 미군정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은 1945년 10월 30일에 공포한 軍政法令 제19호 5조에서 「新聞 기타 출판물의 등기」를 규정함으로써 신문발행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일제치하에서 신문발행의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던 新聞紙法은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정법령 제19호는 이를 「등기제」로 하였으므로 두 법은 서로 상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군정법령 제19호에서 등기제를 규정할 때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던 신문지법은 당연히 폐기시켜야 옳았으나 군정당국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군정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어쨌든 군정법령 제19호가 공포될 무렵부터 신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종이가 부족했고 경제적인 여건도 나빴던 탓에 신문의 수는 늘어난데 비하여 발행부수는 많지 않았다. 1947년 9월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京鄕新聞이 6만부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였고, 두번째로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서울신문이 5만2천부였으며, 그밖의 신문들은 4만부 또는 그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5~6천부밖에 발행하지 못하는 신문들도 많았다. 이와함께 출판사의 숫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1947년 3월 조선출판문화협회가 창립될 무렵에는 약 1백50개의 출판사가 1천여종에 달하는 출판물을 발간했고 이해

말에는 5백81개 출판사가 있었으며 1948년에는 7백29개의 출판사로 늘어나 1천2백여 종의 책들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서 일간신문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每日新報社를 비롯하여 일본인들이 발간하던 京城日報와 朝鮮新聞, 그리고 인쇄소로는 近澤印刷所등이 있을 정도였다.

전국 각 지방의 도청소재지에도 일본어 신문들이 하나씩 발간되고 있었으므로 지방에서는 이들 일간지의 시설을 접수하여 전국에서 새로운 신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말 단행본을 인쇄할 수 있는 곳도 서울에서는 漢城圖書, 協進, 서울日新, 李英社, 大東, 靑丘, 高麗등 몇 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새로 창간되는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은 부족했고 종이도 구하기 어려워 우선 등사판에 인쇄한 빈약한 신문과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通信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일본「同盟通信」의 서울지사에 근무하던 기자들은 8월17일부터「해방통신」을 발행하여 우리말 통신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일제시대에 東亞日報와、朝鮮日報에 근무하던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9월4일에는 종로 장안빌딩에서「조선통신」을 창간하였다. 그러나 통신은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통신으로 신문의 기능을 다할 수는 없었으므로 문제는 신문발행을 뒷받침할 만한 시설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월13일 朝鮮人民報가 모습을 보였고 19일에는 解放日報가 창간되었다. 지방신문으로는 부산의「民主新報」光州의「호남신문」이 창간되었다.

또한 10월에는 서울에서「自由新聞」「新朝鮮報」등이 창간된 데 이어 전남의「여수일보」경기도의「大同新聞」와「大衆日報」「高麗時報」등 지방지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어 日帝에 강제 폐간됐던 朝鮮日報가 11월에, 東亞日報는 12월에 각각 복간되었으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每日申報가「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꿔 발행된 것이 역시 11월이었다.

이때부터 6·25가 일어나기 전인 1950년까지의 기간은 가히 亂立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문창간의 홍수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신문들로는 앞에서 언급한 신문외에도 自由日報, 慶南新聞, 中外新報, 三南日報, 合同通信, 釜山日報, 京鄕新聞, 嶺南日報, 世界日報, 國際新報, 群山新聞, 國都新聞, 國際日報, 新民日報, 우리신문, 民國日報, 화성매일신문, 仁川新聞, 聯合新聞, 經濟通信, 貿易通信, 平和新聞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문들이 지방에서 제각기 간판을 걸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신문들이 창간됨으로써 언론의 量的 팽창은 급속하게 이루어진 반면 경영이나 質的인 면에서는 혼미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한 무렵의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으로 혼란기였으며 신문 역시 기업적 바탕이나 자질을 갖춘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시기였으므로 신문 경영 역시 영세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신문들이 겪은 또 하나의 문제는 사상적 갈등이었다. 日帝時代가 親日논쟁의 시대였다면 해방 이후는 左·右翼간의 사상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혼미를 거듭하던 때여서 신문들도 社主나 제작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성향에 따라 左·右 또는 中道로 구분되는등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은 좌익계열이었는데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朝鮮人民報는 京城日報에 근무했던 일부 좌익계 한국인 사원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것이며 「해방일보」 역시 朝鮮共產黨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극좌익 계열이었다. 이어 中央新聞大衆, 서울뉴스, 革命新聞, 文藝新聞 등이 잇달아 창간되었으나 朝鮮人民報, 해방일보, 中央新聞등이 좌익계열 신문을 주도하며 우익계 신문들을 압도해 나갔다.

같은 무렵에 우익진영에서는 張道斌의 民衆日報(9월 22일)를 필두로 東新日報(10월 4일), 自由新聞(10·5), 新朝新報(10·5)등이 창간되었으나 영향력 면에서 좌익계 신문들을 능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해 11월 23일 朝鮮日報가, 12월 1일에는 東亞日報가 각각 복간되고 이와함께 11월 25일에는 극우紙 大東新聞이 창간되면서 비로소 우익계 신문들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앞서 언급한 신문들이 잇달아 창간되었다.

朝鮮通信社가 1946년에 발행한 朝鮮年鑑에는 당시의 상황을 「百出하는 정당들의 혼돈상과 발을 맞추어 對立抗爭의 예봉을 전개하고 나아가서는 다시 기관지에서 선전삐라적 역할로 전락하여 상대편 정당과 지도자의 中傷까지 邁進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신문들 역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좌·우익, 中道계로 分化되어 있는데서 나타난 사상적 대립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日帝時代 신문의 성향 또는 논조가 親日 내지는 民族紙로 구분된 것에 비해 해방후에는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다시말하면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등이 당시 남한에서의 기반확보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문들 역시 사상적 성향에 크게 영향받고 있었던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직후 각 분야가 모두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官運亨을 중심으로 한 建國準備委員會가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日帝가 물러가고 난 힘의 공백상태에서 정치기반의 조직과 함께 신문을 장악하려 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을 실증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建國準備委員會는 呂運亨의 대중연설과 함께 8월 16일 재빨리 每日申報社를 접수하여 「해방일보」를 발행하려 했으나 일본헌병대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해방후의 우리나라 언론은 이같은 정치, 사회적 상황과 연계되어 움직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론을 둘러싼 대립 역시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1945년 12월 17일 모스크바 三相會談에서 信託統治 결정을 내린뒤부터 나타난 좌·우익 신문에 대한 테러사건이 잇달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같은 대립의 可視的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29일에는 좌익계열의 朝鮮人民報가 피습당했고 며칠후인 1946년 1월 7일에는 극우익계열의 大東新聞이 좌파 청년들에게 습격당했다. 또 1946년 5월 12일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직후 獨立戰取國民大會에 참가했던 군중들이 좌익계열인 朝鮮人民報와 自由新聞, 中央新聞등을 습격, 인쇄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1947년에도 언론기관 또는 언론인에 대한 테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1946년부터 1947년 8월까지 사이에 테러단에게 습격, 파괴된 언론기관은 11개소, 피습당한 언론인은 55명, 그리고 당국에 검거된 언론인이 1백5명이나 되었다.

美軍政 당국은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자 언론에 대한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바꾸어 법적, 행적적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이 시작된 지 1년도 채되기 전에 1946년 5월4일 군

정법령 제72호「軍政에 대한 犯罪」를 공포항 유언비어의 유포나 포스터, 삐라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령은 특히 정당끼리 自派의 주장을 내세우고 반대파에 대해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벽신문」을 규제하자는 목적도 있었으나 군정에 관한 비판적 태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11월 10일 미군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每日申報에 대해「재정조사」라는 이유를 내세워 정간명령을 내리면서 언론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던 미군정은 법령 제72호를 공포한 열흘 뒤인 5월 15일 極右紙로 알려진 大東新聞에 대해 3주일간 정간처분을 내렸다. 하지 중장은 大東新聞의 정간에 대해「어떤 신문은 살인 등 폭행을 선동하고 살인행위를 찬양했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내가 여러번 지적하여 온 바와 같이 나의 근본 목적은 南部朝鮮에 있어서 완전한 出版自由를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倉卒히 이 자유를 습득하고 此를 남용함이 없이 운용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사업이 아닌 것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南部朝鮮의 신문은 이 자유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점차 원숙의 도를 가하고 점차 이지적으로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문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언론에 있어서 종종 권리를 남용하여 연합국의 일원을 비방하고 毁損罪에 대한 근본적 法規를 침범할 뿐 아니라 때때로 대중의 증오심을 자극하야 살인등의 폭행을 선동하고 살인행위를 찬양하는 바 있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원내 출판의 自由라는 것은 거기에 상응한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가 一貫的으로 대중을 기만선동하고 범죄를 유도하며 자유를 남용하고 列強을 비방하는 것은 결코 이 의무를 수행하는 소이가 아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이와같은 행동은 법정에서 此를 처단할 것이로되 조선이 完全獨立할 때까지는 일일이 법정에 의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주둔미군사령관의 자격으로서 이 犯則者를 처벌한다는 불쾌한 일을 감행하게 된 바이다. 수주일간 여기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한 신문사는 자유신문단체의 일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추호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나는 금일 大東新聞을 3주일 停刊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동시에 만일 다시 續刊된 후에도 여전히 그 정당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그 태도를 개선치 않는다면 영국히 停刊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동시에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 보도나 社說에 있어서 권리를 남용하고 비방적이고 또 부정확한 기사를 취급하는 다른 제 신문에 대항 정식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모 신문에 있어서도 권리를 남용하고 고의로 부정확한 기사를 취급하는 등의 행동을 일체 정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번 정간처분은 다른 특수한 위반에 대하여 취하게 된 合法的 처분과는 다르며 또 엄연히 구별하여야 될 것을 말한다.

이 특별담화에는 당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미군정 당국이 軍政에 대해 비난하거나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관한한 언론이라 하더라도 무한정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조선총독부나 미군정 그리고 건국 이후의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언론정책의 기조는 그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어쨌던 특별담화가 발표된 3일 뒤인 5월18일부터는 조선공산당 기관지 解放日報에 무기정

간 처분을 내렸음 5월 29일에는 군정법령 제88호「新聞 及 기타 정기간행을 허가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신문발행을「등기제」에서「허가제」로 환원한 것이다.

군정당국은 또한 1947년 3월26일 공보부령 제1호로「定期刊行物 허가·停止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정기간행물의 허가를 당분간 신규로 내주지 않도록 하여 군정법령 제88호의 허가제를 더욱 경직되게 운영하게 되었다. 이어 이해 9월 19일 立法議院 제143차 회의는「신문기타 정기간행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군정법령 제88호와 공보부려 제1호를 통합하여 정기간행물에 대한 통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은 全文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제도화하고 벌규 또는 體刑의 벌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군정기간 동안 우리나라 언론계는 잠시나마 가장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기도 했었던 반면에 언론규제의 입법이 시도되었고 잦은 언론인 구속과 테러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등 희망과 갈등이 교차한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第三節 建國後의 우리나라 言論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고 사회 각 분야가 뿌리내림을 시작하였다. 언론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남한에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좌익계열의 신문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며 존속한다 하더라도 세력이나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해방후에 겪었던 이념적 혼란은 진정되고 사실 전달과 비평이라는 신문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나라의 현대언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역시 격동의 시기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언론은 6·25라는 전쟁을 겪게되며 제1공화구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對獨裁투쟁을 펴나가는 한편 동시에 권력의 통제에 의해 언론이 무력화(無力化)되는 아픔을 겪는 등 영욕이 교차되었을 뿐만 아니라 言論이 企業化해 가는 또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近·現代史가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기였던 만큼 그 상황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言論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本章에서는 주요筆禍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이 겪어온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美軍政의 언론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정부는 1948년 12월「광무신문지법」과 군정법령 제88호를 폐기시키고 대신「新聞紙法」을 제정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신문지법은 공보처와 법무부가 공동 기초한 것을 법제처가 종합하여 만든 것으로 전문 32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거센 반발을 보여 국회에 넘어 가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것은 정부와 언론계가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심각하게 대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정부는 48년 9월13일 第一新聞을 정간시키는 동시에 부사장 金正炯과 편집국장 嚴興燮등을 체포하였고 이틀뒤인 9월 15일에는 朝鮮中央日報를 정간시키는 동시에 발행인 李達永등 7명을 구속하고 신문에 대해서는

무기정간 처분을 내렸다. 또한 18일에는 世界日報를 정간시켰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國民新聞과 大韓日報를 폐간시켰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신문에 대한 정부의 견제는 사회혼란을 막으려는 당국의 필요에 의한 조치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을뿐 권력의 필요에 의한 개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6·25 이후부터는 권력과 언론의 대립과 갈등에 의한 정치적인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탄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52년의 이른바 「발췌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으로 통과되고 자유당 정권에 의한 이승만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가 표면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9월 25일 東亞日報가 「金大運조서 발표사건」을 보도한데 대해 공보처에서 이 기사가 사실무근이므로 취소기사를 게재할 것을 東亞日報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東亞가 이를 묵살하자 편집인 高在旭과 취재기자 崔興朝를 소환한 끝에 광무신문지법과 형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권력과 언론과의 정면대결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끝에 기소된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으나 일제시대때부터 신문을 통제하던 근거가 되던 광무신문지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행되던 신문은 國際新聞, 民主新報, 釜山日報, 聯合新聞, 京鄕新聞, 東亞日報등 6개였으며 合同通信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언론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52년 5월25일 京鄕新聞이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했고 東亞日報의 高在旭이 구속되었으며 朝鮮日報 주필이며 부산분실 임시책임자였던 洪鍾仁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또한 55년 3월15일 東亞日報는 誤植사건으로 인해 17일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당한 끝에 4월16일 이승만대통령의 개입으로 정간이 해제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일반에서는 직·간접으로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높았는데, 이는 당시 이승만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자유당 정권이 여러가지 무리한 방법으로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냈고 이에대해 언론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정간사건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55년 9월14일에 일어났던 지방신문 大邱每日新聞의 테러사건이었다. 전날인 9월 13일 주필 崔錫采가 쓴 사설 「學徒를 道具로 이용하지 말라」를 비롯 中洞橋 붕괴사건등의 보도를 통하여 慶北道警과 자유당 경북도당의 불만을 사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자행된 사건이었다. 더구나 테러사건 사흘 뒤인 8월 17일 대구경찰서는 사설 집필자인 주필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므로서 천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는등 전국적인 문제로 크게 확대되어 나갔다.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격렬한 논쟁속에서 최석채는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해방후 언론의 필화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첫 경우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파문을 몰고 온 것이 京鄕新聞 폐간사건이었다. 자유당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경향신문에 대해 견제의 기회를 노린던 자유당 정권은 1959년 2월 4일자 「餘滴관예 실린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기사를 빌미로 사장 韓昌愚와 집필자 朱耀翰을 구속하는 한편 美軍政法令 88호를 근거로 같은 해 4월 30일字로 폐간조치를 취했

다. 이날 경향신문사에 전달된 「경향신문 발행허가 취소에 관한 건」이란 통고서에는 경향신문의 폐간이유를 ①1월 11일字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政界의 혼란을 조장하였고, ②2월4일字 「餘滴」란을 통해 허멘스 교수의 「다수의 暴政」이란 논문을 견강부회하여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폭동할 것을 선전하였고 ③2월 19일字 3면 「사단장은 기름 팔아 먹고」라는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④4월 3일字 조간 「간첩 河를 체포」라는 기사는 당국의 게재금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게재함으로써 앞으로 간첩 河某와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고, ⑤4월 15일字 석간에 李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國家保安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保安法改正도 反對」라는 제목으로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보도하였다 라고 밝혔다.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경향신문 폐간 사건은 국내외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政界와 언론계, 문화계등에서는 큰 반발을 보였는데, 民主黨측은 「언론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院內·院外·法廷의 3개 투쟁대책을 세우는 등의 정치공세로 나왔고 전국변호사협회도 이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했으며 尙燮을 비롯한 33명의 文人들도 경향신문폐간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편집인협회에서는 「民主史上 큰 치욕」이라고 규정하고 폐간의 철회를 요구했으며 서울신문을 제외한 각 신문도 사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미국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의 「非友好的이며 非協調的」인 태도라고 비난하며 內政간섭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강경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로마교황청을 비롯 미국, 영국, 일본등 각국의 언론들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일단 폐간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위한 법정투쟁을 계속하면서 투쟁을 계속했다.

이에대해 자유당정권은 끝내 폐간조치를 강행했으나 4·19직후인 1960년 4월 이승만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하게 되자 그달 26일 오후 大法院이 폐간조치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향신문은 다시 복간되었다.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대의 파문을 일으킨 경향신문 폐간사건은 당시의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신문의 비판기능과 부패한 정권의 언론탄압이라는 첨예한 요소가 갈등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경향신문사건은 해방이후 우리나라 언론계와 정부간의 대립적 마찰관계를 실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같은 관계는 民主黨정권이 들어선 제2공화국시절의 잠시동안을 제외하고 3공화국에서부터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형태로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4·19를 계기로 들어선 民主黨 정부는 언론에 관한한 불간섭적인 태도를 견지했는데 1960년 「신문·정당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신문, 통신등 정기간행물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기간행물은 내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양식에다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당국에 접수시키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등록제가 실시된 지 8개월 후인 1961년 2월말 현재 국무원사무처가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4·19전에 7백9종이던 정기간행물이 1천5백94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4·19이전에 41종이던 일간지가 1백24종이 되었고 週刊은 1백

36종에서 5백13종으로, 일간통신은 14종이던 것이 2백85종으로 늘어났다. 4·19이전에 비해 日刊은 4배 이상, 주간은 4배, 일간통신은 무려 20배가 넘는 증가를 보여 극도의 난립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신문, 통신, 주간지등이 급증한 것은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된데다 앞으로 또 다시 정기간행물에 대한 발행의 제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신문발행권을 하나의 利權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처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나 양식도 없이 또는 기업체제나 인적구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명예욕이나 악질적인 기업의도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似以非 언론도 많이 나타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4·19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사이비 언론을 가리켜 「4월 신문」이라고 비꼬는 말도 있었고 「新聞亡國論」의 소리까지 나오는 등 언론사의 亂立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 기간은 모처럼 언론자유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점에서는 긍적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언론계 스스로 그같은 자유화를 수용하고 여과시킬 수 있는 자정기능을 키우지 못함으로써 언론사의 난립에 따른 역기능의 현상까지 함께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5·16군사혁명과 함께 등장한 國家再建最高會議는 5월 23일字로 布告 제11호를 공포했는데, 4개항으로 된 이 포고는 신문과 통신을 발행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등록사항을 위반한 간행물은 이를 취소할 것이며 당분간 신규등록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 포고령에 따라 서울에서는 일간지 49개, 통신 2백41개, 주간지 3백24개가 무더기로 등록취소 당했고 지방에서도 일간지 27개, 통신 64개, 주간지 1백29개가 등록을 취소당했다. 건국 이후 행정권에 의해 실시된 최대의 언론계 정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치로 인해 일간신문 76개, 통신 3백5개사가 폐간당한 것이다.

신문은 윤전기 및 조판시설이 없는 것이 정비대상이었고 통신은 체신부장관의 무선시설 허가를 얻어 설치한 송수신장치와 이에 따른 외신계약 및 국내 각사와의 전재(轉載)계약을 완비한 경우에 한해 존속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무더기 구속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5월 25일 前方계엄사령부 보도처는 관내에서 사이비기자 70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발표했고 서울과 경기지구 계엄사령부는 공갈혐의로 기자 3명을 구속했다. 또한 28일과 29일에는 경남지구에서 1백20명의 기자를 비슷한 혐의로 구속하는 등 기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5·16후부터 그 다음해 6월 22일까지 당국에 구속되거나 재판에 회부된 기자의 수는 무려 9백60명이나 되었다. 군사정부는 언론기관의 정비와 함께 사이비 언론인을 숙청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으로, 정부의 공보기구를 확대하여 公報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언론에 대해서는 立法을 통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려 하였다. 공보기구 확대는 6월22일 公報部 직제를 공포하면서 내각수반 張都暎이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또 하여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솔직 신속히 알려 국민의 정부시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대통령직속의 公報處로 출발했던 공보기구가 1956년 2월에 公報室로 되었다가 4·19후에는 독립된 기구자체를 없애고 국무원사무처에 통합시켰으나 군사정부는 이를 部로 승격시킨 것이다. 이는 정부의 홍보활동을 쇄신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의 홍보기능이 강화되므로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환경이 점차 축소되며 각종 정보의 정부통제가 강화

되는 역기능적인 현상도 함께 드러내기도 했으며 3공화국에서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언론 상황은 유사한 형태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언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1926년 6월28일 25개항으로 된 「言論政策」이 발표되었으며 7월 31일에는 언론정책 시행기준이 공포되었다.

언론정책과 그 시행기준은 우리나라 언론기업사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준이랄 수 있는데, 주요내용은 같은 신문이 朝刊과 夕刊을 함께 발행하던 것을 철폐하고 朝·夕刊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單刊制를 실시한다는 것과 일요일의 휴간 일간신문의 시설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 시행기준을 ㅇ언론인 단체구성 ㅇ單刊制및 증면 ㅇ일요지 간행, ㅇ통신사 정비 ㅇ일간신문의 시설기준 ㅇ記者 보수기준 ㅇ지사·지국의 취재 ㅇ用紙대책 ㅇ시설자금 융자등 10개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언론의 구조와 골격을 새로 개편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행기준이 적용된 이후 언론은 기업으로서의 경영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신문발행이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부는 실질적으로 「허가사항」처럼 운용하여 새로운 신문의 출현을 극도로 억제한 데다 기존 신문사들은 새로운 경쟁신문이 출현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여건 속에서 강력한 카르텔 체제를 형성함으로서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기업이 점차로 안정되고 대형화하게 된 것은 당시의 그같은 언론정채과 무관하지 않으며 國家再建最高會議가 수립한 언론정책은 정책 발표 이듬해인 1963년 12월 12일에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다.

언론기업은 당장 신문용지 수입의 관세율이 30%에서 5%로 인하되는 등의 특혜를 비롯 각종 유·무행의 지원이 계속 되므로써 신문의 경영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그와 반비례하여 신문의 논조는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언론사의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경영규모가 커짐으로써 재정적으로 취약한 군소 언론이 나타나기 어렵게 되어 경영의 수지는 향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언론통제는 일선기자들이나 제작간부들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기교적인 방식으로 변모한다.

이때 당시의 언론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朝·夕刊制를 병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공보부장관 李元雨는 서울에서 발행되던 일간신문 발행인들을 불러 장시간의 협의를 가진 끝에 조·석간의 비율을 3대3 同數로 하도록 종용했으며 그 결과 朝鮮日報, 한국일보, 大韓日報등이 조간으로, 東亞日報, 京鄕新聞, 서울신문은 석간으로 발행하기로 잠정적으로 조정되었으나 실제로 조정된 것은 한국일보 서울신문이 조간으로 조선, 동아, 경향, 대한이 석간으로 발행되었다.

5·16혁명후 한동안 軍政기간을 거친 우리나라는 혁명주체들이 그대로 民政에 참여하면서 제3공화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朴正熙대통령을 정정으로한 공화당 정권은 軍政기간동안의 언론계 정비와 연계적인 시각에서, 「언론의 책임」론을 강조한다.

이후 언론과 정부사이에는 단발적으로 마찰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언론의 경영이 점차 기업화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사의 규모가 커지고 경영상으로 안정을 다져나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편집권보다는 경영이 우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신문사들이 월간지나 주간지 또는 방송을 새로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5·16직후

언론기관의 정비로 시설이 미비한 일간지들이 한꺼번에 등록취소된 후로 일간지의 신규등록은 한동안 중지되었으나 1963년부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1964년에 日曜新聞社가 現代經濟日報를 10월12일에 창간하였고, 65년에는 종합일간지 新東亞日報(5월6일)와 中央日報(10월22일)가 창간되었고, 한국일보는 69년 스포츠전문지인 日刊스포츠(8월15일)를 창간했다.

60년대를 거치면서 일간신문사들이 주간지나 월간지 또는 그밖의 사업확장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각 사간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自求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과 함께 사세확장을 통한 신문의 이미지향상 등 경영적 측면이 강조된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사회적 변화가 닥칠때마다 수난을 겪게 되는데, 5·16이후에 나타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72년 유신체제를 시행하던 무렵에 나타났다. 공산당 정권은 출범 당시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와 독재쪽으로 기울어갔고 이에대한 학생·지식인등의 반발이 표면화되었다. 언론 역시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언론자율정화, 언론기관의 통폐합, 기자들에 대한 프레스카드 발급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통제방식이었다. 유신 한 해전인 1971년 12월 전국의 일간신문을 비롯한 주간지, 방송, 잡지등의 경영자단체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종용에 따라 각 단체별로 「言論自律에 관한 결정사항」을 채택하고 체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채택했다는 이 결정은 사이비기자의 일소, 언론인 급료의 현실화등 언론계의 고질적 병폐였던 요소들은 없앤다는 긍정적인 일면도 있었지만 언론인들이 정부가 발급하는 「프레스카드」(報道證)를 소지해야 하는데 대해서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행되었다.

1972년에 大邱日報와 大邱經濟日報가 각각 3월 30일과 4월 1일에 자진 폐간 형식으로 문을 닫았고 이듬해인 1973년에는 韓國經濟日報(3월28일) 同和通信(3,31) 大韓日報등 중앙지의 폐간과 함께 大田日報와 中都日報의 통합(5·25) 全北日報, 全北每日, 湖南日報의 3사 통합(6·1), 경기일보, 京畿每日, 연합신문의 3사통합(p.1)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一道一社의 방침으로, 이때 통합되지 않았던 지방신문은 1980년 12월에 또 한차례의 통폐합 조치를 단행해 제5공화국 출범당시에는 10개 지방신문과 서울의 6개 종합일간지 및 경제지 그 스포츠전문지 1, 통신 1개사, 영자지 2개 등이 발행되었으며 공영방송체제를 도입한 KBS, MBC등 TV, 라디오 방송및 종교 복음 전달만으로 기능을 제한한 기독교방송(CBS)이 전파매체로 존속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1988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에 이르러 언론정책은 다시 개방쪽으로 전환되었으나 노출되고 있는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第四節 言論團體의 결성과 변천

한국언론은 발생사적으로 보아 순수한 정보교류의 기능보다는, 열강의 侵奪에 대한 저항과 自主를 목표로 국민을 啓導하려 했다는 목적성이 갈등이 있었다. 독립신문은 창간사에서 신

문발행의 목적이 取利하랴는게 아니며,「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사사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 신문에 說明할 터이라」고 밝혀 권력과 金力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선언하며 활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신문은 초기에는 러시아나 일본등 외국에 대해 저항했으며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정치권력과 여러 형태로 마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언론계 내부에서는 서로간에 힘을 합쳐 언론자유수호및 신장, 언론기업의 성장을 위한 공동보조, 언론인의 권익옹호, 언론인 스스로의 자질향상, 외국언론과의 교류등의 활동을 하기위해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언론단체로는 1898년 매일신문, 皇城新聞, 제국신문등이 창간되면서 결성된 新聞社親睦會를 들 수 있으며, 일제시대에는 기자들의 모임인 無名會나 鐵筆具樂部등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해방후 한때 혼란기를 거치던 언론계는 6·25로 인해 일시 부산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기자들은 1950년 12월 7일 한국신간기자협회(초대회장 吳余植)를 창립했고, 51년 4월 8일 全國編輯記者會와 10월 1일 大韓新聞協會의 발족 등이 잇따랐으나 당시의 사회적 여건등으로 인해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격적으로 언론단체가 결성된 것은 1957년 1월 11일 소장언론인들의 연구친목단체인 寬勳클럽의 창립과 같은 해 4월 7일 韓國新聞編輯人協會가 구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편집인협회가 창립된 두 달쯤 후인 6월 27일 韓國日刊新聞發行人協會(후에 新聞協會로 개칭)가 결성되었고, 7월 11일에는 韓國通信協會가 결성됨으로써 주요 언론단체가 잇달아 창립되었다.

그러나 언론사들이나 편집간부들이 회원(사)으로 참여한 단체들이 결성된 것에 비해 일선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단체를 결성한 것은 1964년 8월 17일에 건립한 韓國記者協會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언론단체의 활동은 초기에는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동했지만 점차 言論이 기업화하고 각 부문의 활동이 分業化, 전문화함에 따라 각 단체의 활동은 個別化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대략 6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

언론사의 경영이 점차 기업화해감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은 편집권과 경영권의 대립적 관계였다. 언론사의 경영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지타산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편집권이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기자들은 스스로의 권익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제도적인 장치로서 법에 의해 급료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자 勞動組合의 결성을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言論社중 기자노조가 처음으로 결성된 것은 1959년 6월17일 聯合新聞의 기자등 사원 3백여명이 선언문 강령, 규약등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

이어 6월 21일에는 전라남도에서 발행되던 5개 일간지와 3개 주간지 기자들이 각각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全南記者勞組聯合會를 결성하고 기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펴 나갔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계 일부에서 시작된 노동조합결성은 정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언론상

황이 변화함에 따라 더이상 확산되지는 못했으며 결성된 일부 노조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한채 해체되고 말았다.

이후부터는 기자노조의 결성은 언론계에서 금기사항처럼 여겨졌으며 70~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기자들과 언론사 경영진 더 나아가서는 정부권력과의 심각한 마찰요소로 부각되었다.

1974년 3월 동아일보 기자들의 기자노조운동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한국일보도 기자노조를 결성하였으나 경연지과의 극단적인 대립현상을 보였음 이와 관련되어 표출된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운동과 노조결성 시도 등은 마침내 경영주에 의한 기자들의 집단해임, 해임된 기자들의 경영주 고발등의 극한적인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記者協會도 1975년에 이르러 회보인 記者協會報의 폐간 및 임원진의 총사퇴등의 사태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우리나라 언론단체의 활동중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만큼 언론계 안·팎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기자간의 대립은 1957년 이후 해마다 공동으로 실시해 오던 연중행사인 신문의 날 기념시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대립은 심각한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70년대 중반에 나타난 記者勞組의 결성 움직임은 단순히 권익옹호를 목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에 연계되어 위축되어었던 언론자유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인 운동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자노조에 대해 언론사의 경영주나 정보가 다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같은 행동의 확산에 대한 견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기자들의 모든 활동은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언론상황의 개선을 위한 활동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축소된 채로 內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언론에 대한 정책이 開放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자들은 권익옹호 및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勞組를 결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전국의 각 언론사가 모두 참여하는 범 언론계적인 상황으로 확산되었다.

88년 3월말 현재 東亞·中央·한국·경향·서울등 일간지와 문화방송, 연합통신들 중앙의 언론사와 京仁日報, 부산일보, 광주일보, 대구매일신문등 지방 日刊紙및 지방 방송사들이 잇달아 노조를 설립했으며 노조결성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 노조들은 노조활동의 효율적인 지속을 위한 모임으로 언론노조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노조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노조로의 전환을 전제로 결성된 記者協會의 운영방향 또는 협의회와의 관계설정등이 앞으로의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자들의 노조결성 운동은 60년대 이후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지만 범언론계적인 상황으로 확산된 것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영주와의 위치정립이나 언론상화의 개선및 권익옹호등 현재의 우리나라 언론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우선 각 언론사의 노조는 언론인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의 현실화를 비롯한 복지부문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民主言論」의 정립을 위한 공정보도및 편집권독립을 위해 범 언론계적인 연

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결과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편집권의 독립을 명문화 했으며 부산일보 노동조합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노조에서 편집국장 후보 3인을 추천하면 이중에서 한명을 회사측에서 편집국장을 선임하는 편집국장 추천제를 관철시켰다.

특히 부산일보 노조는 편집권독립을 위한 편집국장 3인 추천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마련, 회사측과 여러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되자 1988년 7월11일부터 신문제작을 거부하는 전면파업에 돌입,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6일 동안 신문제작이 중단된 가운데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산일보사 노조파업은 사장이었던 尹壬述씨의 해임과 노조측이 요구한 편집국장의 추천제도를 회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정상화되었다.

부산일보의 제작중단사태는 한국언론사상 최초로 시도된 노조파업으로 인한 신문발행 중단이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측이 장악하고 있었던 편집권을 편집국 조합원들에게 환원시킴으로써 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계 뿐만 아리라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언론사에 새로운 전기를 남기게 되었다.

특히 부산일보의 편집국장 추천제는 작게 보면 경영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이지만 넓게 보면 권력기관 또는 정부가 운영권을 장악, 언론의 기능을 공정한 사회 비판적 기능에서 정부정책 홍보나 권력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오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언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언론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언론사에 노조가 생겨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언론계의 자구노력중 부산 일보 사태는 우리나라 언론사(言論史)에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으며 비슷한 역사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언론사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파급효과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第五節 京畿言論의 역사

1. 朝鮮新報의 발행

경기도에서 최초로 일간신문이 나온 것을 인천에서 日人 靑山好惠가 隔日刊으로 발행해 오던 「朝鮮新報」를 1902년 日刊으로 바꾸었고 서울에 通信部를 설치하면서부터였다. 日刊 「朝鮮新報」가 출간될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1894년 12월 초순에 日人 坂垣嘉市가 新朝鮮社를 창립하고 隔日刊 「新朝鮮」을 발간했으나 창업한 지 1년도 못되어 경영난으로 1985년 9월에 휴간했다. 이 무렵 인천이 점차 번영해 가고 바로 한해전에는 한국조정은 甲午大政變으로 시국이 크게 급변하게 되자 이러한 추이를 간파한 日人 靑山好惠가 「朝鮮新報」를 1895년 10월 25일 隔日刊으로 우선 續刊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新朝鮮」의 後身이 아니었다. 1891년 9월 1일에 발행된 「朝鮮旬報」의 後身이었다. 당초 同紙의 발행회수는 月 3회였는데 계속 증가되는 인구와 진전되는 외국무역의 추세에 발맞추자니 지면과 규모를 늘려 신문다운

체모를 갖추려고 애썼다.

紙齡기호에 이르자 발행회수를 더 증가하고 旬刊을 週刊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면을 쇄신하기도 하였으나 紙齡 181호에 이르렀을때 청일전쟁이 발발, 휴간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朝鮮旬報〉가 나오기 전에 최초의 신문형태를 갖추고 발행된 것이 1890년 창간된 半月刊〈仁川京城隔通商報〉였다.

이 신문이 나오기 한 해 전인 1889년 가을에 인천에 처음으로 仁川活版印刷가 생겼고 인천에 거류하는 日人 상인들간에 신문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仁川京城隔通商報〉의 발간 배경이었다. 이것은 〈漢城旬報〉가 1883년 발간되고 나서 7년 뒤의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紙齡 44호로 휴간이 된 다음 같은 해 9月에 매 3회 간행하는 〈朝鮮新報〉로 바뀌었고 週刊을 발간하게 되었고 또 3년 뒤에는 靑山好惠가 隔日刊으로 바꾸었다가 드디어 7년 뒤인 1902년에 日刊으로 바뀌는 등 판란과 변화를 겪었다. 물론 이와같은 구시대의 신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한국적인 신문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내에서 최초의 일간지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 신문은 다시 1908년 조선타임스와 합동하여 〈朝鮮新聞〉으로 改題하고 진용을 정비한 다음 일본의 어용지인 경성일보와 대결하여 당당한 正論을 폈다고 전한다 日人들이 만들어내는 신문이면서 일본의 어용지와 대결했다는 것이 좀 괴이하게 여겨지기는 하나 실제로 조선신문은 여러가지로 언론탄압을 받으면서도 공정무사한 제작태도를 견지하느라 애썼다고 전한다 그뒤 조선신문은 사주가 바뀌면서 1920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여 중앙지로 변신했고 인천에는 본사를 둔 신문사가 한때 없어지고 말았다.

그 무렵 日人 변호사 後藤連平이 시민여망에 따라 1921년 5월 개인경영의 조선매일신문을 창간했다 이 신문은 시시비비를 사시로 하여 경성일보와 대결하는 신문으로서 8·15광복때까지 지속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日人들이 경영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언론사에 正史로는 기술하기 어렵다.

2. 중앙신문의 지역보급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영한 신문은 3·1운동후 소위 일제총독부가 문화정책을 쓰기로 하여 동아일보·조선일보·시대일보등의 민간지가 서울에서 간행됨에 따라 그 인천지국이 설치됨으로써 인천에 우리 말 보도기관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나오기 전에는 친일파 송병준이 발행한 時事新聞과 총독부 기관지인 每日新報의 仁川支局이 있었다.

동아와 조선이 1940년 폐간된 뒤에 매일신보의 지국만이 남아 8·15광복까지 계속 되었다. 동아와 조선 그리고 시대일보와 매일신보의 지국과 기자는 아래와 같았다.

◇동아일보

初代 支局長:河相勳 2代:徐丙薰

3代:李汎鎭 4代:金憲植 解放直後:郭尙勳 記者:李吉用·李汎鎭·金憲植·郭尙勳(客員)

◇조선일보

初代 支局長:金台鉉 2代:朴昌漢 3代:朴鼎圭 4代:崔晋夏

記者:崔晋夏·金台鉉·鄭秀日·高逸(客員)·白大鎭(客員)

◇時代日報(뒤에 中外日報로 바뀌었다가 朝鮮中央이 되었다.)

初代 支局長은 趙鍾岳이었고 기자는 鄭秀日·高逸등 이었다가 발행자가 바뀌었을때 일시 文章伯·金斗榮이 맡았었다·폐간 때까지 종사한 인원은 李漢石·李鍾成·劉斗熙·康復陽·安基成·安貞洙·金眞榮·朴容翰이었다

◇每日新報

初代 支局長:金台鉉 2代:李東昨 3代:車台悅 4代:宋壽安

3. 大衆日報와 仁川新聞

광복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간된 지방지는 인천의 일간 대중일보로 의사인 高珠澈을 사장으로하여 1945년 10월 7일에 창간했다.

이 당시의 진용을 보면 사장 高珠澈 공무국장 李鍾潤으로 사옥을 인천시 중앙동 4가 8(경기 3社 통폐합때까지의 경기매일신문사 구건물)에 두고 李鍾潤의 「선영사」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다.

이듬해인 1946년 3월1일에는 金弘植을 사장으로 嚴興燮을 편집국장으로한 인천신문이 창간되었다. 광복직후는 좌우익의 대결이 작열하던 때여서 인천신문을 일시적으로 좌경화하여 반대의 논진을 펴고 있던 대중이보와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다.

인천신문을 7개월 만에 사장 金弘植이 자퇴하고 金壽永이 운영했으나 얼마안가서 李根世가 맡았다가 6·25동란으로 소멸했다.

4. 6·25전의 중앙지 支社 支局

6·25직전까지 중앙지의 지사·지국은 아래와 같다.

동아일보(곽상훈)·조선일보(金鍾淳)·서울신문(朴容聞)·경향신문(林鍾聲)·한성일보(崔祥麟)·민주일보(孟 憲)·독립신문(林善澤)·대동신문(崔 鐵)·예술신문(崔 鐵)·자유신문(金權日)·공업신문(方道範)·중외신문(金東浩)

이 밖에 주간지가 경기도에서 발간된 것을 인천시 기관지인 「週刊仁川」이 崔相澈이 위탁경영을 맡아서 徐鳳道 韓相億 편집으로 6·25 발발때까지 계속되었으나 전란의 와중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5. 京畿道의 新聞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방지가 발간된 곳도 인천이고 광복후에 최초로 발간된 곳도 인천이었으며 6·25 발발 뒤 1·4후퇴를 했다가 수복해 와서 다시 발간된 곳도 인천이었다. 광복전부터 발행되던 근거가 있는 탓이기도 했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항구도시이며 서울의 관문인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인천만이 유일하게 지방지가 발간되었다고는 하지만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역시 1·4후퇴에서 재수복해 돌아 온 1951년 봄부터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방직후부터 인천에서 발행해 온 대중일보가 6·25후 여러 차례에 걸쳐 改題를 하면

서 <京畿每日新聞>으로 발전했다. 1954년 3월에 〈주간인천〉이 창간되어 퍽 재미있는 지면을 꾸며 왔으나 4·19후에 해체 〈인천신문〉으로 부분흡수되었다.

〈인천신문〉을 1960년 8월 15일 인천시 사동 14번지 옛 韓鹽倉庫를 사옥으로 개수하여 창간됐는데 이 신문은 향토신문임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인천신문〉은 1968년에 題號를 〈京畿聯合日報〉로 改題하고 1969년 4월 28일에는 수원으로 본사를 옮겼다.

이에 앞서 제3공화국이 수립된 후 〈경기일보〉가 인천시 신포동 18에 사옥을 마련하고 1966년 2월 22일에 창간되니 인천에는 놀랍게도 일간지가 3개사로 늘어나는 신문포화시대를 맞았던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에 있어서 1都市(서울제외)에 3社(대구일보·영남일보·매일신문)가 있었던 대구시와 함께 두번째의 일이다.

1) 京畿每日新聞

경기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된 경기신문은 광복직후의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혼란의 와중에서 도민의 참다운 부탁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1945년 10월 7일 高珠澈을 사장으로 〈대중일보〉로 창간했다. 그러나 얼마안가서 초대 사장 高珠澈이 물러나고 2代 曺喜淳 3代 任鴻宰 등에게 인계되어 운영되다가 제4代 사장인 송수안이 취임한 뒤부터 기반이 잡혀 가기 시작한 것이다.

1950년 9·15수복이 되자 〈仁川新報〉로 改題하고 전시하의 유일한 지방지로 극심한 경영난을 무릅쓰고 도민의 대변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느라고 무던히 애썼다. 同紙는 1957년 7월엥 보급망을 호남지방까지 뻗치기 위해 「畿湖日報」로 改題하였으며 1960년 7월에 다시 「京畿每日新聞」으로 改題하였다.

경기도내에서 광복후 지령이 가장 오랜 同紙는 도내 주요지와 국내 주요지와 국내 주요 도시에 지사와 지국을 두었고 1971년 4월 20일 6층의 사옥을 신축하였으며 최신형 고속윤전기를 도입하여 紙面을 쇄신했다

1973년 9월1일 경기 3社 통폐합때까지의 인사현황을 보면 발행인 宋壽安 사장 宋榮浩 부사장 尹致鳳(직전 李鍾潤) 전무 宋榮善 상무 趙守逸 주필 朴昄奎 편집국장 金亨熙였다 그리고 역대 편집국장은 아래와 같다.

初代 李東昨 2代 嚴興燮 3代 高免 4代 朱宗赫 5代 李得春 6代 李完熙 7代 李鍾潤 8代 朴昄奎 9代 趙守逸 10代 李章馥 11대 金亨熙

2)주간인천

〈주간인천〉은 1954년 3월 林榮均을 발행인으로 金應泰를 편집인 權成五를 주간으로 하여 창간됐다 同紙는 당시로선 인천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주간지로 많은 독자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창간당시 멤버는 발행인 林榮均 주필 高逸 주간 權成五 편집인 金應泰 정치부장 金相鳳 문화부장 金良洙였다.

그러나 同紙는 창간 7년만인 1960년에 紙齡 305號를 마지막으로 社旗를 내렸지만 同社의 부사장이던 許迨이 1960년에 〈인천신문〉을 창간했을 때 金應泰(편집국장) 高逸(주필) 등은

〈인천신문〉으로 옮겨갔다.

3)인천신문

인천신문은 1960년 8월 15일 인천시 사동 14번지에 사옥을 마련하고 창간됐다.

창간당시의 주요멤버는 사장 許迨 편집국장 金應泰 전무 李重燮 주필 高逸 편지부장 李昌植등이었다.

同紙는 1962년 도내 최초로 마루노니式 윤전기를 설치하고 紙面도 2면을 4면으로 늘려 平版 인쇄시대에서 탈피했다.

또 보급망도 넓혀서 도내는 물론 전국 주요도시에까지 지사·지국을 두기도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뒤(1968년) 同紙는 題號를 〈京畿聯合日報〉로 改題하고 1969년 수원으로 이전했는데 〈인천신문〉 당시의 역대 편집국장을 初代 金應泰·2代 朴應烈·3代 黃俊秀 4代 李昌植이며 論陣은 高逸·金相鳳·李玉山·金良洙 등이다.

4)聯合新聞

1968년 題號를 〈인천신문〉에서 〈京畿聯合日報〉로 바꾼 同紙는 발행인 許합이 방위성금유용 혐의가 문제되어 〈인천신문〉 창간 8년만에 사임하고 1969년 1월에 在日僑胞 실업인 李鉉琇가 판권을 인수 사장이 되었다.

이때 인천의 지방신문 과밀현상을 우려한 당시 편집국장 李昌植의 제안으로 본사를 도청소재지인 수원으로 옮겼다.

수원시 교동 18번지에 사옥을 정한 同紙는 1970년 10월에 題號를 〈聯合新聞〉으로 改題했는데 발행인 李鉉琇가 병사하자 상무이던 洪大健이 발행인이 됐다 이에앞서 전무 禹鳳濟 상무 尹石漢이 취임하여 사옥이전과 기반안정에 힘썼다.

1973년 9월 1일字로 京畿 3社가 통합되기 이전까지의 편집국장은 初代 李昌植 2代 趙昌煥이었다.

5)京畿日報

京畿日報는 1966년 2월에 창간되었다. 사옥은 인천시 신포동 18번지 지난날 大衆日報와 仁川日報를 거쳐 〈주간인천〉과 〈인천신문〉에서 편집국장을 지낸 金應泰가 주동이 되었고 편집진용도 전날 〈인천신문〉에서 활약하던 중견들이 가담했다 사장에는 黃光秀가 취임했는데 창간초기의 陳容은 아래와 같았다. 사장 黃光秀 부사장 洪福元 부사장겸 편집국장 金應泰 전무 郭仁星 상무 申道澈 도중에 불행하게도 黃光秀가 死去하자 陳容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다. 사장 洪福元 발행인 郭仁星 부사장 金應泰 상무 黃俊秀 편집국장 李鬪 업무국장 鄭舜永 논설위원 李玉山 韓相億 金良洙이다.

同紙는 잡지 〈日刊京畿〉를 1967년 12월부터 隔月刊 교육잡지 〈京畿教育〉을 1969년 7월부터 발간했고 얼마 후에는 어린이 신문 〈少年京畿日報〉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일보〉는 1973년 9月 1日 京畿 3社 통합으로 終刊됐다.

6.京畿道 신문의 변화

6·25동란 중에 갑자기 언론기관의 중요성이 확대인식되고 매스콤뮤니케이션이 양적으로 팽배하자 한때 우리 나라에는 언론기관및 기자의 사태를 이룬 때가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에

는 「記者師團」이 있다는 야유가 나올 정도였다. 1960년 9월말 인천시 公報係에 등록된 언론기관만도 130個所였고 4개월 뒤인 1961년 1월말 경에는 26개소가 증가된 156개소였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기자만도 600명을 헤아릴 정도였으니 「기자사단」이란 말이 나올 만도 했다. 더 자세히 내용을 살피면 경기도내에 본사를 둔 日刊新聞이 5개소 본사를 둔 통신사가 1, 본사를 둔 주간지가 2, 支社를 둔 중앙지는 21, 통신사의 지사는 31, 나머지는 週刊 月刊들의 支社들이다. 이것을 日政時代의 우리의 것과 비교하면 인구는 그 당시보다 8배인데 비해서 언론기관을 52배 기자는 무려 일백배라는 놀라운 숫자가 된다. 사이비기자의 소동이 빚어진 요인도 여기에 있었다.

이렇듯 우후죽순처럼 발호하던 언론기관들도 5·16군사혁명후 군정포고령에 의해 신문제작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되었다.

이와같이 정리를 필요로 한 시절은 아니었지만 경기도에는 광복후에 발간된 지방지 가운데 경영난이거나 특수사정에 의해 문을 닫게 된 신문사가 더러 있었다.

6·25동란으로 해서 없어진 광복직후의 仁川新聞社의 경우는 이미 앞에서 언급 되었지만 1·4후퇴 뒤 재수복해 들어와서 발간되었던 〈大韓新聞戰時版〉과 〈京仁日報〉에 대해 언급 안할 수 없다.

1)戰時版 大韓新聞(徹收) 공산군의 남침으로 부득이 남하했던 정부기관과 중요기관들이 수복하고 국군과 UN군이 북진을 해가다가 뜻밖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1·4후퇴를 했고 정부는 당분간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옮기면서 모든 언론기관들이 거의 부산으로 몰려 갔었다.

그러나 1951년 봄 인천이 再收復되자 인천에는 〈仁川新報〉와 함께 〈戰時版大韓新聞〉이 발행되었다. 大韓新聞의 본사는 부산에 있었으며 발행인인 金光燮에 의해 부산에서도 발간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사가 서울로 복귀할 때까지 우선 선발대격으로 인천에 주재하면서 戰時版을 발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同紙는 약 1번동안 인천에서 발행되다가 본사가 서울로 복귀함에 따라 철수했다.

이때는 특히 戰時중이라서 경기도민이 신문에 목말라 있던 터이라 신문에 대한 시민의 향수는 대단했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 경기도에는 앞의 〈仁川新報〉와 후일 새로 나온 〈京仁日報〉의 前身인 〈仁川日報〉가 있어서 보도활동의 경쟁을 전개하여 도민의 흥미와 인기를 모았다.

당시 大韓新聞의 편집책임자는 중앙지에서 다년간 활약해온 李正勳이었고 李正勳과 함께 노고를 같이 하며 신문을 낸 기자는 吳廣樹·太亨均·李和秀·朴致遠·金良洙 등이었다.

2)仁川新報의 廢刊

大韓新聞 戰時版보다 뒤늦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같이 경쟁을 벌인 신문은 〈仁川日報〉로서 1952년 3월 발행인에 金秉胤 편집인에 孟憲 인쇄인에 蔡浩로 발행허가를 얻고 1952년 8월 1일에 창간을 했다.

창간당시의 진용은 발행인을 金秉胤 부사장 金鍾潤 전무 孟憲 상무 蔡浩·孟基石·편집국장 金潤煥 업무국장 高英등이었고 1953년 8월 창간 1주년을 기해 지면을 타블로이드판에서

표준형의 倍大版을 냈고 自營 인쇄시설도 갖췄다.

3년 뒤인 1956년 6月 발행인 金秉胤이 부산에서 복귀하여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신문사 운영권을 맡고 있던 孟憲으로부터 판권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孟憲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양자간에 版權을 놓고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옥신각신 하는 약 일주일여 동안 〈仁川日報〉의 題號로 양측에서 다른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나라 新聞史上 최초의 케이스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끝내 재판에서 승소한 金秉胤이 새로 사옥을 마련하고 인쇄시설을 갖춘 다음 題號를 〈京仁日報〉로 改題하여 발행했다. 이 때의 陳容은 사장 金秉胤 주간 金吉鳳 편집국장 金潤煥 총무국장 李玉山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57년 6월 主幹 金吉鳳이 부사장겸 主筆이 되었고 崔聖淵이 편집국장이 되었다. 그뒤 곧 蔡浩가 판권을 인수하고 부사장겸 주필에 金吉鳳 편집국장에 李玉山이 취임했다. 그러나 李玉山이 正統新聞人이 아니어서 편집부국장 李昌植이 편집실무를 전담했다. 그뒤 李玉山이 부사장이 되고 金東奎가 편집국장이 되었다.

5·16혁명이 있은 뒤 李玉山이 사장이 되었으나 군정포고령 제11호에 의한 신문제작에 필요한 시설기준 미달로 인하여 창간 9년만에 폐간되었다.

3)週刊紙 亂立時代

〈京畿每日新聞〉〈聯合新聞〉 그리고 〈경기일보〉등 경기지방지 3사가 둘은 仁川에서 하나는 수원에서 발행되는 3각대치의 안정기를 이룰 때까지 위에 언급된 大韓新聞과 京仁日報가 발간되었다가 사라져 갔고 이 밖에 많은 주간지들이 생겨 났다가는 없어졌다.

어쨌거나 언론기관과 기자사태가 民과 官을 가리지 않고 폐해를 미쳤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렇듯 경기도의 언론사는 1890년 비록 日人들에 의해서 막을 올리긴 했어도 〈仁川京城隔通商報〉가 우리의 신문이 아니였던 것 만은 사실이므로 史實의 기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는 단언하기 어렵다 더구나 광복이전의 在仁言論機關을 전부가 중앙지의 支局이었으므로 이도 도단위의 언론기관으로 간주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순수 우리의 신문 그것도 8·15광복 이후의 것으로 친다면 그것은 두말 할 나위없이 〈京畿每日新聞〉인 것이다. 광복 이후 발행되었다가 사라져간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주간인천〉 발행인 林榮均 편집인 金應泰 1953년 3월 창간 1960년 6월 終刊

◇〈경기민경〉 경기도 경찰국 기관지로서 1957년 3월 7일 창간 발행하도 중 5·16후 폐간

◇〈京畿評論新聞〉 발행인 車榮一로 1960년 10월 4일 창간했으나 5·16후 폐간

◇〈京畿批判新聞〉 발행인 趙喜成으로 1960년 12월 2일 창간 5·16후 폐간

◇〈京畿文化新聞〉 발행인 金振燁으로 1961년 3월 10일 창간했으나 5·16후 폐간

◇〈京畿經濟〉 발행인 金東奎로 1961년 3월 18일 창간했으나 5·16후 폐간

◇〈京畿新報〉 발행인 李榮春으로 1960년 7월 28일 창간했으나 폐간

◇〈京畿產經新聞〉 발행인 李榮春으로 1966년 2월 5일 창간했으나 얼마후 폐간

4)京畿3社의 統廢合

紙齡 9918號의 경기매일신문과 紙齡 2335의 경기일보 또 紙齡 4131號의 연합신문은 1道1

社主義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1973년 9월 1일 〈京畿新聞〉이라는 題號로 통폐합을 보게 되어 그 동안 인천에 2개사 수원에 1개사가 있었던 경기지방 3사가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1개사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통합협상을 둘러싼 일화는 적지 않지만 생략한다.

5)京畿新聞의 변천

1973년 9월 1일부터 경기도내에서 유일한 지방지로 존재하게 된 경기신문은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지방 3개사 통폐합의 산물이다.

경기신문의 경기 3사통합 이전의 모체는 연합신문이었고 또한 그 전신은 〈인천신문〉이었으며 〈인천신문〉의 근맥은 〈주간인천〉이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1960년 8월 15일에 창간된 〈인천신문〉은 1962년 10일 정부당국의 언론시설 기준령에 따라 마루노이式 윤전기를 도입 평판인쇄 2면에서 4면으로 증면을 했으며 1968년에는 경기도 전역을 커버한다는 발전지향적 의미에서 〈京畿聯合日報〉로 改題했고 1969년 4月 28日에는 경기도청소재지인 수원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1971년에는 또 다시 〈연합신문〉으로 改題했었다. 그러던 중 1973년 9월 1일에 3사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경기신문은 탄생했다. 이후 〈경기신문〉은 도내 유일의 지역신문으로서 향토문화의 창출과 보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이익을 위한 도민의 신문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신문은 발족과 함께 수원시 교도 136번지에 본사사옥을 갖추고 해마다 시설을 증설하여 1979년에는 서독 하이델베르그사로부터 최신형 컬러오프셋 인쇄기 3대를 도입 경기도내 언론사상 처음으로 자가시설에 의해 컬러판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하리스사에도 초고속컬러 윤전기를 발주했다.

그리고 1977년부터 서울지사를 본사 직영하에 두었고 인천지사를 인천시 중구 항도 4가 16번지에 새로 사옥을 마련 인천국으로 개칭 완전 직영제로 이끌어 가고 있다. 한편 인천과 서울을 제외한 성남·안양·의정부·부천등 4개 시지역에 지사를 설치하고 기타 군소재지에 보급소를 두어 기자를 주재시키고 있으며 연합통신과 국내외뉴스 轉載계약을 맺고 있다.

또 경기신문은 1977년 1월부터 격주 8면제 주 36면으로 발행했으며 같은해 9월 1일 창간 4주년을 기해 매일 8면 주 48면으로 증면했다. 또한 80년 9월 1일부터는 1일 12면, 주 72면으로 증면하는 등 제작 규모를 확대해 나갔는데 1988년 7월 15일 현재 紙齡 8707號를 발행했다. 京畿新聞社는 신문발행외에도 京畿年鑑과 京畿教育年鑑 京畿日報를 발간했으나 경기화보는 폐간됐다.

그러나 京畿新聞은 1980년 9월 운영권이 바뀌게 되는데, 發行人인 洪大健사장이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로 신문사 경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에서 퇴진하는 한편 재산및 시설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헌납하므로서 새로운 운영진이 선임된 것이다.

이일로 인해 경기신문은 인천과 수원 안양등 경기·인천지역에서 선임된 주주들이 공동으로 참여, 16억원으로 모든 재산과 권리를 인수하게 되어 법인 설립및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주주의 분포비율은 인천 64%, 경기 36%였다.

1980년 11월 1일 경기신문사는 경영진 개편에 따라 朴商福이 사장에 취임하게 되는데 인천신문 이후 4번째의 사장 취임이었다. 이해 12월 1일 경기신문사는 子合社인 주식회사 京畿出版社를 설립한다.

새로운 경영진의 관리로 운영되던 京畿新聞은, 81년 仁川이 直轄市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자 경기도와 인천으로 분리된 취재·판매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1982년 3월 1일字로 제호를 京仁日報로 改題했다.

이때부터 京畿道의 언론은 京仁日報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때에는 각 지역에 주재하던 中央日刊紙 및 통신사 기자들은 철수하게 되며 지방신문인 경인일보와 연합통신사만이 취재권을 갖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제5공화국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따라서 이때 언론계의 주요 관심사는 지방주재기자의 부활및 자유로운 언론환경의 보장등이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언론계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로 논의되기도 했는데 1987년에 이르러 言論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재기자의 부활, 프레스카드제의 폐지,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화등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이 대체입법으로 공포되어 언론자율화의 폭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해직언론인을 중심으로한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10여개의 日刊紙를 비롯 방송·통신의 신설과 부산의 국제신보, 제주의 제남신문,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하던 서울경제신문, 신아일보등 한때 폐간됐던 신문의 복간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1988년 3월 1일 현재 신문 24개사, 방송 24개사, 통신 1개사등이 문화공보부에 등록신청을 냈거나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7년 9월부터 중앙일간지를 비롯 KBS, MBC등 방송사에서는 경기도에 주재기자를 상주시키기 시작했는데 88년 3월 1일 현재 경기도에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KBS, MBC등 기존 언론사와 신설된 한겨레신문사에서도 주재기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기자를 상주시키지 않고 조선일보를 비롯 설리이 완료되는 신설 언론사에서도 적정한 인원의 기자를 파견할 것으로 보여 주재기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언론상황은 京仁日報와 연합통신의 주로 관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우 다원화된 상태로 환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京仁日報 외에 尹石漢을 대표이사로 한 京畿日報社가 문공부에 등록, 1988년 8월중 창간을 목표로 설립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京仁日報社의 시설중 인천에 배치시키고 있었던 시설을 인수한 仁川新聞이 1988년 7월 15일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인천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던 京畿教育新報가 자진폐간과 함께 일간신문인 畿湖新聞이란 題號로 등록, 역시 1988년 8월中 창간을 목표로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인천지역에는 기존의 京仁日報를 비롯 仁川新聞, 京畿日報, 畿湖新聞등 4개사가 경쟁하게 되어 새로운 경쟁시대를 맞게되었다.

88년 7월1일 현재 京仁日報社의 구성은 社長에 金炳喆, 전무이사 李容筆, 업무이사 李漢親, 감사 吳尙根, 논설주간 李鎭永, 편집국장 金基龍, 부국장 禹濟贊, 사회부장 李千雨, 정경부장 鄭用導, 문화·체육부장 金和洋 지방부장 金日贊, 출판국장 趙東基, 총무국장 朴景三, 공무국장 洪淸, 인천분실장 張師仁, 서울지사장 金建永등이며 仁川新聞은 사장 文炳河, 편집이사겸 편집국장 吳光哲, 편집주간 吳鍾元, 편집부국장 대우 金昌洙, 편집부국장 대우 정경부장 李宰鎬, 항만부장 崔勇杓, 사회지방부장 鄭宗雄, 문화체육부장 朴根遠, 교정부장 金洪珍, 京畿新聞은 社長 尹石漢, 편집국장 吳陽東, 편집국장대우 辛世勳 부국장겸 편집부장 金昌奎, 제2사회

부·문화체육담당 부국장 李海祥, 제1사회부장 林順滿, 교정부장 이종희, 부장대우 문화체육부차장 李承子등이다.

第4章 民 謠

第1節 傳承民謠

農家月令歌

농가에 관한 이 노래는 정다산(茶山·丁若鏞)의 둘째 아들 정학유(丁學遊)가 1849년(憲宗 十五年 己酉)에 지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한 일설에는 이조의 고상안(高尙顔)작이라고도 한다.

농가에서 다달이 하여야 할 일, 철마다 알아두어야 할 풍속, 지켜야 될 범절등을 월별(月別)로 갈라서 월령체(月令體)로 노래한 것이다.

농가월령가

천지조판하매 日月星辰 비추기라
一月은 度數있고 성신은 전차있어
一年三百六十日에 제 度數 돌아오매
冬至夏至 春秋分은 月行을 추직하고
上弦下弦 望晦朔은 月輪의 영휴로다
天地上 東西南北 곳을 따라 틀리기로
北極을 보람하여 遠近을 마련하니
二十四節後를 十二朔에 분별하여
每朔에 두 節後가 一望이 사이로다
春夏秋冬은 래왕하여 自然이 成歲하니
堯舜 같이 착한 임금
曆法을 창기하사
天時를 마련하여 萬人을 맡기시니
夏禹氏 五백년은 寅月로 歲首하고
周나라 八백년은 子月로 新定이라
當今에 쓰는 曆法 夏禹氏와 한법이라
寒暑溫涼 기후 차례 四時에 맞갖으니
孔夫子의 취하심이 하령을 행하도다.

正月令

正月은 孟春이라 立春雨水 節氣로다
山中間壑에 氷雪이 변하도다.
어화 우리聖上 愛民충동 하오시니
간칙하신 勸農綸音 坊谷에 반포하니
슬프다 農夫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네몸위해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山田水畓 상반하여 힘대로 하오리라
一年豐凶은 측량치 못하여도
人力이 극진하면 天災를 면하나니
제각기 근면하여 게을리 구지마소
一年之計 在春하니 범사를 미리하라
봄에 만일 失時하면 終年日이 낭패되네
農器는 다스리고 農牛를 살펴먹여
재거름 재와놓고 일면으로 실어내어
麥田에 오줌주기 歲前보다 힘써하소
낮이면 이영엮고 밤이면 새끼꼬아
때마쳐 집이우면 큰 근심 덜리로다
과실나무 버곳깍고 가지사이 돌끼우기
正朝날 未明時에 시험조로 하여보세

며느리 잊지말고 小麴酒 밀하여라
三春百花時에 花煎一醉 하여보세
上元날 달을보아 水早을 안다하니
老農의 징험이라 대강은 짐작나니
正朝에 歲拜함은 敦厚한 풍속이라
새衣服 떨쳐입고 親戚隣里 서로찾아
老少男女 兒童까지 三三五五 다닐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사내아이 연날리기 계집아이 널뛰기오
윷놀아 내기하기 소년들의 놀이로다
祠堂에 歲謁함은 餠湯에 酒果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드리면
보기에 신신하여 五辛菜를 부러하랴
보름날 약밥제도 新羅적 풍속이라
묵은산채 삶아내어 六味를 바꿀소냐
귀밝히는 약술이요 부름삭는 生栗이라
먼저불려 더위팔기 살앗여 횃불허기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二月令

二月은 仲春이라 驚蟄春分 節氣로다
初六日 좀생이는 豐凶을 안다하여
스무날 陰晴으로 대강은 짐작하니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히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萌動한다
개구리 우는 곳에 논물이 흐르도다
엿비둘기 소리나니 버들빛 새로워라
보장기 차려놓고 春耕을 하오리라
살진밭 가리어서 春牟를 많이 갈고
棉花밭 되여두어 제때를 기다리소
담배모 일심으기 이를수록 좋으니라
園林을 粧點하니 生利를 겸하도다
一分은 果木이요 二分은 뽕나무라
뿌리를 상치말고 비오는 날 심으리라
솔가지 찍어다가 울타리 새로하고
墻恒도 수축하고 개천도 처올리소
안팎에 쌓인검불 정쇄히 쓸어내어
불놓아 재받으면 거름을 보태리라
六畜은 못다하나 牛馬鷄犬 기르리라
씨암탁 두세마리 알안겨 깨어보자
山菜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먹세
고들바기 씀바귀요 소로장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잇국은 비위를 깨치나니
本草를 상고하여 藥材를 캐오리라
蒼白朮 當歸川芎
柴胡防風 山藥澤瀉
낱낱이 記錄하여 때미쳐 캐어두소
촌가에 기구없이 값진약 쓰올소냐

三月令

三月은 暮春이라 淸明穀雨 節氣로다
春日이 載陽하여 萬物이 和暢하니
百花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堂前의 쌍제비는 옛집을 찾아니고
花間의 범나비는 분분히 날고가니
微物도 得時하여 自樂함이 사랑홉다
寒食날 省墓하니 백양나무 새잎난다
雨露에 感愴함은 酒果로나 펴오리라
農夫의 힘드는일 가래질이 첫째로다
점심밥 준비하여 때맞추어 배불리소
農村의 후한풍속 斗穀을 아낄소냐
물꼬를 깊이지고 두렁밟아 물을 막고
한편에 苗壇하고 그나마 살미하니
날마다 두세번씩 부지런히 살펴보소
약한싹 세워낼제 어린아이 보호하듯
百穀중 논농사가 범연하고 못하리라
浦田에 서속이요 山田에 豆太로다
들깨모 일찍붓고 삼농사도 하오리라
좋은씨 가리어서 그루들 상환하소
보리밭 매어놓고 뭇논을 되어주소
들농사 하는틈에 治圃를 아니할까
울밑에 호박이요 처맛가에 박심으고
담근처에 동심아어 가자하여 올려보세
무우배추 아욱상취 고초가지 파마늘을

색색이 분별하여 빈땅없이 심어놓고
갯버들 비어다가 개받이 둘려막고
鷄犬을 방비하면 자연히 무성하리
외밭은 따로하며 거름을 많이하소
農家의 여름반찬 이밖에 또 있는가
뽕눈을 살펴보니 누에날개 되겠구나
어화 婦女들아 蠶農을 전심하소
蠶室을 소쇄하고 제구를 준비하니
다리끼 칼도마며 채광주리 달발이라
각별히 조심하여 냄새 없이하소
寒食전후 三四日에 果木을 접하나니
단행니행 울릉도며 문배삼배 능금사과
엇접피접 도마접에 행차접이 잘사나니
청다지 정능매는 古杏에 접을 붙여
農事를 필한후에 분을 올려 드려놓고
天寒白屋 風雪중에 春色을 홀로보면
실용은 아니로되 山中의 취미로다
人間의 요긴한일 장담는 정사로다
소금을 미리받아 법대로 담그리라
고추장 두부장도 맛맛으로 갖추하소
앞산에 비가개니 살찐香菜 캐오리라
삼주드릅 고사리며 고비도랏 어야리를
一分은 엮어달고 二分은 무쳐먹게
낙화를 쓸고앉아 병술로 즐길적에
山菜의 준비함이 佳肴가 이뿐이라

四月令

四月이라 孟夏되니 立夏小滿 節氣로다
비온끝에 별이나니 日氣도 청화하다
떡갈잎 퍼질때에 뻐꾹새 자주울고
보리이삭 패어나니 꾀꼬리 소리난다
농사도 한창이요 蠶工도 방장이라
男女老少 골목하여 집에있을 틈이없어
적막한 대사립을 녹음에 닫았도다
棉花를 많이가소 紡績의 根本이니
수수동부 녹두참깨 부록을 적게하소
갈꺽어 거름할제 풀비어 섞어하소
무논을 쓰오리고 이른모 내어보자
農糧이 부족하니 환자라 보태리라
한잠자고 이는누에 하루도 열두밥을
밤낮을 쉬지말고 부지런히 먹이리라
뽕따는 아이들아 훗그루 보아하여
古木을 가지찍고 햇잎은 제쳐따소
찔레꽃 만발하니 적은가물 없을소냐
이때를 乘時하여 나할일 생각하소
도랑쳐 水道내고 우루쳐 改瓦하여
陰雨를 방비하면 뒷근심 더오나니
봄나이 필무명을 이때에 마전하고
베모시 형세대로 여름옷 지어두소
벌통에 새끼나니 새통에 받으리라
千萬이 일심하여 蜂王을 호위하니
꿀먹기도 하려니와 君臣分義 깨닫도다
팔월에 懸燈함은 山村에 불불하니
느티떡 콩찐이는 제때의 別味로다
앞내에 물이주니 천렵을 하여보자
해질고 잔풍하니 오늘놀이 잘되거다
碧溪水 白沙場을 구비구비 찾아가니
水丹花 늦은꽃은 봄빛이 남았고나
촉고를 둘러치고 銀鱗玉尺 후려내어
盤石에 노고걸고 속고쳐 끓여내니
八珍味 五候鯖을 이맛과 바꿀소냐

五月令

五月이라 仲夏되니 芒種夏至 節氣로다
南風은 때맞추어 麥秋를 재촉하니
보리밭 누른빛이 밤사이 나겠고나
문앞에 터를닦고 打麥場 하오리라
드는낫 비어다가 단단히 헤쳐놓고
도리깨 마주서서 줏내어 두드리니
불고쓴듯 하던집안 졸연히 흥성하다
담석에 남은곡식 하마거의 盡할러니
중간에 이곡식이 新舊憧繼 하거고나
이곡식 아니러면 여름농사 어찌할고
天心을 생각하니 은혜도 망극하다

收童은 놀지말고 農牛를 보살펴라
뜸물에 꼴먹이고 이슬풀 자로뜯겨
그루같이 모심으기 제힘을 빌리로다
보리집 말리우고 솔가지 많이쌓아
장마나무 준비하여 임시걱정 없이하소
蠶農을 마칠때에 사나이 힘을빌어
누에섶도 하려니와 고치나무 장만하소
고치를 따오리라 淸明한날 가리어서
발위에 엷게널고 폭양에 말리우니
쌀고치 무리고치 누른고치 흰고치를
색색이 分別하여 一·一分 씨를두고
그남아 켜오리라
자애를 차려놓고 왕채에 올려내니
氷雪같은 실오리라 사랑홉다 자애소리
琴瑟을 고르는듯 婦女들 적공드려 이자미 보는구나
五月 五日 端午날에 물색이 生新하다
외밭에 첫물따니 이슬에 젖었으며
앵도익어 붉은빛 아침볕에 바위로다
목매친 軟鷄소리 이김벌로 자로운다
鄕村의 兒女들아 鞦韆은 말려니와
靑紅裳 창포비녀 佳節을 허송마라
노는틈에 하올일이 약쑥이나 비어두소
上天이 至仁하사 유연히 作雲하니
때맞쳐 오는비를 뉘능히 막을소냐
처음에 부슬부슬 먼지를 적신후에
밤들어 오는소리 沛然히 드리운다
관솔불 둘러앉아 내일일 마련할제
뒷논은 뉘심으고 앞논은 누가갈고
도롱이 접사리며 삿갓은 몇벌인고
모찌기는 자네하소 노삼기는 내가함세
들깨모 담배모는 머슴아이 맡아내고
가지모 고추모는 아기딸이 하려니와
맨도람 봉선화는 네사천 너무마라
아기어멈 방아찧어 들바라지 점심하소
보리밥 파찬국에 고추장 상치쌈을
식구를 헤아리되 넉넉히 능을두소
샐때에 門에나니 개울에 물넘는다
미나리 和答하니 擊壤歌아니런가

六月令

六月이라 季夏되니 小署大署 節氣로다
大雨도 時行하고 더위도 극심하다
草木이 무성하니 파리모기 모여들고
平地에 물이괴니 악더구리 소리로다
봄보리 밀귀리를 차례도 비어내고
늦은콩팥 조기장을 비기전 대우드려
지방을 쉬지말고 극진히 다스리소
젊은이 하는일이 기음매기 뿐이로다
논밭을 갈마들여 三四次 돌려맬제
그중에 棉花밭은 人工이 더드나니
틈틈이 나물밭도 북돋아 매가꾸소
집터울밑 도라가며 잡풀을 업게하소
날새면 호미들고 긴긴해 쉴새없이
땀흘려 흙이젖고 숨막혀 기진할듯
때마침 점심밥이 반갑고 신기하다
정자나무 그늘밑에 坐次를 정한후에
점심그릇 열어놓고 보리단술 먼저먹세
반찬이야 있고없고 주린창자 메인후에
淸風에 醉飽하니 잠시간 藥이로다
농부야 근심마라 수고하는 값이있네
오조이삭 청대콩이 어느사이 익었구나
일로보아 짐작하면 양식걱정 오랠소냐
해진후 돌아올제 노래끝에 웃음이다
알알한 저녁내는 山村이 잠겨있고
月色은 몽롱하여 발길에 비최이다
늙은이 하는일도 바히야 없을소냐
이슬아적 외따기에 뙤약볕에 보리널기
그늘곁에 누역치기 창문앞에 노꼬기와
하다가 고달프면 목침베고 허리쉬움
北窓風에 잠을드니 羲皇氏적 百姓이라
짬깨어 바라보니 급한비 지나가고
먼나무에 쓰르다미 夕陽을 재촉한다
노파의 하는일은 여러가지 못하여도

묵은솜 들고앉아 알뜰히 피워내니
장마속에 消日이요 낮잠자기 잊었도다
三伏은 俗節이요 流頭는 佳日이라
원두밭에 참외따고 밀갈아 국수하여
家廟에 薦新하고 한때음식 즐겨보세
부녀자는 헤피마라 밀기울 한데모아
누룩을 드디어라 流頭麴을 헤느리라
호박나물 가지김치 풋고추 양념하고
옥수수 새맛으로 일없는이 먹어보소
장독을 살펴보아 제맛을 잃지말고
맑은장 따로모아 익은족족 떠내어라
비오면 덮겠은즉 독전을 정히하소
南北村 합력하여 삼구덩이 하여보세
삼대를 비어묶어 익게쪄 벗기리라
고은삼 길삼하고 굵은삼 바드리소
농가에 요긴키로 곡식과 같이치네
山田모밀 먼저갈고 浦田은 나중가소

七月令

七月이라 孟秋되니 立秋處暑 節氣로다
火星은 西流하고 尾星은 中天이라
늦더위 있다한들 節序야 소길소냐
비밀도 가볍고 바람끝도 다르도다
가지위의 저매아매 무엇으로 배를 불려
공중에 맑은소리 다투어 자랑는고
七夕에 牽牛織女 離別淚가 비가되어
성긴비 지내가고 오동잎 떨어질제
峨嵋같은 초생달이 四天에 걸리거다
슬프다 농부들아 우리일 거의로다
얼마나 남았으며 어떻게 되다하나
마음을 놓지마소 아직도 멀고멀다
골거두어 기음매기 벼포기에 피고르기
낫벼려 두렁깎기 先山에 伐草하기
거름풀 많이비어 더미지어 모아놓고
자채논에 새보기와 오조밭에 정의아비
밭가에 길도닦고 覆砂도 쳐올리소
살지고 연한밭에 거름하고 익개갈아
김장할 무우배추 남먼저 심어놓고
가슬을 진작하여 허술함이 없게하소
부녀들도 샘이있어 앞일을 생각하소
베짱이 우는소리 자네를 위함이라
저소리 깨쳐들어 놀라쳐 다스리소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도 거풍하고 衣服도 포쇄하소
명지오리 어서몽저 생량전 짜를내소
늙으신 기쇠하매 환절때를 조심하고
秋涼이 가까우니 衣服을 유의하소
빨래하여 바래이고 풀먹여 다듬을제
月下의 방추소리 소리마다 바쁜마음
室家의 골몰함이 일변은 재미로다
소채과실 흔할적에 저축을 많이하소
박호박 고지켜고 외가지 짜게저려
겨울에 먹어보소 귀물이 아니될까
木花밭 자주살펴 올다래 피었는가
가꾸기도 하려니와 거두기에 달렸나니

八月令

八月이라 中秋되니 白露秋分 節氣로다
北斗星 자주돌아 서편을 가르키니
신선한 朝夕기운 가을뜻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소리 벽틈에 들리누나
아침에 안개끼고 밤이면 이슬내려
百穀을 성실하고 萬物을 재촉하네
들구경 돌아보니 힘들인일랑 공생하다
百穀이 이삭패고 열음들어 고개숙여
西風에 익은빛은 黃雲이 일어난다
白雲같은 棉花송이 산호같은 고추다래
처마에 널렸으니 가을볕이 명랑하다
안팎마당 닦아놓고 발채망구 장만하소
면화따는 다래끼에 수수이삭 콩가지요
나뭇군 돌아올제 머루다래 山果로다
뒷동산 밤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알암도 말리어라 철되어 쓰게하자
명지를 끊어내어 가을볕이 명랑하다

안팎마당 닦아놓고 발채망구 장만하소
면화따는 다래끼에 수수이삭 콩가지요
나뭇군 돌아올제 머루다래 山果로다
뒷동산 밤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알암도 말리어라 철되어 쓰게하자
명지를 끊어내어 가을볕에 마전하여
쪽들이고 잇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부모님 年滿하니 壽衣를 留意하고
그나마 마로재어 아들딸 婚需하세
지붕위에 크는박은 요긴한 器皿이다
댑싸리 비를매어 마당질에 쓰오리
참깨들깨 거둔후에 중올벼 타작하고
담배밭 녹두말을 아쉬어 作錢하랴
장구경도 하려니와 홍정할것 잊지마소
북어쾌 젖조기로 秋夕名日 쉬어보세
新稻酒 올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先山에 祭物하고 이웃집 나눠먹세
며느리 말미받아 본집에 근친갈제
개잡아 삶아얹고 떡고리며 술병이라
초록장옷 반물치마 단장하고 다시보니
여름동안 지친얼굴 소복이 되었느냐
中秋야 밝은달에 지기펴고 놀고오소
今年할일 못다하여 明年계교 하오리라
밀대베어 더운갈이 牟麥을 秋耕하세
끝끝이 못익어도 급한대로 걷고갈소
人工만 그러할까 天時도 이러하니
半刻도 쉴새없이 마치며 시작느니

九月令

九月이라 季秋도니 寒露霜降 節氣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기러기 언제왔노
碧空에 우는소리 찬이슬 재촉는다
滿山楓葉은 연지를 물들이고
울밑에 누른菊花 가을빛 자랑한다
九月九日 佳節이라 花煎하여 餞新하세
節序를 따라가며 追遠報本 잊지마소
물색은 좋거니와 秋收가 시급하다
들마당 집마당에 개상에 탯돌이라
무논은 베어깔고 乾畓은 벼두드려
오늘은 정근벼요 내일은 사발벼라
밀따리 대초벼와 둥트기 경상벼라
들에는 조피더미 집가에 팥콩가리
벼타작 마친후에 틈나거든 두드리세
비단차조 이부주리 메눈이콩 황부대를
이삭으로 먼저잘라 후씨로 따로두소
젊은이는 태질이요 게집사람 낫질이라
아이는 소몰리고 늙은이 섬욱이기
이웃집 운력하여 제일하듯 하는것이
뒷목추기 짚널기와 마당골에 키질하기
일변으로 면화틀기 씨아소리 요란하다
틀차려 기름짜기 이웃끼리 합력하세
燈油도 하려니와 음식도 맛이나네
밤에는 방아찧어 밥쌀을 장만할제
찬서리 긴긴밤에 우는아이 돌아볼까
타작점심 하오리라 황계백숙 부족할까
새우젓 계란찌개 上饌으로 차려놓고
배추국 무나물에 고초잎 장아찌라
큰가마에 앉힌밥이 태반이라 부족하다
한가을 흔할적에 過客도 청하나니
한동네 이웃하여 한들에 농사할제
수고도 나눠하고 없는것도 서로도와
이때를 만났으니 즐기기도 같이하세
아무리 多事하나 農牛를 보살펴라
조핏대 살을찌워 제공을 갚으리라

十月令

시월은 孟冬이라 入冬小雪 節氣로다
나무잎 떨어지고 곤이소리 높이난다
듣거라 아이들아 농공을 필하여도
남은일 생각하여 집안일 마자하세
무우배추 캐어들여 김장을 하오리라
앞내에 정히씻어 염담을 맞게하고
고추마늘 생강파에 젓국지 장아찌라
독곁에 중드리요 바탕이 항아리라

양지에 假家짓고 짚에싸 깊이묻고
박이무우 알암밤도 얼잖게 간수하소
방고래 구두질과 바람벽 맥질하기
창호지도 발라놓고 쥐구멍도 막으리라
수수때로 덧을하고 외양깐에 떼적치고
깍지도 묶어세고 過冬柴 쌓아놓고
우리집 婦女들아 겨울옷 지었느냐
술빚고 떡하여라 降神날 가까왔다
술꺽어 단자하고 모밀앗어 국수하소
소잡고 돋잡으니 음식이 풍비하다
들마당에 차일치고 동네모아 자리포진
노소차례 틀릴세라 男女分別 각각하소
삼현한패 얻어오니 花郎이 줄모지라
북치고 소리하니 與民樂이 제법이라
李풍헌 崔첨지는 잔말끝에 醉倒하고
崔권농 姜약장은 체귀리 춤을춘다
잔진지 하올적에 동장님 上座하여
잔받고 하는말씀 자세히 들어보소
어와 오늘놀음 이놀음이 뉘덕인고
天恩도 그지없고 國恩도 망극하다
다행히 豐年만나 飢寒을 면하도다
鄕約은 못하여도 洞憲이야 없을소냐
孝悌忠臣 대강알아 도리를 잃지마소
사람의 자식되어 부모은혜 모를소냐
자식을 길러보면 그제야 깨달으니
천신만고 길러내어 男婚女嫁 필하오면
제각각 몸만알아 부모봉양 잊을소냐
기운이 쇠진하면 바라느니 젊은이라
의복음식 잘자리를 각별히 살펴드려
행여나 병나실까 밤낮으로 잊지마소
곡가오신 마음으로 걱정을 하실적에
남중거러 대답말고 화기를 풀어내고
들어온 지어미는 남편의 거동보아
그대로 본을뜨니 보는데 조심하소
兄弟는 한기운이 두몸에 나눴으니
귀중하고 사랑함이 부모의 다음이라
간격없이 한통치고 네것내것 계교마소
남남끼리 모인동서 틈나서 하는말을
귀에담아 듣지마소 자연히 귀순하리
행신에 먼저할일 공순이 제일이라
내늙은이 공경할제 남의어른 다를소냐
말씀을 조심하여 인사를 잃지마소
하물며 上下分의 尊貴가 懸隔하다
내道理 극진하면 죄책을 아니보리
임금의 백성되어 恩德으로 살아가니
거미같은 우리백성 무엇으로 갚아볼가
一年의 환자신역 그무엇 많다할고
한번에 필납함이 분외에 마땅하다
하물며 田畓구실 土地로 분등하니
소출을 생각하면 什一稅도 못되나니
그러나 못먹으면 災주어 蕩減하니
이런일 자세알면 왕세를 거듭하랴
한동네 몇호수에 各姓이 居住하여
信義를 아니하면 和睦을 어찌할고
婚姻大事 扶助하고 喪葬憂患
보살피며 水火盜賊 구원하고
有無稱貸 서로하여
날보다 요부한이 욕심내어 시비말고
그중에 환과고독 자별히 救恤하소
제각각 정한분복 억지로 못하나니
자네들 헤어보아 내말을 잊지마소
이대로 하여가면 잡생각 아니나리
酒色雜技 하는사람 初頭부터 그러할까
우연히 그릇들어 한번하고 두번하면
마음이 放蕩하여 그칠줄 모르나니
자네들 조심하여 적은허물 짓지마소

十一月令

十一月은 仲冬이라 大雪冬至 節氣로다
바람불고 서리치고 눈오고 얼음언다
가을에 거둔곡식 얼마나 하였던고
몇섬은 환하고 몇섬은 왕세하고
얼마는 祭飯米요 얼마는 씨앗이며
도지도 되어내고 품값도 갚으리라

시겟돈 장변리를 낱낱이 수쇄하니
엄부령 하던것이 남저지 바이없다
그러한들 어찌할고 농량이나 여투리
콩기름 우거지로 朝飯夕粥 다행하다
부녀야 네할일이 메주쑬일 남았도다
익게삶고 매우찧어 띄워서 재와두소
冬至는 明日이라 一陽이 生하도다
時食으로 팥죽쑤어 隣里親戚 나눠먹세
새책력 반포하니 來年節候 어떠한고
해찌러 덧없고 밤길어 지리하다
공채사채 요량하니 관리면임 아니온다
柴扉를 닫았으니 초옥이 한가하다
短晷에 조석하니 자연히 틈없나니
등잔불 긴긴밤에 길쌈을 힘써하소
베틀곁에 물레놓고 틀고타고 잣고짱네
자란아이 글배우고 어린아이 노는소리
여러소리 지껄이니 屋家의 재미로다
늙은이 일없으니 기즉이나 매어보자
외양간 살펴보자 여물을 가끔주소
깃주어 받은거름 자로쳐야 모이나니

十二月令

十二月은 季冬이라 大寒小寒 節氣로다
雪中애 봉만들은 해저문 빛이로다
세권에 남은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집안의 여인들은 설빔의복 장만하고
무명명주 끊어내어 온갖무색 도려내니
자지보라 송화색에 청화갈매 옥색이라
일변으로 다듬으며 일변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렸도다
입은것 그득하고 먹을것 장만하세
떡쌀은 몇말이며 술쌀은 몇말인고
콩갈아 두부하고 모밀쌀 만두빚소
세육은 계를믿고 북어는 장에사세
납형날 창에묻어 잡은꿩 몇마린고
아이들 그물쳐서 참새도 지저먹세
깨강정 콩강정에 곶감대추 생율이라
酒樽에 숨들이니 돌트며에 샘소리
앞뒷집 打餠聲은 예도나고 제도나네
새둥잔 새발심지 장등하여 새울적에
웃방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세배 하는구나
어화 내말듣소 농업이 어떠한고
종년근고 한다하나 그중에 낙이있네
우으로 국가봉용 사계로 祭先奉親
형제처자 婚喪大事 먹고입고 쓰는것이
토지소출 아니러면 돈지당 어이할고
예로부터 이른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배부려 船業하고 말부려 장사하기
전당잡고 빚주기와 장판에 체계놓기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집 가가보기
아직은 흔전하나 한번을 뒤뚝하면
파락호 빚구러기 사든곳 터도없다
농사는 믿는것이 내몸에 달렸으니
節氣도 進退있고 年事도 豐凶있어
수한풍운 잠시재앙 없다야 하랴마는
극진히 힘을들여 家率이 일심하면
아무리 살년에도 餓死를 면하나니
제시골 제시키어 소동할뜻 두지마소
黃天이 至仁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
자네도 헤어보아 十年을 가령하면
七年은 豐年이요 三年은 凶年이라
천만가지 생각말고 농업을 전심하소
夏小正 幽風詩를 성인이 지었느니
이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記錄하니
이글을 자세히 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第2節 傳來民謠

1.봉 선 화

봉선화라 하는것은
화춘삼월 성화시에
서왕모 잔치할제
옥황님이 내신배라
내방후면 너른뜰에
옥토같이 곱게일네
함박가뜩 심었더니
일야간에 싹이틀어
아침이라 찬이슬에
차차로 피어나니
곁잎은 지쳐놓고
속잎은 띠여내여
백옥반 색여놓고
조활사 펼쳐놓고
촉화에 희롱할새
허소히 매질말고
단단히 매였어라
하룻밤을 자고나니
내손끝이 꽃피였네
한물듸려 두물듸려
검은빛이 솟아나니
네일홈 고처짓자
처녀화로 차잤구나

2. 백 일 홍

백일홍이라 하는것은
백일을 피어 있으니
우리부모도 너와같이
백년형수 하옵소서

3.분 꽃

일자일홈 분나무야
석분이냐 토분이냐
녹의홍상 싱적이냐
일후석야 저문날에
시를찾어 가르치니
사부요순 행순이라

4. 양귀비 꽃

비야비야 양구비야
금색같이 염전커든
네무삼 화초인데
삼일만에 꽃이되니
단순하게 원이로다

5.국 화

구월추풍 색국화야
너는무슨 화초인데
각색꽃이 낙화되고
각색잎이 낙엽지는데
늘인후에 꽃이피니
나도 너와같이
늘인후에 씨를두고
인간공덕 없었으니
구천지하 돌아가서
높은지위 바랄소냐
꽃밭에 선관되어
추월춘풍 때가없어
화초찾어 훈수하고

인간물정 짐작하자

6. 새야새야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7. 나무 인경

춘아춘아 옥단춘아
너집으로 구경가자
앞뜰에는 꽃밭이요
꽃밭에는 나비놀고
뒷뜰에는 연못이요
연못안에 초당보게
초당문을 펄척여니
이쁜색시 앉었길래
분을주련 연질주련
분도싫고 연지도싫고
나무안경 주십시요

8. 밤 노래

시장 사장
할아범이 마당쓸다
귀떨어진 돈한푼얻어서
장에가서 밤한말사다가
치룽에 첫들였드니
머리깍은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썩은 밤한톨을 냄겼네
가마솥에 삶아서
조리로 건저서
대까칼로 벳겨서
곁껍질은 아범주고
속껍질은 어엄주고
정살은 너구나구
달궁달궁 다먹세

9. 이야기 하랄때

옛날옛적 고렛적
떡거머리 총각적
제치 서방님적
까비 되련님적

이야기는 이야기
뙤기는 뙤기
마른논에 깜부기
진논에 거머리
나막신딸곡 짚신찍찍
대문뻘곡 거적문털석
수까락뎅뎅 저가락쩌르르

10. 울어머니 젖

아가아가 우지마라
어머니는 장에가서
떡받어다 주마더라
아버지는 장에가서
신사다가 주마더라
우이한쌍 리어서
바지랑 장대로
따게되면 오마더라
떡도싫고 신도싫고
울어머니 젖만주소

11. 기럭아 기럭아

기럭아 기럭아
어데로 가니

한강으로 간다
무엇하러 가니
새끼치러 간다
멧배 첫니
두베 첫다
아들낳고 딸낳고
호르르

12. 나물 노래

아장아장 나물가자
무슨나물 가자느냐
개똥밭에 돌미나리
아삭바삭 도려다가
청강수물에 싹데쳐서
한강물에 흔들어서
어머님은 은반상이요
아버님은 금반상이요
오라버니 꽃반상이요

13. 팽글팽글 잘두돈다

팽글팽글 잘두돈다
요리저리 잘두돈다
고초먹고 매염매염
담배먹고 매염매염

14. 꽁 서방

꽁꽁 꽁서방
자네집 어데갔나
요리조리 댕기다가
풍당물에 빠졌네
멀루 건졌나
조리로 건졌지
엿다가 놨나
나뭇대기에 놨지
뭐먹고 살었나
개똥먹고 살었지
어떻게 울었나
껄껄이 울었지

15. 짬자래 꿈자래

짬자래 꿈자래
저리가면 죽는다
이리오면 산다
고기고기 앉어라

16. 가자가자 감나무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김치까지 꼭가지
맨드래미 봉숭아

17. 꽁지따기

김서방 나무가세
배아퍼 못가겠네
무슨배 자라배
무슨자라 업자라
무슨업 천자업
무슨천자 삼천자
무슨삼 고분삼
무슨고분 당고분
무슨당 선왕당
무슨선왕 개선왕
무슨개 버들개
무슨버들 칡버들
무슨칡 방아칡
무슨방아 물방아
무슨물 한강물
무슨한강 떼한강
무슨떼 구리떼
무슨구리 달구리

18. 기러기

앞의놈은 장사
뒤에놈은 도적놈
가운데놈은 꿀항아리

19. 사촌 형님

형님형님 사촌형님
반갑기는 하오만은
코아래구녕이 무섭소
쌀한되만 재쳤으면
형도먹고 나도먹고
구정물은 소가먹고
누른밥은 개가먹고

20. 서당앞에 비자낭근

서당앞에 비자낭근
선비제워 흔들었네
냇가의 버들잎은
물살세워 흔들었네
칠팔월의 슨나락은
모개제워 흔들었네
※제워=그리워

21. 숨박꼭질

하날때 두날때
사마종날때 윤날거지
팔대장군 고두레뽕

22. 통타령

이통 저통
신통 방통
노방통 금부통
장구통 여우홀림통
깽깽이통 원산고불통
웃집오줌통 아랫집똥통
우리집절구통 술집뜨물통
장님북통 돼지오줌통
수비대나발통 얽은놈의상통
목수먹통 못생긴밥통
큰애기젖통 주정꾼술통
못된놈심통 설은사랑애통

23. 새야새야

새야새야 파랑새야
대궐안에 들어가서
은행껍질 물어다가
바위밑에 모았다가
너의오라버니 장가갈제
청실홍실 느려주마

24. 달아달아 밝은달아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든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25. 기와밟기 놀이

이기야가 어늬기얀가
경상감사 놋기얄세
맺맺장이나 밟아왔나
스물닷장 밟아왔네
기와값이 얼마인가
천량천량 사천량
무슨바지 입고왔나
누비바지 보기만좋게 입고왔네
무슨허리띠 매고왔나

펄펄날려 환포단허리 되매고왔네
무슨버선 신고왔나
삼승버선 보기만좋게 신고왔네
무슨댓님 매고왔나
돌돌말어 통해수 보기만좋게 매고왔네
무슨짚석 신고왔나
석쇠짚석 신고왔네

26. 군사 놀이

어듸군산가 경상도군사로세
몇천명인가 삼천명일세
몇백바쿠 돌었나
삼백바쿠 돌었네
무슨칼을찼나 장도칼을찼네
무슨신을신었나 가죽신을신었네
동대문이어듸인가 여길세

27. 떵기 떵기

떵기떵기 떵선아
날러가는 학선아
구름속의 신선아
녹음의진상 내딸아
산지불공 내아들아
어름의궁게도 수달핀가
청산봉안 대추씬가

28. 개 떡

오라버니 오라버니
개떡줄까 쇠떡줄까
해비치나 삿갓줄까
목마를까 물떡줄까
오라버니 집에가건
개떡먹은 숭보지마우
이담에 잘살거든
찰떡치고 메떡처서
고대광실에 모시리라

29. 농 요

여보아라농부들 말들어보게
이논빰이에다 모를심어서
장잎이훨훨 정자로다
에헤어허 어허야
따여루 상사데야
여보아라농부들 말들어보게
이논빰이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에헤어허 어허야
따여루 상사데야
여보아라농부들 말들어보게
나라국곡을 하려니와
부모봉양 늘어간다
어헤어허 어허야
따여루 상사데야

30. 걸렸거라 앉어거라

울아버지 가는길에
소주탁주 걸렸거라
울어머니 가늘길에
무명송이 걸렸거라
우리형님 가는길에
연지분이 걸렸거라
우리오빠 가는길에
황금덩이 걸렸거라
이웃엄마 가는길에
호랑범이 앉었거라

31. 쥐야쥐야 새양쥐야

쥐야쥐야 새앙쥐야
사랑밑에 다람쥐야
이것저것 다먹어도
흰밥을랑 먹지마라
한식날이 되고보면
밤사오고 배사다가

울어머니 무덤우에
제사절사 지낸단

32. 농 요

어와우리 농민들아
동편산에 봄이왔네
눈이녹아 냇물되고
버들잎이 푸릇푸릇
농사때가 되었으니
농장기를 잡아세라
높은밭에 서속심고
낮은논에 벼를갈아
분전제초 근히하니
우순풍조 풍년이라
오곡잡곡 심은것을
가지가지 추수한후
산에올라 나무베고
물에가서 고기잡아
국끄리고 밥지어서
부모처자 단취하야
자미있게 식사하니
강구연월 이아닌가
어화우리 농민들아
천하대본 농사로세

33. 속 요

앞강에 뜬배는
님실러 온배요
뒷강에 뜬배는
낚시질 갈배라
님실러 올적엔
반돛을 달고요
님실코 갈적엔
왼돛을 달아요

34. 자장가

자장자장 자는고나
우리아기 잘도잔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주면 너를살가
금을주면 너를살가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동네방네 유신동이
태산같이 굳세거라
하해같이 깊고깊어
유명천하 하여보자
잘도잘도 잘도잔다
두둥두둥 두둥두둥
우리아기 잘도잔다

35. 갈에갑지 부엉

떡해먹자 부엉
양식없다 부엉
걱정말게 부엉
꿔다하지 부엉
언제갑게 부엉
갈에잡지 부엉

36. 숫자 놀이

일렀다
이상하다
삼각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오방이 끓어졌다
육군대장이
칠만명군사를 거나리고
팔도강산
구경을갔다
신명이 절로나도다

37. 나물꾼아

나물꾼아 나물꾼아
어서어서 나물가세
나물칼을 손에들고
나물보군이는 옆에끼고
원추리는꺽어 체금불고
앞은뜯어 입에물고
이산저산 거니르니
오난활량 가는활량
날만보구 침생키네

38. 언문풀이

가나다라 마바사아
ㄱㄴㄷㄹ
ㄱ자로다 집을짓고
ㄴ자로다 퇴를달어
지그시 지그시(ㄷ)
한백년 사잤더니
인연이없어 못살겠네
가갸 거겨
가이없는 이내몸이
거지없이 되었구나
고교 구규
고생하던 우리낭군
구곤하기가 짝이없네
나냐 너녀
나귀등에다 솔질을하고
순금안장 지여타고
팔도강산 구경갈가
노뇨 누뉴
노년은 무용인데
아니놀고 무엇하리
다댜 더뎌
다락다락 붙었든정이
덧이없이 뚝떨어졌네
도됴 두듀
도장은 늙은몸이
갱소년 못하리라
라랴 러려
날아가는 원앙새야
널과날과 짝을모자
로료 루류
로류춘풍은 인개유지
처처에 있건마는
마먀 머며
맞았드니 맞았드니
님의생각 절로난다
모묘 무뮤
무정세월이 약류과하야
돌아간봄철이 또다시오네
바뱌 버벼
밥을먹자 돌아다보니
벗이없어 못먹겠네
보뵤 부뷰
보고지고 보고지고
님의얼굴 보고지고
사샤 서셔
백년을사자하고 언약을하였더니
언약이중치않아 못살겠네
소쇼 수슈
소솔이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럭아
님의소식을 전하야주렴으나
아야 어여
아이담삭 쥐였든손목
어이없이 똑떨어졌다
오요 우유
오동복판 거문고에
새줄얽어 무릎에놓으니
청학백학이 우줄우줄춤을춘다
자쟈 저져
자조종종 오매든님이
소식조차 돈절이란말가

조죠 주쥬
조벼내게 골내든낭군
편지일장 논설하다
차챠 처쳐
차라리 잊었드면
온정이나 똑끈칠걸
초쵸 추츄
초당에 곤히든잠
봉학의소래에 놀내깨니
봉학은 간곳없고
나느니솔솔 물소랠세
카캬 커켜
용장군 드는칼로
요내몸을 점점이점일지라도
님은끊고 못살겠네
코쿄 쿠큐
콜작콜작 우는눈물에
이내옷깃 다젖는다
타탸 터텨
타도타도 월타도한데
누구를바라고 나여기왔나
토툐 투튜
투기지심이 절로나도
님은없어 못살겠네
파퍄 퍼펴
파요파요 보고파요
님의얼굴이 보고파요
포표 푸퓨
폭포수로 짓는물에
아조풍덩 빠졌드면
요꼴조꼴 아니볼걸
하햐 허혀
한양낭군은 내낭군인데
편지일장을 논설하다
호효 후휴
후회지심이 절로나네
님생겨달라고 기도나하자

39. 에여라 상사뒤야

에여라 상사뒤야
인제가면 언제오나
돌아오는 춘삼월에
꽃피거든 오시려나
에여라 상사뒤야
이세상이 무슨길인지
한번가면 생전을못오시나
에여라 상사뒤야
먼산에 자진안개돌고
낙락장송 너울너울한데
설음없이 눈물난다
에여라 상사뒤야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고병들면 못노나니라
에여라 상사뒤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 설어마라
당명화야 양귀비라도
죽어지면 허사로다
에여라 상사뒤야
깊은산중에 외로히도
홀로누었으니 웬말이요
다정한친구못보니 속답답하다
에여라 상사뒤야
남산송죽에 홀로우는저두견은
님죽은영혼이거던 날모셔가려므나
에여라 상사뒤야
중천에뜬 기러기는
짝을잃고 슬피우네
기러기도 처량하다
에여라 상사뒤야

第3節 京畿道民謠

민요란 그 민족의 인정 풍속과 기쁨과 괴로움을 전하여 오는 소박한 노래를 일컫는다. 민요는 민족 전체의 공동으로 지은 노래이기에 일정한 작가가 없는 것이오, 이것은 또 시대 따라 부단히 바뀌기에 민중의 공감과 공명을 받는 노래이기도 하다. 민요는 더욱 빛나는 것이다. 다스리는 계급의 질탕한 노래가 아니라 언제나 압제 받던 백성의 괴로운 생활과 사슬처럼 얽혔기에 그지없이 귀중한 것이다.

그중에도 이중으로 눌리우던 여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노래가 전하여 왔다는건 또 얼마나 놀랍고 대견한 일인가.

민요는 창자(唱者)에 따라 남요(男謠)·부요(婦謠)·동요(童謠)로도 나누지만 특히 음악의 면에서는 남도(南道)·서도(西道)·경기(京畿)등의 관사(冠詞)를 씌우는 게 보통이다.

여기서는 경기도민요 30곡 중에서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한 노래와 가사(歌詞)에서 광주(廣州)를 표출한 노래를 골라 소상하고 친절한 해설과 더불어 수록하기로 한다.

1. 民族의 哀歡과 詠嘆한 노래

봄이면 파아란 시냇물에 진달래 꽃잎 떠 가고 복숭아꽃 살구꽃 노오란 개나리 울섶에 피던 내 고향. 달밤이면 박꽃 하얗게 핀 초가지붕 아래 등잔(燈盞)불 밝히고 오손도손 꿈이 익던 우리네 고향, 우리 산천(山川)에 메아리치던 노래……겨래의 맥박과 환희(歡喜), 한숨과 눈물로 아롱지던 노래 아리랑은 우리만의 노래. 그래서, 어떤 땐, 그 노랫가락에 어깨춤이 흥겹고 또 어떤 땐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운 노래…….

낯설은 곳에선 고향이 생각나는 노래……고향에선 고향이 자랑스러운 노래…… 그래서 아리랑의 가락에는 우리의 숨결이, 한숨이 구비구비 맺혀 있다.

석양 무렵, 쟁기 메고 돌아가며 불렀던 노래……일제(日帝)에 나라를 빼앗기고 북간도(北間道) 서간도(西間島)로 떠나갈 때……목이 메어 불렀던 노래도 이 아리랑이었다.

"문전옥답은 어디 두고 쪽박의 신세가 웬말인가?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소. 북간도 벌판이 좋다더라.
쓰라린 가슴을 움켜잡고 백두산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부르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거운 노래, 부르다가 문득 어깨춤이 나는 노래……애국가를 못 부르던 그 어두운 세월, 아리랑을 불러 슬픈 가슴을 달래었고……고향이 그리워도 고향에 못갈 때, 가을날 지는 해 뜨는 달에 이 노래를 가만히 입속으로 흥얼거렸다. 아리랑은 한많은 겨레의 노래……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흥겨울 때, 서러울 때, 두고 온 산천(山川)이 보고파, 가슴이 메일 때 목메어 목메어 불러보는 것이다.

1) 아리랑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十里)도 못가서 발병난다.
② 수수밭 도조(賭租)는 내 물어줄께, 구시월(九十月)까지만 참아다오.
③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白頭山)덜미에 해저물어간다.
④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 강산(江山) 삼천리(三千里) 풍년이 와요.
⑤ 백두산 천왕봉(天王峰) 맑은 용왕담(勇王潭) 이천리(二千里) 구비쳐서 흘러 흘러 압록강(鴨綠江).
⑥ 한라산(漢라山) 백록담(白鹿潭) 좋은 경치 남국(南國)의 운치요, 영주(영洲)의 자랑.
⑦ 청천(靑天) 하늘엔 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愁心)도 많다.
⑧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錦繡江山), 꽃 피고 새 울어 봄철일세.
⑨ 서산(西山)에 지는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싶어 가나.
⑩ 백사장 해당화(海棠花) 여자(女子)의 자태(姿態), 눈 속에 푸른 솔 남아(男兒)의 기상(氣像).
⑪ 꽃 피어 방실방실 벌나비 춤 추고, 시냇물 졸졸 흘러 계곡(溪谷)을 감도네.
⑫ 십오야(十五夜) 뜬 달이 왜 이리 밝아, 산란한 내가슴 누를 길없네.
⑬쓰라린 가슴을 움켜잡고, 백두산 고개로 넘어간다.
⑭ 산신령(山神靈) 가마귀 깍깍 짖고 우리님 병세는 날로 깊어.
⑮ 인왕산(仁王山)뻐꾸기 밤새어 울고, 가신님 생각에 눈물지네.
⑯ 희망(希望)찬 앞날을 다짐하고 힘차고 용감(勇敢)히 싸워보세.
⑰ 황량(荒涼)한 벌판에 해는 지고, 앞으로 남은 길 천리만리(千里萬里).
⑱ 청천에 기러기 어디로 가나, 우리님 소식을 전해다오.
⑲소슬단풍(簫瑟丹楓)에 낙엽이 저도 꿋꿋한 송죽(松竹)은 절개(節介)를 자랑.
⑳ 날 버리고 가는 님 잡지를 마오.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다네.

〈해설〉

그리 오랜 노래도 아니면서 이것처럼 시름스런 가슴을 해칠 노래가 없고 뒤뚱그려 걸어온 한국(韓國)의 근세사(近世史)가 방울방울 피맺힌 기록(記錄)도 없을 것이다.

종래 이 아리랑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말(韓末) 대원군(大院君)이 경복궁(景福宮)을 이룩할 때에 비롯한다.

但願我耳聾 不聞願納聲

(원하노니 내 귀가 어두어져서 원납소리 안 듣기 소원이로다)

크나큰 역사(役事)이고 보니 부역도 그렇거니와 돈이 많이 든다. 처음에는 돈 있고 넉넉한 사람에게 자진해서 바치라고 생긴 원납(願納)이었지만 나중에는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사뭇 강제로 빼앗아 가득 백성의 재물을 털었다. 어떻게나 괴로웠으면야 차라리 귀가 먹어 원납전 소리를 안 듣겠다고 탄식하랴.

아리랑은 그 아이롱(我耳聾)이 변해서 그런 노래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秦始皇)이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을 때 부역하는 백성들은 사람된 자랑도 잊고 물에 노는 고기의 떼를 부러워하였다.

魚游河 我難離

(고기는 물에서 노는데 우리는 갈수도 없구나)

魚遊河 我多苦

(고기는 물에서 노는데 고생도 많구나)

경복궁의 역사도 고생은 한가지라 누군지 이 옛노래를 빌어다가 메붙듯 이렇게 불러 보았다고 한다. 아리랑은 그 아난리(我難離)가 거북해서 아리난(我離難), 다시 아리랑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생각이지만 아리랑은 또 그때 멀리 아내와 떨어져 있다는 향수(鄕愁) 아리랑(我離娘)에서 왔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이 노래가 그 무렵에 생겼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신라의 알영비(알英妃), 또는 영남루(嶺南樓)의 아랑(我娘)도 그렇고 억지로 아리랑의 뜻을 캐자니까 그런 군색한 부회(附會)가 생겼다.

그러나 아리랑은 아리랑에서 아무 의미도 생길 수는 없다. 결코 뜻있는 말이 아니요, 그냥 소리만 가지고 음조를 메워나가는 그런 여음(餘音)인 것이다.

그보다 한 노래로서 이 아리랑처럼 전국 어느 곳에나 멀리 널리 퍼지고 종류가 많은 소리도 드물 것이다.

이른바 본조(本調)아리랑으로 알려 있는 대표적인 서울(京畿)풍의 아리랑이 있고, 그 밖에 밀양(密陽)아리랑, 강원도(江原道)아리랑, 정선(旌善)아리랑, 진도(珍島)아리랑, 긴 아리랑, 별조(別調)아리랑, 신(新)아리랑 등 허다하다.

그러므로 지방에 따라 음률도 다르고 아리랑의 여음이며 가사도 각기 같지 않다.

2) 긴 아리랑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료 아리랑 아니얼소 아라리로구료.

① 만경창파(萬頃滄波)에 거기 등실 뜬 배, 계 잠간 닻주어라 말 물어보자.

② 아리랑고개에다 주막(酒幕)집 짓고 정든님 오시기만 고대(苦待) 고대한다.

③ 임 이별(離別)하던 날 내 어이살았나, 모질고 거센 세파(世波)어이 살아갈가.

④ 추야공산(秋夜空山) 다 저믄날에 모란황국(牧丹黃菊)이 다 피었구나.

⑤ 고운 얼굴에 눈물이 지니 이화(梨花) 도화(桃花) 춘대우(春帶雨)로다.

⑥ 우연(偶然)히 저 달이 구름밖에 나더니, 공연(空然)한 심회(心懷)를 산란케 한다.

⑦ 푸른 물결에 두둥실 뜬 백구(白鷗) 내 마음 아픈걸 네 어이 알소냐.

⑧ 산적적(山寂寂) 월황혼(月黃昏)에 이별(離別)한 님 그리워라.

⑨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에 임을 그리워 나 어이 살거나.

⑩ 모진 바람은 살 쏘듯이 부는데 임을 그려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⑪ 누구를 보고자 이 단장(丹粧)했나, 임 가신 나루에 눈물비 온다.

⑫ 낙랑장송(落落長松)을 더덤석 잡고 외로운 마음을 하소나 할까.

〈해설〉

주로 서울(京畿)지방에서 행하고 길게 느린 한배인데서 긴아리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아리랑의 노래보다 오래다는 말도 있으나 모두 한 무렵의 소리인 것은 그 율조가 말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료 아리랑 아리얼수 아라리로구료」

후렴의 타령부터가 본조(本調)아리랑과는 다르고, 그 가락 또한 한 없이 애절한 것이 있는데다 여기 원마루의 말이 또한 거의 눈물이 별한(別恨)이요, 불같은 규원(閨怨)을 부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못 슬프게 느끼게 하는 것이 이 긴아리랑이다.

또 보통 속요와는 달리 아래로 낮은 음에서 위로 높은 음까지 음역이 매우 넓어서 여간 성량이 없고서는 제대로 표출이 어려운 소리로도 이 긴아리랑이 자못 만만치 않다 하겠다.

3) 방아타령

※ 에 헤에 에헤에 에헤에야 에라 우이겨라 방아로구나.

일락(日落)은 서산(西山)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저기 저 달이 막 솟아 온다.

노자 좋구나

① 오초동남(吳楚東南) 넓은 물에 오고 가는 상고선(商고船)은 순풍(順風)에 돛을 달고 북을 두리 둥둥 울리면서 어기여차 닻 감는 소리, 원포귀범(遠浦歸帆)이 에헤라 이 아니란 말가.

※ 널과 날과 닻이나 감아라. 줄을 당기어라 물 때가 막 늦어간다.

② 무산십이(巫山十二) 높은 봉(峰)은 구름 밖에 솟아 있고,

해외소상(海外소湘) 떠가는 배는 범려(范蠡)의 오호주(五湖舟)요, 운간(雲間)으로 날아드는 새는 서왕모(西王母)의 에헤라 청조(靑鳥)로다.

※ 가노라 가노라 내가 돌아간다. 떠덜거리고 에헤야 나 돌아간다.

③ 강원도(江原道) 금강산(金剛山)에 일만 이천봉(一萬二千峰) 앉으신 성불(聖佛) 좌좌봉봉(座座峰峰) 만물상(萬物相)이오, 옥태수(玉台水) 좌르르르 흐르는 물은 구룡소(九龍沼)로만 에헤라 감돌아 든다.

※ 아서라 말어라 네 그리 마라. 사람의 괄시(恝視)를 에헤라 네 그리 마라.

④ 절벽비천(絶壁飛天) 장(壯)한 광경 오십천상(五十川上) 죽서루(竹西樓)라. 청담수(淸談水)로 눈을 씻고, 울진해변(蔚珍海邊) 바람 쐬니, 역력해안(歷歷海岸) 좋은 풍경(風景) 금낭(錦囊) 풀어 에헤라 수습(收拾)하세.

※ 산계야목(山鷄野목)은 가막능순(家莫能馴)이요, 노류장화(路柳墻花)는 에헤라 인개가절(人皆可折)이라.

⑤ 인생천지(人生天地) 백년 간(百年間)에 부귀 공명(富貴功名) 뜬 구름이라.

세상 만사(世上萬事)를 다 떨치고, 산중(山中)으로 돌아오니, 청산(靑山)이 이르기를 날다려 더디 온다고 에헤라 하드란 말가.

※ 이리렁성 저리렁성 흩으러진 근심 만화방창(萬和方暢)에 에헤라 궁글려라.

⑥ 영산홍록(暎山紅綠) 봄 바람에 넘노나니 황봉백접(黃峰白蝶)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용수세(山容水勢)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흥(春光春興)을 에헤라 자랑한다.

※ 삼산(三山)은 반락(半落)에 모란봉(牧丹峰)이요, 이수중분(二水中分)에 에헤라 능라도(綾羅島)로다.

⑦ 황성낙일(荒城落日)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용문학관(龍門鶴關ㅋ) 음신단(音信斷)하니 북방소식(北方消息)을 뉘 전(傳)하리.

빌건대 내 글 한장 임 계신 곳으로 에헤라 전하여 주렴.

⑧ 오다가다 만난 임은 정(情)은 어이 깊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새귄 것이 후회(後悔)로구나.

일후(日後)에 또 다시 만나면 에헤라 연분(緣分)이로다.

⑨ 강촌(江村)이 적막(寂寞) 주루룩 졸졸 오시는 비는 아황여영(娥皇女英)의 눈물이로다.

반죽(斑竹)에 성긴 가지 점점(點點)이 뿌렸으니 소상야우(소湘夜雨)가 에헤라 이아니란 말가.

⑩ 꽃 같이 고운 님을 열매 같이 맺어 놓고 가지가지 뻗은 정(情)이 뿌리 같이 깊었으니 백년(百年)이 진(盡)토록 에헤라 잘 살아볼까.

⑪ 해 떨어지자 달 솟아오니 연의 연잎은 다 숙어지고 금잉어(金잉魚)는 꼬리를 치고

살 찐 가물치 연당(蓮堂)에 놀고 어여뿐 미색(美色)들과 에헤라 어울려 놀까.

⑫ 하늘이 높다해도 삼사오경(三四五更)에 이슬을 주고, 북경(北京) 길이 멀다해도 사신행차(使臣行次)가 왕래(往來)를 하는데 황천(黃泉) 길은 얼마나 먼지 한번 가며는 에헤라 영절(永絶)이로다.

⑬ 강남(江南)서 나온 제비 한 쌍 박씨 하나를 입에다 물고, 이 집 저 집 다 버리고 박흥보(朴興甫) 집으로 에헤라 돌아든다.

⑭ 이십오현(二十五絃) 탄야월(彈夜月)에 불승청원(不勝淸怨) 저 기러기 갈순(葛筍) 하나를 입에다 물고 부러진 죽지를 절절 끌며 점점(點點)이 날아드니 평사낙안(平沙落雁)이 에헤라 이 아니란 말가.

⑮ 강상(江上)에 둥둥 떠 가는 배는 이백(李白)이 기경(騎鯨) 비상천(飛上天)후에 강남풍월(江南風月) 한다년(閑多年)이라. 풍월(風月) 실러 가는 밴가. 양양벽파(洋洋碧波) 맑은 물에 고기 잡는 에헤라 어선(漁船)인가.

⑯ 봄이 왔네 봄이 왔네. 금수강산(錦繡江山)에 새 봄이 왔네.

솔솔 부는 봄바람에 죽었던 풀이 새싹이 나고, 지저기는 산새들은 사람의 심정(心情)을 에헤라 도도낸다.

⑰ 뒷동산 노송(老松) 남에 자고 가는 저 황조(黃鳥)며 후원초당(後園草堂) 백화중(百花中)에 날아드는 저 봉접(蜂蝶)아

우리 님 소식을 에헤라 전하여 주렴.

⑱ 남산(南山) 밑에 남도령(南道令)아 온갖 화초(花草)는 다 베어도 금사오죽(金糸烏竹)은 베이지 마라.

올 자란 내년 자라 삼사오륙년(三四五六年) 넌짓 자라, 낚시나 장대를 베여다 놓고 낚으면 능사요. 못 낚으면 상사라.

상사 능사로 매듭을 지어 그 매듭 풀리도록 에헤라 잘 살아볼까.

⑲ 치어다 보니 만학(萬壑)은 천봉(千峰) 내리굽어 살피니 백사지(白沙地)로다. 허리 굽고 늙은 장송(長松) 광풍(狂風)을 못이겨 반춤만 추고, 주란화각(朱欄畫閣)이 에헤라 벽공(碧空)에 걸렸다.

⑳ 하늘천자(天字) 따지(地) 땅에 집우자(宇字)로 집을 짓고, 날일자(日字) 영창문(暎窓門)

을 달월자(月字)로 달아놓고 밤중이면 유정(有情)님 만나 별진(辰) 잘숙(宿)자로 거드렁거리고 놀자.

㉑ 억만장안(億萬長安) 남북촌(南北村)에 영웅호걸(英雄豪傑) 재자가인(才子佳人) 시인묵객(詩人墨客) 다 모아 싣고

대관령(大關嶺)을 섬붓 넘어 강릉(江陵) 경포대(鏡浦臺)로 에헤라 달맞이 갈까.

㉒ 천추절(千秋節)이 적막(寂寞)하여 개자추(介子推)의 넋이로구나.

백오동풍(百五東風)에 절일(節日)이오니, 한식명절(寒食名節)이 아니냐. 면산(眠山)에 봄이 드니 불탄 풀이 에헤라 속잎의 난다.

㉓ 박석테(薄石峙)를 넘어서서 춘향(春香)집 문전(門前)을 당도하니, 안채는 무너지고 밖앗채는 쓰러졌는데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려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고 내 글씨로 써 붙였더니 모진 광풍(狂風)에 다 떨어지고 충성충자(忠字) 매울열자(烈字) 단 두자만 에헤라 남았구나.

㉔ 칠백평호(七百坪湖) 맑은 물은 상하천광(上下天光) 푸르렀다.

어름 바퀴 문득 솟아 중천(中天)에 배회(徘徊)하고 적막(寂寞)한 어룡(魚龍)들은 세(勢)를 얻어 출몰하고 풍림에 귀아(歸鴉)들은 빛을 놀라 사라지니

동정추월(洞庭秋月)이 에헤라 이 아니란 말가.

㉕ 백두산상(白頭山上) 제일봉(第一峰)에 백학(白鶴)이 앉아 춤을 추고, 구비치는 압록강(鴨綠江)에 일엽편주(一葉片舟) 흘리저어, 풍경(風景)을 좇아 노닐적에 만단(萬端) 시름 묶어다가 흐르는 물결에 에헤라 띄워나 볼까.

〈해설〉

신라(新羅)의 자비왕(慈悲王) 때 서울 낭산(狼山)이 기슭에 살고 있던 백결선생(百結先生)이 어느 세모(歲暮)를 당하여 이웃에서는 집집마다 떡방아를 찧은 소리를 듣고 그 부인 탄식하되

「우리는 무엇으로 과세를 하노」

하였더니, 선생은 이 말을 듣고 가로되

「대저 사생(死生)은 명(命)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운이 오면 받을 것이요, 운이 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구태어 상심해 무엇 하리오」

하고 거문고를 당겨 방아찧는 소리를 내어 그 부인을 위로(慰勞)하였더니 그것이 세상에 전한 바 되어 그뒤 대악(대樂)이라 불렀다.

거문고의 방아곡조는 그때 처음 생긴것이 분명하지만, 지금의 방아타령까지를 그때에 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방아를 찧으면 부르던 이 나라 여인의 노작가요(勞作歌謠)도 그 연원(淵源)은 어지간히 오랜 것에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백이십년전(百二十年前) 경복궁(景福宮)을 다시 이룩할 때 재목(材木)과 더불어 부역(賦役)의 인부(人夫)도 팔도(八道)에서 모여들었다.

고된 노역(勞役)을 위로하는 것이란 무슨 위안을 주는 일이요, 한편 공사하는 일꾼들도 고향(故鄕)과 처자(妻子)를 잊어버리기 위하여는 마음껏 소리를 뽑는 것밖에 없었을 것이다.

각도 민요(各道民謠)의 교류(交流)와 함께 새로운 민요가 이때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은 일이다. 회(灰)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방아타령은 이때 생긴 것이다.

이렇게 방아타령은 여자의 목가적(牧歌的)인 영창(詠唱)에서 남자의 집단적(集團的)인 노작가요(勞作歌謠)로 변모(變貌)하였다.

나. 노래중의 노래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가버리는게 인생이라 하더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리는게 세월이라 하더라.

꽃잎에 걸려 있던 만월(滿月)도 보름이 못가 시들고 어제 저녁 부풀던 꽃망울도 이제는 뜨락에 낙화(落花)되어 휘날리는 법. 물같이 흐르는 세월에 주는 정(情) 받는 정(情)만 가슴을 울리고 우는 한 평생……그 한세상, 멋지게 사는 법을 우리네 조상들은 알았더란다.

가슴 조이고, 서러워 하고 눈시울 뜨거워하는 한 세상살이가 다 뜬 구름인 줄 알았더란다. 그래서, 마음 느긋이 먹고 한 세상을 살자고 노랫가락은 흥겨웠고……풍악 소리는 그저, 그저 신명이 났단다.

"이름일랑 묻지 마오. 꽃이라면 그만이지……보는 이야, 있건 없건 홍에 겨워 제 피느니 꽃피고 이름없이 그를 설워라"

초원장제(草原長堤)에 피었다 지는 이름없는 풀꽃잎처럼, 가을날 바람에 휘날리는 가랑잎처럼 가버릴 목숨인 줄 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게 인생(人生)인지 몰라……강(江)나루에 놀 이나리고, 나룻배 묶고 주막에 들리면 저절로 노랫가락이 나왔고……거나하게 취하면 발장단도 흥겨워……노랫가락은 더욱 신명이 나고……

다. 廣州를 노래한 경기민요

6)자진방아타령

①얼시구 절시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아하 에이요 에헤여라 방아홍아로다.②정월(正月)이라 십오일(十五日)에 액(厄)매기 연(鳶)이 떴다.

③이월(二月)이라, 한식(寒食)날에 종달새 떴다.

※④삼월(三月)이라 삼진(三辰)날 제비 새끼 명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에라디여 에요 에이어라 방아홍아로다.

⑤사월(四月)이라 초파일(初八日)·관등(觀燈)하러 임고대(臨高臺) 사면보살(四面菩薩) 장안사(長安寺) 아가리 벙실 잉어등(잉魚燈)에 등대줄이 떴다.

※아하에요 에이여라 방아홍아로다.

⑥오월(五月)이라 단오일(端午日) 송백수양(松柏垂楊) 버들가지 높다랗게 그네 매고 작작도화(灼灼桃花)느러진 가지 백릉(白綾)버선의 두 발길로 에……후리쳐 툭툭차니 낙엽(落葉)이

둥실 떴다.

⑦경기도(京畿道) 광주읍(廣州邑) 물방아가 없다더니, 밉지않은 처녀(處女)가 동구(洞口)방아만 찧는다.

※아하 에요 에이여라 방아홍아로다.

⑧이야 어서 찧고 잠이나 자자. 임자 없이 자는 잠은 새우잠만 잔다.

※에라디어 에이요 에이어라 방아 홍아 홍아로다.

〈해설〉

서울·경기지방의 선소리의 경우 놀령·앞산타령·뒷산타령을 부르고는 도라지 타령으로 돌고, 다음이 긴방아타령·자진방아타령의 차례인데 요즘 따로 튀어나와 행세하기도 한다.

「정월이라 십오일에 액맥이 연이 떴다.」

하나가 이렇게 소리를 맥이면 다음은 여럿이 후렴으로 받는다.

「에라디어 에이요 에헤여라 방아홍아로다」

그럼 다시 혼자서 멕이는 소리

「이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여럿이 받는말

「아하 에이요 에이여라 방아홍아로다.」

후렴을 두 개를 가지고 엇바꾸어 부르는 것이 다른 후렴과는 좀 다르다.

정월서부터 5월까지 차례로 섬긴 것을 보면 달거리의 소리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이하는 또 아무말이고 대중이 없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장단은 복는 타령, 경쾌하고 재미있는 소리의 하나이다.

7) 사설방아타령

① 경기도(京畿道)라 여주이천(驪州利川) 물방아가 제일인데 오곡백곡(五谷百穀) 잡곡 중에 자차베만 찧여보세.

※ 에헤헤 에헤야 에라 우이겨라 방아로구나.

② 마탄금탄(馬灘金灘) 여울물에 물레방아 돌고돌아 줄기차게 쏟는 물은 쿵쿵 쿵쿵 잘도 찧네

③ 산(山)에 올라 수진방아, 들에 내려 드딜방아, 돌고돌아 연자방아, 시름 잊고 찧어보세.

④ 자주 찧는 깨방아요, 원수(怨讎) 끝에 보리방아, 찧기좋은 나락방아, 현미백미(玄米白米)만 찧어보세.

⑤ 쿠궁쿵쿵 쿵딱쿵쿵 절굿대로 찧는방아, 이 방아를 어서 찧고 정(情)든 님을 만나볼까.

⑥ 만첩청산(萬疊靑山) 낚을 베여 이 방아를 지었구나, 방아방아 상사디야 덜크더덩 잘도 찧네.

⑦ 산골짜기 졸졸물에 물방아를 놓았구나. 방아 찧는 저 처자(處子)는 달만 보고 졸고 있네.

⑧ 산(山)기슭 한 모퉁이 처량(凄涼)할 손 물레방아 남의 속도 몰라주고 부지런히 잘도 찧네.

⑨ 온 마을에 풍년(豐年)들어 사람마다 즐기건만, 방아 찧는 이내 몸은 수고롭기 그지없네.

〈해설〉

방아타령에 많이 같으되 그 말이 좀 더 더한 것을 사설방아타령이라고 한다. 방아타령에는 이미 변조 자진방아타령이 있긴 하지만 사설방아타령도 또한 방아타령에서 파생한 곡임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아타령이나 자진방아타령이 후렴귀에 두는「에라 우려라 방아로구나」「에이여라 방아홍아로다」의 방아타령을 별로 하고는 원마루의 사설은 이와 아랑곳 없는 이것저것을 가져온 데 돌이켜 이 사설방아타령은 철두철미 방아타령에 시종한 것은 참으로 방아타령답다고 이를만 하다.

그리고 후렴은 방아타령의 그것을 그대로 인용(引用)하고 있는 것도 그럴듯 하게 여겨진다.

8) 건드렁타령

※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① 왕십리(往十里) 처녀(處女)는 풋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 고사리 두릅나물, 용문산채(龍門山菜)를 사시래요.

② 누각골(樓閣洞) 처녀(處女)는 쌈지장사로 나간다지, 쥘쌈지, 찰쌈지, 유자비빔을 사시래요.

③ 모화관(慕華館) 처녀(處女)는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갈매천익(天翼) 남전대(男戰帶) 띠에 춘방사령(春坊使令)이 제격이래요.

④ 애오개(阿峴) 처녀(處女)는 망건(網巾)장사로 나간다지, 인모망건(人毛網巾) 경조망건(京組網巾) 곱슬망건(網巾)을 사시래요.

⑤ 광주분원(廣州分院) 처녀(處女)는 사기(砂器)장사로 나간다지, 사발(砂鉢), 대접, 탕기(湯器) 종지 용천병(龍泉甁)을 사시래요.

⑥ 경기안성(京畿安城) 처녀(處女)는 유기(유器) 장사로 나간다지, 주발, 대접, 방짜대야, 놋요강을 사시래요.

⑦ 마장리(馬場里) 처녀(處女)는 미나리 장사로 나간다지, 봄미나리, 가을미나리, 애미나리를 사시래요.

⑧ 양사골 처녀(處女)는 나막신 장사로 나간다지, 홀테나막신 코매기며 통나막신을 사시래요.

⑨ 구리개(銅峴) 처녀(處女)는 한약(漢藥)장사로 나간다지, 당귀 천궁(當歸川芎) 차전 연실(車煎蓮實) 창출 백출(蒼朮白朮)을 시시래요.

⑩ 자하문(紫霞門) 밖 처녀(處女)는 과일장사로 나간다지, 능금, 자도(紫桃) 앵도(櫻挑) 살구 복숭아를 사시래요.

〈해설〉

비교적 오랜 노래에 속하고 서울·경기 소리의 하나이다.

건드렁타령의 이름은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라는 이 노래의 후렴귀에서 땄을 것이다.

내용은 서울 문안 문밖에 천민의 처녀들이 장사 나가는 것을 엮었는데 옛날 서울 근방의 풍속을 이해하는데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가요를 큰 애기풀이로 이르는데 이런 노래는 서울 말고도 각 지방에 많이 있다. 왕십리(往十里)처녀는 풋나물장사, 누각골처

녀는 쌍지장사, 모회관(慕華館)처녀는 갈매장사, 애오개(阿峴洞)처녀는 망건장사……이렇게 번지어 광주분원(廣州分院)의 사기장사 안성(京畿安城)의 유기장사까지 들추어 한 동네 한 절씩을 벨러 노래하고 있다.

세마치장단, 말도 가락도 매우 재미있고 흥겨웁게 되었다.

9) 오봉산타령

① 오봉산(五峰山) 꼭대기 에루화 돌배나무는 가지 가지 꺽어도 에루화 모양만 나누나.

※ 에헤요 어허야 영산홍록(暎山紅綠)의 봄 바람.

② 오봉산(五峰山) 기슭에 아름다운 꽃들은, 방실 방실 웃으며 이 봄을 즐겨 주노나.

③ 오봉산(五峰山) 제일봉(第一峰)에 백학(白鶴)이 너울대고 단풍(丹楓)진 숲 속엔 새 울음도 처량(悽涼)하다.

④ 오봉산(五峰山) 꼭대기 홀로 섰는 노송(老松), 남는 광풍(狂風)을 못 이겨 에루화 반 춤만 춘다.

⑤ 그윽한 준봉(峻峰)에 한 떨기 핀꽃은 바람에 휘날려 에루화 한들거리네.

⑥ 오봉산(五峰山) 말게다 에후화 국사당(國師堂) 짓고 임 생겨 지라고 노구메 정성(精誠)을 드리네.

⑦ 오봉산(五峰山) 꼭대기 채색(彩色) 구름이 뭉게뭉게 만학(萬壑)의 연무(咽霧)는 에화라 아롱아롱.

⑧ 바람아 불어라 에루화 구름아 일어라. 부평초(浮評草) 이내음 끝 없이 한 없이 가잔다.

⑨ 오봉산(五峰山) 골짜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꽃 피고 새 울어 심신(心身)이 쇄락(灑落)해지누나.

〈해설〉

우리 나라에 오봉산이란 이름을 가진 산은 많다. 강원도 금강산(金剛山)에도 있고,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과 고원군(高原郡)의 사이에도 있고, 함경북도 회령군(會寧郡)에도 있고, 평안북도 강계군(江界郡)과 후창군(厚昌郡) 사이에도 있는데 경기도 소리 오봉산타령은 경기도 광주(廣州)에 있는 오봉산을 지칭하였을 것이 별로 의심되지 아니한다.

서울·경기소리의 성격이 그러하듯 몹시 단아하고 화창한 것이 자랑인데 소리의 사이사이 뜻없는 입타령을 가져온 것이 매력이다.

「오봉산 꼭대기 에루화 돌배나무는 가지가지 꺽어도 에루화 모양만 나노나.」

그 중간에 「에루화」의 삽입이 이 노래의 조촐하고 가벼운 정을 더욱 돋구고 있는 것이다.

굿거리장단, 원마루와 다른 가락이 아니더라도 후렴의 말도 재미있게 되었다.

10) 한강수타령

① 한강수(漢江水)야 깊고 얕은 물에 수상선(水上船) 타고서 에루화 뱃노리 가잔다.

※ 아하아 에헤요 어허야 얼사함마 둥게 디어라 내 사랑아.

② 한강수(漢江水)야 네가 말을 하렴 아, 눈물 둔 영웅(英雄)이 몇몇 줄을 지은고.

③ 양구(楊口) 화천(華川) 흐르는 물, 소양정(昭陽亭)을 감돌아, 양수리(兩水里)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노나.

④ 잔잔한 물결에 노(櫓) 젓는 저 사공(沙工) 만단(萬端)시름 잊고서 배만 저어 가노라.

⑤ 멀리 뵈는 관악산(冠岳山) 웅장(雄壯)도 하고, 돛단 배 두서넛 에루화 한가(閑暇)도 하다.
⑥ 낚시대 드리우고 졸고 있는 어옹(漁翁)은 삼공불환(三公不換) 차강산(此江山)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⑦ 유유(悠悠)히 흐르는 한강(漢江) 물 위에 뗏목 위의 노래도 에루화 처량(悽涼)도 하다.
⑧ 정선(旌善) 영월(寧越) 지나서 단양도담(丹陽島潭) 감돌아 여주이천(驪州利川) 광나루(廣津) 압귀정(鴨鷗亭)으로 흐르네.
⑨ 조요(照耀)한 월색(月色)은 강심(江心)에 어렸는데 술렁 술렁 배띄어라 에루화 달맞이 가잔다.
⑩ 노을 진 저녁 빛, 한강(漢江)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悠悠自適) 즐기니 이도 멋진 흥취(興趣)일세.
⑪ 앞 강(江)에 뜬 배는 낚시질 거루요, 뒷 강(江)에 뜬 배는 임실러 가는 배란다.
⑫ 사풍세우(斜風細雨) 저믄 날 저믄 줄 모르고, 낚시대 드리우고 근들근들 졸고 있네.
⑬ 푸른 물결에 두둥 뜬 저 백구(白鷗)날과 같이도 에루화 외롭구나.
⑭ 강(江) 기슭 찬바람 몸에 스며드는데, 정(情)든 님 그리며 강(江)물만 보고 있노라.
⑮ 노들의 버들은 해마다 푸르른데, 한강(漢江)을 지키던 님 지금은 어디 계신가.

〈해설〉

이 한강수타령은 서울·경기 지방의 민요이긴 하나 앉아서 부르는 좌창(座唱)이라기보다 오히려 서서 부르는 선소리(立唱)에 속하는 노래이다.

한강수타령은 한강의 역사, 한강의 자연, 한강의 선유(船遊), 한강의 애환등을 엮어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고 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 그 위에 부침(浮沈)하는 인생의 영욕(榮辱).

한강수는 말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여기 삶을 부치는 배 위에 사는 사랑의 눈물이 더 한다.

굿거리 장단. 물 흐르듯 한 미끄러운 율조가 선소리인 것을 잘 증명한다.

〈※歌詞 李昌培 解說 成慶麟의 民謠三千里중〉

라. 노래가락

①충신(忠臣)은 만조정(滿朝廷)이요, 효자열녀(孝子烈女)는 가가재(家家在)라. 화형제(和兄弟) 낙처자(樂妻子)하니, 붕우유신(朋友有信)하오리라.

우리도 성주(聖主)모시고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누리리라.

②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며는 못노나니, 화무(花無) 십일홍(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

인생(人生)은 일장춘몽(一場春夢)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③어지러운 사바세계(娑바世系) 의지(依支)할 곳 바이없이 모든 미련(未練) 다 떨치고 산간벽절(山間僻寺) 찾아가서 두견(杜鵑)접동 벗이 되어 깊은 밤을 새워 볼까.

④바람이 물 소린가 물소리 바람인가. 석벽(石壁)에 달린 노송(老松) 음추리고 춤을 추네.

백운(白雲)이 허우적거리고 창천(蒼天)에서 내리더라.

⑤무량수각(無量壽閣) 집을 짓고 만수무강(萬壽無疆) 현판(懸板)달아, 삼신산(三神山) 불노초(不老草)를 여기 저기 심어놓고,

북당(北堂)의 학발양친(鶴髮兩親)을 모시어다가 연년익수(延年益壽).

⑥백사청송(白沙靑松) 무한경(無限景)에 해당화(海棠花) 붉어있고, 벽파상(碧波上)의 갈매기는 벗을 찾아 노니는데, 한가(閑暇)한 저 범선(帆船)은 풍경(風景)을 좇아 오락가락.

⑦울며불며 걸어온 길이 이제 와서 여기런가, 안타까이 애 태우며 몸부림치기 그 얼마인가.

나머지 반평생(半平生)을 어이 울며 걸어가리.

⑧이 인생(人生)이 허무(虛無)하다. 세월(歲月)이 유수(流水)로다.

엇그제 곱던 자태(姿態) 어언간(於焉間)에 백발(白髮)일세.

아서라 인생무상(人生無常)을 새삼 서러워 무엇하리.⑨송악산(松嶽山) 내리는 안개 용수봉(龍壽峰)의 구진비 되어 선죽교(善竹橋) 맑은 물에 원앙선(鴛鴦船)을 띄워 놓고, 밤중만 월색(月色)을 좇아 완월장취(완月長醉).

⑩호시절(好時節)어느 때인고 청류수(淸流水) 맑은 물에 대사립(蓑笠) 저켜 쓰고 낚대를 넣은 저 어옹(漁翁)은 고길랑 잡지를 말고 봄빛이나 낚으려무나.

⑪그윽한 산(山)비탈에 홀로 섯는 두견화(杜鵑花)는 지극(至極)히 위태(危殆)타마는 자흥(自興)에 겨워 방실방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로 한들한들.

⑫오월(五月)이라 단오일(端午日)은 천중가절(天中佳節)이 아니냐. 수양청청(垂楊靑靑) 버들숲에 꾀꼬리는 노래하네.

휘영능청 버들가지 저 가지를 툭툭차자.

⑬이름을랑 묻지마오, 꽃이라면 그만이지. 보는 이야 있건 없건 흥(興)에 겨워 제 피느니, 꽃 피고 이름 없으니 그를 설워.

⑭연당(蓮堂) 맑은 물에 연(蓮)을 캐는 아희들아 십리장강(十里長江) 배를 띄워 물결 곱다 자랑마라.

그 물에 잠든 용(龍)이 깨면 풍파일까 염려(念慮)로다.

⑮인연(因緣)없는 그 사랑을 잊어 무방(無妨)하련마는 든 정(情)이 병(病)이 되어 살으려니 간장(肝臟)이라.

지금(至今)에 뉘우친들 무삼 소용(所用).

⑯관산(關山)이 머다더니 구름 아래 그 곳이로다.

마음은 가건마는 몸은 어이 못 가는고.

지금에 생각사록 주야(晝夜)로 수심(愁心)이로다.

⑰공자(孔子)님 심으신 낢에 안연(顔淵) 증자(曾子)로 물을 주어 자사(子思)로 벋은 가지 맹자(孟子) 꽃이 피었도다.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만대(千秋萬代)에 무궁화(無窮花)가.

⑱창해명월(蒼海明月) 두우성(斗牛星)은 임 계신 곳 비쳐있고, 회포(懷抱)는 심란(心亂)한데 해는 어이 수이 가노.

경경(耿耿)히 그리는 것은 간장(肝臟)썩은 눈물이라.

⑲임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임이로다.

믿을 만한 사시절(四時節)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하물며 남의 임 정(情)이야 어이 진정(眞情)으로 믿을소냐.

⑳성성제혈(聲聲濟血) 염화지(染花枝)에 애를 끊는 저 두견(杜鵑)아 허다공산(許多空山) 다 버리고 내 창전(窓前)에 와 왜 우느냐.

밤중만 네 울음소리 겨우 든 잠을 다 깨운다.

㉑운종룡(雲從龍) 풍종호(風從虎)라 용(龍)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범 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송군(今日送君) 나도가요. 천리(千里)에 임 이별(離別)하고 주야상사(晝夜相思)로 잠 못 이뤄.

㉒온 자취 간 자취를 무엇을 보아 안다 할고.

물 위에 지워지고, 눈 위에 녹았으니 인생(人生)의 사라진 자취 한줌 흙만 남았구나.

㉓알뜰살뜰 맺은 사랑, 울며 불며 헤어지니, 아프고 쓰린 가슴, 어이 달래 진정(眞情)하리.

아마도 자고청춘(自古靑春)이 일로 백발(白髮).

㉔삼동(三冬)이 언듯 가고 어느새 봄이로다. 눈 녹은 개울 물이 출렁출렁 흘러가네. 꽃가지 앉은 나비들 너울너울 춤을추네.

㉕세파에 시달린 몸 산간(山間)을 의지(依支)하니, 승방(僧房)에 늦인 종(鍾)소리 이내 서름을 아뢰는 듯,

아서라 다 떨쳐 버리고 염불 공부(念佛工夫)나 하여보자.

㉖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세우(細雨)되어, 우리님 자는 영창(映窓)밖에 불면서 뿌리 가져,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㉗옥(玉)으로 함을 새겨 임도 들고 나도 들어, 금(金)거북 잠을 쇠를 어슥비슥이 채워놓고, 명천(明天)이내 뜻을 받아 열쇠 없어.

㉘그제 임 이별(離別)하고 벽사창(碧紗窓)에 지였으니 황혼(黃昏)에 지는 꽃과 녹양(綠楊)에 걸린 달을 아무리 무심(無心)히 보아도 불승비감(不勝悲感).

㉙명사(明沙)의 해당화(海棠花)야 나비 옴을 괴로마라.

고움이 항상(恒常)이며 청춘(靑春)인들 매양(每樣)이랴.

일후(日後)에 낙화(落花)지며는 후회막급(後悔莫及).

㉚춘풍(春風)에 떨어진 매화(梅花)이리 저리 날리다가, 남게도 못오르고 걸렸구나. 거미줄에, 저 거미 매화(梅花) ㄴ줄 모르고 나비 감듯.

㉛백운간(白雲間) 옷을 떨고 강릉별개(江陵別槪) 들어가니, 평포호색(平浦好色) 이십리요, 경개절승(景槪絶勝) 경포대(鏡浦臺)라. 아희야 배 자로 저어라 달맞이 갈까.

㉜도화우(桃花雨) 흣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㉝백두산(白頭山) 올라보니 만리(萬里) 벋은 옛 강토(疆土)에 을지공(乙支公) 칼 기운(氣運)이 지금(至今)까지 어리었네.

무궁화(無窮花) 삼천리(三千里)에 만년서기(萬年瑞氣)가 뻗쳤도다.

㉞마음이 지척(咫尺)이면 천리(千里)라도 지척(咫尺)이오.
마음이 천리(千里)라면 지척(咫尺)이라도 천리(千里)로다.
우리는 각재천리(各在千里)나 지척(咫尺)인가.

㉟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海棠花)는 망양정(望洋亭)의 경개(景槪)로다. 명화일지(名花一枝) 꺾어 들고 평해풍광(平海風光) 희롱(戱弄)하니 백석청송(白石靑松) 연충헌(練層軒)에 월송정(越松亭)이 상괘로다.

㊱만균(萬鈞)을 느려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장천(九萬長天) 가는 해를 휘휘칭칭 잡아매어
북당(北堂)의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㊲어화 세상(世上) 벗님네야 부귀공명(富貴功名)을 탐(貪)치 마오. 부귀(富貴)는 티끌과 같고 세상공명(世上功名)은 뜬 구름이라.
이 인생(人生) 초로(草露) 같으니 어이 아니 애닯은가.

㊳꿈아 무정(無情)한 꿈아 왔던 임을 왜 보내나.
오신 임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우려마.
이 후(後)에 임이 오시면 임을 잡고서 날 깨워주렴.

㊴산(山)비탈 굽은 길 소 몰아가는 저 목동(牧童)아.
네 부는 피리 소리 이내 가슴을 어이는 듯.
아서라 불지를 마라 임 여인 설음 복받친다.

㊵귀뜨리 저 귀뜨리 어여뿔사 저 귀뜨리.
지는 달 새는 밤에 절절이도 슬피울어.
네 비록 미물(微物)일 망정 내 뜻 알기는 너 뿐인가.

㊶비 자고 바람 자고 달 보고 짖던 개도 잔다.
낙화(落花)도 뜰에 가득, 다 쓰러져 잠자는데, 자규(子規)야 너만 홀로 잠 못들어 애태우네.

㊷기러기 다 날아드니 소식(消息)인들 뉘 전(傳)하리.
수심(愁心)이 첩첩(疊疊)하니 잠이 와야 꿈을 꾸지.
차라리 저 달이 되어 임 계신 곳 비쳐볼까.

㊸달같이 뚜렷한 님을 저달과 같이 달아놓고
달달이 그리던 정을 어느달에나 풀어볼까
달보고 긴 한숨짓나니 저 달이 지는 줄 몰랐구나.

㊹사랑을 사자하니 사랑 팔이 뉘 있으며,
이별(離別)을 팔자하니 이별 살이 뉘 있으랴.
사랑 이별 마음대로 안 되니 안타까워.

㊺사랑도 거짓말이요, 임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 하니 그것도 역시(亦是) 못 믿겠구나.
날같이 잠 못이루면 꿈인들 어이 꿀 수 있나.

㊻춘산(春山)에 봄춘자(春字) 드니 포기 포기 꽃화자(花字)라.

일호주(一壺酒) 한 병 가질지자(指字)하니 내천자변(川字邊)에 앉을좌자(坐字).
아희야 잔상(殘像) 들거(擧)하니 좋을호자(好字).

㊼언덕에 들국화(野菊)는 서리 속에 애련(愛憐)하다.
못 휘는 절개(節介)라고 송죽(松竹)만을 자랑하리.
연약(軟弱)한 화초(花草)라 한들 한뜻 지켜 피었구나.

㊽백두산석(白頭山石)은 마도진(磨刀盡)이요, 두만강수(豆滿江水)는 음마무(飮馬無)라.
남아이십(男兒二十) 미평국(未平國)이면 후세수칭(後世誰稱) 대장부(大丈夫)랴.
아마도 남이장군(南怡將軍)의 장부시(丈夫詩)ㄴ가.

㊾깊은 산(山) 깊은 골이 밤이 들어 더 깊으니,
물 소리 고처높고 벌레 소리 유난하다.
나그네 시흥(詩興)에 겨워 잠 못일워.

㊿내가 술을 즐기어 먹나, 광약(狂藥)인줄을 알면서도.
일편단심(一片丹心) 먹은 마음 구비 구비 설음이라.
오날도 이 술이 아니면 뜻 불일 곳이 바이없네.

(51)내 한(恨)을 누구를 주고, 누구의 한을 가져다가,
한 평생(平生) 기나긴 밤을 한(恨)속에서 새는구나.
한중(恨中)에 말 못할 한(恨)이 더욱 설워.

(52)청산(靑山)이 불로(不老)하니 미록이 생장(生長)하고,
강한(江漢)이 무궁(無窮)하니 백구(白鷗)의 부귀(富貴)로다.
우리는 이 강산(江山) 풍경(風景)에 분별(分別) 없이 늙으리라.

(53)남의 님 좋다하고 나만 어이 매양(每樣)보리.
한 열흘 두 닷세에 여드레만 보고지고,
그 달도 설흔날이면 남은 이틀은 못보려니.

(54)청류벽(淸流壁) 사월천(四月天)에 녹음방초(綠陰芳草) 승화시(勝華時)라. 편주(片舟)에 술을 싣고 벽파(壁波)로 내려가니,
아마도 세상영욕(世上榮辱)이 꿈이런가.

(55)가고 못올 님이면 정(情)이나 마저 가져가지,
님은 가고 정(情)만 남은니 정 둘곳이 난감이로다.
이 정(情)을 어따 두었다 임오실 때에 풀어볼까.

(56)단풍(丹楓)은 반(半)만 붉고 시냇물 맑았는데 여울에 그물칙 반석상(磐石上)에 누웠으니, 아마도 사무한신(事無閑身)은 나뿐인가.

(57)백두산(白頭山) 떼구름지고 두만강상(豆滿江上)에 실안개 끼니,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고서 된소리 칠지.
임이 올지 사랑이 올지 가이만 호로 짖고 있네

(58)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한 간 지어내니,
반간(半間)은 청풍(淸風)이요, 반간(半間)은 명월(明月)이라.
강산(江山)은 들릴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㊾육십(六十)이 머댔더니 오고보니 오늘이라.

지난일 도리키니 뉘우침도 하도할사, 두어라 남은 일에나 새로살까.

㊿창외삼경(窓外三更) 세우시(細雨時)에 양인심사(兩人心思) 양인지(兩人知)라.

신정(新情)이 미흡(未洽)하여 날이 장차(將次) 밝아오니, 다시금 나삼(羅杉)을 부여잡고 훗기약(期約)을.

〈해설〉

무슨 노래가 오래고 먼 높은 항렬을 자랑하더라도 이 노랫가락의 앞에는 모두 아기처럼 어리고, 또 무슨 노래가 바르고 깨끗하다고 의젓을 피울지라도 이 노랫가락처럼 거룩한 자리에 불리웠던 가락이 없을 것이다.

오랜 나이가 고목(古木)처럼 높고, 불리우는 자리가 어느 때고 깨끗하였다는 것은 이 노랫가락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시 종교와 그 흐름을 함께 한 신가(神歌)인 까닭이다.

요즘이야 이 곡조가 속되게 굴러서 아무의 입에서고 쉽게 튀어 나오지만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은 원래 무격이나 불렀지 다른 사람은 옮기지 않았다.

노랫가락이란 이름부터가 벌써 잡된 속요 등 속이 아니라는 좋은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 신사(神事)에서 무당이 불렀던 노랫가락을 무당노랫가락이라고 하고 세속에 일반화된 것을 그냥 노랫가락이라고도 부른다.

무당의 노랫가락은 지금도 그 음악의 전통을 곱게 지키고 있다.

노랫가락이 3장 형식이라, 3장 형식인 시조이며는 잘 맞고 종장의 끝귀3자를 시조창에서 생략하듯이 노랫가락에서 아니 부르는 건 재미있다.

마. 도라지타령

①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深深山川)의 백도라지.

한 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로 반(半)식만 되누나.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어여라난다 지화자 좋다. 저기 저 산(山)밑에 도라지가 한들한들.

②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강원도(江原道) 금강산(金剛山) 백(白)도라지, 도라지 캐는 아가씨들 손맵시도 멋드러졌네.

③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은률(殷栗) 금산포(金山浦) 백(白)도라지, 한 뿌리 두 뿌리 받으니 산(山)골의 도라지 풍년(豐年)일세.

④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순진난만(純眞爛慢)한 아가씨들

총각만 보면 낯 붉히는 수줍은 태도(態度)가 더욱 좋네.

⑤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이 도라지를 캐어다가

마늘 파 깨소금 양념하여 어른님 공경(恭敬)에 힘을 쓰세.

⑥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산유곡(深山幽谷)에 난 도라지,

보라 꽃 남(藍) 꽃 만발(滿發)하여 바람에 휘날려 건들대네.

⑦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뒷 동산(東山)엉큼바위에 난 도라지,

꽃바구니 옆에 끼고 살랑살랑 캐러가네.

⑧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캐는 아가씨들 행주치마 휩싸안고 오솔길로 돌아가네.

〈해설〉

아리랑과 같은 3박자, 그러나 아리랑 보다는 명쾌한 율조(律調)로 되어 있는 신민요이다.

서도(西道) 은율(殷栗)지방에도 도라지타령이 있고, 서울·경기 선소리(立唱) 속에도 같은 이름의 도라지타령이 있으나 이 도라지타령은 강원도(江原道) 지방에서 생겼다고 생각되는 아리랑곡에 유사한 점이 많은 민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常識)일 것이다.

도라지 도라지 백(白)도라지
심심산천(深深山川)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철철 다 넘누나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어여라난다
지화자 좋다 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 녹인다.

도라지는 못캐어도 아름다운 사랑이 얻어지기를 꿈꾸는 산골 소녀의 순정(純正)의 노래가 곧 도라지타령이다.

第5章 題詠詩歌

第1節 時 調

南漢山城

山疊疊 谷深深에 綠水맑게 흘르는 곳
山城안 찾아드니 百濟古城 옛모습은
修久한 歷史지니고 새로 이룩 되었오

左 翼 門 (東門)

日長山 나리는물 쉬지않고 흐르나니
해와달 맞이하는 左翼門이 예로구나
樓上에 올러서보니 古色만이 푸르오

長 慶 寺

① 長慶寺 찾는길에 望月寺址 언듯보고
재넘어 靑山속을 허위단신 찾아들제
숲속에 뻑국새소리 옛남그려 우나니
②閑寂한 幽谷인데 홀로있는 長慶寺야
佛桃花 희게피고 芍藥꽃도 붉었어라
南鎭樓 텅비인다락 往事虛無 하고나

地 水 堂

한못은 간데없고 池塘둘만 남았는데
亭子에 올라서서 땀을씻고 앉아보니
南鶴鳴 地水堂記에 옛追想이 새뤄라

顯 節 祠

三學士 愛國忠烈 松竹같이 푸른마음
淸太宗 네威力이 號令한들 무었할고
殉節한 세분忠靈께 冥福빌고 가노라

演 武 館

鍊兵의 武術鍊磨 예와이제 다르랴만
勇과猛 心身鍛鍊 그자최를 傷想할제
두그루 떡갈나무야 너는알가 묻노라

崇 烈 殿

日長山 西北허리 푸른숲이 그윽한데
溫祚王 英靈모신 招魂閣을 參拜하니
儒佛敎 百濟文化는 聖王때라 하더라

西 將 臺

城따라 높은峰에 守禦將臺 올라보니
淸溪堂 靈을모신 李晦님功 잊을손가
丙子年 無望樓에서 藍衣玉帶 그리오
〈以上은 高百祿의 古蹟巡禮 중에서〉

第2節　漢　詩

畿甸山河

鄭　道　傳

疊峰環畿甸　道里均皆適
長江帶國城　田原沃可耕
美哉形勢自天成　居民當庶樂昇平
眞箇是王城　處處有歌聲

遊漢江

李　穀

纔登傑構縱奇　江山千里無改色
又棹樓船泛碧湍　資主一時能盡歡
錦帶徐回牽綠翠壁　遙想月明人去後
玉壺頻送隔丞欄　白鷗飛占鏡光寒

漢　江

明使陳鑑

漢江煙淡碧於藍　鷗飛渡口潮初長
美景良留海外　掌向窮崖深樹底
畵舫淸遊趣正湛　詩人毫端酒半酣
佳山秀水逼江南　滿空嵐翠落毵毵

廣州靖陵

守　瓚

暇日便興出　煙渚孤帆夕
荒臺滿目愁　楓林數雁秋
喬山何處葬　淸樽江上寺
漢水至今流　又與故人遊

狎鷗亭

項　忠

韓公雅趣愛淸　鷗訓階下澄澄水
每向江亭喜往還　螺列江邊點點山
只伴漁翁垂雪鬢　社稷殊勳庸詎說
肯憐歌妓整雲鬟　不妨隨意俯蒼灣

南漢山城

姜　樸

南登南漢城　踰堞非今日
北望三田渡　昇平五十春
石闕誰家碑　對敵抗無人
人問白日暮　能縛斥和臣.
誰逐鴨江邊　大野荒壇在
三日到郊圻　當時虜帳高
不見我城陰　狼藉銅盤血
但見胡長飛　東人無寸刀.
落日西將臺　虜索斥和臣
沈歌意不極　若斥終幾人
荒雲入古城　爭言吾不斥
飢鶻登寒木　北去只三臣.
胡馬日勝躍　國家非負爾
哀哉圍城中　當時三百州
所恃惟南鶻　獨有雙嶺死.

西將臺

肅　宗

回駕直登西將臺　念然慷慨不能抑
君臣說往日昏來　惟有善承繼哉

顯 節 祠

嗟哉三學士　拜辭忠愈疑
凜凜節如何　臨死節尤磨
知是皇朝在　舊宇圖新煥
力排醜虜和　追思感實多

望 月 峰

徐 居 正

長風飽帆漢水急　雙耳鳴時興自足
枯腸得酒亦易醉　偸眼東峰待新月
移樽飛上夢山顚　新月렴염生雲端
古人愛月皆儒仙　須유懸在天中央
赤壁何時舞玄鶴　擧杯問月月不應
一樽袞袞江無窮　永輪無角金波纈
五夜深深月不落　九州四海皆淸光
山中歸來酒初熟　顧兎笑我多情狂
騎鯨寥廓猶千年　今人古人將無同
伯仲豪氣天下先　四佳醉老頭半白

松 岩 寺

李 穡

松樹蒼蒼石勢頑
葉間風雨半天寒
老僧出定忘聲色
頭上光吽吉似丸

池 谷 八 景

姜 正 熙

1. 鷹峰觀月(매봉의 달맞이)
月上東嶺影滿池(저달이 동령에 떠 연못에 비치니)
層流溪谷帶光移(층층이 계곡따라 그 빛이 옮겨가네)
人間世事如春夢(인간의 세상사 춘몽과 같건만)
唯爾無窮相對期(너만은 무궁히 대할 기약 있나니)

2. 二水眠鷺(두물머리 조는 백로)

昆池五浦兩川頭(곤지와 오포의 두물의 머리가)
相合滔導何海流(서로만나 넘실넘실 바다로 흘러가네)
回轉成潭沙堆岸(빙빙돌아 연못되고 모래모여 언덕되니)
銀鱗躍水鷺眠洲(고기는 물에 뛰고 백로는 가서 졸아)

3. 峴山落照(볼뫼에 지는 해)

芽屋數間鎖夕煙(초가집 두어채 저녁연기 잠기리)
輕風引止水西邊(솔솔바람 몰고가 내서쪽에 모아놓네)
東山返照生殘色(동산의 저녁노을 연본 빛갈 생기니)
樹影參差似畫懸(나무그림 얼기설기 그림같이 달려있네)

4. 八仙鳴鶴(팔선정에 학이 우네)

八仙遊去獨留亭(여덟신선 놀고가니 정자만이 남아있네)
岩壁蘇苔古色靑(암벽에 이끼맞은 옛빛이 푸르러)
雲舞예裳何處在(구름타고 춤추던 그 모습 어디있느)
只今間或鶴長鳴(지금은 간간히 학의 울음 있을뿐)

5. 鏡水綠波(경수의 푸른물결)

溪流暫住一鑑明(시내물 머물어서 한장거울 밝으니)
水色天光共淨淸(물빛과 하늘빛이 다같이 맑고맑아)
風靜日暖孤帆過(바람자고 따뜻한날 외로운돛 지나가니)
漁歌高處綠波平(어부노래 높은곳에 푸른물결 평평해)

6. 三峰牧笛(삼봉양지 피리소리)

暮雨乍晴射夕陽(늦은비 잠간개어 석양에 비치니)
三峰翠色倍生光(삼봉양지 푸른색 배나더 빛이 생겨)
牧童牛背歸家處(목동이 소타고 집으로 가는곳에)
吹笛聲聲谷口長(피리부는 소리소리 골짜기 울리네)

7. 菊水丹楓(국수봉의 단풍)

似弁尖峰屹洞前(고깔같이 뾰죽한봉 마을앞에 솟았으니)
滿山叢石色蒼然(산에 찬 무더기돌 색깔이 푸르러)
丹楓野菊時爛熳(단풍과 들국화 때마치 싱그러워)
杜鵑聲中月上天(접동새 우러우러 저달도 솟았네)

8. 七寺暮鍾(칠사산 저믄 종)

南漢連峰似屛環(남한산 내려온 봉 병풍같이 둘렸는데)
遙着七寺白雲間(저멀리 칠사산 구름속에 가리웠네)
僧歸山路森羅寂(스님가신 산길에 삼라만상 고요해)
遠響暮鍾落翠巒(울려오는 모종소리 먼산넘어 떨어지네)

第六章 言語와 方言

第1節 言 語

1. ㄱ

가난 구제는 나라도 어렵다.
가난한 집 제사 날 돌아오듯 한다.
가든 날이 장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
간에 가 붙고 염통에 가 붙는다.
감탄고토(감탄고토).
강철이 간 데는 가을도 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개 꼬리 삼년에 황모 못된다.
개도 사나운 개를 돌아본다.
개 머루 먹듯 한다.
개미 금탑 모으듯 한다.
개발에 편자.
개밥에 도토리
개 보름 쇠듯 한다.
개살구 지레 터진다.
개천에서 용 난다.
거지가 도승지를 불상타 한다.
건너다 보니 절 터.
건너 산 보고 꾸짖기.
겉 볼 안이라니.
게 눈 감추듯 한다.
게 새끼는 찝고 고양이 새끼는 할 퀸다.
견문발검(見蚊拔劍).

견물생심(見物生心).
결자해지(結者解之).
경주 돌이면 다 옥석인가.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계 타고 집 판다.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삐가 길면 밟힌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고양이 앞에 쥐 걸음.
고장난명(孤掌難鳴).
꼭지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에 나린다.
곧 닭의 알 지고 성밑으로 못 가겠다.
꺼진 불도 다시 보라.
꼴 보고 이름 짓는다.
공 든 탑이 무너지랴.
꽃은 목화가 제일이다.
과부설음은 과부가 안다.
관에 들어가는 소의 걸음.
구덕이 무서워 장 못담글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다.
구우일모(九牛一毛).
국에 데인 놈 물 보고 분다.
굳은 땅에 물 고인다.
꿀 먹은 벙어리.
굶어 죽기는 정승하기 보다 어렵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굽은 나무는 길마 가지가 된다.
굿 들은 무당 제 들은 중.
굿을 할려도 맏며누리 춤 추는 꼴 보기 싫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굿하여 먹은 집 같다.
구멍에 든 뱀 길이를 모른다.
궁구막추(窮寇莫追).
궁한 모사는 계란에도 유골.
권에 따라 방립 산다.

꿩 구어 먹은 자리.
꿩 대신에 닭 쓴다.
꿩 먹고 알 먹는다.
꿩 잡은 것이 매.
귀 막고 방울 도적질 한다.
귀신도 빌면 듣는다.
귀신 듣는데 떡 소리 한다.
꾸어 온 보리 자루.
그림의 떡.
그물이 삼천 코라도 벼리가 으뜸.
끈 떨어진 뒤웅박.
근묵자흑(近墨者黑).
끓는 물에 맛을 모른다.
긁어 부스럼.
금강산도 식후경.
금도 모르고 싸다 한다.
금상첨화(錦上添花).
금의야행(錦衣夜行).
금의환향(錦衣還鄕).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여 쓸까.
급히 먹은 밥이 목이 멘다.
끝 부러진 송곳.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기도 못하며 뛰려고 한다.
기 들고 북 쳤다.
기와 한장 아껴서 대들보 썩인다.
긴 병에 효자 없다.

2. ㄴ

나간 놈의 몫은 있어도 자는 놈의 몫은 없다.
나는 새도 움직여야 한다.
나룻이 석자라도 먹어야 샌님.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드는 격.
나종난 뿔이 우뚝하다.
남대문입납(南大門入納).

남을 물에 넣으려면 저 먼저 물에 들어간다.
남의 다리를 긁는다.
남의 돈 천량이 내 돈 한푼만 못하다.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
남의 발에 버선 신킨다.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
남의 잔치에 감 노라 배 노라 한다.
남의 팔매에 밤 주어먹기.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낮에 난 도깨비.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른다.
내 돈 서푼만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
내 발등의 불을 꺼야 아비 발등의 불을 끈다.
내 밥은 먹은 개가 내 발뒤축을 문다.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기 말란다.
내 절 부처는 내가 위하여야 한다.
내 코가 석자.
네 병은 났든지 안 났든지 내 약값다고.
노는 입에 염불한다.
노닥노닥 기어도 마누라 장옷.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
누어서 침 뱉기.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누을 곳을 보고 발을 뻗어라.
눈 가리고 아웅.
눈 감으면 코버히겠다.
눈 뜨고 도적 맞는다.
눈 먼 고양이 닭의 알 어루듯 한다.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젖국 얻어 먹는다.
늙은이 아이 된다.
늦게 시작한 도적이 새벽 다 가는 줄을 모른다.

3. ㄷ

다 된 죽에 코 풀기.
다 팔아도 내 땅.

딸의 굿에 가도 전대가 셋.
딸이 셋이면 문 열어 놓고 잔다.
달걀로 백운대 치기.
닭이 천이면 봉이 하나.
닭 잡아 먹고 오리 발 내어 놓는다.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본다.
담배 씨로 뒤웅박 판다.
답싸리 밑에 개 팔자.
닷 홉에도 참여 서 홉에도 참여.
대가리에 쉬는 놈.
대 구멍으로 하늘을 본다.
대문이 가문.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논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더위 먹은 소는 달만 보아도 헐덕거린다.
더퍼 놓고 열 넉양.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
떼어 둔 당상은 좀이나 먹지.
도랑에 든 소.
도투마리로 넉가래 만들기.
도끼 가진 놈이 바늘 가진 놈을 못당한다.
도련님 풍월에 염이 왜 있으랴.
도마에 오른 고기.
도망군의 보따리.
도적놈 개에게 물린 셈.
도적에게 열쇠를 준 격.
도적을 맞으려면 개도 아니 짖는다.
도적을 앞으로 잡지 뒤로 잡을까.
도적의 때는 벗어도 화냥의 때는 못 벗는다.
도적이 제 발이 저리다.
도회 소식을 들으려거든 시골로 가거라.
독불장군(獨不將軍).
독 안에 든 쥐.
돈이 재갈량.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는다.

돌을 차면 발 뿌리만 아프다.
동내 색씨 믿고 장가 못간다.
동냥도 아니 주고 자루 찢는다.
동무 따라 강남 간다.
동병상련(同病相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두루 춘풍.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
드는 줄은 몰라도 나는 줄은 안다.
드문 드문 걸어도 황소 걸음.
뜨거운 국에 맛을 모른다.
들으면 병이고 안들으면 약.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등잔 밑이 어둡다.
등하불명(燈下不明).

4. ㅁ

마구 뚫은 창 구멍.
만나자 이별.
만리의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만수산에 구름 뫼듯.
말 많은 집에 장이 쓰다.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렵다.
말은 하여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맛 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맛 좋고 값 싼 칼치 자반.
망건 쓰자 파장 된다.
매 끝에 정이 든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매사는 간주인.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
먼 사촌 보다 가까운 이웃이 났다.
며느리가 예쁘면 발 뒤꿈치가 달걀같다.
명주 옷은 사촌까지 덥다.

모래로 내를 막는다.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
모 난 돌이 정 맞는다.
모처럼 능참봉을 하니까 한달에 거동이 스물 아홉 번
목구멍이 포도청.
목화 신고 발등 긁기.
모르는 것이 부처.
못된 바람은 수구문으로 들어온다.
못된 버러지가 장판방에서 모로 긴다.
못된 송아지 응덩이에 뿔난다.
못된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못된 일가가 행렬만 높다.
묏돗 잡으러 갔다가 집돗 잃어버린다.
묘두현령(猫頭懸鈴).
무는 개를 돌아 본다.
무당이 제 굿 못하는 격.
무른 땅에 말뚝 박는다.
문전 나그네 흔연대접.
문전옥답(門前沃畓).
문 틈으로 보나 문 열고 보나 일반.
물라는 쥐나 물지 씨 암닭은 왜 물어.
물 밖에 난 고기.
물 부어 샐 틈 없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빠지드라도 정신 잃지 마라.
물에 빠진 놈 건저 내니까 보따리 찾아내린다.
물에 빠진 생앙쥐 꼴.
물 위에 기름.
물은 건너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물이 와야 배가 가지.
물장수 삼년에 궁둥이짓만 남았다.
미운 아이 떡 한 개 더 준다.
미운 애기 품에 품어라.
미친 체 하고 떡 그릇에 엎드러진다.
밑는 나무에 곰이 핀다.
밑 빠진 독에 물 퍼 붓기.

5. ㅂ

바늘 도적이 소 도적 된다.
바늘 간데 실 간다.
바다는 메꿔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꾼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지랑대로 하늘 재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밭 팔아 논 살 때는 이밥 먹자는 뜻.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배 먹고 이 닦기.
배 불은 흥정.
배 주고 뱃속 얻어 먹는다.
백정이 버들 잎 물고 죽는다.
백지장도 맞 들면 가볍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번개 불에 콩 구어 먹는다.
벌거 벗고 환도 차기.
뻗어 가는 칡도 한이 있다.
범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
벗을 것은 없어도 도적 줄 것은 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벼락치는 하늘도 속인다.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울린다.
병신 고은대 없다.
병신 자식 효도 본다.
병 주고 약 준다.
보리 술이 제 맛이다.
버선 목이라 안을 뒤집어 보이랴.
보따리 내어주며 앉으라 한다.
볶은 콩에 싹이 날가.
봄도 꽃도 한 때.
부귀빈천이 물레 바퀴 돌듯 한다.
부모가 착해야 효자 난다.
부엌에서 숫가락을 얻었다.
부전자전(父傳子傳).
부처님 가운데 토막.

부처 밑을 기우리면 삼거웃이 들어난다.
부처의 살 찌고 아니 찌기는 석수 손에 달렸다.
북은 칠쑤록 소리 난다.
불 난 집에 키질하기.
불 없는 화로 딸 없는 사위.
붓두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뿔 뺀 소의 얼굴.
비위가 좋아 노래기 회 먹겠다.
비지에 불은 배 양미봉탕도 싫다.
빌어 먹는 놈이 찬밥 더운밥 가리랴.
빗 보인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빛 좋은 개살구.
빙글 빙글 도는 세상.

6. 人

사나운 개 콧등 아물 날 없다.
사돈도 이러할 사돈 저러할 사돈이 다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 새끼는 시골로 보내라.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사흘 굶어 도적질 아니할 놈 없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
싸전에 가서 밥 달라 한다.
싸고 싼 사향도 냄새 난다.
싼것이 비지떡.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살은 쏘고 줏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살 찐 놈 따라 붙는다.
쌀 독에서 인심 난다.
상전이 많으면 가마솥을 깨뜨린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상하사불급(上下寺不及).
새벽 달 보려고 초저녁에 나 앉는다.
새끼 많이 둔 소가 길마 벗을 날 없다.

생시에 먹은 마음이 취중에 난다.
생초목에 불 붙는다.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
서울이 무섭다고 과천서부터 긴다.
서투른 숙수가 안반만 나무란다.
서당 개 삼년에 풍월 읊는다.
선 무당이 사람 죽인다.
선가 없는 놈이 배에 먼저 오른다.
선무공덕(善無功德).
선병자약(先病者藥)
성복후 약방문(成服後 藥方文).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
세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소가 크면 왕 노릇 하나.
소경 개천 나무래기.
소경 단청구경 하기.
소경 잠자나 마나.
소경 제 닭 잡아먹기.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소금이 쉰다.
소 닭 보듯 한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
소문 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히 더운 방이 쉬 식는다.
손톱 밑에 가시 든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
솟에 넣은 팥이라도 익어야 먹지.
쇠가 쇠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
쇠 귀에 경 읽기
쇠 귀에 한 말은 안 나도 여편네 귀에 한 말은 난다.
쇠뿔은 단 김에 뽑아야 한다.
쇠뿔도 각각 염주도 목목.
쇠 부랄 떨어지면 구어 먹기.
소탐대실(小貪大失).
수박 겉 핥기.
수양 딸로 며느리 삼는다.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쓸어져가는 나무를 아주 쓸어뜨린다.
시어머니 꾸중 듣고 개의 옆구리 찬다.
시집도 아니가서 포대기 작만한다.
시거든 떫지나 말지.
시골 놈이 서울 놈을 못속이면 보름씩 배를 앓는다
시루에 물 퍼붓기.
시앗 죽은 눈물 만큼.
시작이 반.
시장한 사람 더러 요기 시키라 한다.
식소사번(食少事煩).
식자우환(識字憂患).
식칼이 제 자루를 깍지 못한다.
신 배도 맛 들기에 있다.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다.
신입구출(新入舊出).
싫은 매는 맞어도 싫은 음식은 못먹는다.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십시일반(十匙一飯).

7. ㅇ

아끼는 것이 찌로 간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거라.
아는 것이 병.
아는 놈 부뜰어 매듯.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나랴.
아니 되면 조상의 탓.
아닌 밤 중에 차시루떡.
아비만 한 자식 없다.
아저씨 아저씨 하고 짐만 더 지운다.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지.
아이 가진 떡.
아이 보는 데는 물도 못마신다.
아이 자라 어른 된다.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안 벽 치고 밖 벽 친다.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
안하무인(眼下無人).
앓느니 죽지.
앓든 이 빠진 것 같다.
암치 뼈에 불개미 붙듯.
암탉이 운다.
약바른 고양이 밤눈이 어둡다.
약방에 감초.
얕은 내고 깊게 건너라.
양 손에 떡.
양주 싸움은 칼로 물 베기.
양주 밥 먹고 고양 구실.
양호후환(養虎後患).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른지 모른다.
어둔 밤에 눈 꿈적어린다.
어둔 밤에 홍두께 내어밀기.
어린 중 젓국 먹이듯.
어물전 망신은 꼴뚝이가 시킨다.
어변성룡(魚變成龍).
어불성설(語不成說).
어지간 하여 생원님하고 벗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
언중유언(言中有言).
언청이가 아니면 일색.
얻은 떡이 둘레 반.
얼르고 뺨 친다.
엎드러지면 코 닿을 데.
없는 집 며느리 비단 치마 입고 부엌에 든다.
없으면 제아비 제사도 못 지낸다.
업은 아기 삼년 찾는다.
엎드려 절 받기.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연목구어(緣木求魚).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열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물어 아프지 않을까.
열 시앗이 밉지 않고 한 시누이가 밉다.
열흘 나그네 하룻길 바뻐한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花無十日紅).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오는 떡이 두터워야 가는 떡이 두텁다.
오동 나무 보고 춤 춘다.
오뉴월 병아리 하루 별이 새롭다.
오뉴월 불도 쬐이다 물러나면 섭섭하다.
오십보로 소백보(五十步 笑百步).
옥석구분(玉石俱焚).
옥에도 티가 있다.
온양온천에 전다리 모여들듯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 보지도 마라.
올챙이 적 생각은 못하고 개구리 된 생각만 한다
옷은 새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옹이에 마디.
왕후장상이 씨가 없다.
외를 거꾸로 먹어도 제 멋.
외손자를 귀여워 하느니 방아깨비를 귀여워 해라
왼 바다 물을 다 켜야 맛이냐.
외 덩굴에 가지 열릴까.
욕교반졸(欲巧反拙).
욕속부달(欲速不達).
용천검도 쓸줄 알아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울며 겨자 먹기.
울지 않는 아이 젖주랴.
웃고 사람 친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
움 안에서 떡 받는다.
원숭이 흉내 내듯.

원수가 은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유전이면 사귀신(有錢使鬼神).
음지가 양지 될 때 있다.
의복이 날개.
의주를 가랴면 신날도 안 꼬았다.
이 덕 저 덕 해야 다 하늘 덕.
이렇게 대접할 손님 있고 저렇게 대접할 손님 있다.
이불 속에 활개친다.
이십안 자식 삼십안 천량.
이웃 무당이 영 하지 않다.
이웃 사촌.
이익이 없으면 소권이 없다.
이름 좋은 하늘타리.
익은 밥 먹고 선 소리 한다.
인경꼭지가 말랑말랑하거든 보자.
인산인해(人山人海).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있나.
인인성사(因人成事).
인제 보니 광주 나그네.
인지위덕(忍之爲德).
일각이 여삼추(一刻如三秋).
일거양득(一擧兩得).
일부함원에 오월비상(一婦含怨五月飛霜).
일석이조(一石貳鳥).
일승일패는 병가의 상사.
일신양역(一身兩役).
일어탁수(一魚濁水).
일확천금(一攫千金).
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 먹는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입이 광주리만 해도 말 못한다.
입찬 말은 관 뚜껑 덮은 뒤에 해라.

8. ㅈ

자다가 얻은 병.

자라는 애호박에 말뚝 박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솟뚜껑 보고 놀란다.
자과는 부지(自過不知).
자연은 사람을 보호한다.
작심삼일(作心三日).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잔디 밭에 바늘 찾기.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장마다 꼴뚜기 날 줄 아느냐.
장사 지내러 가는 놈이 시체 두고 간다.
재하자는 유구무언(在下者有口無言).
장부일언이 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
장비군령(張飛軍令).
장비는 만나면 싸움.
장중보옥(掌中寶玉)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닌 아깝다.
적반하장(賊反荷杖).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요(積善之家必有餘慶).
적악지가에 필유여왕이라(積惡之家必有餘殃).
전무후무(前無後無).
절에 간 색시.
점잖은 개 부뚜막에 오른다.
점쟁이 저 죽을 날을 모른다.
접시 밥도 담을 탓이다.
정저와(井底蛙).
제가 기른 개에게 발뒤꿈치 물린다.
제 것 주고 뺨 맞는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제 밑 들추어 남 보이기.
제 버릇 개 줄까.
제비가 적어도 강남 간다.
제 살을 꼬집혀 보아야 남 아픈 줄 안다.
제 칼도 남의 칼집에 들면 어렵다.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기.
제 흉 열가지 가진 놈이 남의 흉 한가지를 본다.
조문도면 석사가의라(朝聞道夕死可矣).
조석변개(朝夕變改).

종의 자식을 귀여워 하면 생원님 상투에 꼭고마 단다.
죄는 지은대로 가고 물은 골로 흐른다.
조약돌을 피하니까 수마석을 만났다.
죄 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좌수우봉(左授右捧).
조강지처는 불하당(糟糠之妻不下堂).
조자룡이 헌칼 쓰듯 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가서 눈 흘긴다.
주마가편(走馬加鞭).
주객이 청탁을 가리랴.
주인 많은 나그네 저녁 굶는다.
주인 모르는 공사 없다.
주인 보태어 줄 나그네 없다.
주인집 장 떨어지자 손님국 싫다한다.
주인집 장 떨어지자 손님국 싫다한다.
주주객반(主酒客飯).
주마간산(走馬看山).
주먹 맞인 감투.
죽기가 슬픈것이 아니라 아픈것이 싫다.
죽는 년이 밑 감추랴.
죽 떠 먹은 자리.
죽 쑤어 밤 송이 삼년 간다.
죽은 자식 나이 세기다.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중구난방(衆口難防).
중 도망은 절에나 가 찾지.
중언부언(重言復言).
중용지도(中庸之道).
중의 나라에 가서 상투 찾어라.
중인환시(衆人環視).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척이 천리.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 못 당한다.
진 날 새 사귀기.
진퇴양난(進退兩難).
진퇴유곡(進退維谷).
진합태산(塵合泰山).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9. ㅊ

찬밥 두고 잠 아니 온다.
참새가 방아깐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참새가 죽어도 짹한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채반이 용수가 되도록 우긴다.
천태만상(千態萬象).
천둥에 개 뛰어들듯.
천둥인지 지동인지 모르겠다.
천둥 벌거숭이.
철나자 망령 부린다.
첫 술에 배 부를가.
청기와 장사.
청보에 개똥.
초년 고생은 은을 주고 산다.
초가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데 시원하다.
초록은 동색.
초사흘 달은 잰 며느리가 본다.
초상집 개.
촌닭 관청.
춘삼월호시절(春三月好時節).
출필고반필면(出必古反必面).
충신불사이군(忠臣不仕二君).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칠월 더부살이 주인마누라 속옷걱정.
침소봉대(針小棒大).

10. ㅋ

칼로 물 베기.
칼 물고 뜀 뛰기.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난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듣지 아니한다.

큰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11. ㅌ

털도 아니난 것이 날기부터 하려한다.
털도 아니뜯고 먹으려 한다.

12. ㅍ

팔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는다.
팥이 풀어저도 솥안에 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평택이 깨어지나 아산이 무너지나 해보자.
풍년 거지.
풍년 기근(豐年饑饉)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한다.
푸성귀는 떡잎때부터 알아본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13. ㅎ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을 쓰고 도리질 한다.
하늘이 돈짝만 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던 지랄도 멍석을 펴놓으면 않는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루 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하석상대(下石上臺).
하 심심하니 길 군악이나 하지.
하후하박(何厚何薄).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한 날 한시에 생긴 손가락도 길고 짧다.
한 냥 추렴에 닷돈 냈다.
한 놈의 계집은 한 넝쿨에 연다.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한 술 밥에 배 부르랴.

한 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
한 어깨에 두 지개를 지랴.
한 집안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모른다.
한 탯줄에 태어난 형제간도 속을 모른다.
한 편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
한 푼 돈에 살인난다.
한 품에 자는 내외간도 서로 속을 모른다.
한 푼 장사에 두푼 미쩌도 팔아야 장사.
한 형제간도 마음이 각각.
한 형제간도 마음이 각각.
할아비 감투 손자쓰기.
함흥차사(咸興差使).
항우도 댕댕이 넝쿨에 걸려 넘어진다.
항우도 낙상할 적이 있다.
한 말 등에 두 길마를 지울까.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
한 불당 안에서 내 부처 네 부처 하느냐.
한 솥에 밥 먹고 송사한다.
해동청 보라매.
해산 구멍에 바람들라.
해오라기 나이 팔십이라 희더냐.
행사하는 것은 보아도 편지 쓰는 것은 엿보지 않는다
행사 후에 비녀 빼갈 놈.
행세가 개차반.
행차 뒤에 나팔.
허울 좋은 개살구.
허울 좋은 과부.
허울 좋은 하늘수박.
허욕이 패가망신.
헌 짚신도 짝이 있다.
헤엄 잘 하는 놈 물에 빠져 죽는다.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넣는다.
호사다마(好事多魔).
혹 떼러 갔다가 혹 붙힌다.

홀아비는 이가 서말 과부는 은이 서말.
홍두깨로 소를 몬다.
홍로점설(紅爐點雪).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간다.
횡설수설(橫說竪說).
후래삼배(後來三盃).
흉년에 윤달.
흥진비래 고진감래(興盡悲來 苦盡甘來).
흥정은 부치고 싸움을 말리렸다.

第2節　方　　言

1. 서울·京畿道方言의 槪念

방언(方言)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서울·경기말」 즉 「표준말」이 아닌 「지방사투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서울·경기도의 방언은 서울말·경기도말 즉 표준어(標準語)가 아닌 서울·경기도의 특수한 말, 다시 말하면 서울·경기도의 순토백이들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그와 같은 종류의 특수한 말들 즉 서울과 경기도의 순토백이 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서울·경기도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서울·경기도 방언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학적(言語學的) 또는 방언학적(方言學的) 개념(槪念)에 있어서는 그 견해가 훨씬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서울·경기도의 방언을 상식적이 아니라 학문적(學問的)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範圍)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 아닌 학문적인 개념에 있어서 「서울·경기도의 방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방언의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방언(方言)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한자(漢字)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어(中國語)의 차용어(借用語)이다.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방언(方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국인에 의한 방언(方言)이라는 말은 한민족(漢民族)의 언어(言語)가 아닌 주변의 이민족(異民族)들의 언어를 지칭해서 방언(方言)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중국인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으나, 그러나 중국인들처럼 「미개(未開)하고 야만적(野蠻的)인 언어(言語)」라는 개념을 동반(同伴)시키지는 안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우리말을 지칭해서 방언(方言)외에도 향언(鄕言)·이어(俚語)·속언(俗言)·언어(諺語)·토어(土語)·토화(土話)·토음(土音)등 달갑지 못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절대로 우리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으며, 중국어에 대

해서 비하(卑下)해서 사용한 것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이러한 모든 과거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방언(方言)이란 말 그 자체에는 지방언어(地方言語)를 간략화(簡略化)한 말이라는 인상(印象)이 강하며, 또한 기실은 그것이 진실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옛날의 중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한 사용개념에도 이와같은 지방어(地方語)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方言)이라는 말은, 그 사용하는 경우가 상식적인 경우이건, 또는 학문적인 경우이건 간에 지방어(地方語)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옛날의 중국인들의 사용개념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용개념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님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다만 옛날의 중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민족(漢民族)이 사용하는 중국어(中國語) 외의 모든 언어(言語)를 방언(方言)이라고 지칭한 것과 동양(同樣)으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경기도말」 특히 표준어(標準語)를 제외한 모든 지방어(地方語)만이 방언(方言)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상식적인 개념과 학문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방언(方言)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방언(方言)의 형성과정(形成過程)을 고찰(考察)해 보기로 한다.

2. 서울·京畿道方言圈의 形成

그러면 「서울·경기도 방언」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過程)으로 형성(形成)되었는가 보기로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3(卷二十三) 백제본기(百濟本記) 제1(第一)에 의하면 백제(百濟)의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이 졸본 부여(卒本扶餘)에서부터 도피하여 한산(漢山)에 도달하고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을 건축하여 도읍(都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고구려 유리왕 2년(琉리王二年)이요, 신라 시조 혁거세왕 40년(赫居世王四十年)이고, 전한(前漢) 홍가3년(紅嘉三年)에 해당하고, 서기 18년(西紀十八年)에 해당한다.

백제 시조 온조왕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과 부여왕(扶餘王)의 제2녀(第二女)와의 사이에 낳은 차자(次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주몽은 부여인(扶餘人)이었으므로, 최초에 이 지방은 부여어(扶餘語)의 기층(基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여(扶餘)는 동만주(東滿洲)일대의 광막한 토지를 점유하였던 부족국가(部族國家)로서 통고사족(通古斯族)이나 몽고족(蒙古族)의 전신(前身)들과 인접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Altai어족(語族)의 일지족(一支族)이었다고 믿어지며, 따라서 고구려(高句麗)나 백제(百濟)가 다 함께 부여(扶餘)의 후예(後裔)이므로 Altai어족계(語族系)의 일기층(一基層)을 형성하였었다고 믿어진다.

그 후 이곳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쟁탈지지(爭奪之地)로 화하였다. 처음에는 백제가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고구려가 장수왕대에 이르러 남하정책을 취함에 따라 백제는 웅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으나 신라가 진흥왕대에 이르러 대팽창을 함에 따라 다시 신라의 영역으로 화하였다. 신라는 이 지역 일대를 차지한 것

을 기반으로 삼국통일을 성취하게 되었다.

신라(新羅)는 이 땅을 한산주(漢山州)에 편입시키고 경덕왕(景德王)때에 한주(漢州)라 개칭하였고, 경순왕 9년(敬順王 九年·서기935년) 신라 멸망에 이르기까지 268년간 신라어(新羅語) 영향하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Altai어족(語族)의 일지어(一支語)인 부여어(扶餘語)의 기층(基層)에 신라어(新羅語)의 영향이 근 300년간을 계속한 셈이다. (물론 신라어도 고구려나 백제와 동일어파에 속하였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나, 그 방언적 차이는 상당한 거리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라가 망한 후, 대체적으로 고구려족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고려(高麗)가 도읍을 개성(開城)으로 하고 이 땅을 양주(楊州)라고 개칭했다.

그 후 15대 숙종(肅宗)때는 고려사경(高麗四京)의 하나인 남경(南京)을 두었고, 그 뒤 인종(仁宗)·의종(毅宗)·충렬왕(忠烈王)·공민왕(恭愍王)때에 수시로 왕이 순행(巡行)을 왔었다.

충렬왕 34년(忠烈王三十四年)에 한양부(漢陽府)라 개칭한 바 있었으며, 고려 공양왕 4년(恭讓王四年·서기 1392년)에 고려조(高麗朝 475년간)가 이씨조선(李朝)으로 바뀌고 동 이태조3년(李太祖三年·서기1394년) 8월에 천도(遷都)하니, 서울은 조선 500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와같이 서울지방어(地方語)는 백제어(百濟語~扶餘語)의 기층에 고구려어(高句麗語)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약 300년간을 신라어(新羅語)의 영향을 받아서 대폭적으로 신라어와의 혼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

3. 서울·京畿道方言의 史的變遷

서울이 도읍지로서 500여년간을 거치는 사이에 서울문안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어(言語)의 구별(區別)이 생겼으리라 생각된다.

즉 궁정어(宮廷語)와 귀족어(貴族語=上流階級語), 중류계급어(中流階級語) 그리고 하류계급어(下流階級語)의 구분이다.

궁정어(宮廷語)는 오늘날 대부분 사어화(死語化)했으나 그 당시에는 특수한 어휘(語彙)에 한하는 것이었고, 또한 대부분이 한자(漢字)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그 특색이다. 이것은 경어법(敬語法)에 약간 복잡하고 특수한 발달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귀족어(貴族語)와 별차이 없는 것이었다고 믿어지는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위시한 불경언해(佛經諺解)등 또는 기타 언해본(諺解本)등과 내간체(內簡體) 문헌(文獻)의 기록(記錄)등에 보이는 것이 그 시대의 귀족어의 기술(記述)이었다고 보아진다.

또한 귀족어(上流階級語)와 중류계급어 사이에는 그 유사성(類似性)이 비교적 큰 것이었고 영·정조(英·正祖)때부터 크게 유행한 고대소설(古代小說)의 대부분이 이 중류계급어의 기술이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오늘의 표준어가 이 중류계급어의 후계어(後繼語)인 것으로 믿어진다.

서울·경기도방언을 사적(史的)으로 고찰(考察)했을 때, 그 뚜렷한 현상(現象)을 음운면

(音韻面)에서 대체적으로 추려보면

(ㄱ)子音現象

〖첫째〗中間子音

A. 듣다(聽)>들어, 들으니

묻다(問)>물어, 물으니,

걷다(步)>걸어, 걸으니,

싣다(載)>실어, 실으니,

다닫다(到)>다달아, 다달으니,

이와같은 현상은 고대국어시대(古代國語時代) 어느 시기에 이미 이루어진 현상인 것 같아서 문헌시대(文獻時代)초기인 중세국어문헌(中世國語文獻)에서도 널리 찾을 수 있다.

B.어둡다.(暗)>어드븐>어드움>어드운,

즐겁다.(樂)>즐거븐>즐거운,

덥다.(暑)>더버>더워,

칩다.(寒)>치버>치워>추어,

밤(栗)>말밤(蔆)>말왐>마름,

범(虎)>대범(大虎)>표웜(豹),

C.기슴(耕)>기음

눈자사(眼膜)>눈자애,

브업(廚)>부엌,

브스름(癤)>브으름,

마삼(心)>마암>마음,

D일히(시)>일이>이리,

서홀다(判)>서을다>썰다,

아홉(九)>아홉,아옵,

올히(鴨)>올이>오리,

두험((糞土)>두엄,

어험(契)>어음,

바올(구)>방울,

머에(轅)>멍에,

부허이(梟)>부헝히, 부엉이,

엄니(牙),

어레빗(梳),

머루(山葡萄),

시렁(架),

하옷(單)>홋>홀,

자오름(睡)>조롬>조름,

입시울(순)>입술,

부우리(취)>부리,
호와(臼)>확,
수울(酒)>술,
두울(二)>둘,
무수(菁蘿)>무우>무,
올창이(두과)>올챙이,
시다(酸),
냅다(煙), 等等

〖둘째〗구개음화(口蓋音化)현상에 있어서는 평안도방언(平安道方言)이 「ㄱ,ㅋ」음이나, 「ㄷ,ㅌ」음이 「ㅣ」모음(母音)위에서 구개음화되는 것을 엄격히 거부하고 있는데 비해서, 경상도방언(慶尙道方言)이나 전라도방언(全羅道方言), 그리고 함경도방언(咸鏡道方言)과 충청도방언(忠淸道方言)의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구개음화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서울·경기도방언은 「ㄷ,ㅌ」음이 「ㅣ」모음 위에서 구개음화 되는 것을 이미 중세국어(中世國語)초기인 15세기문헌(杜詩諺解 初判本)에 보이기 시작해서 16세기 문헌에서는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A.진딧(眞)>진짓,
티다(擊)>치다,
디라다(刺)>지르다,
디새(瓦)>지와,
무듸다(禿)>무지다,
엇데(何)>언졔,
쓰레딜(掃除)>쓰레질,
더디다(投)>더지다,
모딜다(猛)>모질다,
디다(落)>기우러지다,
딤채(葅)>짐칙

B.그러나 「ㄱ, ㅋ」음의 「ㅣ」모음위에서 구개음화(口蓋音化)되는 것은 아직 완고하게 허용않고 있다.

길(道)>질(其他方言)
김(水蒸氣)>짐(其他方言)
길다(長)>질다(其他方言)
기름(油)>지름(其他方言)
키(箕)>치, 체이(其他方言)

C.「ㅎ」음도 간혹 「ㅣ」모음위에서 「ㅅ」으로 구개음화하는 현상도 있다.

혜다(算)>세다>세다.
힘힘하다(閑暇)>심심하다,
혀(椽)>서>서까래,
또 현재(現在)에와서는

힘(力)＞심,

형(兄)＞성,

혀(舌)＞세,

〖셋째〗농음화(濃音化)현상 및 격음화(激音化)현상

곶(花)＞꽃,

불휘(根)＞뿌리,

긴(유)＞끈,

구짖(叱責)＞꾸중,

것그다(折)＞꺾다,

갓다(削)＞깍다,

곳고리(황조)＞꾀꼬리,

살지다(반)＞쌀찌다,

솓다(覆物)＞쏟다,

빟다(種)＞뿌다,

싯다(法)＞씻다,

듧다(穿)＞뚫다,

또 격음화(激音化)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수가 많아지는데,

갈(刀)＞칼,

고(鼻)＞코,

발(비)＞팔,

닷(탓)＞탓,

손돕(爪)＞손톱,

블(膠)＞풀,

그러나 현대어(現代語)로 내려와서부터는 그 예는 드물게 되는데, 방언에 따라서 농음과 대응해서 격음이 발달한 곳도 있다.

〖넷째〗어두(語頭)에서 「ㄴ」음이 구개음화(口蓋音化)되고 탈락(脫落)한다. 원래 국어는 전체적으로 어두에서 「ㄴ」음이 발음되었던 것이었는데, 서울방언권(方言圈)에서는 「1」모음이나, 「1」모음이 선행(先行)하는 중모음(重母音)앞에서 구개음화되고 탈락했다.

녑(脅)＞옆,

녀기다(念)＞여기다,

녀름(夏)＞여름,

니르다(謂)＞이르다,

님자(自)＞임자,

니(齒)＞이,

녜(昔)＞옛,

님(主)＞임,

닉다(熟)＞익다,

닐다(讀)>읽다,

닐흔(七十)>일흔,

《**다섯째**》어두에서 「ㄹ」음은 도저히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부터 어두에 「ㄹ」음을 가진 어휘는 한자어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A.「ㄴ」음화(音化),

羅州(라주)>나주,

老人(로인)>노인,

樓閣(루각)>누각,

陵(릉)>능,

B. 모음화(母音化).

량심(良心)>양심,

旅行(려행)>여행,

流行(류행)>유행,

李挑(리도)>이도,

그러나 평안도방언에 있어서는 어두(語頭) 「ㄹ」음이 발음된다고 믿어 왔고, 또 발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평안도방언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방언이 동일 경향(同一傾向)이다.

4. 서울·京畿道方言의 特徵

서울·경기도의 방언은 현재 표준말로 채용되고 있는 중류계급어(中流階級語)와 하류계급어(下流階級語)로 구분할 수 있고, 궁정어(宮廷語)와 귀족계급어(貴族階級語)는 거의 그 특색이 소멸되고 표준어(標準語)로 통합된 것 같다.

하류계급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식계급(無識階級)에 의해서 점유(占有)되고 있는 직업별(職業別)로 발생하는 비어(卑語), 주로 범법자(犯法者), 걸인(乞人) 또는 부랑배(浮浪輩)등이 발전시킨 은어(隱語)가 그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표준어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하류계급어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다소 예(例)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동사(動詞) 「하다」의 어간(語幹) 「하-」를 현저하게 「허-」로 발음한다.

(※표시는 표준어)

※하시오!>하시우>허슈.

※할까요?>헐까요?, 헐깝쇼?, 하랍쇼?.

※하실랍니까?>허실랍니까?, 허시랍니까?.

※하오!>하우!>허우!.

※무엇하나?>머 하나?.

※할것입니다!>헐것이올씨다!.

※하셨읍니까?>허섯씀니까? 허셨읍니까?

※무엇하려고 그러느냐?>머 허러 우루 그러니?

머 허려구 그러니?

뭘 허려우루 그러나?
머 허려구 그러나?

※할랍니까?>헐려우? 허려우?
※하실랍니까?>허실려우? 허시려우?
※하겠느냐?>허겠나?
※하겠는가?>허겠니?
※하려느냐?>허려나?

2.또한 종결어미(終結語尾)에 「-ㅂ쇼」를 부가(附加)시켜서 존대어(尊待語)로 사용한다.

※무엇 하시고 계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뭐 하시 곕쇼?
※무엇 하셨음까?>머 하셨곕쇼?
※진지 잡수십니까?>진지 잡수곕쇼?
※진지 잡수셨음니까?>진지 잡수셔곕쇼?
※무엇 하랍니까?>머 하랍쇼?
※어떻게 하랍니까?>어떻게 허랍쇼?
※어서 오십시오!>어서 옵쇼!
※그렇게 할까요?>그렇게 헐깝쇼?
※무엇 할까요?>머 헐깝쇼?
※안녕히 계십시요!>안녕히 계십쇼!
※잘 계십시오!>잘계십쇼!(잘계시우! 잘 계슈!)
※그런대요!>그런댑쇼!
※그렀음니다!>그런댑쇼!
※그것이 아닌대요!>그거 아닌댑쇼!
※여 보십시요!>여 봅쇼!(여 보시우! 여 보슈!)
※조심 하십시요!>조심 헙쇼!
※말씀 하십시요!>말씀 헙쇼!
※안녕히 가십시요!>안녕히 갑쇼!
※이리 가십시요!>이리 갑쇼!

3.또한 「-ㅂ죠」도 「-ㅂ쇼」와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했읍니다!>그렇게 했습죠!
※물론이자요!>물론입죠!
※그런대 말입니다.>그런대 말입죠. 그런댑죠.
※물론 그렇지요!>물론 그럿습죠!
※그렇게 하지요!>그렇게 헙죠!

그런데 「-ㅂ쇼」형(形)이 주로 의문이나 소망(所望), 권유(勸誘)등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비해서 「-ㅂ죠」형은 주로 긍정(肯定)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데 차이가 있다.

4.이 외에도 서울방언권(方言圈)의 하류계급어적(下流階級語的) 특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終結語尾)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현저(顯著)한 것이다.

※하지요!>허죠!

※그러지요!>그러죠!

※있소이다!>있쇠다!

※집에 계십니까?>집에 게시우?, 집에 계시우?

※했소이다!>했쇠다!

※밥 먹었소!>밥 먹었수다.

※이것 보시요!>이것 보슈!

※가만히 계시요!>가만히 계슈! 가만히 게슈!

5. 또한 언어습관(言語習慣)의 일부분으로서 「말」이나 어구(語句)끝에 딴 어구(語句), 또는 어미(語尾)등을 부가(附加)시켜서 그 말이나, 그 어구(語句)자체를 강조하려는 경향도 농후하다.

예(例)하면,

※그렇지요!>그렇지 뭐요!

※정말이지요!>정말이지 뭐요!

※그리고,>그러구 말야!>그러구 말이야!

※그러고요>그러구 말씸야!>그러구 말이죠!

※아니지요!>아니란 말씸야!

※그러니까,>그러니깐, 그러니깐두루.

※그래서,>그래설라면.

그렇게 해서,>그렇게 해설라면,

※이것 하게!>이것 하게나!

※어서 먹게!>어서 먹게나!

※오시요!>오세요 네!

※주시요!>주세요 네!

6. 동일(同一)한 강조하는 심리에서, 한 개념(槪念)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어휘(語彙)를 중첩(重疊)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처녀색씨」(處女), 「개천천변」(溪川), 「긴대장죽」(長竹煙管), 「짜른곰뱅이」(短粥煙竹)등등

이상과 같은 첩어식조어방식(疊語式造語方式)은 「역전앞」(驛前), 「석교다리」(石橋), 「외가집」(外家)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외래어(外來語)에서도 허다히 발견할 수 있다.

「마메콩」, 「모찌떡」, 「세멩공구리」, 「깡통」등등.

7. 서울방언권(方言圈)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언(用言)의 어간(語幹)과 종결어미(終結語尾)사이, 또는 보조어간(補助語幹)과 종결어미(終結語尾)사이에 「에」음을 삽입시키는 예도 있어 현저한 특징(特徵)을 이루고 있다.

※아니요.(아니+에+요)>(아니에요) 아녜요.

※하시요.(하시+에+요)>(하시에요) 하세요.

※주시요>(주시+에+요)>(주시에요) 주세요.

※보시요.(보시+에+요)>(보시에요) 보세요.

8. 전기한 바와 같이 「ㅗ>ㅜ」현상은 역사적 언어사실(言語事實)에서 고찰했을 때에도 현저한 현상이나, 서울방언(方言)의 하류계급어(下流階級語)에는 「ㅗ>ㅜ」현상을 한층 더 전진(前進)시킴으로써 특징(特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 예(例)를 좀 더 들어 보기로 한다.

※못한다(不能)>뭇헌다.

※고구마(甘藷)>구구마.

※따로(殊)>따루.

※또아리(頂圈子)>뚜아리.

※졸림(睡氣)>줄림.

※조약돌(礫)>주약돌.

※단골(巫)>당굴.

※눈꼽(眼汁)>눈꿉.

※백꼽(제)>배꿉.

※손톱(爪)>손툽.

※시골(鄕)>시굴.

※오양깐(馬廐)>우양깐.

9.또 「ㅓ」모음(母音)을 「ㅡ」모음에 가깝게 발음함으로써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거지(乞人)>그지.

※거짓말(?!言)>그진말.

※어깨(肩)>으깨.

※없다(無)>읍다.

※정종(正宗)>증종.

※언제(何時)>은제.

※어제(昨日)>으제.

※어스름(昏)>으스름.

※어른(長者)>으른, 으런.

※껌정(煤)>끔정.

10.서울방언의 하류계급어(下流階級語)는 한 어휘(語彙)내에 모음(母音)이 연접(連接)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모음이 탈락(脫落)하고 남은 모음은 장모음(長母音)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 탈락되는 모음은 대개의 경우 후속모음(後續母音)이요, 그 선행모음(先行母音)으로 변한다.

내일(來日)>내:ㄹ.

가을(秋)>가:ㄹ.

겨울(冬)>겨:ㄹ.

무우(?!蘿)>무:.

아흐래(九日)>아으래>아:래.

11.또한「ㅖ>ㅔ」현상으로 그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예쁘다(麗)>이뿌다.

※계집(女,妻)>기집.

※세상(世上)>세상>시상.

※산(算)>셈>셈>심.

※계신다(在)>기신다.

중모음(重母音)의 단모음화현상(單母音化現象)과 반대의 현상으로 단모음이 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

※게(蟹)>괴.

혀(舌) 세>세>쇠.

어대 가니?>워디 가니?

대단히 산발적이기 때문에 법칙화(法則化)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음현상(自音現象)에 있어서 근래에 와서 뚜렷하게 된 것은 어두자음(語頭子音)「ㄱ,ㄷ,ㅂ,ㅅ,ㅈ,」등의 농음화현상(濃音化現象)이다.

12. 역사적으로 이미 농음화(濃音化)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농음화현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A. 어두(語頭)「ㅅ」의 농음화(濃音化)

※고추(초)>꼬추,

※가시(棘)>까시,

※고사리(미蕨)>꼬사리.

※개구리(蛙蟈)>깨구리.

※곧장(直)>꼳짱.

B. 어두「ㄷ」의 농음화

※두꺼비(蟾蜍)>뚜꺼비.

※던진다(擲)>떤진다.

※두껍다(厚)>뚜껍다.

C어두「ㅂ」의 농음화

※병아리(鷄추)>뼝아리.

※붉다(紅)>뿔겋다.

D.어두「ㅅ」의 농음화

※속(裏)>쏙.

※속인다(欺)>쏙인다.

※혀(舌)>셰>세>쎄.

※수세미(絲爪)>쑤세미.

※숫놈(雄)>쑨놈.

※수수(서)>쑤수.

E 어두「ㅈ」의 농음화

※조각(片)＞쪼각.

※주름(벽積)＞쭈름.

※작다(小)짝다.

※지른다(刺) 찌른다.

※족집게(鑷)쪽찝게.

이상의 농음화 현상은 하류계급어(下流階級語)와 연소층어(年少層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崔鶴根著「改訂國語方言硏究」중에서〉

第7章 民俗과 傳說

第1節 總 論

한 고장을 살아가는 무리의 사람들은 서로가 共通된 習俗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大衆的인 習俗을 가르켜 우리는 民俗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 民俗은 庶民社會의 生活이고 삶을 營爲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貴重한 삶의 表現이요 內的 思想인 것이다.

이러한 民俗은 곧 時代를 사는 많은 庶民들의 生活 그 自體이며 現實性을 強하게 表出하는 것으므로 生動感이 넘치게 된다 이 民俗의 內面的 思考를 보면 恨의 서글품과 興의 어우러짐이 共存하고 있어 喜怒哀樂을 表現하고 있다. 이 民俗이야 말로 그 時代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內的인 表現인 것이다.

이러한 恨과 興의 兩面性을 띠고 있는 民俗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서 自然的인 變化와 人爲的인 變化의 過程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外形의 變化와는 달리 그 內面이 지니고 있는 巫俗的 思考는 脈을 이어 繼承되고 있다.

이렇게 그 地域에서 相互協力下에 共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傳統民俗의 原初的인 形態는 처음에는 樂歌舞戲의 綜合的인 모습으로 演戲되었으나 時代의 變化에 따라서 그 外的 形態가 變化되어 한 分野에 致重하게 되자 놀이, 劇, 謠, 舞, 樂(農樂) 等으로 細分되었다. 그러나 現在에 이르러 各處에서 보이는 民俗藝術은 거의가 綜合的인 面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綜合的 藝術인 民俗은 긴 時間을 지내 오면서도 그 內面이 지니는 思想은 外部로부터 他意的인 갖은 壓力에도 불구하고 尊屬할 수 있었으며 그 地域나름의 獨特한 모습으로 傳承되었다.

이 傳承民俗藝術은 우리네의 實生活과 매우 密接한 關係을 지니고 있으면서 變化와 再創出, 淘汰를 反復하며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現場의 藝術로서 우리 民族의 끈질긴 生命力과 敬神과 敬老, 共同體的인 大同團結과 相扶相助의 根源으써 脈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긴 時間동안 庶民社會의 恨과 興의 結晶體로써 民族의 精神的인 枝柱役割을 하며 生命力을 이어 온 民俗文化는 庶民社會의 大衆的 感情을 共術로 昇華시켜 表出시켜 온 우리네의 것임에도 昨今에 이르러 舊時代의 낡은 習俗이 고작 老齡層에서나 즐기는 老衰化한 藝術이며 現 時代에 高度로 發達한 西方文化와는 比較도 할 수 없다는 一部 識者層의 論理에 따라 破壞되고 淘汰되고 斷節되어 버려 이제 그 命脈만 거의 잇고 있는 實情임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大衆的이고 庶民的이며 그들의 生活속에서 喜怒哀樂의 內面의 世界의 外的 表出로써 나타나고 傳해지던 이 民俗藝術의 優秀性을 바로 그 廣大한 포용력이 있는 것이며 演戲場의 모든 사람들(演戲者와 觀客 모두)을 끌어 들여서 함께 뛰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어우러

짐에 있다. 그런데 昨今에 演戲되는 民俗藝術을 보면 그 內面의 思想을 잃고 겉치레만 요란하게 하며 심한 異質感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傳承民俗藝術이 西歐의 文物에 밀려 그 놀이판을 잃고 이 民族의 가슴속에서 점차 멀어진다면 그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아무리 技能이 뛰어난 技藝人이 있다고 하더라도 뛰어놀 놀이판이 없어지고 소리칠 現場이 없어지고, 또한 흐드러지게 몸짓을 할 춤판이 없다면 그래서 이 民族의 傳承民俗文化가 淘汰되고 變遷되다 못해 斷絶되어 버린다면 그 責任은 이 時代에 사는 우리들 모두에 있는 것이다. 너무나 대책없이 西歐文物에 찌들어 拜金主義 思想에 가득 찬 이 時代의 大衆에게 恨이 서린 놀이와 솟구치는 興의 높이가 어느 位置에서 存在할 수 있겠는가.

이 時代에 들어서 가장 큰 問題点으로 指摘되고 있는 오늘의 傳統民俗에 대한 槪念이나 位置에 대한 認識은 再考되어야 하며 그 外的인 形態로 變化하였어도 內面의 思想은 再創出하기에 努力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장의 傳承民俗藝術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必要하다.

1. 民俗의 創出과 由來

民俗이라 함은 그 時代를 살아가는 庶民들의 大衆的인 習俗을 말하는 것이다. 이 時代에 살고 있는 大衆의 生活習性은 이 時代의 民俗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傳承民俗, 或은 傳統民俗이란 오랜 옛날부터 끊임없이 傳해져 온 習俗을 말하는 것이다. 더욱 이러한 傳承民俗은 단순히 娛樂的인 놀이가 아닌 巫俗的思考를 지니고 있어 그 內的인 思想의 表出이 外形的으로 나타났을 때라야 可能한 것으로 外的인 形態는 흡사하여도 그 內面의 思想이 變遷되었다거나 損失되었다면 참다운 傳承民俗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傳해지는 民俗文化의 「歷史에 關한 것은 어느 곳에도 確定的으로 記錄되어 있지 않아 그 由來가 어느때부터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알기가 어렵다. 다만 그 民俗 自體가 時代的인 習俗이기에 人類의 生成과 同一하다고 推定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體系化된 傳承民俗으로써 자리를 잡았던 時期에 關해서는 옛 文獻에 의해 한 두 節句씩 紹介되어 있는 것을 資料로 삼을 수 밖에 없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는 〈馬韓條〉 馬韓相以 五月下種記 祭鬼神

郡聚歌舞飮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以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扶餘條〉 以殷正月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日迎鼓… 行道晝夜無老幼皆者通日聲不絶

〈濊條〉 言語法俗 大抵與高句麗同…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高句麗條〉東夷舊語 以爲扶餘別種

言語諸事多與扶餘同…

其民喜歌舞 暮夜男女郡聚

相就歌戲…

以十同祭天 國中大會

名曰同盟

등으로 記錄하고 있다. 즉 馬韓에서는 五月 芒種과 十月 秋收때 鬼神(天神)에게 祭를 드리는 儀式을 갖는데 이때는 여러 部落의 사람들이 다투듯이 모여 들어 여러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기를 주야로 쉬지 않았으며 수십인이 한데 어울려 땅을 밟으며 손과 발을 맞추어 앉고 일어섬이 鐸舞와 같다고 하였다. 또 扶餘에서는 迎鼓라하는 國中大會를 殷正月에 여는데 連日 飮食을 먹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노니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길을 메우며 밤, 낮으로 즐겼다고 하였다.

또한 濊에서도 十月에 祭天儀式을 갖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舞天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高句麗에서는 十月에 祭天儀式을 國中大會로 開催하니 이를 同盟이라고 하였으며 이때는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기를 밤낮으로 男女가 모여서 즐겼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祭天儀式에서 나타나는 樂歌舞戲가 現在에까지 이어지는 傳承民俗藝術의 由來로 보고 있으며 이 古代의 樂歌舞戲가 時間이 지남에 따라 各亡 地域的 特性을 지니는 形態로 고장에 定着하여 民謠, 民俗劇, 民俗놀이, 民俗舞踊, 農樂, 等으로 分離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즉 이 祭天儀式을 지내던 옛 時代의 綜合的인 總體藝術인 樂歌舞戲의 形態가 時間이 지나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各己 民俗놀이나 民謠 等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各種 民俗藝術은 原始的인 樂歌舞戲가 그 始願으로 推定하고 있다.

觀察하건대 昨今에 나타나는 民俗藝術을 보아도 外的인 形態를 보면 대개가 綜合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樂이란 놀이에서 나타나는 音樂으로써 主로 地方에서 나타나는 各種 民俗藝術의 경우 그 主導는 農樂이 하고 있어 요즈음에는 이 農樂을 하나의 專門化된 民俗分野로 設定하고 있음을 보며 歌는 김매기나 모심기 等 農作에서 必要한 各種 農謠와 內房歌謠라 부르는 婦女謠 또한 놀이에서 나타나는 各種 娛樂謠와 喪吊性 儀式謠 等은 全部가 謠에 屬하며 旋律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소리와 祭儀式에서 나타나는 모든 巫歌나 巫經도 廣意의 뜻에서 볼 때 全部가 이 歌에 해당한다. 舞란 꼭 어느 形態가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놀이여서 나타나는 모든 허튼 사위와 長短에 맞추어 움직이는 動作의 全體를 말하는 것이며 戲란 劇的인 要素로써 全國的으로 散在해 나타나는 暇面戲는 모두 이 戲에 屬하게 되며 이 假面戲 역시 樂歌舞戲의 綜合的인 藝術임을 알 수 있다. 하기에 우리나라에서 演戲되고 있는 傳承民俗藝術은 어느 部分에 屬한다고 斷定지을 수가 없으며 그 그 演戲時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 設定했는가에 따라서 區分을 짓고 있는 實情이다. 예를들어 흔히 우리 周圍에서 나타나는 地硬닷기를 보면 그 나타나는 動作은 舞와 戲로 地硬소리는 謠로 나타나고 있으며 全體的인 構成을 어느쪽으로 치우쳤는가에 따라서 놀이와 民謠 部分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年初에 많이 나타나는 줄다리기를 보더라도 農樂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어 그 動作이나 마당놀이나 舞

와 戱의 複合的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喊聲等의 謠的인 面과 全體的인 面을 觀察할 때는 劇的인 面을 보이고 있어 역시 祭天儀式에서 보이는 樂歌舞戱의 綜合藝術임을 알 수 있다. 하기야 이 傳統民俗은 놀이와 謠. 劇, 舞 等으로 區分짓기 보다는 그 內面이 지니는 思想에 따라서 祭儀性民俗, 諷刺性民俗, 娛樂性民俗으로 分頁함이 商合하다고 할 수 있다. 祭儀性民俗이란 各 地方에서 나타나는 洞祭인 山神祭나 城彊祭, 塔祭, 距里祭, 等 部落祭 全體와 地域的 特徵을 지니는 都堂굿이나 別神굿 또는 豐漁굿이나 安宅굿 等을 들 수 있고 喪吊儀式을 더할 수 있으며 祈願性民俗이란 각 地域에서 나타나는 놀이 文化를 主軸으로 勝敗를 決定지어 豐農과 마을의 安寧, 宗內의 安過泰平을 祈願하는 줄다리기, 地神밟기, 踏橋놀이, 農旗싸움, 거북놀이, 장치기, 等이 이에 屬하며 諷刺性民俗이란 全國에 散在해 나타나는 假面戱를 들 수 있다. 또한 娛樂性民俗이란 흔히 獨自的으로 떨어지기 보다는 하나의 큰 綜合的 놀이에서 派生되는 것으로 農樂이나 백중놀이 等이 이에 屬한다. 물론 이 分類方法도 正確하게 線을 그어서 限界를 設定하기는 어려우나 外的인 形態보다는 그 內面이 지니는 思考에 따라서 分類함이 妥當하다고 보며 各種 作業儀式에서 나타나는 俗謠를 묵어서 作業性民俗으로 分類할 수가 있다.

前記했듯이 民俗의 形態的인 面을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致重해서 정해졌는가에 關係없이 現在에 나타나는 모든 傳承民俗의 原始的인 發生의 根據는 先史時代부터 傳承해 온 祭天儀式에서 由來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게 傳해진 놀이가 時間이 지남에 따라 周圍의 創出과 變化에 影響을 끼치는 環境的 要因 地理的인 背景, 時代的·歷史的인 分圍氣, 技藝人의 特徵 等으로 인해 消滅되고 再創出되는 過程을 反復하면서 그 地域의 地域的 特性(地形이나 言語 風習 等에 맞는)을 지니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定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오랜 時間을 두고 傳承되어진 傳統民俗藝術의 價値는 傳統性과 歷史性 그리고 藝術性이 共存했을 때라야 認定할 수 있는 것이며 最近에 再現이라는 허울을 쓰고 다시 나타나는 조잡스런 創造物처럼 藝術性은 있지만 그 內面의 思想이나 形態의 變化가 심하여 傳統性이 缺如되었다거나 그 놀이의 本質이 變化되어서 歷史的인 價値를 淸失한 것은 참다운 傳統民俗藝術이라고 稱할 수가 없다. 더욱 昨今속에 이르러 一部 地域에서는 傳說이나 野話等에서 나타나는 內容을 基礎로 하여 民俗遊戱를 創出品으로 만들어 紹介하고 있어 그 民俗藝術(傳統的인 歷史性과 藝術性을 지니는)이 지니고 있는 本質의 內的思想이 없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傳承民俗文化에 대한 참다운 認識이 아쉬운 實情이며 現 時代의 民俗文化의 屈, 保存的 次元에서 볼 때 큰 問題点으로 指摘되고 있다.

2. 民俗의 形態의 變化와 問題点

前記하였듯이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由來하는 總體的인 形態의 樂歌舞戱가 時間이 지나면서 점차 한 가지의 部分의 專門的인 面에 치중해 한 形態의 特徵的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民俗藝術은 그 變化하는 過程에서 變化의 條件인 周圍環境(地理的 條件이나 地域民의 언어, 性格, 풍습, 等과 時代的, 歷史的인 背景, 技藝人의 力量 等)에 따라서 그 地域 나름의 獨創的인 遊戱로써 定着하였는데 年初에 擧行되는 地神밟기나 八月 한가위의 밝은 달빛 아래서 演

戱되는 거북놀이는 同質의 民俗의 어느 時期엔가 各己 季節的으로 分類되어 하나의 歲時的인 遊戱로 地域에서 定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馬韓에서는 五月 下種과 十月 秋收가 끝나면 여러 部落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動作이 땅을 밟는 踏地低昻의 形態로 나타난다고 했으며 여러사람이 서로 팔과 다리를 맞추어 手足相應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볼때 地神밟기와 거북놀이의 進行過程에서 나타나는 名稱이 門굿, 堡主굿, 龍王굿 等 同一하게 보이고 있고 大廳굿에서도 同一하게 先祀唱이 口誦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단순한 演戱의 形態로 나타나는 地神밟기와 거북을 위하는 거북놀이는 같은 脈絡속에서 派生된 傳統民俗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時代에 따라서 變化하고 地域的 特性을 띠우며 나타나는 民俗藝術을 보면 거북놀이의 경우 그 形態가 地域마다 각기 特性이 있게 演戱되며 주된 對象인 거북의 모습도 地域마다 달라 京畿道 利川地方에서는 멧방석을 지게위에 얹고 그 멧방석에 수수잎을 꽂아서 거북의 몸체를 만들고 앞 사람은 멘드라미 꽃에 짚을 감거나 밤송이로 머리를 대신하여 둘고 뒷사람은 싸리비나 수수비로 꼬리를 삼아 二名이 그 안에 들어가 演戱했으며 京畿道 驪州와 忠淸北道 陰城, 忠州 等에서는 거북이 길어서 그 안에 2~6名씩 들어갈 수 있었고 京畿道의 龍仁에서는 소쿠리로 머리를 만들며 그 위에 한지를 가늘게 찢어서 느려 흡사 사자의 머리처럼 만들어 使用하는 等 제각기 고장 나름의 特徵있는 모습을 보였고 거북으 몰고 다니는 거북몰이도 질라아비, 질라래비, 길아비, 질아비, 질라쟁이, 等 여러가지로 불렀다. 또한 거북놀이의 中間에 거북이가 쓸어지면 이 거북이 東海를 건넜다고도 하며 西海를 건넜다고도 하고 또는 압록강을 건넜다고도 하여 地域에 따른 대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거북을 놀리는 거북德談을 보아도 利川에서는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百石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만석거북아 놀아라"하면서 뒤따르고 龍仁地方에서는 그와는 달리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白色거북아 놀아라. 靑色거북아 놀아라…"하며 五方의 色으로 表現하고 있다.

또한 驪州地方은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석거북아 놀아라. 萬석거북아 놀아라 잘도 먹고 잘도 놀아라"하고 외치면서 거북의 뒤를 따랐다녔는가 하면 驪州, 利川과 淸溪川을 사이에 두고 있는 陰城에서는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마음같게 받으시고 달갑게 받으시고…"라는 辭設을 使用하고 있으며 忠南 天原에서는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 들어간다…" 하고 외치고 있어 고장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듯 하나의 民俗인 거북놀이가 各地域에 傳해지면서 그 [illegible]의 特性에 맞게 變化하였으며 全國的으로 正初나 十月에 擧行되는 部落祭를 보더라도 그 [illegible]式節次나 對象神主神位가 다 제각기 나타나고 있어 時代에 따른 變化가 있으며 이 變化는 順次的인 方法에 의해서 自然스럽게 地域的 特性, 時代的인 背景, 技藝人의 力量 等에 따라서 表出되고 있다.

이렇듯 時代의 變化에 따라서 自然스럽게 淘汰되고 再創出되는 傳承民俗은 外形的인 面에서는 形態가 變化되었다고 하나 그 內面의 思考는 傳承되고 있어 우리는 이러한 民俗藝術을 傳承民俗, 혹은 傳統民俗이라고 한다. 이러한 順次的인 方法에 의해 再創出과 衰退의 反復過程을 거치면서 傳해 진 傳承民俗은 1920年代의 日帝治下에서 우리의 傳統民俗을 없애기 위해 文化抹殺政策을 기해 급격히 衰退되었으며 그나마 끈질긴 脈을 이어오고 있던 것이 光復後에 급격히 밀어닥친 西歐文物에 밀려서 거의 消滅 直前에 達하고 있다. 이렇게 時代的으로

變化하는 傳承民俗藝術의 部分的인 內容을 보자.

〈民俗놀이의 경우〉

民俗藝術 分野에서 가장 多樣한 形態로 나타나는 놀이의 경우에는 時代가 變化함에 따라서 마당놀이의 主가 되던 祭儀性 思考가 사라지고 거의가 單純 娛樂的인 形態만 남았으며 現在 各處에서 演戱되는 민속놀이를 보더라도 그 內面이 지니고 있는 思想의 表出보다도 外形的인 治裝에만 급급한 나머지 視覺的인 面으로는 볼거리가 있다하나 內的 思想이 缺如되어 있어 참다운 傳承民俗 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더욱 巫俗的 思考에서 創出된 거의 모든 民俗놀이가 이 時代에 접어들면서 西歐文物의 導入과 新敎의 擴大로 인하여 偶像崇拜나 迷信이라고 社會的인 지탄을 받자 그 本質的인 巫俗性이 變質되고 있다. 더욱 일부 地方에서는 그 地域內에서 전하고 있는 野談이나 傳說等을 潤色하여 民俗놀이로 하여 그 地方의 것인양 紹介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옛것을 再現한답시고 그 地域의 것과는 無關한 전혀 다른 民俗을 創作해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昨今에 이르러 傳承民俗에 대한 原形이나 考證에 대한 知識도 없고 傳承民俗藝術에 대한 基本的인 깨우침도 없는 一部 地方의 文化人들에 의해서 外形的인 變造나 現代化 作業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많은 놀이가 破損되고 있으며 더욱 現場性이 強한 우리네의 民俗藝術이 現場을 떠나 巫俗의 公演用으로 탈바꿈하자 地域的 特性이나 原初的인 祭儀의 目的이 消滅되어 참다운 놀이 文化의 保存이 아쉬운 實情이다.

〈俗謠의 경우〉

우리는 흔히 地方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합하여 民謠라 稱하고 있으나 民謠와 俗謠는 다르다. 民謠는 俗謠가 어느 한 地方에 定着하여 그 地方色을 強하게 띠우면서 體系的으로 整理가 된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場所에서 先代의 技能人에게 體系的인 傳授를 받아 그 技能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旋律이나 辭說이 變化가 없이 傳해지는 特徵을 갖는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俗謠란 現場性을 強하게 띠면서 現場에서 歌唱者에 의해 불리워지면 周圍에 있는 사람들의 記憶속에 潛在的으로 들어 있다가 다시 現場에서 必要에 의해 겉으로 表出되는 것이며 이러한 過程에서 時代的인 背景이나 技藝人의 力量인 暗記力, 表現力 等에 影響을 받으며 變化하는 것이다. 즉 民謠가 娛樂的인 面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俗謠는 作業性이나 祈願性 소리이다. 이렇게 地方에 散在해서 나타나는 많은 俗謠는 歌唱者 個人의 能力에 따른 獨特한 소리 文化로써 重要한 價値를 지니게 되며 個人의 소리로써 한 사람의 自然淘汰(死亡)는 곧 소리 文化의 淘汰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俗謠는 時代에 따라 그 辭設이나 律이 自然스럽게 變하는데 農謠의 경우 벼의 品種이 바뀌면 辭設 중의 내용이 自然히 따라서 變하고 있으며 周圍의 環境的 要因에 따라서 旋律까지도 變化하고 있다. 이렇게 變化하는 俗謠는 요즈음에 들어서 營農方法이 機械化되자 現場을 잃은 農謠는(農土는 있으나 예전과 같은 두레조직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先後소리를 주고 받는 雰圍氣가 造成되지 않아 現場性이 缺如되어 있다) 점차 斷絶되고 消滅되었으며 婦女謠의 경우에도 예전에 家內 手工業으로 이루어지던 물레질이나 베틀노래 等도 거의가 機構工業化된 요즈음에는 現場을 잃어 겨우 民謠化되어 命脈을 잇고 있을 뿐이다. 더욱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兒戱謠의 경우에는 大單位密集 聚落으로 形成되자 自然과 벗할 場所를 잃게 되었으며 共同體的인 意識보

다는 個人主義에 찌든 이 時代的 背景이 山과 들로 뛰어 다니며 즐길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듯 地方에서 나타나는 모든 俗謠가 現場을 잃게되자 自然淘汰되어 이제는 一部 地方에서만 保存을 하고 있는 實情이지만 그 現場을 잃은 소리는 참다운 傳承民俗藝術의 한 分野인 소리라고는 보아 줄 수가 없으며 儀式謠의 경우에도 함께 나타나는 놀이의 衰退와 함께 점차 그 斷絶을 目的에 두고 있는 實情이다.

〈祭儀式의 경우〉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의 主된 形態로써 傳承되어진 儀式은 光復 後에 급격히 밀어닥친 西歐文明과 新教의 影響으로 인해 가장 많은 害를 입은 分野이기도 하다. 先史時代부터 우리 民族은 하늘에 感謝하고 至誠으로 가슴속에 품은 所願成就를 祈願하였으며 高麗朝의 崇拜과 朝鮮朝의 儒教의 盛勢 속에서도 自然스럽게 接木을 시도하면서 그 祭儀式의 節次나 外形的 治裝을 바뀌었으나 그 內面의 思想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서로 온 部落의 住民이 共同體的인 삶을 영위하고 相扶相助하는 美德을 익혔으며 그 안에서 나라사랑과 이웃사랑 等은 自然스럽게 배웠던 것인데 日帝治下에서 迷信이라는 허울을 씌워 民族文化抹殺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히 衰退하였다. 또 光復 後에는 新教에서 主張하고 偶像崇拜라는 理由로 많은 部落의 山神祭, 長丞祭, 塔祭, 城隍祭, 距里祭 等의 部落祭가 中斷되었거나 겨우 形式的인 祭儀式으로 끝나고 있는 實情이고 더욱 傳門的인 巫격의 경우에는 社會의 賤視 속에서 제대로 마음놓고 巫儀式의 進行을 할 수 없게 되자 敬神보다는 生計의 維持에 급급하다 보니 自然 많은 사람들에게서 排斥 당하는 位置로 轉落하게 되었다. 하기에 요즈음에 나타나는 祭儀式의 경우 部落의 祀祭인 洞祭는 몇몇 찬성하는 사람만이 參席하여 命脈만 잇고 있을 뿐이고 過去와 같이 온 洞里의 住民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보기 어려우며 地域的 特性이 強한 巫俗의 경우에도 많은 內的 形態의 變遷도 생겨났다.

〈農樂의 경우〉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부터 "굿" "매굿"等으로 불리워지며 나타나던 農樂은 처음 祭禮儀式에서 使用하는 音樂으로 使用되었으나 屯田制度가 생겨나면서 自然的으로 평소 軍의 훈련이나 作業의 增進을 위한 軍樂으로 利用되어 "吹軍"이라고 불리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軍樂의 使用 中에서도 祭儀式에 使用한 흔적을 많이 보이며 이러한 祭儀的 性格과 軍樂으로서의 價値를 지니던 農樂은 時間이 지남에 따라 屯田制度가 없어지자 自然 洞里農樂으로 吸收되면서 農作의 增進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고 各 洞里마다 두레조직이 結成되자 두레조직에서 이 洞里農樂을 管理하는 곳이 많이 생기자 그 名稱도 "두레"라 稱하게 되었으며 朝鮮朝 末期에 이르러서 各處에서 寺黨牌, 乞粒牌等 流濟集團이 盛行하자 "風物" 혹은 "풍장"이라고 불리워 진 것으로 推定한다. 이러한 名稱의 變化에 따라서 農樂의 使用하는 用途도 함께 變化하여 祭樂→軍樂→農樂→演戲樂으로 自然스럽게 變化하였던 것인데 現在에 이르러서는 그 內面의 世界가 지녔던 豊農의 祈願이나 軍의 勝戰音樂 等 巫俗的 思考는 消滅된 채 單純 娛樂的인 演戲樂으로써 나타나고 있으며 朝鮮朝 末期에 全國을 流浪하며 技藝를 보이고 生計를 維持하던 高度의 技倆은 살아지고 이제는 一部 地域에서 過去 流浪集團에 屬해 있던 演戲牌나 洞里 農樂의 技藝人에게서 傳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變化過程을 周圍의 環境的인 面도 있으나 그보다는 우리 民族의 맹목적으로 西歐의 文化에 심취되는 文化植民 때문

이다. 더욱 요즈음에 들어서 一部 젊은 層에서 나타나는 農樂의 形態는 技가 있으나 藝가 없고 藝는 보이나 技가 없는 경우가 大部分으로 技藝의 共存性이 나타나지 않아 過去와 같은 모든 階層의 民衆을 色客할 수가 없어 요즈음 젊은 層에서 나타나는 마당劇과 함께 問題点으로 指摘되고 있으며 어느 民俗이나 그러하듯 地域的인 特徵을 보이던 京畿의 南, 北部 農樂, 湖南의 左, 右道 農樂, 嶺南의 東, 西部 農樂의 區別이 없이 모든 것이 複合的인 形態로 演戲되고 있으며 洞里 農樂의 경우에도 예전의 한마당 어우러져 질펀하게 노는 놀이가 아니라 흡사 매스게임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變質되고 있어 안타깝기조차 하다.

〈劇의 경우〉

全國에 散在해 나타나고 있는 假面劇의 경우에는 民俗分戲 中에서는 가장 傳承이 잘 되어 있는 分野로써 많은 種類가 指定無形文化財로 되어서 傳授되고 있으나 昨今에 들어서 一部 青年層의 時代的 諷刺劇의 形態를 보이면서 그 內面이 지녔던 諧謔的인 面은 消滅된 채 單純한 時潮에 대한 諷刺로써 그 內面의 思考가 急變하고 있다. 이 假面劇은 그 外形的 形態의 경우에는 地域的 特色이나 그 演戲의 各 科場에 따라서 傳承이 되고 있으나, 그 內面의 世界는 單純해 어느 特殊階層의 自己陶醉的인 思想的 表現으로 變化되고 있어 올바른 傳統的 假面劇의 傳授에 問題点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過去서부터 傳承되어온 이 假面劇의 諷刺 自體가 兩班社會의 妻妾制度의 非難, 僧侶들의 類廢性 諷刺 庶民들의 애환 等을 담고 있으면서 은근히 士夫들을 힐난하고 權力層의 形像을 못나고 추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慰安을 삼았다. 그러나 이 時代의 假面劇을 單純한 風刺가 아닌 技와 藝와 諧謔이 複合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周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階層간의 區別이 없이 그 놀이판 안으로 끌어 들여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즐겼지만 그러나 現在 유행되고 있는 一部 階層의 風刺劇은 技와 藝가 缺如되어 있어 大衆과 함께 呼吸할 수 없으므로 참다운 傳承民俗藝術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이 時代가 創出해 낸 새로운 風刺劇을 옛 옷 속에서 演戲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어느 民俗 分野나 그렇듯이 順次的인 過程을 거치면서 自然스럽게 變化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內的 思想이 있어 恒常 技와 藝가 共存해야 하기 때문이다.

上記의 各 分野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傳承民俗 藝術은 그 內面的인 思想까지도 變質되고 있고 이 時代에 들어와서 傳承民俗의 保存이나 傳授的 次元에서 볼 때 큰 問題点을 지니고 있다. 傳統이나 傳承民俗이기 보다는 이 時代에 나타난 하나의 創作品의 구실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各 고장나름의 特異한 모습을 지녔던 이 놀이는 現代에 들어와서 保存的 次元에서 보면 오히려 保存이나 傳承보다도 變質과 破壞가 많은 實情이며 이러한 問題点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나타난다.

즉 各 方方에 散在해서 地域的 特徵을 지니며 나타나는 民俗藝術은 그 고장에 居住하는 民俗들의 精神的인 思考의 外的인 表出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놀이는 興과 恨의 複合的 形態로써 共同體的인 和合의 한마당으로 어우러지며 긴 時間동안 전해지면서 그 外形的인 形態는 周圍의 與件에 따라서 自然스럽게 變化되고 그 時代의 雰圍氣와 接木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內面이 지니는 本然的 思考는 脈을 잇고 있는데 그 內面이 지니는 思想을 보면

첫째, 人間의 힘으로는 敢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天地의 自然造化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最高의 神에게 感謝하고 祈願하므로 해서 神과 人間과의 結束을 구하여 恒時 人間보다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神에게 人間의 나약함을 열거하여 늘 神에게 盲從하여 神을 위한다는 敬神思想과 이 思想에서 緣由하여 年長者로 극진히 모시는 敬老思想

둘째, 神과 人間과의 結束의 關係를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로 이어지게 하여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서부터 모든 部落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즐기고 全體가 하나가 되는 大同思想 셋째, 大同思想에서 歸結되는 自然發生的인 共同體的인 意識에서 가능한 하나에의 單一思想

等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內面이 지니는 참다운 思考가 없다면 傳承民俗이 될 수 없으며 이 內面의 思想이 있기 때문에 우리 民族은 끊임없는 傳承의 脈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敬神(敬老), 大同, 單一思想 때문에 日帝는 強占下에서도 文化抹殺政策까지 펴면서 우리네의 傳承民俗 文化를 消滅시키기에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歷史속에서 숱한 危機를 맞이 하면서도 끈질기게 그 命脈을 이어 온 우리의 傳統民俗 藝術은 祖國의 光復 後에 급작스레 들이닥친 西歐의 文物과 新敎의 影響, 識者層의 無關心과 담당 行政官署의 無意識, 技藝人의 自然淘汰로 인해 自意와 他意에 의해서 消失되었다.

한편 요즈음에 들어서 고장 나름의 特徵있는 民俗藝術을 發掘, 再現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이 놀이가 과연 過去에 우리의 先祖들이 한바탕 어우러져 질펀하게 즐기거나 서로를 위하는 인정속에서 생겨 난 恨과 興을 지니고 있는 그 內面의 世界가 있어 全體가 同和되고 共感帶를 形成하는가는 疑心스럽다.

이러한 現代에 들어서서 再現되고 있는 傳承民俗 藝術에 關한 問題点을 살펴보면

첫째, 素材의 貧困이다.

둘째, 外形만 存在하고 있다.

셋째, 地域的 特徵이 없다.

넷째, 包容力이 없다.

上記의 理由에서도 보이듯이 現在에 各 地方에서 나타나는 많은 民俗藝術이 發掘, 再現이라고 하여 새롭게 꾸며지고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옛부터 傳來하는 歲時的인 形態의 民俗藝術은 再現이 되었거나 無形文化財 等으로 傳授가 되고 있는 狀態이다. 그런데 요즈음에 들어서는 地域에서 傳해지는 說話로써 그 素材를 삼고 있어 그 놀이나 劇 等이 지니는 內的 思考가 없으므로 自然 粗雜스런 創作劇의 形態로 밖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옛부터 傳承되는 民俗藝術의 外形的인 面만을 治裝하다 보니 地域的인 特徵이 없어 그 나름의 土着性의 傳承이나 形態의 保存에 問題가 생기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에 들어 地域에서 再創出된 民俗演戲를 그 內面이 지니는 思想이 없으므로 大衆에게서 共感帶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傳承民俗 藝術이라고 指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傳統性을 잃어가고 있는 昨今의 民俗藝術이 나타나는 까닭은

첫째, 傳統民俗 藝術에 대한 無智에서 온다. 그 地域內에 居住하는 住民들이 옛부터 精神的인 枝柱로써 傳承되어 온던 傳承民俗을 西歐의 文物에 찌들어져 내것을 賤視 風潮나 그 藝術이 지니고 있는 內的 思想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 重要性을 認識치 못한다는 점이며 外來의 文物만이 진정한 價値있는 文化라고 認定하고 그것만을 盲從하는 文化의 植民地 史觀때문에

傳承民俗 藝術이 淘汰되고 있으며 그 形態는 점차 傳統性을 잃어가고 있다.

둘째, 專門人의 不在를 들 수 있으며 대개 中央에 密集되어 있는 文化藝術團體나 藝術人들이 地方에는 不在하기 때문이다. 中央이나 地方에서 藝術分野의 活動을 하는 專門人들도 傳統藝術은 한낱 一部 老人層이나 特殊階層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 또한 再現이나 發掘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招請할 경우에는 經濟的인 負擔으로 인해서 地域內의 非專門人에게 맡기게 되어 올바른 再現의 成就나 發掘이 어렵게 된다.

셋째, 形態의 變形이다. 昨今에 나타나는 再創出이라는 허울아래 많은 傳統民俗藝術이 그 本質과는 關係없이 전혀 딴 形態로 탈바꿈하여 그 內的 思想의 表出이 全無한 狀態이다. 더욱 一部 地域에서는 識者層이라고 나서는 沒知覺한 사람들이 粗雜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을 그 地域에서 傳承되는 것인양 紹介하고 있어 傳統에 대한 認識을 그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包客力이 없다. 過去 우리의 傳統民俗 藝術을 보면 現場의 藝術이고 體驗에서 우러나오는 恨과 興의 複合的 藝術로써 그 한가락의 旋律이나 휘스러지게 넘어가는 소리, 興에 겨워 단 한번을 내젓는 손의 사위에도 그 技藝人 魂魄이 살려서 外部로 表出이 되기 때문에 周圍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 들여 하나로의 共同體的인 形態를 만들 수 있었으며 技와 藝의 共存性이 있어 모든 階層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모든 民俗이 技와 藝가 缺如되어 있어 包客力이 없으며 過去서부터 傳해지는 많은 民俗도 함께 즐겨 어우러지는 것에서 舞台藝術化되어 單純히 보고 즐기는 놀이로 變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歷史性이 없다. 傳統民俗 藝術이 그 價値를 지니기 위해서는 傳統性(歷史性)이 있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昨今에 이르러 나타나는 民俗藝術을 보면 藝術性은 있다고 하나 歷史性이 없어 그 內面의 思想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다운 民俗藝術로 보아 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많은 問題点을 지니고 있는 現 時代의 民俗藝術은 放送媒介體나 報道媒體에 의한 偏頗的報道나 歪曲된 報道로 인해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傳統民俗 藝術을 올바르게 發掘, 保存, 傳承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事項이 必히 지켜져야 될 것이다.

1)發掘은 專門人에게 맡겨져서 그 原初的인 內的思想이 지켜져야 한다.

2)地域의 特徵있는 文化로써 그 形態의 變質을 막아야하며 歪曲된 文化는 禁止시켜야 한다.

3)特殊層에 의해서 小集團的인 部流들이 特殊한 目的物로 變造하여 技와 藝가 共存하지 않는 民俗文化는 避해야 한다.

4)그 文化藝術이 지니고 있는 思想의 傳統性과 藝術性이 外部로 表出되어야 한다.

5)진정한 놀이文化에 대한 認識이 부족한 一部 門外漢들이 創造해 내는 粗雜스런 劇은 中止시켜야 한다.

이러한 問題가 先決되지 않는 한 五千年의 긴 時間을 傳해지면서 이 民族의 精神的인 支柱로써 나타나던 傳統民俗藝術은 이 時代에서 영영 淘汰되고 滅失되며 西歐의 文化植民地의 狀態에서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第2節 廣州의 民俗

옛부터 百濟의 都邑地로써 모든 文物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했던 廣州는 民俗分野에서도 많은 文化財的 價値를 지니는 劇이나 놀이, 祭 等이 傳해지고 있다. 現在는 서울로 編入된 송파에서는 無形文化財로 指定되어 있는 山台놀이가 있었고 石村이나 廣州의 慶安川의 다리위에서는 正月 보름을 맞이하여 踏橋놀이가 盛行했으며 部落의 곳곳에서 年初가 되면 장치기, 農旗싸움, 地神밟기 줄다리기 等으로 連日 農樂의 소리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또 八月 한가위에는 거북놀이를 하며 즐기곤 했다. 이러한 훌륭한 文化遺產을 지닌 廣州가 現在에는 서울과 近接한 고장으로써 文化의 不毛地가 되다 싶이 했으며 地域이 서울로 編入되고 城南市로 分類되자 자연히 貴重한 傳統民俗 藝術도 他 地方의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地域의 곳곳에서는 옛 흔적이 남아 있고 年初가 되면 많은 部落에서 農樂을 앞세우고 地神밟기를 하거나 洞里의 安寧과 家內의 安過泰平을 위하는 마을祭를 드리고 있으며 몇몇 部落에서는 數年 前만 하여도 거북놀이와 장치기 等의 民俗놀이가 演戲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三國時代 以前 三韓朝부터 周圍의 어느 곳보다도 월등한 文化遺產을 지녔던 이 고장의 民俗藝術을 發掘하여 整理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現代의 西歐化된 文化에 밀려 衰退하고 斷絶되어 진 우리 先代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며 우리의 精神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廣州의 民俗藝術 中에서도 地方의 獨特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고 文化財的 價値가 높은 것을 찾아서 外形的 분류가 아니라, 內面의 思考를 따라서 分類하여 整理하고자 하며 흔히 槪要만을 紹介하는 方法을 脫皮하여 演戲方法과 辭設, 旋律 長短까지도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그 保存的 價値를 높이고 後日 再現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廣州에서 遷去에 演戲되었거나 現在하는 民俗 · 中에서 祈願性民俗인 해동화 놀이, 장치기, 줄다리기, 農旗싸움, 거북놀이 地神밟기, 踏橋놀이와 作業性民俗인 地硬닷기, 祭儀性民俗인 長丞祭와 재돋음을 說明하고 끝으로 單純 娛樂性民俗으로 나타나는 農樂에 대해서 解說하고 歲時的으로 나타나는 놀이는 其他 民俗놀이로 묶어 三編에서 說明한다.

◉ 祈願性民俗

1. 海冬火놀이

● 槪 要

陰曆 正月 15日을 "대보름" 혹은 "上元日"이라고 하여 正月 元日에 시작된 各種 行事가 이 날을 고비로 일단 끝을 맺게 되는데 이 날의 儀式은 대개 農作에 關한 豊農의 祈願儀과 洞里의 安寧 家內의 安過泰平 等과 個人의 健康에 關한 祈願 習俗인 耳明酒 賣署 等이 있었다. 또한 正月에 놀이로써 줄다리기, 石戰 洞神祭 等이 있어 이러한 것은 全部가 豊農에 의한

祈願儀式과 마을의 安寧을 바라는 歲時的인 祈願性民俗이었다.

이 正月 보름의 밤에는 휘영청 밝게 떠오른 달빛 아래서 많은 儀式이 이루어졌는데 달맞이, 踏橋놀이 等은 대표적인 民俗遊戲로써 우리나라의 全域에 고르게 分布되어 있는 民俗이며 地域마다 特徵있게 演戲가 되곤 했다.

우리 民族은 옛부터 이 달과는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어 親近하며 나타나며 때로는 精誠받이로 神聖示되기도 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戀人의 얼굴로 비유되기도 했으며, 或은 戀歌의 素材로도 童話속의 素材로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韓國人의 달은 그때의 주어진 環境에 따라서 수십, 수백개씩 存在해 있었다. 이러한 달은 초생달이면 美人의 아름다운 눈썹에 比喩되기도 했으며 滿月이 되면 正月에는 踏橋놀이, 달맞이 줄다리기와 地神밟기, 各種 部落祭가 벌어졌으며 혹은 風物을 잡히고 함성을 지르며 한마당 놀이판을 벌이기도 했고 八月의 滿月下에서는 거북놀이를 하여 家內의 安過泰平과 部落의 安寧 그리고 豊農의 祈願과 感謝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와 密接한 關係를 지녀오던 우리 民族의 달은 어느틈엔가 物質文明의 그늘에서 사라지고 있어 달과 關聯된 固有의 風俗은 自然淘汰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대보름의 달맞이 儀式만은 全國的으로 演戲되고 있다.

이 달맞이는 달을 맞음으로 해서 招福遂厄과 豊農을 祈願하는 習俗이며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달을 보고 "滿月이여"하고 소리치면 所願成就가 된다고 한다. 즉 총각의 먼저 보면 그 해에 장가를 가고 처녀가 보면 시집을 가게 되고 아이를 밴 妊産婦가 먼저 보면 得男을 하게 되고 病이 重한 患者가 보게 되면 病이 완쾌한다고 믿는 強한 巫俗性을 띠고 있다. 또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 해에 農作에 關한 豊, 凶을 점치기도 했는데 달이 떠오를때 東쪽으로 치우치면 山地에 豊年이 들고 西쪽으로 치우치면 漁村에 豊漁가 든다고 믿으며 달집을 태우면서 그 달집이 잘 타오르면 豊作이 든다고 믿는 習俗이 있어 全國的으로 고르게 分布되어 나타났다. 이렇듯 巫俗性을 지니며 創出한 달맞이는 달집짓기, 달집태우기, 祈願儀式, 마당놀이의 順으로 이어지며 이 달맞이가 끝나고 나면 踏橋놀이와 줄다리기 等이 演戲되기도 하였다.

● 廣州의 해동화놀이

廣州郡廳 所在地인 廣州邑에서 東部邑쪽으로 약 15里 정도의 아스팔트 鋪裝道路를 따라가면 南漢山城과 서울方向의 交差路가 나타나는데 이 곳이 廣州郡 中部面 光池院里이다 약 90여 세대의 住民들이 모여 살고 있는 洞里로써 家屋의 周圍가 山으로 둘러싸인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光池院은 원래 예전의 通信方法으로 利用되었던 南山驛이 있었던 곳으로 朝鮮時代에 접어들어 黃橋院이 있어 서울에서 廣律橋를 건너 德豊驛를 거쳐서 慶安, 利川, 驪州, 忠州, 淸州方向으로 南下하던 官吏나 驛馬가 쉬던 곳이다.

朝鮮時代 驪州의 英陵에 가시던 임금이 이 이 곳에서 쉬다가 洞里의 가운데 있는 곳에서 물이 하도 맑아서 햇빛에 反射되어 빛을 발아자 〈先池院〉이라 稱했다고 하는 由來가 깊은 部落으로써 이 곳의 住民들은 이 院의 터를 아직도 원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洞里에는 옛부터 正月 上元日을 맞이하여 部落內에서 달맞이 儀式이 벌어지는데 그 儀

式이 벌어지는데 그 儀式의 名稱을 洞里의 禍를 풀어 버린다고 하여 〈海洞禍놀이〉라고도 하고 이 正月 上元日의 儀式이 대개 農作에 關係되는 것으로 洞里의 安寧이나 豊農을 위해서 겨우내 얼었던 것을 녹인다고 하여 〈海東火놀이〉라고도 하는데 이 달집 形態의 나뭇단을 "해동홰"라고 指稱되고 있으며 더욱 나뭇단을 使用한 불이기에 〈海冬火〉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즉 正月 대보름은 그 해의 農作에 關한 豊凶을 미리 占치는 儀式이 많이 나타나며 겨우내 열었던 땅에서 實質的인 農作의 준비가 이 날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며 그 높게 쌓은 나뭇단(섶이라고 한다)에 불을 붙여 겨울동안 얼었던 땅을 녹이고 추위를 물린다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써 이 불은 자연히 淨化의 뜻이 있어 災難의 防止가 되어 마을이 安寧이 뒤따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동해는 그 쌓아놓은 나뭇단의 높이가 예전에는 20여미터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7-10여미터에 달한다.

洞里에 傳해지는 口傳에는 이 해동화 놀이의 由來는 약 20여년 前에 이 洞里에 마마나 장질부사 등의 疫疾이 돌아 온 洞里가 病苦에 시달리고 있을 때 姜杓라는 老人의 꿈에 神夷이 나타나 각 집마다 나뭇단을 모아서 그것을 엮어서 섶을 만들고 그것에 불을 놓고 祭를 올리면 病이 治癒된다고 하여서 그때부터 每年 正月 보름날 밤에 이 儀式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各地域에서 나타나는 民俗의 由來는 正確한 記錄이 傳해지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이 해동화놀이를 보더라도 짚을 使用치 않고 나뭇단을 使用하는 特異한 점이 있으나 이 나뭇단을 使用하는 部落은 같은 廣州郡內에서도 中部面 光池院里 鶴東里 等에서도 나타난다. 이 地域의 共通的인 점이 周圍가 山으로 둘러싸여 있어 農地가 적기 때문에 볏짚에 귀했으며 상대적으로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利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傳해지는 由來가 各 地域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地域內에서 어느 時期엔가 必要에 의해 創出된 說話로 보인다. 따라서 달맞이의 一般的인 形態가 각 家庭마다 짚을 한단씩 걷어서 달집을 짓기때문에 同一한 形態로써 짚을 使用한 달집이나 나뭇단을 使用한 해동화놀이나 共通된 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해동화놀이는 豊農의 祈願과 洞里의 安寧, 家內의 安過泰平을 祈願하는 마을 共同體의 團合을 目的으로 하는 祈願性民俗으로써 巫俗的思考에서 創出된 特異한 形態의 民俗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洞里에서는 正月 보름날 해동화놀이가 벌어지기 傳에 洞里의 老人 中에서 生病複德(先氣複德은 生年月日을 六甲에 配定하여 上, 中, 下 三父를 뽑아 吉人을 택하는 方法으로 一上先氣, 二中天宜, 三下絶體, 四中遊魂, 五上複宮, 六中福德, 七下絶命, 八中歸魂을 말한다)을 가려서 祭를 주관할 祭主를 選出하는데 祭主는 몸과 마음을 精潔케 하고 門밖에 出入을 禁하며 며칠 前부터 食水에 沐浴齊戒하고 온갖 不淨을 멀리해야 한다. 또한 洞里에 喪이 나거나 出產이 되면 祭儀式을 擧行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가 精潔한 가운데 祭를 올려야 招複遂反이 된다고 믿는 強한 巫俗性 때문이다.

이와같이 中部面 光池院里의 해동화놀이는 200여년을 두고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며 만일이 儀式을 擧行하지 않으면 洞里에 不祥事가 생기고 凶年이 든다고 하여 日帝時에는 등화관제소의 허락을 받고 儀式을 擧行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동화놀이는 祭와 놀이가

複合的으로 나타나는 藝術性과 傳統性이 높은 民俗이다

※演戱方法

1)해동화제작

正月 上元日이 가까워지면 洞里의 各家庭마다 나뭇단을 한단씩 걷어 그것으로 해동해를 만든다. 동해는 마을의 中央 空地에 세우게 되며 높이는 약7m 정도로 동해가 쓰러지지 않게 통나무 버팀목을 세우고 새끼줄로 둘레를 여러번 감는다. 이때 집집마다 나뭇단을 걷는 理由는 모든 家庭이 고루 招復逐反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2)달맞이 신호

先池院里는 周圍가 全部 山으로 둘러싸여 달이 떠오르는 것을 洞里에서 보게 되려면 時間的으로 늦기 때문에 산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가 달이 떠오르면 횃불을 흔들어 신호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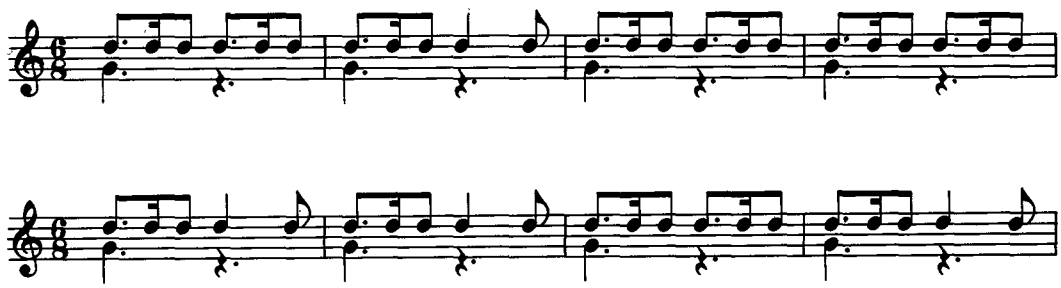
3)달집태우기와 祭

신호를 받으면 해동홰에 올라가 윗부분에 불을 붙이며 이 달집의 앞에 酒果脯를 陳設한 祭床을 차리고 祭主가 三杯를 드린 後에 마을의 安寧과 豊農을 祈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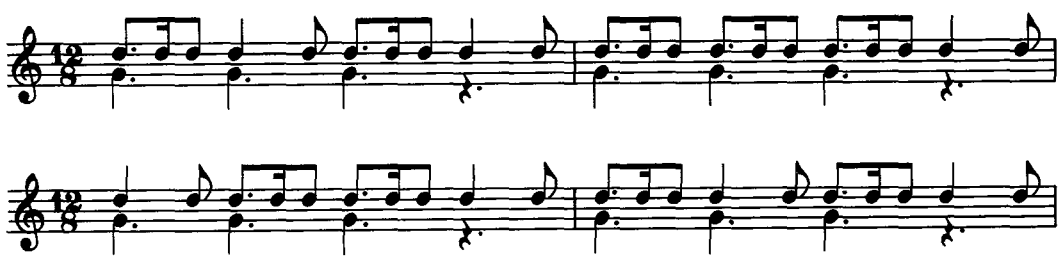
4)地神밟기

祭主가 三杯를 올리고 나면 洞里의 農樂隊가 삼채장단을 치면서 횃불의 周圍를 돌다가 길군악과 삼채를 치면서 洞里의 집집마다 다니며 家內의 安過泰平과 招復逐厄을 祈願해 주는 地神밟기(이 곳에서는 고살밟기라 한다)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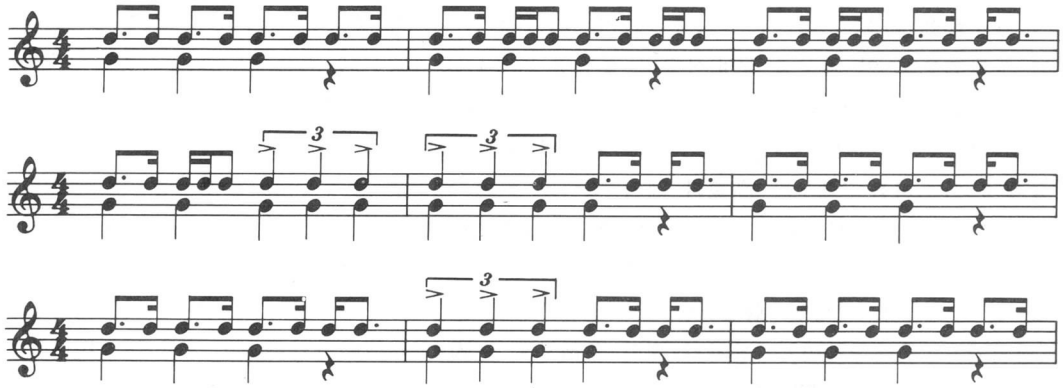
〈장단:길군악〉



〈장단: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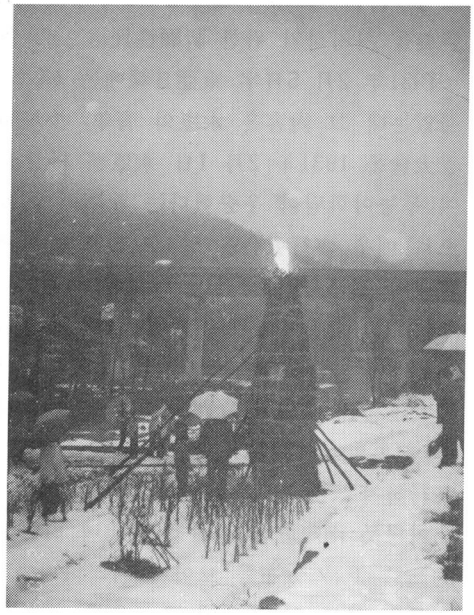
〈장단:잦은삼채〉



5)뒷풀이

地神밟기를 마치고 해동해의 周圍에 모인 모든 洞里의 住民들은 한껏 興에 겨운 뒷풀이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는 모든 俗民이 한데 어우러져 大同團結과 共同體的인 삶을 배우고 느끼게 된다.

이 光池院里의 해동화놀이는 긴 時間을 끊이지 않고 傳承되는 藝術性과 傳統性이 높은 民俗이다.



2. 장치기

● 槪 要

장치기란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흡사한 놀이로 여러사람이 같은 수로 편을 갈라서 소나무 응이가 여러겹 박힌것을 둥글게 깍아서 使用하거나 짚을 단단하게 뭉쳐서 그 겉을 짚으로 엮어서 얼레공이라고 하여 약 1·5미터 정도의 채로치는 놀이이다. 이 장치기의 特徵은 대개의 球技種目이 相對쪽으로 공을 넣는 것에 비해 자신의 部落쪽으로 공을 몰고 가는데 이러한 것은 巫俗的 思考에서 由來한 것으로 어러레공이 곡식의 낟알을 뜻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自身의 部落쪽으로 끌고가야 部落이 豊年을 차지한다고 믿는 巫俗性 때문이다.

원래 이 장치기는 지금과 같은 民俗놀이가 되기 前에는 주로 宮庭이나 士大夫들이 넓은 뜰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즐기던 놀이로써 이때는 이것을 〈격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장치기의 由來는 매우 오래전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文獻上의 記錄으로는 첫 記錄이 高麗史에 실리고 있는데 "尙州의 敵의 우두머리 阿子蓋가 使署를 보내어 귀순할 뜻을 전하니 王이 命하여 그를 맞이하는 儀式을 구庭에서 하였다"고 적고 있다.(高麗史기1 太祖元年 9月 甲午條)에 이 기록이 고려태조때의 것으로 보아 그 以前인 三國時代부터 傳來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庭이라 함은 장치기의 놀이마당으로 高麗 太祖때에도 宮안에 구庭이 있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民俗化 되기 以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記錄에 살펴보면 이 격구가 上流社會의 高級遊戲로써 端年節에 遊戲되었으며 사치와 호화를 지나치게 부려서 충숙왕 元年(AD 1314年) 五月에는 全般的으로 이 격구를 禁止시켰고 공민왕 23年(AD 1374年) 五月에도 禁止시켰으나 오랫동안 貴族들의 몸에 밴 習性이라 사라지지 않다가 朝鮮朝에 접어들어 잠시동안 中斷되었으나 世宗때에 다시 시작하였는데 世宗實錄 卷42 12年(AD1430年) 9月 己未條에 보면 "王이 大臣들에게 이르기를 "격구가 高麗의 폐가 있다고 하여 廷臣들 중에 이를 없애기를 바라는 이가 많으나 격구는 본시 武를 익히는 것이지 놀이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했으며 世宗때에는 격구를 하는 技法과 採點方式이 確立되어 武官을 등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採擇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兩班社會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하던 격구가 점차로 民俗化되면서 〈장치기〉, 〈얼레공놀이〉, 〈짱치기〉等의 名稱으로 全國에서 演戲되었다. 이 장치기는 民俗化되면서 이기는 部落이 豊年을 차지하고 지는 部落은 보릿고개를 떠맡는다는 巫俗的思考가 있어 豊農을 차지하기 위한 祈願性民俗으로 全國 各處에서 盛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31年 2月 5日字 東亞日報에는 〈우리 競技 復興의 烽火－杖球大會〉라는 題目으로 記事를 실었는데 그 內容은 水原의 靑年, 少年同盟 楊甘支部 두 團體의 主催로 第一回 全朝鮮 얼레공大會를 1931年 2月 1日 水原郡 楊甘面 용소리 앞 냇가에서 全國의 32個 男女팀이 참석하여 두능야학팀이 우승했다는 記事의 內容이다. 이로써 보면 光復 前에도 이 장치기가 全國的으로 매우 盛行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 女子들도 이 大會에 參席했다는 것은 이 장치기가 現在의 필드하키와 같이 男女의 共通的인 놀이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高麗史 卷 14 예종 14年(AD116年) 4月 辛卯條에 보면 女子들이 호화스러운 의상을 똑같이 차려입고 말을 달려 이 놀이를 즐겼다고 되어 있어 한때는 男女가 함께 즐기던 놀이가 朝鮮朝의 儒敎의 崇拜로 婦女子들을 賤視하고 門밖 出入을 禁止시키자 女子들의 장치기는 衰退한 것으로 보이며 傳記한 記事의 內容에도 女子들의 우승팀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女子들의 장치기는 대대적으로 盛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兩班社會의 말을 달리며 하던 격구가 民俗化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장치기는 全國的으로 고른 分布를 보이며 나타나다가 最近에는 樵童이나 少年들의 遊戲로 변모해 겨우 그 命脈을 잇고 있던 것이 요즈음에는 慶尙道 金泉 京畿道 廣州, 江原道 等에서 다시 再現되었으나 現場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옛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

● 廣州의 장채놀이

廣州地方에서는 거의 全域에서 이 장치기가 盛行했던 것으로 보이며 요즈음에도 正月이 되면 손이 얼어붙은 곳에서 洞里의 어린 少年들이 모여서 이 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 廣州地方은 아직도 杖이나 얼레공을 옛 모습대로 엮어서 만드는 技藝人이 상당수 生存해 계시기 때문에 쉽게 調査 發掘이 되었다. 지금도 아이들의 겨울철의 遊戲로 演戲가 된다는 것은 그 命脈을 잇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장치기가 郡의 全域에서 즐겨졌던 것은 이 놀이의 遊戲場所가 特別히 제한되지 않으며 손이나 채도 그때 그때 손쉽게 준비할 수가 있다. 즉 나뭇꾼들이 山에 올라 나무를 할 때만 2－3名이 한팀이 되어서 지게작대기로 채를 살고 짚덤불이나 풀을 잘 뭉쳐서 공을 삼거나 적당한 크기의 나무토막이나 돌 等으로 손쉽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흥으로 즐

기거나 무료한 時間을 보내거나 나무를 한짐 해 주기를 하거나, 추위를 이기는 方法으로 使用하거나, 一年동안 어느때나 場所를 가리지 않고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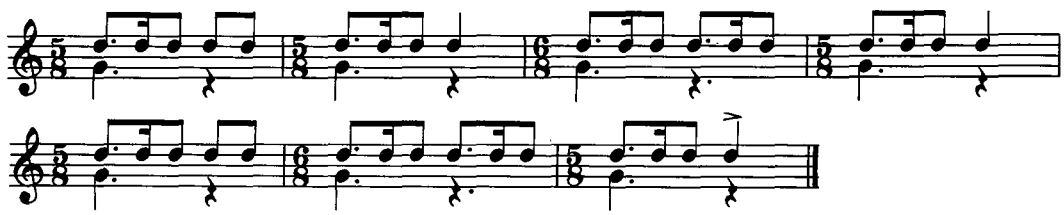
이 장치기는 대개 두가지의 形態가 있는데 그 하나는 前記한 나뭇꾼이나 樵童들이 즐기는 競技로써 一年동안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年初에 부락間의 競技로써 나타나는데 이때는 兩 部落이 競技場所와 日時 그리고 장채꾼의 人員數를 미리 약속해 놓고 온 洞里의 俗民들이 모여서 서로 함성을 질러 사기를 돋고 農樂隊가 끼어들여 한 마당의 競技가 벌어졌는데 대개는 陰曆 正月 複元日부터 대보름 사이에 행해졌으며 洞里間에 서로 돼지를 걸기도 하는 勝負를 결정 짓는것도 있었으나 그 보다는 이기는 部落이 豐年이 든다는 巫俗的 思考로 인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努力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치기의 競起는 特別한 규칙을 없으며 다만 自身의 部落쪽으로 공을 몰고가서 남기거나(짚을 꼬아 줄을 매어놓고) 정해진 문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門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競技가 과격해지기 일쑤였으며 이겨야 豐年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심할 때는 심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는 근 十數年 前만 하여도 郡內의 全域에서 正初만 되면 손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인데, 西歐文物의 導入으로 인해 各種 娛樂器俱가 나타나고 球技種目이 널리 보급되자 급격히 衰退되어 겨우 아이들의 遊戲로 命脈을 잇고 있던 것이 1886年 民俗學者 河周成에 의해 發掘, 再現되어 옛 部落間에 競技가 이루워졌던 慶安川을 사이에 둔 慶安里와 雙令里의 住民들로 演戲牌를 構成해 再現하였으며 그해 京畿道 民俗競演大會에서 入賞을 하기도 하였다.

※演戲方法

1) 길놀이

장치기가 벌어지는 날이 되면 兩 部落에서는 農旗와 部落旗를 앞세우고 農樂隊와 장채꾼 그리고 洞里의 住民들이 길군악칠채 장단에 맞추어 各者가 허튼춤을 추며 길놀이를 펼치는데 이때는 서로 상대 部落의 機先을 制壓하기 위해 各 最高의 技倆을 뽑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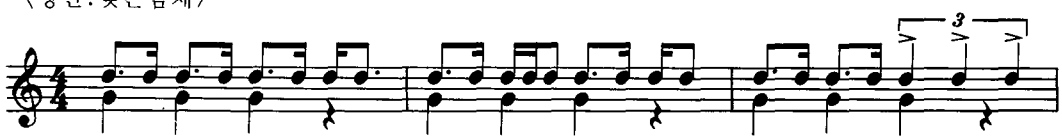
〈장단:길건악 칙채〉



2) 마당놀이

競技場에서 도착한 兩 部落의 演戲隊는 各 中央에 農旗와 部落旗를 두고 그 周圍로 장채꾼과 農樂隊 住民들이 돌면서 서로 技倆을 뽑내며 한바탕 마당놀이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는 잦은 삼채 장단에 맞추어서 서로 함성을 지르고 氣를 돋우다가 양옆으로 退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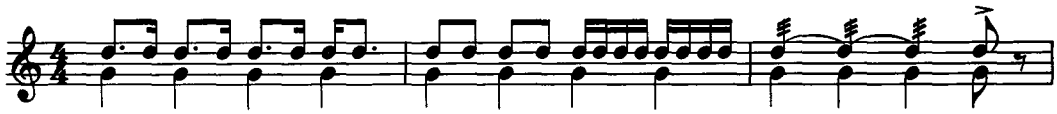
〈장단:잦은삼채〉



3) 競 技

장채꾼만이 競技場에 남고 모두 다 밖으로 나가고 나면 村長이 얼레공을 東西部 장채꾼들의 가운데에 놓는것과 동시에 競技가 시작하기 되는데 이때는 서로가 얼레공을 몰고가서 自身의 部落의 門으로 집어넣게 되며 한골이 들어가면 작은旗를 하나씩 문옆에 꽂게되고 다시 처음과 같은 方法으로 시작해 정해진 時間안에 많이 넣은 部落이 이기게 되는 것이다(원래 過去의 놀이는 한번만 먼저 집어넣는 部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해졌다.)이 競技때 공이 自身의 部落쪽으로 오게 되면 農樂은 허튼장단을 쳐서 사기를 돋우게 된다.

〈장단:허튼가락〉



4) 뒷풀이

競技가 끝나면 兩 部落의 演戲隊는 競技場의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한데 어울려 굿게리와 삼채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뒷풀이를 펼치게 된다. 이러한 놀이는 꼭 豐年을 차지하고 보릿고개를 떠 맡지 않으려는 것 보다도 兩 部落이 한데 어울려서 즐기면서 서로 共同體的인 團合心을 일깨우고 豐作에 必要한 體力을 維持하기 위한 方法에서 創出된 祈願性民俗으로써 오래전부터 전해진 地域의 놀이이다.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農 旗	各 1	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고깔
部 落 旗	各 1	〃 청홍색기
上 소	各 1	부돌상모,삼색띠,짚신,들걸잠방이
副 소	各 1	〃
鼓. 鉦. 杖 鼓	各 2	고깔.삼색띠.짚신.등걸잠방이
小 鼓	各 4-6	나비상.삼색띠.짚신.등걸잠방이
장 채 꾼	各 10	청홍색머리띠.짚신.등걸잠방이.행전.
村 長	1	정자관.도포.부채.장죽
洞 里 住 民 들	多 數	남자:바지저고리.짚신.女子:치마저고리,고무신

〈上記의 人員編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競技場의 넓이와 주어진 與件에 따라 變하는 것이며 이 編成表는 1986年 再現 당시의 人員構成이다〉

※장채와 얼레공의 形態

이 장치기에서 사용하는 채(장)은 물푸레나무가 한쪽이 45°정도 굽은 것을 깊이 1,5~1,8m 정도로 잘라서 使用하거나 참나무의 가지가 45°정도 벌어진 것을 길이 1,5~1,8m 정도 자르고 굽은 부분을 20~25㎝ 정도가 적합하다. 얼레공은 소나무의 옹이가 여러겹 박힌것을 깎아

서 쓰거나 짚을 단단하게 뭉치고 그 겉을 가늘게 짚을 꼬아 엮어서 使用하는데 공의 지름은 12~15㎝가 되게 한다.

3. 거북놀이

● 槪 要

거북놀이는 長壽動物인 거북을 神聖視하는 八月 한가위의 놀이로써 추석의 달이 떠오르면 수수잎으로 거북을 만들어 그 안에 演戲者가 들어가 洞里의 家家戶戶를 다니며 招福遂厄을 祈願해주고 그 댓가로 穀食이나 金錢을 받아서 洞里의 公益事業에 使用하는 畿湖地方의 代表的인 遊戲로써 創出은 거북을 위함으로 人間이 無病長壽와 招福遂厄을 바라는 祈願性民俗이다.

韓國에서 나타나는 많은 民俗遊戲가 대부분 正月에 치중되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거북놀이는 8月 한가위에 演戲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馬韓의 習俗이었던 五月 下種과 十月 農攻畢의 感謝儀式이 地域的인 特性을 지니며 派生하여 이루어진 놀이가 아닌가 推定된다.

韓國人은 옛부터 거북과는 매우 密接한 關係를 맺은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은 흔히 우리 周圍에서 손쉽게 나타나는 文化財나 民俗品 等에서 보이듯 벼루의 硯滴이나 거북碑 十長生圖의 거북畵, 그 外에도 갖가지 民畵에서 이 거북을 神聖한 動物이라고 하여 즐겨 그렸으며 過去 國王이나 王后들의 옥새에도 거북을 새겨 넣어 王權의 長期執權과 太平聖代를 追求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長壽動物인 거북을 위함으로써 가뭄과 疾病, 洪水와 災厄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적게는 집안의 安過泰平을 누릴 수 있다는데서 創出된 民俗遊戲로 본다.

이 거북도 어느 民俗이나 그러하듯 發生의 由來가 確實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民俗의 創出條件의 特徵이 創出年代나 作者의 未詳이라고 設定하고 있어 이 거북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順次的인 創出의 條件은 自然的인 순간의 充動→作者와 技藝人의 力量→地理的 條件(地域民의 性格, 言語 風習)→時代的, 歷史的인 背景→現場에서의 自然的 傳授 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거북놀이도 어느 時期엔가 自然에 의해서 創出된 것이 各己 地方으로 流出하여 地域的인 特徵을 보이며 演戲된 것으로 보인다.

거북놀이의 發生 由來에 關한 것은 確實히 알 수 없으나 대개 地域에 傳하는 것으로 보면 無病長壽說과 安過泰平說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거북놀이가 洞里의 安寧이나 家內의 安過泰平 그리고 豊農과 無病長壽를 祈願하는 놀이로써 部落의 共同體的인 遊戲로 發生했음을 알 수 있다.

京畿道 利川地方에 傳하는 由來說을 보면 옛날 新羅 第三十一代 文武王(AD661~681)때 15才의 公主가 病이 씻은듯이 나았다고 하여 이때부터 거북놀이가 由來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거북놀이는 無病長壽說로 創出의 條件을 삼고 있고 忠南 天原地方에서 傳하는 由來說을 보면 지금부터 약 950여년 前인 高麗 8代 顯宗(AD1010~1031年)때 나라에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 곳곳마다 도둑들의 행패가 심하여지자 顯宗이 직접 民政을 살피기 위해 각 고을을 순회하였다. 그러던 중 稷山縣에서 하루를 기거하는데 꿈속에서 新羅의 文武王이 나타나 1月 한가위에 거북이를 보낼테니 거북과 더불어 뛰어 놀고 民心을 收拾하라고 顯夢하여서

海上으로 침입하는 敵은 龍王이 있어 막을 수 있으나 陸地에서 침입하는 敵은 물리칠 수 없으므로 水陸兩生하는 거북을 보내니 國家를 잘 保護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顯宗은 이튿날 조정의 중신들과 의논한 끝에 地形을 두루 살펴보고 笠場面 龜德里(現 行政區域 新德里一區)가 거북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 마을 사람들과 거북놀이를 하였더니(一說에는 추석날 조정 대신들을 이 마을에 보내 거북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이듬해에 벼알이 수수알처럼 豐盛하게 여물어 大豊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매년 추석날을 맞이하여 거북놀이를 하였다고 하여 이곳이 거북놀이의 發生地고 이 거북놀이가 安過泰平(豊農)說로 緣由해 創設되었음을 傳하고 있다.

上記와 같은 發生由來說은 地域에서 傳來하는 것일 뿐 그것을 確證할 資料는 없다. 前記한 新羅 文武王때의 發生說을 보면 그때의 京都는 慶州로써 당연히 慶州에 거북놀이가 있거나 傳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高麗 顯宗때의 發生說을 보아도 그 時期에 王이 民政을 살필 수가 없었던 것이 顯宗 元年에 요의 성종이 40萬이라는 大軍을 이끌고 侵略해 와 首都인 開京까지 함락되어 王이 羅州까지 正月에 파천했다가 2月에 還京했으며 더욱 거북놀이를 그 部落의 住民들과 하였다고 했으나 수수는 가을철에 익는 곡식으로 정월~2月에는 파종조차 하지 않은 時期이므로, 위 유래설은 단순히 고장에 전하는 說話일 뿐이지 發生地는 아니다. 또한 上記 두가지의 發生說 外에도 그 대사주에 '압록강을 건너 왔다'는 말이 있어 中國에서 傳來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中國에는 옛날 복희씨때 黃河에서 나왔다는 河圖洛書에서 由來된 점법인 〈六爻占〉이라는 거북점이 있다. 또 百濟 의자왕 20年(AD660年) 땅속에서 거북이가 나와 그 등에 적힌 글귀를 보고 점을 쳐보니 "新羅는興하고 百濟는 亡한다"고 했다 하여 같은 時期에 新羅의 王인 文武王때의 發生說이나 中國에서의 거북점에서 緣由한 傳來說 等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에서 나타나는 대사는 地域的인 特性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忠南 唐津地方의 경우에는 "西海를 건너 왔다"고 나타나고 있어 演戲에서 나타나는 대사는 아무런 意味가 없고 地域的인 것일 뿐이다. 즉 西海를 接하고 있으면 西海를 건너왔다고 하고 東海를 接하고 있는 고장은 東海를 건너왔다고 하며 內陸地方에서는 압록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것이 一般的인 예로써 地域的 特性일 뿐이다. 이러한 地域的 特徵은 總論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거북의 形態와 거북놀이에서 나타나는 거북德談等 그 고장 나름의 特徵的인 形態로써 나타난다. 이렇듯 그 고장 나름의 特徵을 지니며 演戲되는 거북놀이는 그 進行過程에서 나타나는 內面의 思考가 招複逐厄과 豊農, 洞里의 安寧과 家內의 安過泰平을 祈願하는 "굿"-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始原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推定되며 그 形態의 進行이나 內的思考를 볼 때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緣由한 것으로 보인다. 馬韓에서는 5月 모심기와 10月 秋收가 끝나고 나면 하늘에 感謝하고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며 뛰놀기를 땅을 밟으려 팔과 다리를 움직여 즐겼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요즈음에 나타나는 正月의 地神밟기와 8月의 거북놀이에서 나타나는 各 場所에서 나타나는 儀式과 同一하다. 이런 점으로 觀察할때 馬韓朝부터 傳해지는 祭天儀式이 時代의 지남에 따라 農作의 實質的인 始作인 正月과 五穀이 結實을 맺는 8月 分離되어 하나는 地神밟기로 하나는 거북놀이로 定着했을 可能性도 있다. 馬韓의 習俗은 굿이고 이 굿은 農作에 關한 것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先史時代

에서 傳해지던 祭天儀式이 어느 時期엔가 周圍環境의 影響으로 인해서 그 고장의 集團的인 民俗遊戱로 정착했을 可能性이 높은데 이 놀이가 強한 巫俗的 思考를 지니고 있어 거북을 위하는 놀이로 變化했을 것으로 생각든다. 이 놀이가 한창 盛行했을 때는 집을 들르지 않고 지나치면 집 주인이 억지로라도 演戱隊를 집 안으로 끌며들였다는 것을 보아도 이 놀이의 巫俗的 思考를 確實해진다.

거북놀이는 京畿道의 廣州, 利川, 龍仁, 驪州, 平澤, 安城, 等地와 忠淸道의 陰城, 天原, 牙山, 禮山, 淸州, 忠州, 그리고 全羅道의 海南과 慶尙道의 昌寧, 等地에서 演戱가 되었으나 점차 衰退되어 가던것이 日帝의 文化抹殺政策으로 인해서 거의 斷絶되어 버렸고 光復 後에는 아이들의 遊戱로 轉落하여 한가위의 밤에 이집 저집을 다니며 飮食을 걷어 굶주린 배를 채우기도 했는데 最近에는 京畿, 利川, 安城, 忠淸道의 陰城, 天原, 忠州에서 다시 再現을 하기도 했다.

● 廣州의 거북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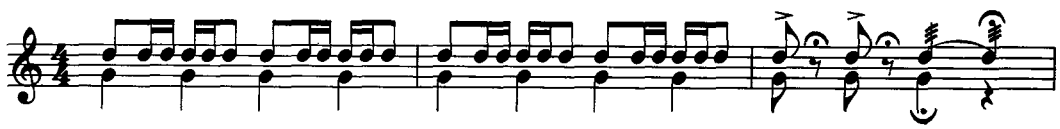
廣州에서는 全國에서 再現된 고장을 빼고는 가장 오래도록 이 거북놀이가 演戱된 고장이기도 하다. 廣州郡 五浦面에서는 불과 십수년 前만 하여도 추석날 洞里의 少年들이 수수잎을 엮어서 거북의 탈을 만들어 쓰고 돌아다니며 떡과 飮食을 얻어 즐기고는 하였다. 이러한 傳承民俗 藝術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던 이 고장에서는 급작히 밀어닥친 現代化의 물결 속에서 대부분 文化財的 價値가 높은 文化遺産이 消滅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예전의 넓은 郡勢가 서울로 編入되고 城南市로 分離되자 상대적으로 많은 民俗藝術이 딴 市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거북놀이는 地域的 特性이 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흔히 우리나라의 民俗藝術의 特徵을 "百里不同風"이라고 하여 地域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이르고 있으며 이 거북놀이도 地域的 特徵이 強해서 演戱 中의 대사나 거북의 形態 等이 거의가 地域마다 特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廣州의 民俗 거북놀이는 八月 한가위를 맞이하여 豐盛한 穀食을 利用해 祖上과 神께 感謝하고 온 마을의 住民이 한데 어우러져 大同團結의 團合心과 共同體的인 놀이였다.

※演戱方法

1) 거북의 제작

8月 한가위가 되면 洞里의 住民들이 모여서 짚으로 줄을 꼬고 수수잎을 따서 서로 엮어서 거북탈을 만들어 놓고 거북놀이를 하여서 洞里가 安寧하고 家內가 泰平하고 無病長壽하며 다음에도 豐年이 들고 豐農이 든 것 等은 感謝하고 祈願하면서 거북의 탈을 向해서 四物의 인사가락에 맞추어서 인사를 한다.

〈장단:인사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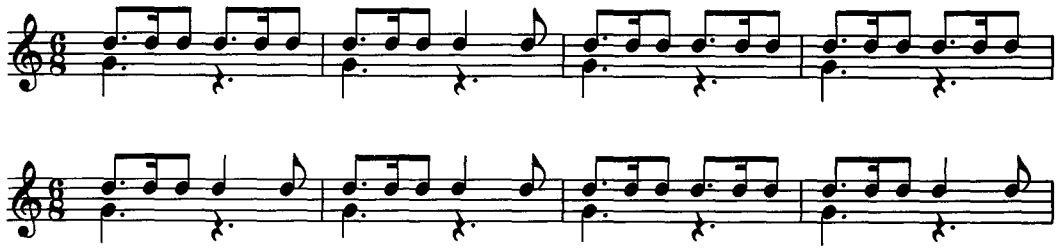


2) 길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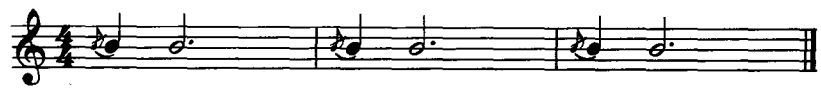
8月 한가위의 달이 떠오르면 거북놀이의 演戱隊 一行은 거북의 탈을 뒤집어쓴 거북의 演戱者와 거북물이인 질라래비, 農樂을 치면서 거북놀이를 主導하는 風物잽이들과 양반, 머슴,

여종 등의 廣大패가 洞里의 入口에서부터 길놀이를 펼치면서 洞里 안으로 向하는데 이때는 特別한 形式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각자가 興에 겨운 허튼춤을 추면서 길놀이를 하며 길놀이를 시작하기 前에 洞里에 들어가기를 알리는 鍾鼓(혹은 정고, 점고로도 부른다) 儀式을 擧行한다.

〈악보:길군악〉



〈악보:鍾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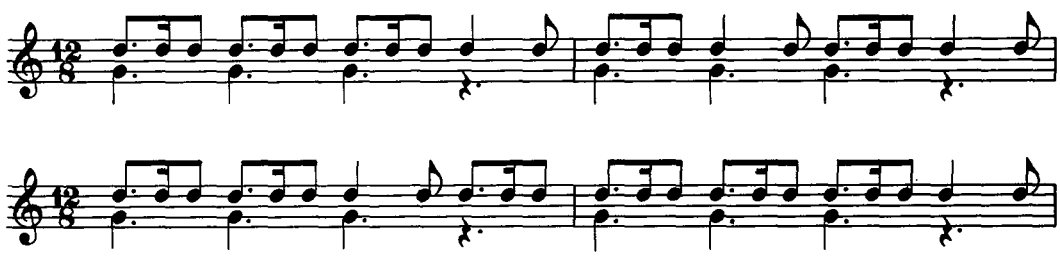


3) 우물굿

길놀이를 하던 演戱隊 一行이 洞里의 共同 우물에 當到하고 나면 우물 周圍를 에워쌓고 심채장단에 맞추어 우물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다가 上釗(或은 唱者를 따로 두는 수도 있으며 廣大 中에서 한명이 맡아서 德談 풀이를 하는 수도 있다. 지금처럼 上水道가 發達하지 못했던 過去에는 마을의 共同우물이 水資源을 充當시키는 重要한 役割을 했으며 人間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이 必須的인 것이므로 陰曆 正月을 맞이하여 따로 〈大同우물굿〉을 펼치기도 했다.

洞里의 共同 우물의 周圍를 둘면서 삼채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던 演戱隊 一行은 上釗가 우물 德談을 하기 위해 釗를 몰아서 그치면 모두 제자리에 멈춘다. 上釗가 "東시靑帝 龍王님 南方亦帝 龍王님 中央黃帝 龍王님 西方白帝 龍王님 北方黑帝 龍王님 이 情試 이 發願을 드리오니 7年 대한 가뭄에도 물이나 철철 나게 해주오 九年 장마 洪水에도 물이나 맑게 해주오" 하고 우물 德談을 한 後에 쇠를 몰아치고 "이 물을 먹는 萬人間 無病長壽 今時發福 發願이요"하고 삼채를 치다가 다시 줄긴악으로 가락을 바꾸어 치면서 洞里의 집으로 向한다.

〈장단: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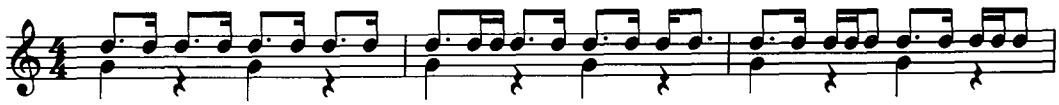


4) 문 굿

우물굿을 마치고 洞里로 들어 온 演戱隊 一行은 제일 첫집에 가서 문굿풀이를 하게 되는데

上釗가 자주가락을 채서 몰아 그친 後에 문굿풀이를 한다. 上釗가 "문여시오 문여시오 萬人間이 들어가오 萬福이 들어가오 無病長壽 들어 갑니다."
하고 외치면 집 주인이 나와서 일행을 맞아 들이고 演戱隊 一行은 거북을 앞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이 거북놀이가 洞里에서 演戱가 될 때는 집집마다 한 집도 거르지 않고 德談품이를 해 주게 되는데 만일 한집이라도 빼놓게 되면 집 주인이 나와서 演戱隊를 집 안으로 끌여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이 民俗놀이 자체가 단순한 여흥이 아닌 그 內面의 世界에는 招福逐厄과 豊農에 대한 巫俗的 思考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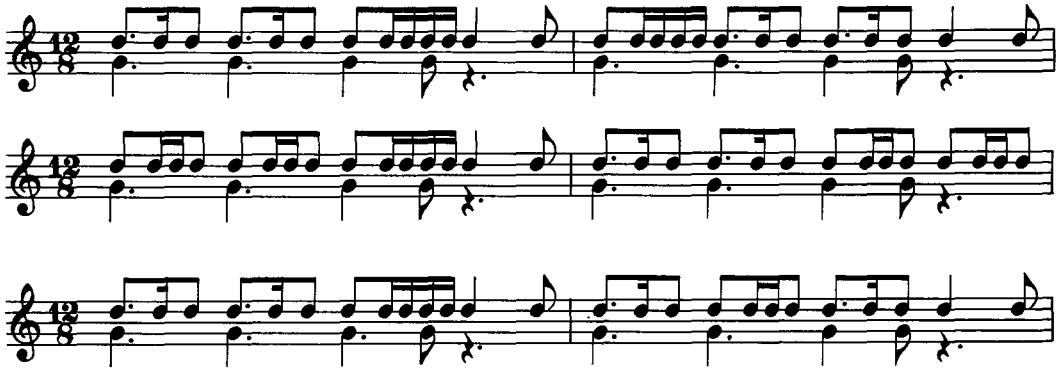
〈장단:자존가락〉



5) 마당굿

집 안으로 들어 온 演戱隊 一行은 거북을 에워싸고 원을 그리며 굿거리장단에 맞추워 춤을 추다가 상쇠가 쇠를 멎고 삼채장단을 치면서 마굿간, 변소, 담장, 等을 다니며 地神밟기와 같은 踏地低昻의 形態로 땅을 밟으면서 "눌러주세 눌러주세 우마지신 눌러주소 눌러주소 눌러주소 칙신지신 눌러주소 눌러주소 눌러주소 담장지신 눌러주소"하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뒤따라 외치며 踏地低昻을 한다

〈장단:굿거리〉



6) 조왕굿

마당굿을 끝낸 演戱隊 一行은 上소와 몇사람의 風物잽이들만 부엌으로 들어가서 조왕굿을 펼치는데 上소가 "자 여보시오 이 집에 이 아궁이가 늘 불이 활활타게 祈願합니다."하고 외치면 모두가 삼채장단에 맞추어서 부엌바닥을 밟으면 上소의 德談을 받아 외친다.

부엌은 그 집안에서 모든 飮食을 준비하여 食生活에 重要한 몫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부엌엔 늘 불을 때고 있어서 모든 不淨을 태운다는 뜻도 갖고 있다. 이 조왕신은 火神으로 나타나며 火神은 온갖 邪惡한 기운을 없애는 뜻도 지니고 있으므로 家族 中에서 遠行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밥 그릇에 끼니마다 밥을 정성껏 담아 부엌에 두는데 이러한 것은 巫俗的 思考에서 緣由하는 習俗으로써 모든 飮食을 준비하는 부엌이기 때문에 客地에서도 굶주리지 말라는 뜻과 不淨을 태워서 無事함을 비는 것이다.

7) 터주굿

조왕굿을 끝낸 演戲隊 一行은 집 뒷켠의 장독대 옆에 마련한 터주가리의 周圍를 돌면서 터주굿을 벌이는데 이 터주굿을 뒤안굿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터주굿을 뒤켠의 장독대가 아닌 좋은 볍씨를 골라서 독에 넣고 그 위에 짚을 덮어 놓은-터주가리 周圍를 도는 것으로 터주굿이라고 해야 한다. 特히 집안의 뒤켠은 坐主神, 後上地神, 坐主大監 等으로 巫俗에서 불리는 土主神이 있는 곳으로써 이 곳에 精誠을 드리므로 해서 집 안에서 일어나는 動土(土地神의 노여움으로 일어나는 不祥事)를 막기 위해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

上釗의 인솔로 演戲隊 一行은 터주가리 周圍를 돌면서 "눌러주소 눌러주소 터주지신 눌러주소"하고 외치면서 삼채장단에 맞추어서 踏地低昂을 한다.

〈집뒤켠의 장독대 옆에 좋은 볍씨를 골라서 독에 넣어 짚으로 감싼 터주가리 一坐地神은 _이곳에 坐定하고 있다고 巫俗에서는 믿는다〉

8) 성주굿

흔히 대청굿으로 불리는 이 地主굿은 _사람이 살고 있든, 居住하지 않든 대들보가 있는 築造物이면 어느 곳에나 있다는 城主神에게 初福遂厄을 發願하는 것이다.

이 城主神은 家神 中의 主神으로써 모든 家神을 거느린다고 하며 이 城主神이 坐定하는 位置가 대청의 대들보나 기둥이 _되기 때문에 대청굿이라고도 하나 이 儀式이 城主神이 坐定한 대청에서 나타날 뿐이지 대청에게 祈願하는 것이 아니기 _때문에 대청굿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城主굿이라해야 할 것이다. 이 城主굿에서는 대청에 자리를 펴고 _그 위에 말에 쌀을 가득 담고 수저와 실타래를 놓게나 돈을 놓기도 하는데 이 城主굿에서는 先祀德談이라고 하여 그 집안의 安過泰平을 祈願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 이 先祀德談을 上釗가 하는 수가 많으나 上釗가 先祀唱을 부르지 못할 경우에는 '비나리'라고 하여 傳門的인 歌唱者를 고용하거나 擴大 中에서 소리에 技倆이 뛰어난 사람을 시키게 된다. 이때 城主굿이서 陳設한 쌀은 豊農을 祈願하는 것이고 돈과 수저는 食福과 財物을 祈願하는 것이여 실은 無病長壽를 祈願하는 뜻으로 使用한다. 이 城主굿에서 나타나는 先祀唱은 太平聖代, 홍수풀이, 달거리, 농사풀이 等으로 나타나나 傳門的인 巫격이나 비나리가 맡아서 할 때는 그 辭設이 매우 多樣하게 句詞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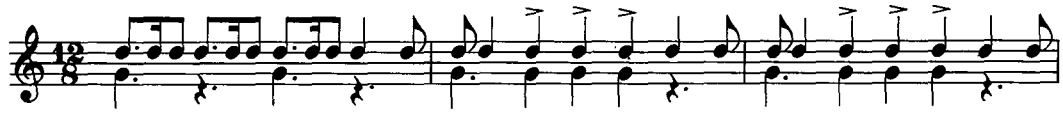
9) 마당 뒷풀이

城主굿을 끝내고 나면 演戲隊 一行은 안마당에서 거북을 에워싸고 한마당 뒷풀이를 펼치게 되는데 굿거리, 삼채 등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던 거북이가 쓸어지면 거북물이인 질라래비가 거북을 들여다 보다가 "여보시오 주인나리 이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 여기 광주땅까지 복을 주러 왔다가 허기가 져서 쓸어졌으니 먹을 것이나 많이 주십시요"하고 외치면 주인이 飮食과 술을 내어놓고 "한가위라 먹을 것은 많이 있으니 많이 먹고 福이나 가득 주고 가게"하고 외치면 쓰러졌던 거북이가 다시 일어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마당 뒷풀이를 펼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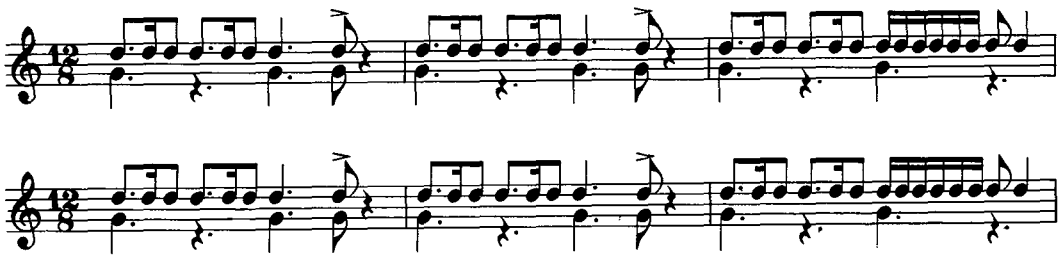
이 뒷풀이는 結實의 季節을 맞아서 모든 것이 다 豊足하고 더욱 거북놀이를 하므로 해서 家內의 豊農과 安過泰平을 祈願하며 招福逐邪가 되었다는 安堵感으로 인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한마당이 되며 이때 四物을 마당일 채 쩍쩌기장단과 굿거리,자층가락 등을 上釗의

인솔로 번갈아 치며 한바탕 질펀하게 논 뒤에 주인이 주는 穀食과 돈을 받고 다음 집으로 向하게 된다.

〈장단:쩍쩌기〉



〈장단:잦은 쩍쩌기〉



10) 길 놀 이

집 안에서 펼쳐진 儀式이 다 끝나고 나면 演戱隊 一同은 거북을 앞세우고 다음 집으로 가는데 洞里 안에서는 길놀이를 할 때도 길군악 대신에 살채장단을 치면서 가는데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량거북아 거북아 천량거북아 놀아라 만량거북아 놀아라" 하면서 따르게 되며 이렇게 洞里의 家家戶戶를 다니며 福을 빌어주는 이 거북놀이는 庶民社會가 創出해낸 民俗이었으며 廣州郡에서는 全域에 걸쳐서 八月 한가위의 달빛 아래서 이 거북놀이가 演戱되었다.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거 북	2	바지저고리에 겉으로 나타나는 다리부분을 수수잎으로 감고 앞사람은 머리부분 뒷사람은 꼬리부분을 맡는다
질 라 래 비	1	수수비를 들고 머리와 팔,몸통,가슴등을 수수잎으로 감싼다.
소	2	부포상포.등걸잠방이.더거리.삼색띠.짚신
鼓. 鉦. 杖鼓	各 2	고깔.등걸잠방이.더거리.삼색띠.짚신
小 鼓	4 – 6	나비삼.등걸잠방이.더거리.삼색띠.짚신
비 나 리	1	先祀德談을 하는 歌唱者로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廣 大	3 – 5	兩班廣大는 정자관에 도돌 담뱃대를 들고 남종은 돼랭이에 개나리 봇짐.등걸잠방이에 행전 짚신을 신으며 여종을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上記의 人員編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必要에 따라서 나타난다. 地域에 따

라서는 農旗와 會旗等도 使用하며 거북의 안에도 2~4名씩 들어가고 있어 고장마다 特徵的인 編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북의 形態

거북놀이에서 그 主된 役割을 하는 거북은 各 地方마다 地域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앞서 總論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京畿道 利川地方에서는 지게 위에 멧방석을 얹고 그 위에 수수잎을 꽂아서 몸체를 만들고 맨드라미나 밤송이로 머리부분을 대신 했는가 하면, 忠北 陰城이나 京畿道 驪州에서는 거북의 形體가 길게 나타나 그 안에 2~5名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龍仁地方에서는 소쿠리에 한지를 잘게 찢어서 느려 사자의 머리탈을 연상케 하고 있다. 또 忠南 天原에서는 나무를 人字로 엮어 머리를 받치기도 하는 등 地域마다 각기 特徵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廣州에서는 멧방석에 용마름을 얹어 그 곳에 수수잎을 꽂아서 늘어뜨리고 그것을 짚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로 엮어서 흩어지지 않게 했으며 머리부분을 區別하기 위해 굵은 새끼줄로 목부분을 묶고 그 줄을 질라태비가 잡고 다녔으며 수수대로 다발을 묶어서 꼬리를 만든 形態였다. 이러한 廣州의 거북놀이에서 나타나는 거북의 形態는 郡內에서도 地域에 따라서 약간씩 差異가 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거북이 지니는 內的 思考가 重要한 것이지 그 外形을 놀이 自體에 重要한 影響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4. 地神밟기

● 槪 要

地神밟기는 正月 初에 집안에 있는 家神들을 위로하여 安宅·招福을 비는 祈願性民俗으로써 惡鬼를 몰아내고 집안의 家神들을 頌祝하므로 해서 家內의 安過泰平을 비는 民俗이다. 年初에 나타나는 대개의 民俗이 洞里의 安寧을 祈願하는 것인데 비해 이 地神밟기는 家內의 安過泰平을 祈願하는 家庭中心의 民俗遊戲이다.

이 地神밟기는 주로 洞里의 農樂隊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光復 後에는 洞里에 農樂隊가 衰退하자 傳門的인 乞粒牌들에 의해서 全國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개 正月 初三日에 始作하여 正月 대보름에 끝나게 되는 이 地神밟기는 다른 民俗놀이에 비해서 家庭 中心이 되는 놀이로 그 집안의 家勢에 따라서 時間이 消遙가 되는 것으로 집이 크고 家勢가 넉넉하여 후하게 錢穀을 내어 놓으면 그 집에서는 더 많은 時間이 걸리기도 하여서 하루종일 다녀도 10여집밖에는 다닐 수가 없어 大洞일 경우에는 正月 대보름을 넘겨서 正月 한달이다 걸리기도 했다.

이 地神밟기의 形態는 馬韓朝의 祭天儀式에서 由來한 것으로 推定하는데 8月 한가위의 거북놀이와 함께 同質의 民俗이 傳해지면서 派生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馬韓에서는 五月 下種과 十月 秋收가 끝나면 鬼神에게 感謝하는 祭儀式을 擧行하는데 이때는 晝夜로 쉬지 않고 男女老少가 한데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며 踏地低昻 하였다고 하여서 現在까지도 演戲되는 地神밟기에서 나타나는 形態와 同一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 祭天儀式의 形態가 派生되면서 地神밟기는 正初의 낮에, 거북놀이는 8月 한가위의 밤에 놀이로 定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 이 地神밟기도 거북놀이와 함께 그 進行되던 過程의 名稱이 굿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節次 또한 거북놀이와 同一하고 地主神이 坐定했다는 대청에서 句詞되는 先祀德談이나 모든 대사가 거북놀이와 同一하게 나타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地神밟기는 正初에 始作하는 것으로 豊農과 家內의 安過泰平을 祈願하는 儀式으로써 正初에 不吉한 것을 防止해야 一年이 無事泰平하다는 巫俗的 思考를 볼 수 있는 民俗으로써 全國的으로 陰曆 正月이 되면 洞里마다 이 地神밟기가 벌어져 일대 장관을 이루곤 하였다. 그러던 것이 日帝의 文化抹殺政策때 鉦釗 等이 供出당하자 점차 衰退하였으며 光復 後에는 新敎의 敎勢 擴張으로 인해 迷信이라는 排斥으로 그 斷絶을 目前에 두고 있으며 現在는 京畿道의 一部 地方과 全羅北道 慶尙南·北道에서 겨우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을 뿐이다.

이 地神밟기를 흔히 乞粒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乞粒이란 朝鮮朝 主期에 盛行했던 流浪集團들의 한 種類인 乞粒牌가 洞里를 다니며 그들의 技藝를 선보이고 家勢가 넉넉한 집에 가서 유숙하며 그 집안의 所願成就와 安過泰平을 위해서 地神밟기를 해 주고 그 貸價로 錢穀을 받아 生計를 維持했던 것인데, 이러한대서 緣由해서 正初에 집집마다 다니며 踏地低昻하며 招福逐厄을 하는 것을 乞粒이라고 하는 것을 妥當하지가 않다.

乞粒은 단순한 技藝를 파는 流浪集團의 놀이마당으로써 그러한 것을 業으로 삼는 사람들을 乞粒牌라고 稱하고 있으며 이 乞粒의 時期는 꼭 正初가 되는 것도 아니고 年中 아무때나 같은 무리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必要한 料金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錢穀을 구하는 行爲로써 요즈음에도 곳곳에서 農樂隊를 앞세우고 다니며 必要한 資金을 기부받는 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乞粒이다. 이 乞粒에는 그 內面的인 것에 어떠한 巫俗的 思考가 存在하지 않으며 다만 必要로 하는 資金만을 충당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에 비해 地神밟기는 家內의 安過泰平이란 目的을 지니면서 年初에 하므로써 집안에 일어나는 災厄의 動厄를 막고 豊農을 祈願한다는 巫俗的 思考가 뚜렷하며 더욱 洞里의 農樂隊에 의해 演戲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며 祝願을 해 주고 받은 錢穀은 마을의 公益事業에 쓰여지는 것으로 乞粒과 地神밟기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 해가 始作되는 正月 初부터 시작하여 正月 대보름을 맞이하여 끝나게 되는 이 地神밟기는 家庭의 安過泰平은 물론이려니와 部落의 共同安寧과 公益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供出을 目的으로 創出된 놀이였다.

● 廣州의 地神밟기

道內의 어느 地域보다도 우수한 文化遺産을 지니고 있는 廣州郡에서는 年初가 되면 洞里마다 地神밟기의 演戲牌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福을 빌어 주는 儀式이 擧行되어 온통 部落이 風物의 소리에 뒤덮여 祝祭 雰圍氣를 자아내게 했다. 또한 이 地域에는 各種 記錄에도 나타나듯이 地神밟기와 줄다리기, 장치기, 깃싸움, 踏橋놀이 等 온갖 民俗놀이가 펼쳐진 곳이기도 하며, 더욱 洞里마다 部落祭가 벌어져 온통 風物의 소리가 곳곳에 메아리친 유서깊은 고장이다.

廣州의 地神밟기는 거의 全域에서 서로 洞里마다 견주기라도 하듯 演戲가 되었는데 40~50年 前부터 日帝의 유기그릇 供出로 인해 징, 꽹과리 등을 빼앗기자 自然 農樂이 衰退되었으며 겨우 命脈만 잇고 있던 것이 現在는 年初에 나타나는 形態를 보면 地神밟기이기 보다는

乞粒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時代的인 變化를 느끼게 한다.

廣州의 이러한 地神밟기는 年初뿐이 아니고 8月 대보름의 거북놀이나 年初에 벌어지는 줄다리기 等에서도 나타나곤 했다. 이렇듯 地神內에서 正初에 벌어지는 地神밟기는 家神을 위함으로 해서 1年初의 不祥事를 막고 家內의 安過泰平을 祈願한다는 데서 다투어 놀이판이 벌어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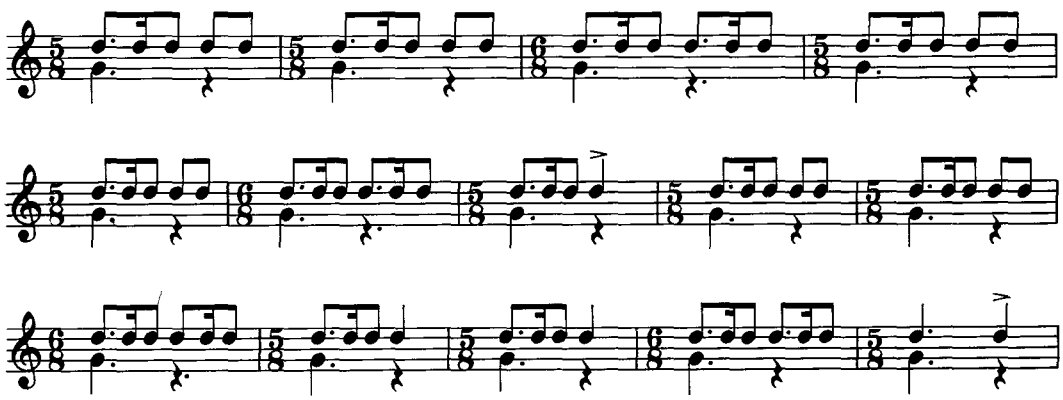
※演戱方法

地神밟기에서 나타나는 進行節次나 形態等은 8月 한가위의 民俗인 거북놀이와 同一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 地神밟기는 낮에 주로 演戱가 되며 거북놀이는 8月 한가위의 밤에 演戱가 되고 있으며 地神밟기에는 거북이가 없어서 마당놀이에서 나타나는 거북에 대한 대사등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 地神밟기의 進行은 길놀이→大洞우물굿→문굿→마당굿→태주굿→성주굿→뒷풀이의 順으로 이어지게 되며 놀이의 名種에서 나타나듯 거북놀이가 거북을 위주로 모든 儀式이 擧行되는데 비해 이 地神밟기는 踏地低昂의 地神을 밟는 形態가 주가 된다는 것이 각기 特徵的인 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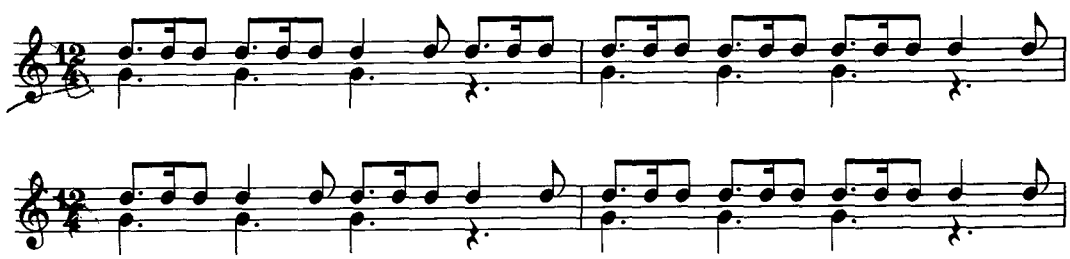
이 地神밟기에서는 거북놀이의 길군악과는 달리 칠채가락을 치고 있으며 거북놀이와는 달리 農樂이 주가 되므로 農樂의 細技가 거북놀이보다 多樣하다.

廣州의 地神밟기에서 나타나는 農樂의 가락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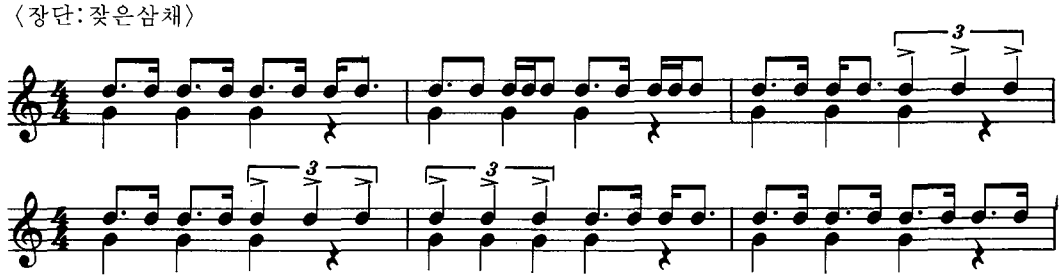
〈장단:길군악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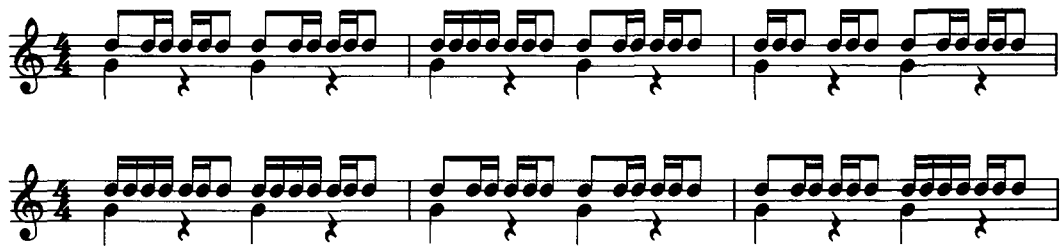
〈장단:늦은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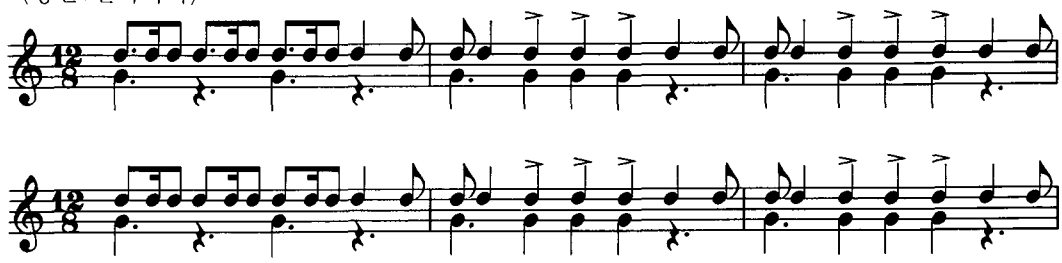
〈장단:잦은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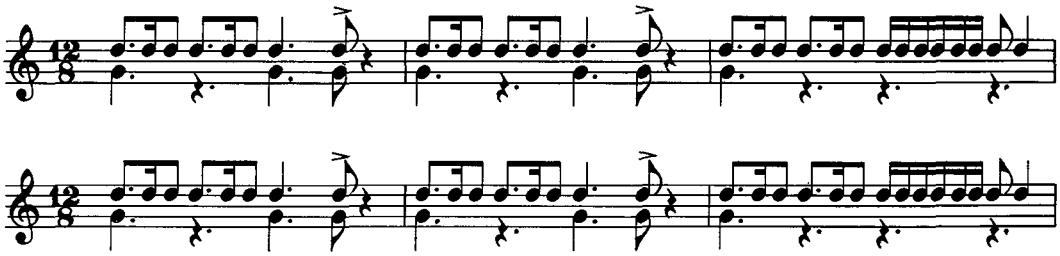
〈장단:자즌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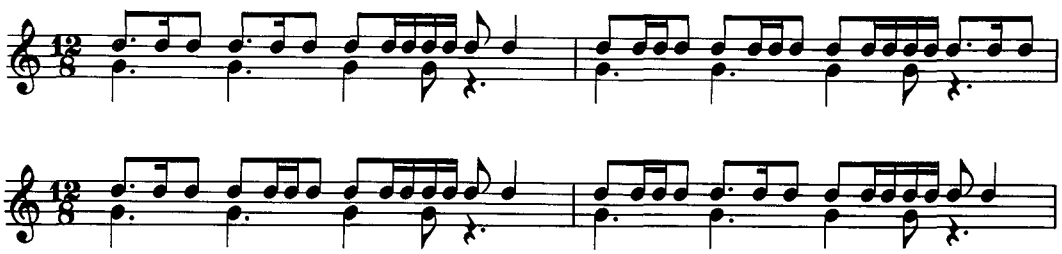
〈장단:긴쩍쩌기〉



〈장단:자즌쩍쩌기〉



〈장단:굿거리〉



※인원편성

配役	人員	服色
農旗	1	고깔,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上釗	1	부돈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副釗	1	〃
鉦	1	고깔,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鼓	1	〃
杖鼓	2	〃
小鼓	6	나비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廣大	2~3	일반적인 양반광대,남광대,영광대우 복색

※先祀德談

天地玄黃 造判後에
海東朝鮮 先祀로다
一大國이 建國되고
乾父坤母 分別하니
陰과陽의 調和로다
李氏漢陽 登極時에
鳳鶴에 鞦韆이 생겼구나
鶴을 눌러 大闕짓고
大闕앞에 六曹로다.
六曹앞에는 五營門이요
五營門 앞에는 三再山이라
仁旺山이 案山이요
南山이 主峯되니
東丘재는 靑龍이요
萬里재는 白虎로다
果川의 冠岳山 守口막아
千年의 都邑터니
南鮮을 府州잡아
海東은 大韓國인데
各道各邑 마련할때
京畿같은 京城內는
三十七官 마련하고
江原道와 全羅道는
二十六官을 마련하고
慶尙道로 돌아돌어
五十六官 마련하고
忠淸道로 접어들어
五十三官 마련할때
海東은 朝鮮國
京畿道라 廣州땅에
○○面 ○○里다
○氏家中 찾아들어
廣州같은 대목안인데
이宅面內 宅面內
이宅洞中 大洞中
上男子孫은 서방님
中男子孫은 도련님
下男子孫에 童子아기
차례대로 點指할때
있는 아기는 壽命長壽
없는아기는 點指發願
子孫昌盛 發願할때
나라에는 忠臣되고
父母에겐 孝子되고
兄弟間에 友愛있고
一家親戚 和睦하고
洞里地內 貴人되어
金枝玉葉으로 點指할때
十朔안에 出生하여
二年만에 起就하고
三年만에 言語깨고
五六勢에 入學시켜
文筆攻夫 시킬차에
天文學과 童蒙先習
순식간에 읽어낸후
四書三經 百家書에
小學大學 論語孟子
禮書春秋 講目이여
周易八封 壯子書를
無不通知 배운후에
立身揚名 하라하고
社會에 進出하니
進士에다 翰林學士
參議卷判 都承旨에
六曹判書 다지내고
左右政丞 지낸後에
一人之下 萬人之上
領議政에 올랐으니
靑史에 그 이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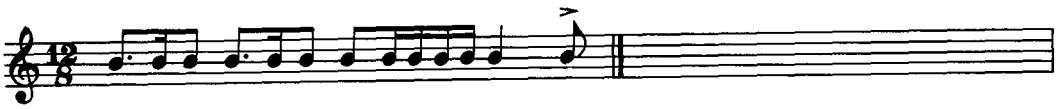
千秋萬歲 遺傳하고
거리거리 頌德碑요
마을마다 善政碑니
근들아니 좋을소냐
글란그리도 하려니와
이宅 家中前에
乾高坤名 ○○生

○氏 ○氏大主

昨年같은 險한 歲月
꿈결같이도 보내시고
今年 새해에 접어들어
몸주大烈 세라하니
몸주大煞 풀고가자
父母類別에 蒙喪煞
蒙喪벗어 脫喪煞
解喪벗어 脫喪煞
內外之間 空房煞
父子之間 不傳煞
洞里마다 不淨煞
婚姻葬死에 酒黨煞
山에 올라 山神煞
고개마루 城隍煞
들로내려 野祭煞
물에들어 海神煞
안마당에 戲弄煞
부엌에는 竈王煞
뒷켠에는 坐主煞
마루대청 城造煞
안방에는 帝釋煞
대청건너 三神煞
변소간에 則神煞
마굿간에 牛馬煞
추녀끝에 落水煞
距里路中에 落傷煞
왼갖厄煞이 끼었구나
왼각厄煞 풀어낼때
東方에 드는 甲乙厄煞
靑帝將軍이 풀어주고
南方에 드는 庚辛厄煞
亦帝將軍이 풀어주고
西方에 드는 內丁厄煞
白帝將軍이 풀어주고
中央에 솟는 戊己厄煞
黃帝將軍이 풀어낼때
이宅家中 大主님과
上男子孫 中男子孫
下男子孫 童子아기
줄줄이도 걸렸으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三災八亂 걱정근심
今日 이 精誠으로 막아내고
日月이라 帝釋님께
命과 福을 發願하자
글란 그리도 하거니와
今年같은 太歲年에
이집안의 家勢보니
天福地福은 굽어 들고
구름福은 쌓여들고
안개福은 스며들고
물길福은 흘러들고
바람福은 불어들고
쪽제비業은 뛰어들고
童子業은 걸어들고
도아지業은 몰려들고
부엉이業은 날아들고
구렁이業은 기어들고
구름같이 쌓여들고
안개같이 스며들어
千석巨富로 點指할때
날이면 날마다 財數所望하고
南田北畓을 장만할때
높은곳은 논을풀고
낮은곳은 메워놓아
앞뜰에는 千석지기
뒷뜰에는 萬석지기
물길좋아 고래실이며
千水바라기 奉天지기
샘치배미 장구배미
乾畓水畓 갈라놓고
農事한철을 짓고보자
알록달록 까투리찰
혼자먹이 돼지찰
욕심많아 놀부찰
나눠먹은 흥부찰
驪州利川에 자채벼요
金堤萬境에 사발변데
廣州分院에 양품벼는
수라상에 올리고
감실감실 다마금
색깔좋은 은방도
채문좋은 금벼에다
실기로운 조실역
조촘거린 안질병이
먼저먹자 六月稻
豐年들었다 豐玉이며
둘셋모르는 하나벼에
마당구석에는 쓰레기벼
이벼저벼 다버리고
改良種의 씨를 골라
千석지기로 심어놓고
萬석지기로 자라날때
四海龍王이 물을주고
五岳山神 모를매어
兩順周圍 고루고루
寒災水災 風災蟲災
일호라도 거침없이
무르익어 大豊드니
근들아니 좋을소냐
밭농사도 지어보자
南山下에 장찬밭은
牛耕百苗 갈아놓고

五穀雜穀 씨뿌리자
苦草唐草 南方草며
참깨들깨 심어놓고
봄보리에 가을보리
육모보리도 심어놓고
모밀기장 옥수수에
감자땅콩 심었더니
그게 점점 잘자라서
大豊年이 들었구나
콩농사도 지어보자
어떤콩을 심었더냐
검고도 푸른 푸르대콩
방정맞아 주더니콩
올콩졸콩 질금콩에
獨守空房에 홀애비콩
二人靑春인 각씨동부
외톨백이는 홀어미콩
두톨백이는 兩主大妻
세톨백이는 三兄弟콩
봄팥가을팥 亦豆를
골골마다 심었더니
그도 또한 大豊일세
가을秋收를 하여보자
장팔이 같은 종놈들은
깔딱낫을 싹갈아서
지게에다 내달아서
이리로 걸어 저리를 베고
저리로 걸어 이리로 베어
지게에다 저들이고
앵무같은 종년들은
또아리 받쳐 져들일때
어느歲月에 秋收하나
마굿간에 牛馬들아
양태바리로 져들여라
바리바리 실어들여
앞뜰에는 千석露積
뒷뜰에는 萬석露積
앞노적은 大主露積
뒷노적은 地主露積
前後左右로 쌓아놓으니
난데없는 豊年鳥가
두날개를 훨훨치며
露積위에 올라앉아
한날개를 툭탁치니
一二千석이 불어나니
올해같은 大豊年에
豊年歌로 즐기시니
근들아니 좋을쏘냐
글란 그리도 하거니와
이宅 家中前에
달거리가 세다하니
달거리를 풀고가자
正月에 드는 厄은
二月 영등 祭에
정화수로 막아주고
二月에 드는 厄은
三月이라 삼짇날에
江南 제비 돌아올때
제비 맥이로 막아주고
三月에 드는 厄은
四月이라 初八日에
釋迦如來 탄생하니
寺刹마다 燈밝히고
마을마다 觀燈이니
그 불을 빌려다가
一年厄을 막아주고
四月에 드는 厄은
五月이라 端午日에
鞦韆戱를 즐길적에
非天非地 虛空中에
제비날듯 하는구나
하늘에서 仙女들이
下降하는것 같음이니
그 그네줄로 막아주고
五月에 드는 厄은
六月이라 流頭日에
東流水로 沐浴하고
菖蒲물에 머리감고
밀전병으로 즐길때에
그 떡으로 막아주고
六月에 드는 厄은
七月이라 七夕날에
銀河水를 서로건너
萬端話話 하겠다고
牽牛織女 上峯時에
烏鵲橋는 어이하여
漢水로만 감도는가
烏鵲橋 다리놓던
까막까치 머리로 막아주고
七月에 드는 厄은
八月이라 秋夕日에
반달송편 곱게빚어
이웃집에 나눠주던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八月에 드는 厄은
九月이라 重九節에
菊花酒를 정히담궈
祠堂茶禮 하신後에
그 잔으로 막아주고
九月에 드는 厄은
十月이라 상달인데
좋은날을 가려내어
무시루떡 하여놓고
財數所望 願일러라
그 떡으로 막아주고
十月에 드는 厄은
冬至月 冬至日에
붉은팥죽 끓여내어
오는雜鬼 가는雜鬼
이죽먹고 물러가라
大門이며 中門이며

장독이며 뒷뜰이며
골고루 뿌렸으니
뜨거워서 못살겠다
雜鬼雜神 도망치니
그 팥죽으로 막아주고
冬至에 드는 厄은
섣달이라 그믐날에
가래떡을 길게 뽑아
도마질을 하실때에
그 떡가래로 막아주고
섣달에 드는 厄은
내년正月 열나흗날
五穀밥을 정히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白紙 한장에 둘둘말아
막걸리 한잔 척끼얹어
怨江에 消滅하니
百事가 如一하고
萬事는 大吉이라
마음가짐 잡순대로
所願成就 祭願이요
〈장단:先祀唱 사잇가락〉



5. 줄다리기

● 槪 要

"索戰"이라고 부르는 이 줄다리기는 團體競技를 이름이다. 索이란 새끼꼴을 意味하는 것으로 짚으로 꼬아 만든 것을 말한다. 索戰이란 이 새끼꼴로 勝負를 결정짓는 힘겨룸의 놀이이며, 그 內面의 世界에 豊農과 招福逐厄의 念願이 깃든 所願性民俗이다.

줄다리기는 암줄과 숫줄로 나누어 놓고 서로 境界를 정해 양줄을 結合시키며 各自 自身들이 속한 쪽으로 끌어당겨 많이 당긴쪽이 이기는 것이다.

韓國에서 演戲되던 各種 民俗놀이 중에서도 가장 盛大하고 가장 많은 人員이 參席하여 한바탕 어우러져 興겨운 놀이마당을 펼쳤던 것은 이 줄다리기가 첫째로 꼽히며 全國을 通해서 가장 活潑하게 演戲가 되었던 民俗이다.

이 줄다리기는 넓은 空地가 있는 곳이면 들이나 江邊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손쉽게 接할 수 있었으며 山間이나 島嶼地域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줄은 짚으로 꼬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農耕社會이므로 짚이 흔하기 때문이고

〈註〉 上記의 告祀德談의 辭設은 男巫, 朴錫虎(앉은거리 巫격, 72歲 東部邑 新長里)의 口講을 採錄한 것으로(採錄日字 1986年 5月 8日) 一般的인 先祀德談보다는 專門性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地神밟기나 거북놀이等의 城主굿에서 나타나는 先祀德談은 흔히 巫歌의 先祀德談을 引用하는 수가 많은데 上記의 先祀德談은 巫經의 先祀德談은 아니다. 이 先祀唱을 부를때는 頌終者가 꽹과리로 사잇가락을 치면서 한다.

또 內的인 思想이 지니고 있는 巫俗的 發祥인 豊農과 마을의 安寧때문이다

이 줄다리기는 똑같이 줄을 당긴다 하더라도 地域마다 구별되는 特徵을 갖고 있으며 놀이의 方法 줄의 制作 人員編成이 각각 特徵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줄을 당기는 巫俗的 思考도 地域的 特徵을 갖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줄다리기가 그 廣意의 意味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共通的인 뜻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줄을 당기므로 해서 一年의 農事에 豐年을 祈願한다.

둘째, 서로 協力하여 줄을 당기므로 해서 大同團結의 힘을 기른다.

셋째, 洞里의 防厄과 安寧을 祈願한다 等의 內容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全域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줄다리기는 巫俗的 思考가 強한 祈願性民俗으로써 大衆娛樂이며 地域의 祝祭로써 集團民俗이었다.

이 줄다리기가 지니고 있는 巫俗性은 地域別로 서로 特異하게 나타나고 있다.

○城南市 판교－女子쪽이 이기면 三年間豐年이 들고 마을 全體가 平安하게 살아간다.

○安養市－勝者는 줄을 利用해 共同으로 洑을 막기 때문에 豐年이 든다

○驪州 흔암리－강물이 풀려 厄送祺를 꽂은 줄이 떠내려 가면 모든 재앙과 액운이 함께 消滅된다.

○龍仁 二東－줄을 당기지 않으면 마을에 不祥事가 일고 靑年이 죽어 간다.

等으로 近接地域에서도 서로 그 당기는 뜻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로 集約하면 豊農과 마을의 安寧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줄을 당길때는 암줄은 婦女子가 당기고 숫줄은 男子들이 당기게 되는데 女子쪽이 이겨야 豐年이 든다고 믿는 것은 女子들이 生產의 能力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줄을 당기고 난 後에는 그 처리方法도 地域에 따라 서로 달라서 줄을 토막내어 門 앞에 걸어 防厄을 하거나 지붕위에 얹기도 하고 洞里의 入口에 길게 늘여 놓거나 長丞等에 걸쳐놓아 洞里 全體의 厄은 막는 곳도 있고 논에다 갖다 놓아 퇴비를 使用하거나 洑을 막는데 쓰기도 하고 또는 얼어붙은 강물위에 厄送旗를 꽂아서 갖다 놓아 강물이 녹아 떠내려 가게 하는 곳도 있다. 또 水原市는 古索洞이나 龍仁郡의 一部 地域에서는 몇백년동안 줄을 保管하고 있다가 陰曆 正月이 되어 당길때가 되면 보수를 하여 使用하기도 하고 忠南 唐津의 機 布里에서는 이 줄을 토막내어 솥에다 삶아서 그 물을 먹으면 신경통이 낫고 得男을 한다고 하여 呪術的인 面도 띠우고 있다.

이 줄다리기으 始原은 確實치 않으며 中國의 文獻이나 日本 等地에도 이 줄다리가 있으며 東南亞를 비롯하여 世界的으로 分布해 있는데 韓國의 줄다리기처럼 內面的 思考는 없으며 多樣하지도 못하다. 東國歲時記에는 "忠淸道 風俗에 炬點이라고 하는 횃불싸움이 있다.

또 줄을 당겨 끌려가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豐年을 차지한다"고 했으며 僧侶들도 이 놀이를 즐겼다고 하여 이 줄다리기는 階層에 關係없이 모든 사람이 즐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 民族은 옛부터 이 짚으로 꼬아 만든 줄에 대해 強한 呪術的 性格을 부여하고 있으며 各種 場所에 이 줄을 使用하고 있는데 解散을 한집의 大門에 이 줄을 꼬아서 느려 雜人의 出入을 禁止시키고 不淨을 防止했으며 各種 祭儀式이 擧行되는 祭場이나 周圍, 祭官의 집 門前이나 샘 等에 느려뜨려 雜人 雜鬼로부터 保護했고, 장독에도 왼새끼를 꼬아 둘러서 장맛이 좋게 한다던지 소에게 왼새끼를 꼬아서 목에다 두르면 여름을 잘 넘긴다고 하는 등 巫俗的

思考를 볼 수 있다. 줄의 大小의 差異와 設定의 差異는 있지만 같은 脈洛에서 緣由한다고 보아야 하며 農耕社會인 우리民族에게는 이 짚으로 꼬아 만든 줄이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그만큼 大衆化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줄다리기에서 使用하는 줄은 우리나라에서 使用하는 모든 줄 가운데서 가장 代表的인 것이다. 줄다리기는 全國的으로 盛行했는데, 京畿道 利川·龍仁·驪州·水原··廣州와 忠淸道 中原·牙山·唐津·江原道의 太白·慶尙道의 密陽 等에서 巨大한 줄다리기가 盛行하였고 그 밖의 地域에서도 거의 모든 곳에서 正初가 되면 이 줄을 당겨 一年의 豊農과 마을의 安寧을 祈願했다.

이 줄다리기에서 使用하는 줄은 地域에 따라 그 制作方法이나 크기가 서로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줄은 대개 四種으로 가운데를 뭉쳐 놓고 거기서 발을 뽑아 목에 걸거나 허리에 갈고 당기는 게줄과 山間이나 島嶼地方에서 使用되는 왼줄, 그리고 암,숫줄로 구분되는 쌍줄이 있으며 이 쌍줄은 한편의 길이가 50~60m에서 크게는 80~10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地域에 따라서는 이 줄다리기를 正初에 아기줄다리기라 하여 어린 少年들이 모여서 외줄을 당기고 그 줄이 洞里보다 합쳐지고 굵어져서 靑年들이 당기며 그 줄을 한데 모아서 보름날 저녁에 쌍줄로 만들어 당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줄다리기는 朝鮮朝 末期서부터 차츰 衰退하기 始作하여 1920年代에 日帝의 文化抹殺政策때 짚으로 가마니를 짜게하자 줄을 制作할 짚이 없어 모든 地域에서 거의 斷絶되자 싶이 했던 것을 1960年代부터 各 地域에서 再現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당겨지는 줄의 形態는 다음과 같다.

●廣州의 줄다리기

板橋에서는 正月이 되면 住民들이 모여서 짚을 모아 길이 50~60m가 되는 巨大한 줄을 꼬며, 正月 대보름이 되면 주위의 여러 部落의 住民들이 모여서 줄을 당겼는데 이 줄은 앞줄은 婦女子들이 숫줄은 男子들이 매달려 서로 힘을 다해 당겼으며 女子들 쪽이 이겨야 豐年이 들고 三年동안 洞里가 安寧하다고 하여 늘 婦女子쪽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당겼다. 이 板橋의 줄다리기는 예전 〈廣州 널다리 줄다리기〉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큰 줄에 해당하여 여러 곳에 紹介가 되었으나 지금은 城南市로 編入되어 버렸다.

廣州에서는 옛부터 고을마다 작고 큰 줄다리기가 正月을 맞이하여 部落의 祝祭로 演戱가 되곤 했으며 이 줄은 廣州邑·東部邑·草月面·五浦面 等地에서 큰 줄이 당겨지곤 했다. 곤지암에서는 50~60年 前만 하여도 近接한 10여개 部落에서 風物隊와 장정들을 請해와 줄다리기를 했으나 지금은 흔적조차 없고 部內에서는 過去와 같은 巫俗性을 띠운 줄다리기는 없으며 다만 部落 住民들의 團合이나 團體的인 競技를 위한 동아줄로 만든 줄이 당겨지고 있을 뿐이다.

※演戱方法

1)줄의 制作

줄이 당겨지기 2~3日 前부터 洞里에서는 집집마다 다니며 짚을 모아들여 짚으로 줄을 制作한다. 이를 東,西部로 나누어 각각 保管하고 지키고 있는다

줄의 周圍에는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밤을 새우게 되는데 이때 줄을 지키는 理由는 女子가 줄을 넘으면 不淨이 탄다고 하며, 줄에 바늘을 꽂던가 칼로 줄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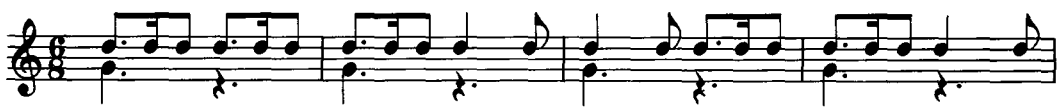
2) 先 祀

줄을 당기는 날이되면 東,西部의 各 部落에서는 줄의 龍頭 部分에 간단한 酒果포를 陳設한 先祀床을 준비하고 마을의 代表者가 나와서 三杯를 드린 後에 줄다리기에서 不祥事가 일지 않은 것과 줄을 당기고 난 後에 洞里의 安寧과 豊作을 祈願한다.

3) 길놀이

先祀가 끝나고 나면 줄을 당기는 力士들이 줄을 어깨에 메고 農樂의 뒤를 따라서 줄이 당겨질 場所를 向해 길놀이를 하는데 이때는 고함을 지르며 士氣를 돋우고 各패가 흥겨웁게 춤을 추면서 길을 간다. 어떤 民俗놀이나 그러하듯 이 길놀이는 特別한 形式이 없이 단지 興에 겨운데로 各者가 춤을 추는 形態이다.

〈장단:길군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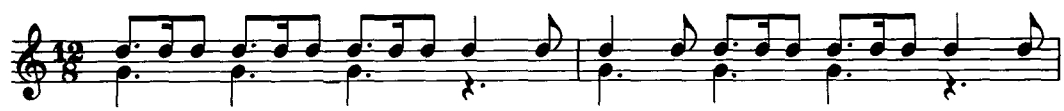


4) 마당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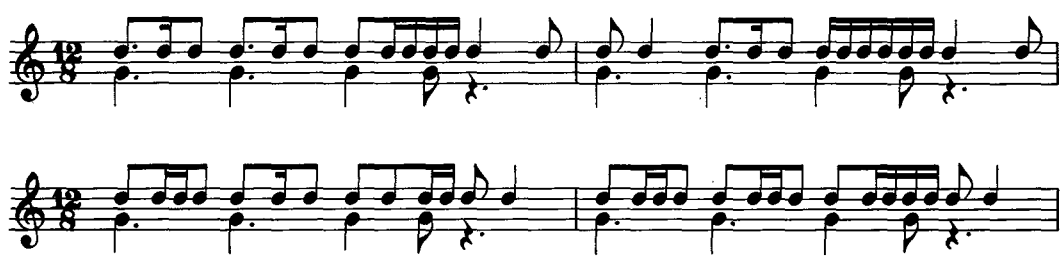
정해진 場所에 兩 部落의 演戱隊 一行이 當到하면 줄을 龍頭를 마주대어 늘여놓고 모든 사람들이 近接部落에서 參席한 風物과 함께 마당놀이를 펼친다.

이때는 서로가 自身들의 技倆을 最大한 發揮하여 相對의 氣를 제압하게 된다. 삼채, 굿거리, 쩍쩌기 등의 장단에 맞추어 각자 技倆을 뽑내게 되며 過去에는 이 마당놀이가 지나치게 길어서 꼬박 하루동안 즐기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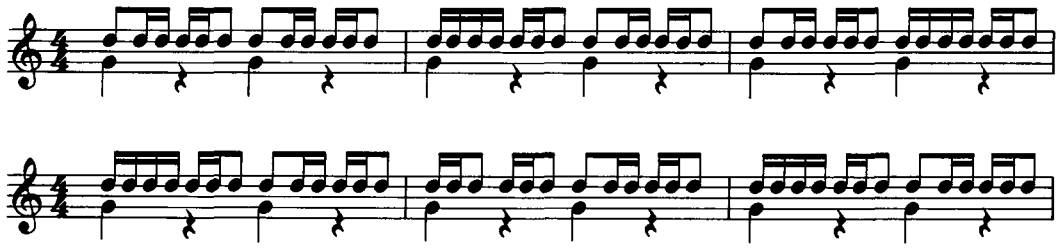
〈장단: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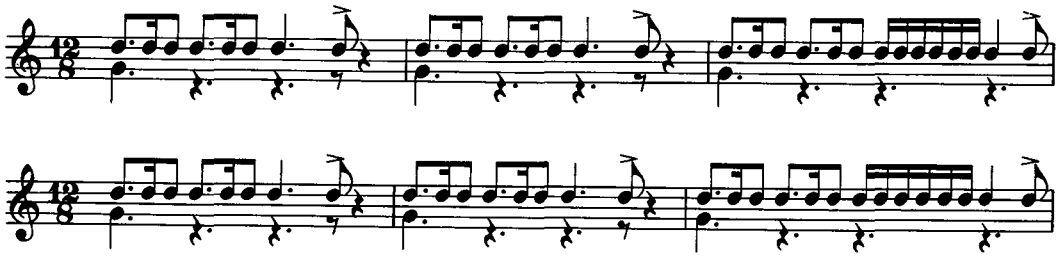
〈장단:굿거리〉



〈장단:잦은가락〉



〈장단:마당일채 쩍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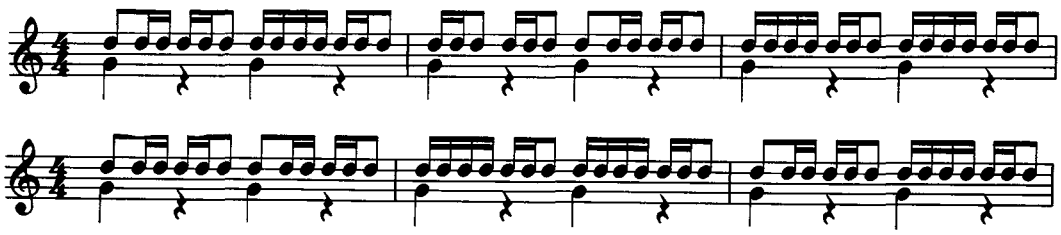
5) 龍의 結合

마당놀이가 끝나게 되면 兩 部落의 力士들이 서로 줄에 매달려 줄을 앞으로 마주 닿게 하고 줄을 結合시키는데 이때 암줄은 숫줄을 받지 않으려고 뒤로 빼고 숫줄은 암줄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벌리게 되며 兩 部落의 住民들은 함성을 지르고 분위기를 高潮시킨다. 한참 실랑이를 한 후에 숫줄의 龍頭가 암줄의 龍頭 속으로 들어가면 줄이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비녀를 끼운다.

6) 줄다리기

줄이 끼워지면 力士들이 양 줄에 매달려 준비하고 있다가 신호에 의해서 서로 힘을 주어 당기게 되며 이 줄의 당겨지기 시작하면 四物은 잦은 가락을 쳐서 力士들의 힘을 돋우고 모든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한다. 줄을 당기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게 되나 祝祭를 위한 演戲일때는 세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장단:잦은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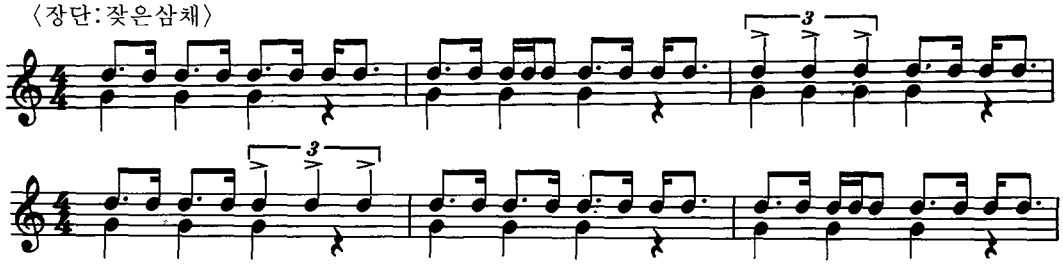


7) 뒷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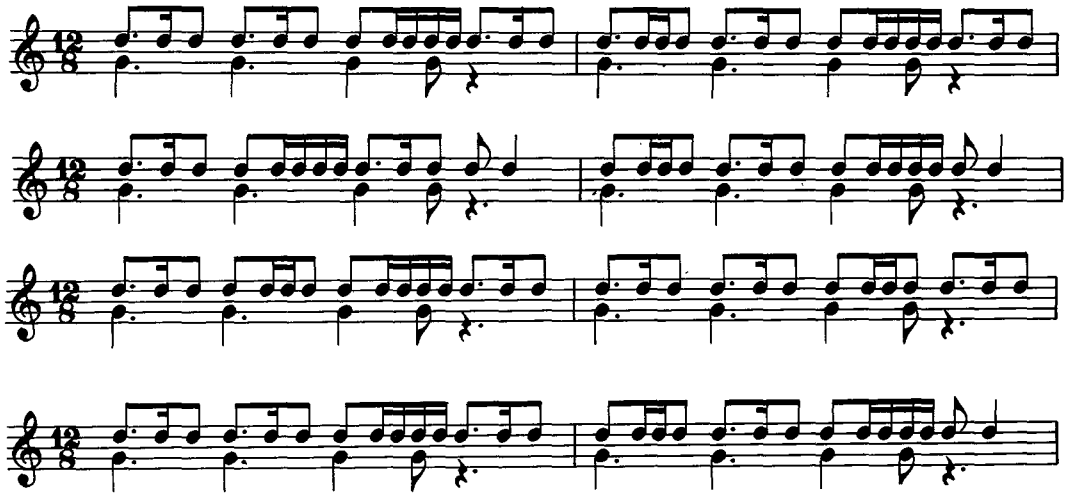
줄이 당겨져서 승부가 결정되면 이긴 部落에서는 줄을 던져 올려 환호하고 진 部落에서는

줄을 땅에 내려놓고 이긴 部落에게 축하를 보내며 서로 줄을 내려 놓고(때에 따라서는 줄을 메고) 四物의 가락에 맞추어 한바탕 흥겨운 뒷풀이를 펼친다. 이 뒷풀이 때는 굿거리와 잦은 삼채를 친다.

〈장단:잦은삼채〉



〈장단:굿거리〉



※人員編成

配役	人員	服色
農旗	1	고깔,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部落旗	1	〃 (部落旗는 東西部로 나뉘어 靑,紅色으로 구별한다)
令旗	2	戰粒,쾌자,바지저고리 (令旗는 靑,紅色旗로 區分한다)
手旗	多數	一般的인 服裝 (手旗는 靑,紅色旗로 區分한다)
上소	1	부모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副소	1	부모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終소	1	〃
鼓	2	고깔,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鉦	2	〃
杖鼓	2	〃

小 鼓	4－8	나비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무 산	5－8	중새미는 고깔에 가사장삼,여춤애는 치마저고리,남춤애는 바지저고리에 쾌자를 두르고 삼색띠를 두른다
廣 大	4－5	양반광대는 정자관에 도포,남광대는 등걸잠방이에 초립을 쓰고 개나리 봇짐을 등에 지며 여광대는 치마저고리에 삼색띠를 두른다
力 士 들	다수	머리띠,바지저고리,행전,짚신 (머리띠를 靑,紅色으로 區分해서 머리에 두른다)
주 민 들	다수	남자는 바지저고리,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줄의 뒤를 따르거나 上氣 돋운다.

※ 줄의 制作

줄을 제작하기 洞里의 家家戶戶를 다니며 짚을 거두어 들이는데 이 짚을 집집마다 거두는 理由는 한 집도 빠지지 않고 福을 받고 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짚이 모아지면 줄의 제작을 시작하며 줄을 꼬는 方法은 地域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廣州地方에서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줄을 꼰다.

1) 줄의 굵기가 2,5～3㎝될 정도로 길게 꼬는데 이때의 길이는 150m가 되게 꼰다.

2) 1의 줄을 3가닥을 합하여 다시 꼬아 나가면 줄의 굵기는 7～8㎝가 된다.

3) 2의 줄을 가로대에 넘겨서 잡아 당기며 탄탄하게 꼬아 나가는데 이때는 3가닥을 합하여 꼬아 나간다. 이 줄은 굵기가 20～24㎝가 된다.

4)3의 줄을 합하여 반으로 접어 龍頭를 튼다. 이때 암줄을 머리가 넓게 하고 숫줄은 좁고 위로 치켜 올라가게 하여 암줄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짚과 칡으로 꼬아 만든 굵기 5㎝의 줄로 龍頭를 나간다.

5)龍頭를 틀고 나면 便長이 올라탈 龍項(용의 목)을 만드는데 조임대를 使用해서 조이며 감아 나가는데 용의 목부분의 길이는 1,5～2m정도가 되게 한다.

6)줄의 완성되면 그 곳에 길이 10여m정도의 곁줄을 매게 되며 곁줄의 굵기는 5㎝ 정도가 되게 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칡의 굵기를 합하여 꼬며 그 곳에 力士들이 매달려 줄을 당긴다.

6. 踏橋놀이

● 槪 要

踏橋놀이란 다리밟기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形態의 다리이든 간에－그것이 木造橋이든지

(註) 上記의 編成表는 한편의 人員이므로 實質的인 人員은 上記表의 2배가 되는 것이며 이 人員編成은 어느 民俗이나 그러하듯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줄의 크기나 部落의 大小에 따라서 變化하는 것이며 農樂도 때에 따라서는 近接해 있는 部落을 請願하기도 한다. 過去 廣州郡 실촌면 곤지암에서는 큰 줄을 당길때는 여러 部落의 農樂隊가 각각 農旗를 선두에 세웠기 때문에 農旗만 하여도 10여개가 되었다고 한다.

石造橋이든지－築造된 다리를 밟음으로써 그 해의 모든 厄을 막을 수 있다는 巫俗的 思考에서 由來한 祈願性民俗이다.

또한 이 踏橋놀이는 다리를 밟는다는 것으로 볼 때 다리(脚)로써 다리(橋)를 밟는 것으로 人體 中에서 가장 貴하다고 하는 다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呪術的 思考도 곁들여져 있다. 年初에 다리밟기를 즐겨서 一年間의 厄을 防止함과 아울러 겨우내 활동을 하지 못해서 오는 운동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正月 대보름의 달빛 아래서 마음껏 거닐어 움추렸던 身體의 기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리밟기는 密閉된 社會인 朝鮮朝에서도 이 날만은 婦女子들의 門밖 出入을 허용했으며 더욱 뭇 男子들 틈에 끼여 함께 다리를 밟게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意味를 지니는 民俗遊戲였음을 알 수 있다. 金昌業은 그의 老稼齊集에 踏橋놀이를 보고 詩를 적었는데.

長安何暄喧 今夜踏橋遊
月出大道上 歌吹自相求
장안이 왠지 소란스럽다 했더니
오늘밤 답교놀이를 하는구나
큰 길위로 달이 떠오르니
노래소리 부른소리 저절로 흥겹구나

라고 하여 踏橋놀이의 흥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다리밟기의 由來에 관해서는 어느 民俗이나 그러하듯 確實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李睟光의 〈芝峰類說〉에는 "보름날 밤 踏橋의 놀이는 前朝(高麗)에서부터 시작했다"고 記錄하여서 이 踏橋놀이가 高麗때부터 盛行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中國의 文獻에 記錄된 것을 간추려 보면 雍洛이 지은 〈靈異錄〉에는 "唐나라에서 正月 보름날 밤을 中心으로 한 戰後 三日을 저녁에 夜行하도록 했더니 男女들이 놀러다니는 車馬가 길을 메웠다."고 하여 이 踏橋놀이가 이미 唐朝에서부터 傳來했음을 적고 있으며 陵啓泥이 쓴 〈北京歲萃記〉에는 "正月 보름날 밤에 婦女子들이 모두 나와서 거닐었다"고 적어 中國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男女老少가 모두 나와서 踏橋놀이를 한 것으로 記錄되고 있다. 于燮正은 그의 著書 〈帝京景物略〉에서 "正月 보름날 밤에 婦女子들이 서로 이끌고 나와 거닐므로써 질병을 없애는 것을 走白病이라고 한다"고 적었는데 走白病이란 모든 病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이 踏橋놀이도 健康을 追求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傳來하는 것과 同一한 思考를 지녔다. 沈楴의 〈宛書雜記〉에는 "16日 밤에 婦女子들이 떼를 지어 노는데 대개가 다리가 있는 곳에서 놀았다.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 위를 거니는데 이것을 度厄이라고 한다."고 하여 이들도 이 踏橋놀이가 一年間의 厄을 막는 方法으로 演戲되었음을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風俗인 踏橋놀이의 연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記錄은 柳得恭의 〈京都雜誌〉와 金邁淳의 〈洌陽歲時記〉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正月 대보름의 踏橋놀이는 달맞이로부터 始作하여 밤새도록 노닐었는데 거개의 民俗이 民衆들이 즐겼던 것에 비해 이 踏橋놀이만은 士大夫로부터 庶民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였다. 서울에서는 庶民들을 피하려는 兩班들이 正月 대보름의 하루 전인 이날 踏橋놀이를 하여서 이를 兩班踏橋라 한다고 하였는데 一年의 安寧과 健康에 대한 追求는 上下의 區別이 없이 모두에게 貴한 것이었으며 健康과 無病 招福逐邪의 바램을 人間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朝鮮朝 特히 太宗 以後에는 이 踏橋놀이가 四月 初八日의 觀燈놀이보다도 더 盛行했다고 하며 서울의 수표교가 가장 인파가 붐볐고 노량진, 살곶이다리, 마포, 아현, 장안리, 몽론, 돌말(石村) 이천, 여주, 광주, 양평, 용인, 충주, 등지에서 演戲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朝鮮朝에 들어서 한창 盛行했을 때는 男女老少, 常班의 區別이 없이 즐겼던 이 踏橋놀이는 서울에서 男子만이 하였으며 女子들에게는 中止되었는데 그 理由는 李수光의 〈芝峰類說〉에 의하면 "太平時에는 踏橋놀이가 매우 盛行하여 男女들이 줄을 이어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法官들이 婦女子들의 놀이를 禁止시켰다. 以後의 風俗에는 다시는 다리를 밟는 일이 없다"고 하여 1580年代의 상황을 일러 주고 있다.

이 踏橋놀이는 고장마다 다리를 건너는 方法의 差異가 있어 어느 곳에서는 十二回를 往復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가거나 오는 것을 一回로 쳐서 六回를 往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은 一回가 一個月에 해당해 12번이 1년을 뜻하는 것이다. 또 어느 地域에서는 제 나이만큼 건너 나이가 홀수일 때는 다리 밑으로 돌아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 나이만큼 건너도록 횃불을 만들어 들고 다녀 그 불이 다 건너도록 꺼지지 않으면 一年이 安過泰平하다고 믿기도 했다.

이와같은 面으로 볼때 이 踏橋놀이는 그냥 다리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祭天儀式에서 나타나는 形態와 同一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祭儀式에서의 飮酒歌舞의 形態가 傳해지면서 變化한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巫俗的性格을 強하게 띤 祈願性民俗으로 娛樂的인 面이 複合된 情趣있는 民俗遊戲였다.

이 놀이는 거의 100여년 傳에 中斷되었으며 몽촌, 石村, 等에서도 中斷된 지가 70여년이 지나 거의 잊혀져 버렸다. 이런 狀態에서 1980年代 中期에 송파산대놀이 技能保有者에 의해서 京畿道 驪州에서 再現되었다. 그러나 驪州의 경우에는 고장에서 演戲되던 形態가 아닌 전혀 無關한 踏橋놀이를 演戲라고 있어 再現이라기보다는 새롭게 創作한 것으로 地方 傳統藝術을 歪曲紹介하는 代表的인 예인데, 이는 고장의 傳統民俗文化를 그릇치고 있는 것이다.

● 廣州의 踏橋놀이

李수光의 〈芝峰類說〉에 보면 "京畿道 廣州에서는 역시 보름날 새옷을 갈아 입고 인근의 다리를 건너 돌아온다. 婦女들은 飮食을 냇물에 던져 福을 빌기도 하고 男子들은 舞童을 서고 農樂을 앞세우고 다리위나 근처에서 술자를 베풀어 즐겁게 지낸다"고 하였다

이렇듯 옛 廣州에서는 몽촌, 돌말, 경안 등에서 正月 보름날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風物을 앞세우고 노래하고 춤추며 踏橋놀이를 즐겼는데 現在는 자취조차 없고 더욱 송파, 석촌등이 서울로 편입되어 廣州는 많은 無形의 文化遺產을 잃은 곳이 되었다.

廣州는 全國에서도 가장 뒤늦게까지 이 踏橋놀이가 盛行했던 곳이며 慶安川의 다리위에서는 正月 보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달빛을 받으며 다리위를 거닐었다고 한다. 인근의 부락마다 正月 대보름이 되면 洞里에서 달맞이를 하고 달집을 태우고 난 뒤에 風物을

앞세우고 이 곳에 모여 밤이 이슥해지도록 踏橋놀이를 하였다고 하나 70여년 前부터 衰退하고 中斷되어 現在는 그 자취조차 없으며 記憶하는 이 조차 없다.

※演戱方法

원래 이 踏橋놀이는 다른 民俗과는 달리 어떠한 順次的인 進行方法에 의해서 演戱가 되는 것이 아니고 正月 보름의 밤이 되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다리위를 거닐거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詩를 읊고 하는 個人的인 民俗遊戱였으나 인근의 部落에서는 農樂을 치고 나오는 舞童을 세워 技倆을 뽑내고는 했던 놀이이다.

거개의 民俗이 共同體的인 놀이였고 大同團結을 그 주된 目的으로 삼았다면 이 踏橋놀이는 個人的인 놀이였으나 같은 場所에서 서로 낯 모르는 사람이라도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함께 즐기는 우리네의 民族性을 가장 함축성 있게 表現하는 情趣있는 民俗遊戱였다.

이러한 踏橋놀이를 알기 위해 最近에 再現된 송파 踏橋놀이의 進行方法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달맞이와 횃불놀이

踏橋놀이의 演戱隊 一行은 正月 보름날 달이 떠오르면 달맞이를 한다. 횃불을 든 一行은 달이 떠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달이 떠 오르면 "滿月이요"하고 외치며 달을 向해 큰 절을 하고 祈願을 빈다.

2) 踏橋놀이

달맞이와 횃불놀이가 끝나면 놀이패 一行은 風物잡이들을 앞세우고 令旗 執事, 別監, 舞童, 권라쟁이, 등롱, 上佐가 뒤를 따르고 그 뒤에 10여명의 선소리꾼이 뒤를 따르면 踏橋놀이를 하는 도중에 一行은 圓舞, 列舞, 個人舞, 行進舞을 한다.

3) 선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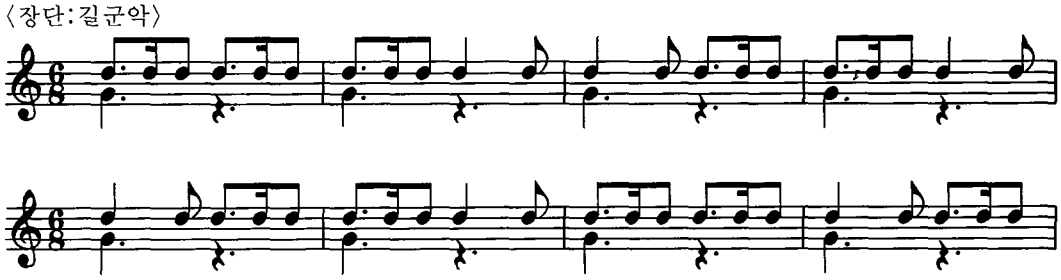
踏橋놀이가 한창 進行될 때 선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 방아타령을 부르면 一行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춘다.

4) 뒷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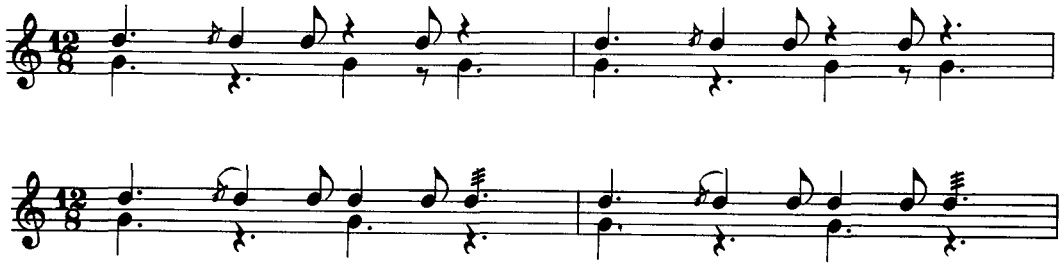
踏橋를 마친 演戱隊 一行은 보름날의 달빛 아래서 마음껏 즐기는 뒷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 뒷풀이는 踏橋를 하므로 해서 一年의 厄을 막고 健康을 이룬다는 데서 오는 安堵感으로 興이 절정에 올라 風物과 선소리(立唱)꾼의 노래에 맞추어 마음껏 즐긴다. 이때는 굿거리, 잦은삼채장단을 친다.

※踏橋놀이의 音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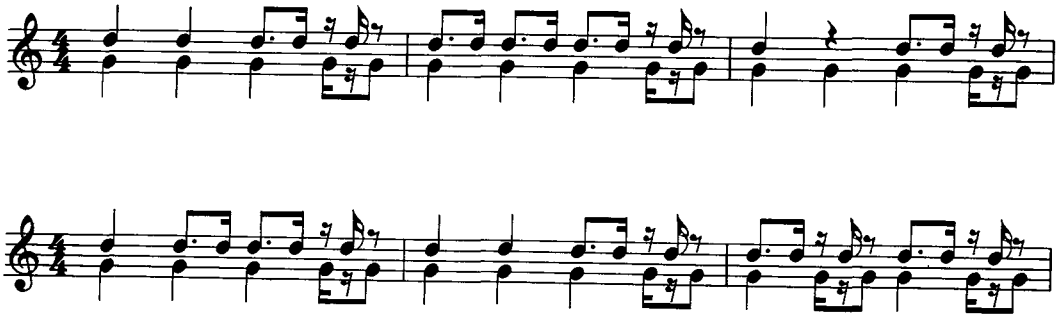
〈장단:길군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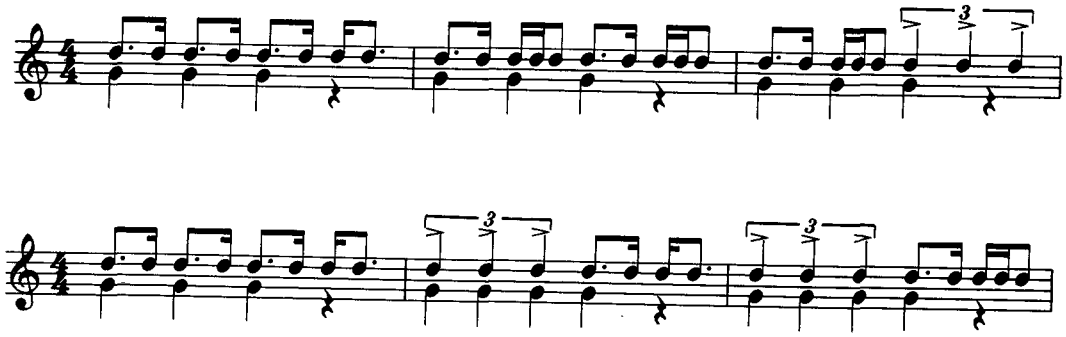
〈장단: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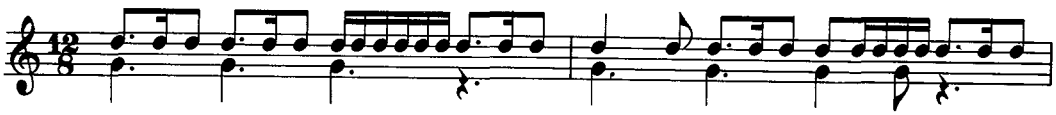
〈장단:잦은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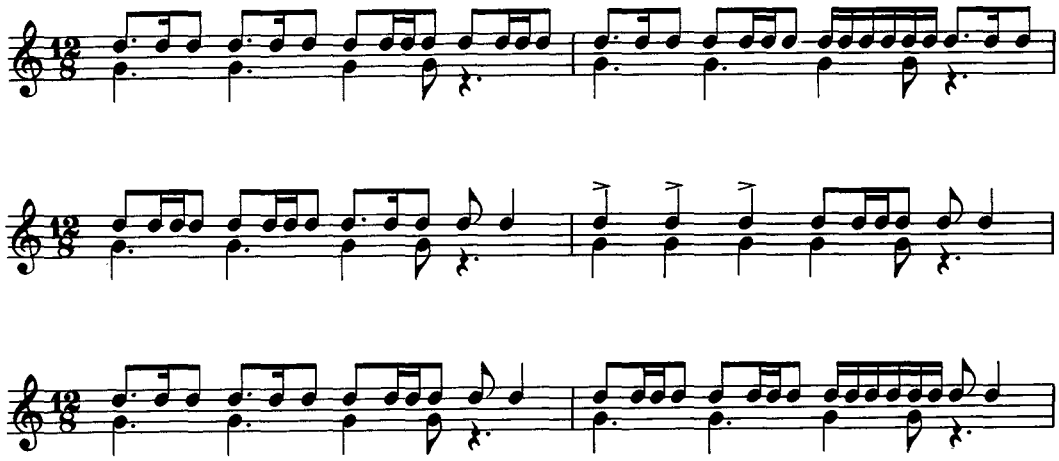


〈장단:잦은삼채〉



〈장단:굿거리〉





7. 農旗싸움

●槪 要

年初가 되면 各 部落에서는 農旗를 앞세우고 農樂隊가 風物을 치며 여러 形態의 民俗놀이를 主導하는 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地神밟기나 乞粒은 물론 줄다리기, 장치기 等 크고 작은 形態의 民俗이나 놀이판에는 이 農樂이 빠지면 演戱 그 自體가 아무 뜻도 없을 정도이다. 傳承民俗藝術 自體가 "굿"에서 緣由한 것이며 이 굿은 農作에 關한 것으로 農樂이 바로 굿 農樂이기 때문이다. 이 農樂을 굿, 또는 매굿이라고 부른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農樂을 흔히 두레라고 부르고 있으며 農旗를 보고도 두레나 두레旗라고 부르고 있다. 두레란 農村에서 農作의 增進을 위해서 같은 년배의 構成員끼리 共同作業을 해서 서로 勞動力을 돕는 소규모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 두레 組織에는 農樂隊가 있고 農樂隊에는 반드시 農旗가 있어서 農樂을 보고 두레라 稱하는 경우가 많으나 農樂과 두레는 別個의 것으로써 農樂隊가 없는 두레 조직도 있고 洞里에 두레組職이 없는 農樂隊가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두레의 成員들이 相互協力하여 서로 勞動力을 모아 두레 成員의 집집마다 다니며 일을 해주고 남은 時間을 利用하여 成員이 오고 집의 일을 해 준 貸價로 삯을 받게 되는데 이 삯으로 農樂隊를 장만하여 조직된 농악대가 바로 두레농악대이다. 이러한 두레는 全國的으로 고르게 分布되어 있었기 때문에 時間이 지나면서 두레와 農樂을 混用하여 같은 形態로 보는 現像이 나타냈으나 農樂과 두레는 전혀 다른 形態의 것이다.

農樂에는 반드시 그 農樂隊를 상징하는 農旗가 있게 마련이며 그 農旗의 권위는 絶對的인 것이다. 正初에는 여러 部落의 旗가 모여서 서로 旗歲拜를 하게 되는데 이 旗歲拜 때나 農事일을 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서로 마주쳤을 때 旗歲拜에서 發端이 되어 싸우는 것을 農旗싸움 或은 旗싸움이라고 한다. 地方에서는 흔히 이것을 보고 두레싸움이라고 하나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 앞서 說明했듯이 두레는 農樂을 이르는 말로 混用됐으며 이것은 旗를 서로 빼앗

는 싸움인데 두레싸움이라하면 農旗싸움이 아고 農樂싸움이라는 뜻이 되므로 地方에서 演戱되는 旗싸움은 반드시 農旗싸움이라고 해야 한다.

이 農樂을 상징하는 農旗는 절대적인 것으로 農旗를 훼손하거나 하면 마을에 不祥事가 생긴다고 하여서 조심하게 되며 農旗를 넘어뜨리기만 해도 언짢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農旗는 그 洞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農旗에는 洞里마다 序烈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大洞의 旗라 하더라도 작은 洞里에 兩班이 살고 있으면 그 洞里의 農旗가 上旗가 되게 되어 있으며 兩班洞里의 旗라 하더라도 年初에 擧行되는 줄다리기나 장치기 等 勝負性 民俗競技에서 지게 되면 下旗가 된다. 하지만 처음에 旗의 序烈을 정할 때는 대게 農樂隊가 생긴 순서대로 정하는 것이 一般的인 예이다.

이 各 洞里의 旗들은 年初가 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禮를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禮에서 서로 旗首를 숙이는 것을 旗歲拜라고 한다. 이 歲拜의 由來는 약 300여년 前에 井邑에 사는 崔氏兄弟가 秋收를 끝내고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後에 感謝할 目的으로 天地神明과 祖上에게 告祀를 지내고 아우가 兄에게 歲拜를 올린데서 緣由했다고 하나 이러한 것은 地域內에서 傳하는 說고일뿐 신빙성이 없다. 歲拜의 形態는 그보다 훨씬 以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隨書에 보면 "百濟의 풍습은 中國과 같고 손을 땅에 짚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敬禮를 삼는다"고 記錄하고 있어 이미 百濟에도 歲拜와 같은 形態의 風習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旗歲拜는 年初에 洞里의 旗가 모여서 旗歲拜를 올릴때나 農事일을 하기위해 길을 갈때 서로가 만나게 되면 下旗가 上旗에게 먼저 旗首를 숙여서 禮를 올려야 하는데 이때 더 숙이라고 하고 숙이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서로 相對 部落의 旗를 빼앗게 되는데 이때는 農旗自體가 部落의 상징이므로 이 農旗를 빼앗기게 되면 洞里에 凶年이 들고 不祥事가 잦다가 하여 매우 過熱된 狀態로 나타났으며 旗싸움에 強한 洞里의 農旗가 보이면 일부러 싸움을 피하기 위해 길을 돌아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巫俗的 思考를 보이고 있는 農旗싸움이 洞里間에 서로 日時와 場所를 정해놓고 旗싸움을 벌일 때는 이기는 部落이 農作에 豊農이 되고 마을의 安寧하다고 하여 서로 最善을 다해서 技倆을 뽑내기도 했으며 이기기 위해 外地에서 旗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請願하기도 했다 한다.

● 廣州의 農旗싸움

廣州는 朝鮮朝에 地域內에 많은 屯田이 있어 屯田兵들이 軍樂으로 이 農樂을 使用했음을 알 수 있으며 屯田制度가 廢止되면서 洞里의 農樂으로 定着한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洞里의 農樂이 어느 곳보다도 活潑하게 演戱된 곳이기도 하다.

廣州의 農樂은 最近까지도 洞里마다 四物을 마련하고 洞里의 祝祭때 使用했으며 30~40年前만 하여도 길에서 農樂隊가 서로 부딪쳐 旗싸움을 벌이곤 했다고 한다. 이 地域에서는 이 旗싸움뿐이 아니고 傳統的인 京畿 웃다리 가락을 구사하고 있는 洞里가 상당수 있어 지난 날의 洞里의 農樂의 興盛과 旗싸움의 熱氣를 짐칠 수 있는데 광주읍 쌍령리·송정리·경안리·동부읍·덕풍리·실촌면·곤지암리·오돌면 양벌리·초월면 무갑리·대쌍령리와 퇴촌면의 일부 지역에서 이 農旗싸움에 強했다고 한다. 이렇듯 盛行하던 旗싸움은 1920年代 日帝의 強點下에서 文化抹殺政策으로 인해 징, 꽹과리 등 農樂의 主導樂器가 供出당하자 차츰 衰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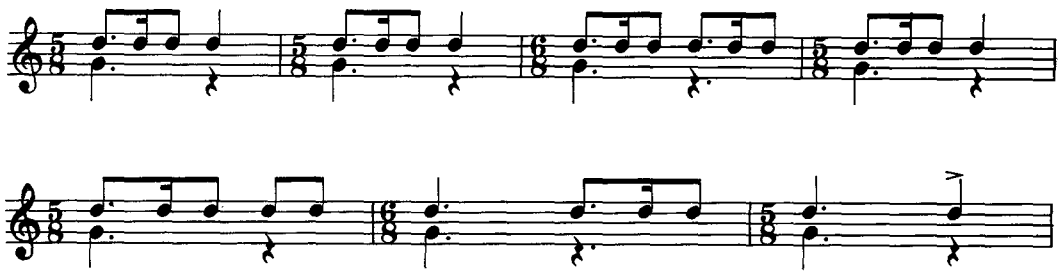
으며 光復 後에 밀어닥친 西歐文物의 영향으로 인해서 營農作業이 기계화되자 農樂의 使用 예전처럼 필요 않았고 더욱 地方에서 나타나던 巫俗的 思考를 띠는 民俗놀이가 新敎의 興盛으로 인해 迷信이나 偶像崇拜라고 배척 당하자 점차 그 본질적인 內面의 思想을 잃은채 침체되어 있다가 現在에 들어서는 고작 洞里의 大小 慶事에서 娛樂的인 面만을 지닌체 겨우 그 命脈만을 維持하고 있는 실정이다.

※演戱方法

農旗싸움은 兩 部落에서 正初의 吉日을 맞아 日字와 場所를 정하게 되면 이른 아침부터 온 洞里의 住民들이 모여서 마을의 空地에서 한참을 四物의 가락에 맞추어 興을 돋우고 氣를 높인 다음에 演戱場所를 向해 길놀이를 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1) 길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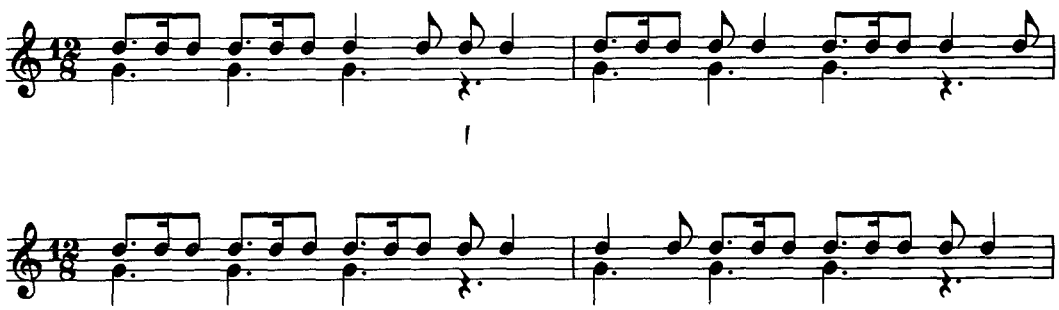
이 農旗싸움은 어떤 民俗에 대한 先導後을 하는 農樂이 아니고 農樂 自體의 놀이이기 때문에 다른 民俗에서 보이는 農樂보다 상당한 技倆을 보이게 된다. 兩 部落에서는 演戱隊가 한데 어우러져 農旗를 앞세우고 舞童을 태우며 길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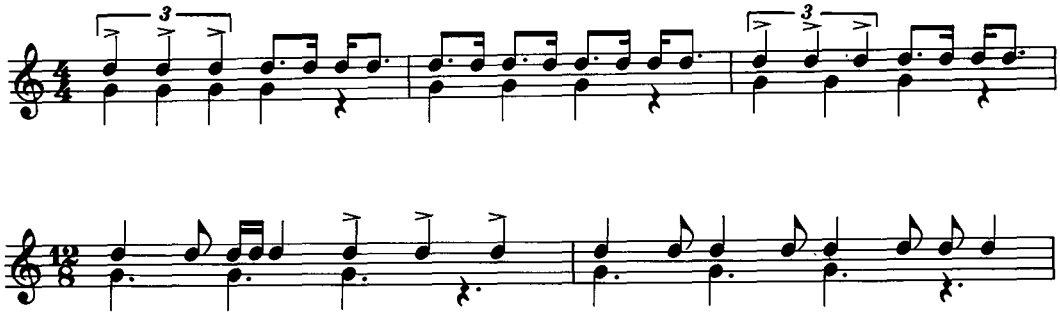
2) 旗돌리·마당놀이

兩 部落이 競演場에 倒着하게 되면 農旗의 周圍를 돌면서 서로 最高의 技倆을 선보이게 되는데 삼채, 자즌삼채, 굿거리, 마당일채, 쩍쩌기, 긴 쩍쩌기, 자즌가락, 舞童놀림의 가락을 上釗의 쇠가락에 맞추어 치고 旗를 양다리 사이에 끼우고 돌리는 旗돌림을 하여 興을 高潮시킨다.

〈장단: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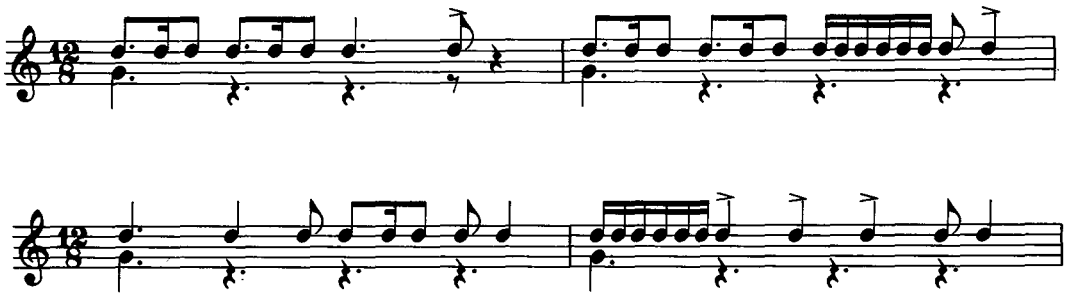


〈장단:자즌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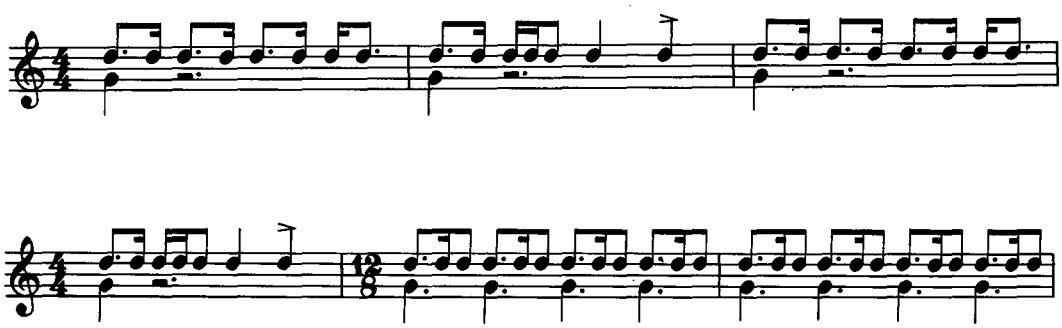
〈장단:굿거리〉

〈장단:마당일채 쩍쩌기〉



〈장단 : 긴찍저기〉

〈장단 : 무등놀림〉



3) 旗歲拜

兩 部落의 마당놀이가 끝나고 나면 各 部落의 旗가 앞에 나와 서로 拜禮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서로 먼저 숙이라고 하고 더 숙이라고도 하며, 함성을 지르며 雰圍氣를 고조시키고 風物은 마당돌림 허튼장단을 친다

〈장단:마당돌림 허튼장단〉

4) 旗싸움

旗歲拜가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鉦이 울려 신호가 나면 兩 部落의 旗싸움꾼들은 반으로 갈려 반은 相對 部落의 旗에 쫓아가 旗를 쓸어트리고 반은 自身의 部落의 旗를 못 넘기게끔 지키게 된다. 農樂은 잦은가락을 쳐서 싸움꾼들을 응원하고 洞里의 住民들은 함성을 지르며 周圍를 맴돈다. 한참을 싸우다가 한쪽의 旗가 넘어지고 農期의 上端에 꽂혀 있는 꿩장목이 뽑히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 이긴 部落은 환호하며, 진 部落은 땅에 주저앉아 땅을 친다

〈장단:자즌가락〉

5) 뒷풀이

旗싸움이 끝나서 勝負가 나면 兩 部落의 演戲隊 一行은 서로 어우러져서 한바탕 신나는 뒷풀이를 펼치다가 열을지어서 上釗의 引導로 길군악에 맞추어 퇴장한다.

※인원편성

配 役	人 員	服 色
農 旗	1	머리띠,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令 旗	2	머리띠,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上 釗	2	부돌상,등걸잠방이,더거리,삼색띠,짚신
副 釗	1	〃
鼓. 鉦. 杖鼓	各 2	고깔.등걸잠방이.더거리.삼색띠.짚신
小 鼓	6-8	나비상.등걸잠방이.더거리.삼색띠.짚신
舞 童	5-8	중새미는 고깔에 가사장삼.남춤애는 바지저고리에 쾌자 여춤애는 치마저고리에 쾌자.삼색띠
廣 大	3-5	양반광대는 정자관에 도포 남광대는 바지저고리에 괴나리 봇짐 여광대는 치마저고리 탈광대는 가면무 복장
洞 里 住 民 들	다수	자연스럽게 따르는 주민들로 남미나 어린아이들의 복장
太 平 簫	1	고깔.바지저고리.두루마기
旗 싸 움 꾼	20-30	旗를 빼앗는 사람들로 청,홍색머리띠로 東,西의 區別을 하고 바지,저고리에 행전,짚신을 신고 길놀이때는 지게나 농기구를 소지한다.

〈註〉 上記의 人員編成表는 한 部落의 構成이므로 실질적인 旗싸움의 人員은 上記表의 二倍가 되는 것이이며 이 人員은 그때 그때의 狀況에 따라서 變動 할 수 있다.

廣州郡에서는 광주읍 경안리·쌍령리 초월면 대쌍령리·무갑리·중부면 광지원리·실촌면 곤지암리·오포면 양벌리·동부읍 신장리 등에 가면 요즈음에도 正初가 되면 이 農樂隊가 마을의 安寧을 위해서 風物을 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廣州地方의 農樂은 京畿農樂인 웃다리風物로써 이 웃다리 農樂은 소 가락을 中心으로 細技面에서 으뜸으로 치는데 廣州에서는 10여年 前만하여도 상당한 技倆을 지닌 技藝人들이 상당수가 있었으나 現在에는 營農方法의 機械化와 西歐文物에 밀려 겨우 그 命脈만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廣州의 農樂은 이제 그 斷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昨今에 들어 一部 地域에서 나타나고 있는 農樂의 가락을 보면 거의가 湖南農樂의 가락과 混用되고 있으며 웃다리 農樂의 代表的인 形態의 하나인 나비상모도 없어 안타깝다. 이러한 現狀은 聚落의 形態가 바뀌고 移住가 잦아지면서 移農을 하는 家屋이 늘자 自然 農業과 密接한 關係를 맺으며 技藝를 익힌 技藝人이 地域을 떠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農耕社會인 우리나라에서 여러 形態로 變化하면서 이 民族의 興亡盛衰와 함께 해온 農樂에 대해서 記錄한다.

先史時代의 祭儀式에서 使用한 것이 由來의 始原으로 推定되는 農樂은 예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庶民의 놀이나 노래를 主導하는 大衆的인 音樂으로써 단지 四物만 갖고도 興의 絶頂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의 先祖가 創出해 낸 最大의 걸작품이다.

이 農樂은 各種 祭儀式뿐이 아니고 庶民들의 生活속에서 함께 呼吸하며 나타나던 것으로 우리의 民俗文化와는 뗄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農樂을 아는 것이야말로 民俗文化를 理解하고 保存시키는데에 큰 힘이 되는 것이다. 하기야 地域에서 創出되고 地域에서 가꾸어졌으며 地域에서 傳承되고 있는 이 農樂을 整理한다는 것은 옛부터 많은 無形의 民俗文化가 演戲되었던 廣州에서는 여간 뜻깊은 일이 아닌 것이다.

農樂의 始原이나 그 由來에 關한 記錄은 古代의 文獻에는 正確하게 記述한 것은 없고 그 內容조차도 찾을 수 없다.

一部의 學者들은 〈禮記 明黨傳〉의 "昧는 東夷樂이다" 〈周禮〉의 "四夷之樂 中 東方은 靺라 한다" 〈白虎通〉의 "東夷之樂은 離라 한다" 〈通曲〉의 "東夷之樂은 侏離라고 한다"나 혹은 〈孝經 鉤命決〉의 "東夷之樂은 體라 한다" 등에서 이 東夷之樂을 持稱하는 昧, 靺, 離, 侏離, 侏等이 모두 매굿(現在의 農樂)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나 確實치는 않다.

이 名稱은 毛詩傳, 史記, 樂之語, 海玉 太平御覽 樂書 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東夷의 音樂인 것이 確實하다. 그러나 東夷에 關한 定說이 없으며 더욱 이 音樂을 表現한 句節이 없어 農樂을 이르는 것이가에 대한 正確한 斷案을 내릴 수가 없는 實情이다. 〈東國歲時記〉에 보면 「態用俗 態山神堂 土人每四月 迎神下山 陳鍾鼓雜戲 遠近爭來祭之 十月又如爲常」이라고 記錄하고 있어 態川의 風習에 四月과 十月에 態山神堂에서 神을 맞이하여 山 아래로 모셔 놓고 鍾鼓雜戲함며 祭祀를 받들었는데 이러한 儀式에서 나타나는 鍾鼓雜戲와 馬韓의 祭天儀式에서 보이던 「馬韓相以 五月下種記 祭鬼神 郡聚歌舞飮酒 晝夜無體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以鐸舞 十月農攻畢 亦復如之…」라고 한 鐸舞가 農樂의 形態의 原始的인 것으로 推定된다.

즉 鍾鼓라 함은 現在의 農樂에서 나타나는 儀式(때에 따라서는 農樂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主導하는 農樂으로 農樂隊에 의해서 나타나는 行動)의 한가지인 "鍾鼓", "鍾告", "鉦鼓", "點告" 等으로 나타나는 것의 原初的인 形態로 보인다. 즉 農樂隊나 寺黨牌, 乞粒牌 等의 行衆이 어느 洞里에 進入하기에 앞서 洞里의 入口에서 북이나 징을 울려서 허락을 받는 儀式으로 첫 順序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듯 態川의 祭를 드리기 前에 神에게 알리기 위한 (祭儀式이 始作됨을 알리는) 方法의 하나로 鍾이나 鉦 또는 소나 북을 울렸을 것으로 보이며 雜戲는 그 後에 이루어지는 神에게 感謝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行動을 合하여 〈鍾鼓雜戲〉라고 表現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馬韓時代의 鐸舞라 하는 것도 鐸이라는 樂器를 利用하여 추는 춤으로 이 鐸은 打樂器의 一種으로 보여지며 이 鐸舞를 추는 形態가 서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땅을 밟는다고 하므로 農樂에서 傳承되는 舞의 技藝와 同一함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農樂은 굿, 매굿 等으로 불리며 祭儀式에서 使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三韓朝의 扶餘의 〈迎鼓〉를 三國志魏志 東夷傳 扶餘條에는 「正月祭天國中大會連日飮食歌舞名曰迎鼓……行道晝夜無老幼皆者歌通日聲不節」이라고 적어 正月에 하늘에 祭祀지내는 國中大會가 열리는데 날마다 음식을 먹고 춤추며 노래하니 이를 영고라 한다……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노래하니 그 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았다고 했고 後漢書 東夷傳 扶餘條에는 「以臘月祭天國中大會連日歌舞名日迎鼓…」라고 하여 납월(陰曆 12月)에 행하는 제천대회때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니 이것을 영고라 한다고 하였는데 梁柱東은 그의 古歌硏究에서 迎鼓는 神을 맞이하는 儀式으로 迎을 맞이 鼓는 굿의 音借兼意借로 迎鼓는 "마지굿"의 借字라고 했다. 이 마지굿의 매굿으로 變化했다고 하는데서 農樂의 原初的인 形態는 祭天儀式에서 緣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說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壬辰倭亂때 〈朝鮮 宣祖 25年(1492年 4月)〉의 일로서 金海, 南原 等地의 陶工 23姓 수십명이 日本으로 拉致되어 가서 日本의 九州의 西南端에 있는 鹿兒島縣 日還郡 下伊集院 苗代川을 中心으로 자리잡고 陶자器의 제조에 成功하여 薩摩燒의 本家를 이뤄었다. 이 苗代川에는 山舞樂이라는 언덕이 있어 이곳의 산봉우리에 큰 바위가 울며 밤에 광채를 띤 까닭으로 여기에 箕子(或은 檀君이라고도 한다)를 모시고 每年 春秋로 山의 頂上에서 큰 祭를 지내게 되었는데 日本의 鹿兒島 苗代川 王山神社 神舞圖에 보면 불을 피워 놓고 그 周圍에 칼을 들고 劍舞를 추는 舞人이 있고 周圍의 둘러앉은 樂工들의 모습에 鉦. 소. 鼓. 杖鼓 等 四物의 形態를 한 樂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農樂의 原初的인 모습은 先史時代의 國中大會인 祭天儀式에서 비롯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비롯한 農樂은 軍에서 使用한 軍樂의 形態로 變化하였는데 屯田制度가 생겨나면서 平常時의 陳法硏究와 戰鬪力의 增進에 使用되면서 軍樂으로서의 形態로 나타난 것으로 推定된다. 農樂隊의 指揮者가 使用하는 부포상모는 옛 軍의 指揮官이 使用하던 戰笠과 同一한 것으로 보아서 軍의 服裝에서 이 부포상모를 利用하여 兵士들에게 無言의 指示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農樂에서 使用되는 令旗를 보아도 確證이 간다. 더욱 農事꾼이란 言語도 當時의 屯田兵을 뜻하는 것으로 推定되는데 農事軍 즉 農事를 짓는 軍人이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듯 이 農樂이 軍에서 使用된 것은 여러 記錄에서 보이고 있는데 百濟時代에는 軍의 閱兵과 戰鬪時에 이 農樂을 使用했으며 中國 隨楊帝의

高句麗 侵略時(AD613年)에도 高句麗軍이 굿치고 함성을 질러 戰鬪에서 大勝을 거두어 全勝굿으로도 使用했음을 알 수 있고 新羅의 名將 金庾信도 戰爭터에서 굿(農樂)은 利用했다고 하였다. 이때에 나타나던 樂器가 現在와 같은 農樂器인 四物(소. 鉦. 鼓. 杖鼓)과 同一한 것인가는 알 수 없다. 農樂에서 使用하는 旋律樂器인 湖笛(새납, 날와리, 太平簫라고도 한다) 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朝鮮朝 世宗 8年(1462年) 4月 乙丑日(2日)이며 兵曹에 전지하기를 , 使臣이 가지고 온 太平簫를 樂器監에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傳習하라고 한 記錄으로 보아서 그 以前의 農樂의 樂器의 形態 및 構成은 現在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 高麗時代의 法駕衛仗에 대한 記錄을 보면「教坊樂官 一百人이 左右에 서고 安國伎(現 아드리아해 유역의 地方에서 使用하던 音樂으로 使用樂器는 공후, 비파, 오현, 적, 소필율등) 一部와 雜技 一部 各 40人이 左右에 서고 高昌伎(現 中共領 우루무치 地方의 音樂으로 使用樂器는 와공후, 동각, 비파, 오현, 횡적, 소 등) 一部 16人이 왼편에 서고 天竺伎(現 印度로 使用樂器는 등고, 갈고, 필율, 횡적 등) 一部 18人이 오른쪽에 서고 燕樂伎(현 中共 베이징 일대의 北燕의 音樂으로 使用樂器는 옥경, 방향, 소, 동발, 장적, 단적 등) 一部 20人이 左右에 서고 吹螺軍 一部 24人이 선다고 記錄하고 있어 예전의 衛仗樂에서는 지금과 같은 農樂의 編成이 아니고 다만 그 編成된 各國의 音樂 中에서 鼓만이 有一하게 나타나고 있어 過去의 農樂의 基本的인 樂器는 북이었을 可能性이 크다. 以後에 나타난 선조실록 宣祖 41年(AD 1608年) 四月條에 〈迎接賜祭都監廳軌〉에 보면 "우리나라의 吹手 四名 가운데는 나발1, 정(鉦) 수 1, 鼓手2명이다"라고 하였으며 前書 5月條에 보면 〈天使班次圖〉 9면이 있는데 樂工 6名이 두줄은 赤衣를 입었고 그 뒤에 先典樂은 青衣를 입었으며 따로 鼓吹手 4名이 한줄로 되어 黃衣를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또한 숙종 27年(1701年)의 〈日本 通信使行列圖〉에 보면 太平簫·鉦·杖鼓·鼓의 모습이 보이곤 있어서 農樂에서 使用하는 四物은 이때부터 記錄에 보이고 있으며 이때의 軍制의 編成에서 나타난 服裝의 색깔이(노랑. 열강. 파랑) 어느 時期에 와서 간소화되어 農樂隊가 두르는 三色의 띠로 變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 이 農樂이 한때 軍樂에 使用됐음을 뒷받침 하는 것은 여러가지 形態로 立證이 되는데 寺黨牌드이 위에 걸치던 더거리는 바로 軍卒들의 덧옷이며 軍에서 信號用으로 使用하던 나팔과 나각이 現在까지도 곳곳에서 使用되고 있다. 世宗때 兵曹에 전지해서 제작해 使用한 軍에서의 太平簫는 現在 全國의 農樂에서 共通的으로 使用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軍에서 순수한 軍樂으로 使用하던 農樂이 屯田制度의 發達과 함께 屯田兵들의 陳法研究와 戰鬪力의 增進으로 必要時에 演戲되었으며 이때는 民俗의 特徵이 現場에서의 潛在的 傳授에 의해 自然的으로 洞里의 住民들에게 記憶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軍樂에서 使用되었던 農樂은 吹軍가락 길 軍樂 等의 名稱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더욱 확실해 진다.

이렇게 軍에서 屯田兵들의 戰鬪力의 增進에 必要해 사용되던 軍樂으로서의 農樂은 地域에 따른 特徵을 지니며 定着하여 各 地域의 獨特한 形態로 變化했을 것으로 推定되는데 山地의 陳法과 平地의 陳法이 同一할 수 없으며 軍의 移動이나 進軍의 形態나 或은 一步 後進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 各己 그 地域의 特徵에 맞게 創出되어 定着한 것이 오늘날의 京畿農樂(웃다리 風物). 左道農樂. 右道農樂. 嶺東農樂 等으로 區分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山地를 中心으로 發達한 左道農樂과 平野를 中心으로 한 京畿農樂 西海岸을 끼고 形成된 右道農樂.

太白山의 脈을 따라 形成된 嶺南農樂과 嶺東農樂은 그 地域에 맞는 軍에서의 陣을 짜기에 適合한 가락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렇듯 軍에서 使用할 때는 地理的인 特性에 따라 同一하게 나타나던 것이 後日 洞里의 農樂으로 定着되면서 技藝人의 技倆에 따라서 多樣한 形態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屯田兵들의 軍樂인 農樂이 같은 農業에 從事하는 農夫들과 自然的으로 同和되면서 後日 屯田制度의 廢紙와 함께 그 地域의 洞里農樂으로 定着하여 순수한 豊農의 祈願이나 農事의 作業增進을 위하여 使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祭儀式때 使用했던 農禮樂으로서의 技能은 이때까지도 脈을 維持시켜 오다가 洞里의 農樂으로 變化되자 洞里의 各種 祭儀式에는 더욱 活潑하게 使用되었으며 農樂으로의 技能에서도 自然 巫俗的인 面이 強하게 要求되어 旗싸움 等의 民俗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요즈음 農樂의 形態의 變化過程의 通說인 祭儀形態→乞粒形態는 그 外的인 면만을 持稱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음 祭天儀式에서 創出된 巫俗的 思考는 外形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祭天儀式에서의 音樂으로 創出된 매굿은 軍樂으로 또 屯田樂으로 變化하여 洞里의 農樂으로 順次的으로 變化되었으며 朝鮮朝 後期에 들어서 政國이 極度로 混亂期에 접어들고 庶民들의 生計가 곤란을 받게 된다 技藝人들이 集團을 이뤄 全國을 流浪하며 技藝를 선보이는 寺黨牌. 솟대쟁이牌 等의 流浪集團들이 그 첫번째 過程에서 이 農樂의 技藝를 선보였으며 이들은 이 技藝로써 生計를 維持해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技倆은 最高潮에 달해 있었다. 이 流浪集團들은 꼭두쇠라는 우두머리의 인솔하래 集團 共同體的인 生活을 함 全國各處를 다니며 技藝를 펼쳐 보여서 各地域의 洞里農樂에도 적지 않게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全國을 다니며 技藝를 선보여 生計를 維持하던 流浪集團과 洞里의 農樂은 1920年代의 日帝의 文化抹殺政策으로 인하여 中斷되었으며 光復 後에 再現된 農樂은 單純 娛樂的인 形態로 變하고 말았다. 이 農樂의 內的인 形態의 變化를 時期的으로 살펴보면 祭儀期(매굿의 創出로 天神을 비롯한 敬神과 部落 安寧이나 豊農에 대한 祈願 等)→軍制期(豊農과 軍士들의 訓鍊에 必要한 것으로 農作과 戰鬪의 共存)→農作中心期(이때도 祭義性을 연 各種 儀式은 계속된다)→乞粒, 洞里農樂共存期(流浪集團의 興盛과 洞里農樂의 發展期로써 대개 1900年代부터~1920年代사이이다)→中斷期(日帝의 文化抹殺政策이 始作된 1920年代부터 光復때까지)→祭儀性消滅期(西歐文物의 導入과 新敎의 影響으로 인한 祭儀性의 退化)→娛樂期(1960年代 初期부터 다시 盛行한 農樂은 원래의 祭儀性이나 農作에 關한 作業과는 멀어지고 單純娛樂的인 共演藝術의 形態로 바뀌었다)로 順次的인 過程을 거치면서 脈을 이어 왔으며 이 變化의 기간중에서도 豊農에 關한 祈願이나 部落의 安寧과 招福逐邪의 內面世界의 脈洛을 이으면서 그때 그때 周圍의 環境(時代的인 背景, 技藝人의 力量, 地理的인 條件 等)에 따른 形態의 變化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이 農樂을 持稱하는 名稱을 보면 그때 그때 變化過程을 알 수 있는데 처음 祭天儀式때는 "굿", "매굿" 等으로 불리던 것이 軍樂이 되면서 '吹軍'이라 했으며 洞里의 農作에 關한 作業의 增進에 利用하기 始作하면서 '두레굿'이라 했고 流浪集團의 盛行과 함께 '風物', '풍장'이라 불리워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農樂"이란 名稱은 日本의 假面劇인 "노가꾸(能樂)"에서 由來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主張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農樂은 두레와 같은 時期에 나온 것

으로 보이며 노가꾸와는 無關한 것이다. 이러한 農樂은 洞里의 農樂에서도 판굿을 벌이고 있는데 이 판굿이란 農樂을 하면서 펼치는 진풀이로 京畿道의 웃다리 風物의 판굿의 順序는 다음과 같다.

1)길놀이→2)인사굿→3)돌림벅구→4)겹돌림벅구→5)담산벌림→6)양상치기→7)허튼상치기→8)오밤감기와 풀기→9)무동놀림→10)쌍줄백이→11)사통백이→12)좌우치기→13)종대옆치기→14)가새치기(가위벌림)→마당일채 쩍쩌기굿→16)개인줄줄이(上소.징. 북. 장고. 벅구)→17)무동서기. 동니받기→18)채상놀이 마당씻이로 이어진다.

◉作業性民俗

8. 地硬닺기

● 槪 要

地硬다지기란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作業性民俗이다. 이 地硬다지기는 民俗이기 보다는 人口가 늘고 家屋이 必要하게 되면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作業으로써 우리나라의 全體에 걸쳐서 나타나는 必然의 作業性民俗인 것이다.

이 地硬다지기는 집을 짓기 前에 집을 지을 터를 단단하게 다짐으로써 집을 튼튼하게 짓는 方法으로 利用되는 요즈음의 基礎工事에 해당하는 作業이다 하지만 이 地硬닺기는 집의 터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方法이 아니고 집터를 건드림으로 해서 土地神의 노여움으로 일어나는 動土를 막아 사전에 닥칠 不祥事를 防止하자는데 目的이 있어 作業과 함께 巫俗的 思考를 내포하고 있다. 이 地硬닺기의 作業 그 自體는 거개의 民俗이 時代의 變化에 따라서 周圍環境의 影響을 받아 順次的인 變化를 가져오는데 비해 地域에 따른 特徵은 있으나 이 地硬닺기가 斷絶되던 10여년 前까지도 變化가 없이 傳承되어 온 有一한 民俗이었다.

이 地硬다지기는 주로 연약지반이 많은 江邊이나 海邊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岩石이 많은 山間 地方에서는 거의 地硬을 닺지 않고 다만 坐王告祀만을 드리는 것을 보아도 이 地硬닺기는 地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作業이 우선적인 것을 알 수 있다.

地硬닺기는 단순히 터만을 다지는 機械化된 作業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선소리꾼의 소리를 따라 받으며 춤추고 즐기는 것을 보면 民俗遊戲의 한 形態임을 알 수 있으며 洞里의 全住民들이 모여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形態로 보아 하나의 複合的인 形態의 民俗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이 地硬닺기에서 나타나는 地硬謠는 대개 舞經의 明堂經이나 地主經 帝稗풀이 等에서 引用하고 있어 그 文化財的 價値가 높으며 個個人의 歌唱力에 따라서 各己旋律이나 辭設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俗謠로서의 價値도 지니게 된다.

이 地硬닺기는 最近 10여年 前까지만 해도 집을 짓기 위한 必然的인 儀式으로 擧行된 곳이 많으며 이 地硬닺기는 聚落의 形成이 늘고 人口가 增加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自然的 現像이며 그 內面이 지니는 巫俗的인 思考보다는 作業이라는 하나의 全國 共通的인 行爲가 日帝의 文化抹殺政策때도 피해가 없었고 또 그 行爲를 先導하는 樂器도 四物이 아니고 북만으로 可能했으며 이 地硬닺기에서 부르는 地硬謠도 딴 俗謠에 비해 한, 두 句節만 배우면 쉽게 따

라 할 수 있는 등 傳授나 保存의 條件이 딴 民俗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다는 점이다. 特히 딴 民俗이 一年에 한두차례에 그치는 것인데 비해 이 地硬닺기는 人口의 增加에서 나타나는 必然的인 것으로써 그만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現場에서 暗記되고 傳授되는 民俗이기 때문에 自然스럽게 傳授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地硬닺기는 대개 밤에 불을 밝히고 洞里의 住民들이 모여서 터를 다지는데 밤에 터를 다지는 理由는 坫主神에게 動土를 防止하고자 하여 드리는 祭祀나 効果가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韓國의 巫俗에서는 모두 靈(鬼神)들은 낮에는 活動을 하지 않고 밤에만 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해가 진 後에 告祀를 드리고 나서 地硬을 닺게 된다. 하지만 實質的인 理由는 어떠한 정해진 삯을 주지 않고 洞里에서 모든 사람들이 相互協力하여 터를 다지는 이 地硬닺기에 生業에 힘써야 하는 낮시간에는 人員의 動員이 不可能해 모든 作業을 끝낸 밤에 나와서 불빛 아래서 집 주인이 준비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며 밤이 이슥하도록 땅을 단단하게 다져 나가는 必然的인 作業性民俗이다.

● 廣州의 之硬닺기

廣州에서는 십수년 전만 하여도 이 地硬닺는 作業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地硬닺는 作業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地硬닺기는 연약지반이 많은 河川이나 海邊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廣州에는 山地가 많으면서도 周圍에 河川이 많은 地理的인 立地條件 때문이다 이러한 廣州의 地硬닺기도 주로 江을 끼고 있는 廣州川邊, 漢江邊 等의 마을에서 딴 곳마다 더 盛行했던 것은 그 만큼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이며 中部面쪽에서는 터의 全體를 다지지 않고 柱礎를 놓을 곳만 다졌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特히 廣州郡의 地硬닺기는 그 儀式에서 불리워지는 地硬謠의 辭設이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 地硬닺기의 儀式이 最近까지도 나타났었다는 점과 그 만큼 많은 演戲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演戲方法

1) 坫主告祀

地硬을 다질때가 되면 地硬을 다질 터의 한 쪽에 酒果脯를 陳設한 告祀床을 차려놓고 地硬을 다질 터의 主人이 나와 坫主神에게 告祀를 드린다. 主人이 地硬을 닺고 집을 새로 짓더라도 動土가 얼지 않고 집 안에 不祥事가 없이 安過泰平하게 해 달라는 말을 祝願 한 後에 三杯를 드리고 술을 四方에 뿌려 恩惠를 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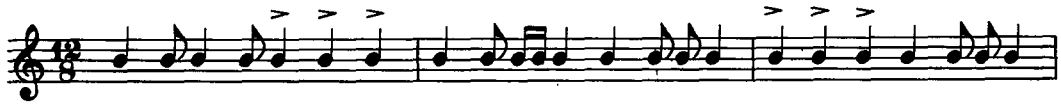
2) 地硬닺기

坫主告祀가 끝나고 나면 地硬石을 中央에 갖다 놓고 地硬을 닺은 後君들이 모여서 之硬줄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地硬謠의 소리에 맞추어 地硬을 닺는다

이 地硬을 닺는 形態는 先唱의 前半部에 들어 올리고 後半部에 내리 닺고 後唱의 前半部에 들러 올리고 後半部에 내리닺는 形態로 되풀이 되며 先唱者가 북을 메고 삼채장단을 치며 선창을 부른다

이 地硬닺기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地硬들이 거의 地硬군들의 두길이 나 높게 오르기 때문에 횃불로 밝혀주게 되는데 電機가 들어 오고 난 後에는 횃불대신 전기로 밝혔다.

〈장단:삼채〉



〈表:地硬石의 運動〉

先唱								後唱							
前半部				後半部				前半部				後半部			
에	이	어	라	지	경	이	요	에	이	어	라	지	경	이	요
산	중	에	는	곤	륜	이	요	에	이	어	라	지	경	이	요
그	산	맥	이	떨	어	져	서	에	이	어	라	지	경	이	요
이	터	전	이	생	길	때	에	에	이	어	라	지	경	이	요

3) 높 이

地硬닦기는 긴 時間을 터를 골고루 다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참을 땅을 다지고 난 뒤에는 술과 飮食을 먹으며 쉰다. 이때는 터의 주인을 飮食을 충분히 장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理由는 지경닦기가 힘이 든 勞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개 따로 삯을 주지않고 洞里內에서 이루어지는 協同的인 것이므로 充分한 술과 飮食을 준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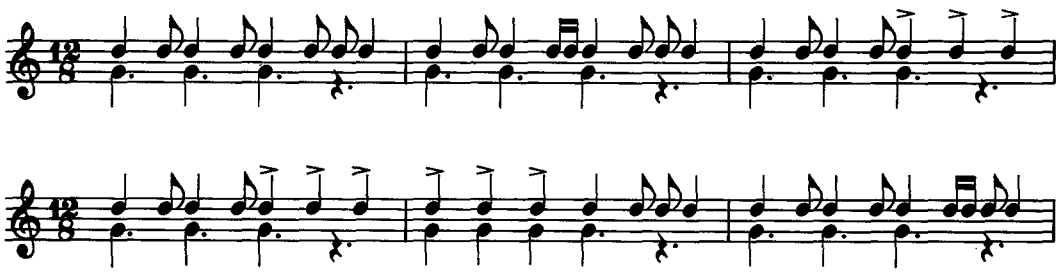
4) 地硬닦기

휴식을 취하면서 술과 飮食은 배불리 먹고 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지경닦기를 계속하게 되며 이때는 한 장단에는 지경을 닦고 한 장단에는 지경줄을 잡고 춤을 추면서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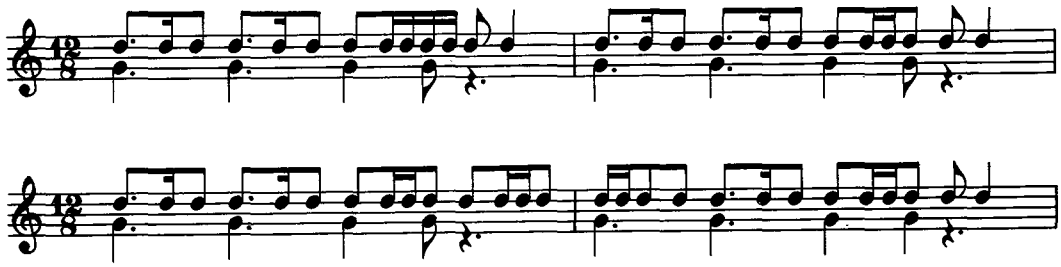
5) 뒷풀이

地硬을 다 닦고 난 後에는 洞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어우러져서 즐기는데 이 뒷풀이는 북만 갖고 하는 수도 있으나 農樂隊가 있는 洞里에서는 風物과 함께 흥겹게 놀기도 하는데 이때는 대개 삼채나 굿거리 장단이 共通的으로 나타나며 이렇듯 모든 民俗演戱에서 삼채나 굿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장단이 大衆化되어 있으며 가장 흥겨운 춤을 추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장단:삼채〉



〈장단:굿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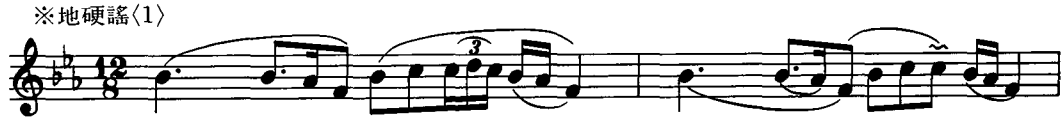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주 인	1	바지저고리,두루마기
선 소 리 꾼	1	북을 메고 등걸잠방이에 짚신 머리수건을 쓴다
지 경 꾼	8－16	등걸잠방이,짚신,머리수건
횃 불 잡 이	6－10	등걸잠방이.짚신.횃불
상 쇠	1	부포삽,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징. 북. 장고	각2	고깔,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동 리 주 인 들	다수	일반적인 남,녀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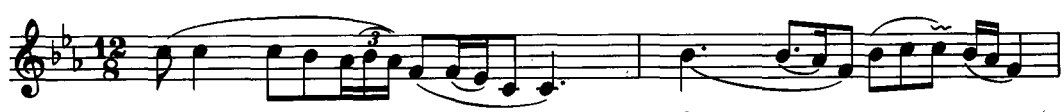
※地硬石의 形態

廣州地方에서 使用되는 地硬石은 대개 2種類로써 하나는 돌의 밑을 동아줄이나 짚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로 그물같이 엮어서 돌의 허리에 철사나 동아줄로 굵게 감고 망을 그곳에 연결하고 허리를 맨줄에 지경줄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지경석 1〉, 상단에 깊은 구멍을 낸 후 그 곳에 가로패를 꽂고 지경줄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 〈지경석 1〉· 지경석은 대개 높이 2~2,5尺 정도에 밑이 한변이 3~3,5尺 정도가 되는 四角刑의 돌을 많이 使用하여 이 地硬石은 지경다지기가 끝나면 놓아 두었다가 다음 집에서 使用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집을 짓는데 柱礎로 使用하거나 아니면 마루의 앞에 돌을 놓아서 집이 더 튼튼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使用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은 다 傳來習俗인 巫俗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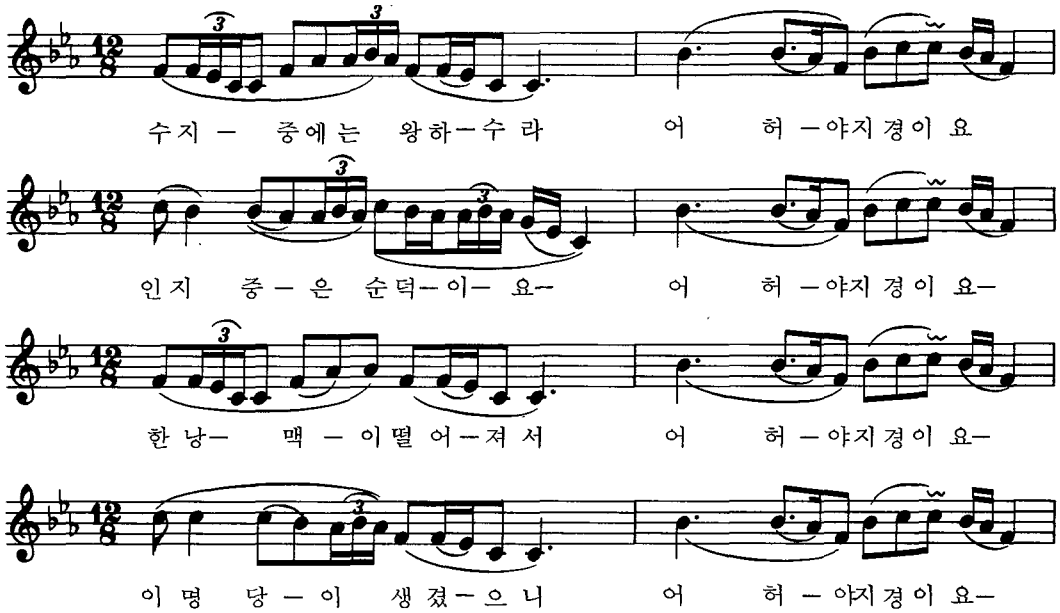
※地硬謠〈1〉



〈메김소리〉 어 어 허 야 지 경 이 － 요 －〈받는소리〉어 허 － 야지 경 이 요－



쏘 지 중 － 은 곤 －이 요 어 허 －야지 경이 요－



이明堂에 집을 짓고
아들아기 낳으며는
孝子충臣 날것이요
딸아기를 낳으며는
烈女孝婦 날것이니
이 明堂이 제일이라
말을나면 약내나고
소를나면 사지보구
닭을나면 봉계낳고
개를나면 네눈백이
그아시도 좋을소냐
여보시오 역군들아
이명당에 집을짓고
堂上문모 千年萬에
膝下子孫 萬歲樂이니
一年三百 六十五日
德으로도 살아가고
福으로도 살아가니
그아니나 좋을소냐

〈1987.2.4.五浦에서 授錄〉

※地硬謠〈2〉

〈先唱〉에이어라 地硬이요

〈후렴〉에이어라 地硬이요
번쩍공 들었다 이리로 놓고
번쩍공 들었다 저리로 놓고
이 집터를 다진 後에
천년만년 번성하게
地硬이를 다질때에
東方으로 쳐다보니
靑龍한쌍 뭍혔구나
靑龍머리 다치겠다.
조심해서 地硬으로써
南方을 바라보니
朱雀이 한쌍 묻혔구나
朱雀의 머리 다치겠다
조심해서 地硬이로세
西方을 바라보니
白虎가 한쌍 묻혔구나
白虎머리 다치겠다.
조심해서 地硬이로세
北方을 바라보니
玄武가 한쌍 묻혔구나
玄武머리 다치겠다
조심해서 地硬이로세
中央을 바라보니
금두꺼비 묻혔구나
두꺼비머리 다칠쎄라
조심해서 地硬이로세
여보시오 後君님네
이집터를 다질때에
精誠으로 다져주면
이어전이 明堂이라
孝子忠臣 날것이라
孝女烈女 날것이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이 明堂 이터전에
地硬을 다져줄때
精誠으로 다져주면
여보시오 後君님네

이터전이 明堂이라
어느明堂 되었느냐
老人峯이 비쳤으니
白髮堂上 모실터요
子孫峯이 비쳤으니
膝下子孫 萬歲樂에
露積峯이 비쳤으니
萬석巨富 날것이요
文筆峯이 層이졌으니
文章才士 날것이요
所願成就 發願하고
安過泰平 祝願하니
이터전이 明堂이라

9. 作業性 俗謠

● 概 要

地方에 散在해 있는 많은 量의 그 地方 特有의 俗謠는 그 時代的 周圍環境에 따르는 大衆의 소리로써 그 地方은 물론이려니와 그 民族 나름의 生活習俗이나 時代의 變化, 大衆文化等을 알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된다.

特히 우리나라와 같이 多樣한 소리文化를 갖고 있는 民族은 흔치 않으며 이 소리文化는 우리民族이 지니는 많은 傳承藝術 中에서도 매우 價値가 있는 것이다. 形像化한 樂器를 使用하는 器樂이 比較的 體系가 잡히고 많은 種類의 活字化된 資料가 傳해지고 있음에 비해 地方에서 散在해 나타나는 많은 量의 俗謠는 그 媒介體 가 人間이기 때문에 技藝人의 自然淘汰(死亡)와 함께 하나의 價値있는 소리 文化가 消滅되고 있어 體系的인 傳授나 記錄이 되지 않았기이 그 價値는 더욱 값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多樣하게 나타나는 소리 文化인 民俗音樂은 나름대로의 定해진 傳授方法에 의해서 그 脈을 이어가고 있으며 판소리나 十二雜歌, 범패, 民謠, 巫歌, 中 一部와 俗謠, 中 一部는 國家나 그 地方의 無形文化財로 指定되어 傳承되고 있으며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脈을 잇고 있다. 또한 民俗樂 中에서 寺黨牌 系統의 音樂은 各 地域別로 파생되어 그 地域에 定着하면서 地域의 特徵있는 民謠가 되기도 했는데 南道地方의 花草사거리 , 보렴, 城主풀이로 京

〈註〉 上記의 地硬謠 1·2는 廣州地方에서 授錄된 것으로써 先唱者가 삼채장단에 맞추어 先唱을 부르면 地硬을 닺는 後君들이 後唱을 받으며 地硬을 맞는 것으로 1은 흔히 地方에서 나타나는 辭設이고 귀는 傳門的인 巫격들이 巫歌 帝釋經에서 부르는 辭設이다. 이렇듯 地方에 散在해서 나타나는 俗요의 대부분(作業性俗謠)은 巫歌나 巫經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며 創出된 것으로 보이며 上記의 辭設에서도 나타나듯 比較的 巫歌의 辭設이 體系的인데 비해 俗謠는 그때 그때 歌唱者의 技藝力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變化가 심하다.

畿地方에서는 山打令인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산타령으로, 西道地方에서는 경발질 또는 경사거리로 稱해지면서 그 地域나름의 民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傳承되는 民謠 이외에 地域的 特性이나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여러 形態로 多樣하게 나타나는 것이 地方의 俗謠인데 이 俗謠의 特徵은

1) 地域的인 特性과 함께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各 地域의 特徵的인 形態로 歌唱되고 있으며 個個人의 노래로써 이 俗謠는 그 地域의 言語에 따른 辭設의 表現方法과 技藝人의 暗記力, 表現力 等에 큰 影響을 받는다.

2) 時代的인 背景에 따라서 辭設이 自然스럽게 變化하고 있으며 一定한 辭設로 정해지지 않은 이 俗謠는 그 時代가 要求하는 言語를 自然스럽게 받아들이는데 農謠의 경우를 보면 벼의 新品種 等이 나타나면 辭設도 함께 變化한다.

3) 辭設이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俗謠의 歌辭는 同一한 地域안데서도 歌唱者마다 各己 다르게 表現하고 있으며 심지에는 같은 사람이 부른다 하더라도 부를때마다 辭設이 바뀌는 수도 있다.

上記와 같은 特徵을 보이는 俗謠는 그 創出의 由來에 關해서는 正確한 斷案을 내릴 수 없으나 三國志나 後漢書의 東夷傳에 의하면 扶餘, 濊, 高句麗, 馬韓 等에서는 年中行事로써 一定한 時期를 가리어 노래와 춤으로써 즐기며 하늘을 섬기는 風習이 있었는데 扶餘는 殷正月에, 高句麗와 濊는 十月에 各各 祭天儀式을 가졌으며 馬韓에서는 五月과 十月에 가졌는데 이때는 洞里의 男女老少가 한데 어우러져 노래했다고 하였다.

馬韓의 風習은 굿이고 이 굿은 農作에 關한 것으로 볼 때 이 祭天儀式에서 나타나던 노래가 顯在 各 地方에서 나타나는 農謠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地方의 勞動謠는 그것이 傳해지면서 衰退하고 斷絶되고 再創出되는 反復過程을 거치면서 自然스럽게 變化하는 것으로써 그 地域의 地理的條件이나 言語, 風習等과 技藝人의 力量에 따라서 特徵있게 創出되는데 이 俗謠는 대개 地域的인 特徵보다는 技藝人의 技藝力에 따라서 더 큰 變化를 보인다.

이 俗謠는 人間이 生活을 영위함에 있어서 必須的으로 나타나는 作業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며 나타나는 것이 통례인데 自然的인 發生의 過程을 거치며 必然에 의한 人爲的 發生이 主를 이룬다. 이 俗謠는 대개가 作業的性格을 띠는 作業性民俗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農謠의 全體와 地硬謠, 儀式謠인 회방아타령(달고질소리), 喪輿소리, 等과 婦女謠인 베틀가와 무레타령도 全部가 이 作業性民俗에 해당하는 作業謠로써 그 種類는 매우 廣範圍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俗謠는 대개 作業의 必要에 의해서 共同體的인 目的으로 創出되거나 個人的으로 作業時에 무료함을 메꾸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그 創出의 過程을 보면 순간적인 충동→周圍環境의 影響→俗謠의 創出→口誦→現場에서의 自然的傳授→技藝人의 暗記力과 表現力에 따른 再創出의 順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順次的인 過程을 反復하면서 긴 時間동안 그 脈을 이어왔다.

이러한 作業性俗謠는 그 地方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恨과 興을 나타내는 大衆的 소리 文化로써 最近에 들어 作業의 現場이 없어지자 점차 消失되어 없어졌으며 이제는 社會的으로 西歐文物에 찌든 많은 사람들에게서 낡은 舊習이고 老齡層에서나 즐기는 것으로 도외시 당해 그 斷絶을 目前에 두고 있는 實情이다

이 俗謠의 原初的인 形態인 소리는 人間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狀態를 外部로 吐해내는 表

現이다.

이 소리는 單聲과 複合聲으로 區分짓게 되며 單聲은 느낌의 衛動에 이어지는 心的變化를 더해서 나타나는 表現이다. 즉 급작스런 衛動을 느낄때 나타나는 "야"等에 이어지는 心的變化의 言語인 "뜨거워"라 "좋다" 等의 소리가 이어진다면 "아 뜨거워" "어 -놀랐잖아" 等의 複合聲으로 하나의 屈曲이 생기는 表現의 소리가 되며 "야"나 "와" 等의 感嘆詞 等도 마찬가지로 "야-좋다"나 "와 정말 힘이 세다" 等의 複合的인 文句로 屈曲있게 表現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言語學的인 槪念이 되겠으나 소리文化의 創出은 바로 이 瞬間的 衛動인 單聲에 心的變化를 나타내는 複聲과 地理的條件 等 周圍環境 그리고 時代的인 背景과 技藝人의 技倆에 따라서 각기 特徵있는 하나의 소리 文化가 創出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이 소리 文化의 言語學的 槪念이란 人類의 生成과 同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嚴格히 따져서 이 소리는 자기의 內的 生覺을 外部로 表出해서 他人에게 傳達하고자 하는 意思의 疎通이므로 하나의 完成된 聲音으로써 價値를 지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完成된 思考力을 지니는 聲音은 소리 文化의 原初的인 形態로 보아야 하며 이 最初의 人類에게서 만들어진 聲音은 瞬間的인 衛動에서 오는 느낌의 表現에서 이어지는 心的變化의 屈曲있는 複合聲의 創出까지로 이어지게 되나 하나의 思想을 內色하는 文化的 言語로써는 未洽함이 있으며 이 單聲이나 心的變化에 의해 나타나는 複聲은 地理的條件이나 歷史的·時代的인 背景, 技藝人의 技倆 等 소리文化의 創出에 따른 條件이 맞추어서 그 地域의 特徵있는 소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故場마다 나타나는 庶民들의 現場에서 表現되는 소리는 대개 地域的 特徵보다는 歌唱者 個人의 技倆에 의한 特徵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特徵은 現場에서 歌唱되고 現場에서 듣고 潛在的으로 記憶하고 있다가 現場해서 再現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周圍의 狀況에 따라서 辭設이나 旋律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부르는 歌唱者마다 각기 다른 形態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 하기에 이 俗謠는 技藝人 한 사람이 하나의 價値있는 노래를 갖게되며 技藝人의 自然淘汰인 死亡은 곧 값진 俗謠의 消滅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歌唱者에 따라서 特徵있게 나타나는 소리를 우리는 흔히 民謠라고 부르는데 民謠와 俗謠는 다른 것으로 區分되어야 할 것이다. 이 民謠는 俗謠가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써 俗謠가 정해진 辭設이나 旋律로써 定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民謠의 原初的인 形態는 俗謠이고 民謠와 俗謠는 다음과 같은 差異가 나타난다.

民謠와 俗謠의 比較

區 分	民 謠	속 요
創出根據	俗謠나 流浪集團에서 불리던 노래가 어느곳에 定着되면서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傳해진다	過去의 祭天儀式 等에서의 農作에關한 소리로 부처 傳해진 것으로 보이며 巫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傳授方法	體系的인 方法에 의해서 先代의 歌唱者에게서 技能을 익힌다(人爲的傳授)	自然的인 演戲場所(實質的인 演戲場所)에서 歌唱者의 소리를 듣고 潛在的인 記憶에 의해서 傳授가 된다(自然的 傳授)

演戲場所	舞台의 設備가 갖추어진 곳에서 觀客이 있어야 한다(人爲場所)	自然的인 作業場等의 場所에서 表現된다(自然場所에서의 必然에 의해서)
辭設이나 旋律의 變化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배우는 것으로 辭設이나 旋律의 變化가 없다.	自然的인 場所에서 潛定的인 記憶속에 있다가 現場에서 表出이 되기 때문에 歌唱者의 暗記力, 表現力 等 歌唱者의 技倆에 따라서 그 旋律이나 辭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면 變化가 심하다.

上記의 比較表에서 나타나듯 地方의 俗謠는 現場에서의 自然的인 表出과 潛定的인 記憶속에 있다가 다시 表現이 되는 것으로 唱者에 따라서 各己 하나의 特徵있는 노래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俗謠의 變化를 보면

첫째, 歌唱者의 技藝人에 의해서 辭設이나 旋律이 變化한다(技藝人의 技倆)

둘째, 時代의 變化에 따라서 새로운 名稱이 나타나면 그 辭設의 內容도 함께 變化한다(時代的인 背景)

셋째, 地理的인 條件에 의해서도 變化하는데 어느 故場에 있던 技藝人의 다른 곳에 가서 長期間 居住하게 되면 차츰 그 地域의 旋律과 複合的인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地域的 特徵)

넷째, 이러한 俗謠는 그 노래가 불리워지는 演戲場의 與件에 따라서도 變化가 나타나는데 巫歌의 境遇에는 예전보다도 많이 縮小되었으며 그 音高도 낮아졌다고 하여 이 소리는 周圍에 設定지어진 環境에 따라 變化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周圍環境의 影響)

이렇듯 創出이나 變化의 過程으로 周圍의 問題에 의해서 나타나는 地方의 俗謠는 自然的인 變化過程을 거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소리로서의 價値는 個人이 지니는 것으로써 한층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地方에서 나타나는 많은 俗謠中에서 作業性 農謠와 祭儀性作業謠인 회다지, 作業性 婦女謠인 베틀가와 물레타령등의 旋律과 辭設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이 俗謠는 1986年 本 筆者가 廣州의 民俗을 整理하던 中에 授錄된 것인데 忠淸事項을 踏査하던 중 本 俗謠의 旋律과 辭設을 적어놓은 노트만 남았고 人的事項을 따로이 적어놓은 메모지를 분실하여 부득이 人的事項을 밝히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郡誌에 民謠편이 따로 있으므로 여기서는 代表的인 것 만을 한 곡씩 收錄한다〉

● 廣州의 作業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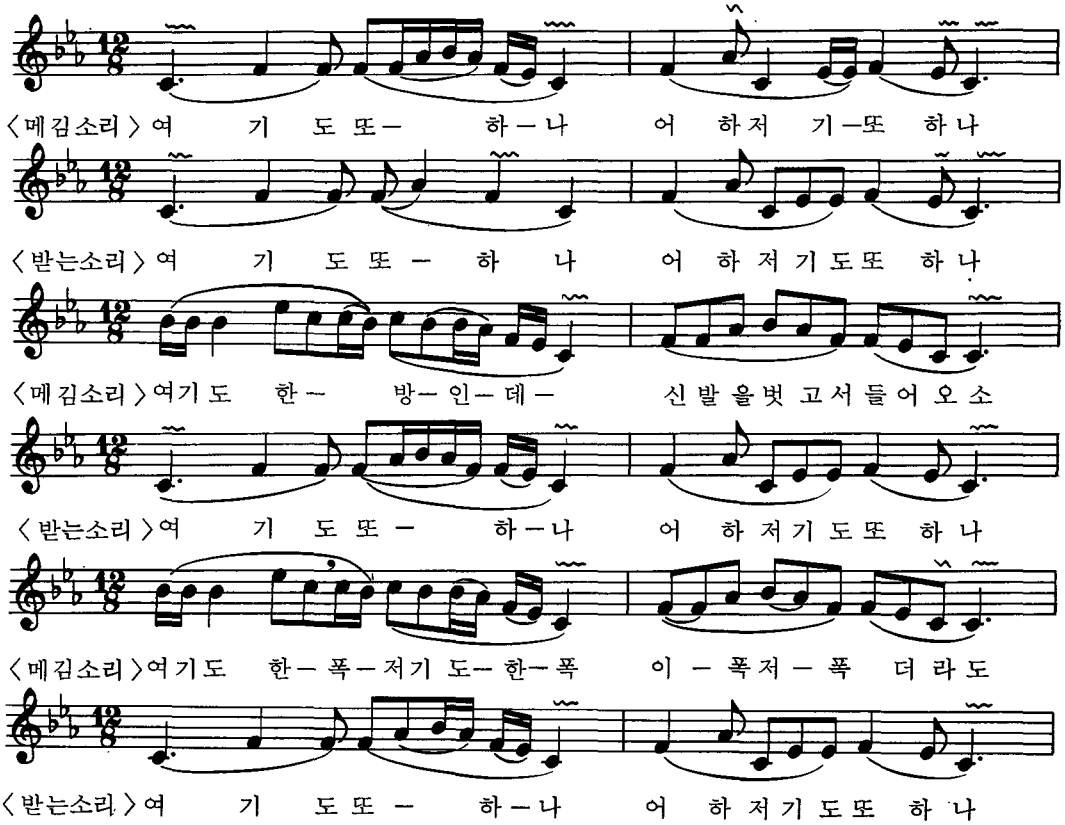
農謠란 農事를 짓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農謠는 그 作業過程에 따라서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래질소리·모심기김매기(초벌, 이벌, 세벌)·모찌기·打作謠 等이 있으며 모심기는 그 노래의 種類에 따라서 하나하나 꽂았네, 에이어과 等으로 細分되고 있다.

廣州는 過去서부터 많은 屯田地域이 있던 고장으로써 많은 農謠가 있었으며 이 農謠는 最近 10여년 前만 하여도 廣州의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영농의 기계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移住와 移農으로 인해 거의 消滅되어 버리고 그 자취도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俗謠는 그 自體가 現場에서 불려지고 現場에서 自然스럽게 傳授되는 것으로써 그 現場을

잃는다는 것은 곧 俗謠의 傳授場所가 없어진다는 것이며 더욱 지금에는 기계화된 농사법으로 인해 거의 전국에서 이 農謠가 斷絶되어 가고 있으며 一部 地域에서는 農謠의 傳承을 위해서 體系的인 傳授方法에 의해서 傳承을 시키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俗謠로서의 價値는 잃은 채 점점 民謠化 되고 있다는 점이다.

廣州에서 調査된 作業謠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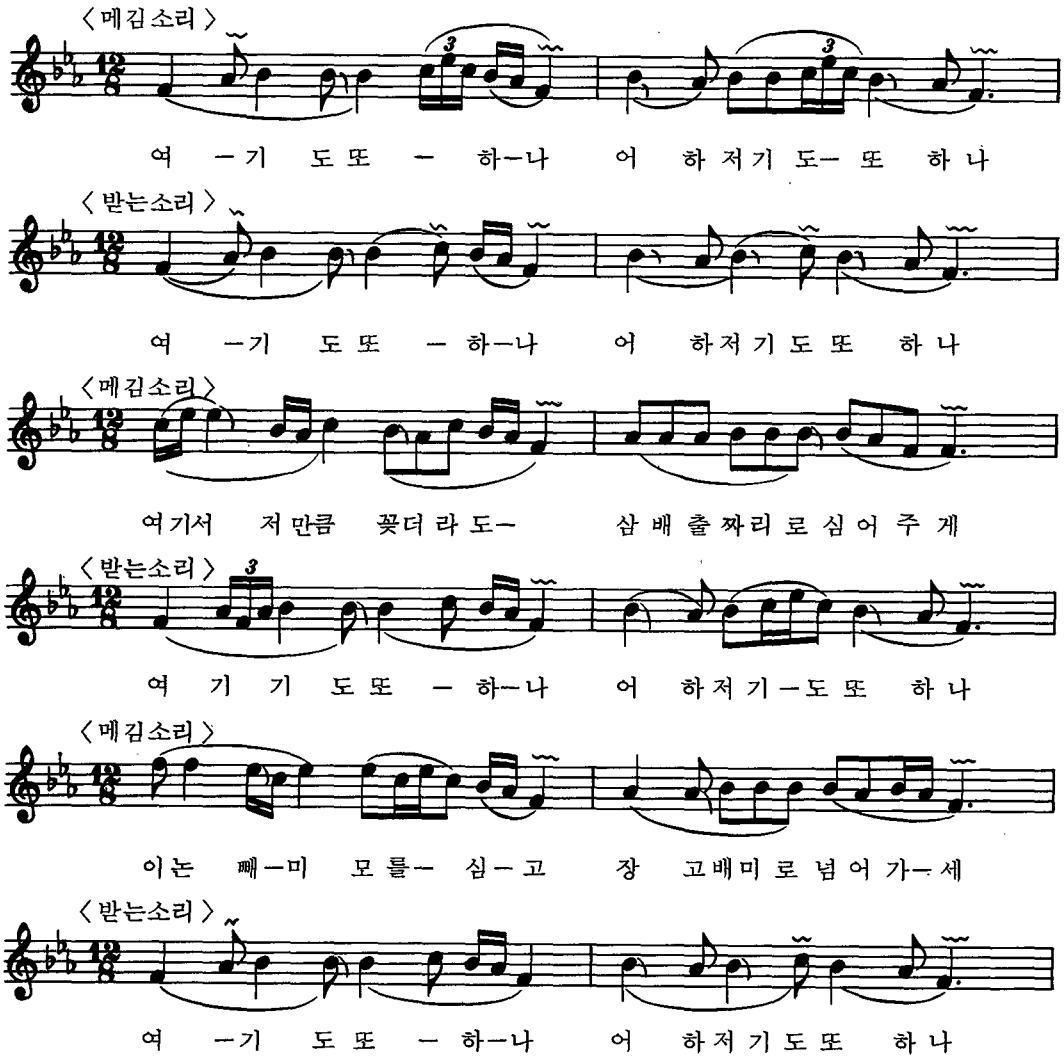
※모심기謠(1)



삼배출 짜리로 꽂아주게
농사하시는 여러분들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이 모를 심거들랑
정성으로 농사지어
가을철이 되어서
황금어장을 이루며는
양태바리로 실어들여
석섬을 떼어서 나라에 주고
선영제사 봉제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간에도 나눠먹세
여보시오 농부들아
쉬지말고 모를심어
이논배미 다 심었으면
장고배미로 넘어가세
여기도 또하나
어하 저기도 또하나
〈1986. 8 남종면에서 수록〉

※모심기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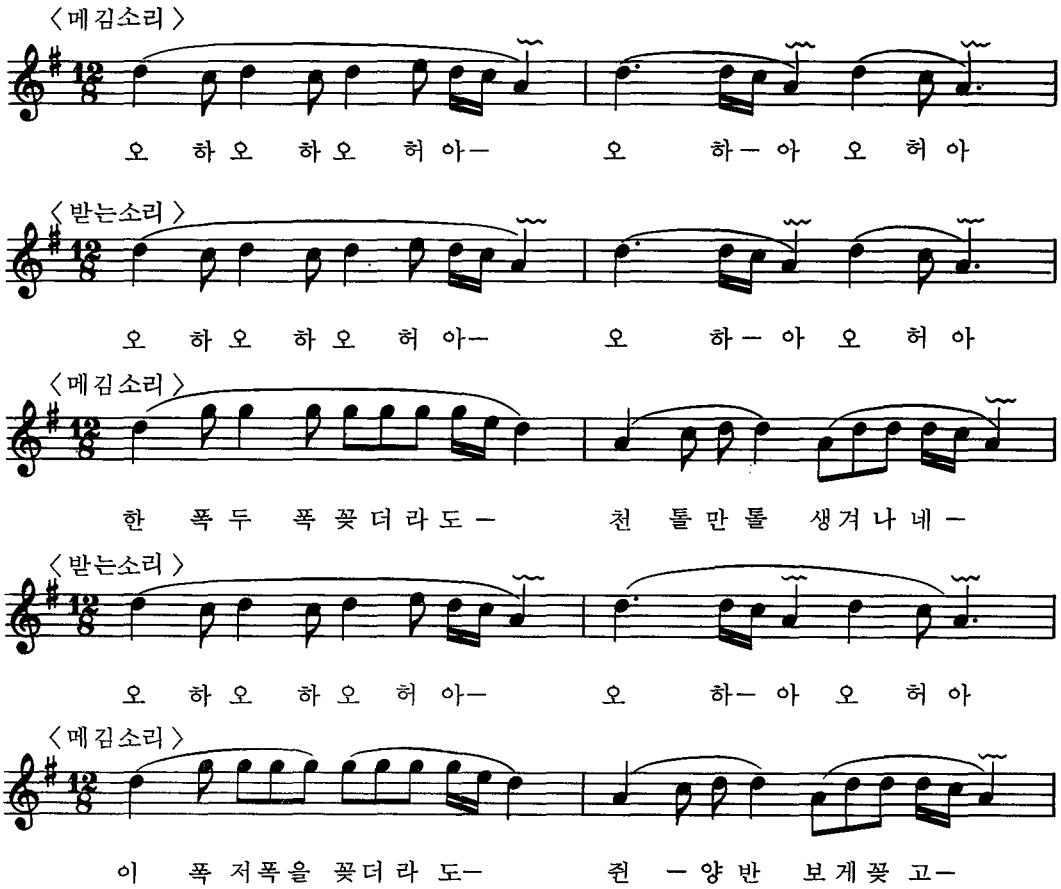


장고배미를 심고나니
반달만큼 남았구나
네가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초생달만 반달이냐
우리임도 반달이지
동녁에 떳던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니

여기도 또 하나
어하 저기도 또 하나
여보시오 벗님네야
우리 농부 생전할 일
농사가 제일인데
농사 안짓고 무엇을 하리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또 다시 떠오르고
월출동령 돋는 달도
내일밤에 다시 보건만
우리농부 오늘날에
어서빨리 모를심제
농사짓는 우리농부
내일은 어디서 놀 것인가
여기도 또 하나
어하 저기도 또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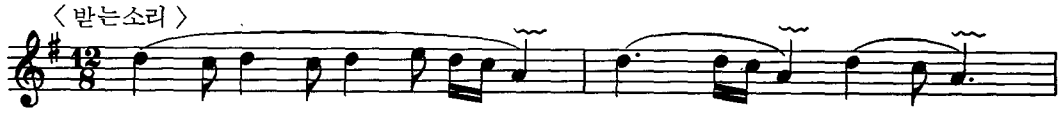
〈1986.9.오포에서 授錄〉

※모심기謠〈3〉



〈註〉 같은 모심기謠인 "하나하나"의 旋律과 辭設인데도 唱者에 따라서 각기 特徵的으로 나타나고 있어 俗謠의 多樣함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地方에서 나타나는 많은 量의 俗謠는 地域的인 特性보다도 技藝人인 歌唱者의 技倆에 따라서 特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기에 技藝人의 自然淘汰는 곧 하나의 價値있는 俗謠의 斷絶을 의미하는 것이다.

〈받는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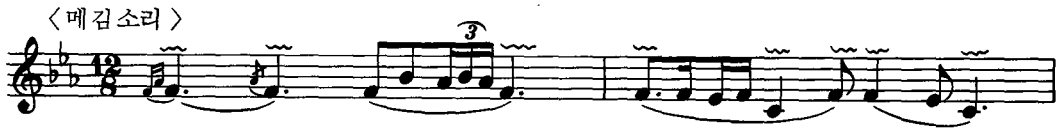
오 하오 하오 허아— 오 하— 아 오 허아



빵 둘 러 서 서 그 만 그 칩 시 다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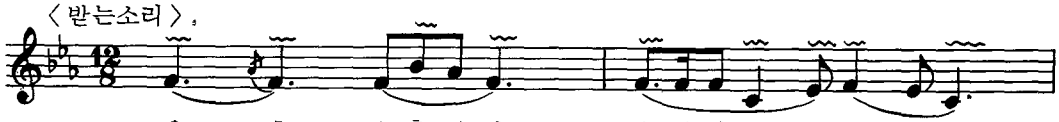
※김매기〈초벌매기〉

〈메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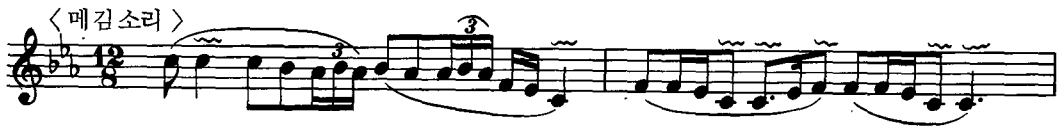
오 호 오호 오—야 에 루화 둥 실 둘 러 라

〈받는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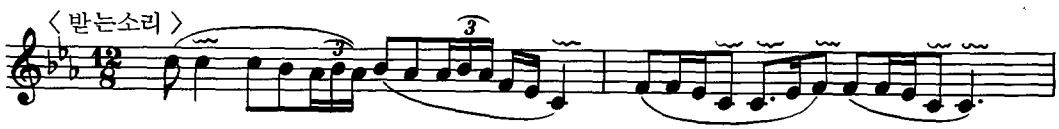
오 호 오홈 오야 에 루 화 둥 실 둘 러 라

〈메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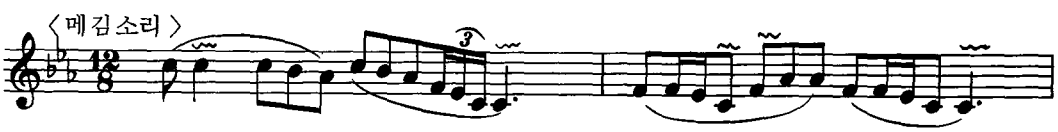
여 보 시— 오 농부 님— 네— 우 리— 한 잔을들 고나보세

〈받는소리〉



여 보 시— 오 농 부님— 네— 우리— 한 잔을 들 고 나보세

〈메김소리〉



오 호 논일을 하시—거— 든 정 성— 으—로하 여나보 세

〈받는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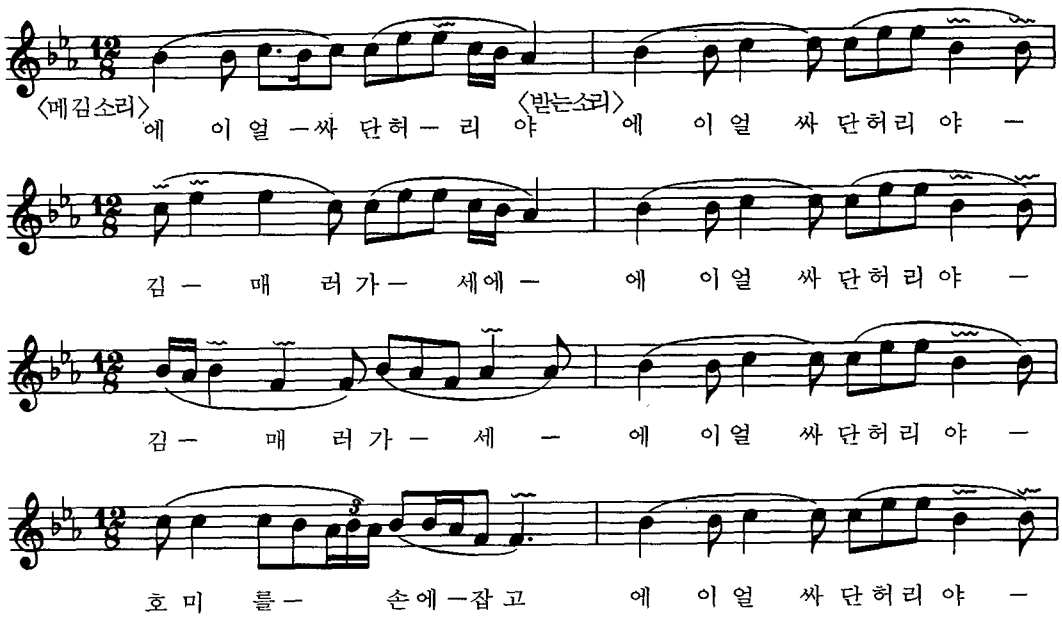
오호 논일을 하시—거— 든 정 성— 으— 로하 여 나보 세

〈註〉 上記의 모심기謠는 傳記한 모심기謠 1,2와는 다른 것으로써 이 農謠는 모심기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作業을 마무리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이렇듯 이 農謠는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歌唱者마다 自身의 表現力이나 暗記力에 의해서 서로가 特異하게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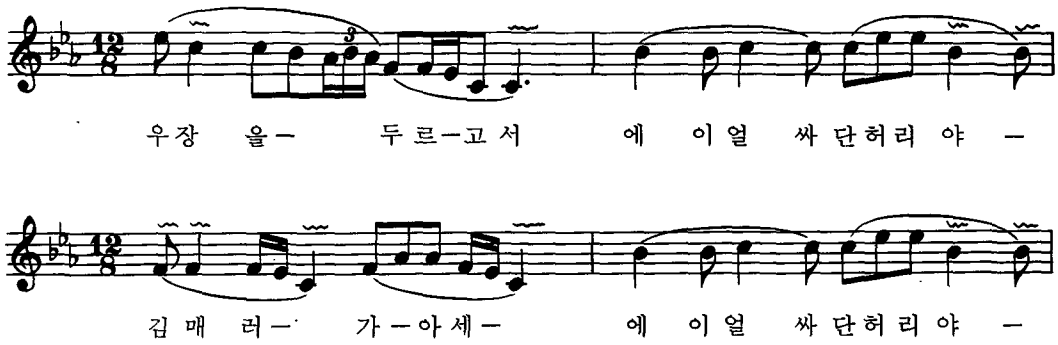
우리 農夫가 생전할일
농사가 아니면 그 무엇이 있나
여보시오 농부님네들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들 보게
우리 농부는 농사뿐인데
농사가 싫으면 失言이지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한말씀 들어나보게
이논빼미 얼굴매고
장구배미로 넘어들 가세
서마지기 논빼미가
얼마만큼 남았는가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는데
네가무슨 반달이냐
여보시오 벗님네야
오늘 하루도 저무는데
어느세월 다매어서
팔월추수 하여볼까
하늘보고 한번매고
하늘보고 두번매고
여보시오 농부님네들
이내 말씀을 들어나보게
저기저기 저산으로
일작서산 해가지면
오늘하루 저무는데
내일은 또 어디서 놀까.

〈1986.9.오포에서 授錄〉

※김매기謠〈두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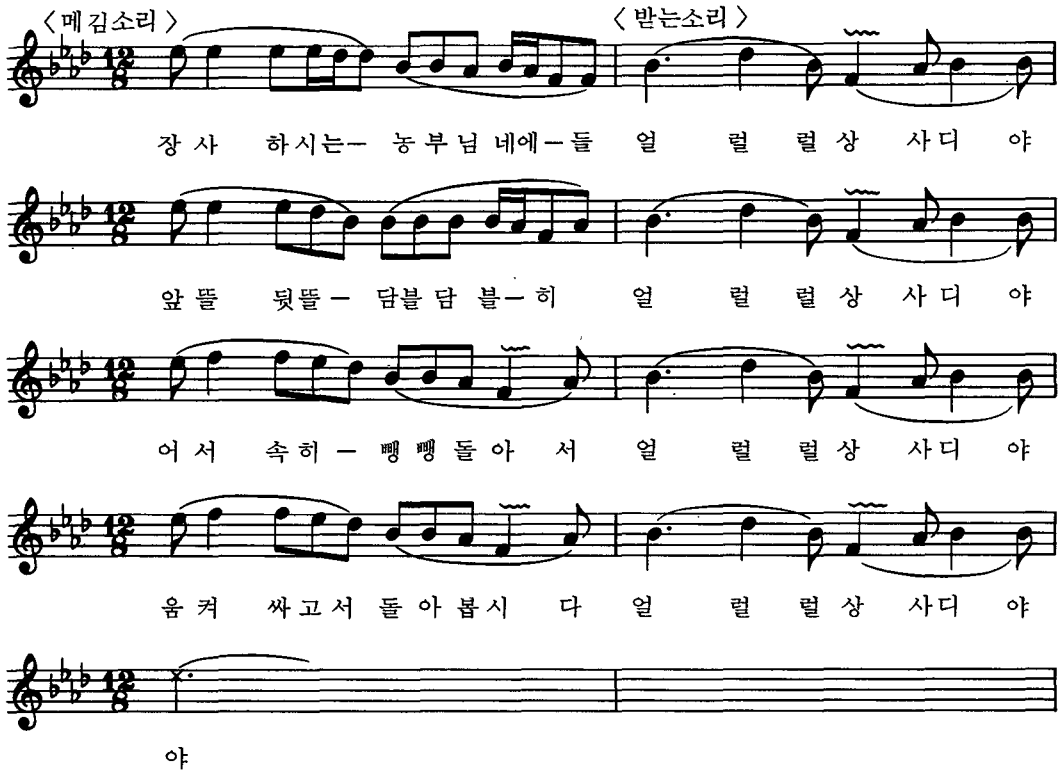
〈註〉 上記의 김매기 謠는 前記한 모심기 그와 同一한 歌唱者가 부른 것을 授錄한 것으로써 그 辭設이 흡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俗謠는 特定한 旋律이나 辭設이 없이 唱者의 技倆에 따라서 그때 그때 편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같은 動作을 계속해야 하는 지루함을 잊고자 하는 뜻에서 創出된 것으로써 쉽게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을 수 있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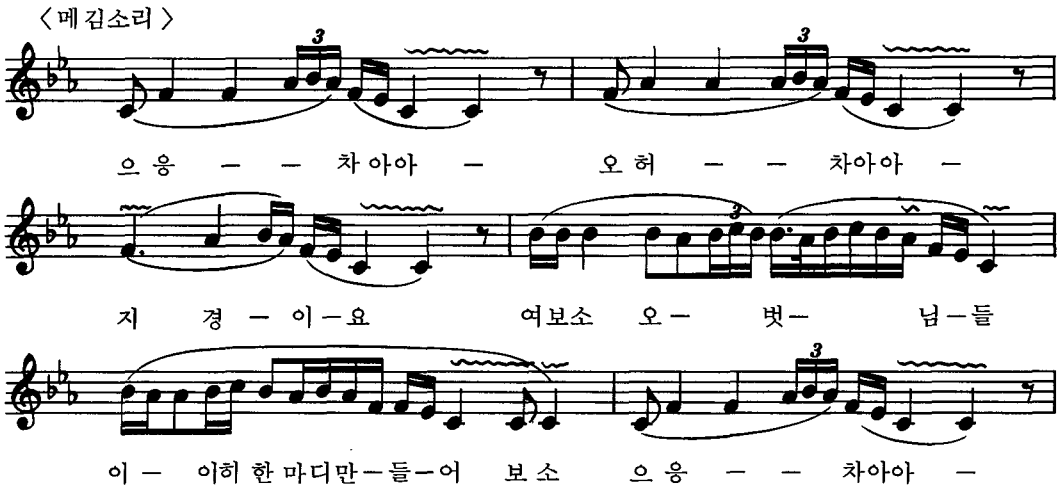
저 건너 갈미봉에
검은구름 끼었으니
소나기가 몰려오니
우장을 두르게나
저구름이 비가되면
우리 농부들 흥이나네
에이얼싸 단터리야
지화좋다 얼씨구나
여보시오 농부들아
다음 논으로 넘어가면
김서방네 마나님이
엉덩이를 실룩이며
점심참을 내올꺼나
점심이야 오련마는
우리임을 아니오네
명년삼월 꽃이피면
그즈넉에 오시려나
에이얼싸 단허리야
얼싸소리가 절로난다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은 들어보소
농사하고 하는것이
천하에 근본이니
우리농부 평생할일
농사밖에 더있는가
에이얼싸 단허리야

〈1986.9.廣州邑에서 授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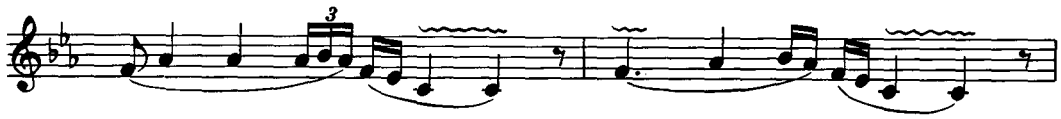
※김매기謠〈세벌매기〉



※地硬謠



〈註〉 前記한 農謠에서 나타나듯 같은 辭設과 흡사한 旋律이라 하더라도 技藝人의 技倆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使用하고 있다. 地方에 散在해 나타나고 있는 수 많은 俗謠는 그것이 어떠한 形態를 나타나던지 作業을 함에 있어서 지리함을 잊기 위한 方法으로 使用되었으며 現場에서 創出되고 現場에서 再創出하는 反復過程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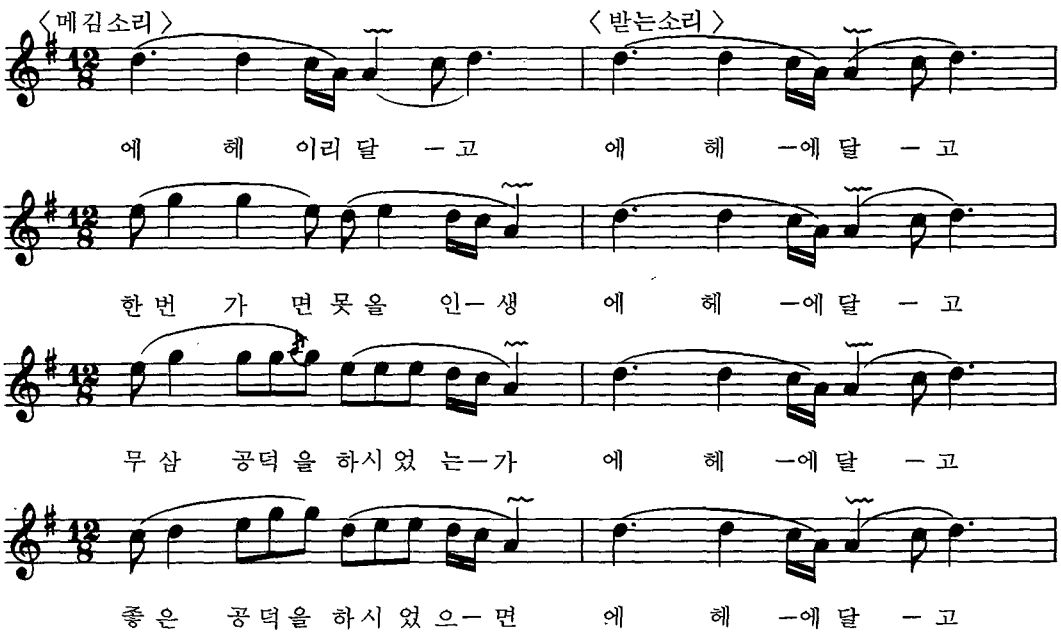


이터전을 마련하고
고대광실 집을지어
百年千年 살아갈때
堂上父母는 千年壽요
膝下子孫은 萬歲榮이라
여보시오 벗님네야
세상만사 모든일이
인간으로 안되는데
우리같은 늙은이야
이제라도 정신차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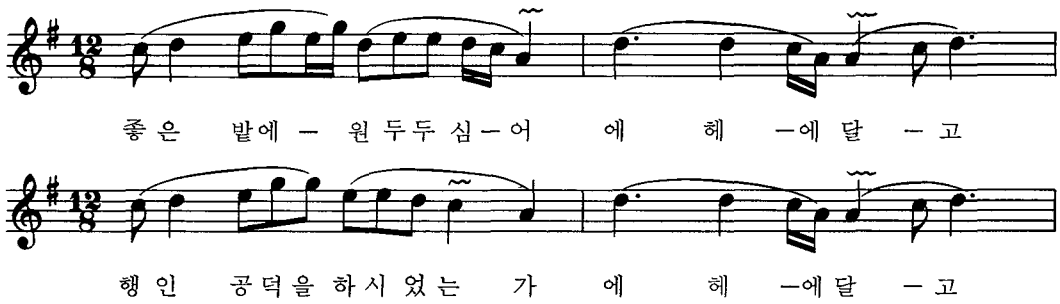
父母님께 孝道하고
妻子들을 다스려서
이터전을 빛내볼때
어화세상 벗님네야
지경줄을 높이들어
하나로다 덜컥놓고
지경줄을 높이들어
둘이로다 덜컥놓아
이터전을 다져주세

〈1986.8.실촌에서 授錄〉

※회방아타령(달고질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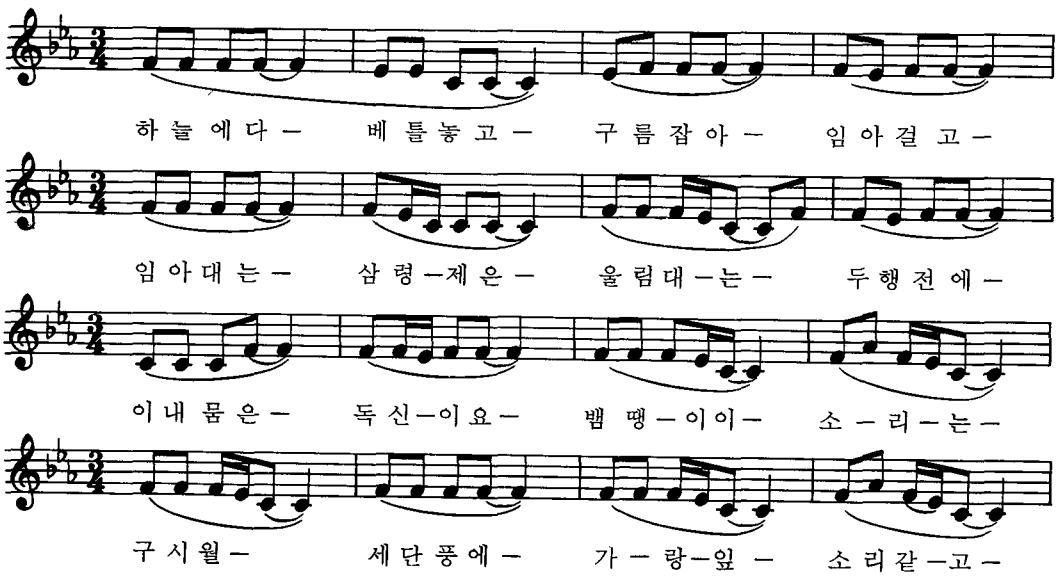
〈註〉 上記의 地硬謠는 앞의 地硬닦기에서 紹介한 地硬謠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地硬謠는 일부 地硬에서는 김매기謠라도 使用하고 있어서 作業謠가 지니는 多樣함을 엿 볼 수 있다. 이 地硬謠는 地硬을 다지면서 춤을 추며 부르는 것으로 作業謠의 멋을 最大限으로 나타나는 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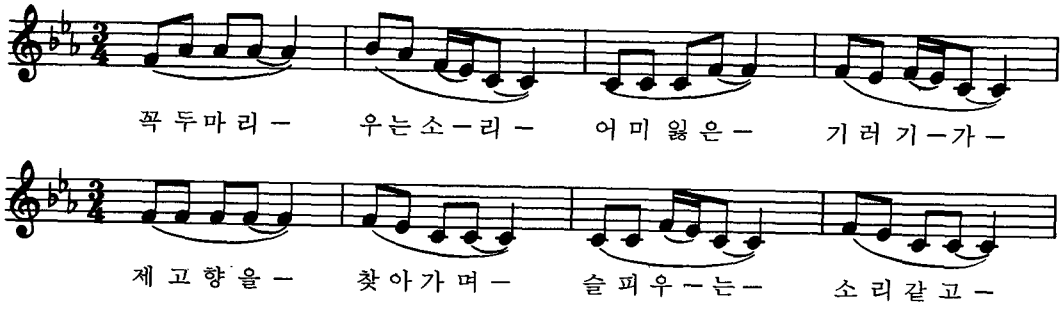


헐벗음이 옷을주어
의복공덕을 하였는가
배고픈이 밥을주어
급식공덕을 하였는가
목마름이 물을주어
급수공덕을 하였는가
월천강에 다리놓아
원천공덕 하였는가
높은곳에 절을지어
염불공덕을 하였는가
여보시오 벗님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터전에 유택을 마련하니
천하제일 명당이라
長壽峯이 비쳤으니
堂上父母는 千年壽요
子孫峯이 비쳤으니
膝下子孫은 萬歲榮이요
露積峯이 비쳤으니
萬석臣富 날것이요
文筆峯이 비쳤으니
文章才士 날것인데
천하제일 명당임이
이아니나 분명한가

〈1986.10.오포에서 授錄〉

※베틀노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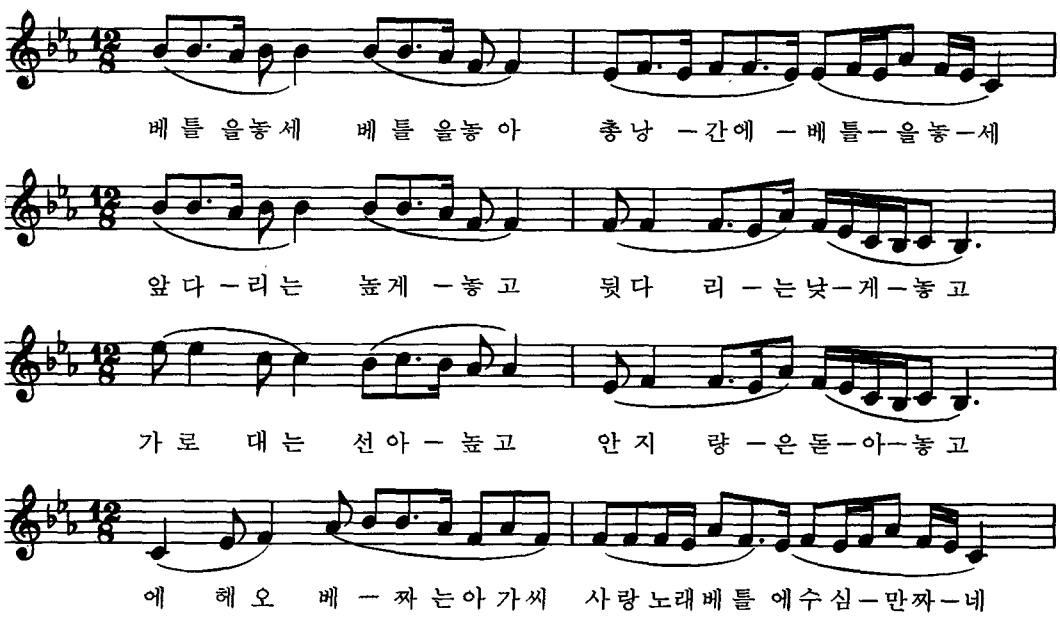




바다집을 치는소리
봉황이 제짝잃고
우짖는 소리같고
후영굽은 체활은
서천에 무지개같고

담방담방 조절새는
남쪽으로 나서는듯
북쪽으로 나서는듯
밀대막대 드문드문
제수방에 드나든다

※베틀노래〈2〉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인데
일광단 월광단 다짜 가지고
우리서방님 옷이나 지어나볼까
에헤이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구시월 세단둥에
가랑잎 소리도 처량만하고
어미잃은 기러기는
저리도 처량히 어미를 찾는데
에헤이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지누라

암방담방 조절새는
이리저리로 움직이고
밀대막대도 왔다갔다
제수방에 드나드는데
우리임은 어째서 아니오시나
에헤이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라

〈1986.8.東部邑에서 採錄〉

위의 事項은 그 地方의 特徵있는 形態와 歌唱者 個人의 技藝力에 따라서 特徵있는 俗謠를 硏究하고 發掘하여 保存하고자 할 때는 必히 지켜져야 할 事項이며 民謠集이나 俗謠集은 노래집이므로 반드시 樂譜가 첨부되어야만 그 價値를 갖게 되는 것으로써 자칫 後孫들에게 傳承民俗文化를 그릇되게 알려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註〉 上記의 베틀가 1,2는 俗謠의 特徵을 단적으로 表現하는 것으로 1은 過去의 전형적인 婦女謠의 하나로써 입속에서 웅얼거리듯 口誦되는 것으로 特異한 旋律이 없으며 그는 民謠로 定着한 베틀가의 영향을 받아 最近에 새로 나타난 旋律이다. 이렇듯 俗謠는 정해진 旋律이나 辭設이 없이 그때 그때 必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한 作業은 하면서 지리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과,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은 共同作業을 하는 農謠나 地硬謠 회방아타령등은 行動을 統一시키자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俗謠는 現場을 잃게 되자 점차 消滅되어 요즈음에는 그 斷絶을 目前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昨今에 들어서 傳統文化의 發掘, 保存傳承이라는 時流에 힘입어 많은 地域에서 俗謠를 發掘하여 民謠集을 刊行하는 일이 꾁이나 多幸스런 일이나 자칫 그 民謠集 自體에 問題가 있어 옳바른 구실을 못하는 점도 있다. 俗謠는 地域的인 特徵보다는 歌唱者 個人의 技倆에 따른 旋律의 表現이나 辭設의 表現에 더 큰 意味가 있는 것으로써 民謠集은 반드시 樂譜가 첨부되어야 하며 言語의 變質을 바로잡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樂譜는 커녕 發音을 하는데로 적어 保存이 아닌 파괴행위가 피고 있는 實情이다. 자칫 口碑文學的인 측면으로만 다른 경우에는 旋律을 지니는 俗謠가 그 辭設만으로 保存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一部 地方에서 樂譜를 병행해서 發刊한 民謠集이 있긴 하나 洋樂의 方法으로 採譜해 놓아 再現 過程에서 전혀 傳統的인 俗謠가 아닌 딴 소리로 變化하는 경우도 있어 專門家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렇듯 地方의 俗謠를 올바르게 發掘保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事項을 必히 重視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發掘은 傳統音樂을 습득한 專門家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中間에 變化가 되었거나 地方의 特徵을 때우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樂譜가 첨부되어야 한다.

셋째, 辭設이 틀리는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넷째, 그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는 그 地方의 巫儀式에서 나타나는 巫歌나 巫俗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그 地方의 巫歌나 巫俗에 대한 硏究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祭儀性民俗

10. 재도드미

● 槪 要

地域에 따라서 재돋음, 재도드미, 재떨이 等으로 나타나는 이 儀式은 그 말의 어원은 확실치가 않가.

이 재도드미는 名門大家나 地方의 土家에서 喪이 나면 나타나는 儀式으로써 發靷이 되기 하루 전에 빈 상여를 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故人의 極樂往生을 빌고 路資를 念出하여서 喪家에 주든지 아니면 洞里의 共同 資金으로 利用하기도 하는 祭天性民俗이다.

이 재도드미의 儀式은 京畿道, 廣州, 利川, 龍仁, 驪州와 忠淸道의 錦山, 慶尙道의 一部地域과 江原道 等에서 나타나는데 地域마다 그 行하는 儀式이 서로 다르다.

京畿道의 驪州나 利川에서는 집집마다 다니며 술을 얻어 마시고, 廣州나 龍仁에서는 路資를 염出하고 있으며, 忠淸南道 錦山에서는 집집마다 다니며 돈을 걷어서 喪家에 주어 장례비에 보태고 있으고, 江原道에서는 喪家의 門前에서 빈 상여를 메고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노닐기도 한다.

이렇듯 地域에 따라서 特異하게 나타나는 이 儀式은 대개 名門巨族의 집에서 喪이 나거나 地方의 五豪에게서 喪이 났을 경우에 그 집안의 富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한 方法으로 나타나고 있어 好喪이었을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儀式은 喪家의 門前에서 발인이 되기 하루 전날에 洞里의 住民들이 모여서 가짜 喪主를 뽑아 喪服을 입힌 後에 빈 상여를 꾸며서 喪廳에 대고 四拜한 後 回心曲을 부르고 나서 洞里의 親戚집이나 평소에 親分이 드텁던 집을 다니면서 路資라고 하여 資金을 염出하는 것으로 一部 地域에서는 이 상여꾼들이 하도 짖궂게 굴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피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 儀式의 目的은 평소 故人의 德을 추모하고 往生極樂과 人道幼生을 그 目的으로 創出되었으나 그 보다는 家門의 富貴를 자랑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 廣州의 재돋음

廣州는 百濟때부터 王都로써 많은 名門巨族과 地方의 土豪들이 자리잡았던 곳이며 現在까지도 그러한 집안들이 脈을 잇고 있는 고장이다.

더욱 廣州에는 우리의 歷史 속에서 重要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의 墓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과 십수년 前만 하여도 이 儀式이 곳곳에서 나타나곤 하던 고장이다. 이 재돋음의 儀式은 집안의 권세를 자랑하려는 名門家에서 주로 행해지던 것으로 廣州에서는 집집마다 다니며 路資를 염出하여 洞里의 公益에 썼으며 이러한 名門巨族의 집안에서 나는 喪을 기회로 庶民層에서는 하루전을 利用하여 많은 資金을 걷었음은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好喪에는 충분한 飮食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즐겼다.

광주의 불당리에서는 요즈음에도 洞里에 喪이 나면 富貴貧賤에 關係없이 이 儀式을 擧行하고 있으며 이러한 儀式은 순수한 極樂往生을 目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演戱方法

1) 喪輿꾸미기

喪家의 門 앞에 모인 演戲隊 一行은 喪家의 門前에서 行輿를 꾸민다. 行輿는 發靷때와 똑같이 꾸미며 단지 棺이 없을 뿐이다.

선소리꾼이 喪輿에 타면 喪輿들이 일어서고 喪主는 洞里의 住民 中에서 분장을 시켜 喪輿의 뒤를 따르게 한다.

2) 回心曲

喪輿를 메고 일어서면 집 안의 喪廳을 향해서 四拜를 드리고 선소리꾼이 回心曲을 하는데 이때는 一般的인 선소리(回心曲)은 꽹과리를 치면서 하지만 이 재돋음때의 回心曲은 喪輿 위에 올라타고 요령을 흔들면서 부른다.

3) 行 輿

回心曲이 끝나고 나면 洞里의 집을 向해 行輿가 나가며 선소리꾼의 先唱에 맞추어 喪輿를 맨 사람들이 行輿家의 뒷소리를 받으면서 길을 가고 行輿가 나가는 周圍에는 횃불을 밝혀 든 사람들이 따르며 喪主도 그 뒤를 따른다.

4) 門前儀式

洞里의 目的한 집에 一行이 倒着하면 行輿는 門 앞에서 門前 儀式이 벌어지는데 行輿歌는 계속 부르면서 喪輿의 좌측을 맨 사람들을 오른쪽 부름을 끓고 앉고 우측을 맨 사람들은 왼쪽 무릎을 끓고 앉는다. 이때 喪主로 분장한 洞里의 住民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路資를 염出하고 洞里의 住民들은 나와서 故人의 명복을 빌고 평소의 德을 추앙하는 말을 한다.

5) 길닦음

집을 떠날때는 喪輿의 앞을 깊숙히 숙여서 二拜 반을 하고 다시 다음 집으로 向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며 똑 같은 儀式을 反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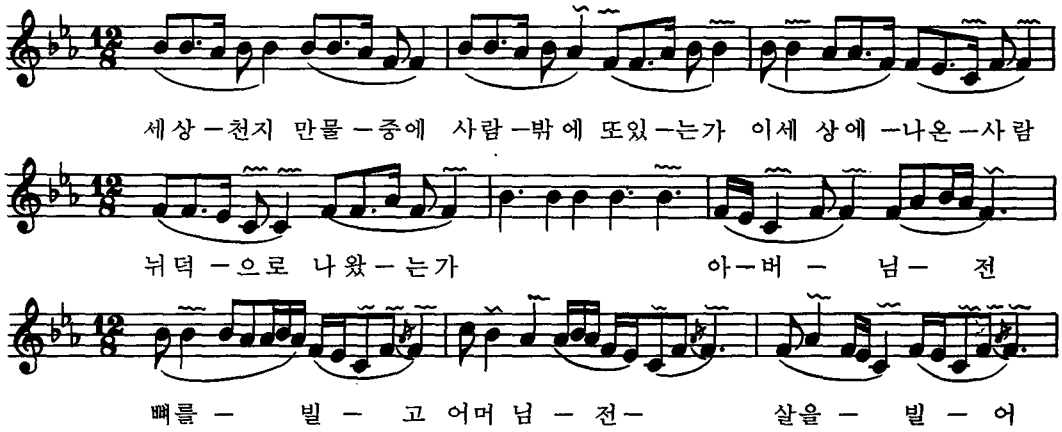
6) 뒷풀이

洞里의 집집마다 다니며 資金을 염출한 一行은 喪家의 집 門前으로 다시 돌아와서 뒷풀이를 펼치는데 선소리꾼이 내려서 북을 메고 자즌行輿歌를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으면서 빈 喪輿를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한데 어우러져 輿을 돋운다. 이 儀式이 벌어질 때는 喪家에서 많은 술과 飮食을 준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기며 故人을 추모하고 喪中에 있는 사람들을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創出된 아름다운 祭儀性民俗이다.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선 소 리 꾼	1	검은건,바지저고리,행전,검은더거리,짚신
상 여 꾼	12－16	건,바지저고리,행전,짚신
상 제	2 － 3	굴건제복
횃 불 잡 이	6 － 8	건,바지저고리,행전,짚신
洞 里 住 民 들	다 수	일반적인 남,녀복색

※回心曲



七星님전 命을받고
帝釋님전 福을받아
釋迦如來 功德으로
이내一身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 몰라
父母恩功 못다갚고
無情世月 如流하여
二十三年 當倒해도
父母恩功 못다갚고
원수白髮 달려드니
父母恩功 어이하리
人間八十 고작이라
없던망녕 절로난다.
二八靑春 少年들아
白髮보고 웃지마라
눈어둡고 귀어둡다
망녕이라 웃는모양
절통하고 애닯고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홍안백발 되었으니
다시젊진 못하나니
人間百年 산다해도
잠든날과 병든날과
근심걱정 다제하면
단사십을 못사노니

어제오는 성든몸이
저녁나절 病이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나니 沒水로다
인삼녹용 약을쓴들
藥德이나 있을소냐
巫女불러 굿을한들
굿덕이나 입을쏘냐
소경불러 經읽은들
經德이나 입을쏘냐
名山大川 찾아가서
處米쌀을 싸가지고
上渴水에 머리감고
中渴水에 沐浴하고
下渴水에 手足씻고
향로불을 밝혀놓고
燒紙삼장 올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衆生이 비나이다.
七星님전 發願하고
부처님께 공양한들
어느부처 感動할까
第一殿에 秦先大王
第二殿에 初江大王
第三殿에 宋帝大王
第四殿에 五官大主
弟五殿에 閻羅大王
弟六殿에 變成大王
弟七殿에 泰山大王
弟八殿에 平等大王
弟九殿에 都市大王
弟十殿에 轉輪大王
十大王이 부린使者
저使者님 擧動보소
十大王의 命을받고
곧은길로 내달아서
한손에는 배자들고

한손에는 망치들고
오랏줄을 높이들고
활등같이 굽은길을
살대같이 달려들어
닫은방문 걷어차고
姓名三字 呼令한다
어서바삐 나오거라
어서바삐 나오거라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영이라 거절하리
팔뚝같은 쇠사슬로
실날같은 이내몸을
정신없이 끌어내니
魂飛魄散 나죽겠소
여보시오 사자님네
살려주오 살려주오
萬端으로 事情해도
저使者가 들을쏘냐
여보시오 使者님네
점심이나 들고가소
신발이나 신고가세
기를쓰고 애원해도
저使者가 들을소냐
너무나도 無情하고
너무나도 답답구나
불쌍하다 이내鬼神
明沙十里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明年三月 돌아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人生한번 죽어지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이世上을 下直하고
地郎山川 어이갈까
멀고도먼 저승길을
어느歲月 다갈꺼나
일대귀족 손을잡고

萬端說話 遺傳하고
精神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을 높이걸고
至誠으로 救患한들
죽을병이 살을손가
옛聖人들 말들으면
저승길이 멀다던데
大門밖이 저승이라
친구벗이 많다한구들
어느친구 대신가며
一家親戚 많다지만
어느누가 同行하리
舊祠堂에 參禮한후
大門밖을 썩나서니
적삼벗어 招魂하니
없던哭聲 낭자하다
일직사자 앞을서고
월직사자 등을밀어
천방지축 몰아가니
갈길조차 망연쿠나
어느歲月 지나갔나
저승원문 當到하니
무섭기가 한이없고
두렵기도 끝이없네
옥사정이 분배하고
감옥형이 나림할때
앞에대상 바라보니
十大王이 坐定하고
崔判官이 文書잡고
鬼面청정 나졸들이
형벌기구 차려놓고
참기검극 삼엄한데
저혼령을 불러들여
문죄수피 하는구나
人間世上 나갈적에
善心功德 한다하고
人道幼生하더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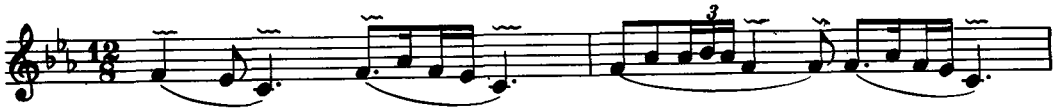
무슨功德 하였느냐
바른대로 아뢰어라
추상같이 호령한다
용강비간 본을받아
하시극간 忠誠하며
父母님께 孝道하고
夫和婦順 和睦하고
이웃간에 親切하여
善心功德 한다더니
무슨功德 하였느냐
배고픈이 밥을주어
기사공덕 하였느냐
헐벗음이 옷을주어
極樂善心 하였느냐
大路邊에 院을지어
行人유숙 시켰느냐
목마른이 물을주어
급수공덕 하였느냐
病든人間 藥을주어
活人功德 하였느냐
깊은물에 다리놓아
越川功德 하였느냐
높은山에 佛堂지어
衆生救濟 하였느냐
부처님전 發願하여
念佛功德 하였느냐
바른대로 아뢰어라
죄진경등 살펴가며
낱낱이도 가려낼때
今世上에 나왔다가
父母님께 不孝하고
同氣間에 不睦하고
子孫에게 불경하여
못한일을 많이한자
極樂世界 젖혀두고
地獄으로 보낸後에
今世上에 나왔다가

父母님께 孝道하고
同氣間에 友愛하고
夫婦間에 琴瑟좋아
원앙녹수 짝을지어
高台廣室 높은집에
膝下子孫 거느리고
萬歲同樂 지낼적에
善心功德 많이한자
반야용선 배를띄워
往生極樂 보낸다네
今世上에 나왔다가
타고난명 못다살고
타고남복 못다입고
못다입고 못다쓰고
黃泉客이 되셨으니
저기오신 저祖上님
저기오신 저亡者님
저祖上의 擧動보소
신체해골 찾아가니
육신장포 두루말아
저기오신 저祖上님
저기오신 저亡者님
저祖上의 擧動보소
신체해골 찾아가니
육신장포 두루말아
일곱마디 질끈묶어
北邙山에 누웠으니
송죽으로 울을삼고
적적무인 누었으니
군정의 슬픈소리
없던한숨 절로난다
이世上에 태어나서
恨도많고 怨도많아
往生極樂 돌아갈때
가시덤불 걸려들면
往生極樂 못하오니
부처님의 뒤를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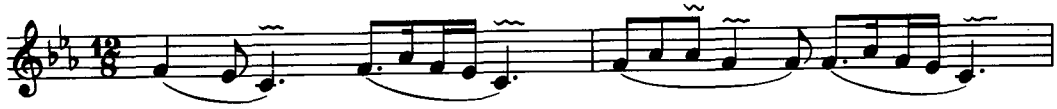
서수천명 하옵소서

〈1986.9.실촌면 곤지암리 女巫 김태옥(57歲)口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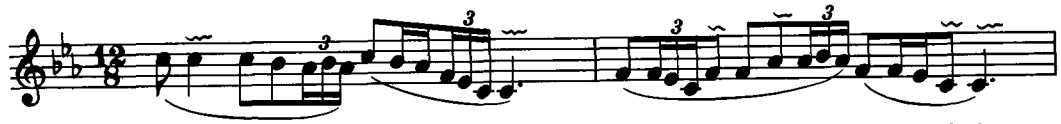
※行輿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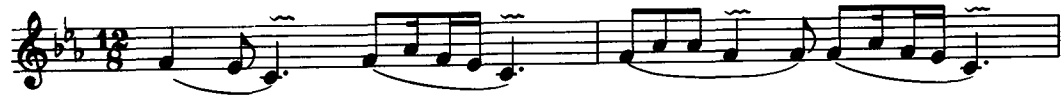
〈메김소리〉오 허 아 오 허어 — 아 어 기 야 — 넘 차 어 허어 —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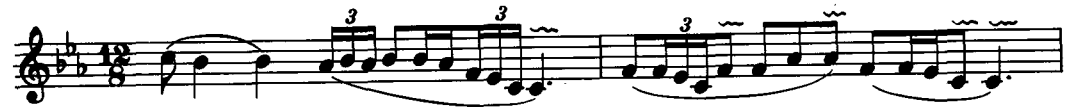
〈받음소리〉오 허 아 오 허어 — 아 어 기 야 넘 차 어 허어 —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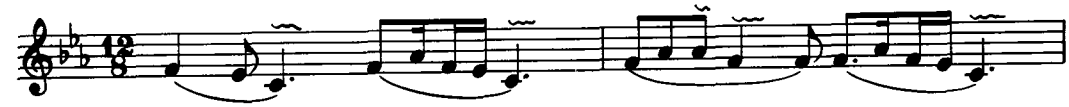
〈메김소리〉나 는 가네 — 나는 — 가 — 네 북망 — 산 으로 — 나 는 — 가네



〈받음소리〉오 허 아 오 허어 — 아 어 기 야 넘 차 어 허어 — 아



〈메김소리〉저 승 길 이 — 멀 다 — 더 — 니 대 문 — 밖 — 이 저 승 — 일 세



〈받음소리〉오 허 아 오 허어 — 아 어 기 야 넘 차 어 허어 — 아

이제가면 언제오나
다시올길 전혀없네
明沙十里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明年三月 다시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한번아차 죽어지면
어느歲月 다시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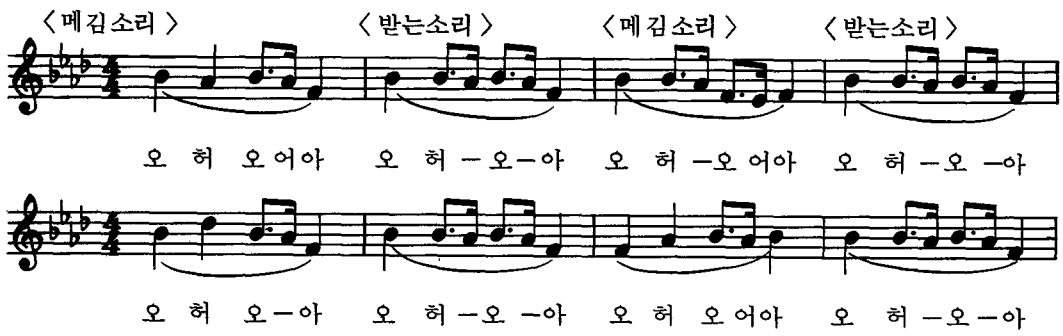
屛風속에 걸린달이
滿月되면 오겠느냐
가마솥에 삶은개가
짖으며는 오겠느냐
횃대끝에 앉은닭이
홰를치면 오겠느냐
속절없어 애닯고나
다시오진 못하는데

이세상에 태어나서
功德한번 못해보고
저승원문 당도하니
저승使者 불호령에
十大王이 命하누나
애고애고 설어워라
父母兄弟 있다해도
어느누가 대신가며
一家親戚 많다해도
어느누가 同行할까
親舊들이 있다해도
어느親舊 登場거리
죽어지니 虛事로다
여보시오 벗님네야
이내말좀 들어보소
이世上에 태어날때
뉘덕으로 나왔는가
하느님전 命을받고
칠성님전 命을받고
제석님전 복을받고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이세상에 태어날때
十朔日을 고이채워
이세상에 태였는데
한두살에 철을몰라
보모은공 못다갚고
이삼십을 당도해도
부모恩功 못다갚고
人生八十 되고보니
父母恩功 어찌갚나
아침나절 성튼몸이
저녁나절 病이들어
죽어지니 虛事로다
여보시오 벗님네야
이내몸은 죽어져서
北邙山川 가오이다

죽어져서 후회말고
살아생전 지내실때
父母님께 孝道하고
兄弟間에 友愛하고
一家親戚 和睦하고
이웃간에 情이있어
善心功德 많이하고
往生極樂 念佛하고
人道幼生 努力하세
나는가오 나는가오
父母妻子 다버리고
저승으로 나는가오
북망산에 나는가오

〈1986.10.東部邑에서 授錄〉

※잦은行輿歌



第3節 其他 傳承民俗놀이

우리나라의 傳承놀이는 地域的인 特徵을 보이고 있는 것 외에도 季節的으로나 아니면 年中 어느때고 男女老少가 모여서 즐기던 놀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놀이들이 昨今에 들어서는 오락기구의 발달과 각종 위락시설로 인해 점차 잊혀져 가고 있고 많은 놀이장소를 잃어 거의 斷絶되다싶이 했지만 過去의 우리네 祖上들은 이러한 놀이를 즐기면서 서로의 友愛를 두텁게 하고 相扶相助하는 美德을 일깨웠던 것이다. 그 많은 傳承놀이 中에서 간추려

〈註〉 上記의 잦은行輿歌는 꼭 재돋음의 儀式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一般的인 行輿에 먼거리를 단시간에 移動하고자 할 때도 使用한다.
이 잦은行輿歌는 辭設이 없이 메기고 받는 소리가 共通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必要에 따라서는 先唱者가 辭設을 붙이기도 한다.

紹介하고자 하는 것도 옛 記憶을 되살려 잃어가는 精神文明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고누

고누는 "고니" 또는 "꼬누"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한자로는 地碁 라고 한다. 이 고누는 농촌의 농민이나 어린이들이 야외 서늘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동안 땅 바닥에 말판을 그려놓고 작은 돌이나 나무가지를 꺾어 작게 말을 만들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이다. 이 고누는 단순하면서도 머리를 써야 승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지능개발에도 아주 좋은 놀이이다. 이 고누에 대한 어원이나 기원과 내력은 잘 알수 없으나 상당히 오래전부터 농촌에서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방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고누의 종류로는 우물고누, 사발고누, 오밭고누, 바퀴고누, 곤질고누 등이 있다.

1. 우물고누

우물고누는 강고누라고도 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을 넷으로 나누어 한쪽변을 없애 우물을 만들어 馬이 이곳을 건너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말을 옮겨 상대방의 말을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o" 편이 먼저 두게되면 "ㄱ"의 말이 "ㅁ"에 먼저 옮기지 못하며, "x"편이 먼저 두게되면 말을 "ㄹ"에서 "ㅁ"에 먼저 옮기지 못한다. 처음에는 "ㄴ"에서 "ㅁ"으로나 "ㄷ"에서 "ㅁ"으로나 "ㄷ"에서 "ㅁ"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

2. 사발고누

사발고누는 피차가 馬을 3개씩을 두고 이를 앞으로 전진시켜 상대방의 말을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나, 말이 자기집으로 후퇴는 하지 못하며 한 밭씩 밭에 전진 또는 옆으로 갈 수 없다. 이 사발고누는 그림과 같이 가운데 사발같은 원이 있고, 양 편에 밭을 세개씩 배치하였다가 시작하는 경기다.

3. 오발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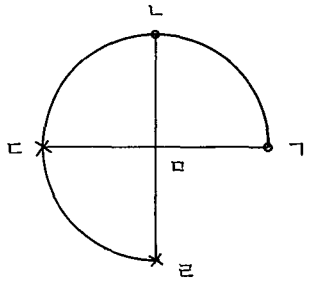
오밭고누는 가로 세로 5개선을 긋고 가운데 한 줄을 비우며 좌 우 두 줄씩 4줄에는 눈마다 작은 발을 놓는다. 가우네 맨 끝의 눈에는 장수말 하나를 놓고 장수 말이 한번 움직여 두줄 병 말은 장수 말을 움직일 수 없게 하면 이기고 장수 말을 따내면 이긴다.

4. 바퀴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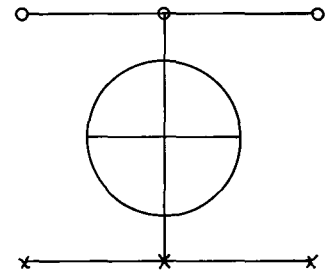
바퀴고누는 오밭고누에다 네귀에 원을 그려 넣은 것으로, 상대바의 말 1개를 직선상에서 2개의 말로 둘러 싸면 따내는 것으로, 이때 반드시 바퀴 4개중 한 곳을 돌아야 한다. 바퀴를 돌 때는 도는 말이 말 앞에 가록막는 말이 없어야 하며, 바퀴를 돌 말은 한 밭씩 두지 않고 여러 밭을 꼬너갈 수 있음이 특이하다.

5. 곤질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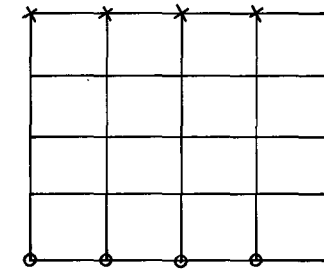
곤질고누는 참 고누라고도 말하며 그림과 같은 말판위에 두 사람이 마주앉아 두는 것으로 각 각 색깔이 다른 馬을 가지고 양편이 번갈아 말 하나씩을 말판이 교차되는 지점에 놓아 가는데 자기편의 말이 일직선 상에 3개가 되면 이것을 "곤"이라고 하여 상대편의 말을 한 개씩 제거하고 제거한 자리에 "x"자를 표기하며 이 자리에는 말을 두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말을 놓을 자리가 없게 되면 다음에는 놓여 있는 말을 움직여 "곤"을 만들고, 그때 마다 상대방의 말이 "곤"을 만들 수 없는 3개 이하가 되면 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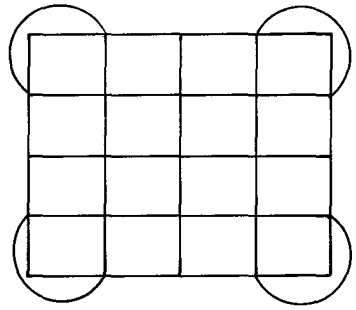
〈우물고누:강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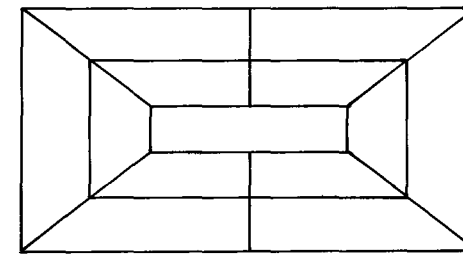
〈사발고누〉



〈오밭고누〉



〈바퀴고누〉



〈곤질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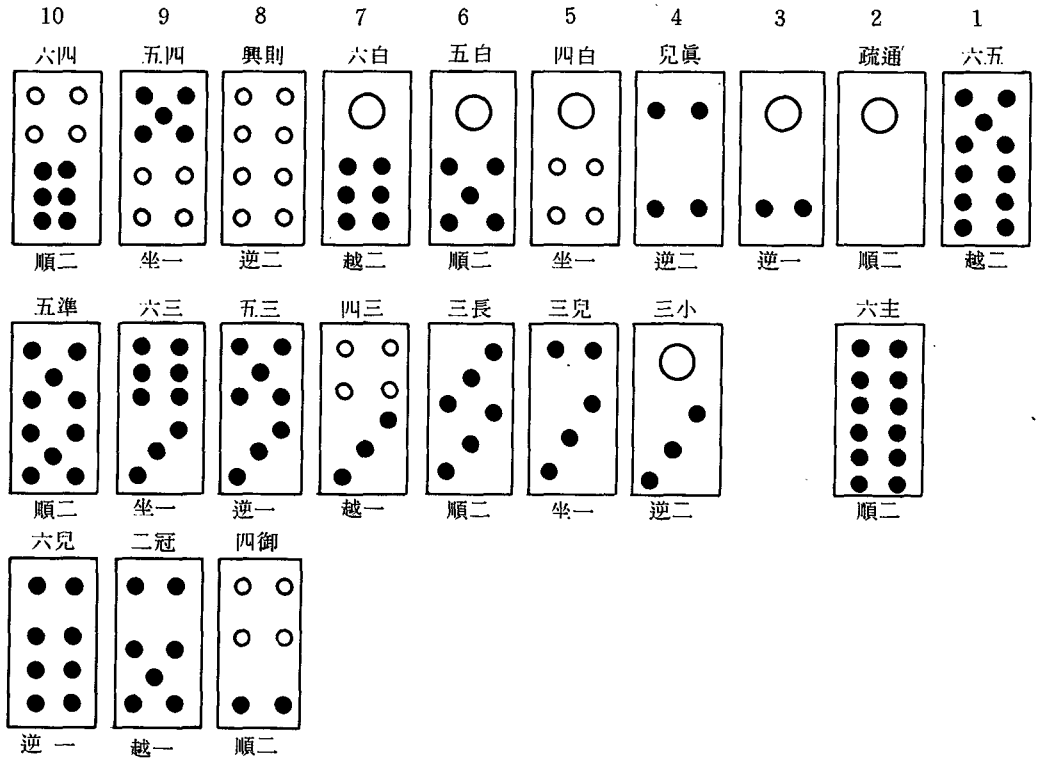
◉.고무줄 놀이

이 놀이는 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삼계절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소녀들이 가장 즐기는 놀이로 가늘고 긴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되는 놀이다. 놀이방법은 5m 정도되는 고무줄을 두아이가 마주 잡고 있으면 다른 소녀들이 모두 합창을 하면서 고무줄에서 묘기를 부린다 맨 처음에는 무릎 높이로 하고 다음은 배꼽, 가슴 마지막으로 머리에 줄을 대어 마치면 끝이 나는데 줄을 밟든지 잘못하면 실격이 된다. 노래는 보통 4분의 4박자인 노래를 합창하고 이 노래에 맞추어 고무줄을 가지각색의 형식으로 깡총깡총 뛰면서 춤을 추고 묘기를 부린다. 이렇게 하여 한 소절이 끝나면 한 계단씩 오라가 고무줄의 높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렵고 기술이 필요하나 묘기를 부려가며 사람 머리 높이에서 끝이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논다. 만약

실격이 되면 동시에 쫓겨나 고무줄을 잡아주는 소임을 맞게 된다. 이와같이 교체되어 가며 즐기는 이 놀이는 아직까지 시골 국민학교에서는 볼 수 있는 모습이다.

◉骨牌

골패는 투전과 함께 민간 놀이 기구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지만 값이 비싸고 놀이 방법이 복잡하여 투전처럼 대중화 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도 村老들이 이것을 즐기는 광경을 더러 볼 수 있다. 골패를 "骨牌"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것이 뼈로 만들어진 때문이며, 순 뼈만으로 만든 것을 민패라 하고 뒤 쪽에 대나무 조각을 붙여서 만든 것을 紗帽牌라고 한다. 골패는 백색뼈를 붙여 요즈음의 카라멜 앞같은 모양인 장방형으로 앞면에 대, 중, 소의 붉은 점과 검은 점을 파서 만든 것이니, 백아, 백사, 아삼, 아사, 란이, 아륙, 삼사, 삼오, 삼륙, 사오, 각 한 짝씨과 퉁소. 소삼. 백오. 백륙. 진아. 장삼. 직홍. 준오. 사륙. 오륙. 준륙 각 두 짝씩 모두 서른 두 짝으로 되어 있다. 골패를 하는 방법은 두 사람에서 네 사람으로 구성하여 하는데, 오늘의 마작과 비슷하다. 마작은 이 골패에서 발전된 것이며 우리나라 사모패는 마작패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골패는 물론 중국에서 건너온 놀이이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중국에서는 대략 宋代에 이것이 출연하였다고 알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골패의 모습〉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지금 성인된 여자라면 어렸을때 놀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성격을 띤 소녀들 사이에 가장 즐겨하던 놀이이다. 두 사람 이상의 어린이가 모여서 편을 갈라 놀기도 하는데, 참새알 크기의 둥근 돌이나 기왓장을 둥글게 갈아 만든 다섯개의 공기돌로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공기돌을 땅바닥이나 마루바닥 등 평평한 곳에서 손에 쥔 다섯개의 공기돌 중 하나를 공중으로 던지면서 다른 네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던졌던 공기를 받은 다음 또 다시 던지면서 땅에 떨어뜨린 공기돌을 하나씩 줍는 것을 기본으로,둘씩 두번 하나와 셋 마지막으로 넷 모두를 줍는 것으로 한 게임이 끝나고, 이어서 다음은 하나 던지고 하나 줍고, 둘 던지고 하나를 셋 던지고 마지막 하나를 줍는 것으로 두 코스의 게임이 끝난다. 다음은 앞 낳기라 하여 공기 하나를 공중에 던져 되받는 순간에 처음엔 둘은 줍고, 다음은 먼저 주운 두개를 놓음과 동시에 다른 두개를 갈아 줍는다. 이렇게 공기의 하나, 또는 둘 셋을 던지는 순간 나머지 공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실수없이 줍는 놀이인데 실수하면 다음 사람의 차례로 돌아 간다. 이 공기 놀이는 땅이나 모래 위에서 해야 하므로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고, 따뜻한 봄날 양지바른 마당가에서나 시원한 여름 정자나무 그늘 아래서 소녀들이 둘러앉아 노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놀이도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어 옛 날의 한 놀이로 변해가고 있다.

◉공치기

따뜻한 봄철이나 서늘한 가을철이면 마른 마당에서 소녀들이 즐기는 놀이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이면 개인 별로 하고 네 사람 이상이면 편을 갈라 공치기를 한다. 공치기는 조그마한 고무공을 한 손으로 땅에 튀기는데 같은 속도로 고정적으로 땅에 치며 튀어 오르는 공을 계속 치는 것으로 오른손으로 쳤다 왼손으로 쳤다 하기도 하고 공이 튀는 순간 한 다리를 들어 그 밑으로 공을 돌리기도 하고 빨리 한 바퀴 돌아서 치는 등 묘기를 모인다. 이때 노래를 부르고 그 박자에 맞춰 공치기를 하는데 노래는 다음과 같다. "우리집 여 표집 도둑괭이가 연지곤지 바르고 눈섭 그리고 연지가 없어서 사러 갈적에 서울 다리 건너 갈적에 사람이 많으니 얼른 감춰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얼른 감춰라"의 노래에 때 맞추어 공을 치마폭에 감추어 버리면 끝이 나고, 끝이 나면 이기는 것이고 실수하면 다음 차례를 바꾸어 하게 된다.

◉그림자 밟기

날씨가 맑은 가을철 달이 밝은 밤이면 동리의 마당이나 잔디밭에서 남, 여아이들이 그림자 밟기를 한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아이가 술레가 되고 다른 여러 아이는 피하는 아이가 된다 인원에 제한이 없고 5명이상 10명이 즐길 수 있는데 술레는 달아나는 아이들의 그림자를 밟기 위하여 쫓아 다닌다. 이때 여러 아이들이 자기의 그림자를 밟히지 않으려고 요리 조리 피하면서 술레를 희롱한다. 그러는 동안 술레에게 그림자를 밝히면 밟힌자가 술레가 되어 다시 또 밟기 위하여 열심히 뛴다. 이렇게 술레는 도망자가 되고, 도망자는 술레가 되는 것이 반복되는 동안 가을 밤은 깊어가게 된다.

◉낫치기

이 낫치기는 농촌의 청소년 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 들에 꼴을 베러가서 풀이나 나무

를 따먹는 놀이이다. 놓고 참여한 전원이 일렬로 나란히 서서 그 선을 넘게 낫을 일제히 던져 낫이 땅에 꽂혀 서게 되면 이기게 되고 꽂히지 않고 넘어지면 지게 된다. 이 낫치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 하여 기술적으로 던져야 낫이 꽂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긴 사람은 진 사람들이 나무 한단씩을 바치면 그냥 놀다가 지고만 오면 되는 것이다. 이 놀이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나무 하여주기, 꼴 대신 베어주기, 나뭇짐 날라주기, 술사기 등 다양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낫도 벼 베는데다 필요하지 거의 쓰지않고 있으며, 더구나 나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놀이 자체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닭싸움(鬪鷄)

닭싸움 하면 鬪鷄와 어린이들의 놀이인 닭싸움 놀이가 있는 바 여기서는 닭들이 싸우는 투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수탉은 수탉끼리 만나면 일단 싸움부터 시작하여 한 쪽 수탉이 항복하고 순종하여야 다음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탉의 싸우는 습성을 이용하여 특별히 길들일 수탉을 싸움을 시켜 놓고 이를 구경거리로 삼거나 돈을 걸기도 한다. 이와같은 닭싸움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흔히 한다고 한다. 이 싸움은 두 마리를 원안에 집어 넣고 싸우게 하는데, 주둥이로 벼슬이나 머리를 쪼고, 발로 차면서 싸우는데 앞치기, 뒷치기 등 명칭이 있으면 주저 않거나, 주둥이가 땅에 닿거나, 도망을 치면 지게 된다. 잘 싸우는 닭들은 닭벼슬이다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너무지쳐 죽을 지경이 되도록 항복을 하지 않고 싸우는 닭들도 있다. 싸움닭으리 종류로는 인도가 원산인 "샤모"와 일본산인 "한두", 그리고 한두와 재래종의 잡종인 "우두리"등이 있다. 이 닭들의 투지를 기르기 위해 미꾸라지와 달걀, 심지어 뱀까지 잡아 먹이고, 독하게 싸우라고 밥에 매운 고추장을 비벼서 먹이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이긴 닭의 주인은 좋아서 어쩔줄 모르나, 진편의 닭 주인은 시무룩 하니 힘이 빠진다. 이 닭싸움은 편을 갈라 닭에다 돈을 걸거나, 다른 내기를 하여 이긴 닭에 건 편에서 돈을 가져 가거나 승리하여 기쁨을 만끽한다. 지금은 닭싸움도 보기 힘든 놀이가 되고 말았다.

◉닭 잡기놀이

닭잡기 놀이는 침략자로부터 약한자를 공동으로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놀이로 10여명 이상이 즐길 수 있다. 봄과 여름 밤과 가을 춥지 않을때 10세 내외의 아이들이 동리 마당이나 강변 모래사장에서 닭잡기 놀이를 하는데, 10명이상 모인 어린이들이 양손을 잡아 원을 만들고, 닭과 솔개를 한 사람씩 정해, 닭은 원안에 들어가고 솔개는 원 밖에 서서 원안에 있는 닭을 잡기 위해 원을 뚫고 들어가려 하고, 원을 만든 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때 원을 그린 아이들은 밖을 보고 서 있으며, 밖에 있는 솔개는 안에 있는 닭을 보고 "닭아! 닭아! 달걀몇개나 있니?"하면 "열개 있다."하고 대답한다. 또 솔개는 닭에게 "달걀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하면 닭은 "못 주겠다"하고 대답하면, 솔개가 "야아"하고 소리치며 원내의 닭은 잡으러 달려든다. 닭은 안잡히려고 피하고, 솔개는 잡으려 대들며, 원을 그린 아이들은 손목을 더욱 꼭 잡고 원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낸다. 이렇게 하는 동안 솔개에게 닭이 잡히면 닭이 솔개가 되며, 솔개는 원형을 만드는 아이들속에 들어가고, 원에 있던 아이가 닭이 되어 들어간다. 이런 놀이는 팔월달이 밝은 밤이면, 밤이 이슥 하도록재미있게 즐겼다.

◉딱지치기

동네의 골목에서나 길가 또는 놀이마당에서는 열살 남짓 된 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딱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딱지 치기는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이 있지만, 이는 보루지에다 앞면에는 만화 같은 것을 그리고, 그 뒷면 ㄴ에는 단일색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화투장 두배 정도록 잘라서 만들었다. 그러나 거의 소년들은 구입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헌책을 뜯어 두장을 반으로 접어서 정사각형의 딱지를 만들어 쳤다. 딱지 치는 방법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다음 각자 한 장씩을 깔아 놓은 딱지를 맨 처음 순번자가 자기 딱지로 땅에 매어치어 다른 사람의 딱지를 뒤집어 엎으면 파먹는 것이다. 이때 후려치는 힘과 바람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람을 내게 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에도 윗 저고리 단추를 풀어 젖히고 그 바람을 이용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맨 처음 순번자가 다 따먹으면 다시 깔고 시작하지만 첫 순번자가 다 따먹지 못하면 다음 순번자가 치게 된다.

이와같이 치다보면 딱지가 왔다 갔다 하여 많이 딴 사람은 보자기에 하나가 될 때도 있다. 이 놀이는 얼마전까지 마을의 골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다.

◉땅 빼앗기

땅 빼앗기는 따스한 봄철 양지바른 마당에서나, 여름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소녀들이 하는 놀이로서 생활의 터전인 흙과 친하기 위함과 토지에 대한 점유욕의 뜻이 담겨 있다. 땅 빼앗기는 농경사회의 어린이들의 놀이로, 둘또는 그 이상의 짝을 지어 땅바닥에 직경 1m 정도의 원을 그리고 그 원안에 손바닥 넓이의 반원형을 여러개로 나누어 그린 다음, 각기 자기앞에 자기 집을 정하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 다음 조그마한 돌이나 사금파리로 말을 자기 집에서 튕겨 연접해 있는 구획의 선안에 넣어 한 구획 한 구획 지워 가며 판다. 더 이상 파먹을 땅이 없어지면 자기 말로 상대방의 말을 맞추어 더 확장해 나가기도 한다. 이때 말은 손가락으로 튕겨서 선 밖으로 나가거나 목적한 곳을 넘어 가면 실격이 되어 다음 차례가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나중에 자기 경계선에서 상대방의 집에 있는 말을 손가락으로 튕겨 맞추면 경계선에서 한 뼘씩 상대방의 땅을 점령하여 땅을 다 빼앗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

◉돈치기

이른 봄이나 겨울철에도 포근한 날에는 동네의 골목이나 큰 건물 담벼락 및 양지 바른 곳에서 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모여서 동전을 한 움큼 씩 움켜지고 돈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돈치기는 발 앞에 선을 긋고, 4~5m 떨어진 곳에도 선을 그은 다음 선에서 윗쪽 30㎝ 정도 떨어진 곳에 동전 하나가 들어 갈만한 구멍을 하나 만든다. 그 다음은 돈치기를 할 사람들이 발금을 밟고 서서 각자의 동전을 앞에 잇는 구멍을 향해 던져서 그 구멍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순위로 차례를 정하여 제일 먼쪽에 떨어진 사람이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순번을 정하면 모두에게 동전 한 잎씩을 거두어 제일 순위자가 앞에 있는 구멍을 향하여 동전 전부를 던지는데 만약 한 잎이라도 앞에 그은 선을 넘지 못하면 실격이 되어 다음 차례가 하게 된다. 동전이 앞에 그은 선을 넘으면 유효하고, 그 중에서 파놓은 구멍으로 동전이 들어가면 그 동전은 그냥 파먹게 된다. 동전을 던진 사람이 맞추기 어렵게 뿌려진 동전 중에서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지적하여 주면, 목자라 하는 손바닥 크기의 납작한 돌을 가지고 지적하여 준

동전을 맞추어야 하는데, 다른 동전을 맞추면 벌금으로 동전 하나를 내어 놓아야 하고, 지적하여 준 동전을 용케 맞추면 전부 파먹게 된다. 목자를 던지는 방법에 따라서 한 잎씩만 먹는 방법과 두 닢씩을 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엎치기"와 "평치기"등이 있다. 그런데 이 돈치기는 일종의 도박성을 띤 놀이라 권장할 만한 것은 못된다.

◉말타기

말타기는 소년들이 즐겨하는 놀이로서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 말타기 놀이는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끝까지 진 사람이 말이 되고 다음이 마부가 되는데, 마부는 말을 오른쪽 옆구리에 머리를 대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눈을 가리어 말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마부는 구부린 말을 이리 저리 몰고 다니면 다른 아이들은 잽싸게 말등에 뛰어 올라 탄다. 이때 말은 말을 타려고 접근하는 아이들을 뒷 발길질을 하여 말에 타기전에 발에 걸리면 실격이 되어, 발에 차인 아이가 말이 되고 말이 되었던 아이는 마부가 되며, 마부는 자유스런 아이가 되어 말을 탈 수 있게 된다. 이 놀이는 다소 위험성은 있으나 민첩한 동작과 기민한 판단력을 길러 주어 소년들의 좋은 놀이였다. 둘째 말타기는 소년들이 두패로 패를 갈라 각각 대장 한사람씩을 선정하여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하여 진편은 말을 만들고 이긴편은 말을 타도록 되어 있다. 말편의 대장이 벽이나 기둥에 기대어 서면 다른 사람은 대장의 허리를 잡고 구부리면 또 다른 아이도 구부려 앞 사람의 허벅지를 끼고 허리를 굽혀 길게 말을 만든다. 진편이 이렇게 말을 만들면 이긴편에서는 멀리서 달려와 말위에 올라 타는데 사람이 많으면 뒷 쪽이 여유가 있도록 앞쪽 깊숙히 타야지 만약 앞에서 깊숙히 타지 못하면 뒷 사람들이 탈 수가 없게 되고 타지 못해 떨어지면 실격이 되어 대신 말편이 타게 된다. 그 반면 마이 힘을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면 다시 말을 만들고 또 뛰어 올라 타야 한다. 이렇게 하여 말도 허물어 지지 않고 타던 사람도 떨어지지 않으면 벽에 기대에 선 말편의 대장과, 제일 먼저 탄 사람과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승자는 다시 말을 타고 패자는 또 말을 만들어야 한다. 이 놀이는 자칫 허리를 다칠 위험성도 있으나 순발력과 기개를 키우는 좋은 놀이라 하겠다.

◉매미잡기

옛날에는 지금처럼 모기장으로 만든 포충망이 없었기 때문에 매미를 잡기란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여름이면 나무가지에서 무더위를 식혀주는 매미소리가 한결 시원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매미를 잡지 못하여 안달을 하고, 나무에 오르지만 손으로 잡으려면 번번이 실패를 할 뿐만 아니라 매미가 날아가며 갈겨대는 오줌 세례만 받기 일쑤다. 그래서 손으로 잡지 않고 매미채를 만들어 잡게 되는데, 매미채는 주로 말총이나 소 꼬리에 있는 긴털을 뽑아서 올가미를 만든다. 소꼬리털도 암소털 보다는 황소의 것이 질겨서 인기가 있는데, 무더위를 피해소를 그늘에 매어 두면 그 소는 마을 아이들에 의해 수난을 당한다. 아이들은 소 등을 슬슬 긁어 주면서 안심을 시킨다음, 살금 살금 뒤로 돌아가 늘어져 있는 소 꼬리를 잡고 긴 털을 뽑는데 가장 길고 붉은 색이 나는 털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긴 털만 뽑아 가므로 긴 털은 몇가닥 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하여 뒷발질하는 소에 차여서 다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소만보면 뽑으려 달려든다. 또한 주인은 소꼬리털로 올가미를 만들어 가느다란 대나무 끝에 매달고 매미를 찾아 나선다.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 찾다 보면 냇가 버드나무나,

큰·오동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를 바로 발견 할 수 있다 이때 매미 앞에 올가미를 갖다 대면 멍청한 매미는 앞발을 걸어 스스로 뒤집어 쓴다. 이때 낚아채면 매미는 올가미에 걸리게 되어 잡히게 된다. 그러나 약삭빠른 놈은 푸득 날아가며 오줌을 찍 갈기고 간다. 이렇게 잡은 매미를 실로 매어 가지고 놀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철사줄로 지름 2,5㎝ 정도의 원을 만들고 긴 대나무에 매단후, 거미줄을 찾아 다닌다. 거미줄을 보면 이 철사를 거미줄에 대고 빙글빙글 돌리면 동그란 철사안에 거미줄이 가득 메워진다. 이렇게 대나무에 맨 철사는 거미줄이 있으므로 매미를 보고 등에 갇다매면 매미가 날아 가려다 거미줄에 걸려 잡히게 된다. 옛날에는 등이 검고 윤기가 나며 유난히 큰 매미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초가지붕이 없어지고 굼벵이가 살 곳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그리흔치 않게 되었다.

◉. 명실태우기

해마다 선달 그믐날 밤이면 온 집안식구가 모여 앉아 여자들은 설날 차례에 쓸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은 새옷입고 세배돈 받을 생각으로 밤잠을 못이루는 설레이는 밤이다. 이때 여자들도 한참 쉴겸 하는 놀이가 명실 태우기 이다. 이 명실 태우기는 무명실이어야 하며, 식구마다 자기 발로 반발씩 실을 끊어서 각각 자기 나이만큼 실에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매듭을 만든 긴실을 한 쪽을 들어 밑으로 늘어뜨린 후 맨 밑에다 불을 붙인다. 그런데 이 명실은 타 올라 가기 시작하다가, 잘못하면 매듭에서 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을 삼 등분하여 3분의 1쯤 타올라 가는 동안을 "초분"이라 하고, 중간을 "종분"이라 하는데, 이는 인생을 삼 등분 하여 초년, 중년, 말년의 실수를 점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타 올라가는 광경을 모두 지켜보면서 처음 3분의 1쯤에 탈 때 까지는 모두가 초분, 초분, 초분…… 하면서 소리내어 외우고, 다음 중간 부분이 탈 때에는 모두 중분, 중분, 중분…… 하고 외운다. 마지막이 탈 때에는 종분, 종분, 종분을 소리 내다가 다 타버리면 "와 "하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한다. 그리하여 말분까지 다 타면 명대로 장수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도중에 꺼지면 액운이 온다하여 각별히 조심토록 하고, 긴 여행은 피하게 한다.

◉못치기

못치기는 여름철 비온 뒤 땅이 굳기 전에 나무 밑이나 길가에서 소년들이 큰 못을 가지고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큰 못의 머리를 쥐고 못을 땅에 던져서 못이 땅에 박히면 자기 집에서 못이 박힌 곳까지 선을 이어 가는데 그 거리가 한 뼘을 넘으면 실격이 된다. 이렇게 하여 계속 땅에 박히면 선을 이어가 땅을 점령하지만, 넘어지면 실격이 되어 다음 사람이 하게 된다. 이것으로 땅빼앗기도 하지만, 또 서로 남의 집에 상대방의 선을 넘거나 건드리지 않고 처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서 내기를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도 점차 오락물이 많아져서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비석치기

비석치기를 이 고장에서는 딴치기라 부르고 있으며, 이 놀이는 사내 아이들이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손바닥 만큼의 납작한 돌을 세워 둔 후 3m가량 떨어진 곳에다 금을 긋고 그 금밖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비석 돌로써 던지거나 떨어 뜨려서 세워 놓은 남의 비석 돌을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맨 처음은 단순히 던져서 넘어 뜨리고, 다음은 세워 놓은 비석 앞 적당한

곳에 제 비석 돌을 던져 놓고 세발 뛰음질로 접근하여 발로 차서 넘어 뜨린다. 다음은 눈감고 던지기, 발을 들고 가랭이 밑으로 던지기, 뒷발질로 세번 끌고가 접근해서 뒷발질로 차서 넘어 뜨리기 어깨에 얹고 걸어가서 떨어 뜨림으로서 넘어뜨리기 몸을 45도로 구부리고 뒤 허리에 얹고 뒤걸음 질로 접근해서 넘어 뜨리기, 앞 목에 턱으로 눌러 끼고 걸어가 넘어 뜨리기, 뺨 머리위에 얹고 걸어가서 하는것, 무릎 사이에 끼우고 세발 뛰움박질 하여 하는 것 등 놀이의 종류가 많다. 실수하면 교대로 하는데, 다음번 차례에는 정해진 순서를 이어서 마지막 코스를 먼저 끝냄으로서 승부가 끝이 난다. 이 높이의 기원은 알 수 없고, 옛날부터 즐겨 하던 놀이였으나 이제는 놀이 기구가 많고 TV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놀이는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 서리

서리란 주로 청소년들이 주인 모르게 과일을 따 먹거나, 콩이나 멸 등을 꺾어다 불에 구워 먹는 것 등을 말하며, 서리의 대상으로는 참외, 배, 복숭아, 대추 등 과일과 밀, 콩, 감자, 고구마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는 닭이나 토끼까지는 하는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남의 것을 값을 주지 않고 몰래 훔쳐 먹는 것이므로, 도둑질이나 같은 행위이나, 어떤 악의에서라기 보다는 동네 청소년들이 오락이 별로 없을 때였음으로 오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개는 너그러이 봐 주었다. 현재는 서리라는 것을 악습이라 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농촌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하였으나 누구나 아량으로 보아주고 어른들도 한 몫 끼어 같이 하던 몇 가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1.밀서리

밭에 멸이 누르스름하게 익어 가는 오월 들판에는 춘궁에 주리던 배나 인심들이 풍요를 느끼게 할 때이므로 이 밀밭 저 밀밭을 다니며 한움큼씩의 밀 이삭은 잘라다 냇가에 말라죽은 나무나 보릿대짚을 거두어 모닥불을 놓고 그 위에 이삭을 그을리면 불속으로 떨어지며 밀앞이 익게 된다. 어느정도 모닥불이 타면 큰 나무는 주워내고 웃옷을 벗어서 확확 붙이면 타던 재는 날라가고 밀이삭만 남게 된다. 겉이 검게 탄 밀이삭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싹싹 비비면 밀알이 전부 빠지게 되고, 입으로 껍데기를 훅훅 불면 밀알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된 밀알을 먹게 되는데 좀 탄 것은 고소하고, 좀 설은 것은 졸깃졸깃 하니 구수하여 그 맛이 일품이라, 정신없이 주어먹다보면 손과 얼굴이 모두 까맣게 돼 도둑고양이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 이것을 서로 보며 한바탕 박장대소를 하며 웃음꽃이 핀다. 그러나 요즈음은 밀 농사를 많이 짓기도 않지만 아이들이 집안의 경제가 윤택하여져서인지 어린이들에게 외면당한 놀이가 되고 말았다.

2.콩서리

콩서리도 청소년들이 즐겨 하던 놀이로서 초가을 콩잎이 떨어지고 콩이 여물이 마르기 전에 몇 집의 콩 밭을 다니며 두 세포기 씩만 뽑아다가 냇가 넓은 바위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쌓아놓고, 불을 피우면서 그위에 콩다발을 얹어 놓으면 불에 타면서 콩깍지가 모두 떨어지며 피, 피 익는 소리가 난다. 모닥불이 다 타면 윗도리를 벗어서 두손으로 힘있게 부쳐대면 타 버린 재는 모두 날아가고 콩깍지와 잘익은 콩만 소복히 남아 있다. 그때 아이들은 삥 둘러 앉아 콩을 주워 먹기에 바쁘다. 옆에서 큰 일이 일어나도 모를 지경으로 오직 맛있는 콩을 주워 먹기에 정신이 없다. 이렇게 한참을 주워먹다 보면 손과 입은 깜둥이가 되어

제 얼굴에 검정이 묻은 줄은 모르고 상대편 얼굴만 보고 허리를 잡고 웃는데 이렇게 하여 풍요의 가을도 번뜩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3.감자서리

농촌은 春窮期라 배가 한창 고플즈음 감자 밭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며 흙속에 묻힌 감자는 살이 오를 때이다. 해가 서산 마루에 뉘엿뉘엿 질 무렵 들판에서 쇠꼴을 베고 소를 먹이던 소년들은 땅속에 든 생감자라도 그냥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때 아이들이 감자서리를 하는데 이때도 한집의 감자만 캐는 것이 아니고, 이 집 저 집의 감자를 몇 개씩 후벼서 저고리 앞섭에 수북히 담아다가 시냇가 모래나 흙을 파고 넓적한 돌로 구둘을 놓고 그 위에다 새알같은 자갈을 깐다. 이렇게 하여 돌로 벽과 천정은 만들고 나무를 주어다 불을 때어 구들장을 달군다. 돌이 완전히 달면캐온 감자를 구들장 위에 놓고 흙으로 위를 폭 덮고 발로 밟아 준다. 이렇게 한 후에는 신고 다니던 고무신에다 물을 담아다 그 위에 붓는데 들에서 하기 때문에 물을 길어다 불 수 없을 때에는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그 위에다 일제히 오줌을 갈겨 댄다. 물을 붓는 것은 가열된 돌에 물이 닿으면 뜨거운 수증기가 생기고 이 뜨거운 수증기로 감자를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 후 한참을 놀다가 그 곳을 파보면 감자가 맛있게 익어 있어 신나게 먹는다. 이것을 감자무지라고 하는데 가을이면 고구마무지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어린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멀어져간 품속이 되어 버렸다. 아마 돈을 주고 가게에 가서 감자나 고구마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나 과자를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닭 서리

농부들이 밤늦도록 사랑방에 모여 앉아 놀다가 시장끼가 들때 쯤이면 누구의 입에서인지 닭서리하자는 제의가 들어온다. 누구네 것을 잡아 올 것인지 공론이 벌어진다. 결정이 되면 사랑방을 나서 닭장을 향한다. 잘못 잡으면 닭이 풍겨 주인에게 발각되기 마련이다. 닭을 잡아 자루속에 넣어 가지고 사랑방으로 다시 모여 삶기 시작한다. 닭이 다 삶아질 무렵 닭주인을 불러 들여 큰 그릇에 꺼내 놓고 빙 둘러 앉아 먹기 시작한다. 그 다음날 아침 자기의 닭이 없어진 것을 안 닭주인은 자기도 같이 먹었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쓴 웃음을 웃고 참는다.

◉소싸움

이 소 싸움은 서양의 투우경기와는 달리 소와 소끼리 싸움을 붙여 놓고 이를 구경하는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경기이다. 우리나라의 황소는 매우 유순하여 싸움이 그렇게 격렬하지 못하나 싸우기 전에 소주나, 막걸리를 먹여 흥분시켜 놓으면 평소 유순하던 소들도 사나워져서 제법 볼 만한 싸움을 전개한다. 싸움을 시키는 장소는 강변 모래사장이나, 강변이 없는 곳에서는 모래를 운반하여 깔아주고 적당한 넓이로 둥글게 새끼줄로 구획을 정리한다. 그리고 가운데는 큰 포장을 막아 쳐서 상대방 소들이 볼 수 없도록 한 다음 선발된 두 소를 양편에 세워둔다. 시작과 동시에 가운데 포장을 제치면 싸움이 시작되어 뿔을 서로 맞대고 들이 받으며 싸움을 계속한다. 이 때 농악대들은 자기 편의 소가 이기도록 요란하게 농악을 울리고 부락민들은 큰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응원한다. 승부는 싸우다가 무릎을 꿇거나 넘어지면 지게 되고 달아나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소 싸움은 서로 싸우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는 일까지 간혹 있다. 여러마리의 소를 차례로 대결시킬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하고, 단판치기 싸움인 경우에는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시킨다. 이 고장의 소 싸움은 크게 성행하지는 못하였고 경상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성행하였으며, 한국의 소 싸움은 스페인 등지의 투우와는 달리 농촌 생활의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의 한가지였다.

◉숨박꼭질

노을진 황혼이나 달 밝은 밤이면 마을 앞에서 소년들은 소년들끼리, 소녀는 소녀들끼리 무리를 지어 숨박꼭질을 하며 즐긴다. 숨박꼭질은 여러 아이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제일 마지막까지 진 아이가 술레가 되고 다른 아이들은 숨게 된다. 술레는 건물의 벽이나 기둥에 눈을 가리고 서서 5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세게 하고 그동안 숨는 아이들은 숨기에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보이지 않게 숨는다. 술레가 셈을 다 센 후 "숨었니"하고 신호를 하면 숨은 아이가 "찾아라"하고 대답하거나 아무 대답이 없으면 다 숨은 것이다. 그리하여 술레는 숨은 아이를 찾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찾아낸 즉 맨 처음 발각된 숨은 아이가 다음번의 술레가 되는 것인데 이때 술레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숨은 아이를 찾으려면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를 합창하며 놀려 대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술레가 숨은 아이를 찾아 다니면 뒤에서 몰래 살금살금 기어나와 술레의 집을 점령하고 큰 소리를 쳐서 술레를 놀려대기도 한다. 곧 술레가 숨은 아이를 찾기전에 숨었던 아이에게 술레의 집을 점령 당하면 또 술레가 되는 것이다. 이 숨박꼭질은 소년들 보다 소녀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숨박꼭질 노래는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실놀이

이 놀이는 동지 섣달 긴긴 밤에 소녀들이 방안에서 즐기던 놀이이다. 한발 가량의 실을 끝을 서로 매어 원을 만든 다음, 이를 손목에 걸고, 오른손으로는 왼쪽손의 실을, 왼손으로는 오른쪽 손목의 실을 손가락에 걸어 당겨 X형을 만들면 상대방에서 또 손가락을 걸어 뒤집거나 빼내면 절구통이 되기도 하고, 젓가락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번갈아 가며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든다. 이렇게 하여 모양이 되지 않거나 실이 맺히면 실격이 되는 것이다. 옛날 소녀들은 오락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놀이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지능을 개발 하였으나 요즈음은 저녁에 TV등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옛날의 놀이가 되고 말았다.

◉씨름

씨름은 남자들의 전용적인 체육 경기적 민중 오락이며, 힘과 재주를 겨루는 경기로서 옛날부터 조상들이 즐겨왔던 서민적인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씨름판의 규격은 일정하지 않고 적당한 넓이의 둥그런 모래판이 되며, 씨름은 단오절에 많이 벌어지거나 추석을 전후하여 하기도 한다. 9월9일 重陽日, 또는 정월 보름인 上元日에 하는 수도 있으나 가장 성대하게 하는 때는 7월 보름께 百中 때이다. 백중은 모든 농촌에서 급한 일이 어느정도 끝이 나고 일년 중 가장 더운 때라, 농민이나 일군들의 명절과 같은 기분으로 즐겼으며, 또한 씨름은 주로 이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천대받고 알아 주지 않던 무명의 청년이 씨름 경기를 통하여 용맹을 떨치고 시골의 우상으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우승한 장사에게는 부상으로 황소를 주었고, 장사는 황소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퇴장을 한다. 씨름판

에서 황소를 주는 것은 옛날 농사에서는 황소가 가장 일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농부들의 일손을 돕고자 하는 전통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씨름은 하는 방식은 샅바를 매고, 무릎을 꿇어 서로 상대방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쥔 다음, 동시에 일어나서 힘과 손의 발의 기술로서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쥐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다리샅바를 잡는것이 보통 씨름이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씨름을 애기씨름이라 하며 이때 샅바는 매지 않는다. 경기의 기술로서는 안걸이, 발걸이, 배지기, 둘러치기, 무릎치기, 꼭뒤잡이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안걸이는 상대편의 가랑이 안으로 발을 넣어,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을 말하고, 이것을 안니기라고도 하며, 이쪽의 힘이 약하면 되려 넘어지고 만다. 발걸이는 상대의 두다리 밖으로 걸어 넘어뜨리는 재주이며 이를 뒷걸이라고도 한다. 배지기는 이쪽 배를 상대편 배에 바싹 붙이면서 상대편을 번쩍 들어서 메어치는 것으로 이를 배치기라고도 한다. 둘러치기는 상대방을 빙빙 돌리다가 메어치는 것이며, 무릎치기는 무릎의 힘이 없어 보이는 순간을 와서 무릎을 치며 돌려넘어뜨리는 기술이다. 꼭뒤잡이란 상대편의 머리를 이쪽 겨드랑 밑으로 집어넣고 꼭 뒤를 잡아 쓸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기술을 재치있게 구사하면서 승부를 겨루는 것인데, 초저녁이나 처음 시작은 소년들이 하는바, 이를 매기씨름이라 하고, 그 다음 청년들이 하는 것을 총각마구리 씨름이라 하며, 이 때 최후까지 승리한 사람은 광목 한통을 상으로 주었다. 최고 결정인 씨름을 소거리씨름이라 하고, 이때 최후 승ㄹ리자를 장사 또는 판막음(都結局)이라 하며, 황소를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때 호아소를 몰고 간 장사의 마을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풍악을 울리며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 분위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 씨름의 유래는 한국 뿐 아니라 몽고, 중국, 일본은 물론 서양에도 있는 것으로 몽고에서는 "셀넴", 중국에서는 "세유기", 일본에서는 "스모"라고 부르는데 명칭의 유사성에서도 네 나라 간에는 어떤 공통성이 있는 듯도 하다. 한국의 씨름은 고려시대에 元 나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통구(通溝)에 있는 무용총(舞踊塚)의 벽화(壁畵)에 보이는 고구려(高句麗)인의 씨름장면으로 본다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연(鳶)날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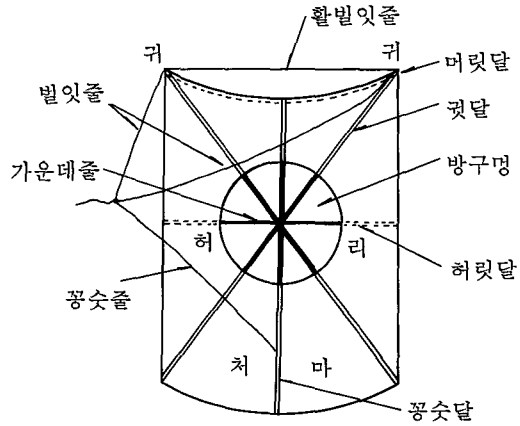
정초(正初)가 되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중에 연날리기가 있다. 연날리기는 원래 설날부터 시작하여 보름간을 날리다가, 정월 보름날에 모든 흉한 재앙을 연에 실어 멀리 띄워 보내기 위하여 연줄에다 쑥불을 묶어 높이 올리면 쑥이 점점 타 들어가 연줄도 타게되어 실은 밑으로 떨어지고 연은 멀리 떠나고 만다. 그러나 요즈음 연날리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시작하여 봄까지 계속 되기도 한다. 연은 창호지를 대나무에 붙이어 만드는데, 대체로 크기는 일정치 않으나, 세로3자 가로2자의 창호지를 한가운데를 도려내어 구멍을 내고, 대나무 다섯개를 얇고 가늘게 쪼개어 연살을 만든 다음 연살은 머리부분과 허리부분에 가로로 대고, 세로로한 중앙에 수직으로 내려 붙이고 두래는 대각이 되도록 X자가 되게 붙인 다음 연의 머리부분과 허리부분을 살대가 붙은 쪽으로 휘게 하여 목줄을 건다. 목줄은 양 머리 귀와 세로로 세운 살의 가운데 구멍 아래쪽에 삼각이 되게 실을 매어 연실에 맨 후, 연실을 길게하여 얼레(자새)에 감아 연을 날린가. 이것을 보통 참연이라고도 하고, 방패같이 생겼다하여 방패연이라고도 한다. 연의 종류로는 생김새에 따라 방패연, 가오리연, 나비연등

많은 종류가 있다. 연은 바람이 세고 약함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고, 연을 날리는 사람에 따라 높이 오르기도 하고, 빙빙 돌아 거꾸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개똥 주어 먹는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바람이 불지 않아 연이 오르지 않으면 "연아 연아 올라라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연 날리기에는 연 싸움이 재미가 있다. 연 싸움은 연을 높이 날린 후에 연줄과 연줄을 서로 엉키게 하여 끊어진 연줄은 지는 것인데, 이 연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사기그릇 깨진 것이나 유리조각을 가루로 만들어 찹쌀풀로 연실에 발라 잘 말리면 연실이 질기고 날카로와 다른 연실이 닿기만 해도 끊어져 이기게 되난. 이렇게 날리던 연은 정월 대보름이면 송액(送厄:재앙을 보낸다)이나, 송액영복(送厄迎福:재앙을 보내고 복을 맞는다)이라 연에다 써서, 연실에 마른 쑥을 비벼서 묶어 맨후 이 쑥에 불을 붙여 높이 띄우면 쑥이 타들어가서 연실이 끊어지게 되며, 연은 연실에서 떠나 방향을 잃고 산넘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일년내 쟁앙을 쫓아 버렸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의 연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중의 김유신전(金庾信傳)에 보인다. 신라 선덕왕(善德王) 16년이자 진덕(眞德)원년인 647년에, 비담(비曇)과 염종(廉宗), 두 대신(大臣)은 여왕(女王)으로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구실로 반란을 이르켜 여왕을 폐위시키려 하였다. 이리하여 반란군은 명활성(明活城)에 진을 치고 있고, 왕을 지키는 군대는 월성(月城) 안에서 방어진을 치고 있으면서 10여일 동안을 서로 공방전을 벌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한 밤중에 끈 별똥이 월성 안에 떨어졌다. 이것을 바라본 비담은 반란군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별똥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유혈(流血)이 있다하니 이것은 바로 여왕이 패망할 조짐이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크게 환호성을 치니 천지가 진동할 지경이었다. 여왕은 이 함성을 듣고 대경실색(大驚失色) 하였다. 이 때 왕사의 지휘관인 김유신(金庾信)장군이 여왕을 진정시키고, 가만히 인형을 만들어 큰 연에 매달아 불을 붙여 밤에 올라 보내니 마치 별이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것 같이 보였다. 다음날 김유신은 말을 퍼트리기를 어제 저녁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되올라 갔다. 별은 땅에 떨어지기는 쉬우나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는 사실은 보통일이 아니라고 반란군들이 의아하여 동요하게 되어 마침내 도망을 가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연의 기원이 삼국시대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고려 때 최영장군에게 얽힌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고려말의 명장 최영(崔瑩)장군이 제주도를 정벌할 때의 일이다. 섬 주위가 온통 가시덤불과 성벽으로 에워싸여 도저히 진군할 수 없게 되자, 최영 장군은 묘안을 생각하여 냈다. 즉 연 밑에다 갈대의 씨를 담은 주머니를 매달아 그 연을 높이 띄워 섬주변 가시밭에 그 씨주머니를 떨어 뜨리니 그해 가을에는 섬 주위가 온통 마른 갈대로 뒤덮였음으로 여기에 불을 지르자 온섬이 불과 연기로 가득한 틈을 타서 섬을 점령하였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연을 아주 크게 만들어 이 연에다 어린 소년들을 매달아 성곽위에 띄워 올려 보낸후 줄을 달아 밑으로 내리게 하여 이 줄을 타고 올라가 성을 정복하였다는 말도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에 의기(義妓) 계월향(桂月香)이라는 기생은 왜장(倭將)에게 강제로 평양성에 끌려 들어가서 왜장의 애첩노릇을 하는 척 하면서 성안의 비밀을 낱낱이 적어서 몰래 연에 매달아 띄운 다음, 연줄을 끊어 성밖의 우리 군사에게 연이 떨어지게 하여 적정을 파악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

유서깊은 민속놀이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연을 직접 만들지 않고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연을 직접 만들어 본 어린이는 많지 않다.

〈방패연의 부분명칭〉



◉.엿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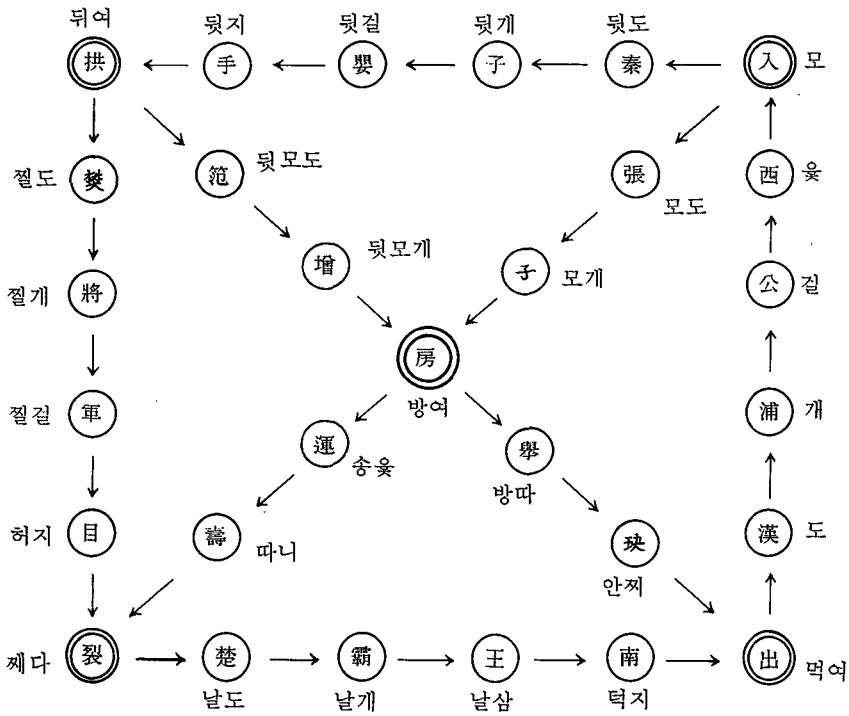
옛날 농촌에 돈이라고는 한 푼 쥐어 보지 못하고 자란 어린 아이들은 동구밖에서부터 엿장수가 가윗소리를 울려대며 떠드는 소리는 군것질에 궁색하던 입에서는 군침이 돌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부엌에 뛰어 들어가 몽당 숟가락이나 마루밑에 헌고무신을 집어 들고 뛰어나가 엿목판에 몇 가락 있는 엿을 사먹게 된다. 이때의 엿맛은 꿀맛으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들어선 엿장수는 "꿀같이 단 울릉도 호박엿, 팔뚝만한 호박엿이 싸요, 싸?"라고 외쳐대면, 청장년들은 주머니에 몇 닢씩 들어있는 밑천을 털어 엿치기를 한다. 엿치기는 5~6명이 모여 엿한 가락씩을 골라 하나, 둘, 셋의 구령과 함께 일제히 엿가락을 두 동강이로 부러뜨려 엿가락 속의 구멍이 제일 큰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제일 작은 사람이 엿값을 전부 치러 주어야 한다. 이 엿치기는 엿을 한 가락씩 하여 그 때마다 먹고 계산하는 방법과, 많은 엿을 실컷먹고 엿값을 한 사람에게 몽땅 넘기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 윷놀이

음력정월의 대표적인 놀이의 하나가 윷놀이이다. 남자나 여자, 또는 어린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별없이 모든 사람이 즐겨왔던 윷놀이는 가장 서민적인 성격을 띤 놀이로, 남자는 마당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춤을 추어가며 힘차고 흥겹게 놀고, 부녀자들은 안방이나 마루방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즐겁게 노는 민속오락이다. 윷의 어원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종류로는 장작윷과 밤윷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장작윷은 길이 15~20㎝ 지름 3~5㎝정도의 밤나무, 통싸리나무 등 둥근나무 두 개를 반씩 쪼개어 네 개비를 만든 다음, 쪼갠쪽을 약간 둥글게 하여 윷으로 사용하는데, 이 장작윷은 무겁고 떨어질 때 소리가 좋아 남자들이 1m이상 높이 던져 놀게 되어 있다. 밤윷은 박달나무로 많이 쓰는데, 손가락 굵기의 나무를 길이 2.5㎝ 정도로 밤알 크기의 나무조각 네개를 그어진 윷판대로 진행시켜 말 4개가 최종점을 먼저 통과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물론 이 윷판(말판이라고도 함)을 지나가는 도중 여

러가지 규칙이 있어서 단순히 높은 끝수만 나온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윷의 재미가 있다. 이 놀이에는 윷판이 쓰이며, 그 윷판의 자리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어 능숙한 사람은 말판 없이도 머리 속으로 말을 쓰기도 한다. 윷을 던져 나온 수의 명칭은 도, 개, 걸, 윷, 모, 라고 부르는 것이 표준이지만 도를 돼지, 개를 개(犬), 윷을 소, 모를 말(馬)로 표현 하기도 한다. 말판은 목판이나 종이에다 그리는데, 중앙에 큰 점을 그린다음 동서남북 네 점 사이에 연락하는 작은 점을 둘 씩 적당한 거리를 잡아서 그리고, 동. 서. 남. 북 간의 사이는 네 점씩 그려 서로 연결하면 말판이 된다. 윷은 한 번에 네 짝을 들고 힘껏 던져 네 개가 모두 젖혀지면 윷이고, 하나가 젖혀지면 도, 두개가 젖혀지면, 개, 세개가 젖혀지면, 걸, 모두 엎어지면 모가 된다. 이렇게 나온 수대로 말판에 말을 쓰는데 상대편이 꼭 같은 자리에 오면 잡혀 죽게 된다. 윷놀이의 기원은 삼국시대(三國時代)인 신라(新羅)때부터 전해 내려 온다는 것이 일본의 만요수(萬요수)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김문표(1568~1608)의 상도설(相圖說)에 의하면, 윷판의 중앙은 추성(樞星)인 북극성이고, 둘레에 에워싸고 있는 것을 28숙의 별들이라고 하였으며 말이 윷판을 돌아서 빠져나가는 길고 짧고 중간이 되는 사행로는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의 사계절에 비유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시대 궁녀들이 새해 정초에 즐기던 놀이라고도 하고, 백제의 관직명인 제가(제加), 구가(狗加), 우가(牛加), 마가(馬加), 대사(大使)에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한다. 이밖에 옛날 어느 장수가 적과 대진중에 적군의 야습을 경계하고 진중 병사들의 잠을 막기 위하여 이 놀이를 창안 하였다고 말도 전하며, 윷판은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의 마지막 결정

〈윷발의 명칭〉



장이던 해하(垓下)의 진형(陣形)을 본뜬 것이라고도 하나,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윷으로 즐거운 놀이를 하는가 하면 윷으로 즐거운 놀이를 하는가 하면 윷으로 다가올 해의 운수를 미리 점을 치는 윷점이 있는데, 우선 마을 대중이 치는 윷점과 개인의 운수를 알라보는 윷점이 있다. 먼저 마을 대중이 치는 윷점이란 마을의 규모나 지형에 따라 한편은 수답(水畓)이나 수향(水鄕)이라 하고, 한편은 천수답이나 산농(山農)으로 편을 갈라 윷을 놀아, 수답이나 수향이 이기면 그해 풍년이 들고, 천수답이나 산농편에서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운수를 점치는 윷점은 윷을 세번 던져서 나온 윷의 수를 차례로 던져 풀이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윷점들을 찾아 볼 수 없다.

正初에 윷점을 보기도 하는데 이 윷점은 윷을 세번 던져 첫번째를 上卦 두번째는 中卦 세번째는 下卦과 하여 卦數를 찾아서 점을 치는 것으로 도는 1. 개로 1. 걸은 3. 윷과 모는 4로 1.1.1에서 4.4.4까지 도합 64卦가 있다.

도도도(兒有慈母)
○아이가 어머니를 만남
도도개(鼠入倉中)
○쥐가 창고에 들어감
도도걸(婚夜得燭)
○첫날밤에 촛불을 얻음
도도모(蒼종遇春)
○메뚜기가 봄을 만남
도개도(大水逆流)
○큰 물이 거슬려 흐름
도개개(罪中立功)
○죄 가운데 공을 세움
도개걸(飛蛾撲燈)
○하루살이가 등에 부딪침
도개모(金錢過火)
○금이나 쇠가 불을 지남
도걸도(鶴失羽翼)
○학이 날개를 잃어버림
도걸개(飢者得魚)
○굶주린 자가 고기를 얻음
도걸걸(龍入解海)
○용이 큰 바다로 들어감
도걸요(龜入筍中)
○거북이 대밭으로 들어감
도모도(樹木無根)
○나무에 뿌리가 없음

도모개(死者後生)
○죽은자가 다시 살아남
도모걸(寒者得衣)
○추운자가 옷을 얻음
도모모(貧人得寶)
○가난한 자가 보화를 얻음
개도도(日入雲中)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감
개도개(霖天見日)
○장마 중에서 해를 봄
개도걸(弓失羽箭)
○활이 화살을 잃음
개도모(鳥無羽翰)
○새에 날개가 없음
개개도(弱馬駁重)
○기운 없는 말이 짐이
무거움
개개개(鶴登于天)
○학이 하늘로 높이 솟아오름
개개걸(飢鷲得肉)
○굶주린 매가 날고기를 얻음
개개모(車無兩輪)
○수레에 바퀴가 하나도 없음
개걸도(嬰兒得乳)
○어린아이가 젖을 얻음
개걸개(重病得藥)
○중한 병이 든 자가 약을 얻음.
개걸걸(胡蝶得花)
○나비가 꽃을 만났음
개걸모(弓得羽箭)
○활이 제화살을 얻음
개모도(拜見疎賓)
○낯모르는 이에게 절을 하고 뵙다
개모개(河魚失水)
○물고기가 놀 물이 없음
개모걸(水上先紋)
○잔잔한 물위에 물결이 일어남

개모모(龍得如意)
○용이 뜻한바대로 얻음
걸도도(大魚入水)
○큰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감
걸도개(炎天賜扇)
○무더위에 부채를 줌
걸도걸(鷲鷹無爪)
○새매와 매가 발톱이 없음
걸도모(擲珠江中)
○구슬을 강속에 던짐
걸개도(龍頭生角)
○용머리에 뿔이 생겨남
걸개개(貧而且賤)
○가난한자가 더욱 천해짐
걸개걸(貧士得祿)
○가난한 선비가 복록을 얻음
걸개모(猫兒得鼠)
○어린 고양이가 쥐를 만남
걸걸도(魚變成龍)
○물고기가 변화여 용이됨
걸걸개(牛得芻荳)
○소가 꼴과 콩을 얻음
걸걸걸(樹花成實)
○꽃과 나무에 열매가 맺음
걸걸모(寺門還俗)
○중이 속세로 귀환함
걸모도(行人思家)
○길을 나선 행인이 집생각을 함
걸모개(馬無鞭策)
○말에 채칙이 없음
걸모걸(行人得路)
○행인이 지금길을 찾음
걸모모(日照草露)
○해볕이 풀잎의 이슬에 비침
모도도(父母得子)
○어버이가 아들을 얻음
모도개(無功無賞)

○공도 없고 상도 없음
모도걸(龍入深淵)
○용이 깊은 못으로 들어감
모도도(盲人直門)
○맹인이 문을 바로 찾음
모개도(暗中見火)
○어두움 속에서 불을 봄
모개개(人無手비)
○사람이 손과 팔이 하나도 없음
모개걸(利見大人)
○利가 大人을 만남
모개모(角弓無弦)
○강한 활에 시위가 없음
모걸도(耳邊生風)
○귓가에서 바람이 일어남
모걸개(稚兒得寶)
○어린아이가 재물을 얻음
모걸걸(得人又失)
○사람을 얻었다가 다시 잃음
모걸모(亂仲不吉)
○어지러운 가운데 또 불길함
모모도(生事茫然)
○살아 갈일이 아득함
모모개(魚呑釣鉤)
○물고기가 낚시를 삼킴
모모걸(飛鳥遇人)
○나는 새가 사람을 만남
모모모(哥哥得弟)
○형이 아우를 만남

◉ 이레놀음

예로부터 음력 초 이렛날이면 친한 이웃끼리 쌀을 성의껏 거두어 모듬밥을 해 먹는다. 이렛날이 되면 아침부터 아녀자들이 쌀자루를 메고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생활 정도에 따라 쌀을 거둔다. 이 거둔 쌀을 밥짓는데 필요한 만큼의 쌀만을 남겨두고 모두 팔아서 김이랑, 조기 등 각종 반찬거리를 사고 술도 약간 마련하여 동네 어른들을 불러 술대접까지 한다. 그리하여 부녀자들이 일부는 가마솥에 밥을 하고 김을 굽고, 반찬을 장만하는 등 법석을 떤후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따로 앉게 하고 남정네는 남정네끼리, 아녀자는 아녀자끼리 둘러 앉아 오손도손 재미있게 밥을 먹는데, 이를 모듬밥이라 한다. 이렇게 모듬밥을 먹는 사람들은 윷놀이

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풍속이 아직도 농촌에서는 일부 남아 있으며, 정월 초이렛날이면 모여 논다고 하여 이렛놀음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대체로 살기가 어려워서 명절이나 제삿날이 아니면 쌀밥은 물론 별다른 반찬 한 가지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 이날 하루라도 어른들을 즐겁게 하여 드리려는 배려에서 발생한 풍속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생활형편이 윤택하여져서 쌀밥 모듬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많이 먹던 깡보리 밥을 먹어보기 위해 깡보리밥 먹기 모듬밥을 하는 실정으로 변하였다.

◉ 자치기

봄철 따뜻한 마당에서나 골목길에서, 또는 서늘한 가을철 동네의 마당에는 소년들이 자치기를 한다. 자치기는 약 50cm 가량되는 메뛰기(跳木)를 사용하여 땅바닥에 깊이 5cm내외 길이 10cm의 홈을 파고 이 홈에 메뛰기를 받쳐놓고 자막대기는 뀌어 던지면 그 때 힘과 기술에 따라 멀리 나가기도 하고 혹은 가깝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메띠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받으면 순번이 바뀌어 다음 차례로 돌아 가게된다. 이때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면 이 지점에서 메뛰기를 집어 던져서 땅에 파놓은 홈에 걸쳐놓은 자막대기를 맞추면 역시 다음 차례로 돌아 가게되고, 맞추지 못하면 떨어진 메뛰기를 자막대기로 세 번을 쳐올려 멀리 보내면 메뛰기가 간 곳에서 홈까지의 거리를 자막대로 재어 미리 약속한 숫자를 먼저 돌파하는 편이 이기게 되어있다. 자치기는 지방에 따라 노는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 하며, 그 노는 방법이 약간 위험하여 더러는 때린 메뛰기에 이마를 맞아 이마가 터져 피를 흘리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 할 만한 놀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 참새잡기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밤에 농촌의 청소년들이 참새 잡이에 나선다. 참새를 잡는 기구래야 긴 막대에 자루를 매달아 지금의 포충망같이 만들고, 사방을 유리로 가린 등속에다 호롱불을 넣어 겨우 길이나 밝힐 정도의 불이 전부였다. 밤 9시경이면 참새들도 단잠에 들어간 때라, 집집을 돌며 참새를 잡는데 부자집이 기와집이나 함석(양철) 지붕에는 참새가 듣지못해 초가집만 찾아다니며 잡게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참새 잡으러 왔읍니다."하고 소리치면 "오냐 많이 잡아라"하고 허락하게 된다. 유리등을 이용하여 지붕처마를 비춰보고 새가 들어가 잘만한 곳을 발견하면, 장대에 매달은 자루 주둥이를 구멍에 갔다대고 냅다 흔들면, 자다가 놀란 참새는 밖으로 획 날아 나오다가, 자루속으로 들어 가게되는데 이때 빨리 밑으로 내려 자루에든 새를 꺼내어 잡게 된다. 이렇게 잡다보면 30여 마리씩은 잡게 되어 밤 늦도록 털을 뜯고 양념을 하여 보글보글 한 냄비 끓여 맛있게 먹는다. 이러다 보면 동지섣달 긴긴 밤도 깊어만 갔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지붕 개량을 하여 초가집이 한 집도 없어 새를 잡을 곳도 없지만, 도둑으로 누명을 쓰거나, 도둑인줄 알고 남의 집을 밤중에 들어오게도 하지 않는 각박한 인심이 되어 버렸다. 또한 눈이 푹 쌓인 겨울이면 산짐승이나 날짐승들이 먹이를 구하려고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는 수가 많다. 이럴때 수월하게 참새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참새가 모일만한 곳에 눈을 깨끗이 쓸어내고, 그곳에 겨나 왕겨를 뿌린다음, 싸리로 만든 바지게를 받침대로 고여 45도 각도로 세우고, 받침대 밑을 끈으로 매어 멀리 들고간다. 이 끈은 방안이나 집가리 뒷쪽까지 끌고가, 방안에서는 문구멍을 뚫어 새들이 바지게 밑에까

지 들어 가는가를 잘 살폈다가 들어 가기만 하면 끈을 확 낚아 채어 바지게 밑에서 먹이를 먹던 참새는 나올 틈도 없이 바지게 밑에서 잡히게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바지게 뒤에 무거운 돌을 올려 놓아야 바지게가 땅에 닿을때 공간도 없고 중량이 있어 빨리 떨어지므로 참새가 도망가지 못한다.

◉ 쥐 불놀이

음력 정월 들어서 일진에 두번째 자일(子日)을 상자일(上子日)이라 하는데, 이 날이 곧 쥐날이다. 농부들은 쥐를 없애기 위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다 쥐불을 놓았으며, 동네 경계를 두고 편을 짜서 쥐불놀이 내기를 하여 승리한 동네편의 쥐가 패한 동네로 쫓긴다고 하여 성행하였다. 그리고 논두렁이나 밭두러에는 쥐구멍이 많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많기 때문에 불로 태워 없앴다. 이와같이 옛날에 조상들이 쥐나,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쓴 방법으로서 지금도 권장하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 고장의 조상들은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 밭두렁에 불을 놓았는데 이는 겨우내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병충의 알씨를 태워서 구충 구제를 행하는 방편을 썼던 하나의 민속 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자시(子時)에 방아를 찧으면 쥐가 없어진다 하여 부녀자들은 밤 늦도록 디딜방아를 찧기도 하였으며, 방아 거리가 없으면 빈 방아라도 밟아 방아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불을 밝히지 않으며, 길쌈이나 의복을 깁지 않았는데, 옷이나 천을 쥐가 쪼기 때문이다. 곡식을 볶아 주머니에 넣으면 재수가 좋다하여, 밀과 콩을 볶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먹기도 한다. 이 고장에선 지금도 쥐불놀이를 하지만 본래의 의미 보다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날로 정하여 병, 해충 구제의 목적으로 변하고 있다.

◉ 줄넘기

이 줄넘기 놀이는 소녀들이 즐겨 하는 놀이로서 두 사람이 6~7㎝의 새끼줄을 땅에 닿게 돌리면, 돌리는 새끼줄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새끼가 발이나 손, 목 등에 걸리지 않게 뛰어 넘는다. 만약 새끼줄이 발이나 손등에 걸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새끼줄을 돌리고 돌리던 사람이 들어가 새끼줄을 뛰어 넘게 된다. 맨 처음 시작할때는 가위, 바위, 보로 두 사람의 술레를 정하여 새끼줄을 돌리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새끼줄에 걸린 사람이 술레가 됨으로 돌아가면서 술레를 하게 된다. 줄을 넘을 때는 한 사람이 뛸때도 있고 여러사람이 뛰는 때도 있는데, 하나, 둘, 셋, 등 숫자를 세어 박자를 맞추어 주는 경우도 있고 노래를 불러서 박자를 맞추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노래는 간단하면서도 박자가 잘맞는 노래를 부른다. 이때 뛰는 사람은 그 노래 시작과 동시에 들어가고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나와야 실격이 아니다. 그 노래는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 지방에서 불리던 노래는 다음과 같다.

◉ 조조(曹操)잡기

이 놀이는 옛날 서당(書堂)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루할 때 즐기던 것으로, 주로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인물을 이용하여 놀았다. 즉 그 방안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종이 쪽지에다 조조(曹操), 공명(孔明), 유현덕(劉玄德), 황충(黃忠), 조자룡(趙子龍), 관우(關羽), 장비(張飛)등을 써서 보이지 않게 엎어놓고 제각기 한 장씩을 집어서 남에게 보이지 않게 갖고 있는다. 그 주이에서 유현덕을 잡은 사람은 명령관이 되므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향하여 크게 호령을 하는데 "조자룡은 지금 곧 조조를 잡아 대령(待令)하라"하면, 조자룡이라 쓴 종

이를 집은 사람은 둘러 앉은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때 눈치가 조조같은 사람을 지적하여 조조를 지적하면 조조가 지게 되지만, 만약 조자룡이 조조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데 되면 조자룡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 놀이는 유현덕을 잡은 사람이 조자룡이나 조조를 지적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을 보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지금은 서당도 없을 뿐 아니라 오락기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놀이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 제기차기(蹴鞠)

제기는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엽전이나 동전을 한지(韓紙)나 얇은 천으로 싼다음 구멍으로 빼내어 길이 10㎝정도로 여러 가닥으로 갈라 술을 만들어 너풀거리게 만들면 이것을 제기라고 한다. 이것을 차는 방법은 둘이 하거나, 둘 이상이면 편을 갈라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 다음 제기를 발로 차올리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수를 차올리는 편이 이기게 된다. 차는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리 결정하여 차게 한다. 즉, 한 발로 차올리되 차는 발을 땅에 대는 것이 보편적인 제기 차기이고, 다른 방법은 차는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공중에 들고 차는 것과, 양발을 이용하여 차는 방법, 또 발을 뒤로 돌려서 뒷축으로만 차는 것등 많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여 이긴 편은 진편에게 제기를 종드리게 하여 발로 힘껏 혹은 약하게 차내어 차지 못하거나 차낸 것을 손으로 받을 때까지는 계속 종드린다. 이 제기차기는 일년 중 수시로 할 수 있으나, 대개 농한기인 겨울철이나 특히 정초 명절에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제기차기의 원류는 중국 고대에 있어 무술을 위한 놀이이며, 넓은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워 거기에 망을 치고 털로 싼 가죽공을 여러사람이 다투어 차서 그 공을 가설된 방위에 얹어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인이 축국(蹴鞠)에 능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은 축국을 빙자하여 짐짓 김춘추(金春秋)의 옷고름을 밟아, 이로 인하여 누이인 문희(文姬)를 왕후로 삼게 한 사실이 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이땅에 축국이 두루 퍼졌음을 알 수 있다.

◉ 호미치기

이 호미치기는 농촌의 청장년들이 밭이나 논의 김을 매다가 쉴 참을 이용하여 하는 놀이로서, 10㎝정도에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게 호미를 던져 엎어지면 지게 되고, 뒤집어져서 호미끝이 땅에 꽂히면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 놀이는 보통 내기를 하는데,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대신 밭 한 이랑을 더 매주어야 한다든가, 일이 끝난다음 꽃 한 망태를 베어 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고되고 지루한 노동을 좀 더 즐겁게 보내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놀이이었으나, 이제는 제초제 등이 나와 호미가 필요없는 영농방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호미치기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겨울철이나 이른 봄철에 소년들이 즐겨하는 놀이이다. 팽이는 직경 약 4·5㎝ 내·외의 길이로 약 6㎝ 정도의 둥근 나무토막을 위는 둥글게 밑은 뾰족하게 원추형(圓錐形)으로 깎아서 만들고, 팽이채는 직경이 1·5㎝ 정도의 길이 60㎝ 정도 되는 나무막대를 만들어 그 끝에다 40㎝ 내외의 끈을 매어 만든다. 이 팽이는 왼손에 쥐고 팽이채를 오른손에 쥔 다음 팽이채 끈으로 팽이 허리를 칭칭 감아서 팽이채를 순간적으로 잡아 당기면서 팽이를 땅위나 어름판에 놓으면 팽이채 끈이 풀리는 바람에 팽이는 돌게 되는데, 이때 팽이채로 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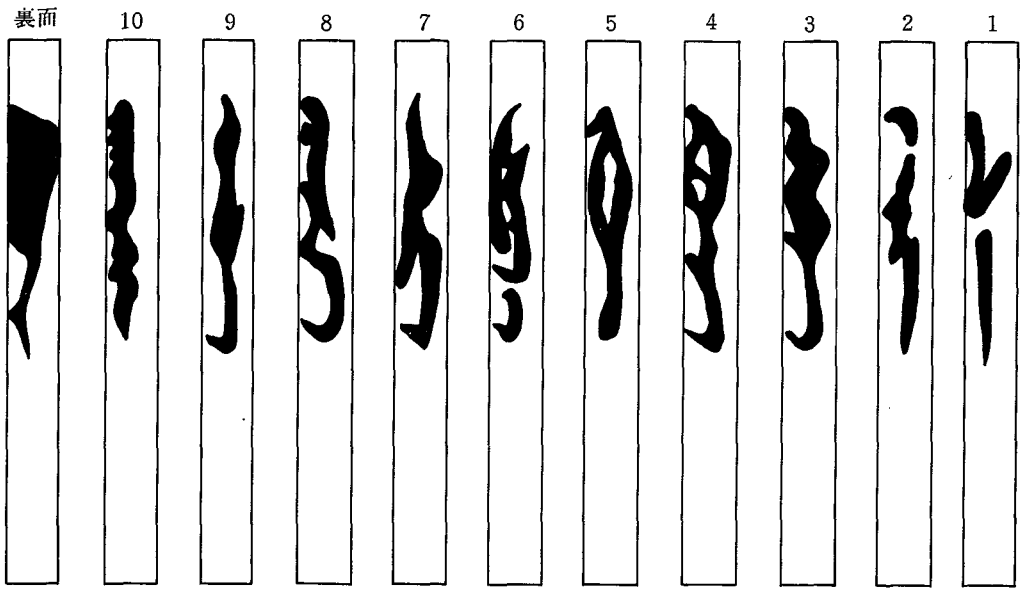
이를 치면 팽이는 계속돈다. 팽이 치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이면서, 여러명이 같이 할 수도 있는 놀이인데, 여러명이 같이 할 수도 있는 놀이인데, 여러명이 같이 할 수도 있는 놀이인데, 여러명이 할 때는 가장 오랫동안 계속해서 돌리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한다던가, 팽이끼리 부딪치게 하여 상대방의 팽이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한다.

옛날에는 팽이를 손으로 깎았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였고, 중심이 맞지 않으면 떨려서 잘 돌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즈음은 시장에서 팽이를 팔게 되어 모양이나 크기가 거의 같다.

◉ 투전

투전은 실내에서 하는 오락이라고 하기 보다는 도박(賭博)을 하는데 필요한 놀이이며, 이 투전은 화투(花鬪)가 등장 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이전에는 상당한 인기가 있던 대중적인 것이었다. 이 투전의 패는 가로가 약 1·4cm, 세로 14~15cm의 나긋 나긋한 두꺼움 기름종이에다 인물(人物), 새, 짐승, 벌레, 고기 등의 형상을 복합적으로 그렸거나 문자(文字), 시구(時句) 따위를 그림으로 그리고, 끝수를 표시하는 부호를 넣어 끝수를 가지고 놀이를 한다. 1에서 10까지의 수를 글자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괴상한 모양으로 먹으로 표시한 4쌍에서 8쌍까지를 만들어 쓰는데, 필요에 따라 60매로도 사용하고, 많이는 80매로도 쓴다. 그러나 이를 줄여서 40매로도 쓰거나 25매까지도 사용하나, 보편적으로 40매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노는 방법은 갑오잡기(또는, 돌려태기라 함)가 가장 보편적인 놀이 방법이며, 1을 따라지, 5를 진주, 6을 서시, 7을 고비, 8을 덜머리, 9를 갑오, 10을 무대라 하고, 같은 숫자 2장을 땡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지금의 화투와 유사점이 많다. 투전은 투전(鬪錢)이라고도 쓰는데, 이는 중국의 지패(紙牌)에서 연류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어느 시기에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대략 고려숙종(肅宗:1054~1105)때의 들어 오지 않았나 보고 있다.

〈투전패의 형태〉



◉ 풀놀이(草戱)

따뜻한 봄날 양지바른 논뚝 밑이나 울타리 밑에는 여러가지 풀들이 새로 솟아 나는데, 이때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각시풀이다. 이 각시풀을 뜯어 손으로 살살비벼 풀의 숨을 죽인 다음, 나무 가지에다 실로 묶고 한가닥씩 위로 넘기면서 머리를 땋듯이 따서 마치 옛날 소녀의 댕기 머리처럼 만든다. 땋은 머리는 천조각으로 댕기를 들이거나, 틀어 올려 낭자를 만들고, 천조각으로 치마와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면 새색시나 처녀 낭자같이 된다. 이것을 풀각시(草人形)라 하고, 이 놀이를 풀놀이라 한다. 이것 뿐이 아니고 병풍도 만들고 이불, 요, 베개 등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방 장식까지 하여놓고 풀각시의 신방까지 차려 주기도 한다. 완구가 없었던 옛날에는 이렇게 손수 풀로 인형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어 놓고 놀았으니, 이것이 인형극의 시초라 하겠다. 또한 소녀들은 냇가에 물이 오른 땅버들 나무를 꺾어 이를 밑 부분부터 조금씩 돌려가면 껍질 부분과 나무 부분이 분리되게 된다. 이렇게 분리한 속나무를 빼어 버리고 껍질을 가지고 5㎝, 또는 15㎝ 정도를 잘라 입 닿는 부분을 얇게 하여 입에대고 바람을 불면 소리가 잘난다. 이를 호드기라고 하며, 또는 호뜨기라고도 한다. 이 호드기를 양손안에 넣고 불면서 손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세게 불거나 약하게 불면 아주 좋은 소리가 난다. 처량한 음률이 흘러나오면 이 소리는 농촌 청소년들의 마음을 달래준다. 이 호드기는 원시적인 취악(吹樂)이라 할 수 있고 시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따뜻한 날 동산에 오르면 많은 묘(墓)들이 있고, 그 묘의 뜰에는 잔디가 깔려 있다. 이때쯤이면 줄기가 씨를 안고 다소곳이 올라온다. 어린아이들은 이 줄기(잔디심)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가장 작은 사람이 지는 놀이를 한다. 또 잔디심을 뽑아 꺼꾸로 들고 손톱으로 줄기를 훑으면 조그마한 물방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방울을 서로 맞대어 옮겨 오는 사람이 이기고, 옮겨가는 편이 지는 잔디심 싸움 놀이도 한다. 또 진달래가 한참 필 무렵이면 진달래를 한 아름씩 꺾어 큰 꽃다발을 만들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놀이로 즐기고 있다. 즉 진달래 꽃의 꽃 수술중 가장 길게 나와있는 숫수술은 뽑아내어 이를 손가락으로 약간 숨을 죽인다음 이를 서로 걸어 잡아 당기면 어느 쪽이든 끊어지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하여 끊어진 편은 지게 되고 끊어지지 않으면 이기게 되는 것으로 이 놀이를 꽃 싸움놀이라 한다. 이와같이 농촌의 어린이들은 풀 들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순수한 놀이를 즐겼다.

◉ 화투(花鬪)

화투는 대개 정월(正月)명절이면 집집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 가벼운 내기를 걸고 화투놀이를 즐겼으나, 현재는 상습적인 도박기구로 악용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화투는 1월에서 12월까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48장을 가지고 노는데, 그 종류로는 민화투, 육백, 섯다, 지꼬땡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고스톱이란 놀이가 가장 유행하고 있다. 이 화투는 월별로 특징을 그렸는데 정월은 소나무(松), 이월은 매화(梅花), 삼월은 벚꽃으로 맹화(맹花), 사월은 흑싸리로 목소형(목小荊), 오월은 난초(蘭草), 유월은 목단(牧丹), 칠월은 홍싸리로 홍소형(紅小荊), 팔월은 공산명월(空山明月), 구월은 국화(菊花), 시월은 단풍(丹楓), 동지달은 오동(梧洞), 섣달은 비(雨),로 하며 월별로 4매씩 48매로 되어 있다. 이 놀이의 기원은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 널뛰기(跳板戱)

설날이 되면 부녀자들이 모여서 널뛰기를 하는데 길이 2.5m 정도에 넓이 40~50cm 가량의 널판자 밑에 짚묶음이나 가마니를 뭉쳐서 가운데 괴어놓고 양쪽에 사람이 올라서서 교대로 널은 굴러 높이 솟아오르는 놀이이다. 이 널뛰기의 유래는 옛날 어느 죄수의 아내가 높은 담장 안의 옥속에 갇혀 있는 남편이 보고 싶어 또 한사람의 죄수의 아내와 짜고 널은 뛰면서 담안을 보았다는 설과 옛날의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사대부(士大夫)가의 부인들이 널을 뛰면서 밖의 정경을 보는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경도잡지(京都雜誌) 도판희조(跳板戱條)에 보면 「閭巷婦女用白板 橫駕葉枕上 分立兩端 激盪而跳數尺許 環佩玲然 以困噸爲樂 號爲超板戱 按周煌琉球國記略其婦女無於板上曰板舞 與此相類 國初流球入朝抑或幕而效之者歟」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琉球에도 우리나라의 널뛰기와 같은 판무(板舞)라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국초에 유구의 사신이 들어와서 본 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

널뛰기는 정월 한달을 계속해서 부녀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뛰는데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다우며 널은 적고 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사람이 널 위에서 떨어지면 다음 사람이 올라서서 뛰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 바 둑

바둑은 한자로 기(基), 혁(奕) 또는 위기(圍碁)라 한다. 이 바둑은 가로 세로 각 19줄을 그은 판에 흑과 백으로 겁을 만들어 많이 차지하는 편이 이기게 된다. 요즈음에는 이 바둑판을 피나무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윗부분은 대추나무로 쓰고 밑은 오동(梧桐)나무를 속이 비게 만들어 돌을 놓을 때마다 물리게 만들었다.

바둑의 유래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요순(堯舜)시대에 이이 있었다고 하나 알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記錄에 보면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백제(百濟)의 개로왕은 고구려의 중 도림(道琳)에게 이 바둑으로 인해서 속아 나라를 망쳤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百濟本紀) 개로왕편에 나오고 있다.

고려때 들어와서도 이 바둑은 문인이나 학자들의 애호를 받은 사실이 이규보(李奎報)의 신동국수시(新童國手詩)에도 적혀 있으며 또 고려가요 중의 예성강곡(禮成江曲)은 내기 바둑을 두다가 중국의 상인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람과 그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선조에 들어서도 세종(世宗) 세조(世祖)가 특히 바둑을 좋아 하였고 세조는 오행위기법(五行圍碁法)을 친히 만들기도 했다.

◉ 쌍 육

쌍윷은 한자로 쌍육(雙六)이라고 표기하며 악삭(握槊)이라고도 한다.

이 놀이는 남자들도 하지만 대개는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이 많이 즐긴 놀이이다. 이 쌍윷은 쌈사십년 전만 해도 많이 놀던 민속이었으나 요즈음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쌍윷은 너무나 뼈로써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만들어 각면에 1에서 6까지 구멍을 조각한 뒤에 주사위 두개를 굴려서 두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합해 말을 진행시켜 먼저 종점에 이르는 편이 이기는 놀이이다.

이 쌍윷의 기원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개 한무제(漢武帝)의 서역(西域) 개척이후 중국에서 유래된 많은 오락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으로 이규보의 시에 「閑呼玉局爭雙六 醉把朱朱弄十三」이라고 적었으며 조선시대 심수경(沈守慶)의 청천유한록(聽天遺閑錄)에 「한가로어옥국(玉國:쌍윷판)을 지켜보며 쌍윷을 겨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려때부터 많이 연희된 것으로 보인다.

◉ 승경도(陞경圖)

승경도는 종경도(從卿圖), 승정도(陞政圖), 또는 종정도(從政圖)라고도 한다.

주로 양반 가문의 자제들이 즐기던 놀이로써 릴이 20cm 굵기 3~4cm쯤 되는 5각의 나무에 1에서 5까지 눈금을 새겨서 넣고 그 윷을 던져서 가로 10~14줄 세로 14~18줄로 유학(幼學)에서 봉조하(奉朝賀)까지의 관직을 적어 넣은 말판(陞卿圖)에 따라 승진 또는 파직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장차 관계에 나갈 양반가의 자제들에게 승차를 이해시키는 놀이로써 많이 놀아졌다.

◉ 장기(將棋)

장기는 바둑과 함께 대중적인 오락의 하나이며 그 놀이때의 분위기는 조용한 바둑에 비해 시끄럽고 요란하기가 이를데 없어 바둑이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나타나는 선비들의 놀이라면 이 장기는 활달한 서민들의 놀이이다.

장기는 가로 10줄 세로 9줄이 그어진 판에 초(超)와 한(漢) 양군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놀이이다.

양편의 말의 수는 같으며 한쪽에 차마, 포, 상, 사(車, 馬, 包, 象, 士)가 각각 두개씩 있고 졸이 5개 있는데 대개의 장기알은 회양목(檜揚木)으로 만들었다. 말에 새긴 글자는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의 두가지로 새기며 해서는 홍색(紅色) 초서는 청색(靑色)으로 새기고 노홍소청(老紅少靑)이라고 하여 연장자가 홍색을 차지한다.

말의 크기는 차, 마, 포, 상은 같고 사와 끈을 그보다 작으며 장군의 말인 궁(宮)은 크다.

장군은 홍군이 한(漢) 청군이 초(超)로 새기었는데 이것은 팔년풍진초한전(八年風陣楚漢戰)을 본 뜬 것이라고 한다.

말의 가는 밭은 차는 좌우 전후 어느 곳이나 직선으로 갈 수 있고 마는 일자로(日字) 상은 용자(用字)로 포는 말 하나를 뛰어넘어야 하나 포는 같은 포는 넘을 수 없다. 또한 사는 궁안에서만 한밭씩 다니게 되어있고 졸은 좌우와 한밭씩 전진은 되나 후퇴는 할 수 없으며 궁과 사는 궁안에서 나올 수 없다. 먼저 장군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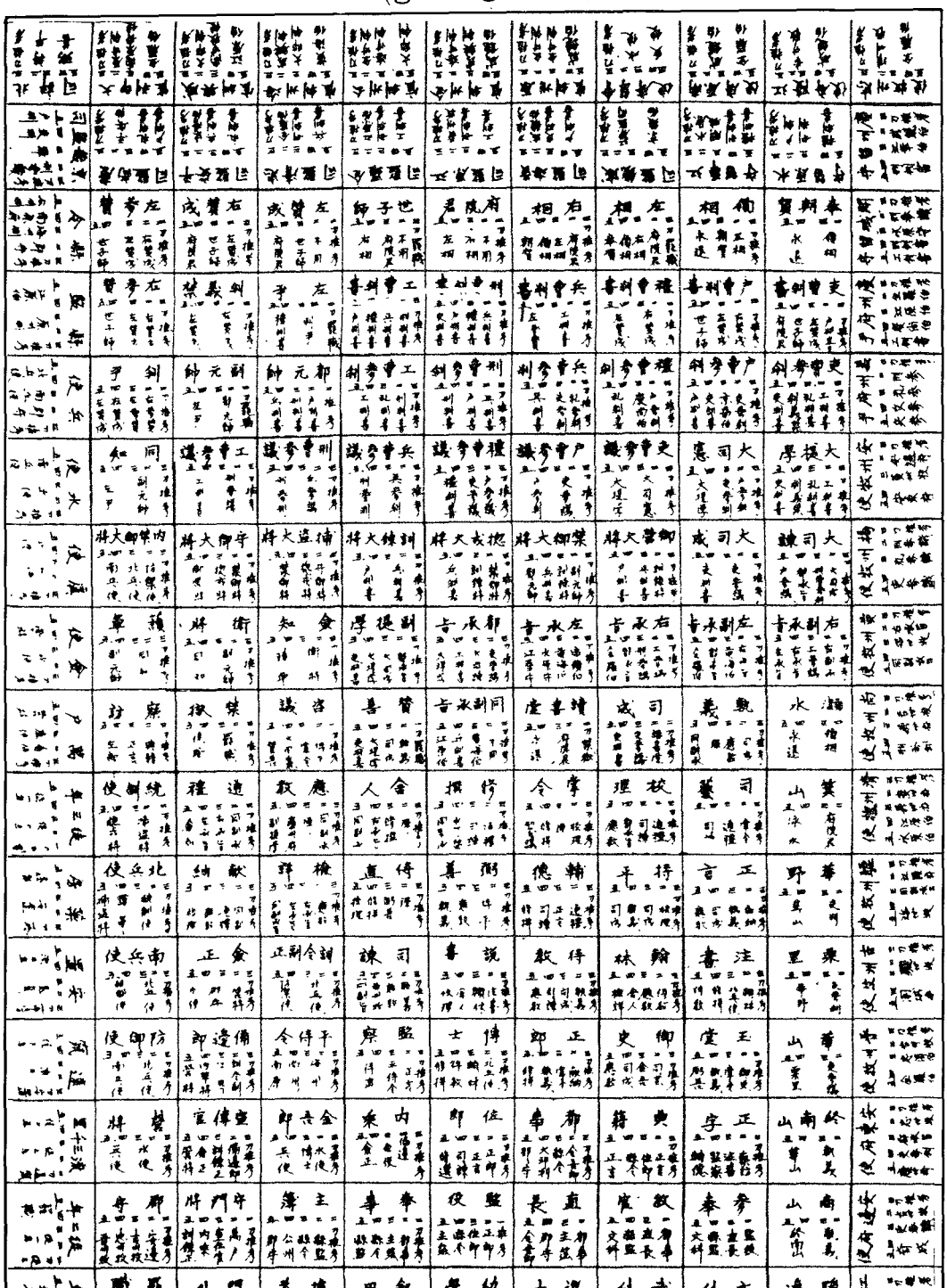
장기는 한자로 "將棋"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난 어취이고 그 이전에는 상희(象戱)라고 하였으며 상희는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써 상기(象棋) 상혁(象奕) 들으로도 불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전해졌다고 보고 있으며 조선조 초기의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상희(象戱)라고 적고 장기에 얽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 그네뛰기(추천戱)

그네뛰기 곧 추천희(추천戱)는 오월단오일(端午日)에 주로 부녀자들이 즐기는 유희로써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이날이 되면 큰 나무가지에 새끼를 꼬아서 줄을 느리고 그 밑에 발받침을 매어서 뛰는데 혼자뛰면 〈외그네〉요 둘이뛰면 〈쌍그네〉라고 하였다.

이 그네뛰기는 부녀자들이 곱게 한복으로 차려 입고 그네위에 올라서서 치마자락을 날리며

〈승　　정　　도〉



뛰는 모습이 선녀(仙女)가 하강(下降)하는 것도 같고 제비가 나는 것도 같아 이 그네뛰기를 읊은 고시(古詩)도 있다.

非天非地半空中
青山綠水自進退
形如二月落花來
客似三月飛去燕

이 그네뛰기는 누가 잘 뛰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길다란 장대끝에 방울을 매달고 그 방울을 누가 먼저 그네를 뛰면서 울리는가도 정하기도 하고 끈을 매달아 그 끈이 많이 딸려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도 정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단오의 추천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보이는데 고려사 최충헌전(崔忠獻傳)에 보면 「端年, 忠獻說추천戲于栢井洞客, 案文或回品以上三日」이라고 적었으며 동사(同史) 최의(崔의) 전의 내용에서도 이 그네뛰기가 고려때 매우 성행했던 놀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고금예술도(古今藝術圖)에 의하면 북방의 사람들이 한식(寒食)날 추천을 뛰어 몸을 날래게 연습하던 것을 그뒤에 중국의 부녀자들이 배워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천보유사(天寶遺事)에는 한식날 궁중(宮中)에서 추천경기를 하니 이를 〈반선지희(伴仙之戲)〉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볼때 이 그네뛰기는 북바의 놀음이 중국으로 전래되었던 것이 한식날 연희되었으나 우리나라에 전해져 단오일의 놀이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 다리헤기

소년 소녀들 3~4명이 방안에서 서로 반대방향에 마주하고 앉아서 한다리씩 교대로 섞어서 뻗은 다음 한사람이 바른쪽에서부터 노래를 하며 다리를 세는데 맨 끝에 잡히는 사람은 그 다리를 빼서 구부린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벌을 받는데 이때 부를는 노래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인사 만사 주머니끈
돌아간다 장도칼
아홉계단 열었다.

등이나 숫자를 맞추어 일데기 이데기 등으로도 부르고 있으며 그때 그때 적당한 말로 지어서 부른다.

◉ 횃불싸움(?!火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忠淸道 風俗에 ?!戰이라는 횃불싸움이 있다」고 해서 이 횃불싸움이 전국에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성행하던 놀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횃불싸움은 긴 나무끝에 솜을 뭉쳐서 달거나 송진칠을 하여 그 곳에 불을 붙이고 서로 상대편에게 달려들어 먼저 쫓겨 가는 편이 지는 승부성경기이며 이기는 부락은 풍년이 들고 지는 부락은 흉년이 든다고 하는 무속성(巫俗性)도 띠고 있어서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

하다보면 상처가 나고 불에 데어서 화상도 입으며 심지어는 불이 나기도 한다고 한다.

이 횃불싸움은 불이라는 것이 부정(不淨)을 태우는 뜻도 갖고 있으므로 서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서슴치 않아 재산을 태우는 일도 있으므로 딴 놀이에 비해 일찍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편싸움(石戰)

석전(石戰)은 정월과 단오(端午)에 나타나는 민속으로 삼국시대부터 각 지방에서 행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서로 편을 갈라 싸운다고 하여 〈편싸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민속 가운데서 싸움이란 동적(動的)인 놀이는 단순한 유희(遊戲)가 아니고 과격한 투쟁(鬪爭)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돌싸움. 횃불싸움. 기싸움 등은 전부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싸움은 서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공세(攻勢)를 취하기 때문에 부상자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사장자(死傷者)가 속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거개의 민속이 무속적(巫俗的)인 뜻을 지니거나 이러한 투쟁적(鬪爭的)인 종류가 많은 것은 지리적 조건이 외세(外勢)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 지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쟁성(鬪爭性)을 키우기 위해 창출(創出)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역사 속에서 격전지였던 곳에는 이러한 투쟁적인 민속이 많이 연희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싸움 중에서도 가장 과격하게 벌어지는 것이 횃불싸움과 이 석전(石戰)인데 이 석전은 한 부락(部落) 혹은 수개의 부락이 집단(集團)으로 모여서 동, 서나 남, 북으로 편을 갈라서 수백보(數百普)의 거리를 두고 양편이 서로 돌을 던져 먼저 쫓기는 편이 지는 승부(勝負)의 겨룸이다.

수서(隋書)에 보면 제팔십권 고구려조(高句麗條)에 「每年初 聚戲於浿水之上壬乘腰 列羽儀而觀之事畢王以衣服人水分左右二部 以水石植천擲 誼呼치逐 再三而止」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석전이 고구려때부터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로써 국왕(國王)이 친히 관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아도 이 석전은 유사시에 실전(實戰)을 익히는 방법으로 연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서는 삼국시대보다 이 석전이 더 성행하였는데 고려사(高麗史) 권 134 신우(辛우) 6년 5월조에 보면 왕이 석전을 관전하려 하자 지신사(知申事) 이존성(李存性)이 석전의 관전이 위험하다 하여 불가(不可)함을 아뢰었더니 왕이 노하여 사동 소견(小堅)을 시켜 이존성을 때려 쫓아버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동사 136 신우 13년 5월조에는 왕이 친히 연암에까지 가서 이틀간이나 석전을 관전함을 큰 재미로 여겼음을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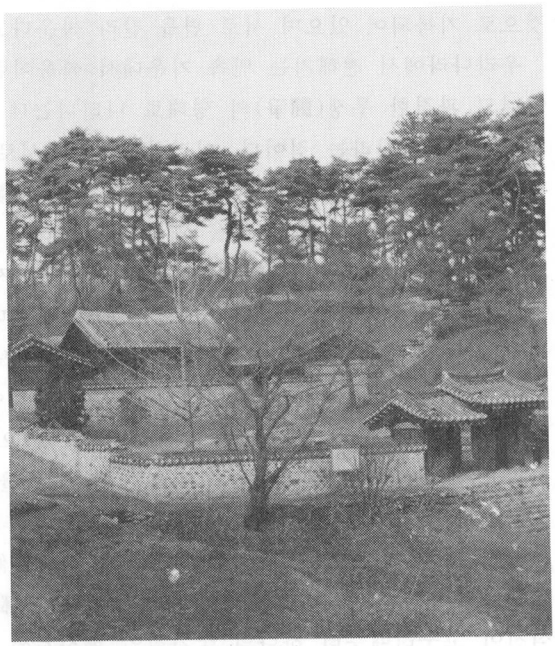
고려때는 고구려와는 달리 정초(正初)에 하지 않고 오월 단오(端午)에 연희가 되었으며 이 석전이 왕이 친히 관전 하는데서 이루었달고 적고 있고 더욱 고려때는 군제(軍制)에 척석군(擲石軍)을 두어 실전에 참가해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第4節 傳 說

1. 崇烈殿

광주(廣州) 일장산(日長山) 중턱에 백제(百濟)의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의 위패를 모신 제전(祭殿)이 있으니, 이것은 조선왕조 16대 국왕 인조(仁祖) 16년에 세웠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고대(古代)의 시조묘(始祖廟)에 조선의 공신(功臣)이 배위(配位)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傳說)이 있다.



〈 숭열전 〉

인조(仁祖)는 어느날 밤 이러한 꿈을 꾸었다.

온조왕이 찾아 와서 자기의 묘(廟)를 세워 준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노라며 먼저 치사하고 「나 혼자 있기는 좀 적적하니 청컨대 당신의 신하(臣下) 이서(李曙)를 나에게 주실 수 없겠오?」라고 원하므로 인조는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하고 쾌히 승낙하자 눈이 떠져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런데 국왕은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광주 유수(廣州留守) 이서(李曙)가 간밤에 죽었다는 부음(訃音)을 접하였다. 그래서 인조는 이서는 온조왕이 데리고 간 것이 틀림없다고 간밤에 꿈꾼 이야기를 하고 온조왕(溫祚王)의 배위(配位)로 이서(李曙)를 종사(從祠)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숭열전(崇烈殿)을 그 동리사람들은 「은묘」라고 부른다. 숭열전은 정조(正祖)가 명명(命名)한 이름이라고 적혀있다.

2. 開運寺의 經亟

조선조 인조(仁祖王) 15년 가을의 일이었다. 한 척의 배가 삼개(麻浦)강가에 닿아 있었는데, 그 배에는 사람은 없고 다만 경함(經亟)만이 실려 있고 함(亟)에는 〈중원개운사간 中元開運寺刊〉이라고 여섯 글자가 씌어 있었다.

삼개의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이것을 관가(官家)에 보냈다. 국왕이 이것을 보고 이르기를

「임자 없는 배가 삼개에 표착(漂着)한 것은 참으로 괴이(靈怪)하다. 이 경문(經文)은 중원(中原)의 개운사(開運寺)에 일찌기 나타난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이같은 이름의 절이 있으면 짐은 그 절에 이것을 주어서 오래도록 보장케 할 것이다.」
라고 분부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 개운사(開運寺)라고 하는 이름의 절이 광주(廣州) 남한산성(南漢山城) 동문(東門) 안에 있었으므로, 왕은 그 경함(經函)을 금란십습(金란十襲)으로 잘싸서 친히 사신(使臣)을 보내어 이 절에 간직하게 하였다.

그 뒤 숙종(肅宗) 20년 겨울에 그절에 불이 나서 그 경함을 간직해 둔 누각(樓閣)에 불길이 타오르려고 하였을 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불을 껐으므로 누각속에 간직한 물건은 그때문에 하나도 손실된 것이 없었다고 한다.

開運寺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佛經이 많고, 大輪盆이 넷이나 있었다고 한다.

3. 僧 科 坪

지금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1963년 1월까지 경기도 관할하에 있던 광주군 언주면(廣州郡 彦州面) 수도산(修道山)에 봉은사(奉恩寺)가 있다. 이 절은 신라 눌지왕(訥지王) 때 아도화상(阿度和尙)이 세운 31본산(本山)의 하나인데 지금으로부터 4백4십년전 조선조 11대 왕 중종(中宗)의 비(妃)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尹氏)의 신임을 받은 중(僧) 보우(普雨)가 이절의 주지(住持)가 된다. 이 보우는 중종이 죽고 인종(仁宗)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명종(明宗)때부터 득세하여 궁중에 거처하면서 선·교(禪·敎) 양종(兩宗)의 승과(僧科)를 제정하고 8도(八道)의 사찰(寺刹)을 새롭게 하였다. 그것은 중종(中宗)때 폐지했던 승과(僧科)가 다시 살아나고, 불교를 독신(篤信)한 문정왕후가 중종이 죽은 다음 전위받은 아들 인종(仁宗)마저 여섯달만에 죽자 다시 나이어린 세손(世孫) 명종(明宗)이 즉위하면서부터 섭정(攝政)하는 대권(大權)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보우대사(普雨大師)의 호는 허응당(虛應堂), 문정왕후의 지나친 사랑때문에 사화(史話)도 많이 남겼지만 하여간 그가 궁중에 거처하고 있던 명종 6년(明宗六年 辛亥) 6월, 나라에서는 그를 판선종사 도대선사(判禪宗事 都大禪師)로 하고 그때부터 양종(兩宗) 승과(僧科)를 다시 세우고 중에게 도첩(度牒~중의자격증)을 주었다.

이때 나라에서는 불교의 과거(科擧) 시험제도인 선·교(禪·敎)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자 온 나라안 중들은 이 소문을 듣고 봉은사(奉恩寺)에 모여들었다. 이때 모여든 중은 무려 수천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때에 시험장소가 협소하여 그 많은 수험자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지금의 승과평(僧科坪), 넓은 들판을 시험장으로 충당하였다.

이리하여 훗날 그 들판을 「승과평·僧科坪」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4. 徐欣男의 袞龍포무덤

지금으로부터 3백5십여년전 병자년(丙子年) 난리에 인조(仁祖)는 근신(近信) 몇 사람과 함

께 서울을 빠져 나와 광주(廣州) 남한산성(南漢山城)을 향하고 있었다. 산기슭 가까이 이르자 전신이 피로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었다. 때마침 그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서근남(徐欣男)이라는 나무꾼이 이 정경을 보고 곧장 인조를 등에 업고 성안으로 올라갔다.

인조는 그 공을 가상히 여기고

「너의 소망하는 것을 주겠으니 말하라」

고 하자 무식한 그는 왕이 입고 있는 찬란한 곤룡포(袞龍포)가 어찌나 좋아보였던지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고지곧대로 아뢰었다. 왕은 그가 소망하는 것을 하사(下賜)하였다.

그 뒤 서씨가 죽자 그의 유언(遺言)대로 그 곤룡포를 그의 관(棺)과 함께 중부면 검복리(中部面 검伏里) 서남(西南)쪽 병풍산(屛風山)에 묻었는데, 그 때의 그 공(功)으로 그는 별군관(別軍官)이란 벼슬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후세의 대소관원(大小官員)은 그 무덤 앞을 지날 때에는 왕의 곤룡포가 묻힌 때문에 모두 말에서 내렸다(皆下馬)고 전한다.

5. 守節臣의 恨 서린 望京臺

이야기는 고려말에서 조선으로 세상이 바뀌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잃어진 땅(失地),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光德山)에 가면서쪽 기슭에 두문동(杜門洞)이란 고적의 땅이 있다.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壬申) 조선태조(太祖)로 개국할 때 고려의 유신(遺臣) 72인의 충신 열사들은 조선을 섬기지 않고 개성 동남쪽에 있는 고개(지금의 不朝峴)에 조복(朝服)을 벗어 걸어놓고 삿갓을 바꿔쓰고 두문동으로 들어갔다. 그후 각지로 흩어져서 제각기 여생을 마쳤는데…….

그중의 8학사(八學士)가 남하(南下) 지금의 광주군 언주면(廣州郡 彦州面)에 있는 청계산(淸溪山)을 비롯한 양·광주(楊·廣州)의 여러산과 여주·이천등지를 편유(遍遊)한 것이다.

이야기의 무대를 청계산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 청계산의 옛 이름은 청룡산(靑龍山), 이 산정에서 청룡이 승천했다고 전한데서 생긴 이름이다.

산중에는 고찰(古刹)이 있으니 고려말의 중신(重新)인 이색(李穡)이 「운수단애임야계 단좌남실독주역·雲水斷崖臨野谿 端坐南窻讀周易〉이라고 읊은 바로 그 청계사(淸溪寺)이다.

「구름아래 벼랑이요 벼랑아래 산골짜기. 시냇물 따라 질펀한 들판인데 남쪽방에 단정히 앉아 주역을 읽는다」고 노래한 것이다.

이 산꼭대기에 석대(石臺)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망경대(望京臺). 망경은 원래 만경(萬景)이라 하여 오른쪽 정상 석대에 오르면 한눈에 천하경치가 전망된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성계의 조선왕조가 군림한 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이었다.

갈갈이 찢어진 옷에 그야말로 죽장망혜(竹杖芒鞋)로 기진맥진 초라한 선비 한 사람이 이 만경대(萬景臺)에 오른 후로는 「萬景」이 「望京」으로 바뀌었다.

이 행색이 초라한 선비야말로 고려조(高麗朝)의 마지막(最後)을 몸소 겪고, 참조(參朝~入閣)권유에 시달리다가 송도(松都)를 탈출하여 망명의 길을 떠나온 고려조 중신의 한사람인 조윤(趙胤) 바로 그 사람이다.

조윤은 이색(牧隱 李穡)·이숭인(陶隱 李崇仁)·길재(冶隱 吉再) 등 고려 삼은(三隱)과 김진향(草려 金震陽)·원천석(耘谷 元天錫)·이고(忘川 李고)·서진(麗와 徐진)·이집(遁村 李集)등과 함께 고려조를 빛내던 명유(名儒)요, 중신(重臣)중의 한사람이다.

고려의 무신 이성계 일파가 정몽주(圃隱 鄭夢周)를 선죽교에서 죽이고 고려왕조를 멸망시키자 지금까지 고려조에 충성을 다하던 명신(名臣)들은 저 신라시대부터 일러내려오는 「충신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개이부(忠臣不仕二君 烈女不更二夫)」라는 말을 노래삼고 등을 돌렸으니, 먼저 청계산에 들었던 이색을 위시해서 길재 조윤등이 바로 그사람들이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성계는 그의 야망대로 일대혁명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으나 신하없는 왕이었고 백성이 따르지 않는 허전한 존재가 되었다.

혁명초 이태조 앞에는 그의 아들들과 정도전(鄭道傳)·조준(趙浚)·배극렴(裵克廉)등 몇사람이 따를 뿐이었다. 문무의 명신들은 동·서 두문동으로 삿갓을 쓰고 사라지고 백성들은 철시(撤市)를 하고 송도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 이에 실망한 이태조는 정몽주 죽인 것을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정도전이 궁여지책으로 시과(試科)로서 인재를 구하기로 하고 널리 과경령을 내렸으나 문무양과에 응시한 것은 시골선비 몇사람박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고려신하(麗臣)의 뒤를 쫓았으나 하나도 따르려 하지 않는다.

이색(李穡)이 이성계의 초청을 받았다. 이색이 대궐에 들자 이태조는 친히 나아가 맞았으나 이성계가 용상에 오르는 것을 본 이색은

「구정(舊情)을 잊지 않기 위하여 찾음이요, 형에게 신도(臣道)를 다하여 찾았음은 아니요.」 한마디를 남기고 물러났고 명신 길재(吉再)는 조선에서 주는 박사(博士)호도 물리치고 입궐(入闕)도 않은채 모친봉양(奉親)을 위해서 입산(入山)한다는 편지만 전하고 또 사라졌다.

김자수(金自粹) 또한 5~6차의 입조 권유에 못견디어 사당(祠堂)에 들어가 최후를 고하고 음독함으로써 이성계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은것이 조윤(趙胤)이었으니 조윤은 자기의 이름이 유독 개국공신록(開國功臣錄)에 올라있음을 보고 실소하며 그의 형 조준(趙浚)을 만났다.

형과 아우가 마주앉아 팽팽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윤(胤)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마음을 돌리게.」

「형님이야말로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시고 저와 함께 낙향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목숨을 걸고 싸운 덕으로 이제 우리집안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무엇이 안타까와서 낙향을 한단 말인가?」

「정 그러시다면 형님이나 부귀공명을 마음껏 누리십시요 . 저는 이대로 시골로 내려가겠읍니다.」

「사람이란 어디까지나 시의(時宜)에 맞추워 살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네 이름을 공신록에 넣어서 호조전서(戶曹典書)라는 벼슬이 내렸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지나간 일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조정에서 일을 보자.」

「형님 말대로 하면 조상의 이름을 팔아서도 벼슬을 해야겠군요?」

「네 이놈! 입을 닥치지 못할까. 듣자듣자 하니까 방자함이 지나치구나.」

두눈에서 쌍심지를 돋구고 형을 바라보던 조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는 형이 아우를 아낌이 아니라 아우를 욕되게 함이 크외다.」

하고 태조에게 붙어 공신이 된 그의 형 조준(趙浚)을 조롱하고서 태조가 준 호조판서(戶判) 벼슬을 거절, 반환하였다. 그리고는 이름 윤(胤)을 견(견)으로 고치고 자를 종견(從犬)이라 했으니 나라와 임금을 잃고는 죽지 못하니 개와 같다고 자조(自嘲)함이었다.

「아우 종견은 물러가오. 형은 역신의 영화를 길이길이 누리시오.」

이렇게 형과 조선에서 등을 돌린 조견, 아니 조윤은 양·광주(楊·廣州) 깊은 산으로 동지를 찾아 헤메이기 그 얼마이던가. 산에는 산으로, 봉에서 봉우리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닭소리 개울음소리를 피하며 다니다가 어느산 높은 봉에 오르니 이곳이 청계산(淸溪山) 정상이었다.

산상에서 굽어보니 때마침 단풍(丹楓)이 한창이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만산홍엽(滿山紅葉).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경치라도 나라와 임금을 잃고도 죽지못하는 자기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아아 내 어찌 죽지 못하고…….」

이렇게 송도(松京)를 바라보며 울고 울다가 쓰러져 잠들기를 그 몇번이던가…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조윤의 슬픔에 동정하여 만경대(萬景臺)를 망경대(望京臺)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조윤이 청계산에 들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태조는 그의 충절(忠節)에 깊이 감동하고 이 충성을 조선왕조 돌려 보기로 마음먹고 사람을 청계산에 보내어 조윤을 찾아 조정으로 돌아오기를 권하기 수차 하였으나 조윤은 멀리 송도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릴 뿐 일언반구도 대꾸가 없었다.

이에 조윤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태조는

「우리 조선왕조에는 역신이지만 그뜻은 장한지고…….」

한마디로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고 한다. 태조는 그래도 조윤을 못잊어 산정에 초당(草堂)을 우리게 하고 조윤으로 하여금 비바람을 피하게 하였으나 조윤은 그 초막이 보기 싫다고 또다시 청계산을 떠나 양주에 있는 송산(松山)으로 숨어 버렸다.

※이때부터 조윤의 호(號)를 송산(松山)이라 하였으며 다른 사서(史書)에는 산상에 우린 초당을 산당(山堂)이라 적혀있다. 이 산당이 있던 자리가 망경대(望京臺)다.

시야(視野)에 조감(鳥瞰)되는 전망도 절승이지만 국토의 절반을 잃고 남하(南下)한 오늘날의 실향민(失鄕民)들도 여기 오르면 5백90여년전 조윤의 슬픔만 못하지 않은 감상(感傷)에 젖으리라.

청계산에 오르면 멀리 휴전선 이북에 두고 온 산하(山河), 잃어진 땅 내나라 국토에 대한 뜨거운 정이 새로와 진다. 만경(萬景)이 망경(望京) 될 줄은 미처 몰랐으리라.

6. 顯 節 祠

「여보게 마지막으로 상감마마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가세」

「그러세」

「이제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몸, 그거 옳은 말일세」

말을 마친 세사람은 오던 길을 돌아서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향해 큰절을 했다.

「상감마마 만수무강 하옵소서」

땅 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 세사람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다. 얼굴이며 온몸은 상처 투성이었고,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이었으나 옷은 갈기갈기 찢기어서 몸만을 겨우 가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각기 오랏줄로 묶여 있었다.

「그만 일어서지 못할까!」 소리치는 청나라 호송 군사의 고함소리에 서서히 몸을 일으킨 세사람, 그들 주위에 늘어서 있는 십여명의 청나라 군사중에 상관인듯한 자가 가죽 채찍을 휘둘렀다.

「가만히 좀 있으시오」

윤학사의 이 말에 그래도 좀 안됐던지 호송대 우두머리는 올렸던 팔을 내렸다.

「이왕에 지체된 김에 담배나 한 대 피웁시다. 마지막 청이니 한대씩 주구려」

하면서 길옆 바위이 털썩 주저앉은 오학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길가에 주저 앉았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성루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많은 사람들이 성루에서 이쪽을 바라보았고, 또는 엎드려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정경은 청(淸)나라의 침략으로 이 강산이 피로 물들고, 무수한 전란의 참화(慘禍)와 함께 인조(仁祖)임금이 청나라에 항복을 한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때의 일이다.

적군을 피해 남한산성에 진을 치고 있던 인조(仁祖)는 47일간을 산성에서 항전(抗戰)하였으나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청태종(淸太宗)앞에 나아가 임금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였던 것이다.

산성을 점령한 청나라 군사들은 제일 먼저 성균관(成均館) 학사(學士) 세사람을 잡아서 그들의 수도(首都)인 심양(瀋陽~奉天)으로 압송(押送)하게 된 것이다. 이 세사람은 다름아닌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였다. 이들로 말하자면 청나라와의 화친(和親)을 반대하고 오랑캐에게 굴복을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데 뭉쳐서 오랑캐와 싸우다가 패하면 모두 깨끗이 죽자고 결사적으로 항전(抗戰)을 주장하였던 주전파(主戰派)들이었다.

「여보게 달제! 우리가 당장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마세」

「암, 물론이지 주화(主和)하자는 패들처럼 더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의로운 일이겠나」

「옳은 말일세. 목숨을 초개같이 생각하면 능히 만고에 의리를 지킬 수 있으며, 죽음이 두려워서 의리를 버리는 인간은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일세」

「한가지 애석한 것은 정온(鄭蘊) 대감처럼 배를 갈라 순절하지 못하고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것이 부끄럽네」

「자, 일어나라! 갈길이 바쁘다」

호송대장이 채찍을 휘드르며 소리치자 세사람은 묵묵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걸을 때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묶이어 비틀거렸다. 산천초목도 그들의 죽음의 행진이 슬픈듯

이 눈발을 뿌려주었다. 만리타국으로 잡혀 가는 그들의 행력을 전송하려고 길 연도엔 백성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렸고 강을 건네어 주는 사공들도 담배를 붙여주며 위로했다. 그들이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기까지 어디를 가나 이러한 정경이었다.

이 민족의 슬픔과 고난을 대신해서 잡혀가는 그들의 고통이 어찌 남의 일같을소냐.

거의 두달이 걸려서 그들은 청나라수도 심양(瀋陽)에 당도하였다. 어느 감옥에 갇혀진 그들의 몰골은 먼 길을 걸어서 오느라고 극도의 피로에 지쳐 있었고, 손과 발은 오랏줄에 치어서 벗겨지다 못해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고 발은 짓무르고 터져서 만신창이었다. 그들은 따로 따로 갇혀서 소나 말먹이같은 식사로 모진 목숨을 이어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군졸들이 세사람을 끌어냈다. 거의 죽음에 이르른 그들이었다. 발의 상처가 덧나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개 돼지 끌리듯이 끌려가서 어느 한곳에 꿇어 앉혔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사방을 휘둘러 보니 그곳은 휘황찬란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살피고 있을때,

「그대들은 머리를 들고 나를 보아라」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보니 군사들이 시립한 가운데 제왕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짐이 이 나라의 천자(天子)이니라. 내 너의들을 당장에 능지처참할 것이나. 그대들의 의기를 가상히 여겨 말하노니 명심할지어다」

「……」

「짐이 특별히 생각하여 그대들의 목숨을 살려 줄것이니 이제부터 그대들은 나의 신하가 되도록 하라」

이말에 홍익한(洪翼漢)이 큰 소리로 말했다.

「황공한 말씀이오이다. 하오나 불충이군(不忠二君)이라 하였아온대 어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아오리까?」

「그게 무슨말인고? 너의 나라 임금도 전에는 명(明)나라에 조공(朝貢)을 바쳤왔으나, 이제부터는 짐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으니, 그대들은 종주국(宗主國)의 천자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청나라의 힘에 못이겨서 조공을 바치기는 하나, 사람의 마음까지는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청나라도 약소국(弱小國)을 침탈하다가 언젠가는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인즉, 하루라도 빨리 우리 조선국에서 군사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윤집(尹集)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꾸하자 청나라 황제는 얼굴가죽이 떨렸다.

「저런! 저런! 무엄한 놈들이 있나. 네 이놈들을 당장 도륙을 낼 것이로되 짐이 참는 것이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처신하도록 하라」

청나라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놈들을 하옥시켜라」

당장 목을 베고 싶으면서도 그들의 꿋꿋한 기상에 감복되어 어떻게 든지 회유해서 자기의 신하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예전부터 조선나라엔 출중한 인물들이 많았다고 들어 온 황제(淸太宗)는 과연 그말이 틀림없는 말이로구나 생각하고 내심 감복해 마지 않았다.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소인 대령하였아옵니다」
「너 이제 가서 조선국에서 잡아온 놈들을 데려다가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전의(典醫)를 시켜서 상처를 치료해 주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아옵니다」
「그런 후에 계집과 술을 주어서 흠뻑 취하게 만든 다음 그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라」
「예에 틀림없이 거행하겠아옵니다」
이리해서 삼학사는 그날부터 청나라궁궐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절개는 송죽(松竹)보다 더한 것이었다. 하루는 세사람이 모였다.
「여보게들 청나라 놈들은 우리가 살찐 다음에 잡아 먹으려는 모양일세」
「어제는 계집들이 와서 갖은 아양을 떠는 것을 처다보지도 않았네」
「뙤놈들이 괜한 헛지랄들을 하고 있네만 어림도 없는 수작이지」
「여하간 죽을때 죽더라도 청태종에게 다시한번 말해서 군사들을 철수해 달라고 말해보세」
「그러세」
이와같이 날을 보내고 있으려니 세월은 어느듯 초여름에 접어들고 있었다.

청군에게 묶여서 고향을 떠나올 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듯 반년 가까이 지난 것이다. 대륙(大陸)에 여름이 되니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초목을 태울 것 같이 이글거리는 태양에 세사람은 말할 수 없이 고향이 그리워졌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식들, 또 부모생각, 나라생각으로 매일같이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어쩌다 잠들면 고향꿈만 꾸다가 잠을 깨어 그대로 밤을 지새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궁중 내시의 전갈을 받고 황제앞에 불리어 나갔다.
「그동안 별고없이 지냈는가?」
「무탈하게 지내고 있읍니다.」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기쁘도다. 이제는 아주 청나라 사람이 되도록 힘써 보라」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백번을 거듭 말씀드려도 소생들은 조선나라 임금의 신하들임을 통촉하소서」
「그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 짐을 노하게 하면 죽음밖에 돌아갈 것이 없을 것이로다」
「금수같이 살 바에야 오히려 사람다운 죽음을 택하겠나이다」
「음… 고얀지고」
「다시 한번 아뢰옵니다만 한시바삐 조선국에서 군사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 조선의 백성들은 청나라 군사들로 인해서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부녀자들은 수없이 겁탈을 당하고 있아옵니다. 청나라는 대국이오니 아량을 베푸시어 어진 백성인 조선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홍익한(洪翼漢)의 절절한 호소를 듣고 있던 청태종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 그대들의 청을 들어줄터이니 그대들도 짐의 말을 들으라」
「……」
「그대들은 이곳에 온 후로 한번도 짐에게 황제폐하라는 말을 안쓰고 있다. 이제부터 짐에게

폐하라고 부른다면 그대들의 소청을 잘 생각해 보겠노라」

「대단히 죄송하오나 우리 임금에게만 그러한 말을 쓰는 것으로 소생들은 알고 있아옵니다. 소생들의 임금이 따로이 계시온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읍니까?」

「그대들의 임금이 이제 내 신하가 되었도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나의 신하의 신하가 아닌가?」

「무릇 임금이라 함은 덕망과 자비로써 신하를 감복시켜야 충신이 나 올수 있는 것이오며 어진 군주라 할 수 있아온데 조선국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살육과 약탈을 자행해서 조선국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함은 황제가 취할 행위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오달재(吳達濟)의 말이 끝나자 동시에 청나라 황제 태종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쳤다.

「저런 발칙한 놈들의 있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에 끌어내어 목을 치도록 하라」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삼학사를 끌어냈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겁을 내는 기색이 없이 끌려 나가는 삼학사,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린 청나라 태종은 힘없이 자리에 앉으며 깊이 탄식을 했다.

「허어. 과연 충신들이로구나, 조선국 임금은 참으로 훌륭한 신하를 가졌도다. 내게도 저러한 충신이 몇명 있다면 얼마나 좋을고……」

「여봐라! 지금 곧 영을 내려 조선에 나가 있는 도총병마대장 마보대에게 즉시 회군하라는 전교를 내려라」

한편 성밖 처형장에 도착한 삼학사 일행은 의관을 정제한 다음 남쪽 고국산천을 향하여 재배를 하고 조용히 칼을 받았다. 아아 슬프고 애통한 일이로다. 만고에 빛날 충의의 삼학사가 이역만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청나라 황제의 융숭한 대접과 환대에도 유혹되지 않고 굳은 절개를 지켜 백의민족의 기상을 살렸으니 그 충절은 영원히 빛나리라. 청태종은 그들의 충의에 감복되어 그들이 죽어간 형자에 삼한산두라는 네글자를 조각한 비석을 세워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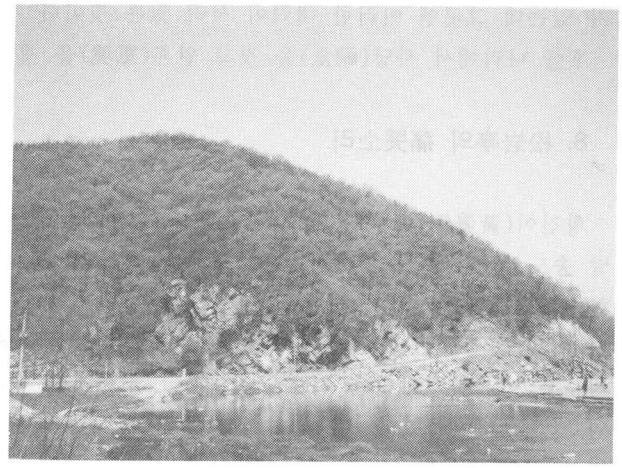
그 후 숙종(肅宗)이 즉위하자 남한산성에 사당(祠堂)을 짓고 삼학사의 위폐(位牌)를 모셔 제사를 지내왔다.

또한 이곳에는 남한산성이 청나라 군사에게 함락되었을 때 배를 가르고 자결한 정온(鄭蘊)과 강화성(江華城)이 함락되었을 때 자폭한 김상헌(金尙憲)도 합사(合祀)한 후 현절사(顯節祠)라는 사액(賜額)을 내리고 기리기리 후손에게 충의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7. 落花岩

병자호란때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남한산성밖에 진을 치고 있었다. 산성밖에 있는 언덕에 진을 치고 있자, 그근처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보호를 요청하므로 부녀자들만을 군사들이 호위하게 되었다. 노도처럼 밀려온 오랑캐들은 가는 곳마다 살육과 노략질과 부녀자들에 대한 겁탈에 혈안이 되고 있던 때라 부녀자들만을 한 곳에 모아 보호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적군은 대병력을 몰아 쳐들어왔다. 좌우 병사는 전군에 명을 내려 양군은 서로 어



울려서 한참 격전을 벌였다. 우병사 민영이 부하들에게 소리를 쳤다.

「아녀자들은 산성안으로 피신시켜라」

「안됩니다.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뒷산 제일 높은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얼마후에 보니 처음에는 어느쪽이 우세한지 분간을 할 수 없었는데, 차츰 아군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승전의 기색을 알게 된 적군은 더욱 사나워졌다. 미쳐서 날뛰는 맹수들처럼 우리편 군사들을 전멸시키려고 대들었다. 그러자 경상우병사가 부하군졸들에게 소리소리 호통을 쳤다.

「사직의 존망이 걸려있는 싸움이다! 물러가는 자는 한 칼에 벨 것이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러나 일단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은 자꾸 밀리기만 했다. 이때 좌병사 허완은 단신으로 말을 몰아 성난 사자처럼 장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누비면서 순식간에 적병을 수없이 찔러 쓰러뜨렸다. 쫓겨가던 군사들도 주춤 돌아서서 다시 힘을 얻어 싸우기 시작했다. 무수한 화살이 날으고 장검이 번득이는 속을 종횡무진으로 달리며 싸우던 허완장군은 마침내 집중하는 화살을 온몸에 받고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대세는 또 다시 바뀌어 전세는 걷잡을 수 없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허완 장군은 명장답게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으나 수하에 있는 수천 군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서 우왕좌왕 뒷걸음을 치며 밀려오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던 여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 간간이 비명만을 지르고 있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지자, 산 아래까지 도달한 적병들은 산 위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제각기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한 여자가 나서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싸움은 졌읍니다. 그러나 우리 아녀자들은 이대로 오랑캐 놈들에게 붙잡혀서 더러운 굴욕을 당하느니 보다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온몸이 오랑캐놈들의 손과 발에 더렵혀지다가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백제시대의 삼천궁녀들처럼 깨끗하게 죽음을 택합시다. 말을 마치고는 산 뒷쪽에 있는 벼랑으로 가서 몸을 던져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른 여자들은 잠시 멍하고 있었으나 곧 이어서 모두 뛰어가 몸을 던졌으니 천추의 원한을 품은채 장렬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수백 명의 꽃같은 여자들이 절개를 지키어 이 민족의 고결한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광경을 바라본 우병사 민영 이하 전 장병들은 이를 갈며 다시 적병들과 용감하게 싸웠으나 워낙 중과부적이라 얼마후 모두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廣州郡草月面)에 가면 쌍령이라는 곳에 부녀자들이 몸을 던진 바위

가 있는데 그곳엔 이러한 내력이 서려 있는 것이다.

후에 나라에서 사당(祠堂)을 짓고 원혼(冤魂)을 제사지냈다고 한다.

8. 松岩亭의 痛哭소리

황진이(黃眞伊)는 마음이 담담했다. 그러니까 꼭 삼년만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 옛날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하여 뭇 남자들의 애장간을 녹이던 황진이가 아니라 속세를 달관한 여승(女僧)이 되어 하산하는 것이다. 삼년동안 일구월심으로 불경을 외우며 수도를 하다가 이제 속세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따라 금강산(金剛山)을 내려 오는 것이다.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프던 그 많은 사랑도 한 가닥 구름처럼 흘려보낸 황진이는 장삼에 고깔쓰고 손에 염주(念珠)를 들었다. 비록 머리를 깍고 고깔을 썼을 망정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황진이는 며칠을 걸려서 어느 산속에 이르렀다. 그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큰 소나무가 울창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깍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으며 경치가 이를데없이 절묘했다. 황진이는 경치에 취하며 더욱 바삐 걸어서 언덕길에 올라섰다. 언덕에 올라선 황진이는 문득 발길을 멈췄다. 언덕위 소나무 아래서 여러사람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 사오명과 여자 두어명이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며 흥겨웁게 놀고 있는 중이었다. 모두가 이십고개를 넘어선 사람들로서 의관을 갖춘 품이 양반집의 한량들로 보였다. 그때 한 사나이가 소리를 쳤다.

「여보게들! 가만히 좀 있어보게.」

「왜 그러나?」

「저 어기를 보게」

「아니 중이 아닌가?」

「글쎄 중은 중인데 여승같구먼.」

그중의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술잔을 훌쩍 마시며 상을 찡그렸다.

「에잇! 재수업게시리 중년이 앞을 지나가다니」

「아이 서방님도 스님도 여자 남자 가려서 재수가 있나요」

「뭐? 술맛 떨어진다」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좋은 수라니?」

「글쎄 가만히 보고만 있게」

이러는 동안에 고개를 다 올라온 황진이가 그들 앞을 지나려 할 때였다.

「여보 스님, 잠깐 내 말좀 듣고 가시오.」

「나무관셍음보살, 무슨 말씀이시온지?」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합장을 하고 서 있는 황진이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눈은 호기심에 가득찼다.

「고마우신 말씀이나 소승은 사바를 떠난 몸이오라 이대로 물러갈까 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황진이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이 때몸이 건장한 한 사나이가 황진이에게로 다가와서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일행이 앉아 있는 곳으로 왔다. 이에 좌중사람들은 와…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전생의 인연이니 스님도 우리하고 유쾌하게 놀아봅시다 하하.」

「불가에 몸을 담고 있는 소승을 어찌 이리도 희롱을 하십니까?」

「화를 내지 말고 그 백옥같은 손으로 술 한잔 따라 주시구려, 얘들아! 무엇을 멍하니 있는 거냐? 어서 장구를 쳐라!」

땅딸보 같은 사나이가 기생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황진이의 고깔을 벗겨서 절벽 아래로 던진 것이다. 좌중은 또 한번 웃음판이 벌어졌다. 그러자 기생들은 장구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저 계집들보다 스님의 얼굴이 백배낫소. 머리를 기르고 나와 살면 어떻겠소 하하…….」

「무엄한 말씀이오. 관세음보살.」

「술맛 떨어지게 놀지말고 자 한잔 따르시오.」

갖가지 수작들을 부리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영 글렀다고 생각한 황진이는 할 수 없이 술병을 들었다. 잔을 내민 땅딸보 사나이에게 술을 따라주니 그는 한숨에 술을 들이키고서

「어어 그 술맛 좋다. 스님이 따르는 술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진즉 몰랐는데…….」

하고 능청을 떨었다.

이윽고 황진이가 입을 떼었다.

「이제 소승은 물러갈까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천하의 절색이 가버리면 흥이 깨어질 터인데 될 말이요?」

그러면서 황진이의 손목을 잡아 끌어 껴안으려 하자 기생하나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며 가운데로 파고 앉았다.

「서방님 그만 하세요, 부처님한테 벌 받아요.」

「네년은 저리 좀 가 있어! 난 이 스님하고 만리장성을 쌓아야겠다.」

이때 황진이는 물러 앉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

「그대들의 우매함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오.」

「뭣이? 건방진 중년이!」

「그대들이 하는 짓은 인간의 오욕이 빚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욕을 채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無)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 맺은 업보(業報)라는 것은 내세(來世)에 가서는 영원한 것 입니다. 그대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법을 더럽히려 함은 곧 그대들의 내세를 더럽히는 것이니, 자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남을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어조로 황진이는 설법(說法)을 계속했다. 좌중의 사람들은 말을 잊고서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중에도 기생 하나는 두 볼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소승은 본시 송도에서 살던 황진이라는 기생이었읍니다. 어느 때에 깨달음이 있어서 불가(佛家)에 귀의(歸依)하였사온데 소승도 사바(娑바)에 있을 때에 지은 업(業)으로 고행(苦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이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였다. 눈물을 흘리며 황진이의 말을 듣고 있던 기생이

「소녀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이 세상을 살기가 부끄러워졌사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하고 순식간에 절벽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남한산성 동문 근처에 있는 송암정(松岩亭)에는 달 밝고 고요한 밤이면 남녀들의 노래소리와 여인의 통곡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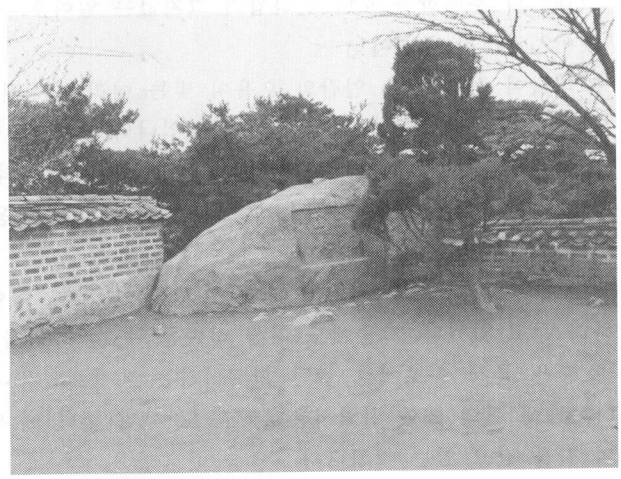
9. 西將臺 매 바위

이 전설(傳說)은 지금으로부터 3백6십여년전 인조(仁祖)때 성역(城役)을 일으키면서 시작된다.

당시 조정(朝廷)에서는 남한산성 축성에 승군(僧軍)을 창설하고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 벽암(碧岩)으로 감독케 했다. 광주유수(廣州留守) 이서(李曙)는 축성공사를 둘로 나누어, 남(南)쪽은 부하인 이인고(李寅고)에게 맡기고 북(北)쪽은 중(僧) 벽암(碧岩)에게 각각 나누어 분담시켰다.

이인고는 그날부터 낮과 밤을 일심전력으로 오로지 축성에만 노력하여 돌하나 흙 한줌에도 정성을 들여 침식(寢食)을 잊다싶이 몰두하였다.

그러는 중에 축성 자금(築城資金)이 부족하였으므로 마침내 자기의 사재(私財)까지 전부 던지었다. 그러하였지만 공사를 준공(竣工)하기에는 아직도 자금은 부족하고 해서 공사는 하루 이틀 늦어만 가고 있었다. 그 반면에 중 벽암(碧岩)의 공사는 착착 진행되어서 기일안에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가(官家)에서 받은 공사비중에서 남은 금액까지도 관가에 반납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정직한 이인고(李寅고)는 점점 의심을 받게 되어 「이인고는 사리 사욕을 탐하고 주색(酒色)에 빠져서 공사를 게을리 한다.」는 간신들의 모략에 의하여 관가에서는 이것을 사실처럼 믿게 되어 불행하게도 이인고는 서장대(西將臺)에서 참수형(斬首刑)을 당하게 되었다.



형(刑)을 집행하기 전에 그는 조금도 슬픈 기색도 없이 「신이 죽기는 합니다만 신이 죽은 뒤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 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윗 자리에 앉은 유수는 이것을 들은 척도 아니하고 곧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그러자 번쩍이는 칼날에 비참하게 이인고의 목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피흐르는 목에서 한 마리의 매가 날아 나와서 이인고의 시체를

돌고 장대 근처의 바위위에 앉아 무서운 눈초리로 군중(群衆)을 흘겨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것을 본 군중은 이상하여 그 매가 앉던 바위로 쫓아가 보니 매는 없고 다만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관가(官家)에서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이 실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벽암이 쌓은 성(城)은 한군데도 정성드린 곳이 없이 허술하였으나 이인고가 분담하여 쌓은 성은 금성철벽(金城鐵壁)같이 견고(堅固)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관가에서는 많은 돈을 하사(下賜)하여 서장대 근처에 사당(祠堂)을 짓고 이름하여 청량당(淸涼堂)이라 현판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그런데 이인고 부인(夫人) 송씨(宋氏)도 역시 남편 못지 않은 열녀(烈女)였다. 남편이 축성비(築城費) 부족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을 보고 하루는 그가 남편에게 「멀리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받아다가 축성비로 대겠읍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표현히 집을 나선지 여러달만에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얻어 이것을 배에 싣고 세밭나루(三田渡)에 다달았을 때 뜻밖에도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悲報)에 접하자 하늘에 사못치는 원한(怨恨)로 앙천통곡(仰天痛哭)을 하다가 한강(漢江)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다.

관가에서는 송씨부인의 충절과 열성을 기려 그 강가 언덕위에 사당(祠堂)을 세워 그 영혼을 위로 하였다고 한다.

후세사람들은 서장대의 매(鷹)가 앉았다가 발자국을 남긴 후의 그 바위를 「매 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0. 南漢山城의 淸溪堂

조씨부인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치장을 곱게 한 뒤 하녀를 불렀다.

「복녀야! 오늘 조반은 정성들여 지어서 올려야 한다.」

「왜요, 마님? 언제는 제가 정성을 안들였나요…….」

「글쎄, 그래도 오늘부터는 더 성심껏 찬을 만들란 말이야.」

웬지 오늘따라 조씨부인은 기분이 매우 좋은 표정이었다. 잠시후 기침을 하며 일어난 김진사를 쳐다보는 시선도 유별나게 다정스럽고 은근하다. 얼마후 아침상을 차리고 앉은 김진사와 조씨부인을 갓 결혼한 사람들처럼 수줍음과 다정한 태도로 시선을 나눈다.

「반주를 올릴까요?」

「한잔 따르구료. 한잔 마시면 피곤이 싹 풀릴 터이니까.」

「몸이 많이 축 가셨겠어요. 나이 먹은 양반이라 몸을 조심 하셔야지, 호호……」

「허허…오늘따라 당신이 십년은 젊어진 것 같소.」

「정말이세요? 그리고 나서 참 새벽녘에 잠간 잠이 들었을 때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말씀드려 볼가요?」

「기이한 꿈이라니 무슨 꿈을 꾸었소?」

「글쎄 어떤 중이 들어와서 불쑥 거울을 내밀더니 이 거울을 항상 잘 닦아서 지니라고 이르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여보! 그게 바로 태몽 꿈이라는 거요! 여보, 이제 우리도 늙으막에 자식을 하나 얻는가 보오.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는 김진사는 덥썩 부인 조씨를 끌어 안았다. 기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항상 괴로움으로 날을 보내다가 이제 태몽 꿈을 꾸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여보 마누라, 내일부터 후원에서 꼭 아들을 점지하시라고 치성을 드리도록 하오.」

「네. 정성껏 백일기도를 올리겠어요.」

그로부터 얼마만에 과연 조씨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찼다. 이 아이가 바로 이름은 각성이요, 성은 삼산김씨인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총명하고 기운도 세어서 그의 나이 네살이 되매, 천자문을 떼었고 밖에 나가서는 동네 조무라기들을 모아 성을 쌓고 싸움놀이에 열중하는 데 대장 노릇은 항상 도맡아 했다. 그런데 나이 열네살때의 일이다. 그토록 몸이 튼튼하던 김도령이 하루는 갑자기 앓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놀란 김진사 내외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다 진맥을 보았으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니 김진사 내외는 거의 환장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의 머리맡에서 눈물로 날을 보낸 것이 거의 한달이 가까왔다. 그러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얼굴에 사색이 돌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듯했다. 이때 염불소리와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중이 대문앞에 와서 불공을 한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주인 어른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오만, 어찌 오셨읍니까?」

「소승은 본시 시주승이오나 부처님의 명을 받고 주인장댁의 도련님을 모시러 왔읍니다. 나무아미타불.」

남루한 차림의 노승이 하는 말을 들은 김진사는 대뜸 노기를 띠고 소리를 쳤다.

「아니 내 아들을 왜 데려간단 말이오? 가만있자. 이제 보니 너는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온 염라대왕의 사자로구나.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고정하시오. 주인장, 그런게 아니오라 주인장의 아드님은 부처님께서 점지 해 주신 분인데, 지금 잡귀에 시달리고 있으니 절에 데려다가 불공을 드리도록 하라는 분부를 부처님이 소승의 꿈에 현몽하셔서 말씀하셨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까부터 대문밖의 소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부인 조씨가 맨발로 뛰어나와 두손을 합장하며 말을 했다.

「아이구 대사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 주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읍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방안에 들어와서 김도령의 창백한 얼굴을 저으기 바라보던 노승은 김진사에게

「주인어른은 제 말을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댁의 도련님은 보아하니 출가를 해야만 생명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상인데 불가에 귀의 시킴이 어떠하옵신지요?」

「?…」

「아이 여보! 목숨만 건져 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왜 대답을 안하세요.」

곁에 있던 조씨부인이 안타까운 듯 남편에게 말을 했다.

그러나 대를 이어야만 할 외아들이요, 모든 보람을 걸고 길러 왔는데,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김진사는 한참동안을 비통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대사의 말씀을 좇으면 틀림없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읍니까?」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부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사님은 어느 절에 계신 누구시오니까?」

「나무아미타불…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가 없사오나 댁의 도련님이 불제자가 돼셔서 장성하였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허허…. 부모 자식간에 생이별을 해야 한다니 이 무슨 팔자란 말이오…」

그리하여 노승의 등에 업혀서 강원도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있는 암자로 온 김도령은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졌다.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자 노승은 그에게 글공부와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낮에는 금강산의 기암 절벽 골짜기를 누비며 창·칼쓰기와 활쏘기 등 독특한 고승의 비법을 배우게 되어 원래 타고난 건장한 체력은 날로 달로 무술이 연마되어 그 도술과 무술은 일취월장했다. 또한 밤이면 등불을 돋우어 고매한 학문을 배워 그의 총명한 총기는 대하 같은 학문을 터득했다. 사바세계를 떠나 선경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고승과 도령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했다.

세월은 흘러 도령의 나이 스물 두살이 되었다. 어느 날 김도령을 불러 앉힌 호호백발의 노승은 자기가 지어준 김도령의 호를 부르며

「애, 벽암(碧岩)아! 네가 내 등에 엎혀 이 산에 들어온 지가 어언 십년이 된단만 나는 별로 너를 가르친 것이 없구나. 그러나 너는 완전한 불제자가 되어 아무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하산하여 억조창생을 구원하는데 힘쓰도록 하라.」

「어인 말씀이옵니까? 스승님」

「지금 저 사바세계에는 너를 낳은 부모가 애타게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 나라는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니옵니다. 저는 이대로 스승님의 곁에 있겠읍니다.」

「허허,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느냐? 조그만 정에 끌려서 대사를 그르치려고 하느냐? 아무래도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것 같구나.」

「용서하옵소서.」

「아무말 말고 그대로 하산하여라. 불문에선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하였느리라.」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스승의 뜻에 따르겠읍니다. 하오나 수시로 스승님을 찾아 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다. 나도 이곳에서 떠날 것이니 나를 찾을 생각은 아예 말도록 해라.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네가 잠을 잘 때 부처님이 현몽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잘 알겠읍니다. 스승님 만수무강 하옵소서.」

「오냐 잘 가거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오는 청년 벽암은 자꾸 뒤를 돌아봤다. 실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청년 벽암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의 옛집을 찾으니, 그의 집이 있던 자리엔 터만 남은 폐허가 된 것이다. 한참을 찾아봐도 역시 집은 없었다. 이에 놀란 벽암이 마을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니 기막힌 말을 전해준다.

그 옛날 평화스럽던 김진사의 집은 아들이 떠나간 후, 흡사 초상집 같이 되어 버리고 김진사 두 내외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운 뒤, 몇 년 만에 내외가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을 안고 잡초만 무성한 부모의 묘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 자식인 자기로 인해서 타고난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일찍 저승으로 떠난 부모를 생각하고, 벽암은 크나 큰 자책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루종일 부모의 묘앞에서 복받치는 슬픔이 눈물을 흘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것이다. 그런데 꿈에 자기를 가르치고 길러준 고승이 나타났다.

「벽암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인 것이다. 너로 하여금 사사로운 집안에 얽매이지 말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을 극락세계로 모셔간 것이니라. 슬픔을 거두고 이제 곧 한양(漢陽)으로 가거라. 머지않아 이 나라는 외적의 침략으로 국운이 위태로와 질 것이다. 한양에 당도하면 네가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엄숙한 얼굴로 말을 마친 노승은 홀연히 사라졌다. 곧 잠이 깬 벽암은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 못하고 사방을 한참 두리번 거렸다. 이윽고 꿈이었음을 깨닫자 다시 부모의 묘에 재배를 하고 한양쪽으로 서서히 발길을 옮겼다.

광해군(光海君)때, 어느 봄철이었다. 무과(武科)를 시험치는 과거장엔 왕을 위시해서 만조백관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조선 팔도에서 무술에 자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수백명이나 서울에 올라와서 과거에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칼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쏘는 사람, 힘이 항우같은 사람 등 누구나 한가지씩 무술에 능한 사람들인지라 서로 장원급제하려고 경쟁이 치열했다. 지금은 오전중이라 활쏘기시험이 한참이었다.

군사 하나가 호명을 하면 나와서 화살 다섯개를 쏘는 것이다.

「김강성 나오시오!」

군졸이 소리치자 건장한 젊은이가 나왔는데 머리는 까까머리 중이요, 옷은 남루한 수도승 차림이었다. 그를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못마땅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호기심으로 차 있었다. 군관이 퉁명스럽게 물으면서 화살을 내주었다.

「스님도 활을 쏠 줄 아시오?」

「…」

묵묵부답으로 활에 시위를 먹여 오백보 앞에 보이는 과녁을 겨누었다. 군관의 신호와 함께 시위(弦)를 떠난 화살은 딱하는 소리를 내면서 과녁 한복판에 정통으로 꽂히었다.

「으음? 중녀석이 보기와는 다르구먼」

군졸들의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가만들 있게.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 맞은게지 중놈이 별 수 있겠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번 딱소리가 들리며 적중했다. 세번째, 네번째, 화살 다섯 개

를 모조리 관중시킨 젊은 중 벽암은 결국 활쏘기에 일등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장원은 아니었다. 오후부터 거행되는 검술시험에서도 또 한번 싸워야만 장원을 가려 내는 것이다.

이윽고 한나절이 지나자 각조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네 사람이 최후의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비록 나무로 깍아만든 목검이긴 하지만 단단한 네 사람이 최후의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비록 나무로 깍아만든 목검이긴 하지만 단단한 참나무라 잘못 맞았다가는 몸이 크게 상하는 것이다. 네 사람이 둘씩 둘씩 두쌍이 돼서 각각 싸우는데 상대편이 손을 들때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다. 흐르는 땀을 씻을 겨를도 없이 최후의 결승전에 맞붙은 사나이들, 두 사람은 모두 체격이 건장했으나 한 사람은 바로 청년 벽암이요, 또 한사람은 괴상한 차림을 한 거한이었다. 머리는 봉두 난발을 했고, 몸을 털가죽으로 가렸다. 짐승의 털같이 자란 수염속으로 반짝이는 그의 눈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해 보이는 빛을 띠고 있었다. 이들의 광경을 바라보는 왕과 모든 관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긴장되어 있었다.

쥐죽은 듯 조용한 순간, 이윽고 징이 울리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로의 헛점을 노려가며 한동안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아가다가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짐승처럼 생긴 사나이가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재빨리 몸을 피한 벽암 청년. 그러자 연거퍼 공격해 오는 사나이. 한동안 벽암은 궁지에 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호흡을 가다듬은 벽암은 상대방의 혀를 노리고 사력을 다해 목검을 후려쳤다.

순간, 만만찮은 적수는 얼른 몸을 피하면서 목검을 맞 받았다. 그러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괴상한 사나이의 목검이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얼른 몸을 뒤로 빼며 놀란 표정이 괴상한 사나이의 얼굴에 흘렀다. 이때야말로 벽암 청년에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벽암은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말을 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칼을 내 주시오!」

이 말을 들은 심판관은 감탄하며 상대편 사나이에게 다른 목검을 내 주었다. 목검을 받아 쥔 사나이는 잠시 목검을 흔들다가 그것을 팽개치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진짜 칼로 싸우고 싶소. 진검을 주시오.」

「시험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오. 그냥 그걸로 싸우시오!」

이때 왕이 심판하는 감독관을 불러서 물었다.

「왜 무술시합이 중단되었는가?」

「예에, 저 털옷을 입은 사람이 진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오며 진검을 내달라 하옵니다.」

「그래?…. 그럼 두 사람에게 진검을 내주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읍니다.」

원래 광해군은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보는 절묘한 무술시합에 넋을 잃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진검을 들고 서 있는 두 사람의 표정에 시퍼런 칼날만큼이나 살기가 감돌았다. 과거를 보는 시합이라기보다는 원수끼리의 대결같이 느껴졌다. 곧 이어서 두 사람의 칼이 맞부딪치면서 불이 일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땀도 흐르지 않고, 오직 냉냉한 살기만이 감돌 뿐이었다. 다시 부딪는 칼과 칼의 섬광(閃光)! 이렇게 해서 이십여합을 싸우다가 털가죽을 입은 험상궂은 사나이의 칼이 벽암청년의 허리를 향해서 후려쳤다. 그 순간 몸을 뒤로 뺀 벽암청

년이 칼을 맞받아 치자, 상대편 사나이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엉거주춤 물러서서 멍청한 얼굴로 벽암청년을 바라봤다. 그러나 벽암은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면서 한 발 앞으로 나가서 칼을 번쩍치켜 들었다. 그러자 험상궂은 사나이의 얼굴엔 갑자기 공포가 어리면서 몸은 사시나무 떨듯 하다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비호같이 빠른 걸음으로 궁중속으로 뺑소니 친 사나이는 금새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러한 광경을 한참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던 왕 이하 모든 장신(將臣)들은 갑자기 정신이 난 듯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화자소리와 함께 울리고 사방이 환성소리에 떠나갈 듯했다.

이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왕은 친히 무술시합장 안으로 들어와서 벽암청년앞에 이르렀다. 벽암청년은 무릎을 꿇고 부복했다.

「어, 기특한지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고?」

「본명은 김각성이라 하옵니다.」

「내 평생에 그대같은 장군을 처음 보느도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여봐라! 어서 이 김각성장군과 함께 환궁하도록 하렸다.」

이리하여 무과(武科)에 장원급제 한 벽암청년은 대궐로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장군 김각성을 팔도 도총섭(八道 都摠攝)에 명하노라.」

무명 청년으로서 파격적인 벼슬을 제수받았다.

그로부터 벽암은 대궐에서 지냈으나 별로 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임금인 광해가 국사를 그르치자 벽암은 보다 못해 여러번 감언을 했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지금 북방의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읍니다. 안으로 백성을 부강케 하고, 밖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진력하시기 바라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인데, 경은 어찌해서 민심을 소란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옵니다. 지금 오랑캐들은 동북을 통일해서 청나라를 세우고, 연일 군사력을 기르고 있는 중인 줄 아옵니다.」

「듣기 싫소! 그대는 쓸데없는 말로 더 이상 짐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오.」

이래노니 벽암은 기가막힐 따름이었다.

더구나 왕은 나약한 문신들과 악날한 간신들에게 당파싸움과 옥사를 일으키는 데만 정신을 쓰고 매일 매일을 주색으로만 세월을 보내니 딱한 일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충신들을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는 간신배들의 등쌀에 더 이상 대궐에 있기가 싫어져 벽암은 임금에게 벼슬을 내놓고 대궐을 떠났다.

대궐에서 나온 벽암은 삭발을 하고 장삼을 구해 입은 뒤, 그 옛날 자기가 자라던 금강산의 암자를 찾아서 떠났다. 그는 몽매에도 잊지 못하는 자기의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후일을 기약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갈때 가졌던 사명과 웅지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다시 입산을 해야 하는 자신이 서글프고 부끄럽기도 했다.

며칠만에 금강산에 당도한 벽암은 스승이 살고 있을 암자를 찾아갔으나, 옛날에 자기가 자

라던 암자는 보이질 않았다. 벽암은 탄식을 했다.

〈그러면 스승님은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해가 서산에 기울고 밤이 지샐 때까지 바위에 걸터 앉아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니 부모생각, 스승생각에 가슴을 에이는 것 같았다. 이튿날 일찍 산열매로 배를 채우고 나무를 움막을 지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불경을 외우고 기암절벽을 뛰어 넘으며 몸과 무술을 연마하면서 지냈다.

어느듯 몇해가 흘렀는데 나라의 운명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 청나라에서는 많은 첩자들을 보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중이 되어버린 벽암대사가 어느날 암자옆에 있는 바위에 누워서 혼곤히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났다.

「벽암아! 너는 어찌해서 내 뜻을 모르느냐? 너는 빨리 세상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라.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나라와 사직을 구하도록 성부터 쌓도록 하라.」

이래서 황급히 부복해 엎드린 벽암대사는 간곡히 부처님께 빌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내나라, 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임금은 우매하나 양같이 어질어서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참화에서 벗어 나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사바세계에서 백팔번뇌는 피할 수 없는 것, 네가 할일이나 열심히 하도록 하라.」

이에 벽암이 무슨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들자 부처님은 어느새 사라졌다.

소스라치게 잠에서 깬 벽암대사가 그길로 산을 내려 가 보니 몇년 사이에 임금이 광해군에서 인조(仁祖)로 바뀌어 있었다. 그길로 대궐로 들어가 왕을 찾아 뵙고 간곡한 어조로 아뢰었다.

「미구에 북쪽에서 오랑캐의 무리가 쳐들어 올 것이니, 팔도에 성곽을 튼튼히 하옵소서.」

「고맙소. 그렇다면 대사에게 벼슬을 내릴테니 대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해주구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승은 백의로서 종군하도록 통촉해 주옵소서」

「경의 뜻이 정 그렇다면 경의 마음대로 하시구료.」

「황공하옵니다.」

이리하여 벽암대사는 광주 남한산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튼튼히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병자(丙子)겨울에 청나라가 쳐들어 와서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여 진을 치고 있었으나 적군들은 한달이 넘도록 성을 깨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벽암대사는 의병을 일으켜 항마군(抗魔軍)이라 칭하고 도처에서 적병과 싸웠다. 한번은 적군과 부평(富平)벌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였다. 오색의 기치와 창검아래 산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는 만여명의 적군을 앞에 두고, 우리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사기를 잃고 있었다. 우리 군사들은 삼천의 병력이지만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의병들이므로 장비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벽암대사는 홀로 말을 타고, 산아래로 내려가서 소리를 쳤다.

「내가 조선의 팔도 도총섭 벽암이다! 너희도 대장이 나와서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

이때 적진에서 장군 한 사람이 군졸하나를 데리고 천천히 나오는데 아무리 보아도 싸움을

하러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았다. 적당한 거리에 멈춰서서 이편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며 적장은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장군의 본명을 말해 보시오!」

「원수끼리 만나서 본명은 알아 무엇하자는 말이오. 어서 나와서 내칼을 받으오.」

「장군의 본명이 혹시 김각성이 아니시오?」

「그렇소만, 왜 묻는 거요?」

「하! 내 눈이 틀림없구나……」

「장군은 옛날에 과거장에서 칼을 잃고 도망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시오?」

「그렇소만, 왜 묻는거요?」

「하! 내 눈이 틀림없구나……」

「장군은 옛날에 과거장에서 칼을 잃고 도망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시오?」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그사람이 바로 나요, 내 이름은 용골대(龍骨大)라 하오. 그때는 조선의 정세를 염탐하러 왔다가 조선의 인재를 알아보려고 과거장에서 무술시합을 해 봤던 거요. 그러다가 장군에게 하마트면 목이 달아날뻔 했었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무술시합을 해서 이번 싸움의 승부를 결정하는게 어떻겠소?」

「잘 알겠소. 하지만 싸우기 전에 내가 장군을 초청해서 술을 한잔 나누고 싶은데 의향이 어떠하시오?」

「술도 좋지만 승패가 결정난 다음에 진 사람의 간을 빼서 안주로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오.」

「좋소, 그럼 싸움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말을 마친 적장 용골대는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의 진으로 돌아갔다. 벽암대사도 할 수 없이 산으로 올라왔다.

대장이 적장과 붙으면 틀림없이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할 것이라고 의기소침해 있던 의병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이튿날 아침 벽암대사는 다시 대오를 점검하고 산을 내려가서 적진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 많던 적군이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다. 질펀한 들이므로 적병이 매복할 만한 곳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군졸 하나가 와서 고했다. 저쪽에 창이 하나 꽂혀 있고 창위에 이런 편지가 매달려 있읍니다. 벽암대사는 군졸이 내민 편지를 받아 읽었다.

「김각성장군! 소장은 이대로 물러가오. 우리 군사들로써 장군의 군사를 모조리 몰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오나 그 옛날에 장군이 소장의 목숨을 살려 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만 물러가는 것이오.」

이런 내용이었다.

그후 벽암대사는 도처에서 적병을 물리쳤으나 조정의 항복으로 인하여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러한 벽암대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세 사람들은 남한산성에 청계당(淸溪堂)이라는 사당을 지어서 그를 후모하고 있는 것이다.

11. 天　　馬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청태종(淸太宗)의 대군이 이미 서울을 침공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뒤이어 남한산성으로 쳐내려 올 것이라는 소문이 빗발치듯이 다다랐다. 그러자 군신들은
「이 남한산성도 위태롭게 되었사오니 다른 곳으로 파천하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고 인조(仁祖)에게 말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꼬」
인조는 그만 천지가 깜깜하였다.
「전과 같이 공주로 파천하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아니오이다. 강화가 가장 안전하오이다.」
영의정 김유(金瑬)를 비롯하여 판윤 최명길(崔鳴吉)등의 여러 신하들이 각기 주장을 세우다가 급기야 강화로 파천하기로 정하였다.
「어마(御馬)를 대령하라」
인조는 일부 장졸들을 남한산성에 남겨 놓고, 군신들을 거느리고 다시 강화도(江華島)로 향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임금이 탄 말이 움직이려 하지를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
어승마(御乘馬)를 어거하는 군졸이 소리를 치며 말고삐를 잡아나꿨으나 어승마는 힝힝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사태는 잠시를 늦출 수 없으니 긴박한 때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급히 어승마를 어거해 이끌지 못하느냐!」
「어거하는 자를 바꾸어라!」
신하들이 초조하여 두 발을 구르면서 독촉했으나 어승마는 여전히 소리만 지르고 뒷걸음질만 칠 뿐,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다.
이윽고 채찍으로 어승마에 매질을 했으나 어승마는 전신에 땀을 쭉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다.
「이일을 어쩌나」
「어이할꼬…」
모든 신하들의 마음은 조급했다. 말까지 말을 안 들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이때에 서울에서 또 급보가 다다랐다.
「오랑캐 군사가 서울을 도륙하고 남한산성으로 향하여 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진퇴유곡이다. 인조는 말을 끌려고 법석을 떠는 신하들에게 어명을 내렸다.
「말이 걷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니 말머리를 돌이켜라!」
하고 인조가 고삐를 잡아 돌이키자 말이 전과는 딴판으로 날새게 뛰어 다시 남한산성의 옥좌를 모신 전각앞에 당도한 것이다. 이 모양을 본 군신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으며, 결국 강화도로 가는 파천길은 중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오랑캐 대장은 인조가 강화도로 파천할 줄을 눈치채고 청군을 요소에 매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인조는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어승마가 다시 강화도로 가려 하지 않는 것은, 즉 하늘의 뜻이었던 것이다. 뒤에 이 사실이 밝혀져서 어승마를 천마(天馬)라고 일컫게 되었다는 것이다.

12. 國淸寺의 약우물의 靈驗

옛날 경기도 광주에 이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던 총각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원일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종기가 등에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종기가 크기 때문에 걷지도 못함은 물론 똑바로 누워 있을 수도 없어서 고생이 막심했다. 별의 별 약을 다 써 보아도 효험이 없는지라 근심은 날로 더해갔다. 효심이 지극한 이집은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서는 있는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아버지 곁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에 신선이 이집에 나타났다.

「얘야, 내일부터 목욕제계하고 국청사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려라.」

「…」

「그리하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신선은 홀연히 사라졌다.

잠이 깬 이집이 생각해 보니 예사꿈이 아니었다.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마을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기도를 드린 것이 어느덧 백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날도 새벽 찬이슬을 맞으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이집이 무심히 어느 바위를 바라보니 바위틈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세수도 할 겸, 물도 먹을겸 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바위틈에 입을 대고서 물을 마시던 이집이 샘물을 들여다 보니, 금붕어 한 마리가 노는 모양을 한참 들여다 보던 이집은 소중히 금붕어를 잡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잠이 깬 아버지가 목이 하도 말라서 물을 먹고 싶었지만 곤히 잠든 아들을 깨우기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물을 뜨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몸이고 하여, 그저 꾹 참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지라 아버지는 금붕어가 들어 있는 그릇의 물을 마셔버렸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었다. 등에 난 종기가 확 터지면서 피고름이 콸콸 쏟아지고 갑자기 시원해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엉겁결에 아들을 깨웠다.

「얘야! 내 등좀 봐다오. 고름이 흐르는 것 같더니 아픈 것이 싹 가셔 버리는 구나.」

「어떻게 하셨는데 그래요? 아버지」

「저 금붕어가 들어있는 어항의 물을 마셨더니 그렇구나.」

아버지 등에 흐르는 고름을 닦아내면서 이집은 생각에 잠겼다.

꿈속에 나타났던 신선의 말대로 백일기도를 한 까닭에 금붕어를 잡게 되었고, 그 금붕어를 기른 까닭에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된 것이다.」

「얘야 저 어항에 물이 없으니 우물물이라도 채워 주려므나.」

「아 참 그래야 되겠군요.」
하고 이집이 부엌으로 나가서 독의 물을 퍼다가 그릇에 넣으니 이상하게도 꼬리치는 금붕어의 빛깔이 검어지는 것이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집과 그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랐다.
「얘야, 저 금붕어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아마도 금붕어가 있던 물이 영험이 있나보다.」
「절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샘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날이 새는대로 그 물을 떠오너라.」
오랫만에 희색이 만면해진 아버지와 아들은 밤이 새도록 기쁨을 주고 받았다.
이윽고 동이 터오자 집을 나선 이집은 큰 그릇을 가지고 한달음에 샘으로 달려가서 물을 떠왔다. 곧 붕어가 들어 있는 어항을 비운 다음, 새로 길어 온 물을 채우니 이상하게도 붕어의 빛깔이 다시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과연 그 샘물이 영험이 있는 약수로구나. 어디 내등에 좀 발라봐라.」
이집은 샘물을 아버지의 상처에 발랐다. 그러자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어 시원하구나, 어디 한모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이집의 아버지는 병이 완전히 낳았다.
그후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널리퍼지자 각처에서 피부병 환자가 다 몰려 들었다. 이 샘물은 남한산성의 서장대 아랫쪽에 있었는데 근처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국청사 약우물이라고 불렀다.

13. 효자우물

남한산성 북문안에 효자우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다. 그 효자우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산성 북문안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다. 효자의 이름은 정남이라고 하는데 정남의 나이 열두살 때였다. 정남의 아버지가 이름모를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정남의 집은 그의 아버지가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가난한 살림이었다. 그런 형편에 아버지가 이름모를 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으니 밥을 지을 쌀이 떨어졌다.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가 굶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병드신 아버지가 굶게 되셨으니 정남은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도 아비지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제 겨우 열두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으로서는 품을 팔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다. 정남은 아버지를 굶기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쪽박을 들고 나섰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병들어서 그러니 밥 한술만 주십쇼. 아버지의 병만 나으면 제가 일을 해서라도 은혜를 갚겠읍니다.」
정남은 쪽박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을 했다.
「애구 가엾어라. 어린 것이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어린애가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기특하기도 하지」

정남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동정을 했다. 정남이 이렇게 동냥을 해다가 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했다. 그러나 무슨 병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다가 약 한첩을 제대로 쓰지 못했으므로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한 사람이 지나 가다가 아버지의 진맥을 보게 되었다.

「얘야, 네 아버지의 병에는 다른 약이 필요가 없다. 그저 큼직한 잉어를 구해다가 푹 과드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하고 훌쩍 가버렸다. 잉어가 좋다는 말을 들은 정남은 무척 기뻤다.

「아버지, 아버지의 병환은 잉어를 고아드리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서 잉어를 구해다 고아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남은 이런 말로 아버지를 위로한 후에 잉어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혹시 강가의 어부라도 만나면 사정을 해서 잉어를 구하리라 마음먹고 정남은 어부가 있을 만한 곳마다 정처없이 강변을 헤매었다. 그러나 때가 마침 겨울철이었다. 강물은 모두 꽁꽁 얼어붙었고 매서운 바람만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다. 너무도 혹독한 추위로 잉어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녔으나 고기잡는 어부는 한 사람도 없었다.

〈아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낚시꾼도 하나 없으니 이러다가 잉어를 고아드리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거다. 잉어만 고아드리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잉어를 구하지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남은 이렇게 탄식을 했다. 정남이 어느 산기슭을 지날 때였다. 인가도 없는 산기슭에 우물이 있었다. 정남은 우물 앞에 힘없이 털석 주저 앉았다.

「하느님, 저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잉어만 구하면 우리 아버지의 병은 고칠 수가 있읍니다. 하느님 잉어 한마리만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정남은 우물 앞 산기슭에 주저 앉아서 하느님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원을 했다. 정남은 사정없이 몰아쳐오는 추위와 하루 종일 굶어서 걸어다닌 피로로 기진맥진이 되었다. 정남이 기도를 올린 후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우물가를 지나려니까 우물속에 누런 금비늘이 찬란한 잉어 한 마리가 있는 것이다.

「아니 잉어가!」

정남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다. 정남은 두 손으로 잉어를 잡아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잉어가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간신히 건져냈다. 잉어는 벌름벌름 거리면서 펄덕펄덕 뛰었다.

「아,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 뜻밖에 잉어를 얻은 정남은 너무나 기뻐서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꿇어 업드려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올렸다.

잉어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정남은 잉어를 솥에 넣고 정성스럽게 고았다. 다음날 아침 정남은 밤새도록 정성껏 고은 잉어국을 떠다가 아버지에게 대접했다. 정남이 고아 준 잉어국을 맛있게 먹은 그의 아버지는 과연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정남의 아버지가 산기슭 우물에서 구해 온 잉어를 고아먹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차츰 근처 마을에 퍼졌다. 정남의 효성이 지극해서 하나님이 잉어를 내려 주신거라고 했다.

「정남은 하늘이 낸 효자야」
「암 여부가 있나 그 우물은 보통우물이 아니라 효자우물이야」
「그렇지 그 우물을 잘 받드러서 후세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까지 일러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지 그래 효자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고을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네」

정남의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의 효성을 칭찬했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이름없던 그 산기슭의 우물을 효자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4. 七學士 숨어살던 七士山

고려왕조를 무너뜨린 이성계는 새로 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으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썩어빠진 고려왕조의 악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정치를 바르게 베풀면 천하가 자기를 따르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않은 것이었다. 웬일인지 어리석고 무능한 옛 임금을 그리워할 뿐 자기를 따르는 자가 별로 없었다. 특히 고려왕조의 신하로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행방을 감추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림학사로 있던 일곱사람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어느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 멀리 북쪽송도를 바라보며 통곡을 하면서 나날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신하들을 보내어 그들을 입조하도록 청했으나, 그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계는 다시 형조판서를 보냈다.
「상감께서 부르시오. 어서 개경으로 가시기 바라오」
「황공하신 말씀이오나 따를 수 없다고 전하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신다하오니 받아들이셔야만 후환이 없을 듯 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뜻을 받아들일 수 없소이다.」
「그것은 어쩐 까닭이오? 벼슬이 부족해서 그러시오?」
「나라를 잃은 우리들인데 들어갈 수 있는 벼슬자리가 어디 있단 말이오?」
「대감이나 어서 가서 오래오래 복록을 누리시오」
「그러지 마시고 상감께서 간곡히 여러분을 청하실 때 못이기는 척 하시고 들어가십시다오. 여러분이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면 그 화가 크게 미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들을 이자리에서 대감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소이까. 그리되면 대감은 돌아가서 후히 상을 받으실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나는 다만 상감의 명을 받고 왔을 따름이오. 상감께서는 여러분을 죽이라고 명을 내리시진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오.」
「옛날부터 여자가 지아비를 잃으면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키는 것이어늘 하물며 신하된자로서 나라와 임금을 잃고도 죽지못한 몸이 어찌 두 임금을 섬긴단 말이오. 차라리 죽는 이만못한 일이오.」

한 마디씩 말을 하는 학사들의 각오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리하여 고려신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린 형조판서는 불쾌하고 괘씸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기를 은근히 비꼬으면서 고고한 체 떠드는 그들을 당장 죽이고도 싶었으나, 그대로 꾹 참고 돌아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개경으로 돌아오자마자 방원(芳遠)을 찾아갔다. 방원은 아버지 이성계(李成桂)를 도와서 고려왕좌를 뒤집어 엎는데 큰 공을 세웠으므로 세도가 자못 당당했다.

「무사히 다녀왔읍니다. 하온데 일곱명의 한림학사들은 자기들이 숨어있는 곳을 자칭 칠학사(七學士)의 산이라하옵고 각처에 사람을 보내어서 내통을 하여 역적모의를 하는 중이었읍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환이 두렵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그냥 놔 둘 수 없는 일이로다.」

형조판서의 모함에 방원은 대노하여 곧 군사를 풀었다. 형조판서는 대궐에 들어가서 방원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이태조에게 고하고, 군사를 풀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이성계는 깜짝 놀라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곧 군사를 거두어라! 안 오겠다면 그만 둘 일이지 누가 잡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고려의 유신들을 많이 죽였다고 해서 민심이 날로 시끄러워져 가는데 그들을 왜 죽인단말이냐?」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역적모의를 하는 줄로 아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한단말이냐? 그들은 모두 늙은이들 뿐이고 글만 아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얼 가지고 역적모의를 한단 말인가? 당치도 않은 소리로다!」

일어지하에 이성계는 형조판서의 모함을 묵살해 버렸다. 그러나 방원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부왕의 엄명으로 군사를 돌아오게는 하였으나 기회가 있는대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염탐꾼을 보내어 학사들의 일거일동을 감시케 하였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고려 수절신(守節臣) 일곱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송도 동쪽에 있는 광덕산(光德山)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갔다. 두문동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되어 그들은 몸에 불을 질러 죽음으로써 숭고한 절개를 지키었다.

그 후 조선조 숙종(肅宗)때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이 칠산사(七山寺)에 와서 학사제(學寺祭)를 지내고 글을 지어 그들의 영혼을 위로 하였다.

그리고 일곱명의 한림학사들이 숨어 살던 그 산을 그들이 자칭한대로 칠산사(七寺山)이라고 불렀다.

15. 猪頭穴의 내력

광주군 실촌면(廣州郡實村面悅美里)와 곤지암 묵방동(墨防洞) 사이에 곤지암천(昆池岩川)이 지류(支流)와 합수(合水)되는 물머리에 산이 있고 그 산밑에는 큰 바위가 병풍(屛風)처럼 둘어쳐져 있다. 그 바위위에 능성구씨(陵城具氏)의 묘(墓)가 하나(一基) 있으니, 이 묘자리를 두고 예로부터 저두혈이라 일러오며 이에 얽힌 사연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그 바위인즉 글자그대로 큰 산돼지머리와 주둥이를 닮았다하여 저두암이라고 하며, 그 바위 밑에는 깊은 늪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독갑소(沼)이다. 지금은 늪이 메워지고, 큰 논으로

개답(開畓)이 되었으며, 큰 공장이 그 부근에 세워졌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접근조차 꺼려하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그 웅덩이의 깊이는 물이 괴여 있어 용이 되다만 이무기가 사느니, 한발이 더 되는 잉어가 노는 것을 보았느니 하던 곳이며 주먹만한 우렁이가 떼지어 살던 곳이다. 워낙 물이 깊고 인적이 뜸한 후미진 곳이라 도깨비가 나타날 법도 하지만은 혹 사람들이 멋도 모르고 빠질가 하여 독갑소라고 이름하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저두혈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기묘(奇妙)하게 지형(地形)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 저두암에서 시내를 건너 오백보(五百步)쯤 가면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 흡사 산돼지가 고구마(甘저)를 앞에 놓고 있는 형국(形局)이다. 이 쪽박산 허리가 아리랑고개라 하여 주막이 있던 곳이다.

앞에서 말한 묘는 영조(英祖)때 구시창(具時昌)이란 분을 모신 곳이다. 그는 평소에 성정(性情)이 매우 어질고 착하였으며,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하다 간 사람이다. 그가 생존시에 늘 사후(死後)의 안택(安宅)을 매양 생각하던 중 어느날 한 승려(僧侶)가 찾아왔다. 정중히 저녁을 대접하고 유(留)하고 가도록 하였다. 밤이 깊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끝에 구씨자신이 평소에 마음먹었던대로 신위지(神位地)를 이야기하게 되는 노승(老僧)이 말하기를

「소승(小僧)이 아는 것은 없아오나 눈여겨 둘러 본 즉 저두암위에 가히 묘자리하나 쓸만하며, 묘지는 좋겠으나 산돼지 주둥이 형국으로 되어 있으니 비석(碑石)이나 상석(床石)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였다.

시창(時昌)은 마음에 흡족히 여기고 자손들에게 노승이 한 말을 이야기하고 얼마를 지내다가 세상을 뜨게 되니 자녀를 모두 효성(孝誠)스런터라 그의 유언(遺言)대로 장례를 정성드려 모시었으나 묘비(墓碑)나 상석(床石)은 세우지 않았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시창(時昌)의 아들 4형제가 모두 등용(登用)되어 나라의 요직(要職)에 나가는 영광(靈光)이 뒤따랐다. 그 중 아들하나는 순천부사(順天府使)요, 또한 아들은 위원군수(渭原郡守)에 이르렀다.

그후 어느날의 일이었다. 때의 임금인 영조(英祖)가 이천 행궁(利邑行宮)으로 해서 여주(驪州) 영릉(英陵)으로 행차하는데 광주땅 곤지암(昆池岩)을 거쳐서 가게 되었다. 어가(御駕)가 저두암이 바라다 보이는 아리랑고개를 지날 적에 영조가 구시차의 묘를 바라보며 탄식하여 가로되 참으로 명지(名地)로다. 저렇듯 기묘한 묘소(墓所)에 어찌하여 묘비(墓碑)가 없는고? 하고 물으며 시신(侍臣)이 「자세한 것은 모르오나 저 묘인즉 반정공신(反正功臣) 충렬공(忠烈公) 구정승(具政丞)의 후손 시창(時昌)이란 자의 묘임에 틀림없읍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은 석물(石物)이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 했다 한다.

그후 그 자손이 왕의 뜻을 전하여 듣고 비석(碑石)을 세우되 묘아래(墓下)에 세웠다. 그러던 중 얼마가 지난 뒤에 다시 비석을 산소옆 저두암 위에 올려 세웠다 한다. 그후엔 질병이 돌아 문중(門中)의 몇 사람이 죽고 우환(憂患)이 끊이지 않아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날, 뇌성벽력(雷聲霹靂)을 동반한 풍우(風雨)가 크게 일더니 산위(山上)에서 내리쏟는 물결은 비석을 독갑소 밑으로 밀어 넣고, 격류(激流)는 다시 돌을 밀었다. 물론 구시창 자손에게도 약간의 변고가 있었다.

그 후 다시 산소밑 그전 위치에 구씨 일문에서 의논끝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한다.

이야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그시창(時昌)이 세상을 뜨자 장례를 치르고자 하였을때 묘지는 본시 구씨네 선산(先山)이었으나, 그 자리에 이웃하여 안동권씨(安東權氏) 문중의 이정(里亭)이 있었다 한다. 장례(葬禮)를 모시자니 자연 이정을 뜯어야만 하겠으나 권씨문중에서 협조하여 줄 리 없었다. 상가(喪家)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를 전해 들은 향유(鄕儒)들의 권유로 우선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한편으로 권씨문중에 이러한 통첩을 보내 알리고 밤중(夜半)에 밤새워 이정(里亭)을 헐어 치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하관(下棺)하고 아주 성분(成墳)까지 마치니 날이 밝았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반우(返虞)하였다. 그러니까 상주(喪主)와 상도꾼(喪徒)할 것 없이 모두가 산에서 내려 온 것이다.

권씨문중에서는 와글와글 일대 난리가 났다. 밝는날 문중이 모여 숙의한 끝에 아주 파묘(破墓)하기로 작정을 하고 괭이와 삽을 메고 떼지어 산으로 몰려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셈인가? 그곳에 본시 호랑이(山虎)가 출몰한다는 말이 있던 곳이었으나 호랑이를 실지로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산소에 지난밤 장례후, 어디서 왔는지 여러마리의 큰 호랑이 대호(大虎)가 사람이 근접을 못하도록 묘소 곁에 누워서 포효(咆哮)하고 있지 않은가. 쫓고 저하여도 쫓기지도 않고, 돌을 던지면 그럴수록 더더욱 성을 내고 난폭해지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묘앞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듯 쫓기어 돌아왔다. 일단 호랑이가 스스로 되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파묘하기로 하고 권씨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날 담력이 센 장정 몇 사람이 다시 어제의 묘앞에 이르니 「괴이한 일이었다」

호랑이 무리들이 묘소를 수호(守護)하듯 묘 주위를 맴돌고 있지 않은가. 이쪽의 인원(人員)이 증강되면 저쪽의 호랑이도 수를 늘렸다.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이 다시 오리라고 예측이라도 하였다는 듯이 여유만만한 자세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지 않은가.

「야단이로다」「또 낭패로다」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다음날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하는 수 없었다. 권씨문중이 또 모였다. 권씨문중도 행세하는 집안이고 또한 식견이 높은 집안이었다.

이때 권씨문중의 족장(族長)이 점잔케 한마디 말하였다.

「여보슈 종친 제위(宗親諸位)들은 내말을 들으시오. 세상만물(萬物)은 하늘이 냈고, 하늘의 뜻에 따라 인류(人類)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이 상도(常道)입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은 물건이 모두 주인이 있는 것(物有客主)인즉 어제의 주인이 오늘 바뀜도 이 또한 하늘뜻(天意)이 아니겠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보도 듣도 못하던 저 호랑이들이 보호하고 있겠오. 하늘뜻을 거슬려 호랑이를 쫓다 문중의 누구 한사람이라도 해를 입을까 걱정되니 차라리 천의(天意)를 따라 구문(具文)에 양보함이 좋을 것 같으오.」

하니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말이 없이 조용하였다. 이윽고 족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제종(諸從)여러분! 어떻겠오?」

모두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하여 뜻을 같이 하였다. 다음날 권문(權門)에서는 구씨문중(具門)을 찾아 이 뜻을 전하고, 그 다음날은 구씨문중에서 다시 구씨문중을 찾았다. 물론 즐거운 술잔이 오고 가면서 정담(情談)은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끝이 없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정의(情誼)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16. 낙송우물에 비친 얼굴

옛날 광주군 서부면(西部面)에 사는 도부자라는 사람에게 아들 형제가 있었다. 아들 둘은 점점 커갔으나 큰 아들은 도무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심술이 궂었고, 반면에 작은 아들은 몸이 약했으나 하루종일 방안에 들어 앉아서 청아한 목소리로 글만 읽었다.

〈음…역시 우리 집안을 이을 놈은 작은 놈이야 내가 죽기전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봐야 할 텐데…〉

은근히 작은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도영감이었다. 그러니 자연 큰 아들은 이러한 눈치를 채고서 항상 불만을 품고 기회있을 때마다 동생에게 심술을 부렸다. 그러나 세상만사는 사람의 뜻대로 안되는 것인지라, 작은 아들이 과거를 보기도 전에 도영감은 갑자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형은 아우에게 말했다.

「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을땐 이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무슨 말씀이든 잘 듣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공부를 집어 치우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 오너라.」

「형님, 집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틈 나는대로 해오겠어요.」

「너는 처음부터 내 말을 안듣는 거냐? 너 이놈 좀 맞아야겠구나.」

형은 동생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아버지를 여읜 슬픔으로 괴로운데다 형에게 매까지 맞으니 아우의 서러움은 말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동생은 생전 처음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다. 살을 에이는 겨울 날씨에 눈을 밟으며 산으로 올라갔다. 얼어 터질 것만 같은 뺨이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으나, 마음대로 되질 않았다. 해가 서산에 거의 기울 무렵에서야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겨우 집에 당도했다. 추위와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형에게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었다.

「형님, 다녀왔읍니다.」

「알았다. 부엌에 밥이 있으니 찾아먹고 자거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네가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

「네?」

복받치는 설움을 안고 저녁밥도 안먹고 자기방으로 들어간 아우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이튿날 형이 잠을 깨서 가만히 보니, 아우가 일어나지 않는지라, 이놈을 혼을 내야겠다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생의 방문을 열고 소리를 쳤다.

「야 이놈아! 왜 벌써부터 꾀를 피우냐? 여긴 이제 내 집이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거라!」

형의 호통소리에 간신히 일어나다가 동생은 다시 자리에 쓰러졌다.

「형님, 몸이 아파요」

「뭐라고? 꾀병을 부리기냐?」

형은 동생의 거동을 지켜 보다가 더욱 화를 내고 소리쳤다.

「너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나는 앞으로 네 꼴을 안 볼 터이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횡하니 나가 버렸다. 밥을 할 사람이 없으니 동생은 또 굶어야 했지만 형은 동네 주막집으로 달려가서 아침부터 술타령을 했다. 동네에서도 이미 형의 고약한 마음씨가 소문이 나서 누구 한 사람 와 보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술을 먹고 있던 형은 잠시 무슨 생각을 꼴똘히 하고서 무릎을 쳤다.

「여보 주모! 나하고 얘기좀 합시다.」

「아침부터 무슨 얘길 하잔 말이예요… 남 장사도 안 되게…이상한 수작하자는 건 아니겠지?」

「아따, 장사못해 못번 돈은 내가 물어주면 되지 않소. 그건 그렇고 사실은 말야 내가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깐 귀를 좀 가까이 대오.」

한참동안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던 주모의 표정이 휘둥그래지며 놀라는 것이다.

「아니 뭐요? 세상에 참 무서운 사람 다 있구먼.」

「그러니 내가 주모만 믿고 하는 말이 아니오. 일만 잘되면 우리 둘이서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 절대 비밀로 해버리자는 거야.」

「가만히 좀 잇어 보라구. 하두 가슴이 떨려서 아무 말도 안들려.」

「그럼 빨리 고향에 가서 사람을 불러 오라구.」

「알았어. 그런데 일이 끝난 다음에 딴소리하면 당신 죽고 나 죽는거요?」

「아 여부가 있을라구. 노자돈 여기있어.」

그러면서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건네 준다.

한편 간신히 몸을 기동하게 된 동생은 형의 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형 몰래 공부를 계속했다.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가서 한참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웬 건장한 사나이가 도끼를 들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깜짝놀라 자세히 보니 인상이 험상궂고 눈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동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는 순간 번개같이 달려든 사나이는 동생을 깔고 탔다. 공포에 질린 동생은 한동안 허우적거리다가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늘어졌다. 그런데 그 험상궂은 괴한도 인정은 있었던지 축 늘어진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배위에서 내려서 동생을 흔들어 깨웠다.

「얘야! 정신차려 봐라.」

이윽고 동생은 눈을 떴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그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싫어도 나는 너를 죽여야 한다. 너는 이 길로 곧장 멀리 도망가서 살아야 한다.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안되는 거다. 알겠느냐?」

「왜 그래요 아저씨?」

「나는 사실은 네 형으로부터 돈을 받고 너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처음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주는 것이니,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평생동안 네 형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약속하겠어요. 아저씨 살려 주어서 고마와요.」
「그럼 빨리 떠나가거라.」
「네, 안녕히 계세요.」
흐느껴 울며 사라지는 소년의 등에 붉게 물든 낙조가 비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십년후, 천륜을 버린 형의 곁을 떠나서 자란 동생은 갖은 신고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명을 받고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의복은 일부러 남루한 평민차림이었으나, 허리춤엔 묵직한 마패가 감추어져 있고 멀리서 뒤따르는 역졸들에게 호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십년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그의 심중에 교차하는 감회는 착잡했다. 몽매에도 잊지 못하는 원수, 아니 형을 잡아서 치죄하는 것, 또한 그동안 성묘 한번 못해 본 부모님 산소에 참배하는 것, 모두가 감회가 깊은 일이었다.

이윽고 고향 마을에 돌아 온 그는 저녁 때가 되어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집에 들렸다. 옛날에 있던 주모는 없고 낯 모르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었다.
「여보슈 주인님, 말좀 물읍시다.」
「네, 뭔 말씀인가요 손님?」
「이 마을에 도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나요?」
「아 그 도서방 말씀이군요. 그럼요 아직도 살고 있죠. 아 그런데 옛날엔 부자로 살았다는데, 지금은 알거지가 돼서 투전판으로만 돌아다닌답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 사람과 잘 아시는 사이인가요?」
「아아닙니다. 전에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이오.」

주막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암행어사인 동생은 주효를 차려가지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참배했다. 눈물로 술잔을 채우다시피 한참을 울고난 동생은 이제부터 형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아뢰고 또 한번 눈물을 뿌렸다.

한참을 시름에 잠겼다가 털고 일어나서 광주 사또가 있는 관아를 향해서 걷는데, 길 옆에 웬 샘물이 맑게 흐르고 있어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샘물을 보니 갑자기 목이 말라 그는 엎드려서 물을 마시려다 주춤하고 물속을 들여다 보았다. 물속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니, 그 옛날 자기를 미워하던 형의 얼굴과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옛날에 형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십년동안 원한을 품고 이제 다시 원수를 갚으려고 형을 찾아 온 나는 도대체 어떠한가? 어떻게 생각하면 형보다 더 나쁜 놈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식경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그는 한동안 먼산을 바라보다가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 가기 시작했다. 동생은 형의 죄를 용서한 것이다.

그때부터 남한산성의 서장대 아래쪽에 있는 우물을 「낙송우물」이라고 불렀으며, 후세에 송사하는 자가 이 물을 마시면 패소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17. 龜頂岩에 얽힌 悲話

눈보라가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울창한 숲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벌써 며칠째 산속을 헤매고 있는 왕건(王建)은 너무나

지쳐 있었다.

〈정신을 차려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아주 죽은 것이다.〉

허지만 아무리 기를 쓰고 걸으려 해도 두 다리가 자꾸 구부러지면서 넘어지려고 했다. 이젠 추위도 배고픔고 감각을 잃은 채 그대로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자고만 싶었다.

〈아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가〉

원래 고려 태조 왕건은 궁예(弓裔)의 부하였었다.

어려서부터 인물이 출중하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나이가 스물이 넘은 왕건은 학문과 무예에 능통하게 되었다.

그 때 왕건의 고향인 송악(松嶽)을 위시해서 한수(漢水)지방은 궁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왕건은 궁예의 부장(副將)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날로 성미가 포악해진 궁예의 학정으로 인하여 민심은 차츰 이탈되어 갔다. 그리고 점차로 왕건에게 민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눈치 챈 궁예는 왕건을 죽이려 한 것이다. 이를 미리 알게 된 왕건은 그의 독아(毒牙)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를 궁예의 군사가 맹렬히 추격하는 중이었다. 험준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죽을 힘을 다해서 이곳까지 피해 왔으나, 이젠 정말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는 몸을 눕힐만한 곳이 없을까 하여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봤다. 그러나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사방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주위를 더듬어 보니 깜빡깜빡 한 인가의 등잔불 빛이 보였다.

마침내 인가를 발견한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산아래로 내려갔다. 아직도 세차게 내리는 눈은 무릎을 덮었다. 어둠속을 헤치며 산 아래로 내려가는 왕건은 아름드리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고 나무등걸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걸었다. 자꾸 감기는 눈을 비벼가며, 눈동이를 입에 넣어 졸음을 쫓기도 했다. 기운을 가다듬어 산 아래로 내려가던 왕건은 넘어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온몸에 눈이 뭉쳐져서 저절로 굴러 내려가게 되었다. 그는 산 아래에 당도하여 불빛이 비치는 집까지 기어갔다. 주인을 불빛이 비치는 집까지 기어갔다. 주인을 불렀다. 젊은 여자의 대답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 밤에 누구세요?」

「…」

「할아버지! 밖에 누가 왔나봐요.」

「제가 나가 볼까요?」

「아니다 넌 가만 있거라」

하더니 대문이 열리며 백발수염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왔다. 그와 동시에 대문에 기대어 섰던 왕건의 몸은 힘없이 쓰러져서 실신을 하고 말았다.

「아니 이게 웬 사람이냐?」

쓰러진 왕건을 굽어보던 노인을 깜짝 놀라며 집안을 향해 소리쳤다.

「얘, 장선아! 빨리 좀 나오너라!」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아이구머니! 할아버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대문을 여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어찌됐든 안으로 데리고 가자.」

두 사람은 왕건을 양쪽에서 부축해서 방에 들여다가 눕혔다. 왕건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겨우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후에 노인은 왕건의 팔다리를 주므르고, 손녀인 장선은 부엌으로 나가서 마음을 끓이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왕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틀 동안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왕건은 노인과 손녀의 극진한 간호로 겨우 감았던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젊은이.」

노인의 물음에 몸을 벌떡 일으키다가 왕건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하아, 가만 누워 계시오. 몸이 원체 많이 상했으니까 얼마동안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할 거요」

「여기가 대체 어디쯤 되는 곳입니까?」

「그런 것은 차차 알아도 되니까 몸조리나 잘 하도록 하시오. 얘, 장선아! 어서 이 손님에게 미음을 갖다 드리도록 해라.」

「네에……」

장선이라고 불리우는 처녀는 이제 열일곱이 된 갓 피어나는 꽃 봉우리 처럼 아리따운 처녀였다. 부엌에서 미음을 갖고 들어온 장선은 수줍은 자태로 왕건 앞에 미음그릇을 놓았다.

「얘, 장손아! 수저를 이리다오. 누운채로 떠 넣어 줘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일어나겠읍니다.」

「조금도 어려워 말고 누워 있으시오.」

왕건은 엇비스듬히 일어나서 미음을 간신히 먹었다. 그러나 미음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질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만 닷세를 산속을 헤매면서 아무것도 먹질 못했으니 말이다.

날이 갈수록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미안한 일이었다. 몸이 웬만큼 회복되자 왕건은 노인에게 말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 지 모르겠읍니다. 더 이상 머므르기가 죄성해서 이만 떠나겠읍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런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일어나시오?」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아무말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오.」

노인의 정성어린 만류를 뿌리칠 수 없어서 왕건은 또 그대로 주저 앉았다. 왕건이 그집에 머문지도 어언 한달이 넘었다. 세상 만물은 음양의 이치를 따라 살아야만 하듯이 청년 왕건과 장선 낭자는 어느덧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낭장의 할아버지도 두 사람의 사랑을 눈치채고 자리를 피해 주기도 하고, 약초를 캐러 간다는 핑계로 하루종일 집을 나가 버리기도 했다.

「장선낭자! 나는 아직껏 여자를 모르고 살다가 낭자를 만나서 생명을 건지었고 또한 낭자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몸이오.」

「도련님! 저는 언제까지나 도련님과 살고싶은 마음 뿐이옵니다.」

「낭자! 낭자는 내가 잠시 떠나갔다 올 동안 참고 기다려 주겠소?」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사와요. 하오나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준수하게 잘 생긴 왕건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이 끌리게 된 낭자였지만, 사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니 언제 훌쩍 떠나버릴까 마음조리고 있던 낭자에게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두려움이 앞을 섰다.

「자세한 말을 할 수가 없는 몸이라 답답할 뿐이오.」

「소녀는 도련님을 위해선 죽을 수도 있는 몸이옵니다.」

장선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왕건이 얼마동안 볼 일을 보고 오겠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 몸이 대장부로서의 할 일이 있는 몸이오. 달리 생각 말고 기다려 주구료.」

「알겠읍니다. 도련님은 제가 싫어서 그러신다는 것을.」

「쓸데없는 말을 마오. 이 몸도 언제까지나 낭자 곁에 있고 싶소만, 장부는 큰 뜻을 이룬 다음, 사사로운 일을 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소.」

「도련님! 소녀가 공연히 도련님의 마음을 괴롭혀 드렸나 봅니다. 하오나…」

구슬같은 눈물을 감추려는 듯이 왕건의 품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었다.

「미안하오. 낭자, 아무 염려말고 있어주오. 머지 않아 낭자 앞에 금의환향 하오리다.」

「도련님!」

더욱 흐느껴 우는 장선의 몸을 힘 있게 껴안는 왕건의 입술은 어느덧 장선의 입술위에 겹쳐지고 격정에 휩쓸려서 몸을 떨었다.

산천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밤. 노인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고 처음으로 살을 맛대는 두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몰랐다.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을까, 하염없는 사모의 정열을 불태우던 두 남녀는 밖에서 들려온 인기척에 놀라, 서로 자리를 물러나 앉았다.

잠시 후 노인이 방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도련님은 내일 길을 떠난다 하옵니다.」

「아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대로 우리하고 영영 같이 살줄 알았는데…」

「고정하십시오. 할아버지, 잠시동안만 기다려 주시면 큰 일을 이루고 돌아오겠읍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를 위해서라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러나 일신의 일을 먼저 처리한 연후라야 나라 위하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잘 알겠읍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이 되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쯤이나 돌아오겠소?」

「지금이 봄이니까 가을 쯤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남자 대장부의 언약이니 틀림없는 줄 믿겠소.」

이렇게 해서 이튿날 아침, 청년 왕건은 사랑스러운 장선 낭자와 노인을 남겨 두고 길을 떠났다. 때는 춘삼월, 이름모를 새들의 우짖는 소리와 만산편야에 흐드러지게 만발한 꽃들은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듯 기쁨과 희망에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낭군을 떠나

보내야 하는 정선 낭자의 가슴은 메어지듯이 아프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도련님. 소녀를 잊지 말고 돌아와 주시어요.」

「이를 말이겠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 오게 마련이오. 행여 이상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할아버님 모시고 편안히 있으시오.」

잡고 있던 장선낭자의 손목을 놓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뒤 발길을 돌리는 청년 왕건은 산마루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까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장선낭자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왕건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히었다. 장선낭자와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지만 떠나야만 하는 왕건은 힘없이 발길을 옮기었다. 세월은 흘렀다.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 들었다.

몽매에도 낭군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장선 낭자는 들에 심은 곡식이며 과일을 거둬 쌓아놓고, 산에 올라가 머루를 따다가 술을 담았다. 그런데 하루는 깊은 산 속으로 약초를 캐러 나간 할아버지가 날이 어두워서야 온 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험한 바위 위에 피어 있는 약초를 캐러 바위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온몸에 부상을 입고 간신히 네 발로 기어서 돌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외롭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집에 그 이상 더 큰 불행은 없었다.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안에 눕힌 장선 낭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선아! 으으음,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죽기전에 네 낭군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 할텐데……」

「그이는 꼭 돌아옵니다. 그안에 할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셔야지요.」

「글쎄말이다. 그런데 온다는 날짜가 다 되지 않았으냐?」

「산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니까 올 때가 됐나봐요.」

장선낭자는 웬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었다.

〈이 가을에 틀림없이 돌아 와 줄 것인가? 만일에 안 온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틀림없이 오실거야. 그토록 철석같이 굳은 언약을 하셨는데……〉

매일처럼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행여 낭군이 오실까 하여, 산마루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 앉아 낭군이 떠나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다. 이러한 날을 매일처럼 지내고 있는데도 기다리는 낭군은 돌아오질 않고 할아버지 병환만 날로 깊어갔다.

산에는 낙엽이 져서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바람에 흔들려서 서글픈 소리를 내고 날씨는 차차 겨울로 접어들건만 오늘도 바위 위에서 낭군을 기다리고 있는 장선 낭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눈발이 비치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장선낭자의 흐느낌 속에 숨지고 말았다. 가눌 수 없는 설움을 안고 할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난 장선낭자는 또 다시 바위에 올랐다.

「도련님…」

힘을 다해서 소리쳐 불렀으나 자기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뿐 기다리는 낭군의 모습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도련님….」

낭자는 안타깝게 외치고 있었다. 휘몰아치는 찬바람에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서 그 옛날 꽃같은 장선 낭자의 모습은 찾아 볼 길이 없게 되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어둠이 사방에 깔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먼 길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장선 낭자는 마침내 바위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장선 낭자와 헤어진 청년 왕건은 궁예를 쓰러뜨리고, 고려국을 창건했다. 도읍을 개성에 정하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쌓으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고 계절이 지나가는 줄도 미처 깨닫지 못하였으나 밤이면 장선 낭자의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다. 만산에 백설이 휘날리는 어느날 고려왕이 된 왕건은 조정 중신들에게 나라일을 당부한 다음, 몇몇 신하들을 거느리고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장선 낭자를 찾아서 길을 떠났다. 고개를 넘고 기억을 더듬으며 산등성이를 올라서자 저편 바위 위에 이상한 물체가 보였다.

이상한 생각에 바위 앞으로 접근해 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다. 깜짝 놀라 다가가서 보니 다름아닌 장선 낭자인 것이다. 그러나 낭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왕건은 낭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낭자! 낭자! 내가 왔소. 낭자가 이렇게 되다니……이게 웬말이오? 어서 눈을 떠보오! 내가 이렇게 왔지 않소!」

한참 몸부림치며 울고 있던 왕건은 신하들의 일깨움으로 정신을 겨우 차리고, 산아래 정선 낭자의 집으로 낭자를 안은 채 걸음을 옮겼다. 주인을 잃은 빈 집엔 찬바람만 감돌 뿐이었다.

왕건은 신하들과 같이 장선 낭자를 장사 지내주었다. 왕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

지금도 그 옛날 장선 낭자가 낭군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 숨져간 바위가 있으며, 그 모양이 꼭 거북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후세 사람들은 구정암(龜頂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광주군 도척면(廣州郡都尺面)에 있는 이 바위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정선낭자의 애끊은 사랑의 애화(哀話)가 서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장선 낭자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18. 암구렁이와 총각의 사랑

지금으로부터 약 육백년 전 먼 옛날 이야기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한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총각이 있었다. 가세가 날로 기울어 이제는 끼니마저 제대로 잇지 못하게 되자, 총각은 할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광주(廣州)에 있는 친척집으로 길을 떠났다.

때는 이른 봄철이라 아직도 짧은 해는 남한산에 이르자 꼴각 저버리고 말았다. 날씨는 쌀쌀하였고 아침부터 굶고 길을 떠나온 임도령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신속의 어둠은 더욱 짙어 갔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급기야는 억수 같은 비와 함께 광풍이 몰아쳐 왔다. 임도령은 그만 당황하였다. 빗줄기는 사정 없이 얼굴을 때리고 칠흑같은 어둠은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온 몸이 떨리고, 먼길을 걸어 온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더듬더듬 발끝으로 길을 찾았다. 갈수록 길은 험해지기만 하였고, 나무가지들은 아

프게 임도령을 찔렀다. 한시 바삐 이 산속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산길을 더듬 거렸으나 비오는 어둠속에서 제 길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신없이 발을 내딛던 임도령은 한 참만에는 자기가 길을 잘 못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면 갈수록 길은 더욱 험해지고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겁이 덜컥 난 임도령은 이젠 배고픔도 추위도 다 잊어버렸다. 다만 이 모진 비 바람 속에서 혹시 굶주린 산짐승이라도 나타날까 하는 걱정에 온 몸은 공포로 사시나무 떨리듯 하였다.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임도령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듯 발걸음이 헛 짚어지고 너머지곤 하였다. 그러다 어디선가 반짝하는 불빛을 본 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불빛을 다시 찾았다. 틀림없이 비바람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정녕 환각만은 아니었다. 임도령은 뛸듯이 기뻐하며, 그 불빛을 찾아 있는 힘을 다하여 걸었다. 보일 듯 말듯 깜박이는 불빛이야말로 지금의 임도령에겐 유일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거의 기다시피 찾아 간 그집은 이상하리 만큼 깊은 산중에선 어울리지 않는 단 한채의 인가였다. 그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으나 마음 한 구석에선 괴이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안치 못했다.

그집 방안에서 흘러 나오는 밝고 푸른 불빛은 어딘지 이 산속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혹시 산도적의 집이나 아닐까? 임도령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그 집안의 동정을 살폈다. 무서우리 만큼 조용했고 어딘지 기분나쁜 공기가 감도는 듯 하였다.

그러나 임도령은 용기를 냈다. 어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꿀꺽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여보시오. 주인어른 계십니까?」

「……」

대답이 없다. 임도령은 무서운 침묵에 소름이 오싹했다.

「여보시오.…」

그러나 여자의 치마 끄는 소리가 나고 대문이 열렸다.

「이 밤중에 뉘신지?…」

「아, 아니 당신은?」

임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이 홀연히 대문열고 나타난 사람은 묘령의 아리따운 처녀였다. 산속에서 처녀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괴이한 일인데, 그녀의 용모는 어찌나 예쁜지 더욱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의 말하는 목소리도 또한 얼마나 고운지 임도령은 그만 넋을 잃고 서서 그 황홀한 모습에 정신을 놓고 있었다.

「뉘신지 모르오나 어서 안으로 드시여요.」

「예, 나 나는 한양에 사는 임도령이라 하는데 그만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호호…그러셨나요? 나는 용녀라고 하는데 어서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녀는 임도령을 곧장 방안으로 인도하였다. 임도령은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 들어선 임도령은 또 한번 깜짝 놀랐다. 으리으리한 가구들엔 자개가 번쩍이고 아름다운 병풍이 방안에 길게 둘러쳐져 있었다. 오묘한 방안 운치속에 임도령은 그저 황홀할 뿐이었다.

「그만 두리번 거리시고 이리좀 앉으시어요.」

용녀는 꺼리낌없이 임도령을 아랫목으로 앉을 것을 권했으나, 임도령은 비에 젖은 초라한 자기의 행색으로 이 호화찬란한 방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어머나 비를 많이 맞으셨군요. 우선 이 수건으로 닦으세요.」

임도령은 용녀가 건네주는 수건을 받아서 얼굴과 목의 물기를 닦은 후 웃목으로 가서 불안스레 쪼그리고 앉았다.

방안의 오묘한 향길속에 정신이 몽롱해 짐을 느끼며 임도령은 다시 한번 흘끔 용녀를 훔쳐보았다. 빨아 삼킬듯한 도톰하고 붉은 입술, 영롱히 빛나는 까만 눈, 붉으레한 두 볼에 번지는 미소, 옥반에 구슬을 굴리는 듯한 그 목소리는 임도령의 간장을 태우고 마치 꿈속이 아닌가 생각케 할 정도였다.

「우선 마음을 놓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자, 임도령은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본시 소녀는 지금껏 당신을 기다리던 몸, 모두가 오늘밤을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아니 나를 기다렸다구요?」

너무나 뜻밖의 이 소리를 듣자, 다시 혼이 빠진 듯 임도령은 용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호호호, 겁내지 마세요. 마음을 푹 놓으시래두요. 당신과 나는 옥황상제께서 점지하신 인연, 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였읍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며, 또 당신께서 꿈을 꾸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옥황상제께서 점지하신 인연이라니?」

「산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고 비바람을 만나서 고생하신 것도 모두가 옥황상제님의 뜻이니 더 묻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시장하실 테니까 차려 놓았던 주안상을 곧 가져 오겠으니 기다리세요.」

하고 그녀는 자리를 떴고 혼자 남은 임도령은 정말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방안을 둘러 보았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호화로운 집, 그리고 지금 부엌으로 나간 용녀라는 처녀와 함께 하룻밤을 지낸다고 생각하니 제절로 입이 해벌어지고 침이 삼켜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약간의 의아심과 더불어 무서운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정말 산도적의 딸이나 아닐까? 혹은 귀신이나 아닐까?〉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데, 또 문소리도 없이 용녀가 들어왔다. 상다리가 휘도록 산해 진미의 주안상을 차려 온 용녀는 그 고운 손으로 임도령에게 잔을 쥐어 주곤 술을 따랐다. 다소곳한 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며 임도령은 용녀가 따라 주는대로 술을 몇잔이고 받아 마셨다. 임도령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올랐다.

밤이 깊어 삼경이 넘는 시간이 되었으나 그동안 용녀는 자기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다. 끝끝내 모르는 용녀의 신분임에도 임도령은 시간이 갈수록 용녀에게 연정을 느꼈다. 이젠 임도령은 두려움을 잊었다. 술을 따르던 용녀가 슬며시 임도령의 손을 잡고 속삭이는 것이다.

「서방님! 이젠 그만 상을 물리시고 기다리고 있는 저를 안아서 저 비단이불에 뉘어 주세요.」

「아니 비단 이불이라니?」

임도령은 다시 놀랬다. 조금 전까지도 없었던 비단 이불이 아랫목에 곱게 펴져 있는 것이었다. 거기엔 오색실로 수놓은 원앙금침도 놓여 있었다.

용녀는 몸이 달아오르는 듯 임도령의 품으로 파고 들었다.

「어서요 서방님, 저를 안아다 비단이불속에 뉘어 주세요. 어서.」

「용녀! 용녀!」

임도령은 가슴속에 활활 타는 불길을 어쩔수 없어 용녀를 힘껏 끌어 안았다.

「하지만 서방님! 저의 부탁 한 가지만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밤이 지나 내일이 되면 다시는 용녀의 생각일랑 마셔야 돼요.」

「아니 용녀를 잊어 버려야 하다니? 아아 내어이 용녀를 잊을 수 있단 말이오. 용녀! 용녀!」

「아아. 서방님!」

임도령은 용녀를 번쩍 안고 비단 이불속으로 들어갔다.

용녀와의 꿈같은 하루밤을 지낸 다음날 임도령은 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용녀를 혼자 두고 가는 마음이란 아쉽기만 했다. 한참을 가던 임도령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돌아가 용녀와 함께 살고 싶어 가던 길을 돌아섰다. 바로 이때였다. 온 산이 쩡쩡 울리는 큰 소리가 나며 커다란 목소리가 임도령을 향해 말하였다.

「임도령 듣거라!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너는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어서 네 갈길이나 가거라. 용녀는 오백년 묵은 암구렁이다.」

「예에? 용녀가 구렁이라구요? 원 그럴리가 있읍니까? 산신령님.」

이렇게 엎드려서 반문을 한 임도령이었으나,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산신령의 자취는 보이지가 않았다. 필경 임도령은 자기가 헛소리를 들었나보다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달려 용녀의 집을 찾아 갔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용녀의 집이 있던 자리엔 그 아담한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다만 한 그루의 고목나무만이 기웃뚱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머리를 풀어 산발한 한 여자가 서 있는데, 그 얼굴은 자기와 어젯밤을 같이 한 용녀였다. 용녀는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서 있었다.

「용녀! 용녀!」

「아니 어째서 돌아 오셨죠? 가다가 암구렁이란 말을 들은 모양이로군요.」

용녀의 태도는 더없이 쌀쌀했고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잡아 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다.

잠시 후엔 목소리가 다시 낮아지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와서 감춰바와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오백년 묵은 암구렁이오. 세상의 남자중의 남자인 당신의 힘으로 이제 나는 승천하는 길이니 다아 당신의 덕이오. 아무쪼록 편안히 계시오.」

말을 마친 용녀는 무엇에 끌어올려지듯 하늘로 빨려 올라갔다. 점점 조그맣게 보이는 용녀를 임도령은 미칠 듯이 불러봤다. 그러나 용녀는 점점 하늘 높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용녀! 용녀!」

「서방님! 잠시 후엔 내가 하늘로 오르던 자리에 비늘 셋이 떨어질 것이오. 그 비늘이 떨어진 자리를 서방님의 묘자리로 쓰십시오. 그러면 서방님의 자손중에 유명한 장수가 꼭 나올 것입

니다.」

이렇게 용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리고, 용녀는 그 자태를 영원히 감춰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늘 세개가 내려왔고, 그 비늘은 떨어져서 매화나무 세그루로 변했다.

그 후 임도령은 나머지 여생을 살고서 그 매화나무 자리에 묻히었는데, 용녀가 마지막으로 지상에 남긴 말은 그대로 들어맞아 임도령의 자손중에서 유명한 장수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임경업(林慶業)장군이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비늘이 변한 매화나무 터의 능안에는 아직도 임도령이 묻혀 있는데, 남한산성 안에서 개롱리를 바라보며 서문안 우의문을 나서서 서산 등성이에 오르면 이 낙매화터의 묘에 이른다.

19. 鄕校고개의 鐵佛

백제 개로왕(蓋鹵王)때의 일이다.

산이 첩첩이 둘러싸인 어느 산골에 금실 좋은 부부가 떠꺼머리 총각 동생을 데리고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남편은 성질이 어질고 아내는 얼굴이 고왔다. 동생 또한 몸이 건장하고 온순하여 집안이 화목했으며, 그들은 가난한 대로 오손도손 살아갔다. 이른 아침부터 젊은 부부는 밖에 나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다.

어느날 지게를 진 동생이 집 아래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과 형수에게 소리를 쳤다.

「갔다 오겠어요…….」

「어둡기 전에 돌아오너라……」

「도련님! 감자 삶은 것을 챙기셨어요?」

일하다 말고 동생을 바라보며 말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그지없이 행복해 보였다. 논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산골이지만 일년내 부지런히 일한 덕분으로 식량걱정은 조금도 없었다. 형내외는 농사를 짓고, 동생은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틈틈히 사냥도 했다. 손을 흔든 다음 산너머로 사라진 총각의 지게위엔 활과 화살이 보였다.

그날도 역시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일을 한, 두 부부는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돌아와 있을 때였다. 갑자기 왁자지껄하는 사람들의 말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일년 열두달 가야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깊은 산골에 갑자기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래져서 남편이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다. 그러자 갑옷과 투구에 활과 창을 든 말탄 사람들이 집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집앞에 당도한 일행중의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다.

「대왕마마의 행차시다. 무릎을 꿇어라.」

깜짝 놀란 남편이 몸을 부들부들 떨며 땅에 엎드리니, 금빛 두른 갑옷을 입은 왕이 말에서 내렸다. 위엄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이 산엔 산짐승이 많은가?」

잔뜩 겁에 질린 남편이 미처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집안에 있던 아내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왕이 소리를 쳤다.

「저 계집을 끌어내라!」

말이 떨어지자 마자 말에서 뛰어내린 군사 서너 명이 집안으로 들어가 여인을 끌어내어 왕 앞에 꿇려 앉히는 것이었다.

잠시 여인을 바라보던 왕은

「호…절색이로구나. 이런 산속에 저런 미인이 있다니…여봐라! 저 계집을 말에 태워라!」

하고 명령했다. 땅에 엎드렸던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끌어 안았다.

「대왕마마! 안되옵니다. 이 여인은 소생의 아낙이옵니다. 굽어 살피소서」

「뭣들 하고 있느냐? 저놈을 끌어내지 못할까?」

왕이 또 소리를 쳤다.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내를 잡아매어 놓았다. 그 다음에 여인을 번쩍 들어서 말에 태웠다.

「오늘 사냥은 여기서 끝마치자!」

「저 사내놈을 어찌 하오리까?」

「죽여 없애고 싶다만, 생명이 불쌍하니 두 눈을 빼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마상의 여인이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안돼요, 우리 남편을 살려 주세요!」

군사들의 발아래 깔린 사내는 몸을 일으키려고 버둥댔으나 꼼짝을 할 수 없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내 아내를 두고 가거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은 말을 달려 산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 남은 군사들은 사내의 눈을 사정없이 도려내고 왕을 쫓아갔다.

얼마후, 그 일행은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토록 평화스럽던 가정에 무슨 운명의 바람이 이토록 모질게 휘몰아 친 것인가? 두 눈을 잃은 사내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이윽고 해가 서산마루로 뉘엿뉘엿 지려할 때, 떠꺼머리 총각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지고 내려오고 있었다. 지게 옆구리엔 산토끼 한 마리를 대롱대롱 매단 채 숨을 헐떡이며 집앞에 이르렀다.

「아주머니! 다녀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선 아무리 인기척이 없었다.

잠시 의아하게 생각한 총각이 집안으로 들어가 봤으나, 집안엔 아무도 없었다. 밖으로 나와서 사방을 살펴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 자기 형이었다.

「아! 형님 이게 웬일이세요? 누가 형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동생은 통곡을 하며 형을 끌어안고 몸부림쳤다.

「물…나 물좀 다구.」

겨우 정신이 든 형을 안아다가 방안에 뉘우고 물을 떠다 입에 흘려 넣어 주었다.

「아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형님 자세하게 말좀 해주세요.」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형의 대답을 재촉했다.

「이 나라……왕이라는 놈이… 네 형수를 데려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왕이라뇨?」

동생은 깜짝 놀랐다.

「왕이 어떻게 여길 왔었나요?」

「사……사냥을 나왔다가 여길…」

「알았어요, 형님! 형님의 원수를 제가 꼭 갚겠읍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나는 살기는 다……틀렸다. 이 원수……를 꼭 갚아다구.」

「갚구말구요. 하느님께 맹세하겠어요. 형님, 제발 죽지만 마세요.」

마침내 형은 숨을 거두었다.

「형님! 형님!」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분노에 몸부림 치며 밤을 새운 떠꺼머리 총각은 이튿날 양지바른 곳에 형을 묻었다.

〈형님! 기필코 형님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읍니다. 편히 잠드소서.〉

동생은 천천히 산등성이에 올랐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 총각은 정처없이 발길을 옮겼다.

그로부터 십여년이 흘렀다. 백제 왕은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서 쾌락으로만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왕이 삼천 궁녀를 거느리고 매일 같이 주지육림속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니 나라의 기강이 헤이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오늘도 왕은 몇몇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풍악을 울리고 춤추는 궁녀들 속에서 술에 취해 흥을 돋두고 있는 중이었다. 갑자기 장수 한 사람이 황망히 들어와서 아뢰었다.

「대왕마마께 아뢰오. 지금 고구려 군사가 쳐 들어와서 임진강을 건넜다 하옵니다.」

「뭣이라고? 우리편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짐이 군사 이만을 내 줄 것이니, 그대는 빨리가서 고구려 놈들을 물리치고 짐을 기쁘게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고구려군과 백제군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했다. 때는 바야흐로 초겨울이었다. 쌀쌀한 날씨에 백제의 군사들은 전의를 잃고 있었다. 반면에 고구려 군사는 추운 지방에서 단련된 군사라 사기가 충천하여 강물이 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하루는 고구려군의 군졸이 장군에게 말했다.「강이 얼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오냐! 이제야 원수를 갚을 날이 온 모양이로구나.」

이를 부드득 갈며 대답하는 장군은 다름아닌 그 옛날 떠꺼머리 총각,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며칠후 진군의 북소리가 울렸다. 물밀듯 쳐내려오는 고구려군 앞에 백제군은 풀잎 쓰러지듯 했다. 혼비백산해서 패주하는 백제군을 추격하다가 고구려군의 장군은 옛날에 자기가 살던 땅에 다다랐다. 자기가 살던 집은 형체만이 남았고, 형의 무덤엔 잡초가 한길이나 자란것이 고초(枯草)가 되어 있었다. 잠시 묘앞에 꿇어 앉은 장군은 술을 따라 놓고 절을 했다.

「형님! 오래 기다리셨읍니다. 이제 며칠안으로 백제왕의 목을 바치겠사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옵소서.」

하고 군사들에게 명해서 산중턱에 묘를 크게 파놓고, 형의 묘를 이장하기로 했다. 풀을 베어

내고서 묘를 파헤치는데 이상한 물체가 있었다. 그것은 쇠로 만든 불상(佛像)이었다. 이때 장군에게 귀에 익은 형의 목소리가 어디선지 들려왔다.

「사랑하는 아우야! 고생이 많았구나. 그러나 이젠 숨을 돌리고 내말을 명심해 들어라. 나는 지금 극락세계 부처님 곁에 와 있다. 인간만사는 돌고 도는 것, 이제 그만 살생을 멈추도록 해라. 인간의 업보는 내세에서 가려 주는 것이니 부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 돌아가기 바란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는 틀림없는 형의 음성이었다. 백제왕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고구려 장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참후에 고구려 장군은 영을 내려서 진군을 하기 시작했다.

「와…!와…!」

노도와 같이 쳐들어 간 고구려군의 군사는 백제 서울의 북성을 함락시켰다. 백제왕은 황급히 도망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퇴로는 막히었다. 온산과 들에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고 백제군사의 시체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었다. 이윽고 백제왕이 사로잡혀서 고구려 장군 앞으로 끌려왔다.

「네 이놈 듣거라! 임금된 자가 자기 백성의 아내를 빼앗고 백성의 피를 빨아 가무와 주색에 빠져 왔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를 벌하려 하노라.」

거의 사색이 된 백제왕은 엎드려서 애원을 했다.

「장군이시어! 한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소인의 목숨을 살려 주시오면 개과천선 하겠사옵니다.」

「에잇, 더러운놈이구나. 한 나라 군왕으로 있던 자가 저토록 비굴하게 잔명을 보존하려 하는가. 여봐라! 저놈을 당장 참하여라!」

고구려의 장군은 백제왕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그리고 잠시후에 백제왕의 목이 떨어졌다.

이 때 고구려 장군 형의 묘앞에 있는 철불(鐵佛)은 땀을 흠뻑 흘렸다는 것이다. 이 고구려 장군의 이름은 걸루장군이었다.

※광주군 서부면에 있던 그 철불은 지금 국립 중앙박문관에 안치되어 있다.

20. 장경사에 얽힌 전설

금단선사는 고개위 길옆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고개 아래로 뻗혀있는 오솔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얘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탐스럽게 자라있는 허연 턱수염을 연방 쓰다듬으며 누군가를 몹시 기다리는 품이다. 그럭저럭 한식경이나 지났을가해서 풀을 헤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올라오는 소년이 보였다. 그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노인이 얼굴엔 기쁨과 안도감이 일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좀 오너라 목 빠지겠구나」

「오래 기다리셨지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벌써 올 것인데 어머니께서 오늘은 더 아프세요. 아

침에 끓여드린 미음도 안잡숫고 눈만 감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시는 줄 알고 혼이 났는데요.」

열 서넛쯤 돼보이는 소년의 얼굴엔 눈물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따라서 시무룩해진 금단선사의 시선은 먼곳을 향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시간도 늦었는데 바둑은 그만 둘까요.」

「네가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아니예요 할아버지,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럼 엄마 병환만 나으시면 나하고 매일 바둑을 둘 수 있겠느냐?」

「그럼요. 하루종일이라도 둘 수 있는데……」

매일 해가 중천에 뜨면 이 소년과 만나서 바둑 두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던 금단선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잠시후 무슨 말을 할듯 하다가 심각한 눈초리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동네 의원이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의 병은 대추하고 곶감이 약이래요. 그 두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달여먹으면 병을 낫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내일 길을 떠나려고 해요.」

「길을 떠난다고? 이 여름철에 대추하고 곶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북쪽으로 멀리 가다보면 가을이 일찍 찾아온 곳이 있을 거예요. 빨리 약을 구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잖아요. 밤이 돼도 쉬지 않고 갔다 오겠어요.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심심하셔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

노인과 소년은 잠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금단선사로 말할 것 같으면 도인인 것이다. 속세를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이 소년과는 혈육 이상으로 정이 들어왔다. 자기가 도인인 줄 모르는 이 소년의 고난을 바라볼 때 금단선사는 번뇌에 빠질 만큼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능력을 말하자면 능히 이 소년의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이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태까지 갖고 있던 순진무구한 심성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가까운 인간 속성으로 자기를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속세와 인연을 끊은 자기로서는 이 소년과도 헤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 금단선사는 한동안 깊은 시름에 잠기었다.

「얘야, 네가 길을 떠나도 약을 구하자면 한달이 걸릴지 두달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니 차라리 내가 갔다 오마」

「네! 할아버지가요? 몸도 약하실터인데 어떻게 먼 길을 가신단 말이예요 .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없는 동안 우리집에 와 계시면 좋겠어요」

「아니다 얘야 네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어떡하겠니……. 그리고 내가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정말 갔다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고 말고 오늘부터 이렛날 후에 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오거든 이곳에 와서 날 기다려라.」

「그렇게 빨리 갔다 오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저는 매일 올라와 보겠어요.」

「아니다 틀림없이 그날을 잊지 말고 오려무나. 자 그럼 난 가봐야겠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어요.」
「자아, 그럼 난 이쪽으로 내려 갈테니 너도 가 보아라.」
「할아버지 몸조심하세요.」
「으흐흑……」

너무나 감격해서 흐느끼는 소년을 뒤로하고 표현히 사라지는 금단선사.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의 병은 날로 침중해 갔다. 홀어머니를 단신으로 봉양해 가는 소년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일각이 여삼추로 노인과의 약속 날짜를 기다렸다. 그러나 금단선사가 떠나간 지 닷새가 되던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는 운명하고 말았다.

한편 금단선사는 축지법을 써서 묘향산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대추와 곶감을 구해 가지고, 약속된 날짜에 돌아왔으나 웬일인지 소년이 보이지 않았다. 온종일 기다려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매일 고개의 바위에서 기다렸으나 소년은 끝내 소식이 없었다.

소년을 잊지 못한 금단선사는 바위옆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바로 「장경사」인 것이다.

멀리 푸른 산위에 감도는 구름은 인간의 시름도 모르는 듯 유연하게 흘러가고 종일토록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는 선경을 방불하게 하나 그 옛날 금단선사가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소년은 인간 번뇌를 가득 안고 어디로 갔는지?

21. 雪月里의 가마소(駕沼)

경기도 광주 땅에서 동쪽으로 얼마를 가면 초월면(草月面)이 있으며, 그 곳에 「지월리」라는 마을이 있다. 지월리를 이 고장에서는 「설월리」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에는 깊고 물이 유난히 차고 맑은 「가마소」 혹은 가마수라고도 부르는 소(沼)가 있다. 이 가마소에는 하늘이 정해 준 배필을 버리고, 부모가 정해준 곳으로 시집을 가다가 애통하게도 죽어야 했던 한 처녀의 애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오래 된 옛날의 일이었다. 지월리에 초로에 접어든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전답과 재산이 많고 하인들도 여러명을 부렸으며 부부간의 금실도 좋아서 온동리 사람들이 모두 부러해 했다. 그러나 남부럽잖은 이들 부부에게도 한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들에게 아직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는 것이었다.

「여보, 우리가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것도 하늘이 내려주신 복인가 하오. 그런데 슬하에 자식이 없으니…….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더 재미있겠오.」
「영감 죄송합니다. 저의 덕이 부족해서 그만 …….」
「아아니, 그게 어디 당신 탓이오? 다 우리가 타고 난 팔자지…….」
「그래두요……」

이런 말을 주고 받는 늙은 내외의 얼굴엔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부인은 자식을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서 뒷뜰에 칠성단을 모시고,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다 놓고 칠성님께 빌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저희들 부부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십시요〉

어떤 날은 남편도 같이 나와 치성을 드릴 때도 있었다.

어느날 부인은 꿈을 꾸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한 노인이 나타나서

「너희들 부부의 소원이 간절하고, 또한 정성이 지극하므로 내가 아이를 얻을 방도를 가르쳐 주겠노라. 이 마을을 흐르는 냇물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다리를 놓고 매일 새벽에 그 다리 위에서 치성을 올리도록 해라.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즉, 장성하여 혼사를 치르게 될 때는 하늘의 뜻을 거역치 말지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로다.」

하고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학을 타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꿈을 깬 부인은 하도 이상하고 신기하여 영감에게 꿈 얘기를 했다. 영감은 매우 기뻐하며,

「여보,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알아주시고 자식을 내려 주실 모양이오.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오?」

하며 부인을 얼싸 안았다.

「그렇지요. 영감 그런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야 낸들 어찌 알겠오? 그러나 순리대로 일을 치뤄 나가면 될 게 아니겠오?」

이리하여 이들 부부는 그날부터 사람들을 모아 다리를 놓는 공사에 착수하여 한달이 지난 후에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다. 그리고서 다리가 선 날부터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그 다리위에서 치성을 올리고 기도를 했다. 이러기를 백일째 되던 날 부인은 또 태몽을 꾸었다. 부인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짜다가 졸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내는 구슬하나가 창문을 통해 들어 오더니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잠을 깨었다. 분명한 태몽이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열달후 부인은 귀여운 딸을 낳았다. 구슬 꿈을 꾸고 얻은 아이라하여 구슬 아기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이집에서 부리는 머슴중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또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집딸과 한날 한 시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머슴 박서방은 주인 영감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할가 봐 쉬쉬 했으나, 소문은 막지 못하는 법이라, 결국 주인영감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다. 영감은 내심 기분이 언짢았다. 하필이면 머슴녀석의 아들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다니……. 그리고 머슴녀석은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딸이라니……. 그러나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타고난 복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되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주인영감은 이렇게 체념하고 박서방에게 곡식 한말을 보냈다. 박서방은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세월은 흘러서 구슬아기는 정말 구슬처럼 곱게 자랐다. 미모가 뛰어나고 예의범절이 밝았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또한 지극했다. 늙은 부모도 온갖 정성을 다해 딸을 키웠다. 이젠 백발이 성성한 노부모의 집에 화기가 애애하고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

한편 박성방네 아들도 잘 자랐다. 미천한 출생이라 잘 가꾸지를 못했지만, 생김새는 훌륭했다. 얼굴은 떠오르는 아침해처럼 밝았으며 체격도 늠름하게 갈데 없는 헌헌장부였다. 그러나 그는 이 집 머슴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다.

이제 구슬아기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다. 늙은 내외는 마땅한 사윗감을 고르고 또 골랐다. 혼담이 사방에서 들어왔으나 애지중지 기른 귀여운 딸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다.

드디어 마땅한 사윗감을 골라냈다. 그것은 건너마을의 김초시네 아들이었다. 가세는 그리 왕성치 못하지만 총각이 워낙 똑똑하고 인물이 잘 생겨서 근처에서는 수재라고 소문이 난 터였다. 영감네의 지체는 김초시네 보다 낮지만 재물이 많고, 또 색시의 재색이 빼어나 혼담은 큰 탈없이 성립되었다. 혼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구슬아기는 기대에 부픈 가슴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댜 잠깐 눈을 붙였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흘러나와 구슬아기의 얼굴을 비추웠다. 구슬아기는 그 빛이 나오는 곳을 쳐다봤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진 틈에서 위엄있는 말소리가 흘러 나왔다.

「구슬아기야 듣거라!」

「네?」

구슬아기는 놀라며 대답했다.

「너는 나 옥황상제의 딸이니라」

「예? 제가요?」

「그렇다. 그런데 너는 너의 정해진 배필을 두고 어디로 시집을 가려 하느냐?」

「무슨 말씀이시온지……. 소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따를 뿐이옵니다.」

「아니다. 너의 배필이 될 사람은 김초시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집 머슴 박서방의 아들 돌쇠이니라.」

「예? 돌쇠라구요?」

갈수록 놀라운 말이었다.

「그렇다. 내가 너의 부모의 정성이 갸륵하여 너를 하계로 내려 보낼 때 너의 배필로서 돌쇠도 박서방의 아낙의 배를 빌어서 함께 하계로 내려보냈느니라. 그렇거든 너는 어찌하여 하계의 인간과 혼인을 하려 하느냐」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그 무슨 소리냐? 지금의 혼인을 파하고 돌쇠와 결혼을 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와 돌쇠를 다시 하늘나라로 불러 올니겠노라」

구슬아기는 놀라서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 몸이 땀에 배어 축축했다. 꿈을 꾼 것이다.

〈그런 일이……〉

구슬아기의 비명소리에 어머니가 달려왔다. 딸의 꿈 얘기를 들은 늙은 부모는 대경실색을 했다. 십육년 전 구슬아기를 배게 되었을 때 신령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잊고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영감. 아 일을 어쩌면 좋지요」

「흐음…….」

「여보, 혼약을 파기하고 옥황상제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십시다. 네?」

「……」

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영감은

「아니야 안돼, 그건 애기가 너무 긴장해서 꾼 개꿈이야, 개꿈. 세상에 자기집 머슴의 아들과 혼인을 맺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오. 원 머슴녀석하고 혼인을

하다니 상제님도 망령이시지, 자 걱정말고 어서 준비나 해요. 아기야 넌 잠이나 더 자거라」

영감은 딸에게 다정스럽게 말하고서 호탕하게 웃으며 나아가 버렸다. 어머니와 딸도 영감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혼례는 무사히 치렀다.

그런데 신행길에서……. 신부는 신랑을 따라 가마를 타고 신행을 가게되었다. 달 밝은 밤이었다. 일행이 영감의 구슬아기를 얻기 위해서 세운 다리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였다. 밝은 달이 순식간에 먹구름에 가리워져서 온 누리가 깜깜해지더니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분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일어나 다리 위에 일행을 휘말아 갈듯 했다. 일행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주왕하며 떠들기 시작했다.

「이거 원 앞을 분간할 수가 있어야지」

「아이쿠! 밑이 미끄러워서 한발짝도 발을 뗄 수가 없네.」

모두들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가마꾼들이 소리를 쳤다.

「아이쿠 가마. 이거 가마가 미끄러지는데 야단났군」

이상한 일잉었다. 메고 있는 가마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여보게 거 가마 좀 꼭 붙들게. 이거 정말 야단났구나.」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하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가마는 신부를 실은 채로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첨벙!」 가마는 깊고 차거운 물속으로 갈아앉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은 씻은 듯이 개이고 다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시각 이후로 머슴 돌쇠도 보이지를 않았다. 영감 내외를 빼고선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구슬아기가 가마를 타고 빠진 깊은 웅덩이를 가마소(駕沼) 혹은 가마수라 부르게 되었고, 눈내리는 달밤이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설월里(雪月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2. 독바위골 공부 터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實村面五香里) 깊숙히 「독바위골」이 있다. 이곳에 높이 삼십여척, 넓이 다섯간(五間) 정도의 석축이 있어 옛부터 이르기를 「공부터」라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력인즉 독바위골은 워낙 깊은 산골이고 또한 나무숲이 우거져서 대낮에도 어두 컴컴하다. 하늘만 겨우 쳐다보이는 독안과 같다하여 독바위골(자岩)이라고 한다.

옛날 이곳에 한 선비가 단정히 앉아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쌍의 호랑이가 나타나 포효(咆哮)하는 것이었다. 마치 천둥치듯 큰 입을 벌려 한입에 삼킬듯 노호(怒號)하는 데 그곳 조그마한 움막안에서는 자세하나 흐트러짐없는 선비의 주역(周易) 읽는 소리가 마치 호성(虎聲)에 화답(和答)이라도 하는 듯 낭랑(朗朗)하게 산골짜기에 메아리쳤다.

성난 호랑이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당장 덤벼들 듯 눈을 부라리며 으르렁으르렁 발톱으로 흙을 긁어 뿌려 대고 있다. 그러기를 며칠밤 몇일날이다. 선비 또한 물한모금 못마시고 뜬 눈으로 날을 새웠으니 그 피곤함이야 오죽하였다. 그러나 한눈한번 팔 겨를이 없었다. 그러기를

꼭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였다. 한쌍의 호랑이는 지독한 놈 네놈의 끈기앞에 우리가 졌노라 하는 듯이 크게 부르짓고 주위를 한바퀴 돌더니 어디론지 떠나가 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이다. 마을에서는 촌노(村老)들이 웅기중기 모여 무엇인가 숙덕공론을 하고 있었다. 그중의 한사람이

「아 글쎄 그토록 말했는데도 듣지않고 독바위골에 들어간 선비는 틀림없이 호랑이 밥이 되였을 걸세.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노호(怒號)하던 호성(虎聲)이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겠나?」

「아무래도 일은 났어.」

「옛부터 이르기를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워도 그 머리는 꼭 남긴다고 했어.」

「우리 모두 가서 남은 유골이나 거두어주세.」

그러는 것이 어떻게느냐고 하자 모두 괭이와 삽을 들고 독바위골로 향하였다.

한참만에 독바위골에 도착한 동리사람들은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변은 호랑이가 맴돌다간 발자욱으로 어질러졌는데 그 밑에서 꼭 죽은줄만 알았던 선비가 이남박에 아침쌀을 씻고 있지 않은가.

마을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이때 선비는 괴이하다는 듯이 몸을 일으켜

「아침일찍 웬일들이십니까?」

하였다. 이때 촌노들 왈

「아이구 살아 있었구려」

「우리들은 선비께서 꼭 호환(虎患)을 당하신줄로만 알고 유골이라도 거두어 드리려고 이렇게들 왔읍니다.」

하자 선비는 껄껄 웃으며

「아 그러셨구먼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염려해주신 제가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호환이라뇨?」하자 촌로들 왈

「그러나 다음엘랑 바로 마을로 내려오시오. 언제 호랑이가 다시 올지 모르니 말이여」

하자 선비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마을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정신만 차리면 저를 해하지 않는데 호랑인들 사람을 해치기나 하겠읍니까」

하였다. 촌로들 왈

「해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제새끼를 죽였는데 호랑이가 가만 있겠는가」

하였다.

몇일 전이다. 강원도 포수 두어명이 찾아 들었다. 이곳으로 사냥을 하러 온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이 고장에도 명산이 있어 이따금 큰 짐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었으니 다른 곳에나 가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포수들은 마을사람들이 만류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호랑이새끼 한마리를 잡아가지고 득의양양하여 돌아간 일이 있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이젠 큰 일 났구나」하고 걱정하며 말다툼까지 있었으나 그냥 돌아가고난 뒤였다.

그로부터 어디서 왔는지 모르나 암수 한쌍의 호랑이가 산중을 누비며 울부짖는 바람에 마

을사람들은 산에 가기를 꺼렸고 혹 나무를 하러갈양이면 떼지어 가서 한짐씩하여 오곤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선비는

「아 그러셨군요. 어제까지 조용하던 산중에 호랑이가 설치는 것을 보니 무슨일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은 했읍니다만 그러나 산에 짐승이 살지 않고서야 어찌 산이라 하겠읍니까. 더욱이 이런 장산에 큰 짐승이 산다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요.」

하고 태연자약하니 촌로들 왈

「드물게 보는 이인(異人)이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어찌 어찌……」

하고 혀를 차며

「그럼 몸조심 하시요」

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로부터 그토록 난폭하던 호랑이는 이 선비앞에 아주 순한 집개모양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움막앞에서 놀다가곤 하였다. 이토록 어질고 여유만만한 선비가 자기 새끼를 해쳤을 리 없다고 호랑이는 믿고 그러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선비가 마을에 내려갔다. 저물게 돌아오는 길이면 으례 호랑이가 마중나와 앞장서곤 하였다 한다.

그로부터 얼마뒤 그 선비는 장원급제하여 고을 수령(守令)이 되여 선정(善政)을 많이 베풀었고, 그 호랑이들을 못잊어 몇해 한번씩 그 옛날 공부하던 독바위골을 찾아 밤을 샐때면 호랑이 또한 찾아들어 해후(邂逅)하였다 전한다. 지금까지 이 영산(靈山)에 산재(山祭)가 있으며 또한 공부터도 남아 있다고 전한다.

23. 「원수골」의 金士女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實村面五香里)에 원사(冤死)골이 있는데 지금은 원수골이라 부른다. 오랜세월 불러오는 동안 사투리(와音)로 변한 것이리라.

지금은 2~3호에 지나지 않는 산골마을이지만 먼 옛날에는 이곳에 점마을이 있고, 민가도 50여호나 되어 제법 흥청대던 마을이었다. 이곳에 옹기점이 있었고, 옹기를 사러 오는 외지 사람들의 왕래도 잦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 김사(金士)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배움은 없었으나 마음이 퍽 착하고 어질었다고 한다. 그가 늙으막에 딸하나를 얻으니 이름을 김사녀(金士女)라고 하였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매우 영리하였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릿다웠다. 그의 아비는 점일을 하는 점꾼으로 생활이 매우 궁색하였다. 집안이 가난함으로 그의 나이 10세때 한마을에 사는 정도령에게 시집을 가니 그때 신랑의 나이는 18세의 총각이었다. 그 집 살림은 넉넉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알뜰한 살림이 지속되었다.

정도령의 나이 25세가 되자 김사녀의 나이는 꽃다운(芳年) 17세. 바야흐로 성숙하여 가는 사녀의 용모는 부용(芙蓉)과 같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정도령이 장정이 되자 아버지와 같은 점꾼 마을의 궁색한 살림살이가 싫었다. 그는 몇번 외지(外地)를 들낙이더니 뜻을 세워 공부

하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보이겠으니 학비와 노자를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 때 그의 어미 아비가 있었는데

「아따 이놈의 자식 굶지 않고 밥먹고 살면 됐지 너같은 위인이 무슨 입신이냐」

하며 허락치 않았으나 김사녀는 남편의 소원인지라 착실하게 알뜰살뜰 모았던 재물을 남편에게 주었다.

정서방은 행장을 갖추고 송경(松京)으로 떠나고 보니 김사녀 홀로 늙으신 시부모를 섬겨야만 했다. 비록 가산은 없었으나 김사녀가 몸을 사리지않고 주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니 삶의 즐거움이 있었고 아울러 시부모의 사랑도 받았다.

정서방이 떠나던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또한 즐거움이 나날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통의 편지가 정서방으로부터 인편에 보내져 왔다. 반가워라 허둥지둥 개봉하여 보니 정서방왈 이제껏 발분망식하여 착실히 면학(勉學)하고 있으나 학비가 다되여 몹시 군색한 지경이니 어떻게든지 마련하여서 이 인편에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워낙 마음씨 착한 김사녀인지라 꼭 갚겠노라 약속하고 적잖은 돈을 점주로부터 꾸어다가 글월과 함께 인편에 보내주었다.

그날로부터 김사녀는 빌린돈을 갚고저 몸이 부숴지도록 성심껏 일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정서방이 성공하여 돌아오리라 생각하니 마냥 즐거웠다. 시부모가 평안하고 귀염동이 아들이 날로달로 커가니 말이다.

그러나 금의환향(錦衣還鄕) 하겠노라고 집을 나간 정서방은 인편에 보내준 돈을 주색잡기(酒色雜技)에 탕진하고 또한 노름까지 하여 돈은 떨어지고 또한 공부한 바 없으니 집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면목없이 내어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랴 마음먹고 팔도를 유리걸식하는 떠돌이가 되었다. 이후 집으로는 한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줄은 모르고 김사녀는 땔나무에서부터 길쌈하고 밭갈며,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아름다움도 죄이런가? 돈많은 점주는 아름다운 김사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그에게 빚독촉을 했다. 그리고 추근추근 추파를 던지곤 하였다. 점주는 늙었어도 여색을 바치고 색마(色魔)라는 별명까지 들어온 위인이었다.

네 어메 아베 다 죽고 네 서방이 돌아오긴 영 글렀으니 네가 조용히 나의 소청만 한번 들어주면 그 꾸어간 돈은 다 없는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비단이랑 쌀이랑 먹고 살만치 해주겠노라고 유혹하였다. 그때마다 김사녀는 도섭스럽고 망녕된 말씀말라고 매섭게 쏘아붙여 다시는 입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 김사녀는 더욱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성심껏 시부모를 섬기었다. 얼마 않되어 시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그후 시모에게 정성을 기울였다.

어느 눈쌓인 겨울이었다. 이 고을산골짜기 산밑에 "불당골"이란 데가 있는데 이곳에 어느 때 절인지는 모르나 거의 기울어진 폐사(廢寺)가 있었다. 중도 주지도 떠난지 오래된 도깨비집같은 절만 앙상히 남아 있었다. 이 절에 어느날 가난한 선비 한사람이 와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가난한 사람인지라 제대로 얻어 먹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다가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밤을 새워가며 글만 읽으니 마을사람들은 소문으로만 알뿐 만나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어쩌다 장(醬)을 구하고저 마을에 한두번 내려온 적이

있고는 통 출입이 없었으며, 풍모가 준수(俊秀)하게 잘 생기고 매우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해도 거의 기울고 모진 설한풍(雪寒風)이 살을 에는 깊은 겨울이었다. 김사녀가 늙은 시어머니에게 따뜻이 불을 때어드리고저 아침밥을 먹자마자 땔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

온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이고 북풍한설이 살을 깎는 듯 했다. 노시모를 따뜻이 뫼실 수 있다면야 무엇 이정도 추위쯤이야 하고 마른나무가지를 주어모으며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정신없이 나아갔다. 그때였다. 바로 눈앞에 왼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은가, 김사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쳤다. 얼마간 뒤로 달려오다 문득 생각한 바가 있었다.

이것이 김사녀의 운명을 달리할 줄은 김사녀 스스로도 몰랐다. 하여간 눈싸인 골짜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치 않고 그냥 발길을 돌려서야 어찌 인간의 도리이겠는가.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쓰러진 사람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황급히 체온을 만져 보았다. 아직 체온은 있고 몹시 굶주린 기색이었으며 쓰러진지도 얼마되지 않는듯 하였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여기 어디 사람 없어요? 이곳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누가 좀 와서 사람을 살려요!」「사람 사람을 살려요」 하고 소리쳐 외쳤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가 외치는 소리만이 산중에 메아리 될 뿐이었다. 그는 깊은산 눈쌓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튼 모를세라 하고 자기가 돌아서 가면 한사람의 생명이 죽을 것이었다. 도져히 그대로 모른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그 무엇이 씌인듯 자기가 입고 있는 옷옷을 벗었다. 그 옷으로 눈속에 쓰러진 사람을 감싸주었다.

그리고 얼마후 돌자 온기가 그에게 무엇이든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마을까지 달려내려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그곳에 쓰러진 자는 다름 아닌 폐사에 머물러 공부하던 사람으로 기한(飢寒)을 못이겨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눈길을 내려오다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쓰러졌던 것이다.

김사녀는 난감했다. 그렇다고 마을로 끌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두고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또 유도(乳道)가 좋아 언제나 넘쳐 흐르는 젖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뒷일을 생각한 겨를이 없었다. 그렇다 우선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젖가슴을 풀었다. 그리고 터질듯 팽만한 젖을 스스로 짜서 죽어가는 선비의 입속에 흘려 넣었다.

얼마후 그리 멀지않은 폐사로 사력을 다해 굶주린 선비를 끌어다 놓았다. 그리고 나무짐도 던저 버리고 황급히 마을로 달렸다. 그리고 냇가의 버들가지 한줌을 꺽어들고 시모앞에 엎드려 울며 사죄하였다. 시모는 누구보다 김사녀의 정숙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조금도 책망이나 탓하는 빛이 없이 어서 구조하도록 하라고 등을 밀었다. 이에 자세한 뜻은 차차 말씀사뢰겠노라 하고, 쌀그릇을 열어 얼마간의 쌀을 퍼갖고 폐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미움을 끓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사롭게 한 후 마을로 내려와서 시모계 아뢰었다. 시모도 매우 흡족해 하였다. 이로부터 한이레동안 김사녀의 극진한 간호로 공부하던 선비는 건강이 회복되고, 사경(死境)에서 자기를 구조해 준 은인(恩人) 김사녀의 집을 찾아 감사를 표하고, 꼭 은혜를 갚겠노라 하였다.

이때 시모는 선비이게 이런 말로 당부했다.

「내자식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는데 지금은 어느곳을 행방없이 헤매이는지? 혹여 만나거

든 부디 타일러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타일러 주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우선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작별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그는 떠날때 은혜는 죽기 생전 잊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에서는 좋지 못한 소문이 돌았다. 이 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모두들 수군대였다. 물론 아무일도 없는 것이었으나 점주가 김사녀를 탐욕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 전전반측하던 중에 눈덮인 산으로 토끼를 잡으로 갔던 점꾼 한사람이 먼발치서 김사녀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어떤 사내에게 젖빨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점주에게 들렸다. 이것을 물실호기(勿失好機)로 생각한 점주는 때를 놓칠세라 사람들을 시켜 이러쿵 저러쿵 허풍을 늘어놓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사녀가 조석으로 우물터에 나가니, 마을 아낙네들이 입을 비쭉거리면서 전날 같지 않은 표정들이었으나, 아무런 허물도 없는 자기에게는 무관한 일이거니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다. 밤이 가까워 꿈에도 잊지 못하던 정성방이 고향마을에 찾아들었다. 그는 몹시 궁색한 꼴로 돌아오다가 대낮에는 차마 발길이 옮겨지지 않아 마을 어귀 주막집에서 술한잔을 들고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던 참이었다.

이때 주막에 점꾼들과 점주가 몰려들어왔다. 점주는 정서방을 보자
「아니 이게 누구야? 정서방 참 오래간만일세 그려」
하고 인사말이 오간뒤 술잔이 두어순배 돌자
「여보게 정서방 놀라지 말게. 자네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꼴이 말이 아닐세. 아 글쎄 자네 모친에 대한 괄시와 구박은 말할 것도 없고, 아아 글쎄 산에서 젊은 놈을 만나가지고…….」

정서방은 그때 술이 얼큰한 참이었다. 분통이 치밀고 치가 떨려 더 이상 그 자리이 머무를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말도 드릴 겨를 없이, 반기는 노모와 김사녀 앞에 자기처 김사녀에게 대갈질책하기에만 열을 올렸다.
「너 이년! 죽이겠다」
「너 같이 더러운 계집은 차라리 죽여 없애야 한다.」
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휘감아 잡았다.

그의 모친이 「애비야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애어미는 너무도 효성스럽고 정숙한 사람이다.」하고 만류하였으나 그런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마구 몽둥이질이었다.
김사녀는
「그동안 당신의 성공만 빌고 바라며 저의 힘껏 노모를 모셨는데……」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네이년! 이 더러운 계집!」
하고 마구 두들겨 굴신을 못하도록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정서방은 마침이 구실이 좋았다. 그 많은 돈을 낭비, 허송세월하고 면목이 없었던 차였는데 오히려 자기 계집의 행실 운운하며,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의장을 뒤져 있는 것이란 모두 챙기고 더러운 계집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고 어린 것을 낚아채 빼앗아가지고 정처없이 떠나버렸다. 그가 떠나면서 어데가서든지 자리가 잡히는 대로 어머니를 뫼시러 오겠노라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시모는 병환으로 세상을 뜨고 보니 김사녀의 애통함은 극에 이르렀다. 고히 장사 모시고 나니 김사녀는 천애(天涯)의 무의탁(無依託) 신세가 되었다.

그곳을 떠나려 하였으나 점주의 빚이 태산이었다. 때가 오기를 노리던 점주는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갚겠으며, 또 돈을 갚었다한들 이미 너의 추행을 알고 더러운 계집이라고 너를 소박한 정서방이 다시 너를 찾을 리 없은 즉……하고 득의만만하여 날마다 김사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김사녀는 그 반대로 의지가 굳어만 갔으니 어느곳 어느땅에 있을지 모르는 정서방이지만 그의 안녕을 빌며 부지런히 일하여 점주의 빚을 갚고 보면 그 언제이고 마음을 돌려 다시 찾아오리라 굳게 마음먹고 더더욱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다.

그러한 세월이 어언 몇해가 흘렀다. 빚도 거의 갚어갈 무렵이었다. 점주는 점점 초조했다. 잔뜩 노리고 있던 점주에게는 빚을 다 갚고 보면 김사녀는 제손에 들어오긴 글렀다 생각한 끝에 위계로 유인하여 김사녀를 강제로 욕보이려 했다. 위급을 마을에 알리었으나, 마을에서는 점주가 늘어놓은 좋지못한 풍문때문에 김사녀는 이미 점주의 계집이 된지 오래였다 알려져 누구 한사람 구원을 하러들지 않았다. 김사녀는 그토록 쌓고 싸아올린 공든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트릴 수는 없었다. 필사적으로 강압에서 풀려나기가 무섭게 원사골의 깊은 못을 향하여 달렸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부끄럼없이 살아왔으나 미천한 계집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가오니 천지신명은 저를 가련하게 생각하시어 거두어 주소서」

하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얼마 후 김사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시체가 되어 물위에 떠올랐다.

다음날 이곳에 나무하러 온 촌로(村老)가 발견, 건저내 보니 「저는 세상살이 구차하여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가오니 양지바른 언덕에 옷을 입은 채로 묻어주시오」하는 유서(遺書)를 지니고 있었다. 촌로는 그의 뜻대로 근처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또 몇해가 지나갔다. 이젠 정서방도 나이가 들었다. 어린자식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보니 자식 공부도 못시키고 그 자신도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노모를 뫼시러 오겠다던 그 위인이 이젠 노모도 잊었다. 그로부터 어느날인가 그는 고향이 그리워졌다. 생각다못한 그는 어느 부자집을 택하여 한탕 하기로 결심하고, 큰 부자로 알려진 어느 기와집 담을 넘었다. 그리고 있는대로 금은보화를 뒤져 가지고 나오다가 주인집 하인에게 들켰다. 네 이놈하고 멱살이 잡힌채 실컷 얻어맞고 관가에 넘겨졌다. 그집에서는 전에도 몇번씩 도적맞은 일이 있던터라 지난날 잊어버린 금전까지도 모두 정서방의 소행이라고 했다. 정서방이 아니올시다 궁한 나머지 도적질은 생전처음이외다 하고 주장하였으나 뜻이 통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하옥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의 자식이 매일같이 밥을 얻어다 울면서 넣어주니 보는자 옥사정도 또한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정경이었다. 이날도 밤이 깊은 후였다. 고을 수령은 공연스리 잠이 오질 않았다. 일어나서 관아(官衙)를 한바퀴 돌아봤다. 옥사(獄死) 부근에서 소동(小童)이 얼신거리고 있었고, 옥리(獄吏)와 옥신각신 하고 있었다. 가만히 들어본 즉 옥리에게 투옥된 제아비를 면회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옥리가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 하여도 막무간 하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수령은 옥리를 불러 뉘자식인가 물었다. 옥리왈 정서방의 자식인데 제아비밥을 구걸하느라고 늦었으니 부디 넣어달라는 것이라 하였다. 수령은 기특하게 생각했다. 비록 지금은 걸인의 자식이라 하나 죄지은 제아비에 대한 효심이 극진한지라 감동한 바 있어 명일 다시 재심키로 마음을 굳혔다.

밝는날 아침 관아 동헌(東軒) 뜰앞에 죄인 정서방은 끌려나왔다.

「죄인에게 묻노라. 어디사는 누구이며 무슨일로 도적질을 하여 얼마를 훔쳤는지 소상히 아뢰어라」

하였다. 죄인왈

「광주(廣州)고을에 사는 정서방으로서 일찍 불효하와 이곳 평산(平山) 고을까지 와서 죄인의 몸이 되었읍니다」

아뢰고

「재물을 탐하여 월장침입(越墻浸入)한 것은 사실이오나 미수(未遂)에 그쳤을 뿐입니다.」

하였다. 수령왈

「그렇다면 죄인이 방면(放免)된다면 어찌하겠는고?」

하고 묻자

「네 앞으로는 착한 사람되어 작은 일이나마 내식구와 남을 위해 보답하겠나이다」

하였다.

한참후에 돈을 잃었다는 부자집 주인이 나오게 되고 「네가 잃은 돈은 얼마인고?」하니 「네 세번에 걸쳐 얼마입니다」하였다.

이때 수령은 「그렇다면 그 돈은 내가 갚아 주겠노라」하고 그 많은 돈을 부자놈앞에 던져주고 「네 이놈 네돈을 네말대로 갚았으니 바른대로 아뢰어라」

하였다.

이에 거부(巨富)는 땅위에 머리를 조아려 잘못하였노라고 고두(叩頭)하고 정서방은 묶인 오라줄이 풀리고 조용히 수령의 처소로 안내되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조금전까지만 하여도 불호령을 하던 수령이 자리를 권해 앉히며 정중히 읍하지 않는가. 정서방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였다. 그리고 두렵기만 하였다. 꼭 죽은 목숨인데 그많은 돈을 내어 자기를 구해주고 고귀한 수령이 친히 자기를 맞아 따듯이 대하여 주지 않는가. 정서방은 정신을 잃은 사람모양 멍하니 당황해 하였다. 이때 수령은 부인을 부르고 무엇인가 가지고 오라 일렀다.

정서방앞에 한폭의 천이 던져졌다. 그천에는 「성공하시는 날 꼭 나의 자식을 구하여 사람되게 타일러 주십시오」 하고 적혀 있었으며 그리고 「며느리 김사녀의 정숙함」을 찬양하는 뜻이 적혀 있었다. 자기 어머니가 손가락을 깨물어 쓴 피맺힌 사연이었다.

고을 수령은 나즈막히 정서방에게 말하였다.

「내가 전날 깊은 산속에서 기한(飢寒)을 못견디고 눈속에 쓰러졌을 때 김사녀의 구원이 아니었던들 그 어찌 살아남아 오늘이 있었겠는가」

모두 김사녀의 은공이며, 자기가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나서 정서방 모친앞에 나아가 지난 일을 자세히 말하자 어머니 말씀이

「나는 내자부(子婦)를 의심치도 않고 또한 잘한일이외다. 그뒤를 내가 후원 격려하였노라.」
하며
「내자식은 집을 나간후 소식이 없으니 혹시 어느곳에서든 만나거든 사람되게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하고 부탁하더라는 것이었다.

그후 폐사에서 공부하던 선비는 과거에 급제 입신양명하고 이 고을 수령이 되었으며 안팎으로 인심이 후덕하여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

한편 정서방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기가 그토록 구박하고 미워하였던 김사녀의 은공으로 자기 목숨이 구하여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천만번 감사의 뜻과 아울러 많은 돈과 의복을 내어주며 자기에게 은공을 갚고저 날과 달로 모아두었던 것이라 하며 재물을 보따리로 싸고 그리고 사람을 시켜 행마(行馬)를 준비토록 하였다. 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며 신의(信義)를 지키는 사람이냐. 정서방의 두 눈에서는 고마움과 또한 김사녀에 대한 죄책과 회한(悔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마루에서 전송하는 수령의 내외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옛집에 돌아왔다.

옛집은 쓰러져 폐가(廢家)가 되고,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는 가시고 그의 처 김사녀도 죽었으며, 점주도 김사녀가 죽은 다음 양심의 가책과 동리인근 사람들의 입초수가 두려워 가산을 정리하여 떠난 후였으니 반기는 자도 없었다.

어느날 그앞에 촌로(村老)가 살아남아 찾아왔다. 그는
「앗다 이 사람아 왜 이리 오래만에 왔는가. 자네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자네 모친과 김사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었다네」
하면서 김사녀의 슬픈 죽엄을 이야기하고 매장된 곳을 일러주었다. 정서방 부자는 삽과 괭이를 들고 무덤앞에 나아갔다. 몇삽 흙을 파 헤치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벌써 죽은지 10년이 넘었다던 김사녀는 아직도 살이 썩지 않고 죽은 채였다. 한맺힌 죽엄이 이토록 원한에 사모쳐 썩지도 않았다.

정서방은 다시 정중하게 수렴하여 장사지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앉아 축문을 읽었다. 타오르는 향연을 멀리멀리 퍼지고 축읽는 소리만 산골짜기에 메아리쳤다.

그날 저녁이다. 정서방의 꿈에 김사녀가 나타났다.
「소첩은 영영 다시 뵈옵지 못하는 줄 알어 저의 넋이 구천에 못들고 허공에 떠돌다 이제 낭군의 은혜를 입으니 고히 눈을 감고 가겠노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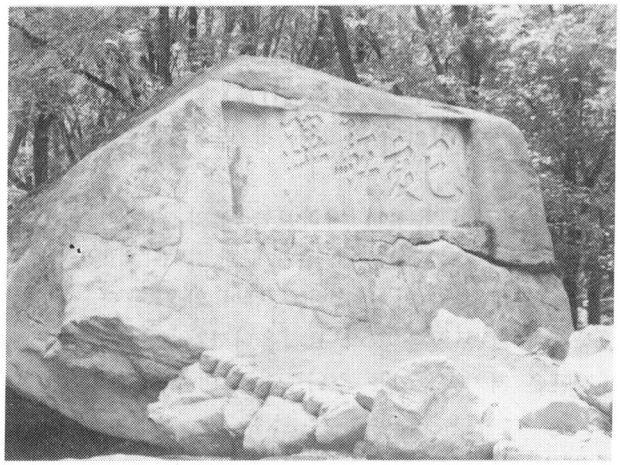
그후 정서방 부자는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한평생을 살다갔다.

이때부터 김사녀가 원통해 죽은 골이라하여 원사골이라 이름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한다.

24. 駐필岩과 大夫松

꾀꼬리 울고 제비가 집을 짓는 어느 늦은 봄철이었다.

행보를 서서히 옮기는 정조(正祖)의 이마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곁에 따르고 있



는 신하들도 좀 더운 듯 하지만 오랫만에 도성(都城)을 빠져나와 산수(山水)에 파묻히니 고단한 줄을 몰랐다. 개울을 따라 오솔길을 접어서 올라가던 정조대왕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계곡 양편에 있는 산기슭에는 진달래가 한창이었다.

「허…, 과연 정경이로구나.」

주위의 경치에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는 임금앞으로 광주 유수 김종수가 아뢰는 것이다.

「옥체가 피로하실가 저어되오니 잠시 쉬어가심이 어떠하옵신지요.」

「그래야겠오. 앉아 쉴만한 자리가 어디 있겠오?」

「저기 물 가운데 있는 바위가 시원하겠아오니 어수를 물에 담그시고 잠시 앉아 쉬심이 좋을줄로 아뢰옵니다. 황공하오나 소신의 등에 업히셔서 물을 건너시도록 하시옵소서.」

「아니오, 그럴것 없오. 오랫만에 맨발로 냇물속에 들어가 보는 것도 매우 상쾌할 것 같소」

하고는 정조는 신발과 버선을 벗은 다음 냇물속으로 첨벙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자 도승지 한사람이 황급히 말을 했다.

「상감마마, 감기에 드실가 염려되옵니다.」

「괜찮소, 경들도 나처럼 해보면 심신이 유쾌하리니 사양말고 들어들오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왕은 어린애처럼 기뻐하면서 물 가운데 있는 편편한 바위위에 올라섰다. 곧 이어서 신하들도 제각기 신을 벗고 냇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임금의 앞인 것을 잠시 잊어버린듯 제각기 환호와 비명을 지르며 떠드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였다. 이 모양을 미소를 띠고 바라보던 왕은

「허어…. 이것이 바로 태평성태로다. 무릉도원에 들어 있는 신선들이 부럽지 않구려. 어찌 술 한잔이 없어서야 되겠소. 빨리 주안상을 마련토록 하오.」

「즉시 거행해 올리겠읍니다.」

대답을 마친 유수는 달음박질을 해서 산아래로 내려갔다. 지금 정조 임금과 조정신하들은 좋은 날을 가려서 남한산성을 순행(巡幸)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가 즉위한 뒤 나라형편은 안팎이 다 평안하고 농사도 풍년을 거듭하니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순시절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는 것이다.

자연 학문이 크게 발달하여 여러 사람의 문장가들이 나왔으며, 천문·지리·의술 등도 발달하였다. 여덟곳간 글 (文庫)중에서 네 곳간 글을 모두 읽었다고 해서 사고문장(四庫文章)이란 별명을 듣던 임금이 정사(政事)에도 밝았고 평소에 군사(軍事)를 비롯한 모든 나라안의 사정들을 직접 확인하고 방비하기 위하여 때때로 도성을 떠나서 근기사진(近畿四鎭)에 행차

하였다.

사서(史書)에 보면 1779년(正祖 三年 己亥) 6월 남한산성(南漢山城)을 보축(補築)하고 두 달 후(8월)에 남한 행궁(南韓行宮)에 행차(幸次)한 기록이 있다.

이윽고 주안상이 올라왔다. 왕과 신하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시조를 읊기도 했다.

이때 임금이 유심히 바라보는 곳이 있어서 신하들의 눈길도 자연 그리로 쏠리게 되었다. 저 건너편 언덕위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뿐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의아(疑訝)하게 생각한 신하 한 사람이 말을 했다.

「상감마마! 무엇을 그리 보시옵니까?」

「경들은 저기 서 있는 소나무가 보이지 않소?」

「?…」

「저 소나무의 모습이 꼭 우산(雨傘)같이 생겼구먼.」

그제서야 왕의 말을 알아들은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았다. 왕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돌며

「저 소나무가 하도 절묘하여 과인이 벼슬을 내릴 것이니 나무기둥위에다가 옥관자(玉貫子)를 붙여주도록 하오.」

하니 좌중이 함빡 웃음을 머금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과 신하들은 해가 지도록 유쾌하게 놀다가 환궁을 했다.

그때 왕과 신하가 놀던 자리에 광주유수(廣州留守) 김종수(金鍾守)가 〈기해주필지소 己亥駐蹕之所〉라고 글씨를 새겨 넣었으니 그해가 기해년이었던 것이다. 또한 후세사람들이 언덕위에 서있는 이 소나무를 가리켜 〈대부송 大夫松〉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 동문밖에 서 있는 소나무다.

25. 벌봉과 汗峰

남한산성 성문밖 언덕에 한 사나이가 앉아서 지도를 그리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까짓 산성의 지도를 무엇에 쓰겠다고 그려오라 하는가? 조선땅에는 이것 말고도 큰 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나이는 보잘것 없는 산성이라고 대강대강 지도를 그려 가지고 산을 내려갔다. 그는 북쪽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 사나이는 청(淸)나라의 용골대(龍骨大)로서 조선을 침범하기 전에 정세를 염탐하기 위해 비밀히 조선으로 들어온 염탐군인 것이다.

얼마 후 청나라 수도원 심양(瀋陽)에 도착한 용골대는 황제에게

「……그러하옵고 조선 군사로 말하면 그 수효가 지극히 미미하오며 오합지졸(烏合之卒)에 불과한 형편이옵니다. 다만 서경(平壤)에 있는 임경업(林慶業)장군만 적당히 피해 간다면 열흘 안에 조선왕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아뢰옵니다.」

하고 조선의 정세를 보고했다.

「남한산성의 지도는 그려 가지고 왔는가?」

「예, 이것이옵니다.」

용골대는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황제에게 바쳤다. 지도를 들여다보던 황제는 용골대에게 물었다.

「강은 산성의 어느 편에 있는가?」

「예, 서 북쪽에 있아옵니다.」

「도성인 한양(漢陽)은 어느편인가?」

「그것도 산성의 서북쪽에 있읍니다.」

용골대의 말을 듣고 청나라의 황제 태종(太宗)의 얼굴은 갑자기 노기가 충천했다.

「네 이놈! 당장 목을 벨 것이로되 다시 한번 명을 내리니 짐의 말을 명심해 듣고 어김없이 거행하렸다.! 네말대로 한다면 남한산성의 지세가 응당 남북이 길고 서북이 짧을 것인데, 너는 어찌해서 반대로 그려 왔느냐? 다시한번 나가서 산성의 나무 한 그루, 돌 한 조각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그려 오도록 하라. 만일에 영을 어기는 날에는 당장 목을 베리라.」

청나라 황제는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얼굴이 백지장같이 변한 용골대는 머리를 더욱 조아렸다.

「황공하옵니다. 황제폐하. 지금 곧 분부대로 거행하겠아옵니다.」

황제의 엄명을 받고 재차 조선으로 나온 용골대는 남한산성을 위시하여 주변의 성벽과 바위 계곡, 언덕할 것 없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그렸다. 다시 심양으로 돌아간 용골대는 황제에게 복명을 했다. 두번째 그려온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 황제는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장군은 가까이 오라!」

용골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황제 가까이 다가섰다. 황제는 지도에 그려져 있는 한 지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바위가 틀림없이 성밖에 있느냐?」

「예에-. 그 바위를 벌 바위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성밖에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어-. 수고하였도다. 우리가 조선에 쳐들어 가면, 조선임금이 틀림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바위에 정기가 서려 있어서 이를 깨뜨리지 않으면 산성을 점령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어늘 다행이 바위가 성밖에 있으니 가는 즉시 이 바위부터 깨뜨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청나라 태종은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침범해 왔다. 청나라 군사는 이르는 곳마다 싸움에 이기어 단시일에 한양을 점령하고 왕이 피신한 남한산성에 다다랐다. 정기가 서려 있다는 그 바위가 과연 성밖에 있는지라, 화약으로 바위를 깨뜨리자 뇌성벽력이 일고 연기가 하늘로 오랫동안 뻗치는 것이었다.

그후 한달이 지나서 조선임금 인조(仁祖)는 청태종앞에 항복을 하고 말았다. 후일에 조정에서 벌바위에 대한 사연을 알고, 다시 벌바위 밖에 성을 쌓았다. 또한 청나라 군사가 산성안을 바라 보던 언덕을 한봉(汗峰)이라고 불렀는데 모두 산성의 요해처가 되므로 그 밖에 다겹성을 싸았다.

산성 북문밖에 뾰죽이 솟아있는 것이 벌봉이요, 동문 밖에 있는 것이 한봉(汗峰)인 것이다.

한(汗)이란 청의 황제란 뜻인데 그 글자의 뜻을 알고서 지은 이름이지? 모르고 지은 이름

인지?

26. 恭愍峰의 由來

「여봐라! 아직도 개경에선 소식이 없느냐?」
「황공하오나 난적들을 아직도 물리치지 못하였는 줄로 아뢰오」
「어허! 고얀지고, 과인이 박복하여 쓸만한 장수가 없으니, 이 나라의 사직이 어찌될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공민왕은 서서히 성루를 내려와서 왕비가 있는 침전으로 향했다.
때는 고려 말엽. 노국공주의 사랑에 빠져 정사를 거의 잊다시피한 공민왕이었다. 점차 나라의 기강은 문란해지고 간신들이 판을 치는데다가 신돈이라는 괴승이 공민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정사를 좌우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전국 각지에서 도적의 무리가 일어나고 북쪽의 오랑캐들은 변경을 자주 침범해서 살육과 노략질을 일삼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홍건적이라는 도적의 무리가 평안도 지방에서 크게 침입하자, 탐관오리들에게 고혈을 빨리던 백성들이 크게 호응하여 이제는 고려의 서울 개경을 넘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일과 방종에 빠져 국방을 소홀히 한 조정에서는 홍건적들의 난을 막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다.
중전의 침소에 이르는 공민왕은 또 한번 어두운 낯빛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왕비가 며칠째 몸져 누워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전! 몸에 차도는 있으시오?」
누워있는 왕비의 머리맡에 앉으며 손을 들어 왕비의 이마를 짚어 보는 것이다.
「상감마마! 너무 염려 마옵소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민왕은 얼른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가만 누워 계시오. 중전이 빨리 완쾌해야만 환궁을 할 것이니 어서 완쾌하기 바라오.」
「찬바람이 몸에 해로우시니 그만 돌아가 주무시옵소서」
「아니오, 나는 오늘밤 중전의 곁에서 밤을 보낼가 하오.」
「아니되옵니다. 상감마마는 만백성의 어버이시오이다.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괜찮소. 과인은 중전과 함께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소.」
「도적들이 궁궐을 불태우지나 않았는지 염려되옵니다.」
「불태웠으면 다시 지으면 될 것이 아니겠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도록 하시오.」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밤은 점점 깊어 가건만, 중전의 처소에선 가물거리는 등불이 꺼질 줄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국사인 신돈이 들어와서 왕에게 아뢰는 것이다.
「상감마마, 경상병사가 군사를 이끌고 임진강을 넘어서 홍건적들을 무찌르는 중이라 하옵니다.」
「오오 장한 일인지고, 경상병상에게 대장군의 시호를 내리고, 개경을 탈환하는 즉시 봉화를 올려서 과인에게 알리라고 이르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읍니다. 하오나 왕후마마의 환후는 어떠하옵신지요.」
「경들이 염려해 주어 그만 하오만 어서 환궁을 해야 완쾌될 것 같소」

「환도를 하옵신다 해도 난적들의 소행으로 대궐이 모두 불에 타버렸아오니 대궐을 다시 짓는 동안은 그대로 이곳에 머므르심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을 하시오.」

왕후의 병환은 대궐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난 병이거늘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오?」

「황공하여이다.」

「어찌됐던 과인과 중전은 한시 바삐 개경으로 돌아갈 것이니, 난적들을 물리치는 즉시 봉화를 올리도록 단단히 일러두시오.」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처럼 왕후는 개경으로 돌아갈 날을 몹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공민왕은 홍건적들을 물리쳤다는 봉화가 오르는 것을 고대하며 산성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개경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산성 북문이 열리며 말을 탄 군사 하나가 급히 달려왔다.

「상감마마께 아뢉니다. 한강을 건너간 경상병사가 홍건적들에게 대패하여 목숨을 잃었다 하옵니다.」

「뭣이라고? 그 많은 군사가 싸움에 패했단 말이냐?」

「지금 난적들은 임진강을 건너서 이곳으로 물밀듯 쳐들어온다 하옵니다.」

이말을 들은 나약한 공민왕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듯 했다. 곁에 있던 신돈이 얼른 왕을 부축했다.

「상감마마! 기운을 차리십시오.」

「국사!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진정하옵소서. 잠시 남쪽으로 피신하옵시면 소신이 국난을 타개하여 환궁하옵시도록 하겠아옵니다.」

「국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한단 말이오?」

「왕후마마의 고국이신 노국에 사신을 보내어 원병을 청해불가 하옵니다. 황송하오나 잠시 동안만 남쪽으로 몽진하시도록 하옵소서」

이리하여 공민왕은 병든 왕후를 데리고 남한산성을 나와서 정처없는 피난길을 남쪽으로 떠났다.

그 후 일년 반만에 노국군사의 도움으로 홍건적의 난을 평정한 뒤 공민왕은 개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남한산성으로 피난 나와 있을 때 개경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여 봉화가 오를 때만을 지켜보던 언덕이 있었으니 그곳을 공민봉(恭愍峰)이라 부르게 되었다.

27. 尙書洞의 由來

광주군 퇴촌면(廣州郡退村面)에 평화스러운 마을이 있다. 마을 뒷산에는 살구 나무가 수백그루 들어서 있다. 살구나무 동산 제일 높은 곳에는 정자가 서 있는데, 현판에는 행림사(杏林舍)라는 세 글자가 쓰여져 있다.

어느 날 정자에 초로의 두 남자가 조촐한 술상을 가운데 듸고 마주 앉아 있었다.

「대감! 살구로 빚은 술이 이토록 맛있는 줄을 몰랐소.」
「허허……왕대감이 좋아 하시는 걸 보니 내 마음도 한결 기뻐집니다 그려.」
「이렇게 한가한 몸이 되어 풍치좋은 곳에서 대감과 술을 마시고 있노라니 신선이 부럽지 않소이다.」
「그런데 왕대감도 이대로 낙향하실 작정이시오?」
「더 이를 말이 있겠읍니까. 상감은 점점 우매하여 바른말 하는 충신들을 멀리하는 이 때에 벼슬자리에 어떻게 더 앉아 있는 단 말입니까?」
「정말로 큰 일이오. 나라의 정사가 이렇게 어지러우니, 이나라 이 백성의 운명이 한탄스러울 따름이오.」
「중놈인 신돈(辛旽)을 없애기 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잊어 버리고 술이나 듭시다.」
「술에 취하면서 세상사를 잊는 수 밖에 더 있겠소?」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주고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두 사람은 이부상서(吏部尙書)인 백장(白莊)과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인 왕이(王貳)였다. 고려 말기 임금은 생전에 지극히 사랑하던 왕비를 잊지 못해서 절을 찾아 다니며 불공을 드리기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신돈이라는 중을 불러다가 모든 국사를 일임하니 나라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졌고 조정에서는 간신들만이 득세를 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었다.

이런 꼴을 보다 못한 몇몇 충신들은 벼슬자리를 버리고, 각각 시골로 낙향하여 은거하게 되었는데 이부상서로 있던 백장이 이 마을에서 은거하자 마을 이름을 상서동(尙書洞)이라고 불렀다.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은 백장은 뒷동산에 살구나무를 수백 주 심어놓고 스스로 즐기는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대감이 뒤따라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임금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이 두 사람에게 들려왔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지만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대궐이 있는 쪽을 향해 엎드려 통곡을 했다.
「장차 이 나라가 어찌될꼬?」
「고려의 사직이 위태롭게 되었나 봅니다.」
백장과 왕이는 땅이 꺼지게 한탄을 했다. 곧 이어서 나이어린 우왕(우王)이 즉위하였으니, 정사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북방의 오랑캐족들은 자주 변경을 침범해 왔다.

세월은 흘러, 새 임금이 즉위한 지 십여년 만에 고려의 사직은 마침내 쓰러지고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李成桂)가 이씨조선(李氏朝鮮)을 세웠다. 스스로 임금의 자리를 차고 앉아 태조(太祖)라 칭하고, 절개를 굽히지 않는 고려의 유신(遺臣)들을 차례로 잡아죽이기 시작하였다.

평화스러운 이 마을에서 살고 있던 백장과 왕이 두 사람은 이성계의 부름에 끝내 응하지 않다가 마침 죽음의 독수를 피해, 강원도 심산유곡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상서동(尙書洞)은 이러한 내력으로 상서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8. 法華洞의 由來

청나라가 중국 만주에서 일어난 후 국세를 확장하고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략하던 병자호란(丙子胡亂)때의 일이다.

인조(仁祖)임금이 피난가 있는 남한산성(南漢山城) 밖에서는 매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사라야 모두 일만 이천명에 불과했고, 청나라 군사는 십만이 넘었으니 그야말로 중과부적이었다. 산성안 임금의 편전에서는 매일 어전회의가 열리고 항복을 하자느니,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싸우자느니 하고 대신들의 의견이 분부하였다.

한편 청나라 군사들은 남한산성이 천연의 요새가 되어서 아무리 해도 용이하게 함락시키지 못하겠으므로 산성안의 식량이 바닥나기만을 기다리고 별로 싸움을 돋구지 않고 시일만 끌었다.

차츰 시일이 지남에 따라 산성안에서는 청나라 군사가 예측한 대로 식량이 떨어져 가고 신하들과 백성들도 차츰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러할 때 원두표(元斗杓)장군이 왕앞에 나와서 아뢰었다.

「조선이 죽기를 결심하고 나가서 싸우려 하오니 군사 삼천만 풀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연로한 장군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요? 잠시 기다려 보시도록 하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산성이 적에게 함락당하게 될 듯 합니다. 앉아서 당하느니보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이다.」

이와같은 원두표의 말을 듣고서 왕이 마음을 결정치 못하고, 묵묵히 있을 때 화친파의 우두머리인 최명길(崔鳴吉)이 입을 열었다.

「소신 아뢰옵니다. 청나라 군사를 물리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온데, 이제 군사를 내어 싸움을 돋군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오히려 청나라 군사의 노여움만 일으키게 되오니 깊이 동촉하옵소서.」

「잠자코 계시오! 어찌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한단 말이오.」

「만약에 성이 함락되는 날이면 상감마마 이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 것인가 진념해 보시옵소서.」

그러자 원두표가 무서운 얼굴로 최명길을 노려보며 말을 했다.

「항복을 하려거든 대감이나 혼자 나가서 해보구려! 에이, 비겁한 늙은이!」

「경들은 싸움을 마시오! 짐이 원장군에게 군사를 내 줄 것이니 신명을 바쳐 나라를 구해 보도록 하시오.」

이리해서 원두표는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섰다.

청나라 군사들의 눈을 피해 북문밖에 있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진을 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나라 군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편에서는 밥을 먹고, 한편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원두표는 기회는 이 때다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 가까이 이르렀다.

원두표가 칼을 번쩍들어 신호를 하자

「와ー」

하는 함성을 지르며 군사들은 일제히 적진을 향하여 쳐들어 갔다. 그러자 적진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청나라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도망을 하기에 바빴다. 산과 들은 아비규환이었고, 삽시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한참 청나라 군사를 치고 있을 때 적진 후방으로부터 일진 군마가 달려 나오며 삼백근쯤 되는 철퇴를 휘드르는데 원두표의 군사들은 그 철퇴에 맞아 수없이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종횡무진 날뛰는 적장의 기세에 눌려 전세는 바뀌지고 말았다. 원두표는 할 수 없이 군사들에게 퇴각을 명했다.

크게 낙담을 한 원두표는 남은 군사들을 모아 다시 진을 쳤다.

「철퇴를 쓰면서 날뛰는 적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양고리라고 하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당해 낼 자가 없읍니다.」

「양고리라?」

비장의 말을 듣고 원두표는 깊은 시름에 잠기었다.

다음날 해가 높이 떠오르자, 전날의 패전을 설욕하려는 듯 검은말에 올라탄적장 양고리(楊古利)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싸움을 돋구었다.

징과 꽹가리를 치며 싸움을 재촉하던 적군들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함성을 지르면서 일제히 쳐들어 오기 시작했다. 또다시 처참한 싸움에 벌어졌다.

천추에 씻지못할 원한을 품고 아군은 달려드는 적의 말발굽에 무참히 죽어갔다. 그러나 원두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죽기를 한사코 싸웠다. 이렇게 한참을 싸우는데 비장 하나가 원두표에게 소리를 쳤다.

「장군님! 어서 군사들을 뒤로 물리도록 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 것입니다.」

「알았다.! 뒷산으로 군사들을 물리도록 하라!」

하고 명을 내리고 원두표 이하 전 장병들이 재빨리 몸을 빼어 뒷산으로 올라갔다. 청나라 군사들도 어지간히 지쳤고, 또 많은 사상자가 생겼는지라 추격을 하지 못했다. 뒤로 물러선 우리편 군사들이 대오를 정비해 보니 남은 군사가 불과 천 육백 뿐이었다. 절반 가까이 전사를 한 것이다.

「원통하굴나! 오늘밤에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을 기습해야겠다.」

「장군님 한가지 좋은 계교가 있읍니다.」

비장이 말했다.

「좋은 계교라니?」

「적들은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쳐들어 올 것입니다. 이대로 적을 맞아 싸우게 되면 또 한번 패할 우려가 있사오니, 밤을 새워서 산아래에 함정을 판다음 적장 양고리를 그리로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면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말이 맛다! 참 좋은 의견이다.」

이리하여 날이 어두워지자 군사들을 독려하여 밤새도록 함정을 팠다.

날이 밝자 청나라의 장수 양고리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성밑에 이르렀다. 이때 비장 서기남은 다시 원장군에게 말하기를

「제가 군사 오백을 이끌고 선봉으로 나가겠읍니다. 거짓 싸우는 체 하다가 도망쳐 올 때 양고리가 추격을 할 것인 즉, 그때 양고리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십시오.」
「알았다. 무운을 빈다.」

서기남이 오백명 군사를 이끌고 산을 내려갔다. 밤새 파놓은 함정을 지나서 적진앞에 이르자 청나라 군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도와 같이 달려나왔다.

적당한 거리를 보아 서기남이 군사들에게 신호를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청나라 장수 양고리는 삼백근 짜리 철퇴를 휘두르면서 서기남을 바짝 추격해 왔다. 거의 서기남의 뒤에까지 다가와서 철퇴를 내리치려는 찰나에 말의 앞발이 푹 땅에 빠지면서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산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원두표와 군사들은
「와……」
하는 환호소리를 내며 산아래로 달려 내려왔다. 양고리를 잃은 청나라 군사들은 양고리를 구해 보려고 달려들었으나, 사기충천한 우리 군사들에게 몰리었다.

이로써 한 사람이 능히 만 사람을 당해내는 청나라 장수 양고리를 잡아죽일 수 있었다. 원래 양고리는 청나라의 황제 태종(淸太宗)의 매부로서 후금(後金)나라 즉 청(淸)을 세운 누르하지(好兒哈赤=淸太祖)의 사위다. 그는 지난날 대륙 창평(昌平)에서 명(明)나라와 싸울 때 쉰 여덟번을 싸워 오십팔승을 거두었다는 장수이며 일찌기 몽고를 평정할 때 단신으로 몽고의 여덟왕자를 사로잡은 천하용장이었다. 누루하치가 그의 용맹을 사랑하여 사위를 삼았다는 무재(武才).

그런데 원두표장군이 비장 서기남의 지모로 그를 잡아 죽인 사실은 전쟁이 끝난 후 압록강(鴨綠江)에 파견되었던 의주역관(義洲譯官) 한보룡(韓甫龍)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난리가 끝나고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갈때 강을 건느면서 호곡(號哭)하기를,
「우리는 전쟁에 이기고도 졌다.」
하고 양고리장군을 부르면서 넋두리를 하더라는 것이다.

양고리가 태어난 곳은 중국 법화둔(法華屯)이라는 곳, 그래서 그를 법화장군이라고 불렀다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청태종(淸太宗)은 양고리를 추모하여 남한산성 북문밖 전사한 자리에 원찰(願刹)을 세우고 절 이름을 법화암(法華庵)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그 곳 고을의 이름을 법화동(法華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서부면 상사창리(西部面 上司倉里)이다.

29. 無心樓의 落照

초췌한 인조(仁祖)대왕의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종이위에 떨어져 글씨에 번진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고정하옵소서.」
「아무말 말고 종이나 다시 가져오너라.」

옆에 있는 신하의 진언도 귀찮은 듯 인조대왕은 한동안 멍하니 지평선 저쪽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지금 오랑캐들이 짓밟고 있는 한양 쪽인 것이다.

이윽고 새로운 종이 위에 가르다란 손으로 〈무망루 無忘樓〉라 쓰고서 붓을 던지는 인조,

「이 천추의 한을 어떻게 씻는단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눈보라 들이치는 엄동설한에 남한산성 제일 높은 서장대(西將臺)에서 몇몇 신하와 망국의 한을 씹고 있는 인조는 창자를 끊어 내는 통분을 참을 수 없어 서장대의 현판을 무망루라고 썼다.

때는 인조 십사년(丙子) 십이월, 청나라 군사가 물밀듯이 쳐들어와 이 강산을 피로 물들이니, 도성은 함락되고 나라의 운명은 바람앞의 등불이었다.

빈궁과 왕자들을 우선 강화도(江華島)로 피난시킨 왕은 적병으로 인하여 길이 막히는 바람에 강화도로 못가고 이곳 남한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인조는 침략자 오랑캐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최후의 한사람까지 항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막다른 고비에 처해 있는 것이다. 최명길(崔鳴吉)에게 묻는다.

「경은 어이해서 짐이 오랑캐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 이 나라와 종묘사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지금 적병은 수십만 대군으로써 이 성을 에워싸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군사는 싸움에 미숙한 일만 여의 군사뿐입니다. 더우기 군량까지 떨어지는 이 판국에…….」

「듣기 싫소! 짐에게 항복을 권하는 그대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란 말이오?」

「황공하여이다. 상감마마, 소신의 충정을 깊이 통촉하옵소서.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사옵니다.」

이때 아장 한 사람이 와서 고한다.

「아뢰오! 강화성이 어저께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무엇이?」

왕 이하 중신들은 일제히 놀랐다. 이때다 싶어서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은 다시 왕에게 아뢴다.

「상감마마! 한시 바삐 화친을 맺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종묘사직과 이 나라 억조창생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날씨는 차고 바람은 매서웠다. 쓰러질 듯한 몸을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 왕의 눈앞에는 오랑캐들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을 왕족들, 그 중에서도 여러 빈궁들과 왕자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그들이 외치는 비명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하였다. 그때 상장군 원두표(元斗杓)가 말한다.

「상감께 아뢰오. 적이 비록 막강한 수효라 하나 죽기를 맹세하고 한사코 싸워서 혈로를 뚫고 강화성을 탈환하겠아오니 너무 심려 마옵소서.」

「경의 충절은 고맙소만 이미 때가 늦었소.」

「아니옵니다. 상감마마, 잠시 이대로 항전하면서 명(明)나라로 밀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원병을 청해 보심이 가한줄로 아뢰오.」

원로대신 김자점(金自點)의 말이었다. 그소리에 최명길이 화를 버럭 냈다.

「여보, 김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오? 지금 명나라는 다 망하고 말았소. 잘못하다가 청나라에 발각이라도 된다면 우리 나라는 아주 쑥밭이 된다는 것을 대감은 모르시오?」

이때 왕은 눈을 감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만들 두시오! 다들 물러가오.」

이날 밤 인조는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피난올때 다친 발의 상처도 아팠지만 팔, 다리, 가슴을 송두리째 도려내는 것 보다도 더욱 아픈 것이, 지금 왕의 마음이었다. 목숨을 걸고 거사를 해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얻은 임금의 자리가 아닌가.

그 후 이괄(李适)의 난(亂)을 평정하는데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호란으로 전무후무한 침략을 받게 되니, 너무나 파란많은 비운의 왕이었다.

한편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 사이에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보게 춘삼이! 자네는 언제쯤 우리가 집에 돌아갈 것 같은가?」

「얼빠진 소리 좀 작작해, 이 병신아. 네나 내나 살아서 집에 가긴 다 틀린거여! 너야말로 얼빠진 놈이구나.」

「아 그렇다면 빨리 도망가면 될 거 아녀?」

「아 뙤놈들이 쭉 둘러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나, 이 팔푼이 녀석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으면 너나 가거라.」

「인석아, 배고파서 말할 기운도 없으니 말시키지 말고 어디 가서 먹을 거나 훔쳐와!」

「나도 이틀을 굶으니까 일어설 기운조차 없어. 아 참! 그리고 말이야, 너니까 얘긴데……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잘 들어둬.」

「무슨 말인데?」

「어제 우리 비장이 가만히 하는 말이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죽거나 얼어죽기가 십상이라는 거야. 그러니 죽기전에 무슨 수를 내자면서 떡놈들한테 성문을 열어 주던지 아니면 임금을 붙잡아서 내주자는 거야. 벌써 여러사람이 마음을 모았다고 하면서 말이야.」

「쉿! 이 자식이 정말 환장을 했나?」

사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 사이에선 반란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 병사들뿐이 아니라 대신들 사이에도 의견의 두 패로 갈라져서 이대로 가다간 얼마를 지탱 못할것 같았다.

이 모든 사태를 판단한 왕은 최후로 어전회의를 열고 최명길에게 청나라와 화친을 맺는 절차를 밟으라고 명했다. 이름좋아 화친이라고 하지만 실은 굴욕적인 항복이었다. 남한산성으로 피난한지 사십 칠일만에 왕 인조는 서장대누각에 올라가서 열성조에게 눈물로써 고하고 산을 내려와 청태종(淸太宗)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민족 천추에 수치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의 막을 내렸다.

지금도 서장대에 올라서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것을 보노라면 붉게 타오르는 낙조(落照)속에서 삼백오십년전 옛날의 역사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31. 淸涼堂의 招魂굿

이 이야기는 앞에서 소개된「西將臺의 매바위」얘기 후편이 되겠다.

해마다 음력 정월 초 이튿날이 되면 남한산성 서장대 바로 밑에 있는 청량당(淸涼堂)에서

는 며칠전부터 목욕재계한 만신들이 모여들어 정성껏 치성을 드린다. 이 청량당에는 남한산성 축성때 억울하게 참수(斬首)된 이회(李晦~寅고)와 그의 부인 송씨(宋氏)의 넋을 모신 사당이다. 이날 만신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된 사유는「매 바위」전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회는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축성을 빈틈없이 하느라고 기일안에 완공을 못하였다. 그런데 국고금을 낭비하고 그 돈을 주색잡기 유흥비에 써버렸다는 모략에 걸려 그는 참수되고 남편의 성역(城役)을 돕던 송씨부인마저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을 하였다.

그 후 송씨부인의 넋은 남편을 모신 사당 청량다에 나타나 곡성(哭聲)을 내었다 한다. 그래서 고을에서는 이회의 넋과 송씨부인의 원혼(冤魂)을 달래고저 그가 투신한 날(정월 초이틀날)을 가려 여러고을 무당을 불러 제사와 굿을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32. 못골(池谷)의 地名由來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草月面池月里)의 못골(池谷)은 경안천(京安川)과 곤지암천(昆池岩川~세피내=洗皮川이라고도 함)이 합류하는 두물어리를 지나 무갑산(武甲山)쪽에 있다. 그러므로 그 방향을 통칭하여「못골」
이라 부르며 과거에는 진주강씨(晋州姜氏)가 대성(大姓)으로 집성촌(集姓村)을 이루던 곳이다. 이 못골이란 동명(洞名)이 생긴 유래는 다음과 같다.

세조(世祖)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절충잔군 경기좌도 수군절도사(通政大父折衝將軍京畿左道水軍節度使)를 지낸 姜孝貞이 그의 아버지가 단종(端宗)이 영월(寧越)로 쫓겨날 때 노상에서 영접하여 위로한 것이 죄가 되어 피신하던 중 이곳에 숨어 살도록 해준 곳이다. 그때 마을앞에 2천여평되는 큰 연못을 파고 정자를 지어 한유(閑遊)토록 하였다. 그때부터 동명이 못골(池谷)이라 부르게 되고, 그 연못에 달이 비치면 마치 못속에 또하나의 달이 있는 것 같다 하여 지월리(池月里)라 하고, 다시 새마을이 생기므로 신월리(新月里)라 하였다. 지금은 그 연못자리가 논으로 변하였으나 이름은「못배이」라 하며 옛날모습이 그대로여서 동리의 풍경을 조경(造景)하자는 여론에 따라 복원될 움직임이 있다. 수사공묘소(水使公墓所)는 마을 뒤 응봉(鷹峰)에 있고 그 후손중에는 장관(商工部長官)과 국회의원을 지낸 강성태(姜聲邰)씨가 있다.

第八章 體 育

第1節 古代 部族國家에서의 廣州 體育

1. 原始社會의 廣州體育

원시 생활에서의 체육활동은 생명 보존을 위한 수렵활동 그 자체라고 볼수 있다. 먹이를 향해서 달리고 던지고 때리는 동작이 곧 체육 활동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기술적이고 협동적인 체육활동으로 틀이 잡혀 갔다.

이처럼 원시사회에서의 수렵 생활은 체육이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의도적이며 교육적인 활동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본능적 활동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신체의 단련이나 강건함의 유지나 체능력 증진을 가져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원시 사회의 體育史的 意義가 파악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주로 수렵에 의존했던 한국의 원시사회는 무문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농경생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농경생활로 접어 들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자연의 변화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부터 종교적인 제천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祭天行事에서 주술적인 가무가 행해지면서 비로소 유희적 체육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농경의 발전에 따른 잉여 생산물의 상호 쟁탈이 이루어져 부족 사회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전투행위는 부족국가의 형성을 촉매하면서 무사적인 수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부족사회에서의 전사적인 단련은 그것이 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체육적인 수련의 전부였으며, 당시의 체육은 일면 전사 훈련으로서의 체육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廣州는 馬韓의 강역으로서 고조선의 準王이 위만에 쫓겨 이곳에 남하해서 세운 淮安國의 일부였다고 믿어지며, 당시의 부족국가의 형태 속에서 검사로서의 수련과 제천을 위한 가무가 성행했을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2. 部族國家의 武士體育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환경 조건이 나은 것을 향해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부족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이 무렵이며 주로 송화강, 압록강,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책하여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당시에 夫餘 사람들은 집집마다 제각기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부족국가의

침입을 받게 되면 부락민 모두가 전사가 되어 부락 촌장의 통솔하에 들어가 싸움을 했다. 이는 農兵一體의 병역제도라고 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부족국가 사이의 분쟁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기도 하고 종족끼리 연합하기도 하여 초기의 왕국 형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 때의 왕위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장 회의에서 선출하였으나 무예와 힘이 출중한 자가 언제나 왕위를 양위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 三國史記 등에서 읍락에는 大人·長師·渠師 등의 용맹스런 부작의 장이 있었다는 기록과 東明이 활쏘기를 잘하여 夫餘의 金蛙王의 長子인 帶素에게서 미움을 사 卒本夫餘에 가서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부족국가 시대에는 생존을 위하여 자연과 맹수와 싸웠을 뿐 아니라 부족과 부족 사이의 패권 다툼을 위하여 무예를 닦았으며 무예에는 무사정신이 요구되었다.

夫餘에서처럼 수재나 한발이 들어 오곡이 익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불어 혹은 갈거나 죽여야 한다[2]는 습속의 내용이라던가 馬韓에서와 같이 비록 싸우더라도 서로 굴복한 자에 대하여는 귀회 여긴다[3]는 내용등이 당시 부족 사회의 무사정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 들이다.

廣州 땅이 馬韓의 강역이었으므로 일찍이 武士精神이 맥맥히 흐르고 있는 곳이다.

第二節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廣州 體育

1. 武士體育과 廣州

삼국시대에 이르러 무기를 들지 않는 호신술이 처음으로 자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각지와 수박 등이 그것이다.

각지란 오늘날의 씨름이며 수박이란 태권도의 일종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호신술은 그 이전 부족국가 때부터 발달되었을 터이나 기록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삼국시대의 무예로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이미 각지나 수박은 개인적인 무예로부터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서 많은 젊은이나 무사들 사이에 성행했었기에 벽화나 기록에 남아 오늘에 전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무예 외에도 무사로서의 필수 과목이라 할 궁술과 마술이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 투석술도 널리 익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매년초에 패수 위에 모여 놀 적에 왕은 의복을 입은 채 물에 들어가 좌우 두 편으로 나누고 수석으로 서로 물을 뿌리고 돌을 던져 2·3차 서로 함성을 올려 싸

1) 羅絢戌,《韓國體育史研究》(서울 : 文泉社, 1974) p.4이 옳을 것이다.

2)三國志, 魏志 卷30 夫餘條

3) 晋書卷 97 列傳 67四夷馬韓조

우게 하고 중지하였다」[4]고 하여 투석전에 관한 기록이 있고 신라에도 투석전에 대비한 석전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신라에서는 무사들에게 수영을 익히게 하였던 것 같다. 삼국사기의 장보고편에 정양이라는 무사가 수영에도 능하여 해저 50리의 잠수 기능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삼국시대의 무사들은 무예를 익힘과 동시에 특별히 지도자로서의 자질 수련을 거치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무사수업으로 가장 조직적인 것이 신라의 화랑도였다. 화랑도들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라는 정신적 기조가 그 바탕을 이루었던 것이다. 즉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이 그것으로 당시의 무사들은 무예의 뛰어난 기량외에도 애국심과 고결한 예의와 강인한 용맹성 등 인격적인 완성을 지향했었다.

廣州는 新羅 文武王에 이르러 남한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미루어 이 성에 주둔하고 있었을 무사들의 체계적인 무사 체육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2. 廣州의 武藝的 遊戲

古代國家의 유희, 특히 청소년의 유희는 무예적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었다.

수박(手搏)이나 각저(角저)등이 개인적인 무술에서 집단적인 유희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여러가지 무술이 유희적인 변화 과정을 밟아 갔다.

「황창랑은 신라 사람으로 나이 7살에 백제땅에 들어가 시중에서 검무를 추어 구경하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백제왕이 이말을 전해 듣고 그의 검무를 보고자하여 당으로 불러 검무를 출 것을 명하였다. 창랑이 검무를 추다 왕을 시해하려 했다. 나라 사람들이 창랑을 살해했다. 신라인이 이것을 슬퍼하여 그의 얼굴상과 같은 가면을 만들어 검무를 추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한 것이다[5] 라고 되어 있는 東京雜記를 보더라도 검술이 검무라는 유희로 발전 변형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던 무예적 유희는 활쏘기를 주로한 수렵행사였다. 특히 광주 지방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귀족들과 무사들의 수렵 행위가 활발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지역이 수렵지로 적지였을것이라는 추측은 삼국시대 한때는 백제의 강역이었다가 한때는 신라의 강역이었다가 한때는 고구려의 강역이 되는 등 국경분쟁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일반국민의 대중유희나 오락이랄 수 있는 추석절의 놀이로 행하여진 길쌈이나 투호(投壺), 죽마(竹馬), 축국(蹴鞠)등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민속놀이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네타기나 연날리기 등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널리 행해지던 유희이다.

윷놀이나 바둑 또한 그 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유희의 일종으로 일반국민들 사이에 인기있던 오락이었다.

---

4)羅絢戊, 前 ,p.21

5) 東京雜記 卷1風俗條의 羅絢戊 再引用

第3節 高麗時代의 廣州體育

1. 貴族社會의 體育과 軍事訓鍊

왕건에 의하여 건국된 고려는 북방민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분쟁이 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무력항쟁이 불가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정책은 문반위주의 정치체제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무인의 지위는 문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문치주의 경향은 왕실을 위협하던 호족들의 힘을 점차 무기력하게 만들어 갔다. 광종은 문과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성종은 무기를 농구로 개조할것을 권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치주의는 지배신분인 문반의 귀족계층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는 새로운문화가 형성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는 바 體育분야에서도 신체활동에 유희경기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널리 일반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대중의 유희경기적인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무사 체육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거란, 여진, 몽고 등의 끊임없는 침략과 왜구의 침노를 대비한 체계적 군사 훈련에서 유래한다.

국방에 관한 위기감은 군사체제를 강화하게 했고 이는 또 군사 훈련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발전된 군사훈련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무사 기능은 무예일반에 있어 경기적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했고 또한 관람연희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기마술은 격구로, 궁술은 내기 활쏘기로, 수군의 수련은 수희로, 수박은 귀족의 관람용으로 변화 발전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무사훈련에 의한 체육활동의 변화는 무신 천시에 반기를 든 무신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새로운 권력을 창출한 무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답습되었다.

고려시대의 호신술로 가장 발달된 것은 수박(手搏)이었다. 수박은 오늘의 태권도의 한 원형이라고 보여지며 당시의 기록으론 생생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의 청소년들과 병사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것 같다.

고려사(高麗使) 최충헌전(崔忠獻傳)에 보면 「명종 4년(1174) 일찌기 연회를 베풀어 중방의 힘 있는 자로 하여 금 수박을 하게하여 승자는 즉시 교위대정(校尉隊正)을 주어 포상하였다.」[6]고 되어있어 수박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그런가 하면 궁술 역시 중시하여 고려사 병지(兵志)에 「각 주 진은 농사짓는 틈틈이 매달 궁술을 연습케 했다. 궁은 40보에, 노는 50보에 표적을 주고 10발에 5발을 병중시키는 자로

6) 上揭書, p.36

서 서경의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녹을 올려 주고....」[7]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궁술을 기록으로 상세하게 전하는 바가 없다. 궁술의 종목이 궁(弓)과 노(弩)로 갈리고 표적의 거리가 대체로 50~60보이며 적중 확률이 50%가 되어야 합격으로 한다는 것 정도이다.

다만 궁술의 기술적인 측면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 고려사 병지(兵志)에 기록되어 있다.

「의종 21년(1167) 5월 왕이 장단현 응덕전에 행차하여 배안에서 좌우 신료들과 더불어 향연을 베풀었다. 5경에 이르러 서안에 올라 과녁을 놓고 촛불을 그 위에 밝히고 좌우 대신들에게 명하여 쏘게하니 맞힌자가 없는지라 내시가 성상께서 맞히신 후에 대신들께서 비를 맞힐수 있으리다하거늘 왕이 촛불을 쏘아 맞히니 좌우대신들이 만세를 불렀다.」[8]

궁술과 함께 장려되었던 군사훈련은 마술이었다. 마술 중에서도 격구(擊구)였다. 격구는 말을 타고 장대같은 것으로 공을 몰아 상대방의 목표에 맞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격구는 풍악과 기녀가 함께 어우러졌던 것으로 미루어 유희적인 성격이 강했던 경기로 보인다.

2. 貴族과 廣州 庶民의 娛樂

고려의 귀족층에서 성행했던 오락은 앞서 소개한 격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격구는 고려의 국기라고 할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말과 넓은 경기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귀족들만이 즐길 수 있는 경기였다. 격구는 무사는 물론 일반 조신들까지도 폭넓게 참여하였음이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드러난다.

「의종 원년(1147) 5월 왕은 북쪽 정원에서 놀며 좌우에 말하기를 내 격구의 기술을 다시는 시험해 보이지 않겠다하며 공을 치는데 그 기술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9]고 기록되어 있으며, 의종 4년에는 강안전에 행차하여 내시 등에게로 격구를 하도록 명한 사실도 있다.

격구 경기의 옷이 호화로와 증인 열집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한것으로 미루어도 격구가 상류 귀족의 놀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박 또한 귀족들의 유희의 대상이었으나 수박의 경우는 격구와는 다르게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직접 경기에 참여하기 보다는 관람하는 것을 즐겼다.

그 밖에도 매사냥이 귀족들의 유희였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다. 고려사중 충혜왕의 자료를 보면 왕이 매를 동쪽 교외에서 날렸다던가 공민왕이 매기르는 조롱을 만들고 말하기를 매를 기름은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용맹스러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매사냥이 고급한 유희였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무예적 유희 외에도 산대놀이가 있었다. 산대놀이 속에는 처용무라던가 대광대패의

---

7) 상게서, p. 36

8) 상게서, p. 38

9) 상게서, p. 50

연희가 시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희 말고도 귀족의 놀이중에 투호가 다시 살아나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예종 11년(1116) 12월 왕이 청연각에 행차하여 내시 양온령, 지창합에 명하여 예기와 중용의 투호 2편을 강론하고 왕이 보문각학사등에 말하되 투호는 옛 예라 폐한지 오래이다. 송임금이 내려준 그 기구가 지극히 정교하였다 하므로 이제 이를 시험하려고하니 경 등은 투호의 의병도를 찬정하여 올려라.」[10]라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타나있다. 이로 미루어 투호는 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송나라의 영향이 커지면서 다시 성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민의 오락으로는 씨름을 첫손에 꼽아야 할 것이다.

고려사 충혜왕 세가 원년(1331) 3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씨름이 널리 성행했음을 알수 있게 한다.

「왕이 정무를 총애하는 신하 배권, 주주 등에 맡기고 날로 내신들과 더불어 씨름을 즐기니 상하 예가 없었다.」라던가 「왕이 고용진과 더불어 시가루에 거동하여 격구와 씨름을 관람할 새선수들에게 내린 포가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기록들로 보아 씨름은 분명 서민들의 유희이자 스포츠였다. 씨름과 함께 서민들에게 성행했던 유희나 오락은 축국이었다. 축국에 대한 기록중에 재미있는 것으로 이규보의 시가에 「공에 바람을 넣어 사람들이 보여 차다 바람이 빠져 사람들이 또 헤어지니 쭈그러진 공만 남더라」라는 귀절이 동국이상국집고율시(東國李相國集律恃)속에 전하고 있는것이다. 그네타기 또한 서민의 유희였다고 보여진다. 그네타기에 대한 기록으로는 「우왕 13년(1387)10월에 왕이 가로를 순행하다 그네타는 놀이를 했다.」는 것이 고려사에 나타나고 있다. 연날리기 역시 서민의 오락이자 즐겨하는 계절적인 유희였다. 고려사 세가권 33 충선왕 1조의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궁노가 동네아이의 연을 빼앗아 바쳤다. 묻기를 네가 어떻게 얻은 것이냐? 사실로서 대답하며 왕이 말하기를 이것을 빼앗아 나에게 바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곧 명하여 이것을 도로 돌려 주는 것이 떳떳한 행위라고 말하였다.」[11]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고려시대의 아동들 간에 널리 유행하던 놀이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서민적 유희와 오락들은 광주 지역에서도 그대로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세시풍속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광주 권역의 서민적인 체육활동의 한 전형이 되고 있다.

第 4 節 朝鮮時代의 廣州體育

1. 儒敎的 國家體育

조선시대의 체육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무예적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10) 상게서 p. 57

11)상게서, p. 60

조선조 초기의 무사의 선발에 관한 기록을《태종실록》9년 경인조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병조에서 무사를 선발하는 법규를 올렸다. 전부터 3군갑사(三軍甲士)는 기보사(騎步射)를 시험하여 충액하였읍니다. 그러나 병법에 있어서 융마와 같이 날센 다리와 강정을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를 뽑아 하나의 병사로 하랍니다. 이제부터는 창패대갑 등 병장기를 메고 능히 삼백보를 달리는 자를 상등으로 하고 이백보를 달리는 자를 중등으로 하고 완력이 있어 능히 넷을 이기는 자를 상등, 셋을 이기는 자를 중등으로 시취하여 작패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12]라는 기록을 보던가 세종 13년 왕이 모화관에 가서 군사들의 무예를 관람하면서「혹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피두창을 가지고 말을 달리면서 좌우가 부딪치게 하면서 혹은 나란히 말을 몰면서 부딪치게 하고 혹은 역사 5인을 뽑아 씨름을 다투게 하고 상을 주는 데 차가 있었다.」[13]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시대의 무사들에게는 기본적인 체력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태종때에 왕의 생신을 맞아 세자와 종친들이 연회를 갖는 자리에서 수박을 하게하고 이를 관람한 기록도 나타나 무사 체육이 귀족들의 오락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시대의 유교적 무인정선은 삼강오륜에 바탕을 둔 충·효·예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조선조의 무사들은 무예적 기능과 함께 유교적 철학가치관을 지녀야 했다.

그러므로 조선의 무사들은 문무를 겸비한 지장(智將)의 소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려의 무사를 보다 더 격조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조선조의 무사들에게는 신라의 화랑에서 연원하여 고려의 선랑(仙郞)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 무사도가 있었으니, 산과 내를 찾아 풍류를 즐기고 호방한 기상을 키웠으며 무예를 연마했던 것이다. 이러한 무사정신의 수련은 조선조의 여러 국난을 당해서 호국의 결의로 나타나 이나라를 지켜왔다.

2. 廣州 地域의 娛樂과 遊戲

광주 지역의 조선조 때의 대중오락은 퍽 다양했었다.

현재까지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줄달리기, 장기, 바둑, 팽이놀이 등이 그것이며 이밖에도 수박, 활쏘기, 죽마놀이, 줄넘기, 축국, 연날리기, 제기차기, 농악놀이, 석권 등이 활발하게 보급되어 있었다.

공기돌받기 놀이는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로 작은 돌을 공중에 던졌다가 손등으로 받는 놀이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줄넘기놀이 또한 광주 지역에 성행했던 놀이로 해동죽기 도색희조(海東竹技 跳索戲條)에는

11) 상게서, p. 67

12) 상게서, p. 68

아이들이 새끼양끝을 잡고 또 뛰어 천여번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운동을 통하여 다리가 튼튼해지고 각기병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책에 팽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옛 풍속에 아이들이 나무로 작은 공을 만들어 밑을 뾰죽하게 하여 얼음 위에 세우고 채찍으로 치면 뱅뱅돌아서 쉬지 않는데 이것을 핑구 또는 팽이라고 한다. 백번 구르고 천번 돌아서 잠시도 쉬지 않으니 아이들이 즐겨보고 신기하다고 외친다.」[14]라고 하여 오늘날의 팽이놀이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제기차기는 같은 책 축치구조(蹴雉구條)에「옛 풍속에 꿩의 꼬리로 제기를 만들어서 서로 경기하는데 네 사람이면 사방구라고 하고 세 사람이면 삼각구라고 이름하고 두 사람이면 쌍봉구라고 이름한다. 매양 날이 추울 때면 땀을 흘리며 열을 낸다. 이것을 제기차기라고 한다. 왼쪽으로 차서 하늘에 오르고 오른쪽은 땅을 차니 원앙의 다리법이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구나.」[15]라고 제기차기를 묘사하고 있다.

자치기놀이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던 놀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놀이는 남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유희성운동 종목이었으며 여자 어린이의 놀이로는 술래잡기나 널뛰기, 또는 그네타기 등이었다.

널뛰기에 대한 기록을 해동죽기(海東竹기)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시작하여 젊은 부녀자들이 쌍쌍으로 널을 뛰어 놀이를 하는데 이 풍속은 고려때부터 전해 왔다. 이것을 널뛰기라고 일컫는다. 봄날에 덜컥덜컥 뛰고 뛰는 소리 붉은 단장 젊은 부녀 피로움을 알지못한다. 비단치마는 쌍으로 나는 날개와 같다. 한 제비가 낮아질 때 한 제비가 높아진다.」[16]이처럼 널뛰기는 정월의 세시풍속도로 광주지역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유희이자 오락이었다.

그네 또한 광주지역의 부녀자들이 즐겨하던 놀이였다.

《성종실록(成宗實錄)》 24년 5월 정해조(丁亥條)에는 그네뛰기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계(啓)한 것이 보인다.

「사헌부 대사헌 이세좌 등과 사간원 이덕숭 등이 와서 계하여 말하기를 금년 단오에 시정의 부상 무리가 종루 뒤에 그네를 매고 남북으로 나뉘어 승부를 경쟁한다는데 사치를 극하여 채책과 다름 없고 도성안의 사녀가 모여 구름과 같다. 부녀 2인이 있어 역시 가마를 타고 가서 그 인근의 기생집에 숨어서보니 이것은 유희의 기본이 아니고 실은 미녀들을 모아서 노는 것이니 그 풍속에 관계됨이 크다. 그리고 또 물의의 고위층에도 관계가 있으니 국문하소서 하니 듣지 않았다.」[17]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당시 광주 지역에도 단오를 중심으로 퍽 사치스러운 그네뛰기가 성행하였을 것이다.

겨울이면 설마(雪馬)를 타는 유희가 성행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썰매이다.

---

14) 상게서, p.94

15) 상게서, p.95

16) 상게서, p. 96

17) 상게서, p. 97

광주 지역의 서민의 유희나 오락은 이제 풍속으로 명맥이 유지되어 오나 산업화에 따라 점점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이 되고 있다.

第5節 近代體育의 始作과 廣州體育

1. 公敎育制度와 學校體育

광주 체육 발전에 있어 공교육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공교육 기관의 발달은 외국인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위한 포교 수단과도 관계가 깊다하겠다.

한국에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은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된 1976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선진제국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선진제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근대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학교 교육에서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는 1891년 경부터이며 그 이전, 1885년에 선교 활동이 본격화되어 1886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H.G.Underwood)가 경신학당(경新學校)을 설립하여 오락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다.

경신학교 개교와 때를 같이하여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학교 등이 설립되면서 근대적인 교육의 여명이 밝아왔으며 이에 따라 체육 교육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선교사들에 의한 이와 같은 교육 활동에 자극을 받아 정부에서도 갑오경장이 서정개혁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일대 혁신이 기도하게 되었다.

고종황제는 1895년 2월에 교육입국을 위한 조서(調書)를 공포하였는 바 체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로되 체양(體養)이니 동작을 떳떳이 하여 부지런함과 힘쓰기를 주장하고 게으름과 편안을 탐하지말고 괴롭고 어려운것을 피하지 말며 너희 힘줄을 굳게하고 너희 뼈를 튼튼히하여 강장하고 병 없는 낙을 누려 받으라.....」[18]

이와 같은 체육교육에 대한 각성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봉건적 국가 체제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특히 교육의 기회를 만민이 고루 향유하도록 하였고 지·덕·체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근대적 교육사상을 표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후 경향 각지에 공교육 기관이 많이 설치되어 공교육기관을 통한 체육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광주지역의 체육계도 서서의 태동되기 시작했다.

1907년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하면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이름을 고치고 보통학교의

18) 강길수,한기언,《한국교육사》(서울 : 한국통신대학출판부, 1983), p.184

교육과정에 주당 3시간씩의 '체조'시간을 두고 있었고 1909년에 고등학교령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1·2학년에 주당 3시간, 3·4학년에 주당 2시간씩의 체조시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체조시간에 대한 교육과정의 시간편제는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없이 수용되어 오고 있어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일찌기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개교한 광주국민학교(1918. 11. 15개교), 곤지암국민학교(1922. 9. 18개교) 광지원국민학교(1945. 3. 31개교), 남한산국민학교(1921. 5. 1개교), 도수국민학교(1935. 10. 2개교), 도척국민학교(1931. 7. 10개교), 동부국민학교(1934. 4. 1개교), 매곡국민학교(1938. 7. 10개교), 분원국민학교(1921. 12. 1개교), 오포국민학교(1935. 10. 24개교), 초월국민학교(1931. 7. 8개교) 등이 위의 학교령에 따른 교육과정에 의해 활발한 체육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체육교육은 체조와 율희가 학과목으로 개설되어 근대체육이 발전하고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때부터 운동회가 개최되어 학교체육이 사회체육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학교 운동회는 광주지역의 유지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축제였으며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케 하는 큰 지역행사가 되었다.

2. 各種 運動會의 開催와 廣州體育

고종 33년인 1896년 5월2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라 할 수 있고 화류놀이가 영어학교 교사인 허치슨에 의해 중소문 밖 삼화평에서 소풍놀이로 열렸다. 운동회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이 놀이는 육상경기였다. 이 놀이를 계기로 해마다 각급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1905년 5월 22일 신흥사에서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최초로 운동회를 개최하고 이듬해 3월 대한체육구락부가 발족되어 6월 10일에 조직적인 우리 나라 최초의 운동회를 열었다.[19]

1907년에는 관·공·사립학교의 연합체육대회가 열렸다. 참가인원이 수천명에 이르렀으며 봄·가을로 열린 이 운동회에는 정부의 주요 대신들이 참가했고 입상자에게는 상을 주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했었다.

1908년 5월 20일에는 관·사립학교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창덕궁 비원안에서 운동회를 가졌던 것으로 황성신보가 보도하고 있다. 오전 9시 남·여 선수 440명과 임원 110명의 입장식이 있은 후 고종황제 내외와 대신들이 참관하여 무관학교 생도의 기계체조를 비롯하여 전 종목을 끝까지 관람했다.

1909년 4월 30일, 학부 주최의 관·사립학교 연합운동회를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합운동회는 소멸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 기운이 농후해지기 시작하던 때라 국민의 배일사상이 점증하고 집단적 국민운동이 일어날까 두려워 학부에서 재정난을 빙자해 연합운동회를 폐지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불붙은 국민체육운동으로서의 학교 운동회는 1920년대 광주 지역에 많

19) 수원시사, p. 1552

은 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여 지역사회 체육으로 발전했다.

운동회의 종목으로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기마전, 덤부링, 달리기, 율동 등이었으며 부락대항 이어달리기도 인기있는 종목의 하나였다.

3. 體育團體의 胎動과 廣州體育

근대체육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단체를 태동시켰다.

1900년대에 공교육 기관의 설립과 함께 사회체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대한체육구락부」「황성기독교청년회운동부」「대한국민체육회」「소년광창체육회」「체조연구회」「청강체육회」 등이 앞다투어 설립되었다.

○ 대한체육 구락부

1906년 3월 11일에 발족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체육단체이다.

이 구락부의 활동 상황과 소멸시기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초청기의 체육활동을 선도해 온 중요한 체육단체의 하나이다.

○ 황성기독교 청년회 운동부

1906년 4월 11일에 조직된 체육 단체로 청년의 체질은 강건하게 할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이 운동부에서는 야구와 농구등 근대스포츠를 처음으로 소개하여 지도하였고 운동회 상품으로 메달을 수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 대한국민체육회

1907년 10월에 조직된 단체로 군대식체조의 개척자이며 근대체육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노백린이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활동이없이 해체 소멸된 단체이다.

○ 체조연구회

1909년 10월 24일에 체조교사들이 주축이되어 조직된 단체로 체육의 실제 지도면에서 제기되는 기술과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비조직적인 당시의 체육지도를 조직화하고 진형시켜 국민의 심신을 강건케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더 이상의 활동상황은 기록으로 전하지 않으며 보성중학교에서 발족된 단체라고만 알려져 있다.

이상의 체육단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1900년대 초에 발족된 단체라면 1920년대에 일제의 지배 아래 발족된 체육 단체들이 또 상당 수 있다.

「조선체육회」,「조선정구협회」,「조선궁술연구회」,「조선야구협회」,「관서체육회」,「조선농구협회」,「조선관립전문학교 체육연맹」,「조선전문학교축구연맹」,「조선씨름협회」 등이 그것이다.

조선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에 창립이 되었으며 각 지방에 산하단체가 조직되어 각종 스포츠행사를 통한 민족적 이념의 고취와 사상을 강화하는 한편 강건한 체력과 정신의 수련으로 조국 광복의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는 과학적투쟁의 역사를 마련하게 되었다.[20]

이 시기에 많은 체육단체가 발족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봉건사회로부터 개화사회로

20) 상게서, p.1555

개방되어 가는 사회적변환과 체육을 통한 민족전체의 일체감과 단결심을 획득하고자했던 항일정신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 지도적 인사들에 의해 조직된 각종 체육단체는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탄압을 받기 시작함으로써 지방조직이 와해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第6節 民族의 受難과 廣州體育

1. 조선체육의 전진

역사적 시련인 한일합병 조약이 1910년 8월 24일에 체결된 후에 일제는 우리나라를 통치할 조선총독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가혹한 무단정치를 펼쳤다.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는 박탈되었으며 민족의 자존은 짓밟히고 말았다.

당시의 애국지사와 뜻있는 선각자들은 항일투쟁을 통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신체를 기르고 민족정신 고취하는데 있다고 보고 원기있는 국민을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체육회의 조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단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선인의 체육적능력을 과시하여 일본 체육계에 도전하면서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해 나갔다.

이러한 체육활동의 우월성은 민족적 자각의 한 계기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조직적인 체육대회가 사회단체나 청년회 등의 주도로 열리게 되었다.

1920년 7월 13일에 조직된 조선체육회는 이처럼 민족적 자각과 응집력을 갖게했으며 항일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손기정과 동아일보의 폐간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 우승자가 되었다.

이 값진 우승은 민족의 울분을 달래는 데 일조를 했으며 한편으로는 민족의 울분을 터트리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우승자 손기정의 가슴에 박힌 일장기의 사진을 도려낸체 국내에 보도한 소위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항일의식을 일깨웠으나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민족의 대변지를 폐간함과 아울러 조선체육회를 일본인 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통합시켜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이통합이 이루어진 때는 1938년 7월 4일을 한일합병 후 28년만의 일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체육운동을 전쟁 목적에 이용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1942년 2월 14일 조선체육진흥회라는 사회체육 통제기관을 만들어 체육 운동을 국가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소위 국방경기를 개발하고 이를 전력 증강의 수단으로 썼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체육계는 스포츠의 암흑시대를 맞게 되었다.

第7節 建國과 새時代의 體育

1. 學校體育의 定立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학교교육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중에서도 체육교육은 군국주의의 체육에서 탈피하여 민주서민의 자질과 역량을 위한 중요한 과목으로 중시되었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보건·체육을 필수과목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군정문교부에서도 체육에 관심을 가져 교화국 체육과에서 일반체육과 단체체육을 관장케 하였다.

1948년 7월 교화국과 성인교육국이 통합되어 사회교육국으로 개칭됨에 따라 종래 교화국에서 관장하던 체육행정 업무는 사회교육국의 소관하에 이루어졌는데 동년 11월 4일자 대통령령 제 22호에 의하여 문교부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사회교육국은 문화국으로, 체육과는 문화국 소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체육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미군정령 공포와 동시에 일제때의 체련과목이 체조과로 개칭되고 국민학교에서는 주당 3시간,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당 1~2시간씩 교육과정 시간배당을 했다. 군정 아래서의 경기도의 교육체계는 학무국 밑에 서무과, 학무과, 조사기획과, 사회교육과를 두고 사회교육과에서 사회교육, 성인교육, 체육, 종교, 문화재보호 등을 맡고 있었다. 건국과 함께 체육 재건을 위한 소리도 높아져 대한체육회가 발족되었으며 대한체육회의 발족에 따라 각종 경기단체가 발족되었다.

2. 京畿道體育會의 發足과 廣州體育

해방 이듬해인 1946년 2월 경기도 체육회가 창립되어 구자옥(具滋玉)을 초대 회장에 추천하고 사무국을 경기도청 문정과 안에 두었다. 그러나 체육업무의 대부분은 경기도 체육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족한 인천체육회가 사실상 주관하고 있었다.

경기도체육회는 창립 후 얼마 안있어 6·25가 발발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단체도 59년에 이르러 14개의 경기단체를 거느리게 되었다.

1961년 7월 15일, 도체육회 사무국이 인천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인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의 기능 속에 흡수되었다.

5·16군사혁명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체육 정책에 힘입어 13개 시·군 체육회를 조직하였

으며 산하 경기단체 23개를 가지게 되었다.

1964년에는 시·군 체육회 22개, 산하 경기단체 27개로 증가되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는 시·군 체육회 개, 산하 경기단체 개를 하부조직으로 가진 큰 사회체육 단체가 되었으며 도민의 체육진흥과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 각종 대회의 참가와 유치, 각종 대회의 개최를 주관하고 있다.

■역대 경기도 체육회장■

1대 : 구자옥	46. 2.15~50. 7	11대 : 남봉진	68. 9. 4~71. 6.12
2대 : 김해익	50.10.13~52. 9.12	12대 : 김태경	71. 6.12~72. 6.30
3대 : 김영기	52. 9.12~53.11.23	13대 : 손수익	72. 6.30~73. 1.16
4대 : 이익흥	53.11.23~56. 5.21	14대 : 조병규	73. 1.16~76.10.12
5대 : 최헌길	56. 6.26~60. 5.12	15대 : 손재식	76.10.12~80. 1.17
6대 : 최문경	60. 5.12~60.10. 7	16대: 김주남	80. 1.17~80. 9. 9
7대 : 정용복	60.10. 7~61. 5.24	17대: 염보현	80. 9. 9~83.10.15
8대 : 박창원	61. 5.24~63.12.16	18대: 김태호	83.10.15~84.10.10
9대 : 이홍배	63.12.16~64. 7. 8	19대: 이해국	84.10.10~86. 1. 9
10대 : 박태원	64. 7. 8~68. 9. 4	20대: 김용래	86. 1. 9~

경기도체육회가 발족되면서 경기도내에도 각종 체육단체가 발족되었으며 특히 광주체육회가 1946년에 발족되어 6월 1~2일에 제1회 경기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표 1〉도내 체육단체가 주최한 경기종목

연·월·일	종 목	주 최 자	장소	종 별	비고
45.12. 6	해방기념 개성·서울 대항 탁구권	개성체육회	개 성	탁구	일반
46. 5. 5	인천시 초등육상 경기대회	인천초등연합회	인 천	육상·무용	초등
5.26	제1회 전국남여단체 탁구대회	개성체육회	개 성	탁구	일반
46. 6.1-2	제 1 회 경 기 체 육 대 회	광주체육회	광 주	종합	중·대·일반
46. 6. 3-4	전 국 씨 름 그 네 대 회	인천체육회	인 천	씨름·그네	중·대·일반
46. 9.20-22	전 국 남 여 궁 술 대 회	인천대중일보	인 천	궁술	일반
47. 4. 5-6	제2회 3·1절 기념축구대회	연백청년회	연 백	축구	일반
48.10. 9-10	전국남여 학생탁구 선수권대회	개성탁구협회	개 성	탁구	중·대
48.10.12-17	남 여 추 계 배 구 리 그 전	배협경기지부	서울(은)	배구	중·대·일반
48.11.30	전 국 자 전 차 경 기 대 회	자연맹인천지부	인 천	자전차	중·대·일반
49. 9. 7-8	전국학생대항 수상경기대회	대한인천수연지부	인 천	수상	중·대

(자료 : 대한민국 건국 십년지, 1956. pp. 574-585)

이 대회의 참가선수 수는 500여명이었고 약 2만 여명의 참관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대상을 중학·대학·일반인이었으므로 명실상부한 도체육대회였다고 보아지나 당시의 출전 선수 명단이라던가 입상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다.

1945년 해방이후 1949년까지 경기도내에서 개최된 각종 경기종목은 〈표 1〉과 같다.[21]

경기도체육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 1946. 2 경기도체육회 창립

○ 1956. 3 육상, 축구 등 도체육회 산하 14개 가맹단체 조직

○ 1963. 3 수원, 의정부 등 13개 시군, 체육회 조직과 함께 28개 가맹단체로 증가

○ 1964.10 제45회 전구체전 인천시에 유치

○ 1968. 8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에 따라 학교체육위원회 조직

○ 1977.10 광주에서 개최된 제58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첫 종합우승

○ 1978.10 제59회 전국체전을 인천시에 다시 유치하여 대회 2연패

○ 1980.10 전주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체전에서 1년만에 패권 탈환

○ 1981. 7 인천직할시 승격으로 경기·인천체육회 분리, 임원구성 및 도체육회 산하 28개 가맹단체 재조직, 체육회 사무국을 수원시 정자동 80-17로 이전함.

○ 1982. 6 제28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부활

○ 1986. 6 제67회 전국체전(서울)에서 인천분리 6년 만에 만년 중위권에서 서울을 누루고 종합우승 차지

○ 1986. 9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도내 9개 경기장에서 열전을 벌려 수원실내체육관(핸드볼) 성균관대체육관(태권도) 상무체육관(레스링) 성남공설운동장(하키) 미사리조정경기장(조정) 한양CC(골프) 과천승마장(승마) 과천순환도로 및 통일로(싸이클) 등에서 종목별 대회 개최. 한국 25개 전종목 출전으론 금 9, 은 55, 동 76으로 중공에 이어 2위 차지.

○ 1987. 5 부산에서 열린 제16회 소년체전에서 금 23, 은 21, 동 30개로 서울에 이어 2위 차지.

○ 1987.10 제68회 전국체전(광주·전남 일원)에서 금 74, 은 87, 동 91개로 서울에 이어 종합 준우승 차지.

'88년 이상과 같은 경기도체육회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88서울올림픽의 일부종목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광주군의 자랑이기도한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86아시안게임을 훌륭하게 치루어낼 수 있을 만큼 국제적인 규격의 경기장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후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88서울올림픽의 경기장으로 사용되어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

'87년 12월 31일 현재 경기도체육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

21)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교육사 1833~1959》 (인천 : 중앙인쇄사, 1975), p. 431.

22) 경인일보사, 《경기년감》 (수원 : 경인일보 출판국, 1988), p. 435.

회 장 : 임사빈
부 회 장 : 박윤섭
부 회 장 : 박세현
부 회 장 : 유석보
부 회 장 : 조종태
부 회 장 : 박정진
부 회 장 : 임영석
사무국장 : 정기철
이 사 : 정재은
이 사 : 이영래
이 사 : 이병수
이 사 : 오상근
이 사 : 김순강
이 사 : 정해린
이 사 : 김세용
이 사 : 박한동
이 사 : 장주호
이 사 : 이종연
이 사 : 정행도
이 사 : 남평우
이 사 : 변원신
이 사 : 고익환
이 사 : 김정신
이 사 : 이형우
이 사 : 양복원
이 사 : 전엄봉
이 사 : 변재기
감 사 : 오세희
감 사 : 이재규

1987년 12월 31일 현재의 가맹 경기단체는 31개 단체이며 각 경기단체의 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23]

육 상 : 김정배
수 영 : 홍순석
축 구 : 최철종
야 구 : 이정환
테 니 스 : 승원표
연식정구 : 조원극
농 구 : 허영섭
배 구 : 유재호
탁 구 : 조정환
핸 드 볼 :
럭 비 : 김재봉
싸 이 클 : 최범상
복 싱 : 김상우
레 스 링 : 이만희
역 도 : 심재천
씨 름 : 민병헌
유 도 : 황석이
검 도 : 변상현
사 격 :
승 마 : 김동진
체 조 : 이병수
하 키 : 방효익
펜 싱 : 김인영
베드민턴 : 김정길
태 권 도 : 황광철
조 정 : 이승원
빙 상 : 변대환
보 울 링 : 이천식
카 누 : 백승억
로 울 러 :
근대5종 :
요 드 : 정연만
골 프 : 한상욱

23) 상게서, pp. 436~437

第8節 廣州郡 體育會

1. 第1回 京畿體育大會의 開催와 廣州體育會

광주군체육회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1일부터 2일간 제1회 경기체육대회를 개최할만큼 활발하고 의욕 넘치는 단체였다.

광주에서 열린 본 대회는 각 시군대표 선수 400여명이 참가하고 있었으며 2만 여명의 참관자가 몰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군 체육회의 상세한 활동기록이 전하지 않아 제1회 경기체육대회의 경기종목과 입상 시·군을 알수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경기도민 체육대회는 제28회인 1982년부터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제1회 도민체육회를 개최했던 광주군체육회의 공로가 헛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 후 경기도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었으며 주로 인천에서 체육대회가 치루어지다가 1969년도 제1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보다 많은 도민의 참여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천·수원 의정부에서 분산 개최했다.

이대회에 광주군은 수원시, 여주군, 이천군, 평택군, 시흥군, 안성군, 용인군, 화성군과 함께 조를 이루어 출전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지금의 성남시에 자리잡고 있는 풍생중 학교가 광주군 소속으로 출전하여 탁구에서 우승을 했다.

광주군체육의 실상이라고 해야할 도민 체육대회의 성적 부진으로 1969년 이후 이렇다할 체육 종목을 육성하고 있지 못하다가 인천이 분리되어 나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28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부터 비로서 입상종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제28회 경기도체육대회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수원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육상 등 27개 종목에 28개 시군에서 3162명의 선수가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전했으며 광주군은 씨름부에서 총 525점을 얻어 2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올렸으나 다른 종목에서 부진하여 군 순위 17위에 머물고 말았다.

제28회 경기도체육대회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육상 및 축구를 비롯하여 23개 종목에 3,546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의 광주군 순위는 총 4,339점을 얻어 9위로 올라섰다.

제3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광주군이 순위 12위를 차지했고 제32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도 12위를 차지했다.

이제는 광주군체육회가 최초로 개최했던 도민 체육대회에서의 부진을 씻고, 도약하는 광주체육의 앞날을 함께 기약해야 할 것이다.

2. 全國體典과 廣州體育

전국체전에서의 광주군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그다지 눈부시지 못했다.

근년에 이르러 도대표 선수로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의 수도 늘고 전적도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있어 밝은 앞날을 전망하게 해 준다.

특히 제65회 전국체전이 84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구직할시에 개최되었던 바 펜싱 종목에서 광주상고 김동일 선수가 남고부 풀러레에서 3위로 입상했으며 광주상고 펜싱팀이 플러레 단체전에서도 3위에 입상하고 기염을 토했다.

제66회 전국체전에는 사격 종목에 광주종고의 정하방 선수와 펜싱 종목에 광주상고의 김기상 선수가 참가했다.

제67회 전국체전은 86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서울, 경기, 부산에서 분산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펜싱 종목에 출전한 광주상고 펜싱팀이 남고부 사브로 단체권에서 3위를 차지했다.

1987년 제 68회 전국체전에서는 복싱 미들급에서 광주종고의 홍상료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고 육상 1,500m에서 같은 학교의 이종국 선수가 3분 57초 38의 좋은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펜신 개인 플러레에 출전한 이인수 선수가 은메달을 따는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제 68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는 종합 2위를 했다.

경기도의 전국체전 역대 대회 전적은 다음 표와 같다.

〈表 2〉 역대 전국체전 경기도 순위

횟수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순위	–	–	7	5	4	3	4	8	4	4	7	5	5	6	2	3	4	3	4
횟수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순위	3	5	3	4	3	3	3	2	1	1	2	1	7	6	5	5	5	3	4

(자료 : 체육년감, 1986, 대한체육회)

3. 全國少年體典과 廣州體育

꿈나라들의 잔치인 전국소년체전에서의 광주군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다른 시군에 비해 크게 돋보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입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광주군의 학교 체육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록의 미비를 83년 이전의 광주군 출신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1983년의 제12회 소년체전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13개 시·도와 재일동포 선수

단 등 10,378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전주와 군산, 이리 등에서 개최되었을 때 광주군 출신 선수 중 광주동중의 펜싱이 단체권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동부국교의 핸드볼이 3위를 차지하여 하여 광주체육의 면모를 보였다.

1985년 5월 22일부터 5일간 경주·포항 등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체전에서는 광주동중의 펜싱 선수들이 단체권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권에서 같은 학교의 이인수 선수가 2위를 했다. 또한 광주중의 복싱 선수 홍상표가 3위를 했으며 같은 학교의 씨름 선수단이 단체전 1위를 차지했다.

1986년 제15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광주국교의 씨름팀(박우철 외 3명)이 1위를 했으며 만선국교 유대성 선수가 육상 800m에서 3위를 했고 경화여중의 한은숙 선수가 육상 100m에서 3위로 입상했다.

1987년 제16회 소년체전에서는 광주국교의 배용학 선수가 육상 800m에서 1위를 차지했고 광일중의 주진근 선수가 투창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남한중의 유도팀(김대근·이효선 등)이 3위를 차지하여 경기도가 소년체전에서 1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다음해에 개최된 제17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발군의 육상 선수가 광주군 선수중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동부여중에 재학중이던 정영님은 육상 800m와 1,500m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여 그후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던 바 이는 한국육상계의 커다란 수확이었다. 또한 매곡국교의 김자섭 선수가 육상 100m에서 3위로 입상하였고 동부국교의 핸드볼팀(김남철, 김은성, 이웅범, 유재군, 강인구, 장성원, 이정현, 박원철, 황기현)이 2위로 입상하였다.

광주국교의 씨름팀(최남돈, 김길주 등)이 2위로 입상했고 광주동중의 펜싱팀(이종운, 김학내, 천영호, 윤영호, 조천식)이 단체전에서 2위를 차지했고 이종운 선수가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4. 廣州郡 體育會와 加盟團體

광주군체육회가 해방 이듬해에 이미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한 기록으로 미루어 군체육회의 조직은 해방과 더불어 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
'1963년 3월에 시·군체육회가 결성되었던 경기도체육회의 기록에 바탕을 두고 광주군체육회의 역대회장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제 1대	오호선	제 9대	이헌원
제 2대	김익룡	제10대	윤세달
제 3대	오건식	제11대	이승철
제 4대	이규선	제12대	임수복
제 5대	윤자무	제13대	정일귀
제 6대	이석봉	제14대	최병호
제 7대	황두영	제15대	권달혁
제 8대	김명식	제16대	김영빈

제17대　이동우

광주군체육회의 역대 회장은 군수가 겸임하고 있었으며 명실상부한 군체육회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제12대 임수복 회장때부터라고 볼수 있다.

1987년 현재 광주군체육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고　　문

오세응 : 국회의원

이대엽 : 국회의원

김영기 : 경안주유소대표

박양원 : 상공회의소소장

배수윤 : 이화전기대표

서립교 : 우림콘크리트대표

○ 회　　장 : 권달혁

부 회 장 : 정선용, 이용복, 김용원, 임현범

감　　사 : 김문섭, 김명수

○ 전무이사 : 남홍식

이　　사 : 배옥광, 박정수, 김태경, 서강원, 조부영, 이준형, 정선기, 이충일, 이영우, 김재길, 이강수, 배수근, 김학표, 이광석, 최혁상, 이용관, 이두행, 정하방, 홍영기, 김기상

대 의 원 : 구자관, 정용변, 한영수, 이세균, 박용옥, 김진국, 윤창섭, 백우현, 심상윤, 김영근, 이규문, 방영호

참　　여 : 유지현, 강창수, 이철재, 유홍렬, 유규오

위　　원 : 김영웅, 박찬상, 안병현, 방금만, 이병인, 최상기, 유병태, 백남오, 조광준, 이명진, 강영우

광주군체육회 산하 가명단체로는 광주군축구협회, 광주군테니스협회, 광주군태권도협회, 광주군사격연맹과 읍면 체육회로 중부면체육회가 있다.

〈광주군축구협회의 조직〉

○ 고　　문 : 이승철, 안윤희, 한성완, 홍용범, 정용면, 정의재

○ 회 장 단

회　　장 : 박용재

부 회 장 : 최병완, 이철재, 이광석

○ 감　　사 : 송기영, 안학균

〈광주군 테니스협회의 조직〉

○ 고　　문 : 임수복, 이경호, 이보현, 문덕성, 임종철, 김영기, 현태현, 유재설

○ 회 장 단

회　　장 : 정용면

부회장 : 안성균, 남재호

총무이사 : 안학균

재무이사 : 문학년, 조호진, 이종성, 이영우, 홍광성, 임희운, 구이모
간 사 : 송계일

〈광주군태권도협회의 조직〉

○ 회 장 : 이창희
부 회 장 : 서강선
전무이사 : 박춘일
이 사 : 송재석, 김응수, 이완섭, 김병남, 김진세, 심덕진
감 사 : 이충식

〈광주군사격연맹의 조직〉

○ 회 장 : 문희원
부 회 장 : 강신국, 이호종
감 사 : 정춘영, 김문섭
총무이사 : 이은관
상임이사 : 김홍년, 김유신, 최영남, 장홍순, 정청수
이 사 : 정찬호, 이응관, 김범열, 박관종, 오영진, 정영호

5. 제24회 서울올림픽 국민참여 운동

1985년 3월부터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범국민운동협의체가 발족되었다.

협의체의 명칭은 「범민족올림픽추진협의회」로 광주군에서도 많은 군민이 이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88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식을 선진화시킨 이 실천운동은 「스스로 참여하고 정성껏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발휘하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올림픽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국민운동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회 개최 여건 조성의 필요에 따라 개최국의 국민으로서 질서·청결·친절등 선진국민의식을 고양하고 범국민적 참여를 통해 개최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환경을 가꾸는 데 큰 공헌을 했으며 산업·문화·관광·스포츠의 제반 수준을 고도로 향상시켜 사회 각 분야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 성화가 봉송되는 봉송로가 아름다운 꽃길로 가꾸어졌고 도심의 악취가 제거되었으며 유통업소의 써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거리질서·교통질서·행락질서·경기장질서 등의 질서행동도 바로 잡혔다. 광주군에서 이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군민은 다음과 같다.

〈범민족 올림픽추진 광주협의회〉

○ 회 장 : 남재호
부회장 : 안병욱, 임희일, 이경자, 최상기
○ 운영위원 : 구이모, 이기현, 박용화 ,이종남, 박원걸, 임현오, 안홍근, 조광화, 이강필, 황호림